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이태진

김동진·곽윤경·이원진·우선희·김지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0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68-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04>

발|간|사

코로나19 팬데믹의 지난 2년여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팬데믹의 경험으로 달라진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인식은 바뀌었고,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2~3년까지 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지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 집단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취약해지고 일상 회복이 힘겨운 사회 계층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약 양상을 세심히 파악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사회갈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주기적인 선거 때마다 사회·경제·정치적 쟁점들을 둘러싸고 사회 각 집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선을 치른 2022년은 코로나19, 주택가격 불안정,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증세, 노사 갈등, 대북 관계 등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대선 전후의 사회통합과 갈등 수준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강화하는 민주적 공론장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영역의 사회통합 수준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사회통합 인식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신체정신적 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지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 인식 및 정책수용도 간의 관계를 가늠하고 향후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작년의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연구 주제를 지속하여 비교해 살펴보고 코로나19 장기화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사회경제적 및 신체정신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면접조사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이태진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는 김동진 연구위원, 곽윤경 부연구위원, 이원진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지원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진심 어린 지적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과 정해식 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또한 사회통합 포럼을 통해 많은 영감과 자극을 주신 건양대학교 최홍조 교수님, 대구대학교 김사현 교수님, 경기대학교 주은선 교수님, 그리고 원내 임택영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	27
제2절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30
제3절 코로나19 취약계층과 건강불평등	31
제4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영향요인	34
제3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정부대응 인식 변화	37
제1절 들어가며	39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41
제3절 사회통합 인식	50
제4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 인식	87
제5절 소결	100
제4장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105
제1절 들어가며	107
제2절 분석 방법	108
제3절 분석 결과	112
제4절 소결	142

제5장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정책 인식	145
제1절 들어가며	147
제2절 연구 방법	147
제3절 분석 결과	149
제4절 소결	173
 제6장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	175
제1절 들어가며	177
제2절 연구 방법	178
제3절 분석 결과	182
제4절 소결	20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7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209
제2절 정책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록	229
[부록 1]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설계	229
[부록 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45
[부록 3]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분석	26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2014~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17
〈표 1-2〉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1
〈표 1-3〉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내용	21
〈표 3-1〉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	39
〈표 3-2〉 행복도	43
〈표 3-3〉 삶의 만족도	46
〈표 3-4〉 우울감	48
〈표 3-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51
〈표 3-6〉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54
〈표 3-7〉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57
〈표 3-8〉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60
〈표 3-9〉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62
〈표 3-10〉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64
〈표 3-11〉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67
〈표 3-12〉 아플 때 도움 줄받을 사람 유무	70
〈표 3-13〉 큰돈을 빌려줄릴 사람 유무	72
〈표 3-14〉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74
〈표 3-15〉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77
〈표 3-16〉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79
〈표 3-17〉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81
〈표 3-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83
〈표 3-19〉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85
〈표 3-20〉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	88
〈표 3-21〉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가구 경제 및 사회 신뢰	89
〈표 3-22〉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가족 및 친구·동료 관계	90
〈표 3-23〉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경제적 수준 및 불평등	91
〈표 3-24〉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시민의식과 사회의 질	92
〈표 3-25〉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적절성 인식	93
〈표 3-26〉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	94
〈표 3-27〉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중복응답)	96
〈표 3-28〉 감세 및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	97
〈표 3-29〉 복지확대와 복지에산 부담에 대한 의견	99



〈표 4-1〉 주요 변수군	108
〈표 4-2〉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변수	109
〈표 4-3〉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변수	109
〈표 4-4〉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변수	110
〈표 4-5〉 사회통합 인식 변수	110
〈표 4-6〉 복지정책 인식 변수	111
〈표 4-7〉 연구 문제	111
〈표 4-8〉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113
〈표 4-9〉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정도	114
〈표 4-10〉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지속기간	115
〈표 4-11〉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이유	116
〈표 4-12〉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118
〈표 4-13〉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119
〈표 4-1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로짓 분석	120
〈표 4-15〉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123
〈표 4-16〉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 유형	124
〈표 4-17〉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125
〈표 4-18〉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126
〈표 4-19〉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로짓 분석	129
〈표 4-20〉 사회통합 인식	130
〈표 4-21〉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회귀 분석	133
〈표 4-22〉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1	137
〈표 4-23〉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2	138
〈표 4-24〉 조세 및 복지정책 방향 관련 의견에 대한 회귀 분석	139
〈표 4-25〉 복지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회귀 분석	140
〈표 5-1〉 코로나19 건강영향 관련 주요 조사 내용	148
〈표 5-2〉 취약계층 정의	149
〈표 5-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관적 건강(self rated health) 상태 변화	150
〈표 5-4〉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상태 변화: 우울감	151
〈표 5-5〉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상태 변화: 스트레스	152
〈표 5-6〉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흡연	153



〈표 5-7〉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음주	154
〈표 5-8〉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신체활동	155
〈표 5-9〉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체중	156
〈표 5-10〉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외식이나 매식	157
〈표 5-11〉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수면시간	158
〈표 5-12〉 인구집단별 코로나19 확진 경험	159
〈표 5-1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주요 피해(1순위)	160
〈표 5-14〉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	161
〈표 5-15〉 인구집단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162
〈표 5-16〉 인구집단별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피해 심각성	163
〈표 5-17〉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의료적 방역 조치	164
〈표 5-18〉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정보제공	165
〈표 5-19〉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충분성	166
〈표 5-20〉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해도	167
〈표 5-21〉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사회적 방역 조치	168
〈표 5-22〉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사회경제정책	169
〈표 5-2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 정도	170
〈표 5-24〉 인구집단별 일상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171
〈표 5-25〉 인구집단별 보건의료정책 순응도	172
〈표 6-1〉 활용 변수 I	179
〈표 6-2〉 활용 변수 II	180
〈표 6-3〉 활용 변수 III	181
〈표 6-4〉 활용 변수 IV	182
〈표 6-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	185
〈표 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크기	188
〈표 6-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	191
〈표 6-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 지원 사람 유무 및 명수	196
〈표 6-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 지원유형	197
〈표 6-10〉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198
〈표 6-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정책에 대한 태도	201
〈표 6-12〉 전체 응답자의 영향요인 비교	204
〈표 6-13〉 코로나19 기간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집단의 영향요인 비교	205

그림 목차

[그림 2-1]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29
[그림 2-2]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요인	29
[그림 2-3] 아이 돌봄의 어려움	29
[그림 2-4] 각 주체별 취약계층 유형	32
[그림 3-1] 행복도	44
[그림 3-2] 삶의 만족도	47
[그림 3-3] 우울감	49
[그림 3-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52
[그림 3-5]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55
[그림 3-6]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58
[그림 3-7]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61
[그림 3-8]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63
[그림 3-9]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65
[그림 3-10]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68
[그림 3-11] 아플 때 도움 출반을 사람 유무	71
[그림 3-12] 큰돈을 빌려줄릴 사람 유무	73
[그림 3-13]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75
[그림 3-14]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78
[그림 3-1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80
[그림 3-16]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82
[그림 3-1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84
[그림 3-18]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86
[그림 3-19] 2014년 이후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03
[그림 4-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122
[그림 4-2]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127
[그림 4-3]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127
[그림 4-4] 사회통합 인식	132
[그림 6-1] 사회적 지지 비교	183
[그림 6-2] 정서적 지지 비교	184
[그림 6-3] 사회관계망 유무	186
[그림 6-4] 사회관계망 크기	187



[그림 6-5] 상황별 도움 요청자	189
[그림 6-6]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	190
[그림 6-7]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	192
[그림 6-8]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	192
[그림 6-9]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갈등 인식	193
[그림 6-10]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194
[그림 6-11] 돌봄 취약 집단 인식	195
[그림 6-12] 사회적 지지 수준별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어려움	199
[그림 6-13] 돌봄 정책에 대한 태도	200
[그림 6-14] 사회적 지지 수준별 돌봄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	202
[그림 6-15] 돌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인식	202

부표 목차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230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231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231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232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234
〈부표 1-6〉 표본 규모 산정	237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비례배분	239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제곱근 비례	240
〈부표 1-9〉 표본 집계구 배분: 네이만배분	241
〈부표 3-1〉 행복도	267
〈부표 3-2〉 우울 정도	268
〈부표 3-3〉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69
〈부표 3-4〉 사회신뢰도	270
〈부표 3-5〉 사회신뢰도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71
〈부표 3-6〉 사회신뢰도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72
〈부표 3-7〉 사회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273
〈부표 3-8〉 경제적 양극화 인식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74
〈부표 3-9〉 경제적 양극화 인식 (2)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275
〈부표 3-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76
〈부표 3-11〉 경제적 양극화 인식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277
〈부표 3-12〉 경제적 양극화 인식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78
〈부표 3-13〉 사회봉사 참여 (1) 자원봉사	279
〈부표 3-14〉 사회봉사 참여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280
〈부표 3-15〉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81
〈부표 3-16〉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도	282
〈부표 3-17〉 한국 사회 인식 (1) 차별 소외 VS 배려 포용	283
〈부표 3-18〉 한국 사회 인식 (2) 의심 VS 신뢰	284
〈부표 3-19〉 한국 사회 인식 (3) 침체 VS 활력	285
〈부표 3-20〉 한국 사회 인식 (4) 불안 VS 희망	286
〈부표 3-21〉 한국 사회 인식 (5) 갈등 VS 이해	287



〈부표 3-22〉 지난 10년간 가구 생활수준 변화	288
〈부표 3-23〉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289
〈부표 3-24〉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290
〈부표 3-25〉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	291
〈부표 3-26〉 집단 간 갈등 정도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92
〈부표 3-27〉 집단 간 갈등 정도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93
〈부표 3-28〉 집단 간 갈등 정도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294
〈부표 3-29〉 집단 간 갈등 정도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95
〈부표 3-30〉 집단 간 갈등 정도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296
〈부표 3-31〉 집단 간 갈등 정도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297
〈부표 3-32〉 집단 간 갈등 정도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298
〈부표 3-33〉 집단 간 갈등 정도 (8) 지역 간의 갈등	299
〈부표 3-34〉 집단 간 갈등 정도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300
〈부표 3-35〉 집단 간 갈등 정도 (10) 다문화 갈등	301
〈부표 3-36〉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302
〈부표 3-37〉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정도	303
〈부표 3-38〉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지속 기간	304
〈부표 3-39〉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이유	305
〈부표 3-40〉 경제적 어려움 (1) 코로나 이전 1년_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	306
〈부표 3-41〉 경제적 어려움 (2) 코로나 이전 1년_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307
〈부표 3-42〉 경제적 어려움 (3) 코로나 이전 1년_집세가 밀린 적이 있다	308
〈부표 3-43〉 경제적 어려움 (4) 코로나 이전 1년_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309
〈부표 3-44〉 경제적 어려움 (5) 코로나 이전 1년_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310
〈부표 3-45〉 경제적 어려움 (1) 코로나 이후_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311
〈부표 3-46〉 경제적 어려움 (2) 코로나 이후_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312
〈부표 3-47〉 경제적 어려움 (3) 코로나 이후_집세가 밀린 적이 있다	313
〈부표 3-48〉 경제적 어려움 (4) 코로나 이후_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314
〈부표 3-49〉 경제적 어려움 (5) 코로나 이후_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315
〈부표 3-5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상충	316



〈부표 3-5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중간층	317
〈부표 3-5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하층	318
〈부표 3-5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남성	319
〈부표 3-5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여성	320
〈부표 3-5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청년	321
〈부표 3-5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중장년층	322
〈부표 3-57〉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노년층	323
〈부표 3-5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상용직 임금근로자	324
〈부표 3-5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5
〈부표 3-6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고용주	326
〈부표 3-6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4) 1인 자영업자	327
〈부표 3-6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5) 무직자	328
〈부표 3-63〉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전 국민 대상 제외)	329
〈부표 3-64〉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1순위	330
〈부표 3-65〉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2순위	331
〈부표 3-66〉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3순위	332
〈부표 3-67〉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1+2+3순위	333
〈부표 3-68〉 지급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334
〈부표 3-69〉 본인의 가구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	335
〈부표 3-70〉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	336
〈부표 3-71〉 전반적 건강상태	337
〈부표 3-72〉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상태 변화	338
〈부표 3-73〉 최근 1년간 우울 경험	339
〈부표 3-74〉 스트레스 정도	340
〈부표 3-75〉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 변화 (1) 일상에 지장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341
〈부표 3-76〉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 변화 (2)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342
〈부표 3-77〉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1) 흡연량 혹은 빈도	343
〈부표 3-78〉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2) 음주량 혹은 빈도	344
〈부표 3-79〉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3) 신체활동	345
〈부표 3-80〉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4) 체중	346
〈부표 3-81〉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5) 외식, 매식	347



〈부표 3-82〉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6) 수면시간	348
〈부표 3-83〉 코로나19로 건강에 가장 타격을 입은 집단(복수응답)	349
〈부표 3-84〉 가구원 중 코로나19 확진 경험	350
〈부표 3-85〉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1순위	351
〈부표 3-86〉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2순위	352
〈부표 3-87〉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1+2순위	353
〈부표 3-88〉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정도	354
〈부표 3-89〉 향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355
〈부표 3-90〉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지금과 비교한 피해 상황	356
〈부표 3-91〉 사회적지지	357
〈부표 3-92〉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358
〈부표 3-93〉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359
〈부표 3-94〉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60
〈부표 3-95〉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361
〈부표 3-96〉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362
〈부표 3-97〉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63
〈부표 3-98〉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364
〈부표 3-99〉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365
〈부표 3-100〉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66
〈부표 3-101〉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367
〈부표 3-10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1) 혼자 있는 시간	368
〈부표 3-103〉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2) 가족, 친척들과의 교류	369
〈부표 3-104〉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370
〈부표 3-105〉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교류	371

〈부표 3-106〉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	372
〈부표 3-1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1순위	373
〈부표 3-10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2순위	374
〈부표 3-10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1+2순위	375
〈부표 3-110〉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	376
〈부표 3-11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 여부	377
〈부표 3-11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 수	378
〈부표 3-1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복수응답)	379
〈부표 3-1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1)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압박이 더욱 늘어났다	380
〈부표 3-11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2)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	381
〈부표 3-11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3) 자녀 돌봄을 위해 이른 시간 퇴근함에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382
〈부표 3-1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4)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383
〈부표 3-11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5)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졌다	384
〈부표 3-11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돌봄 문제 (6) 자녀 돌봄으로 신체적 건강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385
〈부표 3-120〉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386
〈부표 3-121〉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387
〈부표 3-122〉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3) 정부의 사회적 방역 조치	388
〈부표 3-123〉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4)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389
〈부표 3-124〉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390
〈부표 3-125〉 코로나19 정보 이해하기 쉬운 정도	391
〈부표 3-126〉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 정도	392
〈부표 3-12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1) 가구 경제 상황	393
〈부표 3-128〉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2) 가족관계	394



〈부표 3-129〉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395
〈부표 3-130〉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396
〈부표 3-131〉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5) 경제적 수준	397
〈부표 3-132〉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6) 불평등, 양극화	398
〈부표 3-133〉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7) 시민의식	399
〈부표 3-134〉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8)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400
〈부표 3-135〉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점 정책(복수응답)	401
〈부표 3-136〉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1) 빈곤층 생활비 지원	402
〈부표 3-137〉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2) 은퇴한 노인의 노후소득 지원	403
〈부표 3-138〉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3)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가난한 노인의 생활비 지원	404
〈부표 3-139〉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4) 전체 아동의 양육 지원	405
〈부표 3-140〉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지원	406
〈부표 3-141〉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6) 청년의 생활비, 구직·교육·훈련비용 지원	407
〈부표 3-142〉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7)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	408
〈부표 3-143〉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8)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지원	409
〈부표 3-144〉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9)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	410
〈부표 3-145〉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10) 아동이 있는 취업자의 육아휴직 지원	411
〈부표 3-146〉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1)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 시설과 서비스 확대	412
〈부표 3-147〉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2) 부모 직접 돌봄 휴가·휴직 등 확대	413
〈부표 3-148〉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3)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및 공감대 조성	414
〈부표 3-149〉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4) 가족 돌봄 유급 휴가 보장 및 휴가일 수 확대	415
〈부표 3-150〉 보건의료 정책 찬반 (1)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416
〈부표 3-151〉 보건의료 정책 찬반 (2)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417
〈부표 3-152〉 보건의료 정책 찬반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418
〈부표 3-153〉 보건의료 정책 찬반 (4)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강화	419
〈부표 3-154〉 보건의료 정책 찬반 (5) 우울,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20
〈부표 3-155〉 보건의료 정책 찬반 (6)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421
〈부표 3-156〉 보건의료 정책 찬반 (7)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422
〈부표 3-157〉 복지 관련 의견 (1)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423



〈부표 3-158〉 복지 관련 의견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424
〈부표 3-159〉 복지 관련 의견 (3)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425
〈부표 3-160〉 복지 관련 의견 (4)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426
〈부표 3-161〉 복지 관련 의견 (5)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427
〈부표 3-162〉 계층별 세금 수준 (1) 고소득층	428
〈부표 3-163〉 계층별 세금 수준 (2) 중소득층	429
〈부표 3-164〉 계층별 세금 수준 (3) 저소득층	430
〈부표 3-165〉 계층별 세금 수준 (4) 고자산층	431
〈부표 3-166〉 계층별 세금 수준 (5) 중자산층	432
〈부표 3-167〉 계층별 세금 수준 (6) 저자산층	433
〈부표 3-168〉 복지예산 관련 인식 (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434
〈부표 3-169〉 복지예산 관련 인식 (2)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435
〈부표 3-170〉 복지예산 관련 인식 (3)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436
〈부표 3-171〉 복지예산 관련 인식 (4)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437



Abstract

A Study on Assessment of Social Cohesion Status with Policy Implications(IX) : Policy Direction for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Project Head: Lee, Taejin

This report analyzes the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after COVID-19, economic shock, inequality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hanges in social support caused by COVID-19, and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social integration and policy acceptance. This ha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uture stability and integ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ocial survey on the impact of COVID-19 and social integr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2020, when Corona 19 was in full swing,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creased, and depression generally decreased. However, it appears that the psychological state of being able to live a stable and safe life as a member of society, such as social integration, trust, support, and fairness, has deteriorated.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and when daily life was completely restored, the 60s/70s, the unemployed, and the low-income group still expect negative changes, unlike the overall trend in 2022, regarding changes in the household economic situation. In trust change, only the unemployed expected a negative chang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shock of COVID-19 was quite large, and the economic shock was relatively large for temporary workers, daily workers, special employment workers, employers/self-employed peo-

ple, and low-income workers. In the case of this group, the probability of applying for those who have experienced a decrease in earned income due to government support related to COVID-19 is relatively high, so it is judged that government support related to COVID-19 has achieved half succes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among the groups that suffered economic damage from COVID-19 was relatively low, suggesting that the economic shock of COVID-19 may have weakened social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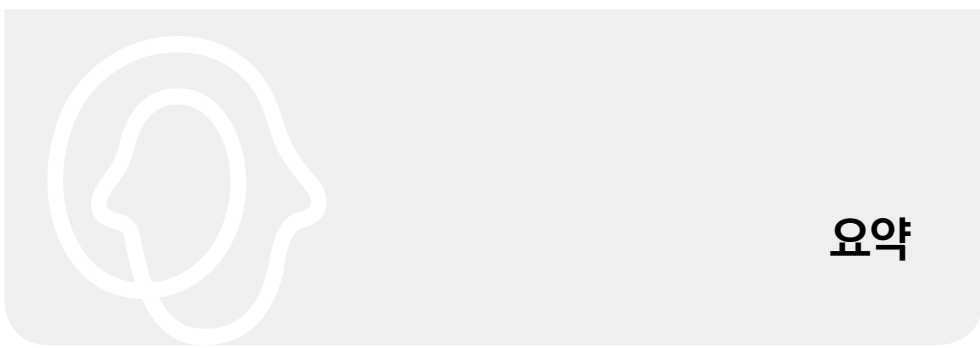
Third, compared to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proportion of those who responded that their health had deteriorated was high in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group also showed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said their feelings of depression increased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response that smoking has increased, the response that drinking has increased, and the response that sleep time has decreased were all more common in the vulnerable group. The response that they have not yet recovered to the pre-COVID-19 level also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the vulnerable group, implying that more time and detail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needed to recover daily life.

Finally, 41.6%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pent more time alone in rela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ter COVID-19. On the other hand, 67.5% and 61.7% of respondents said that their interaction with close friends or people and their interaction with family and relatives had decreased. In addition, necessary support services related to welfare, life-related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s(48.7%) and cultural welfare services for daily sports, leisure life, and hobby support(46.1%) were found. In addition, social support was commonly identified as an influencing factor on social integra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mass production of the vulnerable due to the pandemic and for seeking policy

responses to i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pan-society policy direction that can re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support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publicity must be emphasized.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y direction and response to COVID-19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concept of equity into social policies for recovery from COVID-19.

Keyword : social integration, Post-COVID-19, economic shock, health inequality, social support, welfare policy response awareness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취약집단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취약해지고 일상 회복이 힘겨운 사회 계층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사회경제적 및 신체정신적 영향을 탐색해보고 이들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 충격, 신체정신적 건강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인식, 정책 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적 연구 방법은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인식, 경제·건강·지지망 측면의 취약 정도 등의 변화, 정부의 정책 대응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사회조사(‘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이다.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70일 동안 수행되었으며,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 방식으로 총 3,944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영역임을 확인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의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해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건강불평등, 사회적 지지와 영향요인 등 본 연구의 심층 분석에서 전개될 각 사항에 대해 선행연구 및 관련 조사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을 일반 국민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취약성 개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인식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 받은 경제적 충격을 알아보고, 긴급재난금 등 새롭게 등장한 정책의 효과 등 새로운 복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는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영향 외에도 소득과 주거 수준의 변화,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단절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험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건강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론 및 취약계층과 건강불평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최근의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교류가 감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회의 일부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돌봄, 그리고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코로나19가 끼친 영향 중 충분히 관심을 두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3.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정부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제3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2014~2022년) 문항 중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등의 공통 문항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역별로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지지, 형평성 인식 등이며, 전체,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로 추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인식 변화의 주요 분석 결과로, 첫째,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에 비해서 삶의 주관적 행복도는 대체로 좋아졌다.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으며 우울감은 대체로 하강하였다. 둘째, 국가의 복지정책 역할에 대한 인정과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격차가 정책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셋째,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계층 간 응답 경향이 더욱 뚜렷이 발견된다. 즉, 젊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상위일수록 일치된 양상이 나타나고 해가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

다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분석 결과, 첫째, 2021년에 비해 향후 대체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희망적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방역조치, 정보 제공, 사회경제 정책 모두 적절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에 대한 전망만큼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넷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답변은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계층과 거의 무관하게 유사한 답변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의 필요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조,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제4장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클수록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충격의 강도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대체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음, 대다수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9.9%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지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수용도가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대체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을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복지예산을 더 부담하는 데 동의하였다. 셋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사회통합 인식, 소득보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복지예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이는 보편적 복지 확대만이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을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정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정책 인식

제5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공중보건위기 상황으로 인한 건강영향과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건강정책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신체건강취약(주관적 건강 나쁨 인식), 정신건강취약(일정 기간 절망감 경험자), 사회적 취약(사회적 지지 수준 보통 이하), 경제적 취약(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면서 코로나 이후 소득감소 경험자)으로 나누고, 주요 문항에 대해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취약집단에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취약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일상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평소 실천하던 건강행태에 대한 변화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흡연이 늘었다는 응답, 음주가 더 늘었다는 응답,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모두 취약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 또한 사회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 중 취약계층들이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정도가 사회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정부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 이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중 7.51%는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는 정신건강취약계층(10.80%)과 사회적 취약계층(14.06%)에서 정책순응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정책 내에서 형평성 렌즈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6.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의 돌봄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함의점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 대해 조망한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 즉 평소에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정도도 감소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6%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가족 및 친척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67.5%, 61.7%로 상당히 높았다. 온라인, SNS로 알게 된 사람과의 교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48.7%)와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46.1%)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와 돌봄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기간(2020년 2월~2022년 3월 기준)에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기타 취약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영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의 어려움을 일터와 가족 내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일터에서는,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에서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모든 유형의 돌봄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자의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에서 공통으로,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그리고 학력이 공통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인식에는 정서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하며, 상담서비스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공적 돌봄체계가 확대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상 분석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정책적 함의와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서술하였다.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의 필요성, 둘째,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조,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강화,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복지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 다섯째,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해 사회정책 내에 형평성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 마지막으로, 공적 돌봄체계 인프라와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취약층의 양산과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의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메가트렌드(megatrends)인지,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특별한 변화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시적 분석을 함께 다루지 못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주요 용어 : 사회통합,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 건강불평등, 사회적지지, 복지정책 대응 인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발할 때마다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사회통합과 정치·경제적 갈등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의 총량 면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등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비록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1.0%)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선방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3년까지 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직격탄을 맞은 집단인 영세 자영자, 특수고용 노동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향후 더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여유진(2021)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하락했으며, 우울감은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직종별로 자영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자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2020년과 2021년 기간에 급격히 치솟은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도도 높아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와 사회통합 인식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모든 영역에서 갈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았다. 계층, 이념,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70%가 넘는 국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사회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각 연도). 특히, 주기적인 선거 때마다 사회·경제·정치적 쟁점들을 둘러싸고 사회 각 집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선을 치른 2022년은 코로나19, 주택가격 상승,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증세, 노사 갈등, 대북 관계 등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의 쟁점화 자체보다 그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공론장의 확대는 사회통합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쟁점화 방식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시민적 성숙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대선 전후의 사회통합과 갈등 수준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강화하는 민주적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사회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영역의 사회통합 수준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통합,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행복과 삶의 질 등 우리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일관된 연간 데이터 생산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선도적으로 2010년부터 삶의질연구센터(구 사회통합센터)를 설치하여, 2014년부터는 체계적인 관련 조사와 영향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간 단위의 주기적인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와 ‘사회통합 포럼’ 운영을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달라진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취약집단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취약해지고 일상 회복이 힘겨운 사회 계층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사회경제적 및 신체정신적 영향을 탐색해보고 이들과 사회통

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 충격, 신체정신적 건강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인식, 정책 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하로 매년 수행되는 일반과제로, 지금까지의 연차별 연구 주제와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행복, 사회이동, 사회통합 인식, 사회심리적 불안, 사회갈등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으며, 코로나19 이듬해인 작년 2021년 연구는 코로나19 경험과 위험인식, 사회통합 수준, 신뢰차별 인식 변화, 위기 대응력,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등 불안정성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국가의 대응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2022년 올해 연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지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2014~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년차 (2014)	- 연구 목적: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과 행복 수준의 결정요인 규명,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분석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상태 진단 -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 행복의 개념 및 수준 • 가구 유형별, 개인 특성별 행복 수준 - 행복의 결정요인

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2년차 (2015)	- 연구목적: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 - 교육성취와 사회이동 -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 사회이동 수준 국제비교 • 직업계층 이동 국제비교 분석 및 결과 • 사회이동 수준 비교의 함의
3년차 (2016)	- 연구목적: 사회통합 국민인식 구조를 갈등 인식과 박탈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사회통합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4년차 (2017)	- 연구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불안, 불신, 불만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 증진의 단초 마련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검토 •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5년차 (2018)	- 연구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함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 사회계층에 따른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6년차 (2019)	- 연구목적: 사회통합 실태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시도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및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및 국민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이동성의 상태 진단 및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7년차 (2020)	- 연구목적: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 보고,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이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조망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 사회이동 인식의 결정요인 -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8년차 (2021)	- 연구목적: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코로나19) 경험, 사회통합 인식, 정신건강 영향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 코로나19 전후 위험 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9년차 (2022)	- 연구목적: 국민들의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적 충격, 건강불평등,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인식, 복지정책 대응 인식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 정부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건강정책 인식 -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

이 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은 제2장은 전반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개인에게 어떻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코로나19와 건강취약계층과 건강불평등, 코로나19 사회적 지지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향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코로나19와 경제 및 건강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 사회적 지지 등과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통합 인식 등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를 2014년부터 살펴보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 전후의 사회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의 문항 중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을 추출하여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 제4장부터 제6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장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과 사회통합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수준의 사회계층 간 격차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

시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건의로 정책에 대한 순응도의 사회계층 간 격차 분석을 통해 향후 건강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소통의 감소가 개인의 사회적 지지수준과 양상, 그리고 자녀 돌봄에 미친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경제·건강·심리적 충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 2022년 현재 일상 회복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은 개인의 사회통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험이 닥쳐왔을 때 경제·건강·심리적 취약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이들의 사회통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해 코로나19가 경제·건강·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문헌검토,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문가 포럼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의 불평등한 영향,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의 배경 및 현실을 살펴보고, 코로나19가 미친 경제·건강·심리적 영향과 사회통합 인식 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문헌 검토를 실행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70일 동안 수행되었으며,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면접 방식으로 총 3,944명을 조사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 만 75세 이하 남·녀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2003년 5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5세 이하(1946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빠른 생일자)
표본크기	전국 499개 집계구(지역) 내 3,944가구 (3,944명)
표본추출	집계구 활용 조사 - 2020년 집계구 -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 상세한 표본추출 내용은 표본설계보고서 참조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2022년 6월 18일 ~ 8월 30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또한 올해 조사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매년 수행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사회통합 관련 조사의 주제는 ‘행복’, ‘사회이동’, ‘사회문제’, ‘사회갈등’, ‘사회이동2’, ‘코로나19’ 등으로 수행되었으나, 신뢰, 사회적 지지, 형평성, 행복,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통합 인식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3〉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지속)	성별 / 나이 / 가구원 수(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수, 실업자 수) / 가구주와 관계 / 교육수준 / 혼인상태
	현재 경제활동 / 코로나 이전 경제활동
	직업 / 고용형태 / 주관적 일자리 지위 / 사회보험 가입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지속)	어제 행복 / 어제 우울 /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 / 우리 사회 신뢰 / 사회구성원 신뢰
	한국 사회 소득격차 큼, 정부책임 등 동의 정도
	자원봉사와 기부 정도 / 이념적 성향/ 한국 국민임의 자랑스러움 / 주관적 소득계층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 우리 사회 사회통합 정도 / 우리 사회 차별, 의심, 침체, 불안, 갈등 등에 대한 평가
	지난 10년 가구 생활수준
	우리 사회 노력에 따른 경제적 지위 높아질 가능성 / 자식세대 변화 가능성 / 우리나라 갈등 정도 / 집단들 간 갈등 정도
	학력 등 대우의 주관적 공정성 정도 / 교육 기회 등 우리 사회의 평등 정도

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조사표 영역	조사 내용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21년, 일부 추가)	지난 3개월 소득 / 코로나 이후 소득감소 경험, 감소 정도, 감소 기간 / 감소 이유
	코로나 이전과 이후 경제적 어려운 경험들 유무
	코로나 경제적 충격 집단에 대한 인식(소득, 성별, 세대, 종사상 지위)
	코로나 정부 지원금 받음-종류- 만족도, 받지 않음-타당성 정도 / 지원금 지급방식
코로나 이후 정신적·신체적 건강수준 (21년, 일부 추가)	평소 건강상태 / 코로나 이전 비교
	최근 1년 우울 정도 / 평소 스트레스 정도 / 코로나 영향 정신건강 변화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건강생활 실천 변화
	코로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타격을 입은 집단에 대한 인식
	코로나 확진 경험(본인이나 가족) - 피해 종류- 피해 정도/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코로나 이후 사회적 지지 (일부 지속, 신규)	평소 사회적 지지 인지 정도 / 지지망 크기 / 도움 청할 상황별 대상 유형
	코로나 영향으로 다양한 교류들의 변화
	사회적 연대 약화로 등의 대응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코로나 영향으로 돌봄 취약한 집단 인식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 돌봄 지원 경험 유무-몇 명-누구
	코로나 영향 돌봄으로 일터와 가족 내에서의 변화를 경험 유무
정부의 코로나 대응 향후 지원방향 (신규)	중앙정부의 조치들(의료적 방역 정보제공, 거리두기, 경제정책) 적절성 평가
	코로나 정보제공 충분성 / 가독성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일상 회복 정도/ 코로나 이전과 향후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하여 본인과 사회의 변화 기대 정도(본인의 삶, 사회)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우선 정책
	소득보장정책들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아동이 있는 가구를 위한 정책(서비스)들의 확대 정도
	보건의료정책들 찬성 정도
	복지 인식 및 태도(정책 인식, 세금수준, 복지예산 등)
가구의 경제상태 (지속)	재산과 부채 규모/ 주택유형, 점유형태/ 지난 3개월의 총 가구소득
	주소득자의 소득 단절의 경우 공적·사적 지원 없이 가계 유지 정도

마지막으로, 사회통합포럼을 통해 사회통합 관련 이슈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총2회에 걸쳐 포럼을 운영하였다. 제27차 사회통합포럼은 5월 11일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 사람 중심 관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 못지않게 그 대응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였다. 제28차 포럼은 11월 2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인식: 코로나19의 사회적 지지 변화와 경제적 충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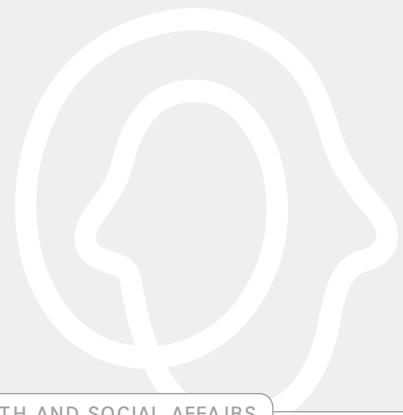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의 경제·건강·심리적 충격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함에도 조사와 분석에서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제3장에서 코로나19 경험의 시간적 변화와 사회통합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인 작년 2021년도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2014년부터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조사 결과가 누락된 점은 연구의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20년도 사회통합실태 조사가 대면조사 대신 온라인 조사(웹과 모바일 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도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로 제한되어 기존 조사 및 2021년의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대면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사회통합 인식과 정부의 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용도 간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해둔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 및 미지원 수용도와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가 관찰된 것은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제5장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조사 문항의 설계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각 장에서 유사한 변수가 분석에서 활용되었는데, 변수의 코딩 방식도 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분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

제2절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제3절 코로나19 취약계층과 건강불평등

제4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영향요인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취약성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제도적 신뢰, 제도의 정당성, 개방성, 참여, 대인 간 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의 밀도를 거론한다. 사회통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영역이다(여유진, 2021). 김미곤(2020)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사회정책 방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누적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에 다른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실제로 ‘코로나 디바이드(Coroba Divid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IT, 바이오, 유통 등의 산업 분야는 상당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대면서비스 중심의 전통 제조업, 중소기업, 소매업 등은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한 자영업 붕괴,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부문 간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20.12.21).

이렇듯 코로나19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인간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 저숙련 서비스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보건 의료 측면에서는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자원의 제약과 도시근로자 가구들이 직면한 돌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계층 간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준 외,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부요인으로서의 위해(Hazard)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이 결합하여 재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취약성은 재난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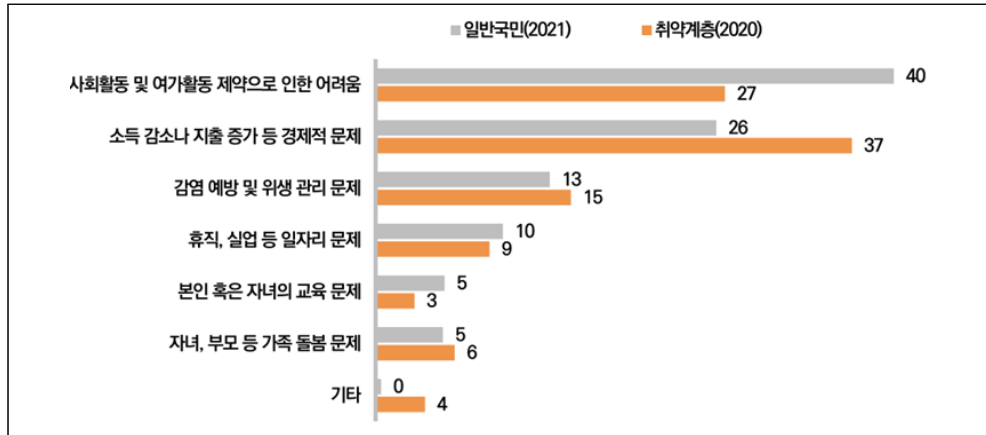
제를 확장시키고 복원력을 좌우하는 요건이다. 취약성에는 잠재적 요인, 변동요인, 위험조건이 포함된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빈곤, 질병, 성, 연령, 장애, 사회불평등 등이 속한다. 변동요인은 공공시설이나 지역투자의 부족, 인구변화, 도시화 등 거시적 추세를 의미하고, 위험요인은 물리적 환경, 취약한 지역경제 등을 의미한다(김창보, 2021).

코로나19는 사회제도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피해가 확산하면서 불평등을 더 확대시켰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조치로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이는 교육격차, 건강악화, 돌봄공백 등의 피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는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불평등의 누적, 차별 심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며 위험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그뿐 아니라 필수 의료서비스까지 중단해야 할 만큼 의료계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자원 할당에서도 불균등 문제가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로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인권과 기본권 침해 등 인간안보에 관한 문제로 확산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 미친 영향을 일반국민과 비교한 결과(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021.11.10.)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은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제약(40%)이, 취약계층은 소득감소나 지출 증가 등 경제적 문제(37%)가 가장 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아이 돌봄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을 보면, 일반국민은 57%이나, 취약계층은 무려 84%로, 해당 연령대 자녀가 있는 가구 대부분이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및 불안은 공통적으로 경험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사회적 고립감(35%), 취약계층은 건강염려(44%)로 서로 달랐다. 이는 취약계층 내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은 탓도 있겠지만, 일반국민은 사회적·관계적 측면, 취약계층은 생활과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2-1]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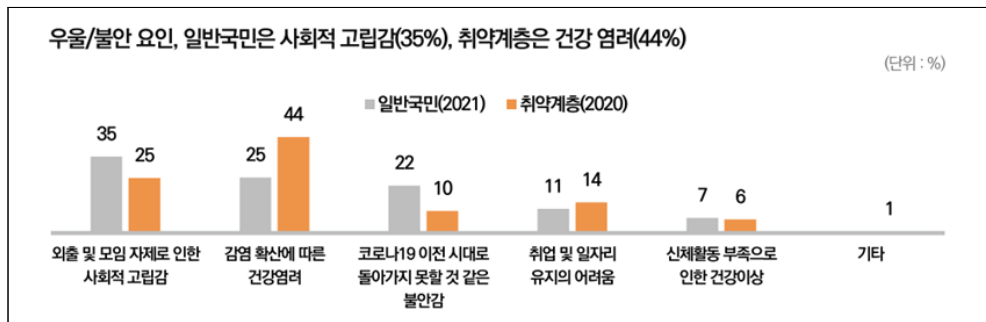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취약계층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간이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리서치(2021).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일반 국민과의 비교 연구.

[그림 2-2]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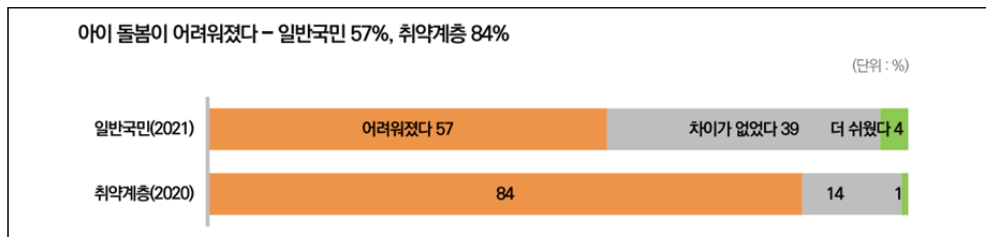


주: 1) '우울/불안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취약계층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간이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리서치(2021).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일반 국민과의 비교 연구.

[그림 2-3] 아이 돌봄의 어려움



주: 1) '귀하는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취약계층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간이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리서치(2021).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일반 국민과의 비교 연구.

제2절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동시장과 가계의 소득·소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이종관(2020, pp. 4-5)은 합성대조방법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취업자 규모 추이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취업자 규모 변화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과 9월에 각각 108만 개,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라진 일자리는 주로 지역서비스 일자리였으나, 제조업에서도 2020년 9월까지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종관, 2020, pp. 5-6). 이와 같은 노동시장 충격은 가계의 소득 충격으로 이어졌다. 여유진 외(2021a, p. 256)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확산 직후 2020년 2분기에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과 이들의 근로·사업소득 평균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런데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 감소세는 대체로 2020년 3분기에 접어들면서 회복되었지만,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세는 2020년 3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유진 외, 2021a, p. 257). 이는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결과,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2020년 2분기~3분기에 시장소득 불평등 및 빈곤이 크게 악화하였다(여유진 외, 2021a, p. 226). 또한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승호, 홍민기, 2021).

그동안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재난지원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주로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김미루, 오윤해(2020)가 카드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감소한 가계 소비를 회복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긴급재난지원으로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0조 원, 투입 재원의 26.2~36.1%로 추정되었다(김미루, 오윤해, 2020, p. 4). 이승호, 홍민기(2021)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증가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2022)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긴급재난지원의 2020년 2분기~3분기 한계소비성향을 0.654~0.782로 추정하였다. 즉, 긴급재난지원 효과의 크기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되었지만, 긴급재난지원이 가계소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악화된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켜 소득분배를 개선하였다는 사실도 관찰되었다(여유진 외, 2021a, pp. 267-269).

한편, 긴급재난지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소득·소비 충격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문진영, 유미선(2021)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전국 성인 대상 온라인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이례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적이전이 정책효능감을 제고하여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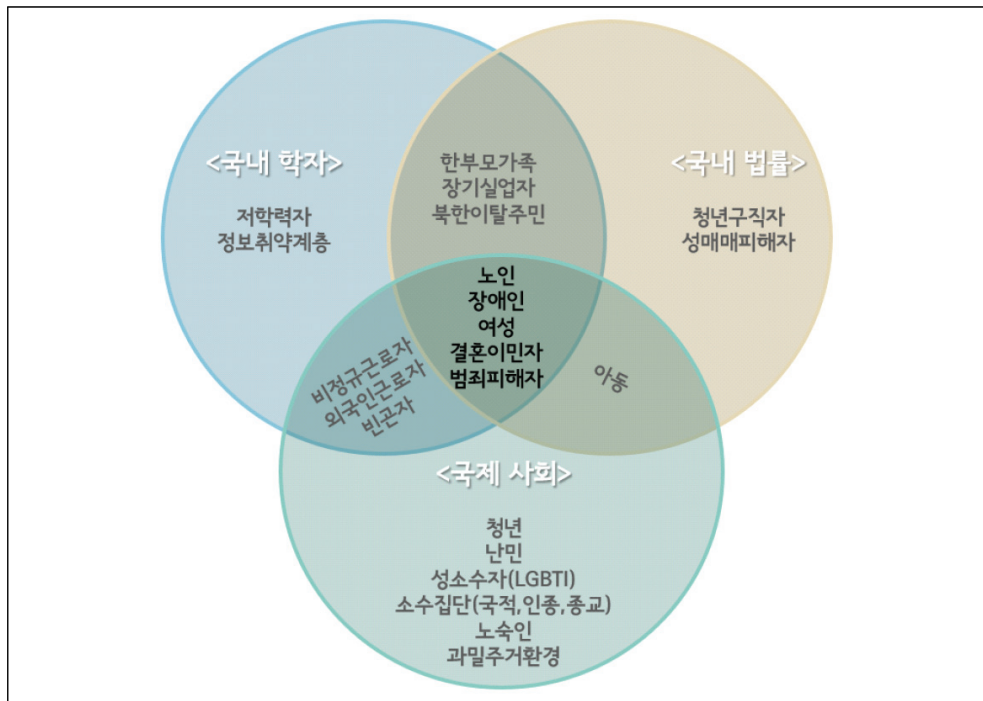
제3절 코로나19 취약계층과 건강불평등

1. 코로나19 취약계층

유엔(UN)에서 발간한 ‘인권을 위한 행동방안(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보고서에는 여성, 아동, 청년, 노인, 난민, 이주민, 빈곤층, 장애인, 구금자, 소수집단, 성소수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주목하고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최혜지 외, 2021, p. 6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의 코로나19 지침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 중에, 코로나19 대응조치가 고착된 차별, 배제, 불평등 또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최혜지 외, 2021, p. 63). 또한, ‘유럽연합 질병예방 및 관리 센터(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노인, 기저질환자를 의료적 취약계층으로,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인, 노숙인,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가족의 구성원, 요양원 입소자, 교정시설 입소자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최혜지 외, 2021, p. 63).

최혜지 외(2021)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국내 학자와 국내 법률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 취약계층으로 공통적으로 주목한 노인, 장애인, 여성, 결혼이민자, 범죄피해자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의해 인권침해의 우려와 보호조치의 필요가 높다고 강조된 빈곤자를 취약계층, 노숙인, 국적, 인종적 소수자, 성소수자 등으로 특정한 바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주체별 취약계층 유형



자료: 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혜연(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p. 65.

2.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

코로나19 대유행의 생물학적 원인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지만, 발생 이후부터는 생물학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최홍조 외, 2022. p. 3). 김창엽(2020)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에 ‘사회적인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최홍조 외, 2022. p. 3).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이후 예후도 나쁠 가능성이 크며,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게 방역 과정에서 필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최홍조 외, 2022. p. 3 재인용).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에 따른 코로나19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불평등을 연구한 Bambra 외(2020)의 연구, Choi 외(2021)의 연구 등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많은 유명인사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실상 소득수준 등 사회계층별로 발생위험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의 역사는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 간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 간 유병률과 사망률의 불평등이 있었다(Bambra et al., 2020, p. 964).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Influenza A virus subtype, 이하 H1N1) 유행 당시의 불평등 또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박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H1N1 사망률은 박탈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의 사망률보다 3배 더 높았고,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의 연구 역시 H1N1 입원율은 낮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빈곤 정도와 관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ambra et al., 2020, p. 964).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의 역사는 스페인 인플루엔자와 H1N1 유행을 거쳐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Choi 외(2021)는 Bambra 외(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건강불평등의 발생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Choi et al., 2021).

주거 조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로서, 이주 노동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숙자 등은 열악하고 밀집된 환경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발생에 특히 취약하다(Choi et al., 2021, p. 3). 노동 환경의 과밀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조건으로, 콜센터 직원이나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Choi et al., 2021, p. 3). 취약노동자의 작업장은 환기시설 등 보호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마스크나 손 씻기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불안정노동자의 경우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예방 수단을 요구할 수 없어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Choi et al., 2021,

p. 3).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취약한 노동 조건, 고용 상태와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취약성이 증첩된다(Choi et al., 2021, p. 3).

미충족의료는 코로나19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Choi et al., 2021, p. 3).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나 노숙인 같은 취약인구집단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이들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전환되어 일반인에 대한 의료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민간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필수의료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Choi et al., 2021, p. 3). 의료서비스 외에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센터 또한 폐쇄조치되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단절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들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노숙자들은 무료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Choi et al., 2021, p. 3).

이처럼 코로나19는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 건강영향 외에도 소득과 주거 수준의 변화,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단절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험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증첩되어 건강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영향요인

사회적 지지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Brailovskaia, Rohmann, Bierhoff, Schillack, and Margraf, 2019). 또한, 위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신준섭·이영분, 1999).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및 심리적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개인 혹은 집단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사건 및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한다(Berkman, Glass, 2000; Cohen, Wills, 1985; Tindle, Hemi, and Moustafa, 2022). 사회적 지지는 수혜자의 심리적 유연성을 향상시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배제불안을 완화한다(백선숙, 조혜영, 2017; Jay, 2001).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위기대

처와 변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며, 인생 주기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을 보호하여 평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게 돕는다 (Lee et al., 2015; Oh,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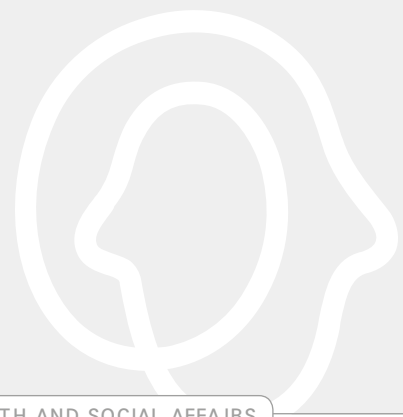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되어 왔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로 나누었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정보적 지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재화나 용역 등의 물질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긍정적인 평가, 가치 고양, 의사 존중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를 의미한다(권영순, 오서진, 이상주, 2020, p. 3). 이처럼 사회적 지지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나, 이번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의 감소로 인해 개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의 우울감, 자존감 감소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Berg-Weger, Morley, 2020; Gupta, Dhamija, 2020). 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개인의 접촉과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우울증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또한 유발시키고 있다(Bao et al., 2020). 따라서 사회·정서적 지지 강화가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회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일부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주었다(양미라·김해숙, 2020, p. 310). 일례로, 중국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이나 기타 정신적 상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21; Szkody et al., 202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도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숙, 이강이, 2010).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우울감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운정, 2022).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존감과 조절력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부정적 자극 및 영향에 효율적으

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질병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Cohen, Syme, 1985; Jemmott, Locke, 1984).

한편, 코로나19는 돌봄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내었다(김영란, 2020).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들은 자연스레 이전보다 더 큰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노혜진, 2022).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역할이 가정 내 보호자에게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이한나, 설동진, 2020; 김성현, 2021; 이봉주, 장희선, 선우진희, 길보라, 2020). 또한 코로나19 이후 부모의 양육책임과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 근무체계를 수시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역할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곧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졌다(김민선, 주수산나, 2021; 김성현, 2021).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증가와 일가족 갈등 수준이 심화되면서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무려 31.4%로 나타났다(Patric, Henkhaus, Zickafoose, Lovell, Halvoson, Loch, Latterie, and Davis, 2020).

사회적 지지는 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박주희, 2021), 코로나19 확산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다시금 주목해볼 수 있다. 비록 공식적 지지체계의 이용이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Stroller, Pugliesi, 1989),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공교육과 돌봄이 중단된 시기였기 때문에, 사적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의 정신건강은 자녀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웰빙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돌봄,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정부대응 인식 변화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제3절 사회통합 인식

제4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 인식

제5절 소결

제3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정부대응 인식 변화

제1절 들어가며

제3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실시된 2014년 이후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로 살펴볼 항목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지지, 형평성 인식 영역이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영역별로 전체,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로 추이를 분석하였다.¹⁾ 구체적인 문항별 척도와 유효 연도는 <표 3-1>에 작성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웹 조사방식을 선택하였고, 이는 기존 대면 조사 방식과 차이가 있어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작년에 조사된 코로나19 이후 본인 및 사회의 변화, 관련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비교 분석하고, 일상 회복 정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등에 관해서는 2022년 조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

영역	문항	척도	유효 연도
행복과 삶의 만족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셧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 11점 척도	2014~2022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 11점 척도	2014~2022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셧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 / 11점 척도	2014년, 2016~2022년
사회 통합도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 4점 척도 (역코딩 값 활용)	2014~2022년

1) 성별, 학력별로는 영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영역	문항		척도	유효 연도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 11점 척도	2016~2022년
신뢰도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 11점 척도	2014~2022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2022년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2022년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6~2022년
사회적 지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 / 11점 척도	2017년, 2021~2022년
	도움 청할 사람 유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 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 2021~2022년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 2021~2022년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 2021~2022년
형평성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코딩 값 활용)	2014년, 2016~2022년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코딩 값 활용)	2014~2022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코딩 값 활용)	2014~2022년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코딩 값 활용)	2014~2022년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2022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스스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회복 못 함(0)~완전히 회복함(10) / 11점 척도	2022년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및 사회의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훨씬 더 나빠질 것(1)~훨씬 더 좋아질 것(5) / 5점 척도	2021~2022년

영역	문항	척도	유효 연도
	1) 가구 경제 상황 2) 가족관계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5) 경제적 수준 6) 불평등, 양극화 7) 시민의식 8) 전반적인 사회의 질		
코로나19 정부 대응 적절성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하다(1)~매우 적절하다(5) / 5점 척도	2021~2022년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싶었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매우 부족했다(1)~매우 충분했다(4) / 4점 척도	2022년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중점 정책 선호	귀하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 ②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 ③ 코로나19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④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회복 지원 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코로나 후유증 보상 등 건강피해 지원 ⑥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손실 지원 ⑦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⑧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지원 ⑨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2022년
감세 및 증세 동의 정도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반대한다(1)~매우 동의한다(5) / 5점 척도	2022년

주: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1. 주관적 행복도

행복도는 2017년 6.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먼저, 2018년과 2019년에는 6.61점, 6.48점으로 하락하였고, 2021년에 6.33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연도 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을 때(Scheffe값) 2022년에는 6.63점으로 2021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20/30대가 40/50대, 60/70대에 비해서 높은 행복도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에 비해 행복도가 상승하였고 특히, 20/30대 청년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청장년층(20~50대)의 행복도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22년의 행복도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행복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행복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2021년에 비해 행복도가 상승하였다. 2021년과 2022년 경제활동 상태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상용직, 자영자, 비경제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영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덜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행복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득 2분위를 제외하고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도는 하층과 중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념적 성향별로 볼 때 2021년 대비 2022년에 중도적인 성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표 3-2〉 행복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6.20	6.01	6.49	6.73	6.61	6.48	6.33	6.63	***
연령대	20/30대	6.57	6.21	6.76	7.05	6.89	6.84	6.55	6.93	***
	40/50대	6.25	5.94	6.39	6.66	6.49	6.41	6.28	6.57	***
	60/70대	5.72	5.77	6.15	6.23	6.36	5.94	6.10	6.29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62	6.30	6.71	7.06	6.87	6.61	6.61	6.89	***
	임시일용직	5.68	5.38	5.74	6.03	6.33	6.00	5.97	6.15	-
	자영자	6.19	6.12	6.48	6.73	6.41	6.49	6.07	6.44	***
	실업자	4.87	5.06	5.48	5.69	5.68	5.69	5.73	5.69	-
	비경활	6.19	6.06	6.63	6.75	6.73	6.57	6.46	6.74	**
소득 5분위	1분위	5.33	5.34	5.90	6.05	6.09	5.83	5.72	5.97	*
	2분위	6.11	5.71	6.45	6.65	6.63	6.37	6.12	6.48	-
	3분위	6.20	6.19	6.59	6.86	6.61	6.62	6.51	6.68	**
	4분위	6.52	6.40	6.66	6.96	6.61	6.71	6.54	6.92	**
	5분위	6.96	6.47	6.86	7.22	7.13	6.93	6.83	7.13	**
주관적 계층	하층	5.06	4.77	5.25	5.33	5.82	5.24	5.30	5.68	**
	중하층	6.11	5.92	6.25	6.59	6.51	6.26	6.16	6.47	-
	중간층	6.84	6.54	6.93	7.15	6.90	6.87	6.68	6.96	***
	중상층/상층	7.37	7.07	7.45	7.78	7.52	7.43	7.34	7.4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6.15	5.85	6.28	6.51	6.46	6.15	6.18	6.57	-
	중도적	6.15	6.02	6.55	6.77	6.53	6.49	6.35	6.70	***
	진보적	6.38	6.26	6.63	6.87	6.87	6.76	6.48	6.54	-

주2): 1)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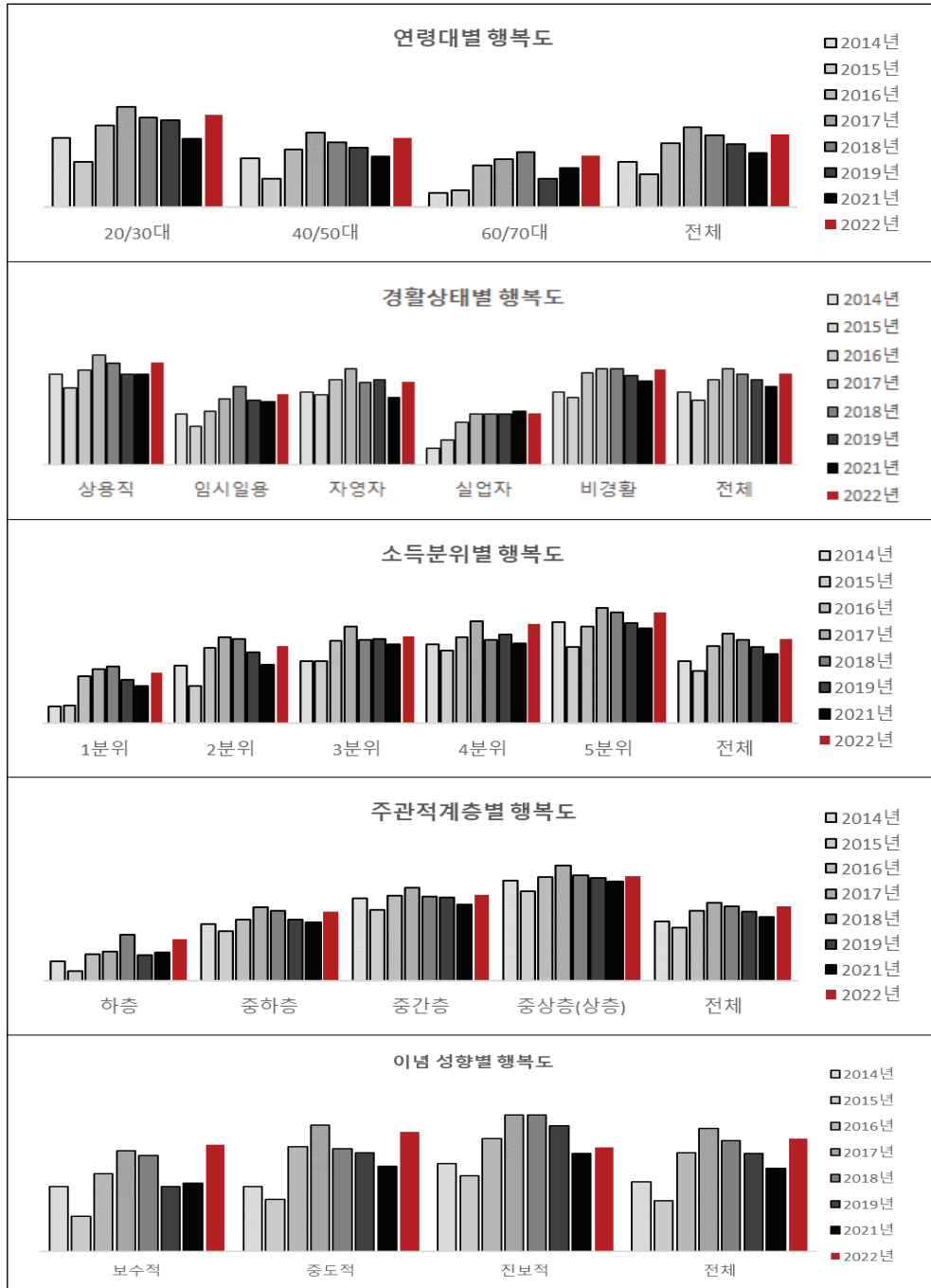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21년과 2022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2) 〈표 3-2〉의 주 2)와 주 3), '자료'의 출처는 이후 분석표에서도 모두 동일하여 〈표 3-2〉에만 기재하고 이후 표에서는 생략한다.

[그림 3-1] 행복도

(단위: 점)



2. 삶의 만족도

2022년의 삶의 만족도는 6.29점으로, 가장 최고치를 보인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6.15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은 5.90점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2021년 대비 2022년에 0.39점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도와 달리,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21b).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조금은 완화되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2021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2019년과 비교해도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행복도와 유사하게 20/3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상승하였지만 상용직, 자영자, 비경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소득 5분위별로는 2022년의 삶의 만족도가 2021년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최상위 분위인 5분위에서 0.55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2022년이 고소득층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주관적 계층별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2021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 5분위별 비교에 비해 가장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념적 성향별로는 보수적, 중도적인 성향에서 2021년 대비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였다.

4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표 3-3〉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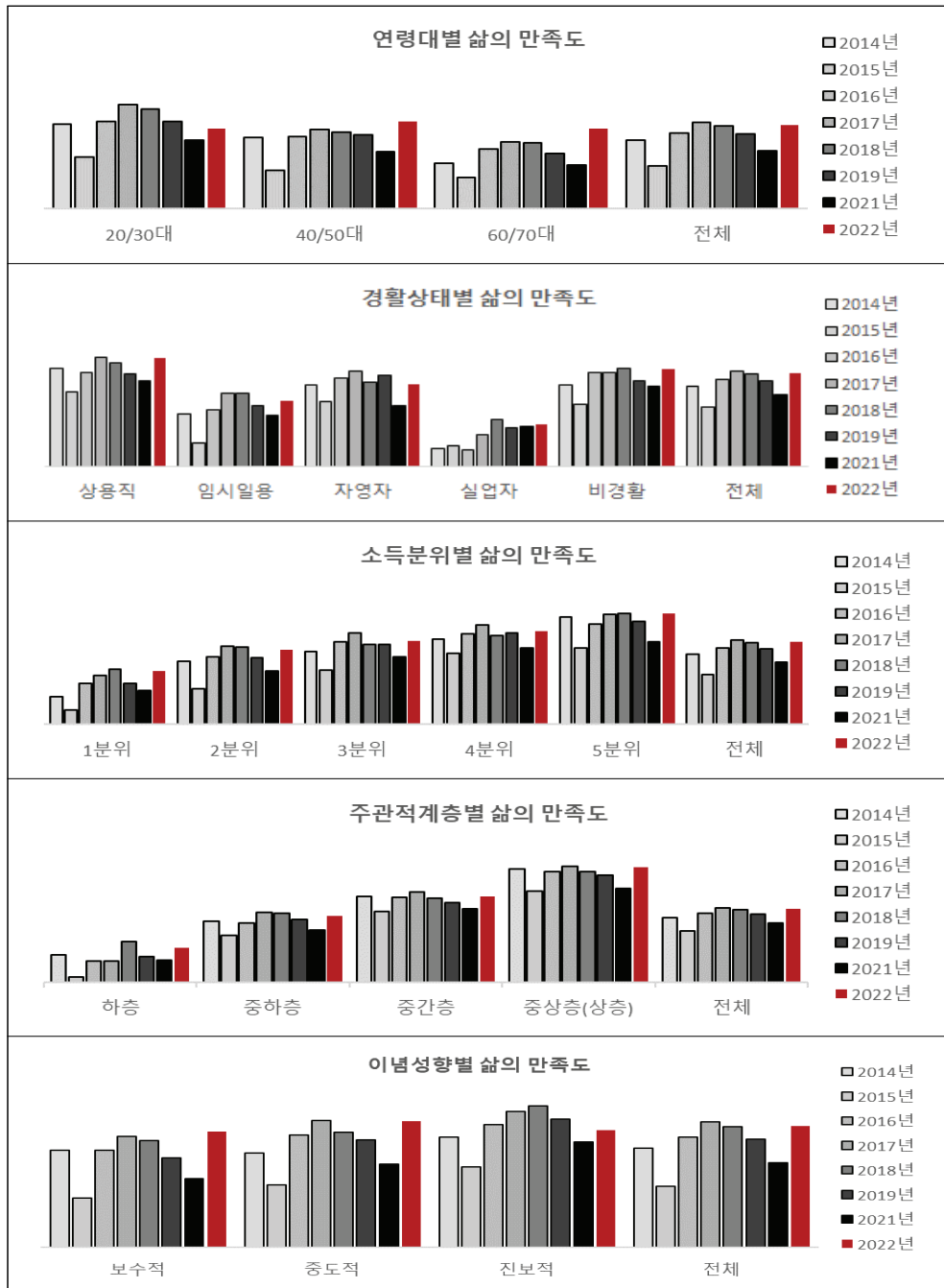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6.05	5.65	6.17	6.33	6.28	6.15	5.90	6.29	***
연령대	20/30대	6.30	5.80	6.34	6.61	6.54	6.34	6.06	6.57	***
	40/50대	6.09	5.59	6.12	6.21	6.17	6.13	5.88	6.21	***
	60/70대	5.71	5.49	5.92	6.03	6.01	5.85	5.67	6.01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40	5.93	6.33	6.61	6.51	6.29	6.15	6.59	***
	임시일용직	5.51	4.95	5.60	5.92	5.92	5.68	5.50	5.75	-
	자영자	6.08	5.77	6.21	6.34	6.14	6.25	5.66	6.09	***
	실업자	4.84	4.90	4.82	5.10	5.40	5.24	5.28	5.32	-
	비경활	6.08	5.70	6.30	6.32	6.40	6.16	6.04	6.38	***
소득 5분위	1분위	5.24	4.97	5.49	5.63	5.75	5.48	5.34	5.72	***
	2분위	5.91	5.37	6.00	6.21	6.18	5.98	5.73	6.13	***
	3분위	6.11	5.74	6.29	6.45	6.23	6.23	6.00	6.30	***
	4분위	6.34	6.07	6.45	6.62	6.42	6.46	6.16	6.50	***
	5분위	6.77	6.16	6.62	6.81	6.83	6.68	6.28	6.83	***
주관적 계층	하층	4.98	4.34	4.81	4.79	5.35	4.93	4.83	5.19	-
	중하층	5.94	5.54	5.90	6.19	6.17	5.99	5.69	6.09	***
	중간층	6.64	6.23	6.63	6.78	6.60	6.48	6.29	6.66	***
	중상층/상층	7.43	6.80	7.37	7.52	7.36	7.26	6.87	7.48	***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3	5.52	6.03	6.18	6.13	5.95	5.73	6.23	***
	중도적	6.00	5.66	6.19	6.35	6.22	6.14	5.88	6.34	***
	진보적	6.17	5.85	6.30	6.44	6.50	6.36	6.12	6.24	-

주: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그림 3-2] 삶의 만족도

(단위: 점)



3. 우울감

2022년 평균 우울감은 2021년에 비해 0.08점 소폭 하락하여 2.85점으로,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 관계 추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유일하게 실업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여전히 실업자에게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자영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우울감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여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추이를 보인다.

연령대별, 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 이념적 성향별로 나눠서 살펴보았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은 보이지 않았다. 소득 5분위 수준별로는 0.04점 소폭 상승한 5분위, 주관적 계층별로 보면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0.08점 소폭 상승하였을 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3-4〉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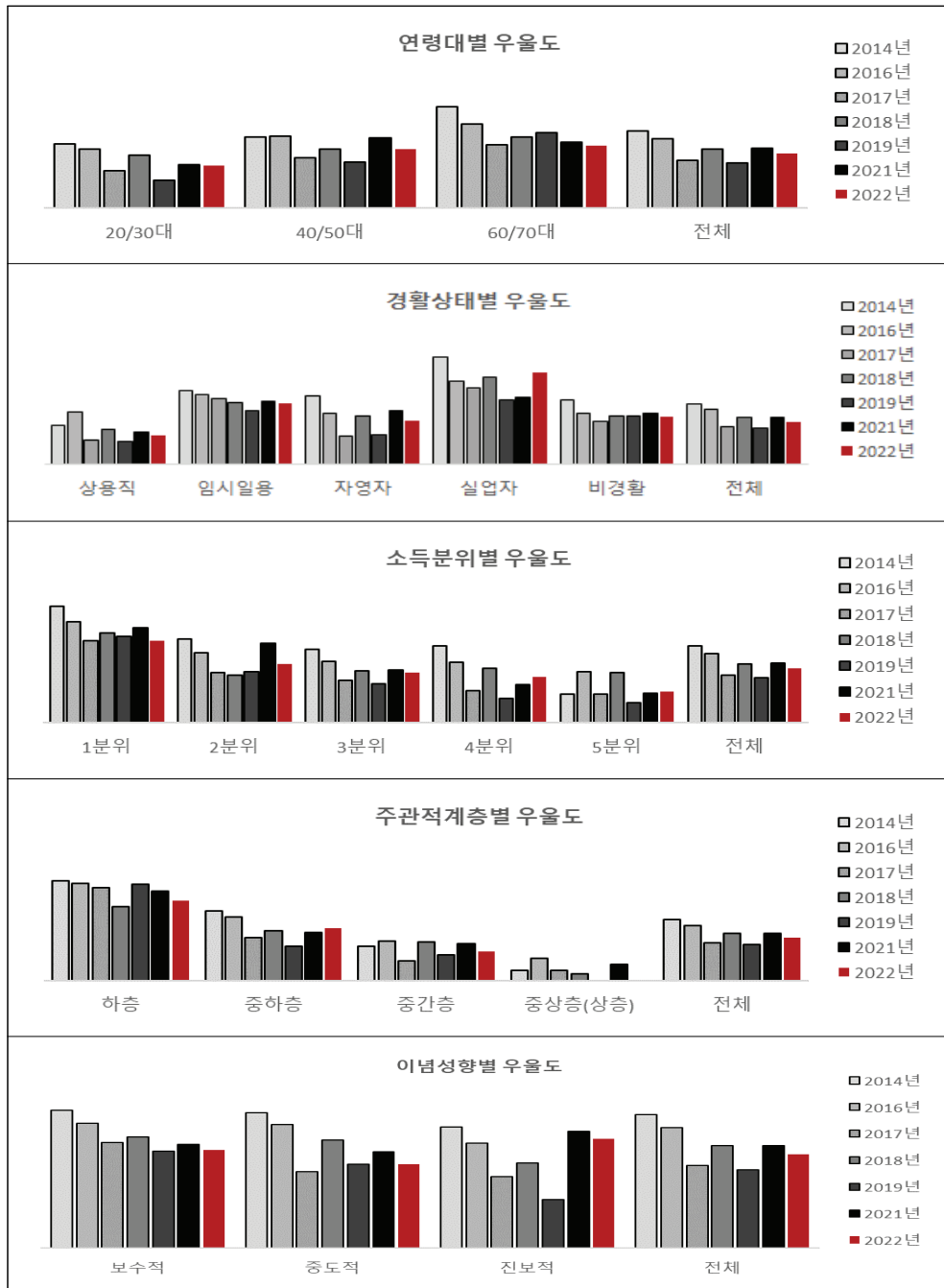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3.21	3.09	2.75	2.93	2.71	2.93	2.85	-
연령대	20/30대	3.01	2.93	2.58	2.82	2.44	2.67	2.67	-
	40/50대	3.12	3.14	2.79	2.93	2.71	3.10	2.92	-
	60/70대	3.60	3.32	2.99	3.11	3.19	3.04	2.98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77	3.05	2.48	2.70	2.45	2.64	2.56	-
	임시일용직	3.46	3.38	3.31	3.22	3.07	3.26	3.22	-
	자영자	3.36	3.02	2.57	2.95	2.58	3.07	2.88	-
	실업자	4.14	3.66	3.53	3.74	3.29	3.33	3.83	*
	비경활	3.29	3.01	2.86	2.95	2.95	3.00	2.95	-
소득 5분위	1분위	3.84	3.60	3.29	3.41	3.36	3.50	3.30	-
	2분위	3.32	3.10	2.79	2.75	2.80	3.25	2.93	-
	3분위	3.16	2.97	2.67	2.82	2.61	2.84	2.79	-
	4분위	3.21	2.95	2.50	2.85	2.38	2.59	2.72	-
	5분위	2.45	2.80	2.44	2.79	2.31	2.45	2.49	-
주관적 계층	하층	3.97	3.93	3.84	3.47	3.90	3.78	3.59	-
	중하층	3.38	3.25	2.86	2.99	2.68	2.95	3.03	-
	중간층	2.68	2.78	2.38	2.76	2.51	2.73	2.58	-
	중상층/상층	2.20	2.44	2.19	2.13	1.84	2.32	1.92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5	3.13	2.96	3.01	2.88	2.94	2.89	-
	중도적	3.23	3.12	2.69	2.98	2.76	2.87	2.76	-
	진보적	3.10	2.95	2.65	2.77	2.44	3.06	2.99	-

주: 우울감은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그림 3-3] 우울감

(단위: 점)



제3절 사회통합 인식

1.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통합도

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사회통합 인식을 살펴보는 지표 중 첫 번째는 국민으로서 갖는 자부심이다. 이는 4점 척도로 측정되며 2019년까지 평균 2.9점을 넘지 않았으나, 2021년에 2.96점에 이어서 2022년에는 2.9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2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60/70대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40/50대가 2.96점, 20/30대가 2.97점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자부심이 임시일용직을 제외하고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상용직(0.03점), 자영자(0.06점), 실업자(0.04점), 비경제활동인구(0.01점)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소폭 상승하였고, 자영자 집단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볼 때, 2021년 대비 2022년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은 0.01점 소폭 하락한 3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소득 1분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국민으로서 자부심 차이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에 모두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념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적 성향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 이념적 성향별로 살펴봐도 이는 2021년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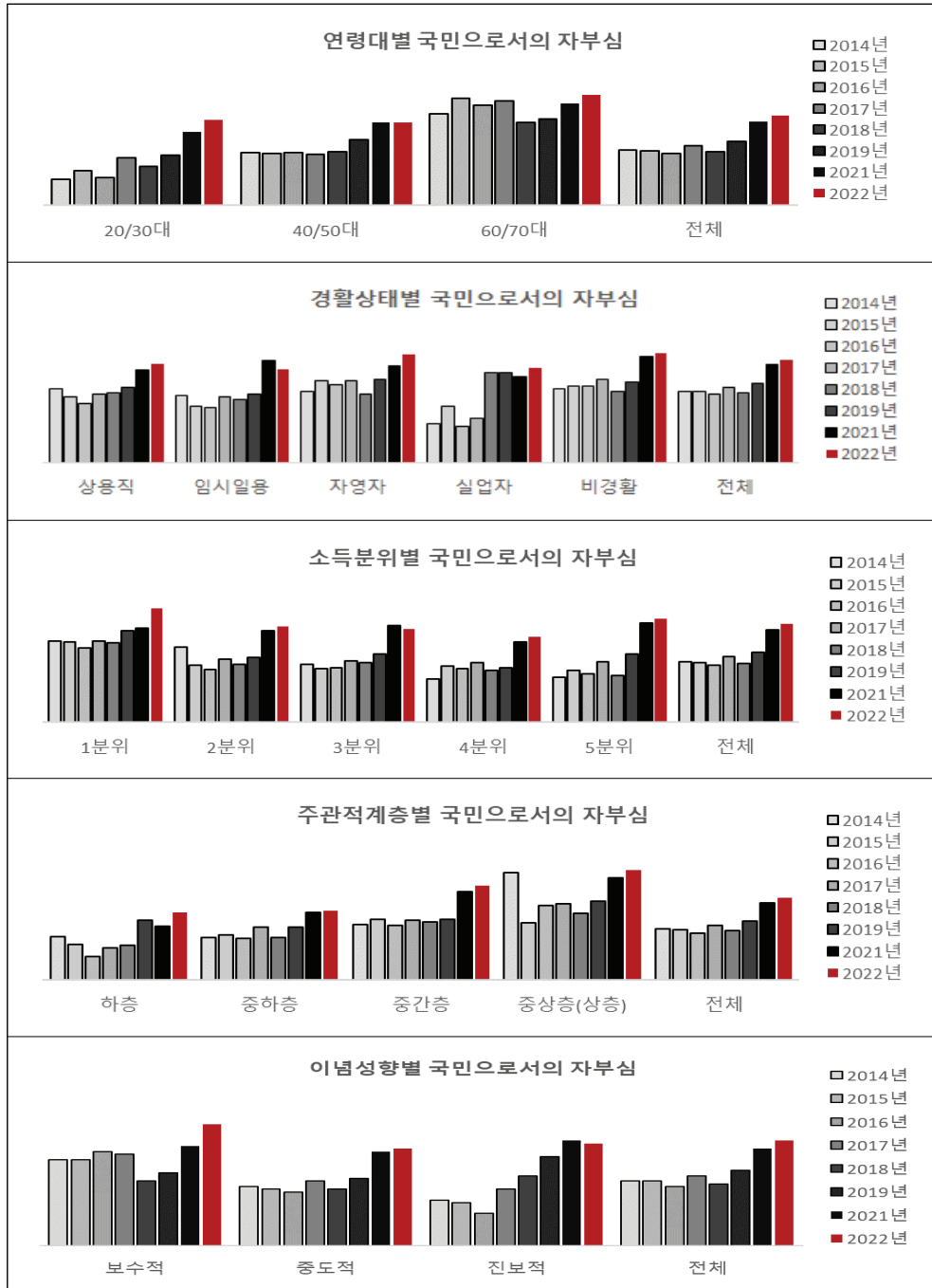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2.84	2.84	2.82	2.86	2.83	2.88	2.96	2.99	*
연령대	20/30대	2.71	2.75	2.72	2.80	2.77	2.82	2.92	2.97	*
	40/50대	2.83	2.82	2.83	2.82	2.83	2.88	2.96	2.96	-
	60/70대	3.00	3.07	3.04	3.05	2.96	2.97	3.04	3.08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85	2.81	2.78	2.83	2.83	2.86	2.94	2.97	-
	임시일용직	2.82	2.77	2.77	2.82	2.80	2.83	2.99	2.95	-
	자영자	2.84	2.89	2.87	2.89	2.83	2.90	2.96	3.02	*
	실업자	2.68	2.77	2.67	2.71	2.93	2.93	2.91	2.95	-
	비경활	2.85	2.86	2.87	2.90	2.84	2.89	3.01	3.02	-
소득 5분위	1분위	2.92	2.92	2.89	2.92	2.91	2.96	2.97	3.05	***
	2분위	2.90	2.83	2.81	2.85	2.83	2.86	2.96	2.98	-
	3분위	2.83	2.81	2.81	2.84	2.83	2.87	2.98	2.97	-
	4분위	2.77	2.82	2.81	2.84	2.81	2.81	2.92	2.94	-
	5분위	2.78	2.80	2.79	2.84	2.78	2.87	2.99	3.01	-
주관적 계층	하층	2.81	2.77	2.71	2.75	2.76	2.88	2.86	2.92	-
	중하층	2.80	2.81	2.80	2.85	2.80	2.85	2.92	2.93	-
	중간층	2.86	2.89	2.86	2.89	2.88	2.89	3.02	3.05	-
	중상층/상층	3.11	2.87	2.96	2.96	2.92	2.97	3.09	3.12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2	2.92	2.95	2.94	2.84	2.87	2.97	3.05	***
	중도적	2.82	2.81	2.80	2.84	2.81	2.85	2.95	2.96	-
	진보적	2.77	2.76	2.72	2.81	2.86	2.93	2.99	2.98	-

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활용함.

[그림 3-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점)



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2021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감소하였고 2021년 대비 평균 0.28점이나 하락하여 4.3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해당 문항을 조사한 유효 연도 내에서는 2016, 2018, 2019년에 각각 4.18점, 4.17점, 4.17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17년과 2021년은 각각 4.50점, 4.59점으로 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며 2021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에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 2022년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20/30대는 4.51점, 40/50대는 4.18점, 60/70대는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가 0.48점 차이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사회통합도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상용직(0.28점), 임시·일용직(0.44점), 자영자(0.50점)에서 하락하였고, 특히 실업자는(0.76점) 3.78점으로 2021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비경합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사회통합도의 수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소득 5분위 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사회통합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해보면 소득 1, 2, 5분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주관적 계층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중상층/상층을 제외하고 모두 2021년 대비 사회통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중간층이 0.37점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하층은 0.24점, 중하층은 0.22점 하락하였다.

이념적 성향별로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사회통합도는 중도, 진보적 성향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표 3-6〉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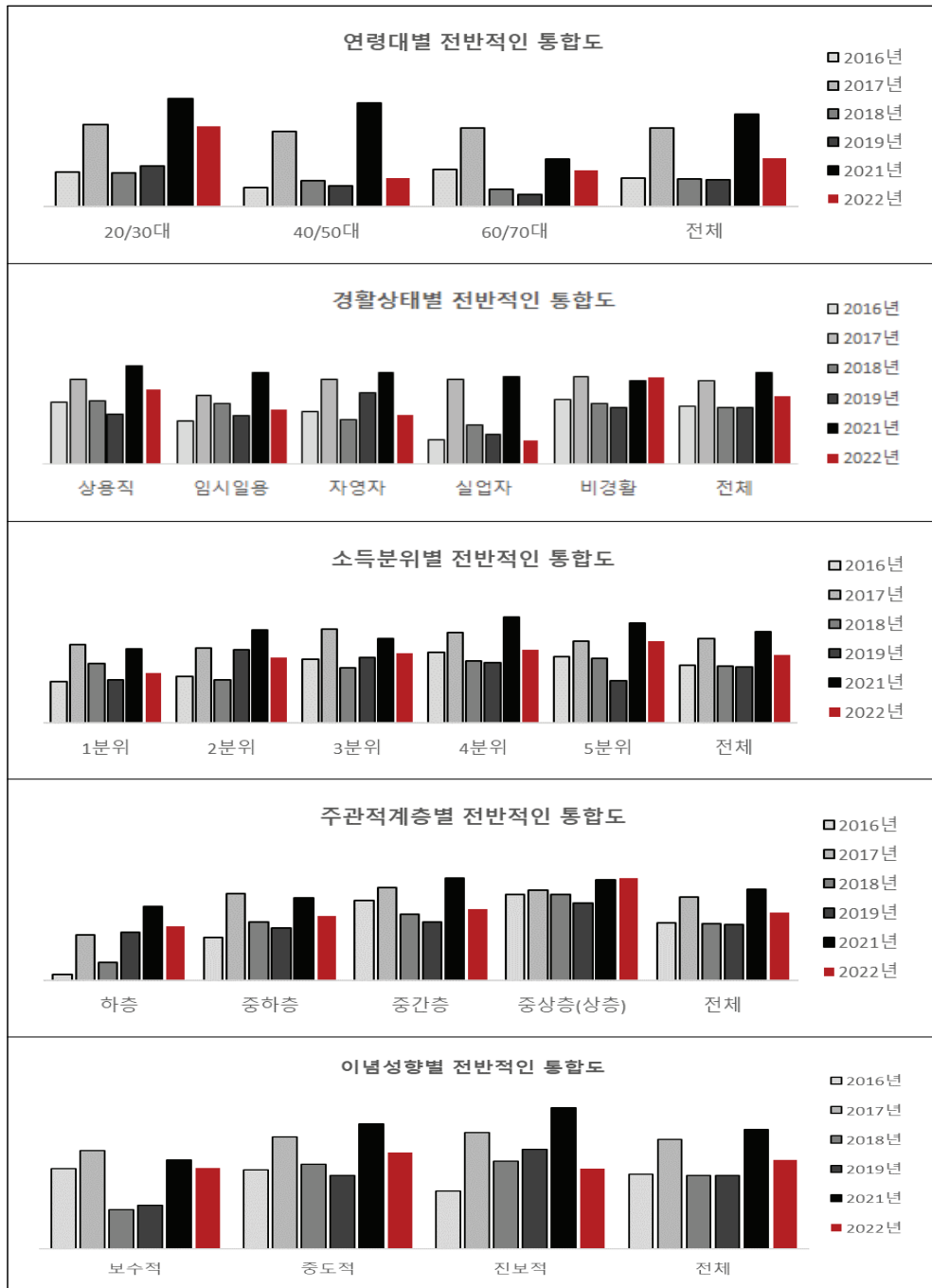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4.18	4.50	4.17	4.17	4.59	4.31	***
연령대	20/30대	4.22	4.52	4.22	4.26	4.69	4.51	**
	40/50대	4.12	4.48	4.17	4.13	4.66	4.18	***
	60/70대	4.24	4.50	4.11	4.08	4.30	4.23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24	4.51	4.25	4.10	4.67	4.39	***
	임시일용직	4.01	4.32	4.21	4.07	4.59	4.15	**
	자영자	4.12	4.50	4.03	4.34	4.58	4.08	***
	실업자	3.79	4.52	3.96	3.84	4.54	3.78	***
	비경활	4.27	4.54	4.22	4.16	4.49	4.53	-
소득 5분위	1분위	3.99	4.43	4.21	4.01	4.38	4.09	***
	2분위	4.05	4.39	4.01	4.37	4.61	4.28	***
	3분위	4.26	4.61	4.15	4.28	4.50	4.33	-
	4분위	4.34	4.57	4.24	4.21	4.76	4.37	-
	5분위	4.28	4.47	4.27	4.00	4.69	4.47	*
주관적 계층	하층	3.57	4.04	3.72	4.07	4.38	4.14	*
	중하층	4.01	4.54	4.19	4.12	4.49	4.27	***
	중간층	4.46	4.60	4.29	4.20	4.72	4.35	***
	중상층/상층	4.53	4.57	4.52	4.42	4.70	4.72	-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3	4.40	3.86	3.90	4.31	4.24	-
	중도적	4.22	4.52	4.27	4.17	4.64	4.38	***
	진보적	4.03	4.56	4.30	4.41	4.79	4.23	***

주: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그림 3-5]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단위: 점)



2. 신뢰도

가.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과 상반되게 2022년에는 평균 0.30점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 문항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014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2021년에 5.37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에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7년의 5.12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60/70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40/50대(0.49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30대(0.23점), 60/70대(0.05점) 순으로 사회신뢰도 감소폭이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0.30점), 임시·일용직(0.48점), 자영자(0.43점)에서 하락하였고, 특히 실업자는 0.75점 하락한 4.55점으로, 2021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0.06점)의 사회신뢰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별로는 2022년의 전반적인 사회신뢰도가 202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2분위에서 0.45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사회신뢰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상층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층에서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른 계층과 상반되게 중상층 이상은 2014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전반적인 모든 연도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2년에는 5.98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이념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 및 진보적인 성향 집단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진보적 성향 집단은 0.77점이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3-7〉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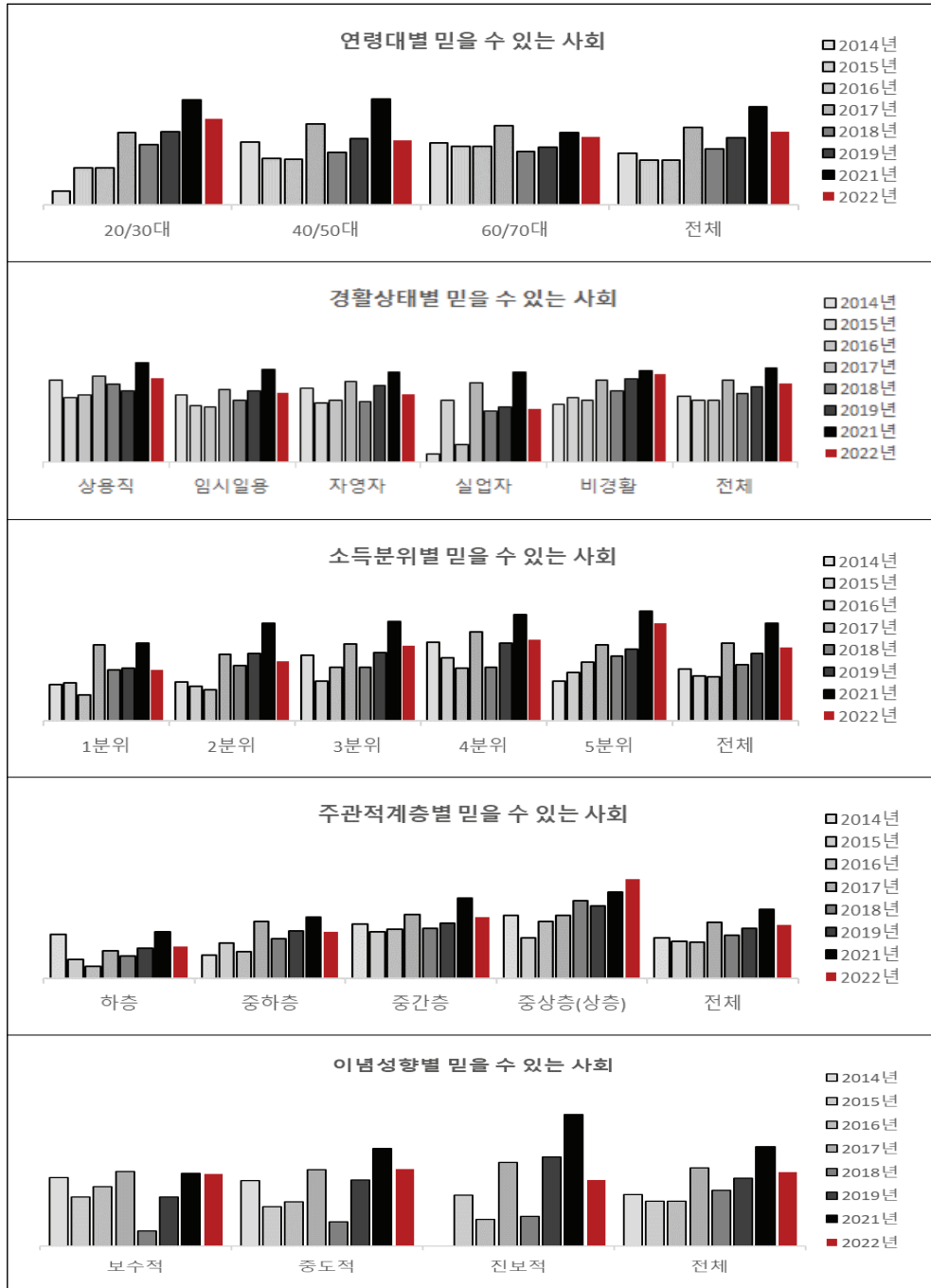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4.81	4.73	4.73	5.12	4.86	5.00	5.37	5.07	***
연령대	20/30대	4.36	4.64	4.64	5.06	4.92	5.07	5.45	5.22	***
	40/50대	4.95	4.75	4.74	5.16	4.83	4.99	5.46	4.97	***
	60/70대	4.94	4.89	4.89	5.15	4.84	4.88	5.06	5.01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12	4.78	4.85	5.20	5.04	4.92	5.48	5.18	-
	임시일용직	4.83	4.61	4.61	4.93	4.73	4.91	5.35	4.87	***
	자영자	4.96	4.69	4.73	5.10	4.69	5.03	5.28	4.85	***
	실업자	3.66	4.74	3.84	5.07	4.50	4.59	5.30	4.55	***
	비경활	4.63	4.77	4.74	5.13	4.90	5.15	5.31	5.25	-
소득 5분위	1분위	4.64	4.65	4.51	5.11	4.81	4.83	5.12	4.81	***
	2분위	4.66	4.62	4.57	4.99	4.86	5.01	5.36	4.91	***
	3분위	4.98	4.67	4.84	5.12	4.84	5.01	5.38	5.09	**
	4분위	5.13	4.95	4.83	5.25	4.84	5.12	5.46	5.17	***
	5분위	4.67	4.78	4.90	5.11	4.97	5.05	5.51	5.36	-
주관적 계층	하층	4.87	4.38	4.25	4.56	4.45	4.61	4.92	4.63	-
	중하층	4.47	4.70	4.53	5.13	4.79	4.94	5.22	4.92	***
	중간층	5.08	4.93	4.99	5.28	5.00	5.10	5.59	5.22	***
	중상층/상층	5.25	4.80	5.13	5.25	5.54	5.45	5.71	5.98	-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1	4.78	4.90	5.08	4.38	4.78	5.06	5.05	-
	중도적	4.97	4.67	4.72	5.10	4.49	4.98	5.35	5.11	***
	진보적	4.20	4.80	4.52	5.19	4.55	5.25	5.75	4.98	***

주: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그림 3-6]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단위: 점)



나. 대인신뢰도

전반적인 사회신뢰도가 2021년 대비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대인신뢰도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가 국가, 사회제도, 조직, 사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대인신뢰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여유진 외, 2021b).

먼저, 대인신뢰도의 첫 번째 문항은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이고, 5점 척도로 계측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 입장, 즉 긍정적인 방향이다. 2014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2.3점에서 2.4점대 내외의 전체 대인신뢰도 점수가 나타나고, 2022년에는 2.51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수가 상승하였다. 20/30대는 2.62점, 40/50대는 2.47점, 60/70대 2.45점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인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30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특히 60/70대는 2021년 대비 0.23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대인신뢰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21년 대비 2022년의 대인신뢰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인 집단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이다. 특히 임시·일용직(0.33점)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두 집단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 약간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소득 5분위별과 주관적 계층별로 모두 살펴보아도 2021년 대비 2022년에 대인신뢰도는 영역별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소폭 상승을 보였으며, 주관적 계층에서는 중하층과 중상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념적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적인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들은 앞에서 전반적인 사회신뢰도에 대해 응답한 긍정적인 방향과 동일한 맥락을 보이는 결과이다.

〈표 3-8〉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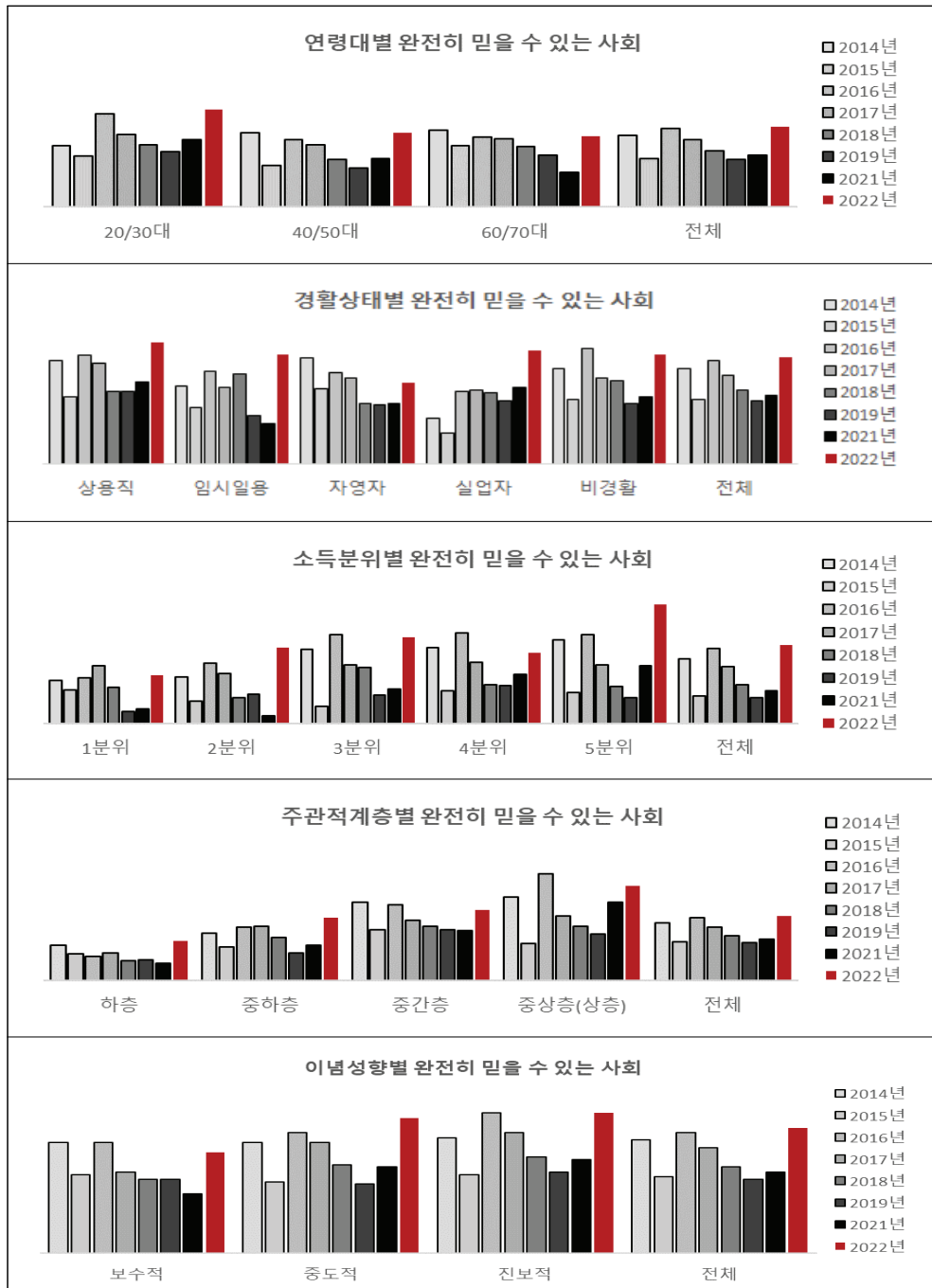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2.46	2.31	2.49	2.43	2.35	2.30	2.33	2.51	-
연령대	20/30대	2.39	2.32	2.59	2.46	2.39	2.35	2.43	2.62	-
	40/50대	2.47	2.26	2.43	2.39	2.30	2.25	2.30	2.47	***
	60/70대	2.49	2.39	2.44	2.43	2.38	2.33	2.22	2.4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49	2.32	2.52	2.48	2.34	2.35	2.39	2.58	-
	임시일용직	2.37	2.27	2.44	2.37	2.43	2.23	2.19	2.52	***
	자영자	2.51	2.36	2.43	2.41	2.29	2.28	2.29	2.39	**
	실업자	2.21	2.15	2.35	2.35	2.34	2.30	2.36	2.54	-
	비경활	2.46	2.30	2.55	2.41	2.40	2.29	2.32	2.52	***
소득 5분위	1분위	2.37	2.33	2.38	2.43	2.34	2.25	2.26	2.39	***
	2분위	2.38	2.29	2.44	2.40	2.30	2.31	2.23	2.50	***
	3분위	2.49	2.27	2.55	2.43	2.42	2.31	2.34	2.54	***
	4분위	2.50	2.33	2.56	2.44	2.35	2.35	2.39	2.48	-
	5분위	2.53	2.32	2.55	2.43	2.34	2.30	2.43	2.67	***
주관적 계층	하층	2.28	2.21	2.19	2.22	2.16	2.16	2.14	2.31	-
	중하층	2.38	2.27	2.42	2.43	2.34	2.22	2.28	2.50	***
	중간층	2.62	2.40	2.60	2.48	2.43	2.40	2.40	2.56	***
	중상층/상층	2.66	2.29	2.84	2.51	2.43	2.37	2.62	2.75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5	2.32	2.45	2.33	2.30	2.30	2.24	2.41	-
	중도적	2.45	2.29	2.49	2.45	2.36	2.28	2.35	2.55	***
	진보적	2.47	2.32	2.57	2.49	2.39	2.33	2.38	2.57	***

주: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그림 3-7]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단위: 점)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라는 문항 또한 5점 척도로 계측되었다. 분석 결과, 2022년에 2.68점으로, 2014년 조사 이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간 내에 전반적으로 평균 2.4점대에서 2.6점대 대인신뢰도가 나타난다.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 5분위, 주관적 계층별로 나눠서 살펴보았을 때 자영자를 제외하고 모두 2021년 대비 대인신뢰도가 상승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자를 제외하고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감을 보였으며,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3-9〉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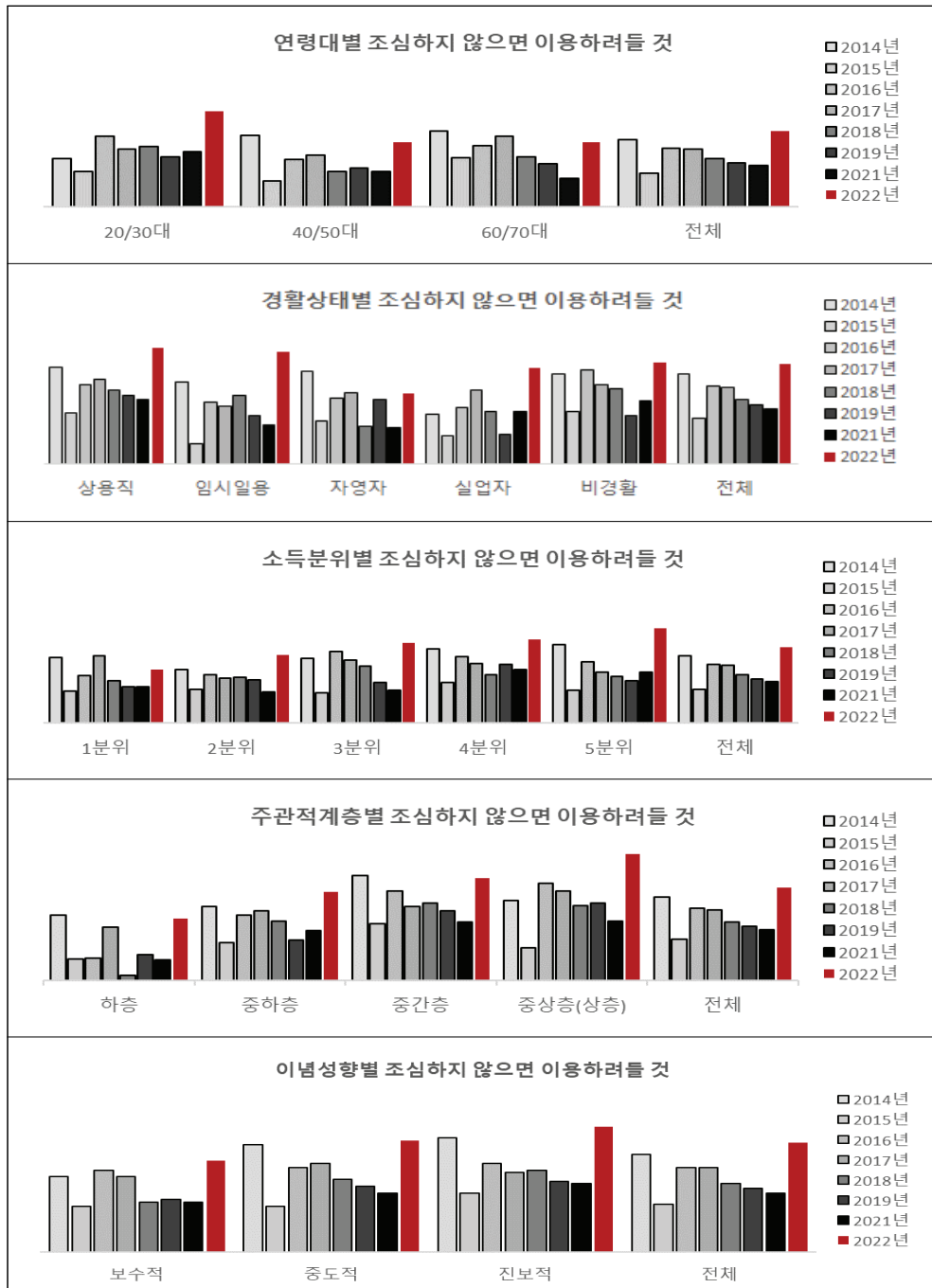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2.63	2.41	2.57	2.57	2.50	2.48	2.46	2.68	***
연령대	20/30대	2.51	2.43	2.65	2.56	2.58	2.52	2.55	2.81	***
	40/50대	2.66	2.36	2.50	2.53	2.43	2.45	2.43	2.61	***
	60/70대	2.68	2.51	2.59	2.65	2.52	2.47	2.38	2.61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66	2.45	2.58	2.60	2.55	2.53	2.51	2.76	***
	임시일용직	2.59	2.30	2.50	2.47	2.52	2.43	2.39	2.73	***
	자영자	2.64	2.41	2.52	2.54	2.38	2.51	2.37	2.54	-
	실업자	2.44	2.33	2.47	2.55	2.45	2.34	2.45	2.66	*
	비경활	2.63	2.45	2.65	2.58	2.56	2.43	2.50	2.68	***
소득 5분위	1분위	2.62	2.40	2.50	2.63	2.47	2.43	2.43	2.54	**
	2분위	2.54	2.42	2.50	2.48	2.49	2.47	2.40	2.63	***
	3분위	2.61	2.39	2.66	2.60	2.56	2.46	2.41	2.71	***
	4분위	2.67	2.45	2.62	2.58	2.50	2.57	2.54	2.73	***
	5분위	2.70	2.41	2.59	2.52	2.50	2.47	2.52	2.80	***
주관적 계층	하층	2.54	2.31	2.32	2.48	2.23	2.33	2.31	2.52	***
	중하층	2.58	2.39	2.54	2.56	2.50	2.41	2.46	2.66	***
	중간층	2.74	2.49	2.66	2.58	2.60	2.56	2.50	2.73	***
	중상층/상층	2.61	2.37	2.70	2.66	2.59	2.60	2.51	2.88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3	2.40	2.56	2.53	2.42	2.43	2.42	2.60	***
	중도적	2.67	2.40	2.57	2.59	2.52	2.49	2.46	2.69	***
	진보적	2.70	2.46	2.59	2.55	2.56	2.51	2.50	2.75	***

주: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그림 3-8]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단위: 점)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2.1점대에서 2.3점대 사이 점수를 보였다. 2021년에는 2.18점으로 약간 동의한다에 가까웠으나, 2022년에는 2.42점으로 조사 연도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에 대한 동의가 증가했다. 연령대(20/30대를 제외한), 경제활동상태(자영자, 실업자를 제외한), 소득 5분위, 주관적 계층별, 이념적 성향별(보수적을 제외한)로 나눠서 살펴보니 모두 2021년 대비 대인신뢰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생각에 더 동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중에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에서는 2021년 대비 0.30점이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3-10〉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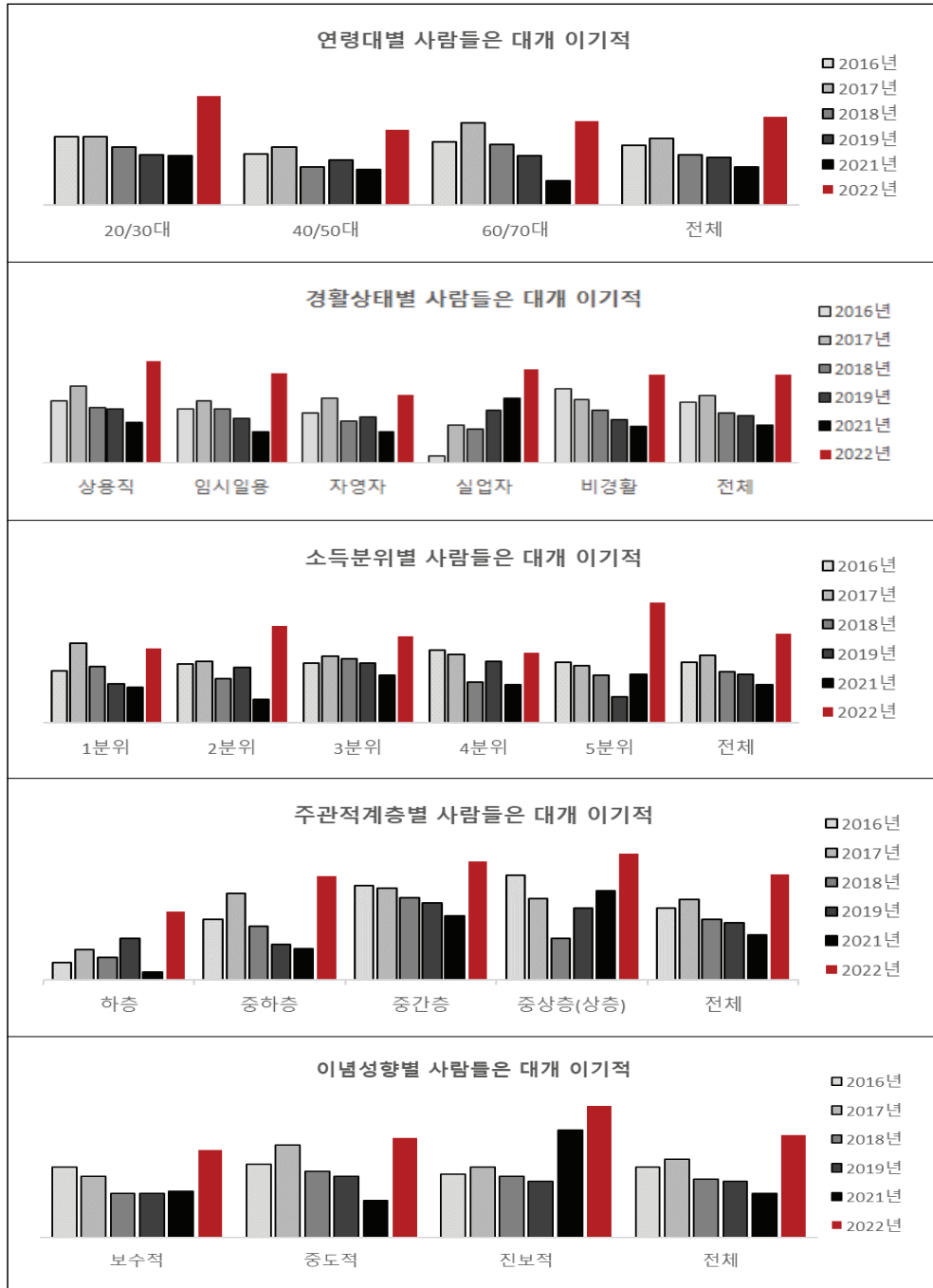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2.29	2.32	2.24	2.23	2.18	2.42	***
연령대	20/30대	2.32	2.33	2.28	2.24	2.24	2.52	-
	40/50대	2.24	2.28	2.18	2.21	2.17	2.36	***
	60/70대	2.30	2.39	2.29	2.23	2.12	2.40	***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29	2.37	2.26	2.26	2.19	2.49	***
	임시일용직	2.26	2.29	2.26	2.21	2.15	2.42	***
	자영자	2.24	2.31	2.20	2.21	2.15	2.32	-
	실업자	2.03	2.18	2.16	2.25	2.31	2.45	-
	비경활	2.35	2.30	2.25	2.20	2.17	2.42	***
소득 5분위	1분위	2.24	2.38	2.27	2.18	2.17	2.35	***
	2분위	2.28	2.29	2.21	2.26	2.11	2.46	***
	3분위	2.28	2.31	2.30	2.28	2.22	2.41	***
	4분위	2.34	2.32	2.19	2.29	2.18	2.33	***
	5분위	2.29	2.27	2.22	2.12	2.23	2.57	***
주관적 계층	하층	2.07	2.12	2.09	2.17	2.03	2.27	***
	중하층	2.24	2.34	2.21	2.14	2.12	2.41	***
	중간층	2.37	2.36	2.33	2.30	2.26	2.47	***
	중상층/상층	2.42	2.32	2.17	2.28	2.36	2.61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9	2.25	2.18	2.18	2.19	2.36	-
	중도적	2.30	2.38	2.27	2.25	2.15	2.41	***
	진보적	2.26	2.29	2.25	2.23	2.44	2.54	***

주: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그림 3-9]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단위: 점)



3. 사회적 자본

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는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항으로 11점 척도로 계측되었다. 2017년에 5.9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1년에 5.67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5.71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2021년과 2022년 집단별 증감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20/30대와 60/70대는 소폭 상승 하였지만, 40/50대는 0.01점 미미한 수준에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종사상 지위별로 증가, 감소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용직(0.14점)이 가장 증가폭이 컸고, 실업자(0.02점)와 비경제활동인구(0.05점)는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에 임시·일용직(0.20점), 자영자(0.14점)는 하락하였다.

또한, 소득 5분위별로도 각 분위의 증감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 1, 2, 3분위는 각각 0.04점, 0.08점, 0.01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사회적 지지가 하락하였다. 반면에, 소득 4분위(0.1점), 5분위(0.23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안정적인 고소득자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본인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이 2021년 대비 0.09점 미미하게 하락하여 4.63점을 기록하였다.

〈표 3-11〉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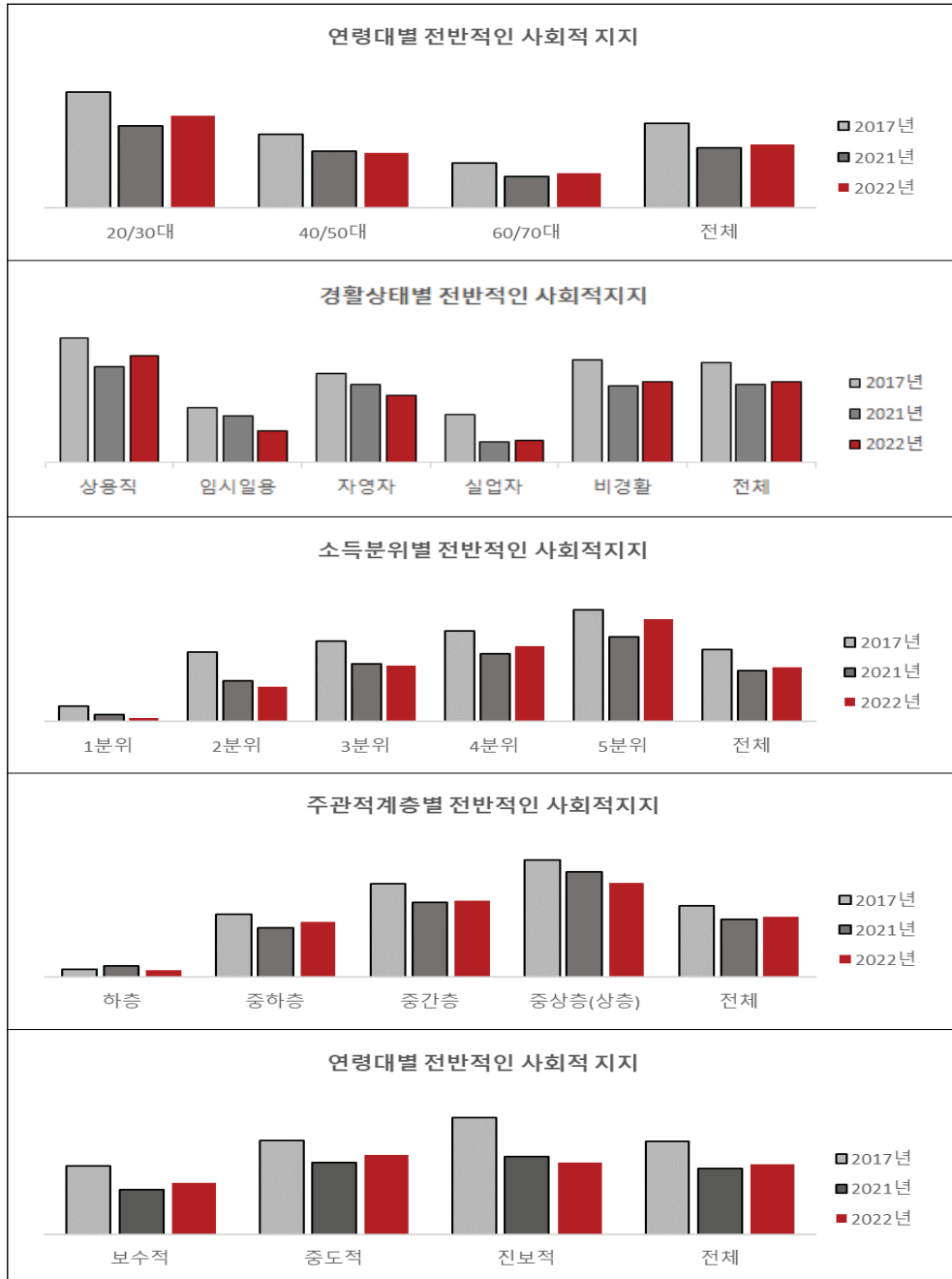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7	2021	2022	*)
전체		5.94	5.67	5.71	-
연령대	20/30대	6.30	5.91	6.03	-
	40/50대	5.83	5.63	5.62	-
	60/70대	5.50	5.35	5.39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26	5.89	6.03	-
	임시일용직	5.37	5.29	5.09	-
	자영자	5.82	5.68	5.54	-
	실업자	5.30	4.95	4.97	-
	비경활	5.98	5.65	5.70	-
소득 5분위	1분위	5.20	5.08	5.04	-
	2분위	5.91	5.53	5.45	-
	3분위	6.06	5.75	5.74	-
	4분위	6.20	5.89	5.99	-
	5분위	6.47	6.12	6.35	-
주관적 계층	하층	4.66	4.72	4.63	-
	중하층	5.76	5.49	5.61	-
	중간층	6.39	6.00	6.03	-
	중상층/상층	6.86	6.62	6.3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5.69	5.45	5.52	-
	중도적	5.95	5.73	5.80	-
	진보적	6.18	5.79	5.73	-

주: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으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그림 3-10]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단위: 점)



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유무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유무, 즉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항은 3개로 나누었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유무를 판별하였다(여유진 외, 2021b).³⁾

전반적으로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70점대 중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낮아 67.89%에 불과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대부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60/70대 노년층에서 2021년 대비 13.47%P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볼 때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임시·일용직(18.48%P), 자영자(14.93%P)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실업자가 19.64%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임시일용직과 비경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별로는 모든 분위에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1분위에서 19.31%가량 감소하여 다른 분위에 비해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살펴볼 때 소득 5분위에서와 유사하게 본인이 하층,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에 비하여 각각 13.54%P, 13.88%P로 크게 감소하였다. 주관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3) 원래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① 친척, ② 직장동료, ③ 친구, ④ 이웃,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⑥ 기타, ⑦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①~⑥까지를 1로, ⑦을 0으로 재코딩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해석해도 무방하다(여유진 외, 2021b).

〈표 3-12〉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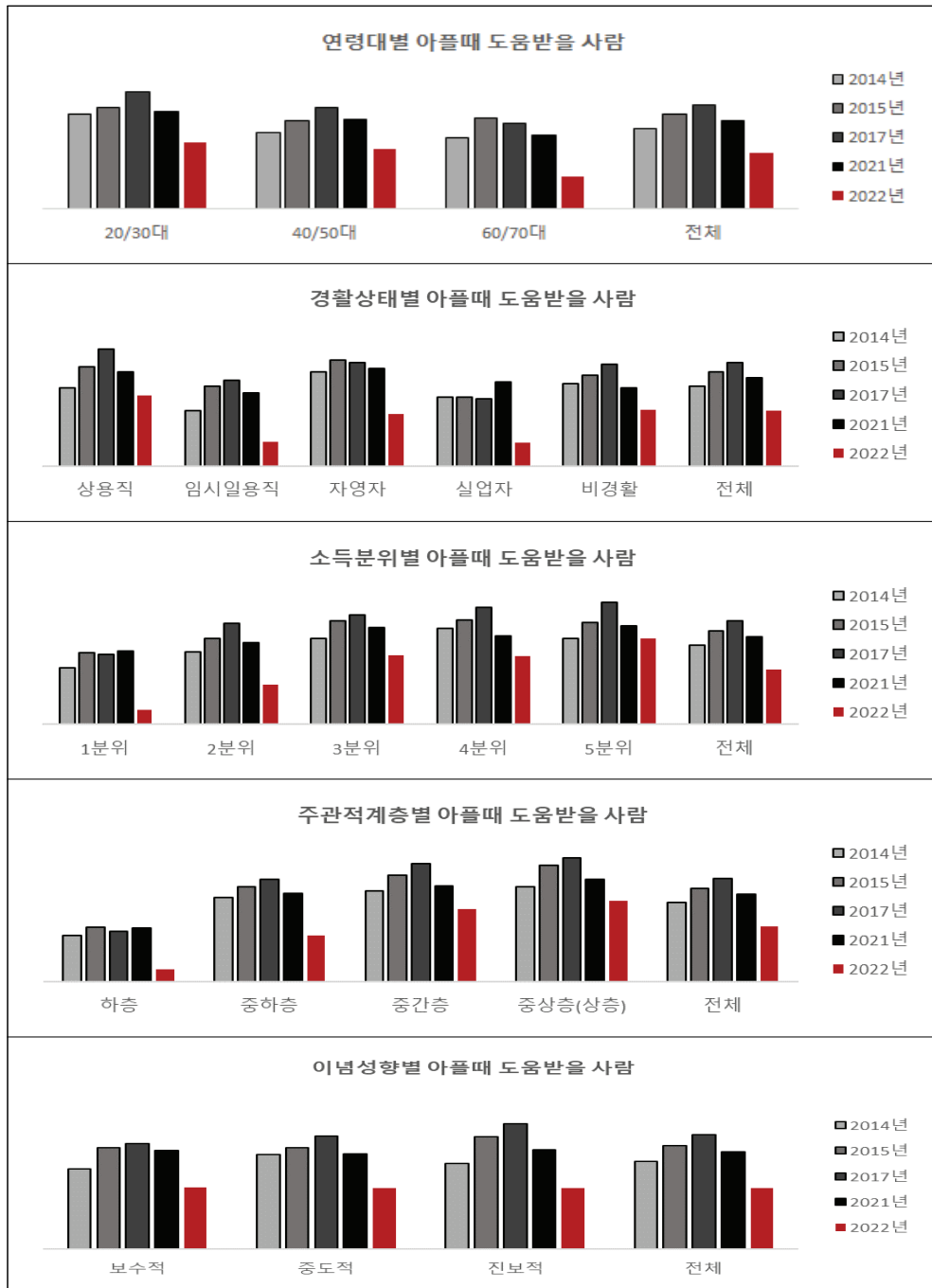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2022	*)
전체		75.73	80.46	83.64	78.54	67.98	-
연령대	20/30대	80.69	82.85	87.70	81.35	71.59	-
	40/50대	74.80	78.65	82.67	78.78	69.46	-
	60/70대	73.08	79.55	77.74	73.76	60.29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5.42	82.28	87.82	80.59	72.78	-
	임시일용직	67.92	75.75	77.71	73.66	55.18	***
	자영자	80.61	84.26	83.50	81.64	66.71	-
	실업자	72.21	72.29	71.88	77.11	57.47	-
	비경활	76.77	79.47	82.90	75.28	68.11	***
소득 5분위	1분위	68.46	73.38	72.89	74.05	54.74	-
	2분위	73.54	78.09	82.84	76.73	63.00	-
	3분위	78.15	83.66	85.77	81.59	72.53	-
	4분위	81.30	84.18	88.15	78.79	72.14	-
	5분위	77.92	83.18	89.76	82.09	78.05	-
주관적 계층	하층	64.93	67.77	66.42	67.57	54.03	***
	중하층	77.59	81.03	83.49	78.84	64.96	-
	중간층	79.65	84.81	88.43	81.11	73.75	-
	중상층/상층	80.92	88.05	90.52	83.36	76.48	-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60	79.85	81.01	79.08	68.10	-
	중도적	77.69	79.81	83.13	78.01	67.99	-
	진보적	75.05	83.09	86.86	79.11	67.82	-

주: 기존 문항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그림 3-11]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유무

(단위: %)



2022년에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 조사 연도 내에서 47.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7.45%p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연령대별로는 60/70대 노년층 (21.75%p),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시일용직 (25.55%p), 실업자(24.24%p), 소득 5분위별로는 2분위(25.15%p),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하층(21.19%p)에서, 이념적 성향별로는 보수적(18.13%p) 부문에서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은 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13〉 큰돈을 빌릴 사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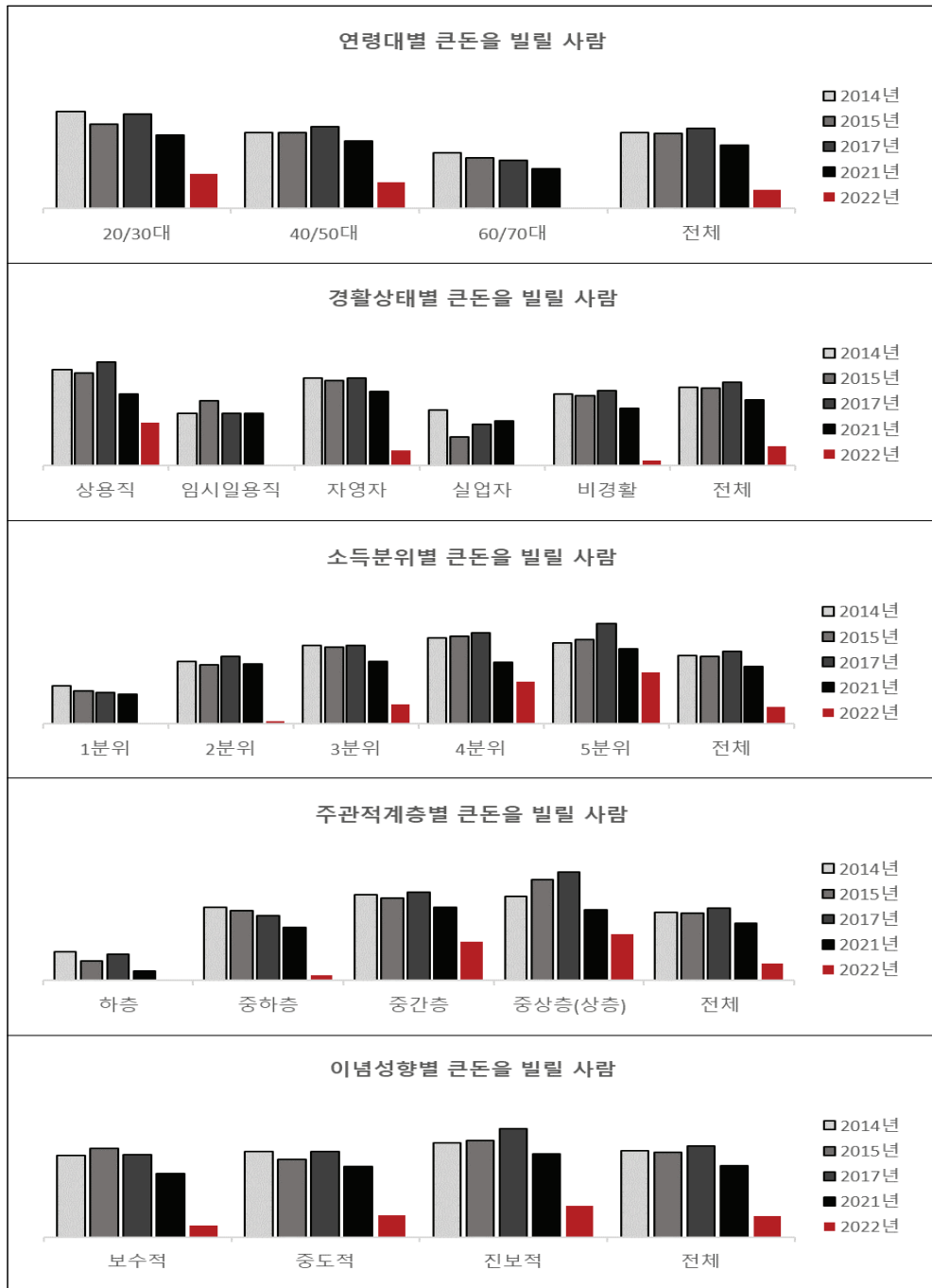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2022	*)
전체		69.77	69.35	71.51	64.76	47.31	-
연령대	20/30대	77.91	73.21	77.02	68.71	53.37	-
	40/50대	69.66	69.74	72.23	66.54	50.19	-
	60/70대	61.64	59.94	58.92	55.43	33.68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6.39	75.10	79.46	67.29	56.37	-
	임시일용직	59.64	64.62	59.80	59.93	34.38	***
	자영자	73.32	72.27	73.18	68.28	46.40	-
	실업자	61.04	50.86	55.64	56.80	32.56	***
	비경활	67.02	66.68	68.30	61.77	41.66	***
소득 5분위	1분위	56.34	54.33	53.56	52.79	27.94	-
	2분위	67.01	65.52	69.15	65.95	40.80	***
	3분위	73.88	73.09	73.91	67.02	48.30	***
	4분위	77.48	77.88	79.41	66.53	58.37	***
	5분위	75.11	76.66	83.71	72.63	62.40	-
주관적 계층	하층	52.35	48.56	51.31	44.01	25.49	-
	중하층	71.92	70.45	68.23	63.21	42.02	***
	중간층	77.52	75.95	78.65	71.83	56.84	-
	중상층/상층	76.60	84.00	87.14	70.70	60.04	*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23	70.65	68.45	62.09	43.96	***
	중도적	69.43	66.89	69.50	64.38	47.64	***
	진보적	72.47	73.37	77.36	68.69	50.86	***

주: 기존 문항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그림 3-12] 큰돈을 빌릴 사람 유무

(단위: %)



이야기를 나눌 사람의 절대적 사회자본 수준 비율은 앞의 두 가지 사회적 자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으로 약 85.44%의 응답자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비해 그 비율이 4.06%p 가량 소폭 감소했다.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 5분위, 주관적 계층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5분위(1.58%p), 중상층 이상(2.53%p)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고소득집단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이념적 성향별로 볼 때 유일하게 보수적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폭을 보였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0.5%p 감소하였다.

〈표 3-14〉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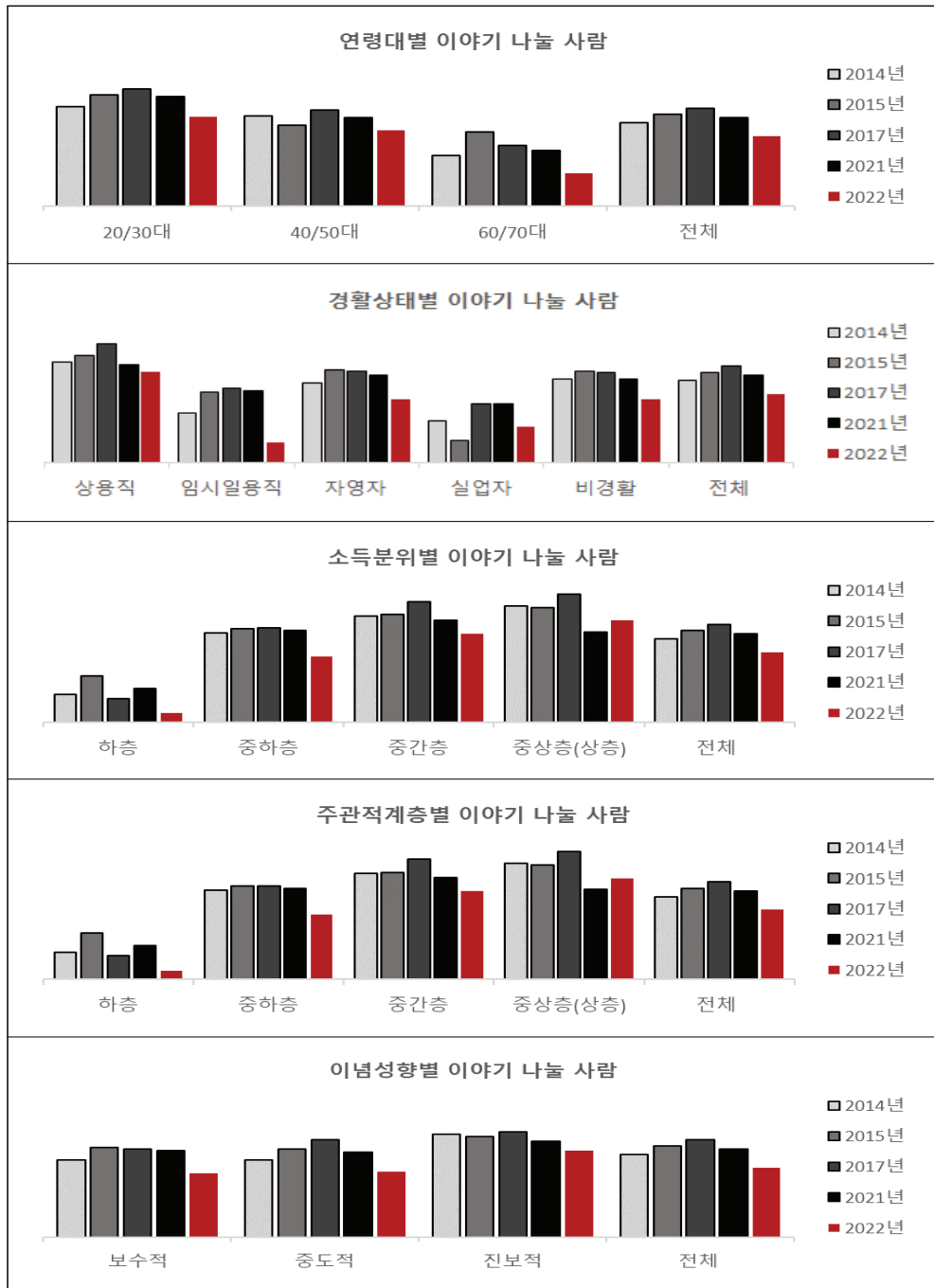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2022	*)
전체		88.34	90.20	91.54	89.50	85.44	-
연령대	20/30대	91.85	94.60	95.93	94.17	89.63	-
	40/50대	89.95	87.80	91.28	89.53	86.73	-
	60/70대	81.08	86.31	83.38	82.23	77.22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92.50	93.93	96.41	91.80	90.37	-
	임시일용직	81.21	85.89	86.57	86.21	74.57	-
	자영자	87.68	90.78	90.52	89.69	84.17	-
	실업자	79.39	74.93	83.16	83.28	78.17	-
	비경활	88.79	90.31	90.02	88.80	84.16	-
소득 5분위	1분위	75.95	81.18	79.58	80.23	72.51	-
	2분위	87.46	87.74	91.60	90.30	83.57	-
	3분위	92.67	93.78	94.59	91.04	88.81	-
	4분위	92.26	94.24	96.36	93.80	88.84	-
	5분위	94.76	94.53	96.73	92.40	93.98	-
주관적 계층	하층	76.09	80.23	75.22	77.44	72.00	*
	중하층	89.67	90.69	90.75	90.20	84.45	-
	중간층	93.53	93.72	96.59	92.60	89.56	-
	중상층/상층	95.74	95.27	98.28	89.91	92.44	-
이념적 성향	보수적	87.14	89.93	89.53	89.20	84.20	***
	중도적	87.08	89.57	91.63	88.89	84.52	-
	진보적	92.82	92.24	93.29	91.22	89.14	-

주: 기존 문항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그림 3-13]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단위: %)



4. 형평성

가. 형평성 인식

형평성 인식과 관련된 두 문항은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로 5점 척도로 계측되었다. 각 문항에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역코딩하였으며,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여유진 외, 2021b).

먼저,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4년 조사 이후 3.4~3.5점대를 보이며 대체로 ‘약간 동의’와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의 ‘중립’ 의미를 보인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동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1년에 비해 한국 사회의 공정 이슈에 대해 긍정적 동의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2021년보다 사회, 정치적으로 공정과 관련된 이슈가 덜 부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자영자, 실업자, 비경활 제외), 소득 5분위, 주관적 계층, 이념적 성향별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모두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긍정적인 형평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와 달리 대부분 부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공평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 1분위는 2021년에 한국의 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2022년에는 다른 소득계층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15〉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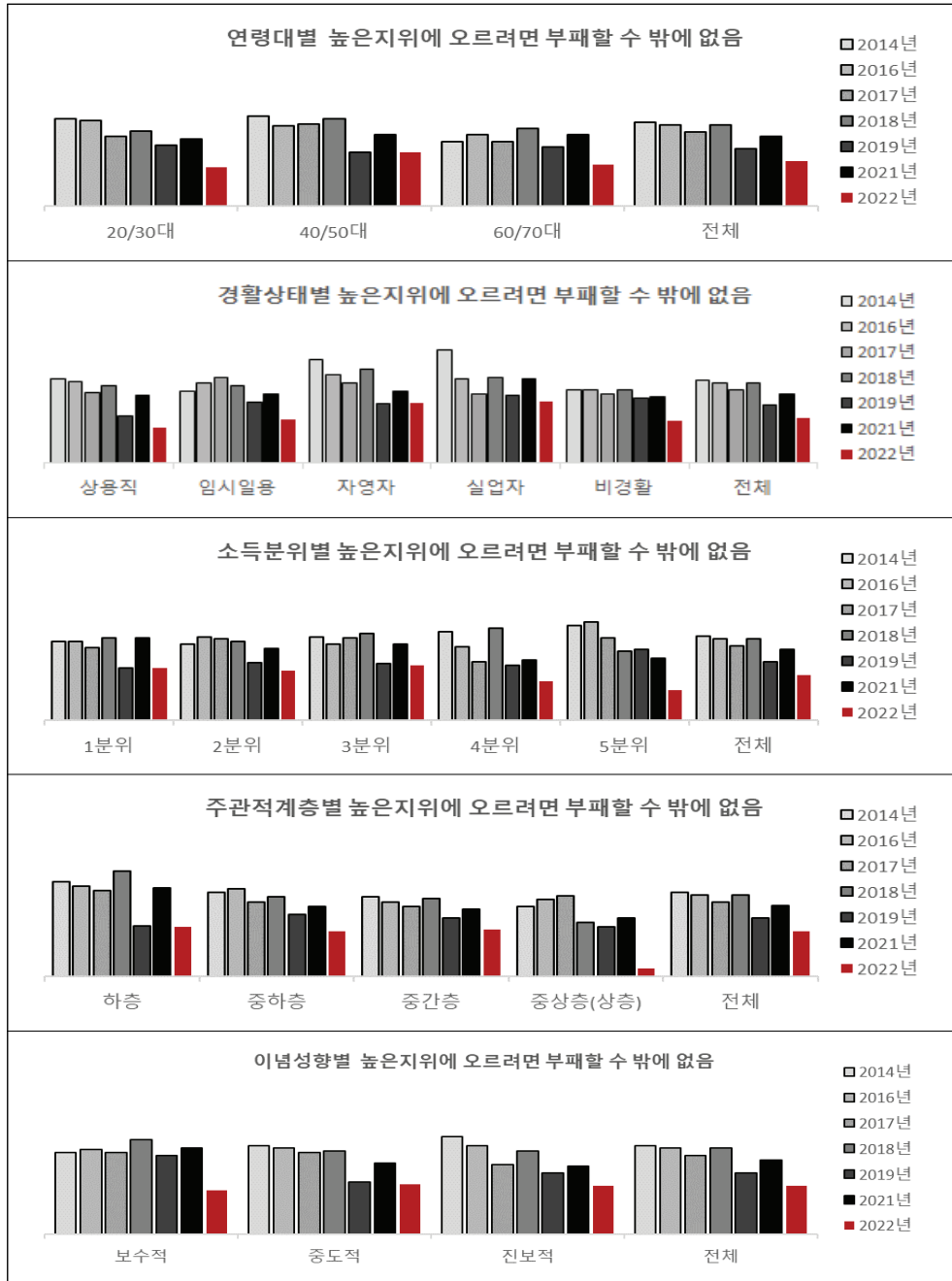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3.61	3.59	3.54	3.59	3.42	3.51	3.33	***
연령대	20/30대	3.64	3.63	3.51	3.55	3.44	3.49	3.28	***
	40/50대	3.66	3.58	3.60	3.64	3.39	3.52	3.39	***
	60/70대	3.47	3.52	3.47	3.57	3.43	3.52	3.30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1	3.60	3.51	3.56	3.35	3.50	3.26	***
	임시일용직	3.53	3.58	3.63	3.57	3.45	3.51	3.32	*
	자영자	3.76	3.64	3.59	3.69	3.43	3.53	3.44	-
	실업자	3.83	3.62	3.51	3.63	3.50	3.62	3.45	-
	비경활	3.54	3.53	3.50	3.54	3.48	3.49	3.31	-
소득 5분위	1분위	3.57	3.57	3.52	3.59	3.38	3.60	3.38	***
	2분위	3.55	3.60	3.59	3.57	3.42	3.52	3.36	**
	3분위	3.60	3.55	3.60	3.62	3.41	3.55	3.40	*
	4분위	3.64	3.53	3.42	3.67	3.39	3.43	3.28	*
	5분위	3.68	3.71	3.59	3.50	3.51	3.45	3.22	***
주관적 계층	하층	3.68	3.65	3.62	3.76	3.37	3.64	3.36	***
	중하층	3.61	3.63	3.54	3.57	3.45	3.50	3.33	***
	중간층	3.57	3.54	3.51	3.56	3.42	3.48	3.34	***
	중상층/상층	3.50	3.56	3.58	3.39	3.36	3.42	3.06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6	3.58	3.56	3.65	3.54	3.59	3.30	***
	중도적	3.61	3.59	3.56	3.57	3.36	3.49	3.34	***
	진보적	3.67	3.61	3.48	3.57	3.42	3.47	3.33	**

주: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그림 3-14]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항은 앞의 형평성 인식보다는 전반적으로 5점 만점 척도에서 4.1~4.2점대가 나타난다. 즉,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0.19점 낮아진 4.07점으로,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 소득 5분위, 주관적 계층, 이념적 성향별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40/50대, 임시일용직, 자영자, 소득 1분위, 2분위, 5분위, 중상층(상층), 보수적인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이 집단들에서는 소득 격차가 크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6〉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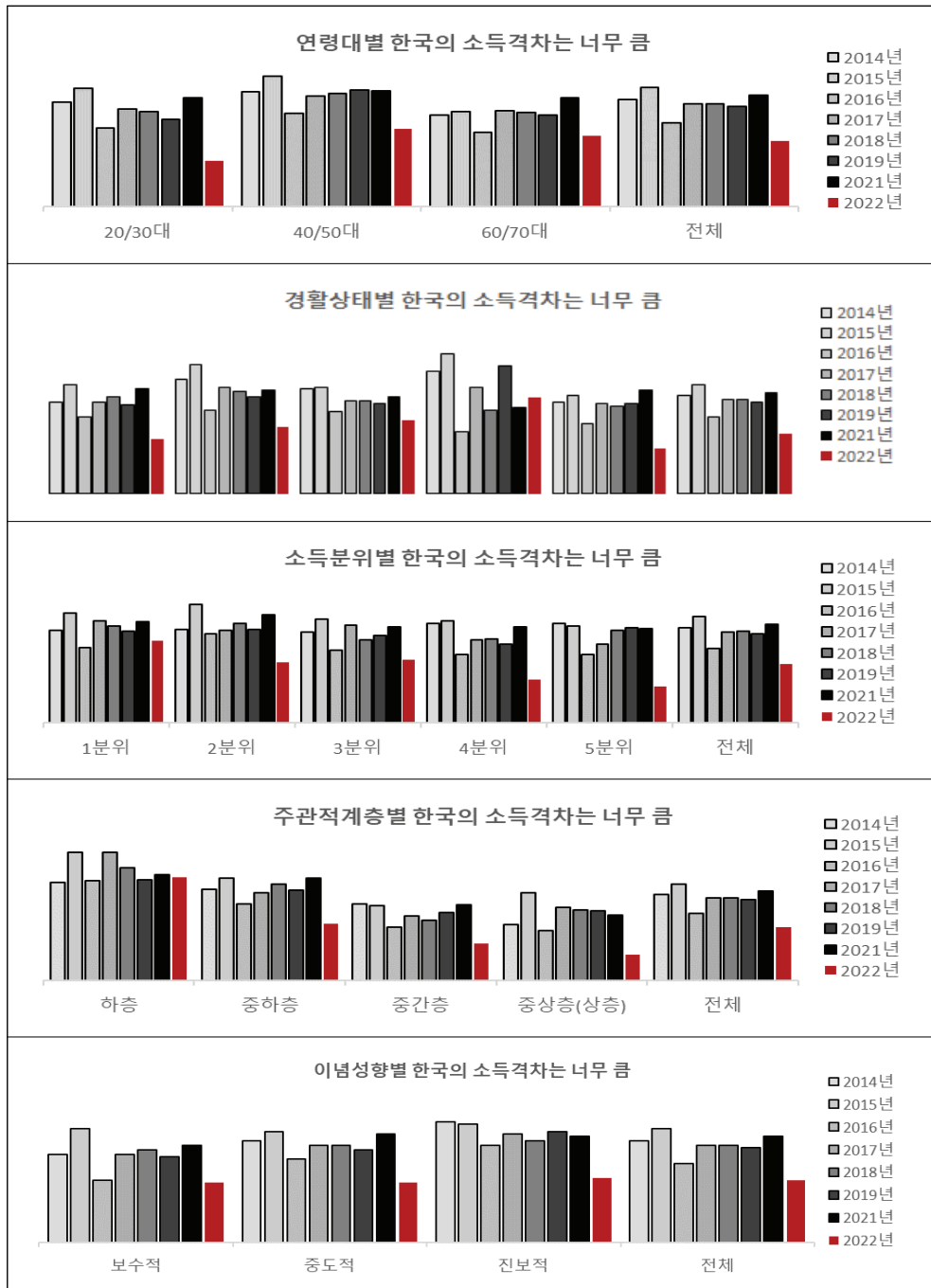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4.24	4.29	4.14	4.22	4.22	4.21	4.26	4.07	-
연령대	20/30대	4.23	4.29	4.12	4.20	4.19	4.16	4.25	3.99	-
	40/50대	4.27	4.34	4.18	4.25	4.26	4.28	4.27	4.12	***
	60/70대	4.18	4.19	4.10	4.19	4.19	4.18	4.25	4.09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21	4.29	4.15	4.21	4.24	4.20	4.27	4.04	-
	임시일용직	4.31	4.38	4.18	4.28	4.26	4.24	4.27	4.10	**
	자영자	4.27	4.28	4.17	4.22	4.22	4.21	4.24	4.13	**
	실업자	4.35	4.43	4.08	4.28	4.17	4.37	4.19	4.23	-
	비경활	4.21	4.24	4.11	4.21	4.19	4.20	4.27	4.00	-
소득 5분위	1분위	4.23	4.31	4.15	4.27	4.25	4.23	4.27	4.18	**
	2분위	4.23	4.35	4.21	4.23	4.26	4.23	4.30	4.08	***
	3분위	4.22	4.28	4.13	4.25	4.18	4.20	4.24	4.09	-
	4분위	4.26	4.27	4.12	4.18	4.19	4.16	4.24	4.00	-
	5분위	4.26	4.25	4.12	4.17	4.23	4.24	4.24	3.97	***
주관적 계층	하층	4.30	4.46	4.31	4.45	4.38	4.32	4.34	4.33	-
	중하층	4.27	4.33	4.19	4.25	4.29	4.26	4.33	4.09	-
	중간층	4.19	4.18	4.07	4.13	4.11	4.15	4.19	3.99	-
	중상층/상층	4.09	4.25	4.05	4.17	4.16	4.16	4.13	3.93	*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8	4.29	4.07	4.18	4.20	4.17	4.22	4.06	***
	중도적	4.24	4.28	4.16	4.22	4.22	4.20	4.27	4.06	-
	진보적	4.32	4.31	4.22	4.27	4.24	4.28	4.26	4.08	-

주: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그림 3-1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나. 정부 분배정책에 대한 견해

한국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질문에 동의 할수록 높은 점수로 역코딩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 기준으로 3.5~3.7점대를 보이며 '약간 동의' 정도를 보였다. 2022년에는 3.43점으로 2021년 대비 0.11점 소폭 하락하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이 조금 증가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볼 때 연령대별로는 20/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임시일용직을 제외한 경제활동상태별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소득 4,5분위에서도 유의미함을 보였다.

〈표 3-17〉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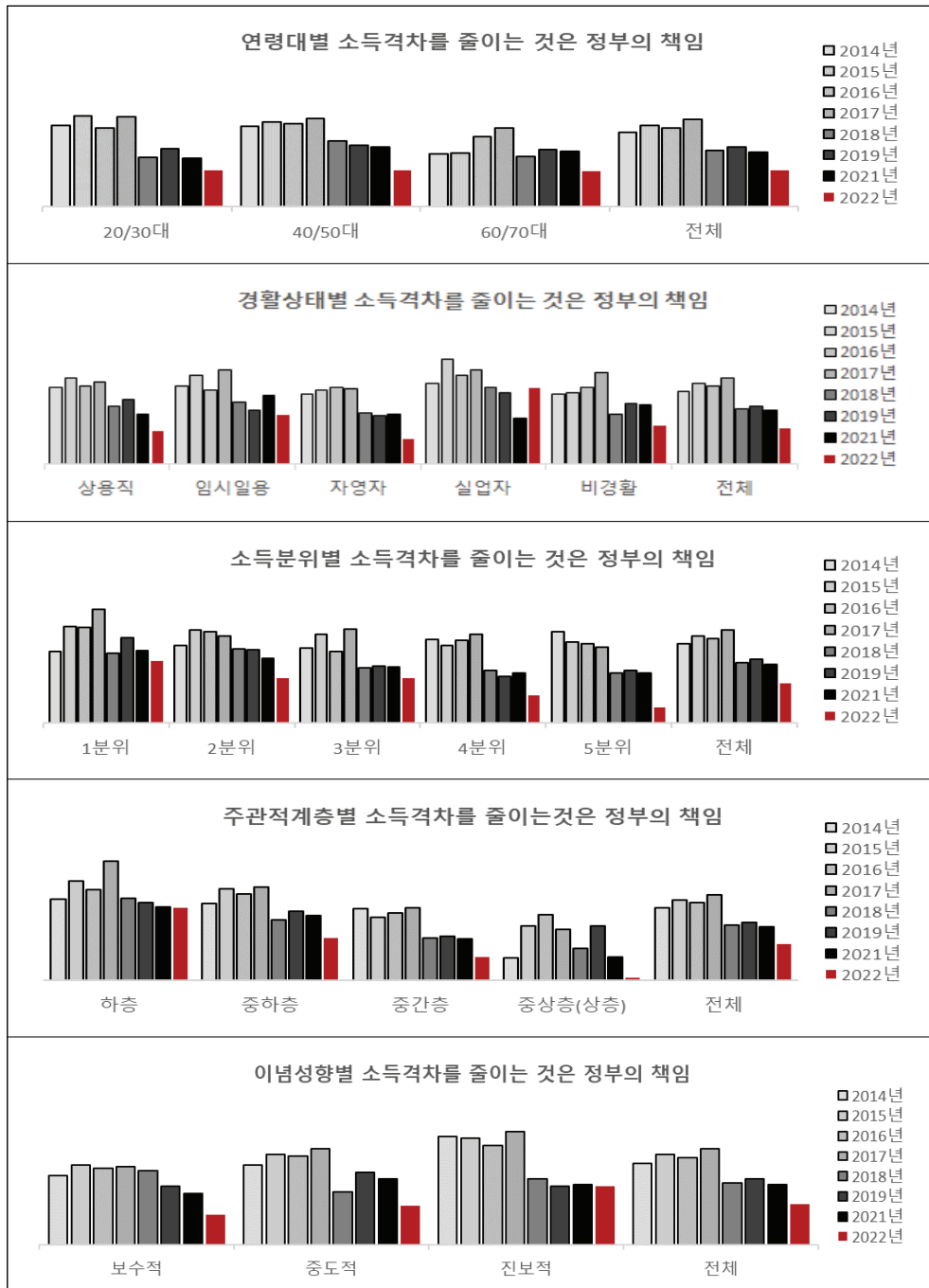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3.66	3.71	3.69	3.74	3.55	3.57	3.54	3.43	-
연령대	20/30대	3.71	3.77	3.69	3.76	3.51	3.56	3.50	3.43	-
	40/50대	3.70	3.73	3.72	3.75	3.61	3.58	3.57	3.43	***
	60/70대	3.53	3.54	3.64	3.69	3.51	3.55	3.55	3.42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9	3.75	3.70	3.72	3.57	3.61	3.51	3.41	**
	임시일용직	3.70	3.77	3.67	3.80	3.60	3.54	3.64	3.51	-
	자영자	3.64	3.67	3.69	3.68	3.52	3.50	3.52	3.36	***
	실업자	3.71	3.87	3.76	3.80	3.68	3.66	3.49	3.68	*
	비경활	3.64	3.65	3.69	3.78	3.52	3.59	3.58	3.44	***
소득 5분위	1분위	3.62	3.76	3.76	3.87	3.61	3.70	3.62	3.56	-
	2분위	3.65	3.74	3.73	3.71	3.63	3.63	3.58	3.46	-
	3분위	3.64	3.72	3.62	3.75	3.52	3.53	3.53	3.46	-
	4분위	3.69	3.65	3.68	3.72	3.51	3.47	3.49	3.36	*
	5분위	3.73	3.67	3.67	3.64	3.49	3.51	3.49	3.29	***
주관적 계층	하층	3.72	3.83	3.78	3.96	3.72	3.70	3.67	3.66	-
	중하층	3.69	3.78	3.75	3.79	3.59	3.64	3.61	3.47	***
	중간층	3.66	3.60	3.63	3.66	3.47	3.48	3.46	3.35	***
	중상층/상층	3.35	3.55	3.62	3.52	3.41	3.55	3.35	3.22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9	3.65	3.63	3.64	3.62	3.53	3.49	3.37	**
	중도적	3.65	3.71	3.70	3.74	3.50	3.61	3.57	3.42	-
	진보적	3.81	3.80	3.76	3.84	3.57	3.53	3.54	3.53	-

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그림 3-16]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앞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에 대한 동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3.3점~3.6점대를 보였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0.05점 소폭 하락한 3.32 점을 나타냈다. 영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2022년에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자는 유일하게 0.23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기이해적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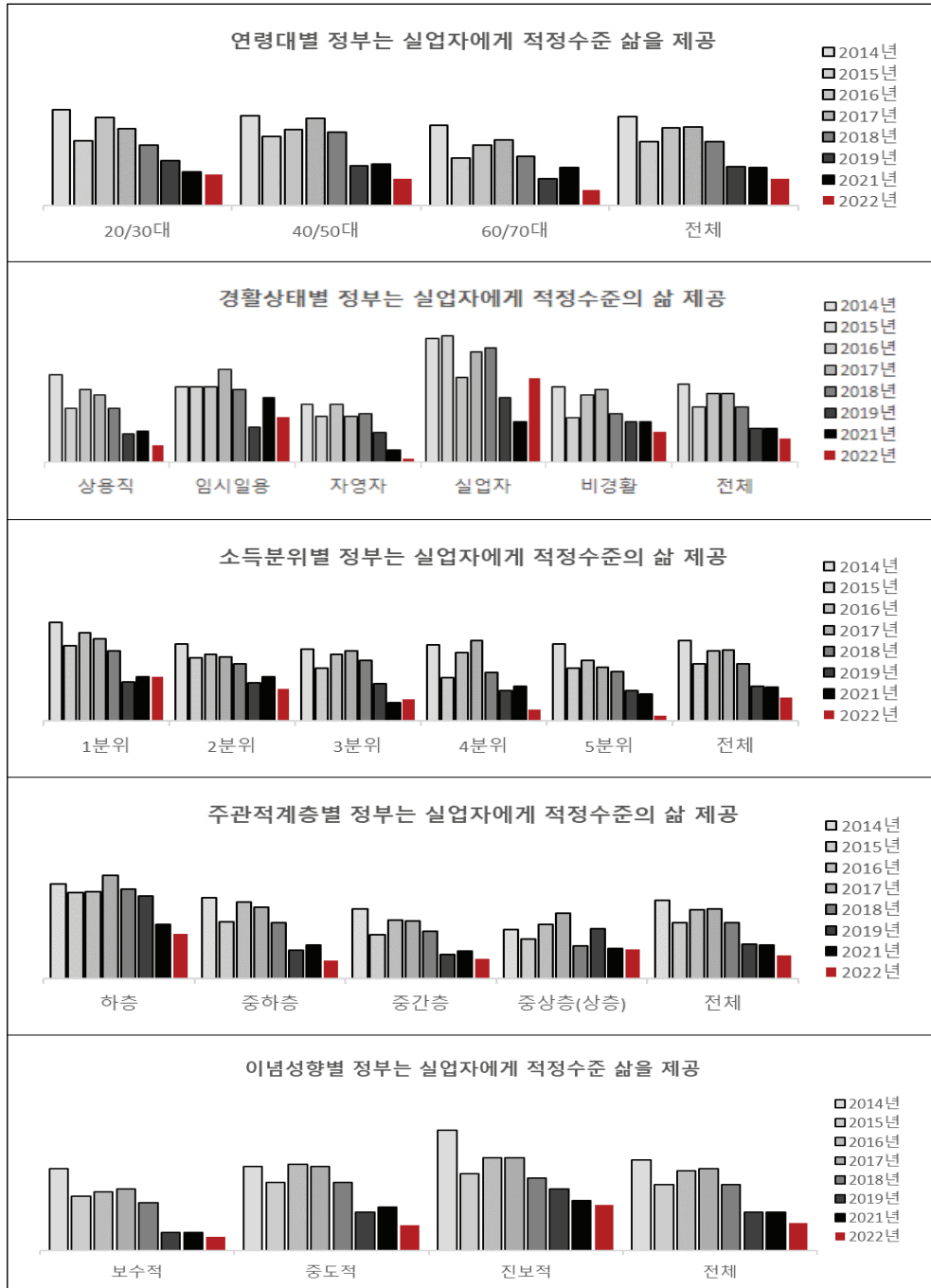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3.60	3.49	3.55	3.56	3.49	3.37	3.37	3.32	-
연령대	20/30대	3.63	3.49	3.60	3.55	3.47	3.40	3.35	3.34	-
	40/50대	3.60	3.51	3.54	3.59	3.53	3.38	3.39	3.32	-
	60/70대	3.56	3.42	3.47	3.49	3.42	3.32	3.37	3.27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5	3.48	3.57	3.55	3.48	3.34	3.36	3.28	*
	임시일용직	3.59	3.59	3.59	3.68	3.57	3.38	3.53	3.43	-
	자영자	3.50	3.43	3.50	3.44	3.45	3.35	3.26	3.22	-
	실업자	3.84	3.85	3.64	3.77	3.79	3.54	3.41	3.64	*
	비경활	3.59	3.43	3.55	3.58	3.45	3.41	3.41	3.36	-
소득 5분위	1분위	3.69	3.58	3.64	3.61	3.55	3.39	3.42	3.42	-
	2분위	3.59	3.51	3.53	3.52	3.49	3.39	3.42	3.36	-
	3분위	3.56	3.47	3.54	3.55	3.50	3.39	3.29	3.31	-
	4분위	3.58	3.42	3.54	3.60	3.44	3.35	3.37	3.26	-
	5분위	3.58	3.46	3.50	3.47	3.45	3.35	3.34	3.23	-
주관적 계층	하층	3.68	3.64	3.65	3.73	3.66	3.62	3.48	3.43	-
	중하층	3.61	3.49	3.59	3.56	3.48	3.35	3.37	3.29	*
	중간층	3.56	3.42	3.50	3.50	3.44	3.32	3.34	3.30	-
	중상층/상층	3.45	3.40	3.47	3.54	3.37	3.45	3.35	3.35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6	3.44	3.46	3.47	3.41	3.28	3.28	3.26	-
	중도적	3.57	3.50	3.58	3.57	3.50	3.37	3.39	3.31	**
	진보적	3.73	3.54	3.61	3.61	3.52	3.47	3.42	3.40	-

주: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그림 3-1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정부가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면 동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은 5점 척도로, 전반적으로 3.2~3.3점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가 빈곤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0.01점 소폭 하락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소폭 하락하였지만 소득 3분위(0.1점), 중상층 이상(0.2점)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모든 집단별 증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9〉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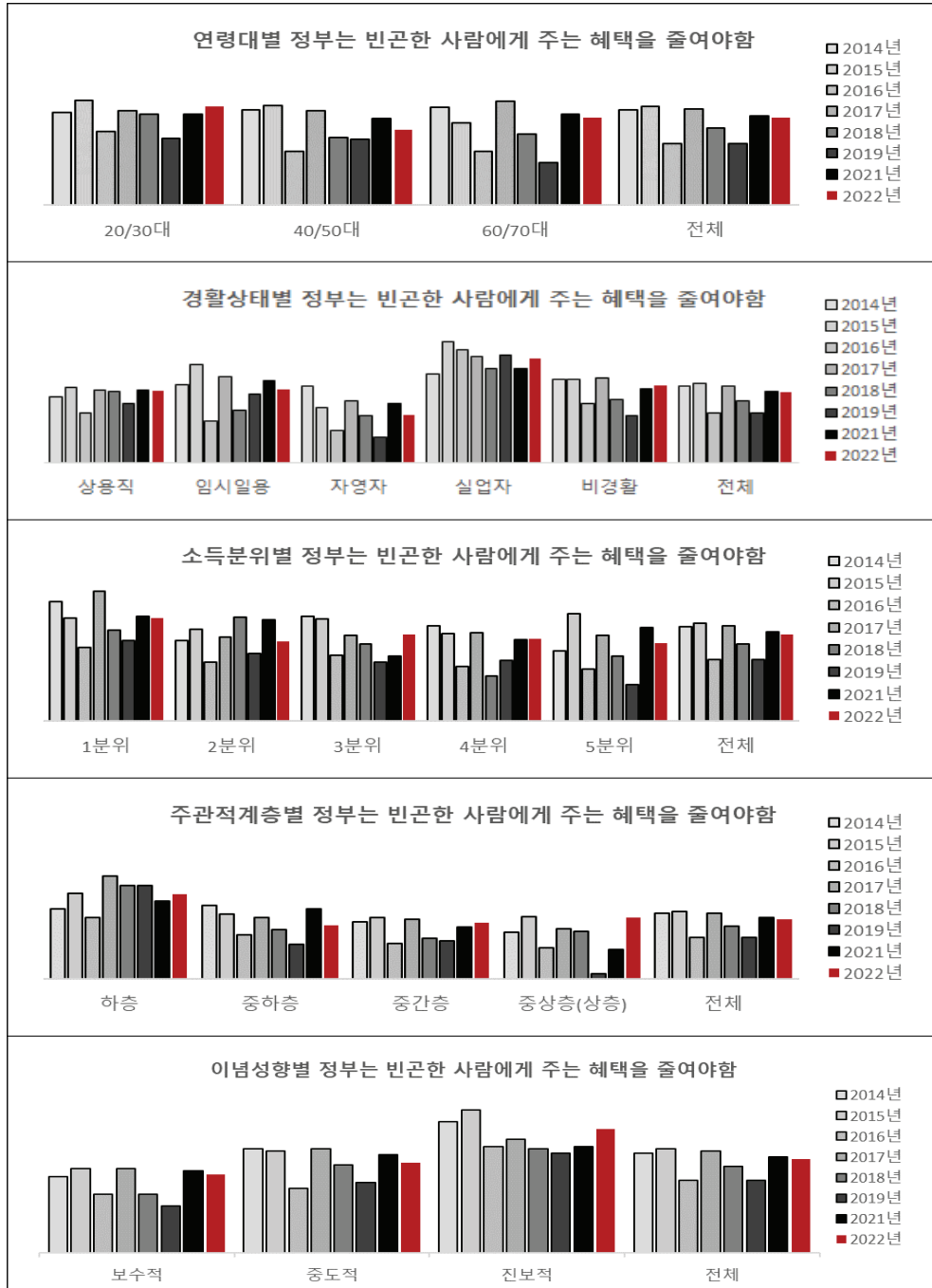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
전체		3.31	3.33	3.17	3.32	3.24	3.17	3.29	3.28	-
연령대	20/30대	3.30	3.36	3.22	3.31	3.30	3.19	3.30	3.33	-
	40/50대	3.32	3.33	3.13	3.31	3.20	3.19	3.28	3.23	-
	60/70대	3.33	3.26	3.14	3.35	3.21	3.09	3.30	3.28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26	3.31	3.17	3.29	3.29	3.22	3.29	3.29	-
	임시일용직	3.32	3.43	3.12	3.37	3.19	3.27	3.35	3.30	-
	자영자	3.31	3.20	3.07	3.24	3.15	3.04	3.22	3.16	-
	실업자	3.38	3.56	3.51	3.48	3.41	3.49	3.41	3.47	-
	비경활	3.35	3.35	3.22	3.36	3.24	3.15	3.30	3.32	-
소득 5분위	1분위	3.42	3.35	3.22	3.47	3.30	3.25	3.36	3.35	-
	2분위	3.25	3.30	3.16	3.27	3.35	3.20	3.34	3.25	-
	3분위	3.36	3.35	3.19	3.27	3.24	3.16	3.18	3.28	-
	4분위	3.32	3.28	3.14	3.29	3.10	3.17	3.26	3.26	-
	5분위	3.21	3.37	3.13	3.27	3.19	3.06	3.31	3.24	-
주관적 계층	하층	3.35	3.44	3.29	3.55	3.49	3.49	3.40	3.44	-
	중하층	3.37	3.32	3.18	3.29	3.22	3.12	3.35	3.24	-
	중간층	3.27	3.29	3.13	3.28	3.16	3.14	3.23	3.26	-
	중상층/상층	3.20	3.30	3.10	3.22	3.20	2.94	3.09	3.2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9	3.23	3.10	3.23	3.10	3.04	3.22	3.20	-
	중도적	3.33	3.32	3.13	3.33	3.25	3.16	3.30	3.26	-
	진보적	3.47	3.53	3.34	3.38	3.33	3.31	3.34	3.43	-

주: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그림 3-18]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제4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 인식

이 절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에 대한 인식은 2021년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문항이 있어 2021년과 202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외 문항들은 앞의 절과 달리 2022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1. 코로나19 전후 삶 및 사회변화 인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식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은 평균 6.05점으로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상 회복 정도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20/3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소득층(5분위, 중상층(상층))에서 일상 회복 인식 정도가 양호한 반면, 60/70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자 및 고용주, 실업자, 중저소득층(3분위 이하, 중하층 이하), 보수 성향 응답자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연령이 낮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인 사람이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일상 회복 인식이 다소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20〉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

(단위: 점)

구분		회복 정도
전체		6.05
연령대	20/30대	6.18 ***
	40/50대	6.00
	60/70대	5.9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2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96
	자영자, 고용주	5.85
	실업자	5.91
	비경제활동자	6.05
소득 5분위	1분위	5.85 ***
	2분위	5.85
	3분위	5.95
	4분위	6.25
	5분위	6.37
주관적 계층	하층	5.73 ***
	중하층	6.04
	중간층	6.11
	중상층(상층)	6.45
이념 성향	보수	5.97
	중도	6.05
	진보	6.14

주: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스스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 전혀 회복 못 함~㉠ 완전히 회복함’ 11점 척도로 측정함.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본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2021년 조사에서 3점(변화 없을 것) 이하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22년 조사에서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2021년에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향후 본인 가구의 경제 상황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각각 2.57점, 2.64점으로 부정적 변화를 예상했다면, 2022년에는 3.03점, 3.09점으로 3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변화가 없거나 약간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해서 60/70대, 실업자, 저소득층(1분위, 하층)은 2022년의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여전히 부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변화에서는 실업자만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각 연도 내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상태가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 가구 경제 상황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념 성향에 따른 두 가지 인식 변화는 모두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2022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1년에는 보수 성향의 사람이 진보 성향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변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이념 성향 간 차이 없이 약간 긍정적인 변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표 3-21〉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가구 경제 및 사회 신뢰⁵⁾

(단위: 점)

구분		가구 경제 상황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57	3.03	***	2.64	3.09	***
연령대	20/30대	2.69	3.11	***	2.67	3.11	***
	40/50대	2.53	3.02	***	2.62	3.09	***
	60/70대	2.47	2.95	***	2.63	3.06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	3.07	***	2.69	3.1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6	3.06	***	2.65	3.08	***
	자영업자, 고용주	2.38	3.01	***	2.58	3.05	***
	실업자	2.56	2.90	***	2.64	2.97	-
	비경제활동자	2.60	3.03	***	2.61	3.12	***
소득 5분위	1분위	2.41	2.91	***	2.61	3.02	***
	2분위	2.42	3.04	***	2.56	3.10	***
	3분위	2.58	3.03	***	2.63	3.05	***
	4분위	2.69	3.09	***	2.66	3.09	***
	5분위	2.76	3.11	***	2.75	3.21	***
주관적 계층	하층	2.31	2.88	***	2.53	3.01	***
	중하층	2.52	3.04	***	2.59	3.05	***
	중간층	2.68	3.07	***	2.69	3.14	***
	중상층(상층)	2.70	3.13	***	2.80	3.17	*
이념 성향	보수	2.48	3.02	***	2.57	3.10	***
	중도	2.59	3.05	***	2.65	3.08	***
	진보	2.64	3.03	***	2.69	3.10	***

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① 훨씬 더 나빠질 것~⑤ 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 4) 아래 표에서는 집단별 인식의 연도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해당 표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간 인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연도 내 집단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내용은 표에 담지 못했으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했음을 밝힌다.
- 5) 코로나19 발생 이전, 그리고 향후 본인의 삶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항은 2021년과 2022년 문구가 다소 다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로 물었고, 2022년에는 질문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로 물었다. 약간의 문구 차이는 있으나, 면접원 교육 시 이후 상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코로나19가 회복된 상태를 주지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두 해의 조사 결과 비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전후 가족 및 친구·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인식에서도 전반적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는 2021년 2.95점에서 2022년 3.23점으로 향상되었고, 친구·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역시 2.82점에서 3.27점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실업자의 경우, 2022년 3점대로 점수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연간 인식 변화가 다른 경제활동상태 집단에 비해 확연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 집단의 가족 및 친구·동료관계 변화 인식 점수는 다른 경제활동상태의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2021년에는 높고 2022년에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 및 친구·동료들과의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객관적·주관적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진보보다는 보수의 이념성향을 가진 경우 코로나19 전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21년 코로나19 전후 가족관계의 변화 인식이 대체로 3점(변화 없을 것) 이하였으나, 소득 4, 5분위 및 중상층(상층), 진보 성향 집단은 3점 이상으로 2021년에도 다른 계층에 비해 관계 변화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가족 및 친구·동료 관계

(단위: 점)

구분		가족 관계			친구·동료 관계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95	3.23	***	2.82	3.27	***
연령대	20/30대	2.99	3.26	***	2.86	3.32	***
	40/50대	2.95	3.22	***	2.81	3.26	***
	60/70대	2.87	3.19	***	2.76	3.21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8	3.27	***	2.83	3.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7	3.14	***	2.81	3.20	***
	자영자, 고용주	2.94	3.21	***	2.82	3.24	***
	실업자	2.98	3.15	*	2.88	3.17	*
	비경제활동자	2.93	3.24	***	2.78	3.29	***
소득 5분위	1분위	2.90	3.15	***	2.81	3.17	***
	2분위	2.87	3.18	***	2.79	3.22	***
	3분위	2.90	3.22	***	2.81	3.29	***
	4분위	3.01	3.27	***	2.78	3.30	***
	5분위	3.05	3.34	***	2.90	3.36	***
주관적 계층	하층	2.81	3.10	***	2.75	3.21	***
	중하층	2.96	3.20	***	2.82	3.23	***
	중간층	2.96	3.29	***	2.83	3.31	***
	중상층(상층)	3.06	3.25	-	2.87	3.26	**
이념 성향	보수	2.87	3.23	***	2.74	3.23	***
	중도	2.96	3.22	***	2.85	3.26	***
	진보	3.01	3.25	***	2.84	3.32	***

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① 훨씬 더 나빠질 것~⑤ 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사회의 변화는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불평등 및 양극화,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을 물었다. 먼저,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 및 양극화 전망은 평균이 각각 2021년 2.32점, 2.11점에서 2022년 2.70점, 2.53점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3점(변화 없을 것) 이하로 코로나19가 회복된 상황에서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 및 양극화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 회복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22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불평등 및 양극화 전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활동상태 집단은 부정적 전망 내에서도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업자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3-23〉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경제적 수준 및 불평등

(단위: 점)

구분		경제적 수준			불평등 및 양극화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32	2.70	***	2.11	2.53	***
연령대	20/30대	2.33	2.75	***	2.14	2.56	***
	40/50대	2.34	2.64	***	2.09	2.48	***
	60/70대	2.27	2.72	***	2.10	2.59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0	2.65	***	2.16	2.4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7	2.80	***	2.12	2.51	***
	자영업자, 고용주	2.29	2.71	***	2.04	2.53	***
	실업자	2.24	2.62	*	2.20	2.51	-
	비경제활동자	2.28	2.75	***	2.10	2.61	***
소득 5분위	1분위	2.26	2.66	***	2.07	2.50	***
	2분위	2.21	2.70	***	2.04	2.49	***
	3분위	2.29	2.64	***	2.08	2.52	***
	4분위	2.39	2.71	***	2.17	2.56	***
	5분위	2.48	2.79	***	2.22	2.60	***
주관적 계층	하층	2.24	2.56	***	2.04	2.44	***
	중하층	2.31	2.69	***	2.05	2.49	***
	중간층	2.37	2.75	***	2.19	2.59	***
	중상층(상층)	2.20	2.73	*	2.12	2.64	**
이념 성향	보수	2.23	2.72	***	2.06	2.58	***
	중도	2.34	2.71	***	2.10	2.53	***
	진보	2.39	2.66	***	2.20	2.48	***

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① 훨씬 더 나빠질 것~⑤ 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코로나19 이후 시민의식과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한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의식은 2021년 2.86점에서 2022년 3.10점으로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역시 2.63점에서 3.03점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인식과 마찬가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시민의식은 상용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실업자, 4, 5분위, 중상층(상층), 진보 집단에서 2021년과 2022년 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또한 실업자, 중상층(상층)에서 나타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시민의식과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이 2022년에서도 3점 이하로 부정적임을 볼 수 있다. 하층의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은 2021년과 2022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여전히 3점(2.95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24〉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시민의식과 사회의 질

(단위: 점)

구분		시민의식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86	3.10	***	2.63	3.03	***
연령대	20/30대	2.88	3.12	***	2.64	3.07	***
	40/50대	2.89	3.08	**	2.67	3.00	***
	60/70대	2.80	3.12	***	2.55	3.04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3	3.11	-	2.70	3.0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2	3.08	-	2.65	3.06	***
	자영자, 고용주	2.79	3.10	***	2.59	3.00	***
	실업자	2.93	3.02	-	2.74	2.91	-
	비경제활동자	2.84	3.10	***	2.55	3.07	***
소득 5분위	1분위	2.76	3.10	***	2.56	3.01	***
	2분위	2.74	3.07	***	2.52	3.03	***
	3분위	2.79	3.07	*	2.55	3.01	***
	4분위	2.96	3.13	-	2.72	3.02	***
	5분위	3.08	3.14	-	2.82	3.10	***
주관적 계층	하층	2.72	3.06	***	2.57	2.95	***
	중하층	2.83	3.08	***	2.58	3.01	***
	중간층	2.93	3.12	*	2.69	3.08	***
	중상층(상층)	2.94	3.17	-	2.70	3.08	-
이념 성향	보수	2.75	3.11	***	2.55	3.02	***
	중도	2.89	3.10	***	2.64	3.03	***
	진보	2.94	3.10	-	2.71	3.05	***

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① 훨씬 더 나빠질 것~⑤ 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평균 3.35점에서 3.81점으로 ‘그저 그렇다(3점)’와 ‘대체로 적절하다(4점)’ 사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적절성 인식은 2022년에 2021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두 해 모두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사회경제정책 대응 적절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범주별 정부 대응 적절성 인식은 20/30대와 4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소득 3분위(또는 4분위), 중하층 및 중간층, 중도 및 보수 성향 집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범주에서는 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조치에 대해 2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하층 및 중간층, 중도 및 진보 성향 집단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25〉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적절성 인식

(단위: 점)

구분		의료적 방역 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사회경제정책		
		2021	2022	*)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3.71	3.58	***	3.81	3.70	***	3.47	3.35	***
연령대	20/30대	3.63	3.52	**	3.78	3.68	-	3.46	3.33	**
	40/50대	3.79	3.58	***	3.86	3.68	***	3.48	3.31	***
	60/70대	3.68	3.66	-	3.77	3.75	-	3.46	3.4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8	3.56	***	3.88	3.68	***	3.53	3.3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7	3.54	-	3.76	3.69	-	3.48	3.33	-
	자영업자, 고용주	3.66	3.58	-	3.77	3.69	-	3.33	3.33	-
	실업자	3.63	3.54	-	3.80	3.78	-	3.40	3.30	-
	비경제활동자	3.68	3.62	-	3.78	3.72	-	3.51	3.43	-
소득 5분위	1분위	3.66	3.62	-	3.81	3.74	-	3.45	3.37	-
	2분위	3.64	3.57	-	3.71	3.69	-	3.44	3.35	-
	3분위	3.70	3.53	*	3.81	3.62	*	3.47	3.31	-
	4분위	3.75	3.56	-	3.83	3.69	-	3.51	3.35	*
	5분위	3.80	3.61	*	3.90	3.75	-	3.45	3.39	-
주관적 계층	하층	3.63	3.53	-	3.73	3.68	-	3.44	3.28	-
	중하층	3.70	3.54	**	3.81	3.64	***	3.44	3.29	**
	중간층	3.74	3.61	***	3.84	3.73	**	3.49	3.40	*
	중상층(상층)	3.71	3.75	-	3.81	3.89	-	3.48	3.54	-
이념 성향	보수	3.56	3.55	-	3.68	3.69	-	3.35	3.35	-
	중도	3.72	3.58	***	3.82	3.69	***	3.46	3.34	***
	진보	3.86	3.61	***	3.94	3.73	***	3.62	3.38	***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부적절하다~⑤ 매우 적절하다’ 5점 척도로 측정함.

2022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 정보의 충분성과 가독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싶었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평균 2.99점으로 ‘대체로 충분한 편이었다(3점)’에 가까웠으며, 접했던 정보가 이해하기 쉬웠는가에 대한 가독성 인식은 평균 3.02점으로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3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정보의 가독성 인식은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분위, 주관적 계층, 이념 성향 모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상태별 정보의 충분성 인식과 이념 성향 집단 간 정보의 가독성 인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각 집단 내에서 20/3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소득 5분위, 중상층(상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고연령층, 자영자(고용주)와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소득 계층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6〉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정보의 충분성 *	정보의 가독성 *
전체		2.99	3.02
연령대	20/30대	3.04 ***	3.10 ***
	40/50대	2.95	2.99
	60/70대	2.98	2.9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1 *	3.0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5	3.01
	자영자, 고용주	2.93	2.98
	실업자	2.97	3.05
	비경제활동자	3.01	2.98
소득 5분위	1분위	2.96 -	2.93 ***
	2분위	2.97	3.01
	3분위	2.98	3.03
	4분위	2.99	3.02
	5분위	3.04	3.10
주관적 계층	하층	2.92 ***	2.89 ***
	중하층	2.93	2.99
	중간층	3.04	3.07
	중상층(상층)	3.14	3.15
이념 성향	보수	2.95 -	2.97 *
	중도	2.98	3.03
	진보	3.04	3.05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싶었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부족했다~④ 매우 충분했다’, ‘귀하가 접했던 코로나19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쉬웠습니까?’에 대해 ‘① 매우 어려웠다~④ 매우 쉬웠다’ 4점 척도로 측정함.

한편,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 52.54%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도 52.51%로 거의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역시 51.90%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3위까지 모두 경제적 측면 회복과 관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은 그보다 다소 낮은 47.06%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12.53%로 전체 9가지 정책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집단별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 선호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40/50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20/30대와 60/70대는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회복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상용 및 임시일용 임금근로자와 실업자는 근로취약층 고용을, 자영자 및 고용주는 소상공인 회복을, 비경제활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과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회복을 동일하게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응답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선호가 달리 나타났다. 1분위와 하층은 근로취약층 고용지원, 3, 4분위와 중간층은 민생경제회복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5분위·중상층(상층)·2분위·중하층은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계층의 정책선호가 유사한 사실은 다소 흥미롭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 집단에서는 민생경제회복, 중도 성향 집단에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지원,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소상공인회복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중복응답)

구분		노인 아동 돌봄		소상공인 회복		근로취약층 고용		민생경제 회복		건강피해 지원		의료인 의료기관 보상		저소득층 복지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전 국민 대상 지원금	
		n	%	n	%	n	%	n	%	n	%	n	%	n	%	n	%	n	%
연령대	전체	1856	47.06	2072	52.54	2047	51.90	2071	52.51	986	25.00	699	17.72	1,128	28.60	458	11.61	494	12.53
	20/30대	611	46.46	646	49.13	671	51.03	676	51.41	352	26.77	276	20.99	354	26.92	176	13.38	180	13.69
	40/50대	724	44.86	874	54.15	846	52.42	838	51.92	388	24.04	290	17.97	459	28.44	212	13.14	195	12.08
경제 활동 상태	60/70대	521	51.33	552	54.38	530	52.22	557	54.88	246	24.24	133	13.10	315	31.03	70	6.90	119	11.72
	상용직 임금근로자	653	46.38	692	49.15	754	53.55	725	51.49	345	24.50	301	21.38	388	27.56	184	13.07	171	12.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2	51.04	158	46.88	191	56.68	180	53.41	91	27.00	41	12.17	105	31.16	26	7.72	47	13.95
	자영업자, 고용주	415	42.17	647	65.75	493	50.10	532	54.07	230	23.37	155	15.75	257	26.12	104	10.57	115	11.69
	실업자	66	38.15	72	41.62	108	62.43	84	48.55	50	28.90	29	16.76	64	36.99	19	10.98	24	13.87
소득 5분위	비경제활동자	550	52.78	503	48.27	501	48.08	550	52.78	270	25.91	173	16.60	314	30.13	125	12.00	137	13.15
	1분위	453	48.45	449	48.02	507	54.22	490	52.41	225	24.06	124	13.26	336	35.94	91	9.73	128	13.69
	2분위	416	49.17	450	53.19	421	49.76	448	52.96	200	23.64	149	17.61	241	28.49	97	11.47	107	12.65
	3분위	392	48.10	417	51.17	416	51.04	425	52.15	218	26.75	157	19.26	222	27.24	92	11.29	106	13.01
	4분위	292	42.94	368	54.12	359	52.79	369	54.26	172	25.29	135	19.85	177	26.03	87	12.79	75	11.03
주관적 계층	5분위	301	45.40	386	58.22	341	51.43	336	50.68	170	25.64	133	20.06	150	22.62	91	13.73	77	11.61
	하층	258	48.77	251	47.45	302	57.09	268	50.66	131	24.76	73	13.80	189	35.73	42	7.94	72	13.61
	중하층	706	46.20	837	54.78	814	53.27	798	52.23	399	26.11	272	17.80	411	26.90	173	11.32	165	10.80
이념 성향	중간층	810	47.34	890	52.02	855	49.97	919	53.71	414	24.20	315	18.41	478	27.94	219	12.80	223	13.03
	중상층(상층)	82	46.59	94	53.41	76	43.18	86	48.86	42	23.86	39	22.16	50	28.41	24	13.64	34	19.32
	보수	518	47.79	546	50.37	535	49.35	595	54.89	287	26.48	194	17.90	317	29.24	116	10.70	141	13.01
	중도	921	46.66	1,050	53.19	1,061	53.75	1,030	52.18	484	24.52	321	16.26	558	28.27	239	12.11	245	12.41
	진보	417	47.07	476	53.72	451	50.90	446	50.34	215	24.27	184	20.77	253	28.56	103	11.63	108	12.19

주: '귀하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3개의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음.

3. 복지확대 및 세부담에 대한 인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각각 3.26점, 2.7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는 3점(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보다 높아 동의하는 편인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3점 미만으로 반대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는 이념 성향을 제외한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과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소득의 높고 낮음은 일관된 증세 동의 정도를 보이지 않았다. 객관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 3분위가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고 5분위가 가장 높은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에서는 중상층(상층)이 가장 낮고, 중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과 증세에 대한 해석은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 집단에서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감세 및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경제 회복 위해 감세 *)	복지 확대 위해 증세 *)
전체		3.26	2.72
연령대	20/30대	3.25	2.74
	40/50대	3.27	2.74
	60/70대	3.24	2.6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9	2.7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9	2.75
	자영자, 고용주	3.19	2.71
	실업자	3.24	2.69
	비경제활동자	3.28	2.70
소득 5분위	1분위	3.23	2.67 ***
	2분위	3.27	2.68
	3분위	3.29	2.64
	4분위	3.29	2.79
	5분위	3.21	2.81
주관적 계층	하층	3.31	2.63 ***
	중하층	3.24	2.66
	중간층	3.24	2.81
	중상층(상층)	3.40	2.56
이념 성향	보수	3.34 *	2.66 ***
	중도	3.23	2.69
	진보	3.22	2.85

주: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에 대해 ‘① 매우 반대한다~⑤ 매우 동의한다’ 5점 척도로 측정함.

앞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문항은 복지확대와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는 평균 2.92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60/70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자, 최하소득층(1분위, 하층), 보수 성향의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인 집단(3점 이상, 보통이다)은 소득 4, 5분위와 중간층, 진보 성향 집단이다.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역시 2.85점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복지혜택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주관적 측면의 집단 구분(주관적 소득계층과 이념 성향)에 따라서만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하층과 보수 성향 집단에서 복지혜택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한편,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평균 2.98점으로 부정적인 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담하겠다는 의견은 3.05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 부담에 대한 의견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4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소득층(5분위, 중상층(상층)), 진보 성향 집단에서 내가 아닌 사람을 위한 복지 부담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복지확대와 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의견

(단위: 점)

구분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복지예산 더 부담할 것 (*)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 (*)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 위해 복지예산 부담할 것 (*)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예산 더 부담할 것 (*)
전체		2.92	2.85	2.98	3.05
연령대	20/30대	2.97 ***	2.83	3.01 ***	3.05 ***
	40/50대	2.97	2.85	3.02	3.09
	60/70대	2.77	2.88	2.86	2.9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9 ***	2.84	3.06 *	3.1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3	2.81	2.91	2.91
	자영자, 고용주	2.95	2.89	2.92	3.03
	실업자	2.89	2.92	3.00	3.03
	비경제활동자	2.83	2.83	2.93	3.04
소득 5분위	1분위	2.73 ***	2.84	2.85 ***	2.94 ***
	2분위	2.91	2.85	2.94	3.03
	3분위	2.89	2.81	2.94	3.00
	4분위	3.04	2.89	3.05	3.12
	5분위	3.05	2.87	3.12	3.16
주관적 계층	하층	2.66 ***	2.77 **	2.78 ***	2.90 ***
	중하층	2.88	2.81	2.90	2.97
	중간층	3.03	2.91	3.09	3.14
	중상층(상층)	2.90	2.81	3.06	3.24
이념 성향	보수	2.77 ***	2.76 ***	2.86 ***	2.99 ***
	중도	2.90	2.85	2.96	3.01
	진보	3.17	2.98	3.18	3.21

주: '귀하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함.

제5절 소결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 조사의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번 조사에서 새로이 추가한 코로나 대응 정책의 인식과 복지정책 방향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2022년 기준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발생 이후인 2020년보다 더 하락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은 6.15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은 5.90점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도와 달리,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21b).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조금은 완화되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우울감은 2021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직종별로는 실업자, 중하층의 우울감은 증가하였다. 2021년에 조사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2020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으며(6.4 → 6.7), 우울(3.3 → 3.7)과 걱정 등 부정적인 웰빙 인식은 크게 상승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22, p. 38). 이는 본 조사가 일상 회복 과정이라는 조사 시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인의 삶과 가구의 환경,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가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해서 60/70대, 실업자, 저소득층(1분위, 하층)은 2022년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여전히 부정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변화에서는 실업자만이 부정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단별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 선호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40/50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나, 20/30대와 60/70대는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회복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용 및 임시일용 임금근로자와 실업자는 근로취약층 고용을, 자영자 및 고용주는 소상공인 회복을, 비경제활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응답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선호가 달리 나타났다. 1분위와 하층은 근로취약층 고용지원, 3, 4분위와 중간층은 민생경제회복 지원, 5분위 중상층(상층)과 2분위와 중하층은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계층의 정책선호가 유사한 사실은 다소 흥미롭다.

복지확대 및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60/70대, 비경제활동자, 최소소득층(1분위, 하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지예산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3점 이상, 보통이다)은 소득 4, 5분위와 중간층뿐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2.8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예산 부담에 대해 4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소득층(5분위, 중상층(상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에 비해서 삶의 주관적 행복도는 대체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으며 우울감은 대체로 하강하였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통합도와 신뢰도, 지지도, 형평성 등 대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심리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사회통합도는 악화되었다. 개인적 심리적 회복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개개인의 고립된 방식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상호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복지정책 역할에 대한 인정과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격차가 정책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도는 높아져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소속감은 높아졌다. 그런데 기대되는 국가의 역할은 빈곤이나 실업문제 해결 같은 공공성 강화로는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셋째,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계층 간 응답 경향이 더욱 뚜렷이 발견된다. 즉, 질문에 대해 젊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상위일

수록 일치된 응답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 상태나 소득상황, 주관적 경제적 위치 등의 계층에 따른 사회 및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지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답변은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 계층과 거의 무관하게 유사한 답변의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은, 그 영향이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끼쳤을지라도, 이를 초월하여 답변되고 있다. 즉 코로나19와 매개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공통되고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사회적 관계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는 되고 있으나 관계단절 속에서 서로 간 신뢰가 허물어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분적 정책 시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직장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관계형성에 장애가 될 경쟁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정책 방향성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리 체계가 두터워진 국가에게 향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계층 간 고착화되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해소 정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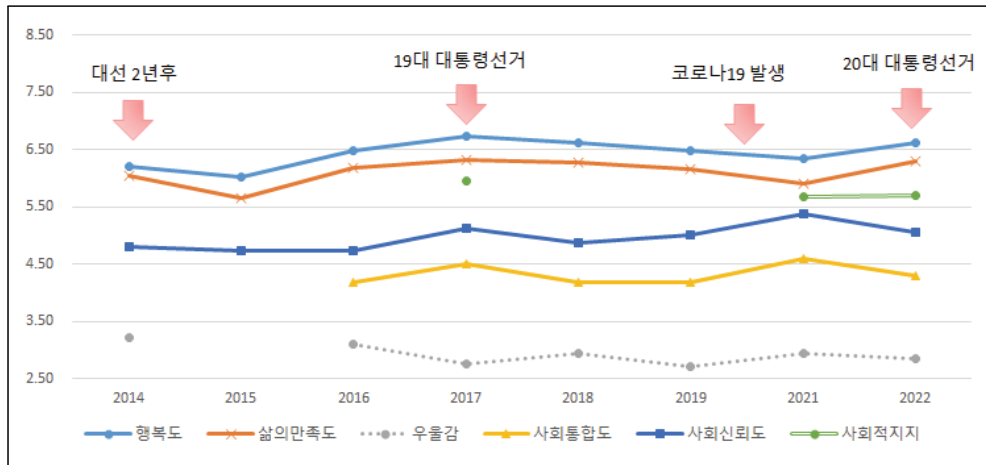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은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들(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사회통합도, 사회신뢰도 등)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사회통합도와 사회신뢰도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팬데믹 이후 증가했고 2022년에 예외적으로 보수층의 행복도가 높으므로 이는 대선 결과에 대한 만족일 수 있으며, 2017년과 비교하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촛불의 영향이 한창이었던 2017년 높은 점수를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최고점을 보였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지난 추세를 볼 때, 대선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사회통합 수준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정책지원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살펴본 이번 조사 결과는 본 연구원의 지속적인 사회통합 연구와 실태조사자료 축적에 기반한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

적 환경 변화, 팬데믹 위기 등의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그림 3-19] 2014년 이후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점)



자료: 2014~2022년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제4장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4 장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제1절 들어가며

코로나19는 노동시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이종관, 2020),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이승호, 홍민기, 2021; 여유진 외, 2021a, 제5장, 제6장), 특히 자영업 가구의 소득 감소 및 빈곤 증가가 두드러졌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 효과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긴급재난지원이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김미루, 오윤해, 2020; 홍민기, 2020; 남재현, 이래혁,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또한 긴급재난지원이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하였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여유진 외, 2021a, 제6장).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고용, 소득, 소비 같은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낮아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을 충분히 받고 만족한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의 수급 경험 및 만족도가 정책효능감을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진영, 유미선(2021)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만족도가 친복지 태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5월에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9월에 지급한 상생 국민지원금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집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 수급 경험 및 만족도의 차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표 4-1>과 같이 크게 다섯 개의 변수군을 활용한다. 첫째,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과 같은 일반 특성이다. 일반 특성 변수군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복지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경제활동상태는 2022년 5월 조사 시점이 아니라 2020년 2월 코로나19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값을 활용한다. 이는 인과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이전 경제활동상태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4-1> 주요 변수군

구분	내용
일반 특성	·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코로나19 이전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감소 경험 ·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사회통합 인식	·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복지정책 인식	·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 조세 및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복지예산에 대한 의견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둘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과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을 활용한다. 우선, 2020년 2월 전

에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표 4-2〉 참조). 다음으로, 코로나19 이전 1년과 코로나19 이후 시점에 대해 각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집세 미납, 적금·보험 해지, 대출 등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1년 동안에는 경험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경험이 있을 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한 것으로 정의한다(〈표 4-3〉 참조).

〈표 4-2〉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변수

문항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귀하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없다 · 비해당(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없었음)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표 4-3〉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변수

문항	내용	
	코로나19 이전 1년 (2019년 2월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 ~현재)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자가, 전세, 무상의 경우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적금 및 보험 등이 없는 경우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 해당 변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응답자에게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를 조사한 변수(이하 ‘지원 만족도’)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응답자에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변수(이하 ‘미지원 수용도’)를 함께 활용한다(〈표 4-4〉 참조).

〈표 4-4〉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변수

문항	조사 대상	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중, 전 국민(또는 전 도민,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특정 대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 예/아니오
정부지원금에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 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귀택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 매우 타당하다/대체로 타당하다/약간 부당하다/매우 부당하다/모르겠다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넷째, 사회통합 인식 변수로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활용한다(〈표 4-5〉 참조).

〈표 4-5〉 사회통합 인식 변수

문항	내용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1~4점 연속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0~10점 연속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다섯째, 복지정책 인식 변수로 소득보장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조세 및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복지예산에 대한 의견을 활용한다. 소득보장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정책 영역에 따라 10개 문항으로, 조세 및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5개 문항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의견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6〉 참조).

〈표 4-6〉 복지정책 인식 변수

문항	내용
귀하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에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층 생활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은퇴한 노인의 노후소득 지원(국민연금 또는 지역연금 등) 국민연금(또는 지역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가난한 노인의 생활비 지원(기초연금 등) 전체 아동의 양육 지원(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지원(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청년의 생활비, 구직·교육·훈련비용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지원(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실업급여 등) 아동이 있는 취업자의 육아휴직 지원(육아휴직급여 등)	· 1~5점 연속 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 1~5점 연속 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것으로 코딩
귀하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 1~5점 연속 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표 4-7〉 연구 문제

설명변수		결과변수
일반 특성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일반 특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일반 특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	사회통합 인식 복지정책 인식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섯 개의 변수군을 활용하여 <표 4-7>과 같은 연구 문제를 분석한다. 첫째,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클수록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제3절 분석 결과

1.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표 4-8>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집단의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27.1%,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1.7%,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없어서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없었던 비율은 21.2%였다.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34.4%였다. 즉,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1/3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특성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고졸 이하,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중하층, 중소도시의 근로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20년 2월 전 경제활동상태가 고용주·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였던 집단의 근로소득 감소 경험 비율이 각각 71.3%, 49.9%로 매우 높았고, 상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 감소 경험 비율은 16.0%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고용주·자영업자의 2/3 이상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표 4-8〉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집단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		
		감소 경험 있음	감소 경험 없음	2020년 2월 전 일자리 없었음	통계적 유의도	감소 경험 있음	감소 경험 없음	통계적 유의도
전체		27.1	51.7	21.2		34.4	65.6	
성	남성	30.6	55.7	13.7	79.8 ***	35.4	64.6	1.1
	여성	23.5	47.5	29.0		33.1	66.9	
연령	20대 이하	10.2	51.2	38.6	301.9 ***	16.7	83.3	90.8 ***
	30대	21.2	69.9	9.0		23.2	76.8	
	40대	34.0	52.9	13.1		39.2	60.8	
	50대	36.7	52.4	10.9		41.2	58.8	
	60대 이상	29.5	37.7	32.8		43.9	5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2	38.6	37.2	146.5 ***	38.6	61.4	28.8 ***
	고졸	30.1	43.9	26.0		40.6	59.4	
	대졸 이상	25.0	62.5	12.5		28.5	71.5	
결혼상태	유배우	30.5	50.5	19.0	34.8 ***	37.6	62.4	23.8 ***
	이혼·사별·별거	29.1	45.8	25.0		38.9	61.1	
	미혼	19.6	56.1	24.3		25.9	74.1	
아동 가구원	없음	27.4	51.8	20.8	1.4	34.6	65.4	0.2
	있음	25.9	51.2	23.0		33.6	66.4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0	84.0	0.0	48260.6 ***	16.0	84.0	449.6 ***
	임시·일용·특고	49.9	50.1	0.0		49.9	50.1	
	고용주·자영업자	71.3	28.7	0.0		71.3	28.7	
	무급가족종사자	24.6	75.4	0.0		24.6	75.4	
	실업자	13.9	36.1	50.0		27.9	72.1	
	비경제활동인구	3.3	21.7	75.0		13.1	8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0	40.4	27.6	29.1 ***	44.2	55.8	20.0 ***
	중하층	29.7	50.6	19.7		37.0	63.0	
	중간층	24.0	55.4	20.7		30.2	69.8	
	중상층·상층	22.3	57.8	19.9		27.8	72.2	
지역	대도시	25.9	54.2	20.0	18.0 **	32.3	67.7	6.4 *
	중소도시	28.4	48.3	23.3		37.0	63.0	
	농어촌	25.6	59.2	15.1		30.2	69.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3,938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9〉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정도

(단위: %)

구분		10~30% 감소	40~60% 감소	70~90% 감소	100% 감소	통계적 유의도
전체		45.9	37.5	8.8	7.7	
성	남성	48.3	37.3	9.3	5.1	9.2 *
	여성	42.8	37.8	8.2	11.2	
연령	20대 이하	46.4	24.5	6.4	22.6	41.2 ***
	30대	46.8	37.8	6.4	9.1	
	40대	57.4	29.3	9.8	3.5	
	50대	46.0	41.1	5.7	7.2	
	60대 이상	34.4	44.6	13.1	7.8	
교육수준	중졸 이하	41.5	43.5	8.9	6.1	3.3
	고졸	45.0	38.6	8.1	8.3	
	대졸 이상	48.2	34.8	9.6	7.4	
결혼상태	유배우	48.5	37.6	8.2	5.8	17.7 **
	이혼·사별·별거	31.5	45.9	13.1	9.5	
	미혼	45.8	32.9	8.6	12.7	
아동 가구원	없음	44.2	38.2	9.6	8.0	6.6
	있음	53.3	34.9	5.5	6.3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6.0	26.4	6.5	11.1	57.4 ***
	임시·일용·특고	36.7	38.8	8.1	16.4	
	고용주·자영업자	45.2	43.0	9.8	2.0	
	무급가족종사자	41.3	33.5	19.9	5.3	
	실업자	16.6	41.4	25.6	16.4	
	비경제활동인구	56.9	23.5	3.4	1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4	35.0	17.7	10.9	27.3 **
	중하층	40.9	43.2	7.8	8.1	
	중간층	54.2	33.0	6.9	5.9	
	중상층·상층	52.5	35.6	3.0	8.9	
지역	대도시	44.1	38.6	8.8	8.5	3.3
	중소도시	47.4	36.0	9.2	7.4	
	농어촌	45.7	42.5	5.9	5.9	

주: 1) * $p<0.05$, ** $p<0.01$, *** $p<0.001$

2)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 사례 수는 1,092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1,091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0〉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지속기간

(단위: %)

구분		1~2개월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 이상	통계적 유의도
전체		2.7	11.9	24.0	35.8	25.6	
성	남성	2.4	11.7	21.0	34.9	30.1	12.0 *
	여성	3.2	12.1	28.1	37.1	19.5	
연령	20대 이하	5.7	25.3	32.2	18.1	18.6	58.5 ***
	30대	4.4	17.5	29.6	30.6	17.9	
	40대	3.1	16.2	20.4	43.0	17.2	
	50대	2.5	8.4	20.6	39.3	29.2	
	60대 이상	1.0	5.1	26.3	32.3	35.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	8.7	25.4	30.7	33.6	15.4
	고졸	2.3	9.2	26.5	35.6	26.4	
	대졸 이상	3.5	15.7	20.8	37.3	22.6	
결혼상태	유배우	3.1	8.8	22.1	38.5	27.4	4708.9 ***
	이혼·사별·별거	0.0	10.5	24.5	35.5	29.5	
	미혼	2.9	22.0	29.5	27.7	17.8	
아동 가구원	없음	2.0	11.8	24.7	34.5	26.9	10.1 *
	있음	5.6	12.0	21.2	41.0	20.2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3	20.2	27.4	30.6	15.5	1992.5 ***
	임시·일용·특고	3.9	12.8	27.4	34.5	21.4	
	고용주·자영업자	0.8	7.6	19.1	40.4	32.1	
	무급가족종사자	0.0	9.6	20.8	32.0	37.5	
	실업자	0.0	22.1	14.9	29.7	33.3	
	비경제활동인구	1.7	10.2	60.6	12.6	1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	12.1	21.4	35.6	29.6	10.0
	중하층	4.0	11.3	21.3	36.3	27.1	
	중간층	2.0	12.1	26.3	36.1	23.5	
	중상층·상층	2.9	15.0	39.3	27.3	15.5	
지역	대도시	2.1	14.1	24.0	34.5	25.3	14.4
	중소도시	3.5	9.6	22.5	38.3	26.1	
	농어촌	1.1	15.4	34.1	25.8	23.7	

주: 1) * p<0.05, ** p<0.01, *** p<0.001

2)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 사례 수는 1,092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1,091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1〉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이유

(단위: %)

구분		폐업 또는 실직	휴업 또는 휴직	사업 매출 감소	임금 삭감	근로 시간 감소	기타	통계적 유의도
전체		14.2	8.7	58.9	5.6	12.4	0.2	
성	남성	11.1	8.0	60.2	7.1	13.5	0.0	192.2 ***
	여성	18.3	9.7	57.2	3.5	10.9	0.4	
연령	20대 이하	32.6	13.6	27.0	9.4	17.4	0.0	1)
	30대	20.0	13.2	49.2	9.5	8.2	0.0	
	40대	8.9	9.4	61.3	5.2	15.2	0.0	
	50대	12.3	6.8	61.9	5.3	13.7	0.0	
	60대 이상	13.7	6.8	66.5	3.3	9.1	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	7.5	58.6	3.8	17.5	0.0	161.7 ***
	고졸	15.1	8.6	57.9	5.4	12.7	0.3	
	대졸 이상	13.5	9.3	60.2	6.3	10.8	0.0	
결혼상태	유배우	9.6	6.7	66.8	5.3	11.4	0.2	185.7 ***
	이혼·사별·별거	22.6	14.2	45.3	4.5	13.4	0.0	
	미혼	23.9	12.3	41.7	7.0	15.1	0.0	
아동 가구원	없음	15.2	8.6	59.3	5.4	11.5	0.0	240.8 ***
	있음	10.0	9.2	57.2	6.5	16.3	0.8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1.8	16.4	26.1	15.6	20.1	0.0	1)
	임시·일용·특고	30.5	16.1	21.8	8.4	22.4	0.8	
	고용주·자영업자	3.7	1.8	89.3	0.4	4.7	0.0	
	무급가족종사자	7.5	0.0	92.5	0.0	0.0	0.0	
	실업자	19.5	37.1	28.5	0.0	14.9	0.0	
	비경제활동인구	21.0	9.7	48.8	1.5	19.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8	13.0	39.0	8.5	15.8	0.0	251.3 ***
	중하층	15.2	8.4	62.1	3.7	10.6	0.0	
	중간층	8.9	7.3	63.6	6.1	13.6	0.4	
	중상층·상층	18.5	9.8	59.4	8.0	4.2	0.0	
지역	대도시	14.7	8.5	60.7	5.1	11.0	0.0	6861.4 ***
	중소도시	14.1	9.0	56.0	6.8	13.8	0.3	
	농어촌	11.9	8.4	69.3	0.0	10.4	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 사례 수는 1,092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1,091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3) 연령/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의 Wald chi2 값이 계산되지 않았으나, 개별 범주의 통계적 유의도로 판단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9〉~〈표 4-11〉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감소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표 4-9〉에서 근로소득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0~30% 감소 45.9%, 40~60% 감소 37.5%, 70~90% 감소 8.8%, 100% 감소 7.7%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 20대 이하, 60대 이상, 이혼·사별·별거, 미혼,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8〉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주·자영업자가 근로소득 감소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지만, 이들의 근로소득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반면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소득 감소를 많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감소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4-10〉에는 근로소득 감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지속기간은 1~2개월 2.7%, 3~6개월 11.9%, 7~12개월 24.0%, 13~24개월 35.8%, 25개월 이상 25.6%였다. 즉,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6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1년 이상 근로소득 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장기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 50대 이상,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소득 감소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고용주·자영업자는 근로소득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표 4-9〉 참조), 근로소득 감소 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표 4-11〉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의 근로소득 감소 이유는 폐업 또는 실직 14.2%, 휴업 또는 휴직 8.7%, 사업 매출 감소 58.9%, 임금 삭감 5.6%, 근로시간 감소 12.4%, 기타 0.2%였다. 근로소득 감소의 절반 이상이 사업 매출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노동자,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직, 휴직, 임금 삭감, 근로시간 감소를 비교적 고르게 경험하였는데,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직 비율이 30.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소득 감소 이유는 사업 매출 감소에 주로 집중되었다.

〈표 4-12〉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단위: %, %p)

구분	(A) 코로나19 이전 1년			(B) 코로나19 이후			(B-A)		
	있음	없음	비 해당	있음	없음	비 해당	있음	없음	비 해당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1.6	98.4		3.6	96.4		1.9	-1.9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3	98.7		2.2	97.8		0.9	-0.9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자가, 전세, 무상의 경우 비해당)	0.8	32.8	66.4	1.4	30.9	67.7	0.6	-1.9	1.3
비해당 제외	2.3	97.7		4.3	95.7		2.0	-2.0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적금 및 보험 등이 없는 경우 비해당)	3.0	86.6	10.4	6.1	84.0	9.8	3.2	-2.6	-0.6
비해당 제외	3.3	96.7		6.8	93.2		3.5	-3.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3.3	96.7		7.0	93.0		3.7	-3.7	

주: 사례 수는 3,939명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2〉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집세 미납, 적금·보험 해지, 대출 등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전 1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는 비율은 1.9%p,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 비율은 0.9%p, 집세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0.6%p,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는 비율은 3.2%p,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비율은 3.7%p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비율이 대체로 1~3%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경제적 어려움 경험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13〉을 살펴보면,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한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중하층, 중소도시의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3〉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통계적 유의도
전체		7.8	92.2	
성	남성	8.2	91.8	0.6
	여성	7.4	92.6	
연령	20대 이하	5.2	94.8	11.3 *
	30대	9.0	91.0	
	40대	9.7	90.3	
	50대	9.5	90.5	
	60대 이상	5.9	94.1	
교육수준	중졸 이하	6.1	93.9	2.0
	고졸	8.3	91.7	
	대졸 이상	7.8	92.2	
결혼상태	유배우	8.5	91.5	5.5
	이혼·사별·별거	9.5	90.5	
	미혼	5.8	94.2	
아동 가구원	없음	6.8	93.2	13.2 ***
	있음	11.7	88.3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2	94.8	66.4 ***
	임시·일용·특고	12.8	87.2	
	고용주·자영업자	15.8	84.2	
	무급가족종사자	6.7	93.3	
	실업자	5.4	94.6	
	비경제활동인구	4.0	9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	91.2	9.7 *
	중하층	9.4	90.6	
	중간층	6.7	93.3	
	중상층·상층	3.1	96.9	
지역	대도시	6.0	94.0	9.2 **
	중소도시	9.3	90.7	
	농어촌	8.0	92.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 하였으면 '있음', 그렇지 않으면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3,938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로짓 분석

구분		(a)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의 근로소득 감소 경험	(b) 전체 집단의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성 (기준: 남성)	여성	0.16 (0.11)	0.01 (0.17)
연령 (기준: 20대 이하)	30대	0.37 (0.23)	0.10 (0.32)
	40대	0.85 (0.24) ***	-0.23 (0.33)
	50대	0.94 (0.26) ***	-0.09 (0.36)
	60대 이상	0.96 (0.29) ***	-0.56 (0.40)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53 (0.23) *	0.17 (0.31)
	대졸 이상	0.44 (0.26)	0.16 (0.35)
결혼상태 (기준: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0.27 (0.19)	0.31 (0.25)
	미혼	0.47 (0.20) *	-0.11 (0.28)
아동 가구원 (기준: 없음)	있음	0.29 (0.18)	0.68 (0.24) **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임시·일용·특고	1.61 (0.16) ***	1.10 (0.27) ***
	고용주·자영업자	2.66 (0.14) ***	1.37 (0.21) ***
	무급가족종사자	0.78 (0.36) *	0.47 (0.50)
	실업자	0.62 (0.45)	0.26 (0.51)
	비경제활동인구	-0.21 (0.32)	-0.20 (0.28)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하층	-0.34 (0.18)	0.09 (0.21)
	중간층	-0.59 (0.19) **	-0.27 (0.25)
	중상층·상층	-0.60 (0.34)	-1.08 (0.52) *
지역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0.11 (0.12)	0.47 (0.17) **
	농어촌	-0.87 (0.18) ***	0.05 (0.23)
상수		-2.62 (0.38) ***	-3.28 (0.58) ***
사례 수(명)		3109	3938
chi2		469.42 ***	141.75 ***

주: 1) * p<0.05, ** p<0.01, *** p<0.001

2) 로짓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결과변수는 다음과 같다.

a)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b)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4〉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의, 중졸 이하보다 고졸의, 유배우보다 미혼의, 상용직 노동자보다 임시직·일용직·특고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보다 하층의, 농어촌보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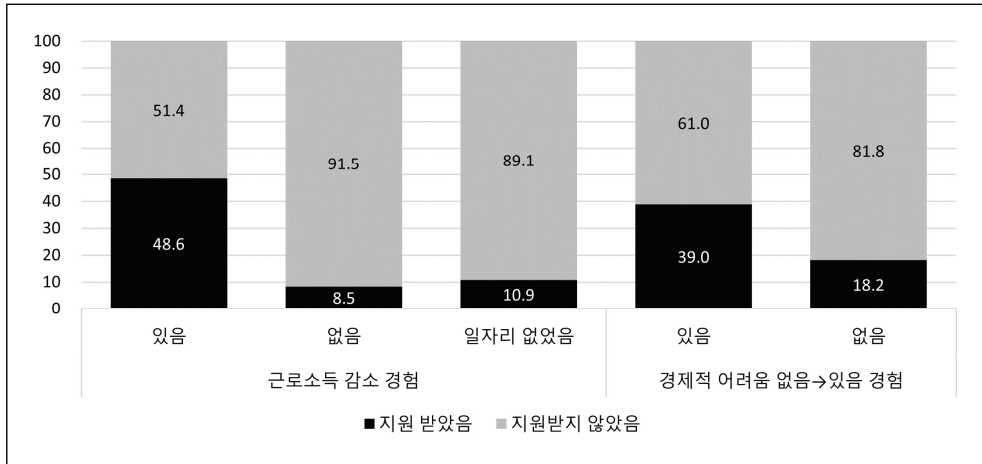
도시의 근로소득 감소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가구원이 없는 가구보다 있는 가구의, 상용직 노동자보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의, 주관적 소득계층 중상층·상층보다 하층의,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코로나19 이후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하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의미한다. <표 4-15>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고졸, 유배우, 아동 가구원 있는 가구,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정부 지원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정부 지원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컸던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1]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과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지원 경험 비율이 각각 48.6%, 39.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형태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과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단위: %)



주: <표 4-15>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6>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70.7%로 가장 많았고, 고용취약계층 지원 15.5%, 미취업 청년 관련 지원 4.9%, 긴급 생계자금 지원 8.8%, 아동돌봄 관련 지원 8.2%, 농어가 관련 지원 3.8%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 실업자는 미취업 청년 관련 지원과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상용직 노동자는 아동돌봄 관련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으며,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의 79.3%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을, 18.9%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받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81.3%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을, 13.1%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받았다. 대체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각각 고용주·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상용직 노동자는 아동돌봄 관련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표 4-15〉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단위: %)

구분		지원받았음	지원받지 않았음	통계적 유의도
전체		19.9	80.1	
성	남성	20.2	79.8	0.2
	여성	19.5	80.5	
연령	20대 이하	10.3	89.7	44.1 ***
	30대	15.0	85.0	
	40대	25.9	74.1	
	50대	23.1	76.9	
	60대 이상	22.4	77.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4	82.6	12.1 **
	고졸	23.1	76.9	
	대졸 이상	17.4	82.6	
결혼상태	유배우	24.1	75.9	39.1 ***
	이혼·사별·별거	17.9	82.1	
	미혼	12.1	87.9	
아동 가구원	없음	18.7	81.3	9.4 **
	있음	24.3	75.7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6	93.4	495.3 ***
	임시·일용·특고	22.1	77.9	
	고용주·자영업자	59.5	40.5	
	무급가족종사자	26.5	73.5	
	실업자	9.0	91.0	
	비경제활동인구	10.3	8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81.5	4.5
	중하층	22.1	77.9	
	중간층	18.7	81.3	
	중상층·상층	17.9	82.1	
지역	대도시	18.8	81.2	5.7
	중소도시	20.0	80.0	
	농어촌	24.5	75.5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48.6	51.4	416.3 ***
	없음	8.5	91.5	
	일자리 없었음	10.9	89.1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39.0	61.0	46.0 ***
	없음	18.2	81.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3,938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6〉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 유형

(단위: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관련 지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돌봄 관련 지원	농어가 관련 지원
전체		70.7	15.5	4.9	8.8	8.2	3.8
성	남성	72.7	15.0	3.8	7.6	6.4	4.0
	여성	68.5	16.2	6.0	10.0	10.0	3.7
연령	20대 이하	57.1 **	15.7	21.8 ***	8.7	4.2 ***	2.9 **
	30대	55.2	16.8	7.2	7.1	26.0	0.8
	40대	71.7	14.9	1.8	8.8	15.5	2.3
	50대	76.0	22.5	5.2	5.5	0.9	2.8
	60대 이상	76.7	9.3	0.8	12.5	0.7	8.0
교육수준	중졸 이하	62.1	11.0	0.0 ***	16.9 *	0.7 **	15.6 ***
	고졸	71.6	16.9	5.3	9.0	7.3	3.7
	대졸 이상	71.8	14.9	5.7	6.4	11.1	1.0
결혼상태	유배우	77.0 ***	11.6 **	2.4 **	6.1 ***	10.6 **	3.4
	이혼·사별·별거	48.4	22.6	7.7	19.6	4.6	7.7
	미혼	57.4	27.3	13.3	13.6	0.4	3.4
아동 가구원	없음	73.6 **	18.2 ***	5.4	9.7	0.2 ***	4.4
	있음	62.0	7.5	3.4	6.1	32.0	2.2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0.7 ***	26.3 ***	6.9 ***	16.0 ***	30.2 ***	0.8 ***
	임시·일용·특고	32.1	61.0	9.3	15.5	2.8	1.9
	고용주·자영업자	92.2	5.8	0.9	3.1	1.9	4.1
	무급가족종사자	77.8	0.0	0.0	6.6	0.0	22.2
	실업자	31.9	3.9	36.9	34.8	12.0	19.5
	비경제활동인구	45.4	8.8	14.0	18.0	19.1	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6 *	20.7	5.2	25.1 ***	5.6	4.2
	중하층	71.0	17.4	5.1	7.7	8.5	5.2
	중간층	74.6	12.6	4.3	4.9	9.0	2.4
	중상층·상층	76.8	11.3	8.5	8.5	3.6	4.4
지역	대도시	68.9	19.9 *	5.4	11.3	7.8	1.2 ***
	중소도시	73.3	13.3	5.2	6.3	8.5	2.6
	농어촌	64.7	9.5	1.5	11.1	8.1	20.5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79.3 ***	18.9 *	3.1 ***	6.4 **	4.0 ***	1.6 ***
	없음	58.2	10.3	3.1	11.1	14.7	10.2
	일자리 없었음	45.1	6.5	18.5	17.6	19.3	4.9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81.3 *	13.1	1.9	3.1 *	10.7	1.3
	없음	68.8	16.0	5.4	9.8	7.7	4.3

주: 1) * p<0.05, ** p<0.01, *** p<0.001

2) 3순위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사례 수는 821명이다. 교육 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820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7〉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통계적 유의도
전체		8.9	40.3	47.5	3.3	
성	남성	9.9	43.3	43.4	3.4	3.6
	여성	7.9	37.1	51.9	3.1	
연령	20대 이하	3.6	35.4	58.3	2.7	9.4
	30대	6.9	42.7	47.3	3.1	
	40대	8.0	38.7	50.1	3.2	
	50대	12.8	42.1	42.0	3.1	
	60대 이상	9.2	40.7	46.5	3.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0	36.1	46.7	6.2	7.8
	고졸	10.3	40.0	47.5	2.2	
	대졸 이상	6.6	41.7	47.8	3.8	
결혼상태	유배우	8.9	39.4	47.9	3.8	10.9
	이혼·사별·별거	16.9	41.1	40.6	1.5	
	미혼	4.8	43.5	49.8	1.9	
아동 가구원	없음	9.5	39.3	48.3	2.9	3.0
	있음	7.2	43.3	45.1	4.4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5.6	46.9	42.4	5.0	1)
	임시·일용·특고	10.2	41.7	45.7	2.3	
	고용주·자영업자	9.3	40.2	47.4	3.1	
	무급가족종사자	13.8	25.0	57.3	4.0	
	실업자	0.0	24.3	75.7	0.0	
	비경제활동인구	9.3	36.7	50.7	3.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3	45.5	29.7	4.6	24.5 **
	중하층	7.9	39.8	50.2	2.1	
	중간층	7.2	39.7	48.9	4.2	
	중상층·상층	3.0	34.7	61.3	1.0	
지역	대도시	7.8	39.7	49.2	3.3	4.9
	중소도시	10.3	39.9	47.0	2.8	
	농어촌	6.4	44.9	43.3	5.4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9.3	42.3	45.9	2.5	9.6
	없음	9.9	39.2	45.5	5.3	
	일자리 없었음	4.8	30.9	60.6	3.8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11.7	56.9	27.9	3.5	16.0 **
	없음	8.4	37.3	51.1	3.2	

주: 1) * p<0.05, ** p<0.01, *** p<0.001

2)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사례 수는 821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820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3)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의 Wald chi2 값이 계산되지 않았으나, 개별 범주의 통계적 유의도로 판단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8〉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단위: %)

구분		모르겠음	매우 부당	약간 부당	대체로 타당	매우 타당	통계적 유의도
전체		9.4	9.8	38.0	40.4	2.4	
성	남성	8.0	11.0	36.9	40.8	3.2	12.4 *
	여성	10.9	8.5	39.0	40.0	1.6	
연령	20대 이하	12.5	5.9	32.6	43.9	5.0	46.3 ***
	30대	7.6	5.9	42.0	42.7	1.8	
	40대	8.4	10.0	40.2	39.8	1.7	
	50대	9.7	12.6	38.7	37.0	2.1	
	60대 이상	8.7	13.4	37.0	39.3	1.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1	13.6	40.3	35.6	0.4	31.0 ***
	고졸	11.0	10.5	39.3	36.8	2.4	
	대졸 이상	7.8	8.2	36.2	44.9	2.9	
결혼상태	유배우	8.9	10.8	39.0	39.2	2.1	23.1 **
	이혼·사별·별거	8.7	13.3	39.7	37.4	0.9	
	미혼	10.6	6.8	35.6	43.5	3.5	
아동 가구원	없음	9.2	10.1	37.3	40.9	2.5	4.0
	있음	10.4	8.3	40.9	38.3	2.2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8	6.7	37.8	44.8	2.8	3464.5 ***
	임시·일용·특고	8.2	16.6	41.7	32.2	1.4	
	고용주·자영업자	6.8	20.9	40.1	30.4	1.7	
	무급가족종사자	7.7	10.1	55.1	27.2	0.0	
	실업자	4.1	11.6	38.2	41.1	5.0	
	비경제활동인구	13.7	8.2	35.3	40.6	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	15.9	42.2	32.4	0.0	7466.1 ***
	중하층	9.2	10.2	40.0	39.6	0.9	
	중간층	9.1	7.6	36.3	43.0	4.1	
	중상층·상층	14.1	9.3	26.5	44.9	5.2	
지역	대도시	7.5	8.2	41.3	40.9	2.0	38.3 ***
	중소도시	10.6	10.0	35.4	41.4	2.6	
	농어촌	12.6	17.3	35.3	31.4	3.4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7.0	17.1	42.1	32.6	1.3	59.0 ***
	없음	8.0	8.2	38.7	42.6	2.5	
	일자리 없었음	14.8	8.3	32.9	40.9	3.0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17.9	19.0	45.3	16.3	1.5	35.2 ***
	없음	8.9	9.2	37.5	42.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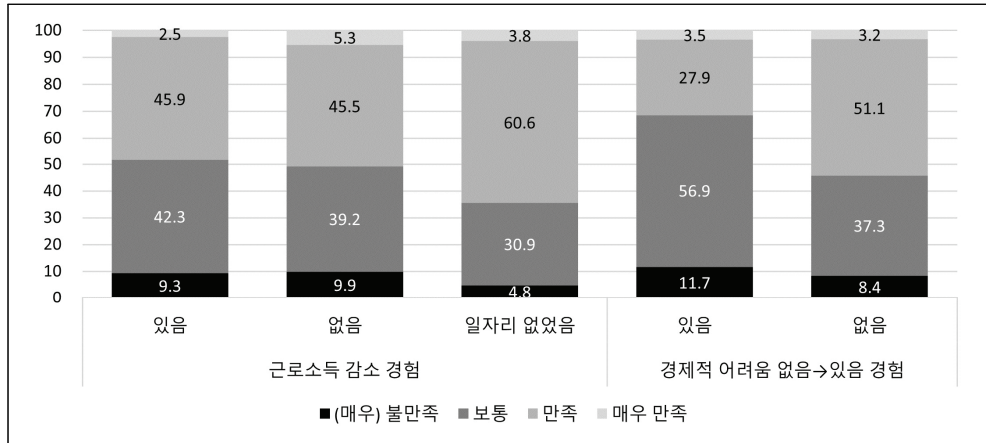
주: 1) * p<0.05, ** p<0.01, *** p<0.001

2)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사례 수는 3,118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Wald chi2 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2]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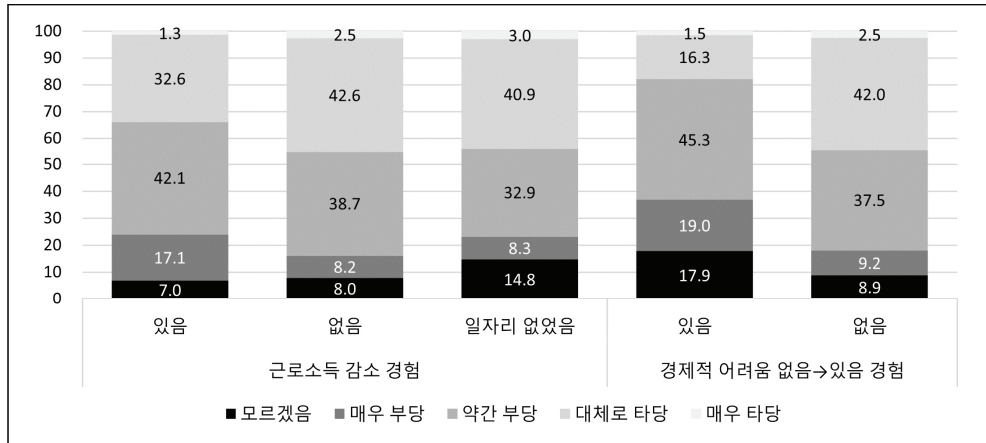


주: <표 4-17>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3]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단위: %)



주: <표 4-18>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17>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47.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3%,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8〉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미지원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은 2.4%,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은 40.4%, 약간 부당하다는 응답은 38.0%,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9.8%였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자의 미지원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클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수용도가 낮은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19〉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⁶⁾ 우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 가구원이 없는 가구보다 있는 가구의, 상용직 노동자보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의 지원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소득계층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상용직 노동자의,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보다 중하층·중간층의,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일자리가 없었던 집단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지원 만족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미지원 수용도를 분석한 결과, 고용주·자영업자보다 상용직 노동자의,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보다 중간층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미지원 수용 확률이 높았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의 지원 만족도와 미지원 수용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 〈표 4-19〉의 로짓 분석에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과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은 개별 변수의 인과적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2개 변수를 개별적으로 투입한 분석과 동시에 투입한 분석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후자를 보고하였다. 단, 근로소득 감소 경험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 (a)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해둔다.

〈표 4-19〉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로짓 분석

구분		(a) 전체 집단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b) 정부 지원 경험자의 지원 만족도	(c)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미지원 수용도
성 (기준: 남성)	여성	0.34 (0.13) **	0.43 (0.20) *	-0.09 (0.10)
연령 (기준: 20대 이하)	30대	-0.10 (0.28)	-0.72 (0.44)	-0.21 (0.18)
	40대	-0.17 (0.29)	-0.57 (0.45)	-0.19 (0.20)
	50대	-0.45 (0.32)	-1.24 (0.49) *	-0.19 (0.21)
	60대 이상	-0.31 (0.32)	-1.12 (0.54) *	0.06 (0.23)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49 (0.20) *	-0.30 (0.33)	0.06 (0.18)
	대졸 이상	0.29 (0.23)	-0.25 (0.37)	0.35 (0.19)
결혼상태 (기준: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0.31 (0.22)	-0.22 (0.32)	0.07 (0.16)
	미혼	-0.33 (0.23)	-0.66 (0.39)	0.09 (0.17)
아동 가구원 (기준: 없음)	있음	0.39 (0.18) *	-0.49 (0.30)	-0.11 (0.15)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임시·일용·특고	0.95 (0.23) ****	0.11 (0.39)	-0.34 (0.18)
	고용주·자영업자	2.51 (0.19) ****	0.19 (0.31)	-0.41 (0.18) *
	무급가족종사자	1.60 (0.35) ****	0.25 (0.53)	-0.53 (0.35)
	실업자	0.24 (0.48)	0.11 (0.88)	-0.07 (0.30)
	비경제활동인구	0.20 (0.28)	-1.31 (0.56) *	-0.25 (0.20)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하층	-0.01 (0.19)	0.75 (0.31) *	0.28 (0.16)
	중간층	-0.09 (0.20)	0.71 (0.32) *	0.49 (0.17) **
	중상층·상층	0.07 (0.35)	1.04 (0.56)	0.53 (0.28)
지역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0.08 (0.13)	0.01 (0.20)	0.13 (0.10)
	농어촌	-0.11 (0.20)	-0.12 (0.28)	-0.13 (0.15)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1.54 (0.15) ****	0.13 (0.24)	0.18 (0.15)
	일자리 없었음	-0.85 (0.30) **	1.73 (0.55) **	0.30 (0.24)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19 (0.19)	0.98 (0.26) ****	1.17 (0.25) ****
상수		-1.55 (0.47) **	-0.47 (0.80)	-1.89 (0.42) ****
사례 수(명)		3938	820	3118
chi2		584.52 ****	49.52 **	86.75 ****

주: 1) * p<0.05, ** p<0.01, **** p<0.001

2) 로짓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결과변수는 다음과 같다.

a)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b) 정부 지원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c)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3.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 4-20>을 살펴보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의 평균은 2.99점이었고, 60대 이상, 중졸 이하, 유배우,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중상층·상층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에 만족할수록, 정부 미지원을 수용할수록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정도의 평균은 4.31점이었고, 여성, 20대 이하, 유배우, 미혼, 상용직, 비경제활동인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상층·상층, 대도시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정부 지원 경험이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대리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미지원 수용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사회통합 인식

구분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4점)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10점)	
		평균	통계적 유의도	평균	통계적 유의도
전체		2.99		4.31	
성	남성	2.99	0.1	4.21	7.2 **
	여성	2.99		4.41	
연령	20대 이하	2.97	7.4 ***	4.61	5.2 ***
	30대	2.97		4.40	
	40대	2.99		4.11	
	50대	2.93		4.26	
	60대 이상	3.08		4.2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1	11.1 ***	4.37	0.5
	고졸	2.97		4.32	
	대졸 이상	2.98		4.27	

구분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4점)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10점)	
		평균	통계적 유의도	평균	통계적 유의도
결혼상태	유배우	3.01	4.2 *	4.31	3.4 *
	이혼·사별·별거	2.97		4.05	
	미혼	2.95		4.39	
아동 가구원	없음	2.98	2.2	4.28	2.4
	있음	3.02		4.41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97	2.6 *	4.38	6.5 ***
	임시·일용·특고	2.93		4.03	
	고용주·자영업자	3.03		4.07	
	무급가족종사자	3.07		4.15	
	실업자	2.96		3.86	
	비경제활동인구	3.02		4.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2	14.7 ***	4.14	2.7 *
	중하층	2.93		4.27	
	중간층	3.05		4.35	
	중상층·상층	3.12		4.72	
지역	대도시	2.97	2.0	4.41	3.0 *
	중소도시	3.00		4.23	
	농어촌	3.03		4.25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2.97	1.0	4.00	15.5 ***
	없음	2.99		4.37	
	일자리 없었음	3.01		4.54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3.00	0.1	3.89	13.5 ***
	없음	2.99		4.34	
정부 지원 경험	있음	3.01	1.2	4.11	7.2 **
	없음	2.99		4.36	
정부 지원 만족도	지원받지 않았음	2.99	6.9 ***	4.36	5.3 ***
	(매우) 불만족	2.91		3.55	
	보통	2.96		4.02	
	만족	3.05		4.24	
	매우 만족	3.46		4.85	
정부 미지원 수용도	지원받았음	3.01	10.5 ***	4.11	3.7 **
	모르겠음	2.97		4.21	
	매우 부당	2.89		4.01	
	약간 부당	2.92		4.41	
	대체로 타당	3.05		4.40	
	매우 타당	3.31		4.58	

주: 1) * p(0.05, ** p(0.01, *** p(0.001

2)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이다. 교육수준별 분석의 사례 수는 결측으로 인해 3,938명이다. 통계적 유의도는 F값으로, 로버스트 추정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4] 사회통합 인식

〈표 4-21〉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회귀 분석

구분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4점)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10점)		
		전체 집단	정부 지원 경험자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정부 지원 경험자	정부 지원 비경험자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5 (0.03)	0.13 * (0.06)	0.01 (0.03)	0.21 * (0.10)	0.35 (0.20)	0.17 (0.12)
	일자리 없었음	0.01 (0.05)	0.10 (0.11)	-0.04 (0.06)	0.36 * (0.17)	0.18 (0.49)	0.35 (0.18)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4 (0.04)	-0.01 (0.07)	-0.08 (0.04)	0.29 * (0.12)	0.13 (0.22)	0.33 * (0.15)
정부 지원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3 (0.03)			0.06 (0.10)		
정부 지원 만족도 (기준: (매우) 불만족)	보통		0.02 (0.08)			0.43 (0.24)	
	만족		0.10 (0.08)			0.59 * (0.25)	
	매우 만족		0.46 *** (0.13)			1.26 ** (0.39)	
정부 미지원 수용도 (기준: 매우 부담)	모르 겠음			0.08 (0.05)			-0.03 (0.17)
	약간 부담			0.04 (0.04)			0.28 * (0.13)
	대체로 타당			0.18 *** (0.04)			0.22 (0.14)
	매우 타당			0.41 *** (0.09)			0.31 (0.28)
사례 수(명)		3938	820	3118	3938	820	3118
F		4.85 ***	3.39 ***	5.16 ***	3.89 ***	2.17 ***	4.19 ***

주: 1) * p<0.05, ** p<0.01, *** p<0.001

2) 회귀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에는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하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⁷⁾ 우선,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정부 지원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매우 만족한 집단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중에서는 정부 미지원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대체로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집단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중에서는 정부 지원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집단이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정부 미지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부 미지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정부 미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역시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로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수용도가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정부 지원에 만족할수록, 정부 미지원을 수용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높았다.

7)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상 이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서로를 통제한 분석 결과만을 보고한다. <표 4-21>에 보고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의 영향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를 통제한 상태의 영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복지정책 인식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22>~<표 4-25>에는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세 및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복지예산에 대한 의견을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하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의 영향만을 보고하였다.

우선, <표 4-22>와 <표 4-23>에서는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소득보장정책 영역과 분석 대상에 따라 개별 변수의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은 소득보장정책 지출 확대 의견을 강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빈곤층 생활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양육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실업자 생활비 지원, 아동 있는 취업자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은 청년 생활·구직·교육·훈련 지원 및 근로빈곤층 지원 지출 확대 의견을 강화하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은 장애인 생활비 지원 지출 확대 의견을 강화하였다. 넷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는 대체로 빈곤층 생활비 지원, 빈곤 노인 생활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양육 지원 지출 확대 의견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 수용도는 전체 아동 양육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양육 지원, 청년 생활·구직·교육·훈련 지원, 장애인 생활비 지원, 실업자 생활비 지원, 아동 있는 취업자 육아휴직 지원 지출 확대 의견을 강화하였다.⁸⁾

다음으로, <표 4-24>에서는 자세 및 복지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은 부분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약화하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8) 예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에 대해 매우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약간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은퇴 노인 노후소득 지원 지출 확대 의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가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 수용도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노동능력이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각자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즉,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대체로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지만, 건강보험 확대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표 4-24>에서는 복지예산 관련 의견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이 복지예산 관련 의견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은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을 약화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을 약화하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넷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 수용도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미지원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1

(단위: 1~5점)

구분	빈곤층 생활비 지원			은퇴 노인 노후소득 지원			빈곤 노인 생활비 지원			전체 아동 양육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양육 지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3	0.17*	-0.01	0.05	0.06	0.04	0.03	0.04	0.04	0.02	0.04	-0.03	0.08	-0.09
	일자리 없음	0.06	-0.01	0.02	0.08	0.01	0.02	0.01	0.01	0.09	0.28	0.05	0.06	0.41*	-0.04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3	-0.01	-0.06	-0.03	-0.12	-0.01	0.03	-0.02	-0.08	-0.05	-0.10	-0.08	-0.08	-0.08
	정북 지원 경험 (기준: 있음)	-0.07			-0.02		0.03			-0.07			-0.07		
정부 지원 만족도 (기준: (매우) 불만족)	보통		0.19			0.10		0.21*			0.18			0.16	
	만족		0.22*			0.02		0.20*			0.09			0.10	
	매우 만족		-0.05			-0.00		0.20			0.32			0.36*	
	모르겠음			0.07		-0.11			0.03			0.00			0.06
정부 미지원 수용도 (기준: 매우 부담)	약간 부담			-0.06		-0.13*			-0.09			-0.03			-0.11
	대체로 타당			0.01		-0.09			-0.03			0.07			0.05
	매우 타당			0.21		0.10			0.01			0.28*			0.29*
	사태 수(명)	3938	820	3118	3938	820	311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F	2.96 ***	2.38 ***	2.65 ***	1.98 **	0.81	2.16 ***	1.43	0.98	1.29	2.68 ***	1.63 *	2.48 ***	1.90 **	1.88 **	2.42 ***

주: 1) * p<0.05, ** p<0.01, *** p<0.001

2) 회귀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생략하였다.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의미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3〉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2

(단위: 1~5점)

구분	청년 생활 구조·교육·훈련 지원			장애인 생활비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실업자 생활비 지원			아동 있는 취업자 육아휴직 지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0.00	0.06	-0.03	0.04	-0.02	0.01	0.00	-0.01	0.06	0.09	0.02	0.03	0.06	-0.00
	일자리 없었음	0.10	0.05	0.07	0.05	-0.03	0.00	0.33*	-0.07	0.15*	0.30	0.10	0.13	0.48**	0.04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경험(기준: 있음)		-0.01	-0.18*	0.06	-0.12	-0.10	-0.14*	-0.14	-0.16	-0.11	-0.15	-0.07	-0.08	-0.14	-0.06
	장부 지원 경험 (기준: 있음)	-0.01			-0.09*		-0.02			-0.04			-0.08		
장부 지원 만족도 (기준: (매우) 불만족)	보통		0.16		0.11			0.12		0.20				0.06	
	만족		0.11		0.07			0.15		0.00				0.01	
	매우 만족		0.30		0.06			0.27		-0.00				0.16	
	모르겠음			0.12		0.02			0.12			0.22**			0.17*
장부 미지원 수용도 (기준: 매우 부담)	약간 부담			0.16*		-0.06			-0.03			0.13			-0.00
	대체로 타당			0.18**		0.01			0.08			0.14			0.15*
	매우 타당			0.42*		0.43**			0.07			0.27			0.45**
	사제 수(명)	3938	820	311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F		2.15***	1.34	2.10***	1.01	2.26***	2.31***	1.83**	2.11***	1.97**	1.86**	1.85**	4.08***	2.29***	3.95***

주: 1) * p<0.05, ** p<0.01, *** p<0.001

2) 회귀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생략하였다.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의미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4〉 조세 및 복지정책 방향 관련 의견에 대한 회귀 분석

(단위: 1~5점)

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1	0.05	-0.00	-0.01	-0.09	-0.00	-0.06	-0.00	-0.07	-0.02	-0.02	-0.02	-0.04	-0.09	-0.11	-0.10	-0.10			
	일자리 없었음	0.15	0.44*	0.11	-0.08	-0.25	-0.09	-0.09	-0.24	-0.10	0.03	-0.06	0.01	-0.05	-0.05	-0.23	-0.03	-0.03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기준: 있음)	없음	-0.11	-0.07	-0.09	-0.04	0.04	-0.13	-0.05	-0.08	-0.05	-0.05	0.01	-0.13	-0.11	-0.06	-0.14	-0.14				
정부 지원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2			-0.07			0.00			0.02			0.06							
정부 지원 만족도 (기준: (매우) 불만족)	보통		-0.11			0.33*			0.02			0.02			0.06						
	만족		-0.27*			0.47***			0.12			0.02			0.06						
	매우 만족		-0.38*			0.49*			0.17			-0.05			0.11						
정부 미지원 수용도 (기준: 매우 부담)	모르겠음			0.04			0.12			0.19				0.19*			0.30***				
	약간 부담			-0.04			0.02			0.09				0.11			0.30***				
	대체로 타당			-0.08			0.18*			0.11				0.24***			0.25***				
	매우 타당			0.13			0.52**			0.51*				0.43***			0.52***				
사례 수(명)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938	820	3118		
F		1.76*	2.45***	1.56*	2.52***	1.77*	2.65***	2.43***	1.09	2.51***	2.15***	1.89**	2.86***	3.74***	1.47	4.12***	4.12***	1.47	4.12***		

주: 1) * p<0.05, ** p<0.01, *** p<0.001

2) 회귀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생략하였다.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의미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5〉 복지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회귀 분석

(단위: 1~5점)

구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복지예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근로소득 감소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05	0.16	0.00	0.14*	0.22*	0.09	0.09	0.10	0.18	0.05	0.05	0.05	0.21*	-0.02	
	임자리 없음	0.12	0.29	0.05	0.17	0.35	0.10	0.10	0.13	0.39*	0.05	0.05	0.06	0.22	-0.02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경험(기준: 있음)	0.20**	0.30**	0.06	0.19*	0.19	0.14	0.14	0.18**	0.33**	0.04	0.04	0.22**	0.31**	0.09	
장부 지원 경험 (기준: 있음)	없음	-0.16**			-0.24***				-0.11*				-0.10			
장부 지원 만족도 (기준: 매우 불만족)	보통		0.15			0.21				0.17				0.06		
	만족		0.33*			0.36**				0.18				0.16		
	매우 만족		0.10			0.24				0.47*				0.29		
장부 미지원 수용도 (기준: 매우 부담)	모르겠음			0.22*			0.18	0.18			0.21*	0.21*			0.16	
	약간 부담			0.17*			0.18**	0.18**			0.14*	0.14*			0.15*	
	대체로 타당			0.31***			0.25***	0.25***			0.33***	0.33***			0.35***	
	매우 타당			0.76***			0.50**	0.50**			0.58***	0.58***			0.60***	
사례 수(명)		3938	820	3118	3938	820	3118	3118	3938	820	3118	3118	3938	820	3118	
F		4.98***	2.62***	4.47***	3.44***	2.42***	2.25***	2.25***	4.44***	2.80***	4.80***	4.80***	4.51***	2.97***	5.1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회귀 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생략하였다.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의미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이상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이 복지정책 인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체로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에 만족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체로 빈곤층, 빈곤 노인, 빈곤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체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확대에 찬성하였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는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소득보장 욕구를 증가시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하는 관계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이 복지예산 부담을 꺼리고 복지정책 확대에 찬성하지 않는 관계도 관찰되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복지정책 확대를 찬성하지 않는 관계는 일견 모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경제적 충격을 받은 집단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이 복지정책 확대를 찬성하지 않는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많이 받은 고용주·자영업자가 전통적인 친복지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 연구의 분석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둔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1/3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의 강도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대체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받은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다양한 긴급재난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루어졌지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19.9%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가 지원 받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형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50.8%는 정부 지원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42.9%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칠게 평가하자면,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일부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수용도가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은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 대체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을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실업, 소득 감소, 빈곤 같은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복지에 산을 더 부담하는 데 동의하였다.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경험이 친복지 인식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경험을 확대하고 정책효능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사회통합 인식, 소득보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복지에 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집단은 이를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확대에 찬성하고 이를 위한 조세 부담 확대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복지 확대만이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를 선별·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면,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전반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에서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준)보편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 및 미지원 수용도가 사회통합 및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수용도가 제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향후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을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정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해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 및 미지원 수용도와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가 관찰된 것은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 및 친복지 인식이 강한 집단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수용한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5장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정책 인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5 장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정책 인식

제1절 들어가며

건강불평등은 건강행태나 의료이용 같은 개인적 요인들 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들에 의해 발생하며, 결정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불평등의 크기는 더욱 확대된다. 한 사회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이며, 건강불평등 역시 그 기저에는 ‘취약성’이 배태되어 있다.

코로나19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불안정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의 발생 과정은 물론이고 그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건강불평등은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또 다른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건강불평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 현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계층 간 건강영향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 방법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은 크게 ‘코로나19 이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1〉 코로나19 건강영향 관련 주요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주요 조사 내용
코로나19 이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 주관적 건강상태(현재) -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코로나19 이전/이후) - 정신건강 상태(우울감, 스트레스) - 정신건강 상태 변화(코로나19 이전/이후) - 건강생활 실천 변화(코로나19 이전/이후) · 음주, 흡연, 신체활동, 체중, 외식/매식, 수면시간
코로나19의 건강충격 및 취약집단	- 코로나19 취약집단 - 코로나19 확진 경험, 피해 종류, 피해의 심각성 -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및 피해 예측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	- 코로나19 정부 대응의 적절성 · 의료적 방역 조치, 정보제공, 사회적 방역 등 -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문해력 - 일상 회복을 위한 중점 정책 - 보건의료정책 순응도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된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수준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순응도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신체건강취약, 정신건강취약, 사회적 취약, 경제적 취약으로 나누고, 주요 문항별로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분한 취약 인구집단의 정의는 〈표 5-2〉와 같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나누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체건강취약계층은 9.54%, 정신건강취약계층은 9.75%, 사회적 취약계층은 9.58%, 경제적 취약계층은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취약계층 정의

구분	내용	N(%)	
		취약	비취약
신체건강 취약계층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항에 ‘① 매우 나쁘다’ 또는 ‘②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451 (9.54)	3,493 (90.46)
정신건강 취약계층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423 (9.75)	3,521 (90.25)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지지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사람	418 (9.58)	3,526 (90.42)
경제적 취약계층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 있습니까?’ 문항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369 (8.55)	3,575 (91.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분석 결과

1. 건강영향

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변화

주관적 건강(self rated health)이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스스로의 판단이자 본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실제 개인의 건강 수준을 대변할 수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이단비 외, 2022, p. 2 재인용). 따라서 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인구집단의 객관적 건강수준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상호 교류, 식습관, 흡연, 음주 등 건강 행태와도 관련이 있어(이단비 외, 2022, p. 2 재인용), 인구집단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혹은 ‘약간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17%에 불과한 반면, ‘훨씬 나빠졌다’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6%로 조사되었다. 인구집단별로는 남자(9.72%)에 비해 여자(14.47%)에서, 젊은 층(20대 이하 5.84%)에 비해 노년층에서(60

대 이상 18.73%), 그리고 대도시(9.84%)나 중소도시(13.51%)보다는 농어촌(14.78%)에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5-3〉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는 취약인구집단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건강이 훨씬 나빠졌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56.15%에 달했고,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도 37.27%가 스스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도 각각 25.65%, 26.42%가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5-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관적 건강(self rated health) 상태 변화

(단위 : %)

구분		훨씬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변화 없다	훨씬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χ^2
전체		12.06	83.77	4.17	
성별	남성	9.72	85.68	4.60	21.9139**
	여성	14.47	81.80	3.73	
연령	20대 이하	5.84	86.31	7.84	104.1410***
	30대	7.99	88.74	3.26	
	40대	13.04	83.16	3.80	
	50대	12.01	83.82	4.17	
	60대 이상	18.73	78.87	2.40	
지역	대도시	9.84	86.24	3.92	18.6288**
	중소도시	13.51	81.80	4.69	
	농어촌	14.78	82.96	2.26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41	88.19	4.40	762.3933***
	취약	56.15	41.86	1.99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9.34	86.28	4.39	255.8477***
	취약	37.27	60.58	2.16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0.62	84.94	4.44	76.4863***
	취약	25.65	72.71	1.64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0.72	84.80	4.48	78.2530***
	취약	26.42	72.77	0.8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동진, 2022, p. 30).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2. 8. 10, p. 2).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분석하였다(〈표 5-4〉, 〈표 5-5〉 참조). 우울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늘었거나 조금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0.62%였는데, 연령별로 젊은 층(20대 이하 15.46%)보다는 노년층(60대 이상 23.46%)에서 더 높았고, 성별이나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감 변화는 취약인 구집단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는 무려 73.05%로 나타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45.43%,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는 43.07%,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38.38%로 나타났다.

〈표 5-4〉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상태 변화: 우울감

(단위 :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X ²
전체		20.62	76.26	3.13	
성별	남성	19.77	77.31	2.92	2.5763
	여성	21.49	75.17	3.34	
연령	20대 이하	15.46	81.80	2.73	32.5858*
	30대	17.84	79.63	2.53	
	40대	23.09	72.28	4.63	
	50대	21.58	75.97	2.45	
	60대 이상	23.46	73.34	3.19	
지역	대도시	19.31	78.07	2.62	8.8889
	중소도시	21.67	74.59	3.74	
	농어촌	20.99	76.99	2.02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8.25	78.55	3.20	128.1829***
	취약	43.07	54.50	2.43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4.95	81.77	3.28	716.1500***
	취약	73.05	25.20	1.75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7.99	79.00	3.01	163.2057***
	취약	45.43	50.34	4.24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8.96	77.94	3.11	72.1172***
	취약	38.38	58.28	3.3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6.94%로 우울감에 비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인구집단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응답률이 더 높았고, 대도시나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더 높았다. 또한 취약인구집단에서도 우울감보다는 스트레스 인지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는 79.58%,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는 56.33%,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55.19%,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53.06%로 나타났다.

〈표 5-5〉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상태 변화: 스트레스

(단위 :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χ^2
전체		36.94	59.45	3.61	
성별	남성	34.50	62.53	2.97	17.6873**
	여성	39.46	56.27	4.27	
연령	20대 이하	32.23	64.46	3.32	22.2827
	30대	34.95	62.01	3.03	
	40대	40.11	54.64	5.25	
	50대	38.50	58.43	3.07	
	60대 이상	37.83	58.82	3.35	
지역	대도시	34.72	62.02	3.26	14.2160*
	중소도시	39.07	56.76	4.17	
	농어촌	35.57	62.48	1.95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34.90	61.38	3.72	67.1001***
	취약	56.33	41.10	2.57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32.34	63.84	3.82	332.7598***
	취약	79.58	18.72	1.70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35.24	61.16	3.60	47.8844***
	취약	53.06	43.23	3.71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35.24	61.13	3.64	50.3297***
	취약	55.19	41.47	3.3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는 등 일상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체중 증가, 신체 활동 감소, 가정식 및 배달식 증가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김윤정, 박수연, 오경원. 2022, p. 2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 외식이나 매식 등의 식생활, 그리고 수면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흡연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16.83%)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5.01%)에 비해 더 많았고(〈표 5-6〉 참조), 음주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15.07%)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18.07%)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5-7〉 참조). 신체활동의 경우 늘었다는 사람(7.78%)보다는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39.16%)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고(〈표 5-8〉 참조), 체중은 줄었다는 응답(8.42%)보다는 늘었다는 응답(22.52%)이 더 많았다(〈표 5-9〉 참조).

그런데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변화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흡연수준은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 45.42%,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44.71%,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3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수준은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 34.93%,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31.12%,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24.36%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신체적 취약계층에서 흡연이나 음주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들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비흡연자나 비음주자가 많거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6〉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흡연

(단위 :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χ^2
전체		16.83	78.16	5.01	
성별	남성	19.05	76.52	4.43	22.8445***
	여성	8.49	84.34	7.17	
연령	20대 이하	15.42	79.43	5.15	17.2807
	30대	15.02	80.65	4.33	
	40대	16.02	78.16	5.81	
	50대	23.76	70.64	5.6	
	60대 이상	13.4	82.52	4.08	
지역	대도시	13.94	81.93	4.13	11.2363
	중소도시	19.61	74.88	5.51	
	농어촌	14.19	79.64	6.17	
신체건강	비취약	16.38	78.88	4.74	5.9130
취약계층	취약	22.03	69.85	8.12	
정신건강	비취약	14.02	81.33	4.65	97.8308***
취약계층	취약	45.42	45.91	8.67	
사회적	비취약	13.83	81.16	5.02	93.2113***
취약계층	취약	44.71	50.38	4.9	
경제적	비취약	15.69	79.32	4.98	16.9954**
취약계층	취약	30.11	64.62	5.2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7〉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음주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χ^2
전체		15.07	66.23	18.70	
성별	남성	17.40	64.58	18.02	18.5881**
	여성	11.43	68.81	19.77	
연령	20대 이하	15.17	64.07	20.76	24.4192*
	30대	12.66	67.43	19.91	
	40대	12.66	66.88	20.46	
	50대	20.50	63.62	15.88	
	60대 이상	14.07	69.35	16.57	
지역	대도시	10.36	69.36	20.29	38.3299**
	중소도시	18.46	63.66	17.88	
	농어촌	19.86	64.96	15.18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4.54	66.44	19.02	9.4253
	취약	22.25	63.39	14.36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3.24	67.56	19.21	79.6497***
	취약	34.93	51.83	13.24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3.56	67.40	19.04	52.8552***
	취약	31.12	53.76	15.13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4.29	66.64	19.08	16.8220**
	취약	24.36	61.38	14.26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대부분의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건강취약계층의 48.38%, 정신건강취약계층의 51.13%, 경제적 취약계층의 47.74%, 사회적 취약계층의 43.58%가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정신건강취약계층의 경우 비취약계층에 비해 신체활동이 증가했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체중의 경우에도 취약집단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변화가 많아서 신체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체중이 줄었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고, 정신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체중이 늘었다는 응답과 줄었다는 응답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5-8〉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신체활동

(단위 :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X ²
전체		7.78	53.05	39.16	
성별	남성	8.20	55.76	36.04	16.5264**
	여성	7.36	50.26	42.39	
연령	20대 이하	10.07	54.20	35.73	14.9305
	30대	7.19	52.74	40.07	
	40대	8.08	51.58	40.33	
	50대	8.47	51.93	39.60	
	60대 이상	5.64	54.64	39.72	
지역	대도시	6.82	55.54	37.64	22.3475**
	중소도시	8.67	49.66	41.66	
	농어촌	7.36	60.91	31.72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82	53.98	38.20	14.9479**
	취약	7.40	44.22	48.38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53	54.60	37.86	34.7913***
	취약	10.09	38.78	51.13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7.79	53.51	38.70	3.5234
	취약	7.74	48.68	43.58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7.88	53.76	38.36	11.3483*
	취약	6.75	45.52	47.7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9〉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체중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χ^2
전체		22.52	69.05	8.42	
성별	남성	20.38	72.62	7.00	25.4441***
	여성	24.72	65.39	9.89	
연령	20대 이하	22.36	68.08	9.56	38.9329**
	30대	26.50	65.96	7.54	
	40대	25.17	68.32	6.51	
	50대	24.32	66.39	9.29	
	60대 이상	16.03	74.94	9.03	
지역	대도시	22.23	70.26	7.51	10.5186
	중소도시	23.56	67.15	9.29	
	농어촌	17.66	74.47	7.87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22.74	69.50	7.76	21.5594***
	취약	20.42	64.84	14.74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21.47	70.97	7.56	69.8782***
	취약	32.29	51.27	16.44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22.56	69.32	8.12	4.5675
	취약	22.20	66.47	11.33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22.34	69.27	8.39	0.9451
	취약	24.48	66.78	8.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패턴이나 수면시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외식이나 매식은 줄었다는 응답(46.85%)이 늘었다는 응답(18.42%)에 비해 더 많았고, 수면시간은 늘었다는 응답(9.63%)보다 줄었다는 응답(11.17%)이 조금 더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외식이나 매식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인구집단 중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집단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에서 더 많았고, 취약인구집단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식생활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5-10〉 참조).

수면시간은 취약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모두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응답과 줄었다는 응답이 모두 많았는데, 특히 신체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표 5-11〉 참조).

〈표 5-10〉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외식이나 매식

(단위 :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X ²
전체		18.42	34.73	46.85	
성별	남성	18.87	36.32	44.81	6.9601
	여성	17.95	33.09	48.95	
연령	20대 이하	25.32	34.81	39.87	122.1429***
	30대	24.04	29.79	46.17	
	40대	21.47	30.75	47.77	
	50대	16.35	33.18	50.47	
	60대 이상	8.54	42.88	48.58	
지역	대도시	21.05	35.31	43.64	33.0161***
	중소도시	17.77	33.56	48.67	
	농어촌	8.61	38.78	52.61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8.91	34.50	46.59	6.1417
	취약	13.63	36.96	49.41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8.08	35.31	46.61	6.3494
	취약	21.62	29.30	49.08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8.87	33.41	47.72	30.7212***
	취약	13.84	48.10	38.06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8.88	34.75	46.36	7.1041
	취약	13.40	34.48	52.1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11〉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실천 정도 변화: 수면시간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훨씬 줄었다/ 조금 줄었다	X ²
전체		9.63	79.20	11.17	
성별	남성	9.25	81.18	9.56	11.9490
	여성	10.02	77.16	12.82	
연령	20대 이하	14.56	77.18	8.26	36.7857**
	30대	9.55	81.31	9.14	
	40대	7.30	79.96	12.74	
	50대	8.82	79.43	11.75	
	60대 이상	8.70	78.38	12.92	
지역	대도시	8.68	82.49	8.83	24.4788***
	중소도시	9.85	77.24	12.91	
	농어촌	13.28	74.05	12.67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9.59	80.37	10.04	48.7500***
	취약	10.03	68.15	21.82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9.31	81.43	9.26	146.3735***
	취약	12.63	58.44	28.93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9.26	80.58	10.15	48.2895***
	취약	13.13	66.17	20.70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8.75	80.50	10.74	49.3596***
	취약	19.00	65.30	15.7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나. 코로나19 확진 및 피해 경험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험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채종현 외, 2018, p. 208), 사회계층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회복지원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경험, 코로나19 감염 시 주요 피해, 그리고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33%가 확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표 5-12〉 참조). 인구집단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자할수록 확진 비율이 높았다. 취약성에 따른 인구집단 간 확진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2〉 인구집단별 코로나19 확진 경험

(단위 : %)

구분		확진 경험 있음	확진 경험 없음	χ^2
전체		43.33	56.67	
성별	남성	41.36	58.64	6.4408
	여성	45.36	54.64	
연령	20대 이하	54.50	45.50	114.2004***
	30대	47.25	52.75	
	40대	47.13	52.87	
	50대	42.51	57.49	
	60대 이상	29.93	70.07	
지역	대도시	43.45	56.55	13.4110**
	중소도시	44.78	55.22	
	농어촌	33.83	66.17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43.63	56.37	1.3967
	취약	40.46	59.54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43.21	56.79	0.2364
	취약	44.50	55.50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43.68	56.32	1.8345
	취약	40.05	59.95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43.54	56.46	0.7315
	취약	41.12	58.8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를 경험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주요 피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체건강 악화(46.22%), 우울이나 스트레스 증가(20.53%), 업무 또는 학업공백(14.97%),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11.12%), 돌봄 어려움(4.63%),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2.5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5-13〉 참조). 항목별로는 신체건강 악화의 경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증가는 40대 이상에서, 경제적 피해는 40~50대에서, 업무나 학업공백은 30대에서, 돌봄 어려움은 30~40대에서,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은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약 성별로는 신체건강 악화는 신체건강취약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증가는 신체건강취약과 정신건강취약계층에서, 경제적 피해는 정신건강취약과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업무나 학업 공백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돌봄 어려움은 정신적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은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그들이 경험한 피해가 매우 심각했거나 심각한 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14〉 참조).

〈표 5-1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주요 피해(1순위)

(단위 : %)

구분		신체건강 악화	우울, 스트레스 증가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	업무, 학업 공백	돌봄 어려움	사회적 낙인, 고립	χ^2
전체		46.22	20.53	11.12	14.97	4.63	2.52	
성별	남성	43.27	21.72	11.26	17.00	4.26	2.49	6.5072
	여성	48.81	19.49	11.00	13.20	4.96	2.54	
연령	20대 이하	50.54	17.65	10.51	16.20	1.89	3.21	89.5332****
	30대	43.36	15.75	8.64	20.29	9.40	2.55	
	40대	35.28	23.72	15.67	13.32	9.35	2.66	
	50대	47.88	20.49	11.65	16.04	1.51	2.43	
	60대 이상	56.38	25.23	7.88	8.52	0.47	1.51	
지역	대도시	45.55	19.61	10.66	17.56	3.93	2.69	15.2228
	중소도시	47.25	20.05	11.22	13.20	5.58	2.68	
	농어촌	42.93	30.20	13.40	11.15	2.17	0.16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45.31	20.47	10.75	15.96	5.11	2.41	17.5907*
	취약	54.35	21.09	14.47	6.21	0.39	3.49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46.37	20.37	10.04	16.27	4.35	2.60	23.9901**
	취약	45.07	21.76	19.38	5.13	6.77	1.90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45.99	20.50	10.26	16.15	4.74	2.35	22.5849**
	취약	48.45	20.83	19.59	3.42	3.56	4.15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45.34	21.26	10.61	15.54	4.76	2.48	13.5502
	취약	56.02	12.43	16.85	8.59	3.17	2.9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14〉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

(단위 : %)

구분		매우 심각함/ 심각한 편이었음	전혀 심각하지 않았음/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음	χ^2
전체		32.22	67.78	
성별	남성	30.26	69.74	2.8143
	여성	34.06	65.94	
연령	20대 이하	26.07	73.93	33.9053***
	30대	27.83	72.17	
	40대	33.39	66.61	
	50대	30.66	69.34	
	60대 이상	45.77	54.23	
지역	대도시	32.21	67.79	1.1927
	중소도시	31.66	68.34	
	농어촌	36.88	63.12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30.30	69.70	29.6164***
	취약	51.92	48.08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30.37	69.63	24.0795***
	취약	48.88	51.12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30.82	69.18	15.7205***
	취약	46.62	53.38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31.33	68.67	7.0864*
	취약	42.36	57.6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2.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포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염병은 불가항력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콜센터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노숙자, 외국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유독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향후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를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 또한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재난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과 대응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15〉 인구집단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단위 : %)

구분		매우 높다/높은 편이다	매우 낮다/낮은 편이다	χ^2
전체		92.59	7.41	
성별	남성	92.30	7.70	0.4895
	여성	92.88	7.12	
연령	20대 이하	92.34	7.66	9.1246
	30대	94.36	5.64	
	40대	93.33	6.67	
	50대	90.50	9.50	
	60대 이상	92.74	7.26	
지역	대도시	91.75	8.25	7.6858
	중소도시	93.68	6.32	
	농어촌	90.23	9.77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92.51	7.49	0.3515
	취약	93.35	6.65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92.64	7.36	0.1244
	취약	92.14	7.86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92.77	7.23	1.8760
	취약	90.83	9.17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92.89	7.11	5.5578*
	취약	89.37	10.6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이나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인구집단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재등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5-15〉 참조).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 높게 평가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참조).

〈표 5-16〉 인구집단별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피해 심각성

(단위 : %)

구분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훨씬 덜 심각할 것이다/ 덜 심각할 것이다	χ^2
전체		71.68	28.32	
성별	남성	69.95	30.05	6.0226
	여성	73.47	26.53	
연령	20대 이하	66.94	33.06	11.8045
	30대	73.01	26.99	
	40대	74.01	25.99	
	50대	70.76	29.24	
	60대 이상	73.14	26.86	
지역	대도시	66.90	33.10	34.2926***
	중소도시	74.70	25.30	
	농어촌	78.22	21.78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0.99	29.01	8.7680**
	취약	78.22	21.78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1.67	28.33	0.0037
	취약	71.82	28.18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71.67	28.33	0.0025
	취약	71.79	28.21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71.75	28.25	0.0828
	취약	71.01	28.9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3. 보건의료정책 방향

가.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은 개인의 소득수준, 신체적 조건 등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관리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채종현 외, 2018, p. 227), 보유자원이 부족하여 개인적 취약성이 클수록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은 회복력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인구 집단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채종현 외, 2018, p. 227).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 등 이른바 K-방역에 대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노숙자나 사회적 소수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측면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정부의 의료적 방역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정보제공, 사회적 방역조치,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 62.97%는 정부의 의료적 방역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11.31%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표 5-17〉 참조). 이 중 취약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평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는 16.17%, 사회적 취약계층 15.57%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부정 평가의 응답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17〉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의료적 방역 조치

(단위 : %)

구분		매우 부적절하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χ^2
전체		11.31	25.72	62.97	
성별	남성	12.67	26.64	60.69	11.3290*
	여성	9.91	24.78	65.31	
연령	20대 이하	12.07	27.96	59.97	35.9778**
	30대	12.81	29.64	57.56	
	40대	10.20	29.04	60.76	
	50대	12.48	22.65	64.88	
	60대 이상	9.59	21.29	69.12	
지역	대도시	13.98	26.94	59.07	27.8571***
	중소도시	9.09	24.96	65.95	
	농어촌	10.95	24.04	65.01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0.80	25.98	63.22	10.0268*
	취약	16.17	23.28	60.56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1.05	25.85	63.10	2.4456
	취약	13.68	24.54	61.77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0.86	25.48	63.66	10.3905*
	취약	15.57	28.00	56.43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1.20	26.06	62.75	2.6307
	취약	12.51	22.15	65.3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안내 등 안전안내문자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보 등 팬데믹 기간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66.52%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표 5-18〉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인구집단별 취약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8〉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정보제공

(단위: %)

구분		매우 부적절하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χ^2
전체		8.33	25.15	66.52	
성별	남성	9.13	25.12	65.76	3.4751
	여성	7.50	25.19	67.31	
연령	20대 이하	7.13	25.81	67.06	12.8235
	30대	9.95	26.84	63.21	
	40대	8.54	27.10	64.36	
	50대	8.63	24.70	66.67	
	60대 이상	7.63	22.27	70.10	
지역	대도시	10.12	25.60	64.28	13.8118*
	중소도시	6.96	25.01	68.03	
	농어촌	7.35	23.72	68.93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8.19	25.14	66.66	0.9226
	취약	9.60	25.24	65.16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8.22	25.25	66.52	0.6420
	취약	9.31	24.22	66.47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8.02	24.88	67.10	7.3566
	취약	11.26	27.74	60.99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8.31	25.18	66.51	0.0199
	취약	8.48	24.91	66.6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만,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나 정보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인구집단별로 응답에 격차가 나타났는데, 정보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는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인구집단별로는 신체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이 2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19〉 참조).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이해도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연령별로는 노인계층,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주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신체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정보 이해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표 5-20〉 참조).

〈표 5-19〉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충분성

(단위 : %)

구분		매우 부족했다/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다	매우 충분했다/ 대체로 충분한 편이었다	X ²
전체		13.74	86.26	
성별	남성	13.65	86.35	0.0296
	여성	13.84	86.16	
연령	20대 이하	11.25	88.75	9.8623
	30대	12.68	87.32	
	40대	15.52	84.48	
	50대	15.82	84.18	
	60대 이상	13.04	86.96	
지역	대도시	13.74	86.26	19.6764***
	중소도시	12.45	87.55	
	농어촌	21.67	78.33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3.26	86.74	7.4283*
	취약	18.34	81.66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3.24	86.76	7.7325*
	취약	18.38	81.62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3.00	87.00	17.5396***
	취약	20.80	79.20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3.46	86.54	2.8248
	취약	16.76	83.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20〉 인구집단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해도

(단위 : %)

구분		매우 어려웠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	χ^2
전체		11.67	88.33	
성별	남성	11.08	88.92	1.3991
	여성	12.29	87.71	
연령	20대 이하	8.31	91.69	29.4921**
	30대	8.40	91.60	
	40대	11.43	88.57	
	50대	13.00	87.00	
	60대 이상	15.48	84.52	
지역	대도시	9.33	90.67	41.2355***
	중소도시	12.01	87.99	
	농어촌	21.86	78.14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0.97	89.03	18.1279***
	취약	18.38	81.62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0.98	89.02	16.9877***
	취약	18.09	81.91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0.62	89.38	39.9202***
	취약	21.60	78.40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1.56	88.44	0.5178
	취약	12.88	87.1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 재택근무나 원격수업 권고 등 정부의 사회적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6%가 적절하다고, 12.64%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인구집단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계층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취약계층 중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방역조치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5-21〉 참조).

〈표 5-21〉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사회적 방역 조치

(단위 : %)

구분		매우 부적절하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χ^2
전체		12.64	28.90	58.46	
성별	남성	13.46	28.80	57.74	2.5136
	여성	11.80	29.00	59.20	
연령	20대 이하	14.90	31.96	53.15	39.6035**
	30대	13.54	29.87	56.59	
	40대	12.45	31.29	56.26	
	50대	14.09	28.56	57.35	
	60대 이상	9.24	24.27	66.49	
지역	대도시	15.51	32.56	51.93	55.2362***
	중소도시	10.93	26.19	62.88	
	농어촌	8.15	26.40	65.44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2.28	29.01	58.71	4.4403
	취약	16.08	27.84	56.09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2.49	28.91	58.61	0.8285
	취약	14.08	28.81	57.11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1.89	29.10	59.01	18.9497**
	취약	19.71	26.98	53.31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2.76	28.69	58.56	1.1601
	취약	11.40	31.15	57.4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46.54%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조치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낮았다. 인구 집단별로는 30~50대의 경제활동인구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도시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중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5-22〉 참조).

〈표 5-22〉 인구집단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사회경제정책

(단위 : %)

구분		매우 부적절하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X ^a
전체		13.94	39.52	46.54	
성별	남성	15.08	40.13	44.79	6.8558
	여성	12.77	38.88	48.35	
연령	20대 이하	11.99	44.64	43.37	27.5119*
	30대	15.35	38.68	45.97	
	40대	15.40	41.50	43.10	
	50대	15.64	37.60	46.75	
	60대 이상	11.70	36.36	51.94	
지역	대도시	15.16	45.38	39.46	65.1230***
	중소도시	13.19	34.24	52.58	
	농어촌	12.25	41.25	46.50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3.33	39.94	46.72	12.0283**
	취약	19.74	35.46	44.80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13.77	39.71	46.52	1.1235
	취약	15.54	37.73	46.73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13.09	39.90	47.01	22.5428***
	취약	21.99	35.86	42.15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13.73	39.35	46.92	2.9712
	취약	16.22	41.30	42.4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나. 일상 회복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했고,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자원 등에 따라 사회계층별로 일상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모든 취약계층에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14.88%), 신체건강취약계층(14.67%)에서는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5-23〉 참조).

일상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돌봄지원(24.11%), 지역경제회복(22.26%), 소상공인지원(21.34%), 근로고용안정(18.12%)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인구집단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정신건강취약계층은 소상공인지원(25.03%)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근로고용안정(27.57%), 경제적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지원(23.74%)과 지역경제회복(23.66%)이 다른 정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5-24〉 참조).

〈표 5-23〉 인구집단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 정도

(단위 : %)

구분		회복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회복했다	χ^2
전체		7.03	51.73	41.23	
성별	남성	6.82	52.19	40.99	0.4942
	여성	7.26	51.26	41.48	
연령	20대 이하	4.43	47.87	47.70	31.0699*
	30대	6.95	52.73	40.32	
	40대	9.30	48.06	42.64	
	50대	7.59	54.04	38.38	
	60대 이상	6.65	54.90	38.45	
지역	대도시	7.85	51.40	40.75	7.9784
	중소도시	6.15	52.87	40.99	
	농어촌	8.18	46.52	45.29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6.23	51.51	42.26	44.5143***
	취약	14.67	53.86	31.47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6.42	51.45	42.13	27.2283***
	취약	12.72	54.33	32.95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6.20	50.62	43.18	79.5754***
	취약	14.88	62.24	22.88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6.67	51.59	41.74	10.7636*
	취약	10.93	53.25	35.81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조사에서는 일상 회복 정도를 0~10점 사이에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0~3점은 회복하지 못했다, 4~6점은 보통이다, 7~10점은 회복했다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표 5-24〉 인구집단별 일상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단위 : %)

구분		돌봄 지원	소상 공인 지원	근로 고용 안정	지역 경제 회복	건강 피해 지원	의료 기관 보상	저소 득층 복지	교육 격차 해소	전 국민 대상 지원금	χ^2
전체		24.11	21.34	18.12	22.26	4.27	2.93	4.31	1.16	1.50	
성별	남성	23.11	22.05	18.74	22.37	4.46	3.01	3.33	1.12	1.82	15.7320
	여성	25.14	20.61	17.49	22.14	4.08	2.84	5.31	1.21	1.18	
연령	20대 이하	21.57	22.93	17.84	17.21	5.96	4.27	5.71	1.81	2.70	87.8050**
	30대	28.57	18.48	19.71	22.04	3.73	3.05	2.61	0.61	1.20	
	40대	22.59	20.63	20.66	21.29	3.80	2.55	4.75	1.86	1.87	
	50대	21.07	23.77	17.63	24.39	4.13	3.07	4.38	1.13	0.43	
	60대 이상	26.79	20.63	15.54	25.06	3.91	2.03	4.03	0.53	1.48	
지역	대도시	21.63	22.31	18.45	22.09	5.08	2.13	5.39	1.38	1.53	43.2997**
	중소도시	26.21	19.89	17.86	22.27	3.57	3.92	3.66	1.09	1.54	
	농어촌	24.20	25.21	18.01	23.10	4.32	0.96	2.62	0.48	1.10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23.98	21.44	17.80	22.50	4.25	2.98	4.36	1.17	1.51	4.2213
	취약	25.32	20.37	21.16	20.01	4.46	2.42	3.81	1.05	1.40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24.79	20.94	18.03	22.39	4.18	2.93	4.11	1.17	1.45	14.9417
	취약	17.78	25.03	18.94	21.08	5.13	2.86	6.14	1.06	1.97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24.38	22.07	17.12	22.73	4.26	3.01	3.94	1.20	1.31	57.0443***
	취약	21.59	14.51	27.57	17.81	4.38	2.16	7.76	0.84	3.38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24.67	21.12	17.92	22.13	4.26	3.12	4.17	1.13	1.48	15.9486
	취약	18.08	23.74	20.29	23.66	4.37	0.80	5.75	1.51	1.8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 보건의료정책 순응도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 이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입장을 질문하였다. 조사대상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강화’, ‘우울,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등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정책들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의 5점 척도로 질문 하였으며,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순응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52.74%는 이들 정책들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7.51%는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다.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순응도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정신 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5-25〉 참조).

〈표 5-25〉 인구집단별 보건의료정책 순응도

(단위 : %)

구분		낮음	보통	높음	χ^2
전체		7.51	39.75	52.74	
성별	남성	8.18	39.42	52.40	2.6095
	여성	6.82	40.09	53.08	
연령	20대 이하	6.40	38.13	55.47	7.6137
	30대	7.91	37.47	54.62	
	40대	8.61	40.80	50.59	
	50대	6.88	40.53	52.59	
	60대 이상	7.70	41.00	51.30	
지역	대도시	7.11	41.80	51.09	10.9814
	중소도시	7.83	37.27	54.90	
	농어촌	7.66	44.29	48.05	
신체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57	39.44	52.99	1.5434
	취약	6.96	42.71	50.33	
정신건강 취약계층	비취약	7.16	39.53	53.31	8.8872*
	취약	10.80	41.79	47.41	
사회적 취약계층	비취약	6.82	39.73	53.45	27.5299***
	취약	14.06	39.98	45.96	
경제적 취약계층	비취약	7.57	39.47	52.95	1.4263
	취약	6.86	42.75	50.39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설문조사에서는 7가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분석 시에는 각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3~5개 찬성하는 사람을 보통으로, 그 이상은 순응도 높음으로 그 이하는 순응도 낮음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기와 재난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기존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결과 사회갈등과 분열을 드러내게 하는 촉매가 된다(여유진 외, 2021b, p. 4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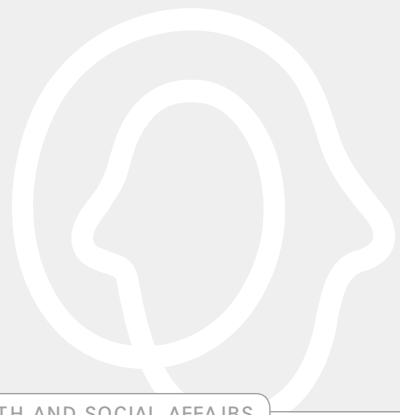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 정의한 신체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가 모두 악화되었고, 흡연, 음주 등 불건강행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피해는 취약계층에서 훨씬 더 심각했다고 응답하였고, 신체건강취약계층에서는 향후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피해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 이들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는 모두를 “평등하게” 공격하였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조사 결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존의 제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점차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는 일상 회복의 수준 또한 사회계층별로 격차가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이 어떤 차별적 영향을 받는지를 의식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김창엽, 2016, p. 259).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정책 내에서 형평성

렌즈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집단별로 취약성의 수준이나 필요의 정도에 비례하여 자원을 달리 분배하는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김창엽, 2016, p. 260)에 따른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6장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6 장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

제1절 들어가며

코로나19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쳤다(여유진 외, 2021b).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Park et al., 2020; Zhang, Zhao, Liu, and Yang, 2021).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과 폐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돌봄 공백과 학습 격차, 차별과 혐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심화되었다(홍태희, 2020).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통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반경이 매우 좁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저해됨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개념이다. 사회적 지지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Brailovskaia, Rohmann, Bierhoff, Schillack, and Margraf, 2019).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위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신준섭, 이영분, 1999). 또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고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Tindle, Hemi, and Moustafa, 2022).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심리적 영향을 일정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gan, Lavin, and Wolgast, 2017; Turner, 2015). 실제로,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발생 당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Xiao, Zhang, and Kong, 2020). 또한, 중국에서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이나 PTSD 증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Liu et al., 2021).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지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심리건강 사이의 연결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zkody et al.,

2021).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외부의 부정적 자극 및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직접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간접적으로는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hen, Syme, 1985; Jemmott, Locke, 1984).

한편, 코로나19는 돌봄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부각시켰고, 대중들로 하여금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영란, 2020; 정슬아, 2020). 대표적인 예로, 2020년 9월 부모가 없는 집에서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벌어진 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원격 수업이 야기한 돌봄 공백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김성호, 박현주, 2020.09.16.).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코자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전희경, 2020).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의 돌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관련 일부 문항은 기존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온 만큼, 필요시, 이전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추이를 확인코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시기에,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는 느낌을 갖도록,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2022년의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3,944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17년 3,839명이 참여한 사회통합조사와 2021년 3,962명이 참여한 사회통합조사 결과도 필요시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1. 주요 분석 변수

이 장에서 활용한 변수는 <표 6-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였다. 사회갈등인식은 우리나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6가지 유형의 사회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6-1> 활용 변수 I

구분	활용 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종속 변수	사회 통합 인식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⑩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사회 갈등 인식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갈등이 매우 심하다 ~ ④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사회 갈등 유형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 지역 간의 갈등 -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 ① 갈등이 매우 심하다 ~ ④ 사회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대인관계 그리고 관련 정책수요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지 일반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문으로,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는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문으로, ‘0’은 ‘매우 적음’, ‘5’는 ‘보통’, 그리고 ‘10’은 ‘매우 많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은 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와 명수를 기입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으로 서열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인관계 변화를 경험하십니까?’라는 단문으로, 가족 및 친척들과의 교류,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이외 직장·학교·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교류, 온라인 커뮤니티·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요는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살펴보았다.

〈표 6-2〉 활용 변수 II

구분	활용 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독립 변수 I	사회적 지지	일반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⑤ 보통 ~ ⑩ 매우 많음
		정서적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음 ~ ⑤ 보통 ~ ⑩ 매우 많음
	사회 관계망	유무	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있음/ 없음
		크기	도움을 청할 사람 수	명
		사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 ① 친척, ② 직장동료, ③ 친구, ④ 이웃, ⑤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⑥ 기타
	대인 관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인관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 혼자 있는 시간, 가족 및 친척들과의 교류,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이외 직장·학교·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교류, 온라인 커뮤니티·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		- ① 많이 줄어들었다 ~ ⑤ 많이 늘어났다
	정책 수요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 - ②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③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 - ④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 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 ⑥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한편, 돌봄의 경우, 돌봄 취약 집단, 자녀 돌봄 지원 그리고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조망하였다. 돌봄 취약 집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녀 돌봄 지원 문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초·중·고·대 이하(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긴급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있다면 사람 명수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봄을 정말 지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와 가정 내에서 자녀 돌봄 어려움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6-3〉 활용 변수 III

구분	활용 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독립 변수 II	돌봄 취약 집단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 - ② 아동, 청소년, - ③ 노인 ④ 장애인, - ⑤ 기타 취약계층
	자녀 돌봄 지원	지원 받을 사람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지원 받을 사람 명수	- 명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가족 돌봄(응답자의 배우자, 자녀의 (외)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주변 돌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 친구 등), 이웃(마을공동체), 유급도우미(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귀하는 자녀 돌봄 때문에 다음 항목과 같은 (일터에서, 가족 내에서)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압박 가중 -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 포기 -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른 퇴근으로 인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 보기 -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 - 자녀 돌봄으로 가족 내 다툼 및 갈등 증가 - 신체적 건강 악화	- ① 있다, ② 없다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층,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거점유형태, 거주 지역, 그리고 소득분위 등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6-4〉 활용 변수 IV

구분	활용 문항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통제 변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	남, 여
		연령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별거 포함), 무배우(사별·이혼, 미혼, 미혼모·부)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주거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분위	1분위 ~ 5분위

자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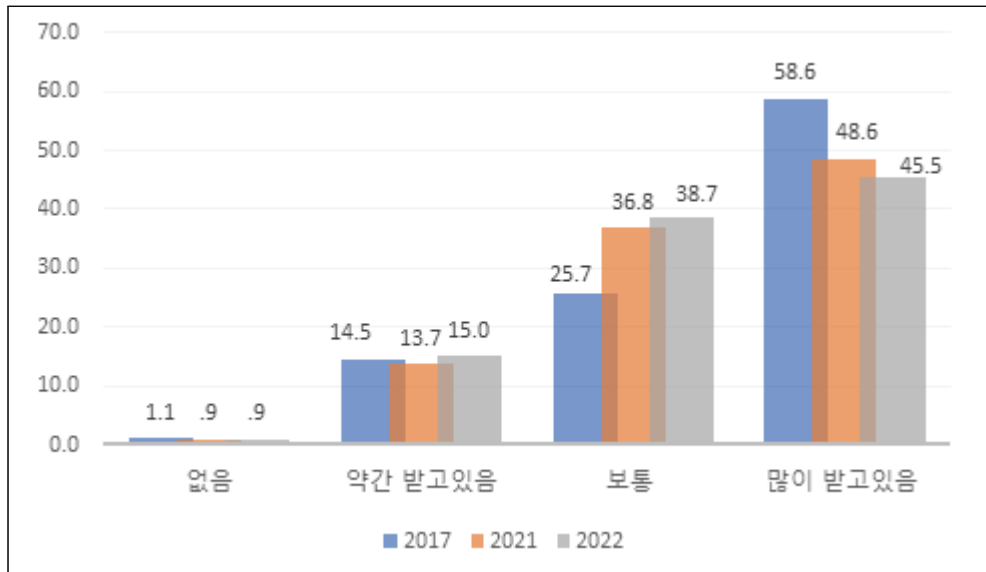
1. 사회적 지지

가.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를 비교해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즉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에는 48.6%, 코로나19 전 국민 2차 백신 접종이 완료된 2022년에는 45.5%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1] 사회적 지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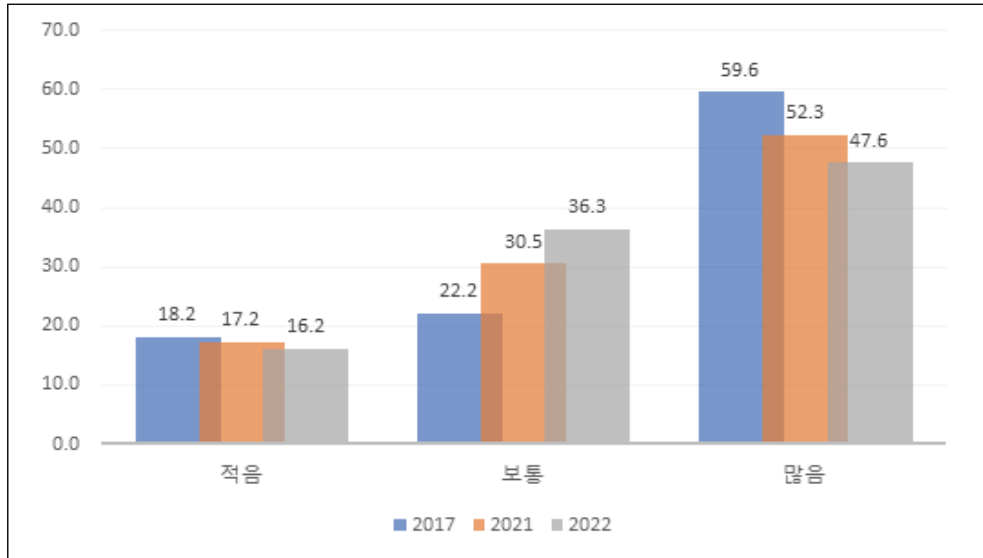


주: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 즉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59.6%,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상의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52.3%, 그리고 2022년에는 47.6%로 감소하였다.

[그림 6-2] 정서적 지지 비교

(단위: %)



주: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래 <표 6-5>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이 중장년 및 노인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이가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5분위와 4분위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6-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

구분		사회적 지지 수준		
		약간 받고 있음	보통	많이 받고 있음
전체		15.0	38.7	45.5
성별	남성	15.2	41.0	42.7
	여성	14.8	36.3	48.3
연령	청년	10.1	35.6	53.6
	중장년	15.4	39.4	44.2
	노년	21.3	40.8	37.6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13.7	38.6	46.9
	무배우	17.2	38.8	43.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7	39.4	36.6
	고졸	17.4	38.7	42.8
	대졸 이상	9.8	38.4	50.9
주거점유 형태	자가	12.5	39.1	47.8
	전세	16.3	37.1	46.0
	월세 ¹⁾	22.1	38.3	37.5
거주 지역	대도시	13.7	35.6	50.3
	중소도시	16.7	40.3	41.8
	농어촌	12.8	41.6	44.5
소득 5분위	1분위	28.8	37.3	33.1
	2분위	17.9	41.6	39.2
	3분위	13.1	40.4	45.4
	4분위	8.3	39.4	51.5
	5분위	7.2	34.7	57.8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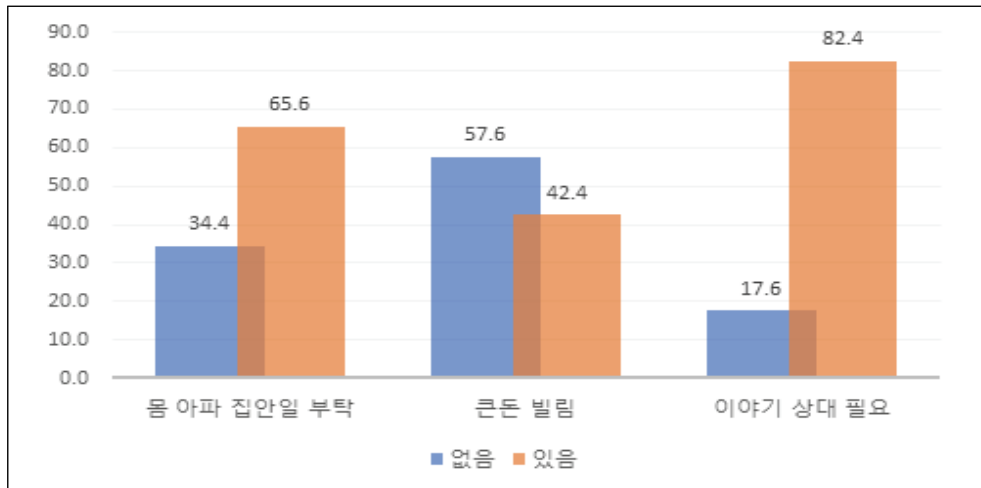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나. 사회관계망 유무 및 크기

사회관계망 유무 및 크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8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65.6%였다. 그렇지만 큰돈을 갑자기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나, 다른 사회적 지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3] 사회관계망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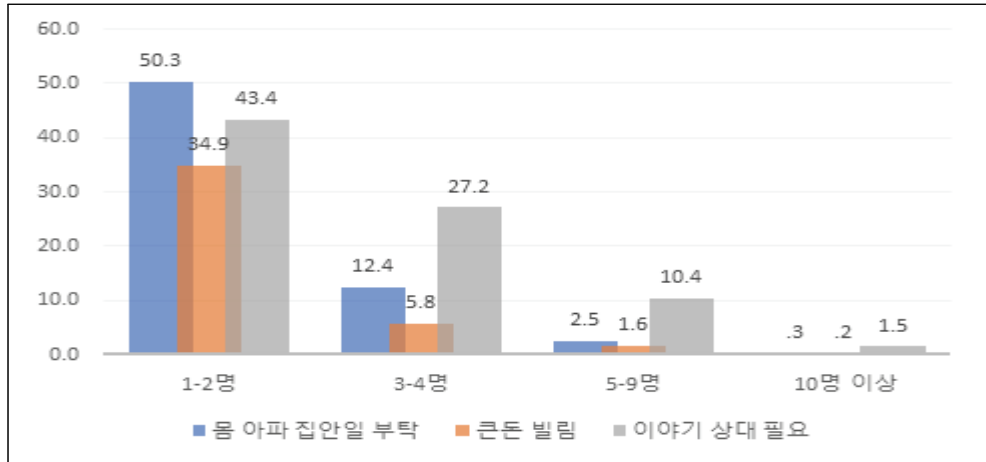


주: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이번에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통 1~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1~2명이 43.4%, 3~4명은 27.2%, 5~9명은 10.4%로, 다른 유형의 어려움보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갑자기 큰돈을 빌릴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사회관계망 크기

(단위: %)



주: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이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았다. 혼인상태의 유무와 관계없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큰돈을 빌리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사람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가에 거주하는 이가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고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5분위 집단이 다른 소득분위 집단보다 도움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크기

(단위: 명)

구분		사회관계망 크기		
		몸 아파 집안일 부탁	큰돈 빌림	이야기 상대 필요
전체		2.07	1.87	2.79
성별	남성	2.16	2.00	2.90
	여성	1.98	1.73	2.68
연령	청년	2.31	2.11	3.26
	중장년	2.02	1.76	2.69
	노년	1.84	1.85	2.34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2.07	1.80	2.72
	무배우	2.07	2.00	2.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1	1.76	2.34
	고졸	2.04	1.79	2.74
	대졸 이상	2.16	1.93	2.95
주거점유 형태	자가	2.12	1.90	2.88
	전세	2.02	1.71	2.57
	월세 ¹⁾	1.92	1.87	2.65
거주 지역	대도시	2.05	1.86	2.87
	중소도시	2.06	1.85	2.73
	농어촌	2.15	1.94	2.79
소득 5분위	1분위	1.94	1.93	2.42
	2분위	1.93	1.71	2.59
	3분위	2.06	1.73	2.76
	4분위	2.12	1.88	3.03
	5분위	2.23	2.03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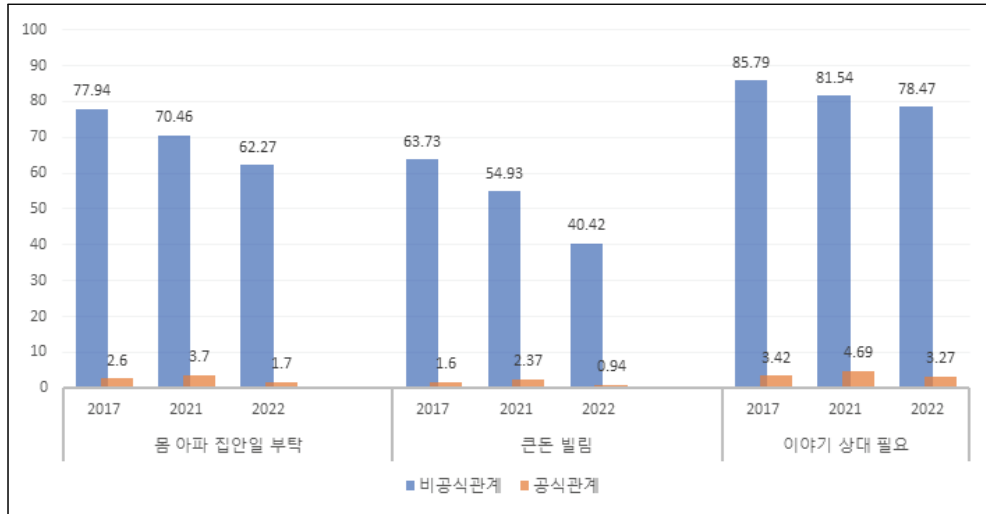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별 도움 요청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도움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갑자기 큰돈을 빌릴 때, 2017년 전체 응답자의 63.73%에서, 2022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40.42%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관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5] 상황별 도움 요청자

(단위: %)



주: 1)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2) 비공식관계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을 의미하며, 공식관계는 직장동료나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등을 의미함.

3) 2017년, 2021년의 문항에서 '기타'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응답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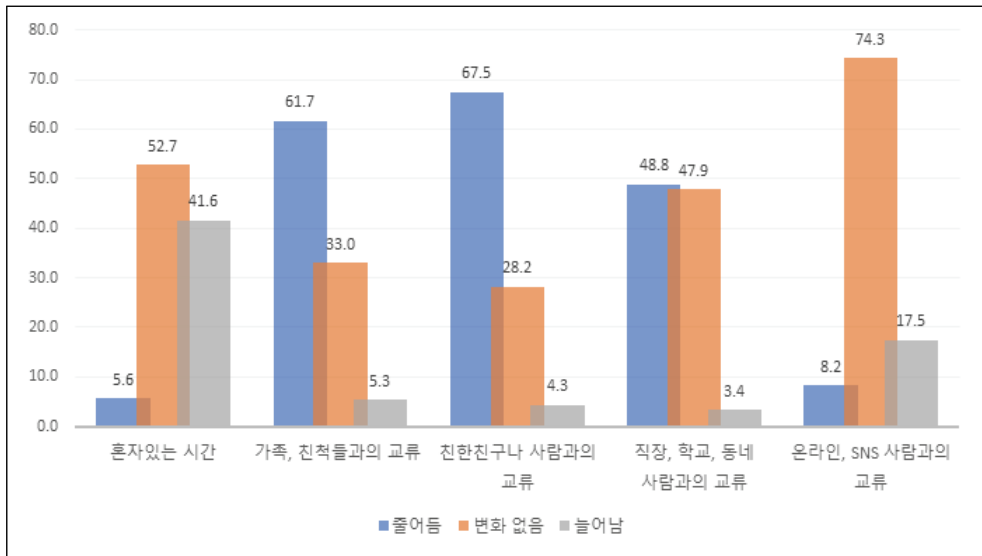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

코로나19 전후, 응답자의 대인관계 변화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응답자들의 41.6%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응답자들은 가족, 친척들과의 교류(61.7%),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67.5%), 그리고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교류(48.8%)가 줄어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났다는 응답은 17.5%였다.

[그림 6-6]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주거점유형태, 거주 지역, 소득분위에 따른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에서 대인관계 변화가 가장 크고, 중장년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무배우자가 대인관계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한 반면, 유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인관계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자가인 경우에 대인관계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가 대인관계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4분위 집단이 대인관계 변화가 가장 큰 반면, 2분위 집단은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전후 대인관계 변화

구 분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t/F값(유의도)
성별	남성	1,992	1.77	0.30	1.120
	여성	1,952	1.76	0.30	
연령	청년	990	1.82	0.29	23.170***
	중장년	2,310	1.74	0.30	
	노년	644	1.75	0.29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2,474	1.73	0.30	-9.074***
	무배우	1,470	1.82	0.3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79	1.76	0.27	.172
	고졸	1,634	1.76	0.31	
	대졸 이상	1,730	1.76	0.31	
주거점유 형태	자가	2,570	1.75	0.31	3.696*
	전세	572	1.76	0.29	
	월세 ¹⁾	802	1.79	0.29	
거주 지역	대도시	1,513	1.76	0.30	3.772*
	중소도시	1,876	1.75	0.29	
	농어촌	555	1.79	0.34	
소득 5분위	1분위	789	1.75	0.30	3.575**
	2분위	747	1.74	0.30	
	3분위	834	1.77	0.30	
	4분위	781	1.79	0.31	
	5분위	793	1.76	0.31	

주: *p<0.05, **p<0.01, ***p<0.001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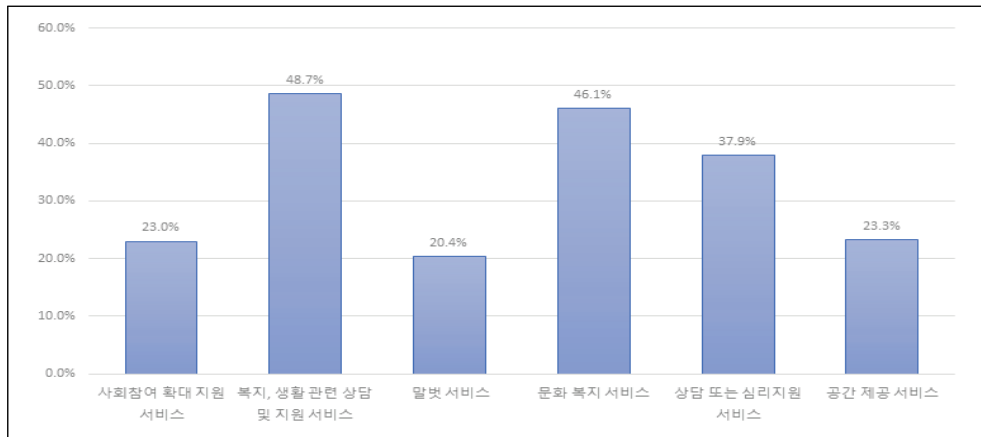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라. 정책수요

응답자가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그림 6-7]과 같다. 응답자들은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48.7%)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여가 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46.1%),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37.9%),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23.3%),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23%),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20.4%) 순이었다.

[그림 6-7]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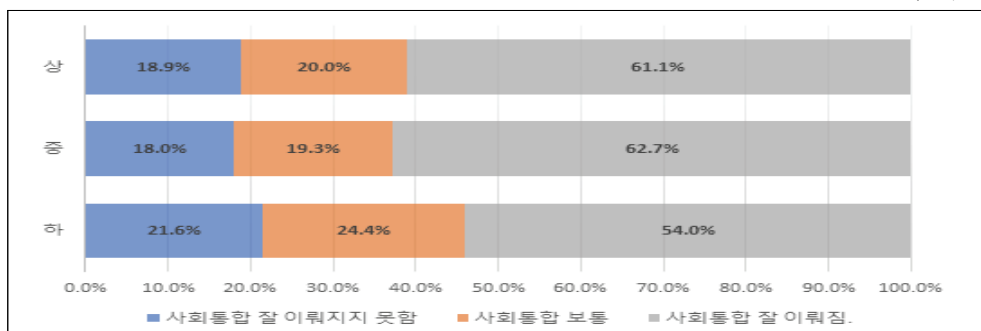
주: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1~2순위 중복 응답을 합산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마.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6-8]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과 보통으로 받는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잘 이뤄진다고 보았고, 응답률은 각각 62.7%, 61.1%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은 단지 54.0%만이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림 6-8]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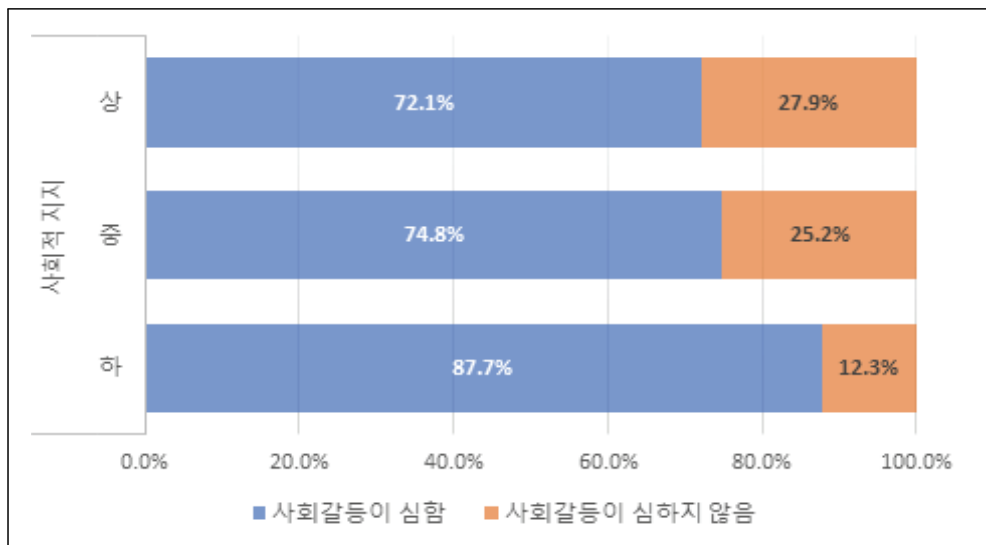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갈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의 무려 87.7%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은 72.1%만이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의 27.9%가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반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은 12.3%만이 사회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림 6-9]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갈등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별 6가지 사회갈등 유형의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6-10]과 같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다양한 갈등 유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유형이 다소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6-10]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주: 설문지의 10개의 갈등 유형 중,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인 것만 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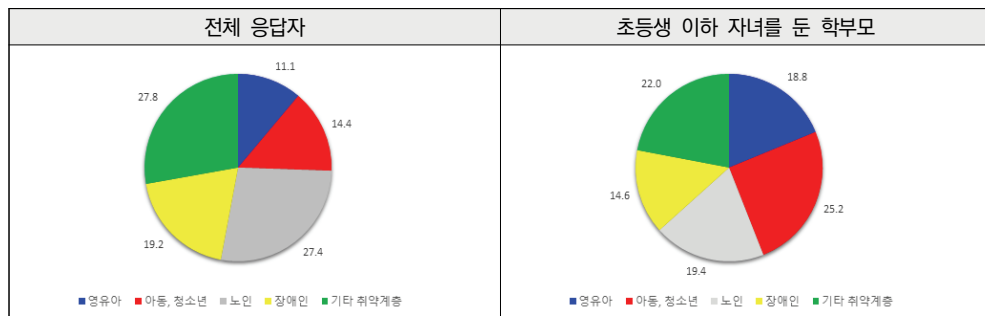
2. 코로나19 이후, 돌봄

가. 돌봄 취약집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2월~2022년 3월 기준)에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기타 취약계층(27.8%), 노인(27.4%), 장애인(19.2%), 아동 및 청소년(14.4%), 영유아(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동 및 청소년(25.2%)이 코로나19 시기에 돌봄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보았고, 다음은 기타 취약계층(22%), 노인(19.4%), 영유아(18.8%), 장애인(14.6%) 순이었다.

[그림 6-11] 돌봄 취약 집단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주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지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은 13.4%, 없다는 응답은 7.4%였다. 지원받을 사람의 명수는 평균 1.83명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더 많았

다. 연령의 경우, 중장년이 청년과 노년층에 비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많았다. 또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자가에 거주하는 이들은 긴급 돌봄 지원을 받을 사람이 많았고,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 수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2분위 집단이 다른 소득분위 집단보다 지원받을 사람이 많았다. 소득 5분위 집단은 긴급 돌봄 필요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3명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할 때, 소득 5분위 집단은 돌봄을 제공해줄 사람 수가 많으므로,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표 6-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 지원 사람 유무 및 명수

(단위: %, 명)

구분		돌봄을 지원받을 사람 유무	돌봐줄 사람 수		
			1~2명	3~4명	5~10명
성별	남성	46.5	47.3	43.5	36.8
	여성	53.5	52.7	56.5	63.2
연령	청년	21.8	21.3	25.8	21.1
	중장년	75.7	75.8	74.2	78.9
	노년층	2.5	2.9	-	-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96.6	96.2	100.0	94.7
	무배우	3.4	3.8	-	5.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	3.8	1.6	5.3
	고졸	25.4	27.1	11.3	31.6
	대졸 이상	71.0	69.1	87.1	63.2
주거점유 형태	자가	65.8	66.4	58.1	78.9
	전세	21.8	21.1	30.6	10.5
	월세 ¹⁾	12.3	12.6	11.3	10.5
거주 지역	대도시	35.5	34.8	40.3	36.8
	중소도시	54.6	54.5	56.5	52.6
	농어촌	9.9	10.8	3.2	10.5
소득 5분위	1분위	9.3	9.4	8.1	10.5
	2분위	28.3	30.5	16.1	15.8
	3분위	27.1	28.5	19.4	21.1
	4분위	19.5	18.8	24.2	21.1
	5분위	15.7	12.8	32.3	31.6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돌봄 지원유형을 가족 돌봄과 주변 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족 돌봄의 경우, 배우자의 지원(63.2%), 자녀의 (외)조부모(56.7%),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21.6%), 친인척(4.4%) 등의 순이었다. 주변 돌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이나 친구 등(7.8%), 이웃(마을공동체)(4.2%), 유급도우미(1.7%), 기타 사람(0.4%)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다(〈표 6-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가족 돌봄을,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주변 돌봄을 많이 받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2분위와 3분위 집단은 가족 돌봄을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소득 2분위와 5분위 집단은 주변 돌봄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즉, 소득 2분위 집단은 가족 돌봄과 주변 돌봄 모두 지원받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6-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 지원유형

(단위: %)

구분		돌봄 지원유형	
		가족 돌봄 ²⁾	주변 돌봄 ³⁾
성별	남성	47.5	30.4
	여성	52.5	69.6
연령	청년	22.1	23.2
	중장년	75.6	75.4
	노년	2.3	1.4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97.3	94.2
	무배우	2.7	5.8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	2.9
	고졸	24.8	33.3
	대졸 이상	71.7	63.8
주거점유 형태	자가	65.8	66.7
	전세	21.9	23.2
	월세 ¹⁾	12.3	10.1
거주 지역	대도시	34.6	50.7
	중소도시	55.5	43.5
	농어촌	10.0	5.8
소득 5분위	1분위	8.8	10.1
	2분위	27.5	33.3
	3분위	27.5	15.9
	4분위	19.9	15.9
	5분위	16.2	24.6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2) 가족 돌봄은 응답자의 배우자, 자녀의 (외)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앞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친인척을 의미함.

3) 주변 돌봄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 친구 등, 이웃(마을공동체), 유급도우미(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가 자녀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경험한 돌봄의 어려움은 <표 6-10>과 같다. 일터에서는,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를 포기한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내에서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진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또 다른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거나, 자녀 돌봄으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있음
일터에서	1)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압박이 더욱 늘어났다.	33.3
	2)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	27.5
	3) 자녀 돌봄을 위해 이른 시간에 퇴근함에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동료, 윗·아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21.7
가족 내에서	4)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18.8
	5)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졌다.	21.7
	6) 자녀 돌봄으로 신체적 건강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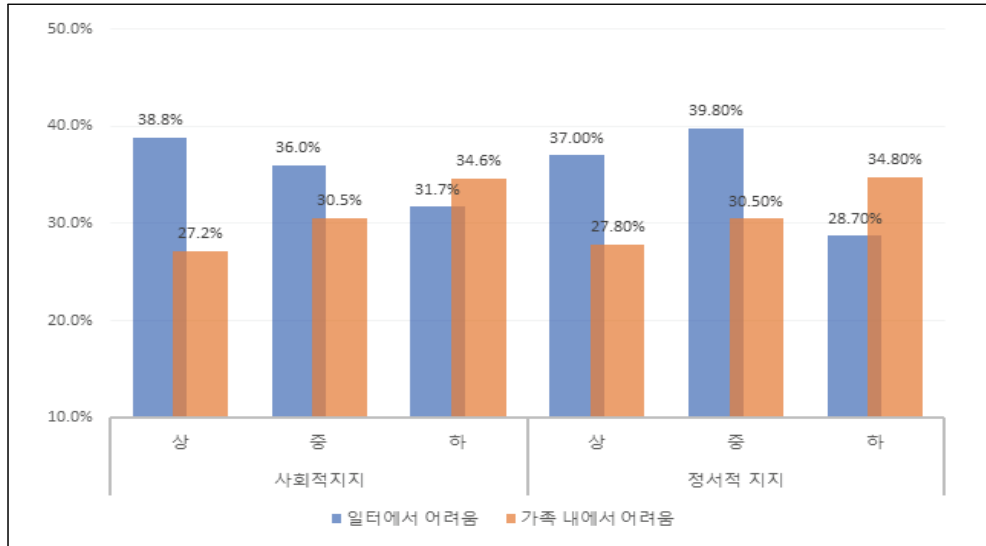
주: 1) '일터에서' 관련, 각 문항의 응답 중, '없다'와 '비해당'은 제외함.

2) '가족 내에서' 관련, 각 문항의 응답 중, '없다'는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별 그리고 정서적 지지 수준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일터에서 자녀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가족 내에서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중간인 집단은 일터에서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가족 내에서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림 6-12] 사회적 지지 수준별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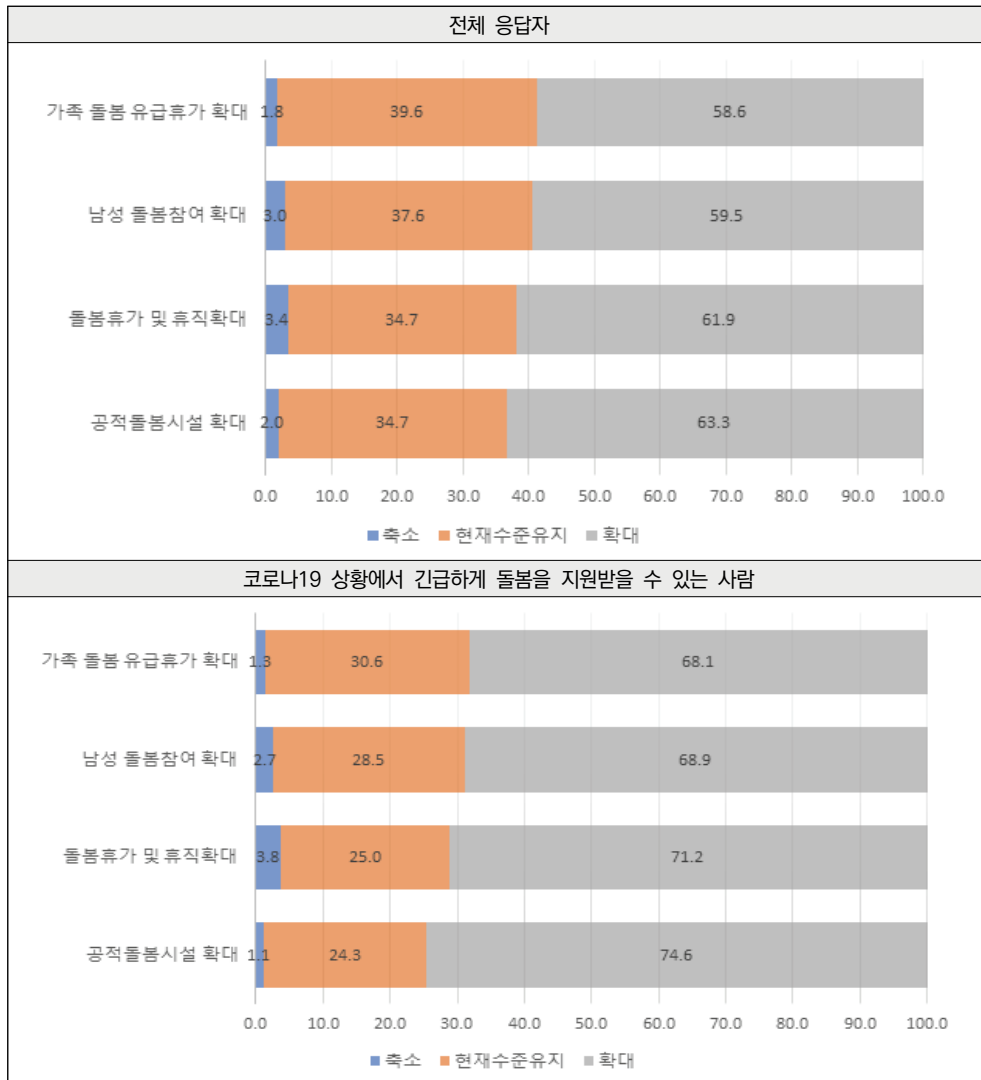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 돌봄정책에 대한 태도

돌봄정책에 대한 태도, 즉 ‘정부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서비스)을 현재보다 더 확대 혹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정책은 ㄱ) 가족 돌봄 유급휴가 확대, ㄴ) 남성 돌봄참여 확대, ㄷ) 돌봄 휴가 및 휴직 확대, ㄹ) 공적 돌봄시설 확대이다. 전체 응답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을 받았던 사람 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족 돌봄 유급 휴가 보장 및 휴가일 수 확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자녀 돌봄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모든 유형의 돌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6-13] 돌봄 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의 찬성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중장년, 유배우자, 대졸 이상의 학력, 자가인 경우에 돌봄정책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대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보다 관련 정책 확대를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3분위와 5분위가 돌봄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

〈표 6-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돌봄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돌봄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 ²⁾
성별	남성	49.0
	여성	51.0
연령	청년	26.2
	중장년	58.9
	노년	15.0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포함)	67.0
	무배우	33.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0
	고졸	37.8
	대졸 이상	49.3
주거점유 형태	자가	67.6
	전세	14.7
	월세 ¹⁾	17.8
거주 지역	대도시	36.3
	중소도시	48.7
	농어촌	15.0
소득 5분위	1분위	18.2
	2분위	18.6
	3분위	21.7
	4분위	20.0
	5분위	21.6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 및 기타 주거점유형태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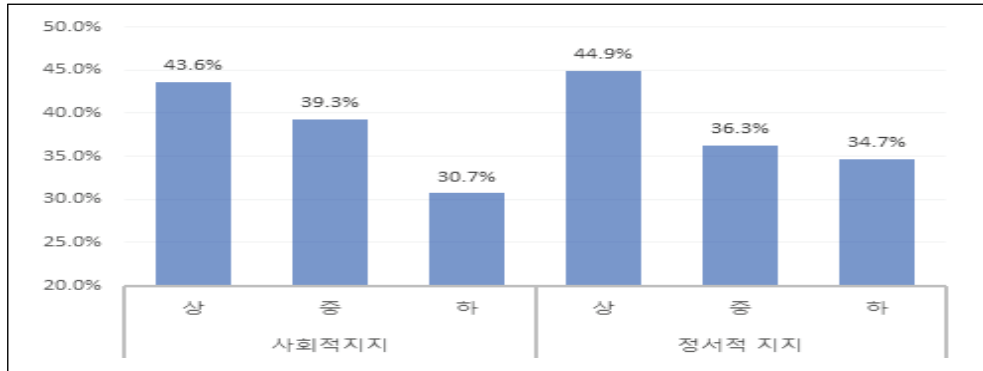
2) 돌봄정책 - ㄱ)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 시설과 서비스 확대, ㄴ) 부모 직접 돌봄 휴가·휴직 등 확대, ㄷ)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및 공감대 조성, ㄹ) 가족 돌봄 유급 휴가 보장 및 휴가일 수 확대, 위의 4가지 돌봄정책 유형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별 돌봄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돌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돌봄정책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림 6-14] 사회적 지지 수준별 돌봄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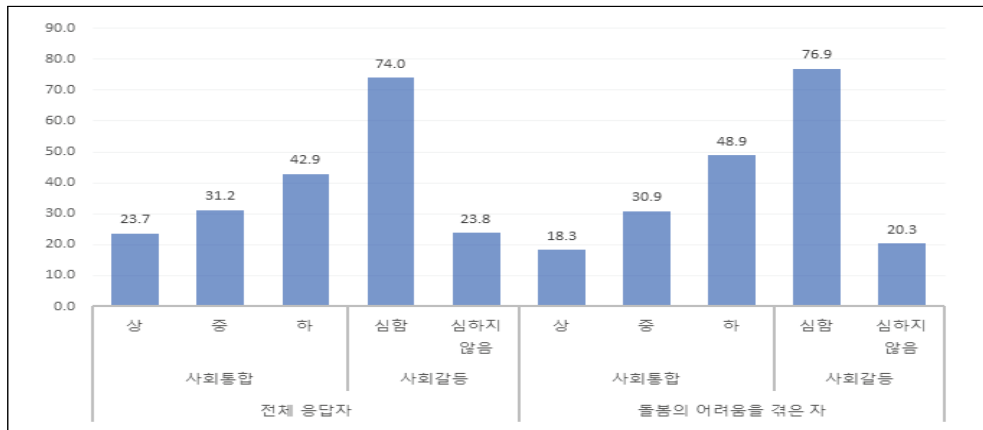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라. 돌봄과 사회통합·갈등 인식

전체 응답자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도 더욱 심하다고 보았다.

[그림 6-15] 돌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인식

(단위: %)



주: 일터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만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3.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갈등 인식

가. 전체 응답자

전체 응답자의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6-12>와 같다. 사회통합 인식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대인관계 변화가 사회통합 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여성이 사회통합이 높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사회통합 인식이 높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중졸 이하가 대졸 이상 집단보다 사회통합 인식이 높을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소득 3분위와 5분위가 1분위보다 사회통합 인식이 더 높았다.

사회갈등 인식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사회갈등 인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갈등 인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사회갈등 인식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사회갈등 인식이 더 높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가 소득 3분위보다 사회갈등 인식이 더 높았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모두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여성은 사회통합 인식이 더 높았다. 또한, 청년층은 사회통합 인식이 더 높은 데 반해, 중장년층은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는 사회통합 인식이 더 높았지만, 대졸 이상은 사회갈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3분위와 소득 5분위가 사회통합 인식이 높은 반면, 소득 1분위는 사회갈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은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이고, 소득 분위가 낮은 집단은 사회갈등 인식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12〉 전체 응답자의 영향요인 비교

변수			사회통합 인식		사회갈등 인식	
			B	β	B	β
(상수)			2.925***		3.098***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일반		.319***	.134	-.079***	-.102
	정서적 지지		.238***	.099	-.039**	-.050
통제 변수	성별 (ref = 남성)		.150**	.042	-.014	-.012
	연령층 (ref = 청년층)	중장년층	-.211**	-.059	.055*	.047
		노년층	-.033	-.007	.027	.017
	교육수준 (ref = 중졸 이하)	고졸	-.164	-.046	.080*	.068
		대졸 이상	-.352**	-.099	.157***	.134
	주거점유형태 (ref = 자가)	전세	-.023	-.005	.023	.014
		월세	-.102	-.023	.020	.014
	소득분위 (ref = 1분위)	2분위	.099	.022	-.061	-.041
		3분위	.202*	.047	-.067*	-.047
		4분위	.133	.030	-.063	-.043
5분위		.206*	.047	-.032	-.022	
adj R^2			.054(.051)		.027(.024)	
F값(유의도)			17.190***		8.325***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나.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집단

코로나19 시기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정서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과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자의 사회갈등 인식의 경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회귀식의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표 6-13〉 코로나19 기간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집단의 영향요인 비교

변수			사회통합 인식		사회갈등 인식	
			B	β	B	β
(상수)			2.113*		3.05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일반		.261	.113	-.069	-.094
	정서적 지지		.378*	.162	-.031	-.043
통제 변수	성별 (ref = 남성)		.134	.037	-.044	-.038
	연령층 (ref = 청년층)	중장년층	-.094	-.019	.139	.089
		노년층	1.169	.112	-.071	-.022
	교육수준 (ref = 중졸 이하)	고졸	-.116	-.030	.066	.054
		대졸 이상	-.344	-.092	.140	.118
	주거점유형태 (ref = 자가)	전세	.069	.015	.007	.005
		월세	-.126	-.027	.116	.077
	소득분위 (ref = 1분위)	2분위	.719	.179	-.180	-.141
		3분위	.247	.055	-.093	-.066
		4분위	.808	.185	-.075	-.054
		5분위	.825	.177	-.160	-.109
adj R^2			.095(.053)		.050(.004)	
F값(유의도)			2.243**		1.094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 체계가 와해되어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및 갈등 인식 그리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전후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도 많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 증진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여유진 외, 2021b),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자원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고려한 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담서비스 등과 같은 마음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았다. 또한, 정서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요인이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큰 상흔을 주어 현재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돌봄체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는 가족 내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족 돌봄 유급 휴가 확대, 남성 돌봄참여 확대, 돌봄휴가 및 휴직 확대, 공적 돌봄시설 확대 등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돌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돌봄 문제를 직접 경험한 응답자들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들의 돌봄 사업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및 조정하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체계에서의 돌봄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구의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이를 반영한 조사 문항을 설계하여, 지지 유형별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해 조망해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후속 연구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을 집단으로 기타 취약계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제2절 정책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보고서는 작년의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연구 주제를 지속하여 비교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고,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장기화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사회경제적 및 신체정신적 영향을 탐색해 이들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6~8월 동안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명을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과 조사방식이 다른, 2020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추후의 과제를 덧붙임으로써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1.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정부 대응 인식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2014~2022년) 문항 중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등의 공통 문항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각 영역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지지, 형평성 인식 등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에 조사된 코로나19 이후 본인 및 사회의 변화, 관련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일상 회복 정도 인식, 코로나19 이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관적 행복도는 2017년 6.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이후에 2018년과 2019년에는 6.61점, 6.48점으로 하락하였고, 2021년에 6.33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6.63점으로 2021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삶

의 만족도는 6.29점으로 최고치를 보인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15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90점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은 작년에 비해 0.08점 소폭 하락하였으나, 실업자와 주관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사회통합도는 4.31점으로 2021년에 비해 0.28점이 하락하였다. 이는 올해 치뤄진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신뢰도도 사회통합도와 유사하게 하락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 2021에 비해 평균 0.30점 감소하였다. 2021년 대비 사회적 신뢰도는 전 연령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40/50대(0.49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30대(0.23점), 60/70대(0.05점) 순으로 사회신뢰도의 감소폭이 작았다. 소득 5분위별로도 2022년의 전반적인 사회신뢰도가 202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2분위에서 0.45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은 2017년에 5.9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1년에 5.67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5.71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임시·일용직(0.22점)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신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2022년에는 67.89%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보다 감소하였으며, 60/70대 노년층에서 2021년보다 13.47%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정도에 대한 인식,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는 평균 6.05점으로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60/70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저소득층(1, 2분위, 하층)은 회복 정도 인식 수준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60/70대, 실업자, 저소득층(1분위, 하층)이 2022년의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여전히 부정적 변화를 예상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변화에서는 실업자만 부정적 변화를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 가족 및 친구·동료들과의 관계 변화에서도 본인 삶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유사하게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 52.54%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도 52.51%로 거의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역시 51.90%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3위까지 모두 경제적 측면의 회복과 관련된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1분위와 하층은 근로취약층 고용지원, 3, 4분위와 중간층은 민생경제회복지원을 선호했으며, 5분위·중상층(상층)·2분위·중하층은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이한 소득수준 집단에서 정책 선호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속적인 주요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사회통합도는 떨어졌다. 개인의 심리적 회복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개개인의 고립된 방식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상호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사회통합도와 사회신뢰도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결과의 함의를 확장해보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 경우 사회의 통합 수준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나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동안의 잠재된 갈등이 드러나게 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협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나 어려움을 겪었던 계층들이 이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당시의 피해규모나 피해대상의 규모가 클 경우 정권교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팬데믹 이후 증가했고 2022년에 예외적으로 보수층의 행복도가 높으므로, 이는 대선 결과에 대한 만족일 수 있으며, 2017년과 비교하면 앞으로 그 수치가 내려갈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행복도/삶의 만족도, 국가 자부심, 사회통합도 등에서 보수층에 비해 진보층의 수치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선 결과가 두 계층에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방식으로 계층을 분류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예컨대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이나 갈등, 사회신뢰도 등과 관련하여 낮은 지지수준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대선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적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사회통합 수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정책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살펴본 이번 조사 결과는 본 연구원의 지속적인 사회통합 연구와 실태조사 자료 축적에 기반한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적 환경 변화, 팬데믹 위기 등의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2.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클수록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특성을 통제할 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우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1/3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집세 미납, 적금·보험 해지, 대출 등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한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의 강도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대체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다양한 긴급재난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루어졌지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대다수 국

민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9%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가 지원받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형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50.8%는 정부 지원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42.9%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칠게 평가하자면,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집단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일부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일부는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수용도가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체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을 약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실업, 소득 감소, 빈곤 같은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친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복지에 산을 더 부담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경험이 친복지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복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경험을 확대하고 정책효능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사회통합 인식, 소득보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복지에 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집단은 이를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확대에 찬성하고 이를 위한 조세 부담 확대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복지 확대만이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를 선별·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면,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연구의 분석에서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준)보편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 및 미지원 수용도가 사회통합 및 친복지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수용도가 제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향후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을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정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공중보건위기 상황으로 인한 건강영향과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건강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된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수준의 사회계층 간 격차,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순응도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신체건강취약(주관적 건강 나쁨 인식), 정신건강취약(일정 기간 절망감 경험자), 사회적 취약(사회적 지지 수준 보통 이하), 경제적 취약(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면서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경험자)으로 나누고, 주요 문항에 대해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신체건강취약계층은 9.54%, 정신건강취약계층은 9.75%, 사회적 취약계층은 9.58%, 경제적 취약계층은 8.55%로 각각 나타났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06%였다. 그러나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56.15%)에서는 코로나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4.7배 더 많았고, 정신건강취약계층(32.27%), 사회적 취약계층(25.62%), 경제적 취약계층(26.42%)에서도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각각 3.1배, 2.1배, 2.2배 더 많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62%로 조사되었는데, 신체건강취약계층(43.07%)은 이보다 2.1배, 정신건강취약계층(73.05%)은 3.5배, 사회적 취약계층(45.43%)은 2.2배, 경제적 취약계층(38.38%)은 1.9배 각각 더 많았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일상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평소 실천하던 건강행태에 대한 변화도 발견되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흡연이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16.83%였으나, 신체건강취약계층은 22.03%, 정신건강취약계층은 45.42%, 사회적 취약계층은 44.71%, 경제적 취약계층은 30.11%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3.3배, 4.7배, 3.2배, 3.3배 더 많았다. 또한 음주가 더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5.07%에 불과했으나 신체건강취약계층은 22.25%, 정신건강취약계층은 34.93%, 사회적 취약계층은 31.12%, 경제적 취약계층은 24.36%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1.5배, 2.3배, 2.1배, 1.6배 더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취약집단에서 더 많아서 전체 응답자(11.17%)에 비해 신체건강취약계층은 2.0배, 정신건강취약계층은 2.6배, 사회적 취약계층은 1.9배, 경제적 취약계층은 1.4배 더 많았다.

셋째, 코로나19 감염 시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 또한 사회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 중 그들이 경험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2.22%였으나 취약계층들이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은 이보다 더 커 신체건강취약계층은 1.6배, 정신건강취약계층은 1.5배, 사회적 취약계층은 1.4배, 경제적 취약계층은 1.3배 더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했고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일상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정도에 대해 사회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7.03%로 나타났고, 신체건강취약계층은 이보다 2.1배, 정신건강취약계층은 1.8배, 사회적 취약계층은 2.1배, 경제적 취약계층은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정부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 이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중 7.51%는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는 정신건강취약계층(10.80%)과 사회적 취약계층(14.06%)에서 정책순응도가 낮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는 모두를 “평등하게” 공격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존의 제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이 어떤 차별적 영향을 받는지 의식하고 판단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정책 내에서 형평성 렌즈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와 영향요인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의 돌봄 경험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관련 일부 문항은 기존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온 만큼, 필요시, 이전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와 사회관계망에 대해 조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2017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꾸준히 다뤄진 부분이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58.6%에서 2022년 45.5%로 감소하였다.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서적 지지, 즉 평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17년 59.6%에서 2022년에는 47.6%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유무 및 크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82.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65.6%,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는 보통 1~2명이었다. 그중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3~4명이 27.2%, 5~9명이 10.4%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무려 41.6%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가족 및 친척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67.5%, 61.7%로 상당히 높았다. 온라인,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교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48.7%)와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46.1%)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와 돌봄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2월~2022년 3월 기준)에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기타 취약계층(27.8%), 노인(27.4%), 장애인(19.2%), 아동 및 청소년(14.4%), 영유아(1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동 및 청소년(25.2%)이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돌봄이 취약한 집단이라고

보았고, 다음으로는 기타 취약계층(22%), 노인(19.4%), 영유아(18.8%), 장애인(14.6%)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 중에서 13.4%만이 긴급 자녀 돌봄을 지원받았고, 지원받은 평균 사람 명수는 1.8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 중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경험한 돌봄 지원유형은 가족 돌봄(66.2%)이 가장 많았다. 주변 돌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이나 친구 등은 7.8%, 이웃(마을공동체)은 4.2%, 유급도우미는 1.7%, 기타 사람 0.4% 순이었다. 돌봄의 어려움을 일터와 가족 내로 구분 지어 살펴보았다. 일터에서는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돌봄 정책으로 가족 돌봄 유급휴가 확대, 남성 돌봄 참여 확대, 돌봄 휴가 및 휴직 확대, 공적 돌봄시설 확대 등을 모두 실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돌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자의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공통으로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층, 그리고 학력이 공통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인식에는 정서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상담서비스 같은 마음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돌봄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또한 향후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정책대안과 구체화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정책 제언

이상 분석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신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관계 단절 속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진 상황이다. 즉 개인적 심리적 회복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개개인이 고립된 상황에서 진행되며, 더 나아가 상호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들의 고립감, 외로움, 상호 불신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별개의 부서나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특정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장이나 학교, 돌봄 현장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곳에서 불신이나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쟁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정책적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모든 구성원이 그동안 각자 고립된 삶을 버텼었으나 신뢰적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새로운 관계 형성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다음,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우선 범국가적 일사불란한 조치가 요구되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조치에 따랐고 그 효과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만족했고 이는 개인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무너진 사회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경제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의 빈곤 및 실업에 대한 대책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이 약화하는 현상, 즉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칫 국가의 사회복지 지원의 역할이 약화되고 강력한 국가주체제가 강화되는 징후로도 읽힐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금 사회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 간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식은 사회 계층과 무관하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초국가적,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영향은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더 심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 계층 간 이해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때 개인들의 인식은 주관적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 결과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전후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그간 잠재되어 있던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복지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부 대책이 유례없는 속도로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복지 프로그램 효과성의 경험을 확대하고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수급자를 선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형성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사회적 합의 수준도 높게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 적정 조합을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시도한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해 사회정책 내에 형평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인구집단별로 취약성의 수준이나 필요의 정도에 비례하여 자원을 달리 분배하는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김창엽, 2016, p. 260)에 따른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점차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일상 회복의 수준 또한 사회계층별로 격차가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19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이 어떤 차별적 영향을 받는지 의식하고, 이를 판단의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공적 돌봄체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돌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돌봄 문제가 가족에게 일임되는 일로 인식되는 경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영역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지역사회 내 통합 및 조정을 통하여 감염병 유행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아쉬운 점과 향후 사회통합과 관련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연구와 실태조사자료의 축적은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사회경제적 변화, 정치적 환경 변화, 팬데믹 위기 등의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난 2년여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과 의미를 모두 알지는 못하며, 많은 부분은 몇 년이 지나야 명백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취약층의 양산과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메가트렌드(megatrends)인지,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특별한 변화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시적 분석을 함께 다루지 못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과 해체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코로나19 시기를 관통하는 사회통합조사 시계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로 수집된 생활세계 영역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표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수준의 지표들과 비교하는 등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의 수준 확인 및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경제성장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장은 그 자체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 그 자체는 영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줄여나갈 통합역량이

다. 시스템의 역량, 생활세계에서의 참여, 그리고 공정한 규범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사회라면 어떤 갈등도 해소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야말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이재열 외, 2014. p. 140).



- 김동진. (2022). 2022년 건강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3, 25-41.
- 김미곤. (2020).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 290, 6-19.
- 김미루, 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281.
- 김민선, 주수산나. (2021). COVID-19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방식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3(3), 28-61.
- 김성현. (2021).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13, 375-390.
- 김성호, 박현주. (2020.09.16.) [단독]인천 라면 형제 참변 ‘막을 기회 있었다’... 사회적 참사 지적.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6010003829> 에서 2022.10.19. 인출
- 김승희, 이한나, 설동진. (2020).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 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영향요인. 대한부동산학회지, 57(1), 85-104.
-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서울, 7월 10일).
- 김윤정, 박수연, 오경원. (2021). 코로나19 유행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 10. 11. 접근(<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85>)
- 김창보. (2021). 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특징과 건강정책의 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5, 1-12.
- 김창엽. (2016). 공중보건정책과 건강형평성. 보건행정학회지, 26(4), 256-264.
- 김창엽. (2020).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In 코로나19 그 이후, Post-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한 안내서. 과학잡지 에피, 12.
- 권영순, 오서진, 이상주. (2020).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6(1), 1-20.
- 남재현, 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 남재현, 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노혜진. (2022). 코로나19 이후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 변화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격차, 42 (2), 199-219.
- 문진영, 유미선. (2021). 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정책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4), 29-55.
- 박주희. (2021).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년기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43-54.
- 박준, 윤영근, 김길수, 진경애, 오정하, 구지연...이일영. (2021).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선숙, 조혜영. (2017). 대학생의 공감과 불안,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5), 2841-2852.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 8. 1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545&SEARCHKEY=TITLE&SEARCHVALUE=%EC%A0%95%EC%8B%A0%EA%B1%B4%EA%B0%95)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양미라, 김해숙. (2020).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309-319.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김도형. (2021a).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b).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단비, 안정현, 남진영. (2022).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대별 집단 차이.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2), 1-13.
- 이봉주, 장희선, 선우진희, 길보라.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1. 서울: 굿네이버스
- 이승호, 홍민기. (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17-44.
-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70(1), 53-88.

- 이윤정. (2022).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0(3), 47-54.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 국사회정책, 21(2), 113-149.
- 이종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KDI 보도자료.
-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희경. (2020). 감염병과 약한 자들의 페미니즘: 불안을 마주하는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김은실 편,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 정슬아. (2020).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돌봄분담 이요? 없어요, 그러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 와 돌봄위기 토론회 자료집. 여성민우회 주최 토론회(10월 28일).
- 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채종현, 최호진, 이재호. (2018).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 구원.
- 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해연.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 최홍조, 오병일, 박한희, 서채완, 황필규, 정제형...최다미. (2022). 인권 관점의 방역체계 구축 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질병관리청.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리서치. (2021). 여론 속의 여론, 기획: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일반국민과의 비교 연구, 주간리포트(2021.11.10.).
- 한국은행. (2020).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 국가간·국가 내 부문 간 차별화된 충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2020.12.21.)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홍민기. (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2020년 12월 호, 21-38.
- 홍태희. (2020).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전망. 경상논총, 38(3), 79-99.

- Bambra C, Riordan R, Ford J, Matthews F.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health inequaliti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4(11), 964-968.
- Bao Y., Sun Y., Meng S., Shi J., Lu L. (2020). 2019-nCoV epidemic: address mental health care to empower society. *Lancet*. 22(395):e37-e38.
- Berkman, L. F., Glass, T.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L. F. Berkman, I. Kawachi (Eds.), *Social epidemiology*, 137-1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Weger M, Morley JE.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plications for Gerontological Social Work. *J Nutr Health Aging*. 24(5), 456-458.
- Brailovskaia, J. Elke Rohmann, Hans-Werner Bierhoff, Holger Schillack, Jürgen Margraf.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social support and Facebook Addiction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76, 167-174.
- Choi. H., Kim. S. Y., Kim J. W., Park Y., Kim M. H. (2021). Mainstreaming of health equity in infectious disease control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J Prev Med Public Health*, 54, 1-7.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3-22. Academic Press.
- Gupta R, Dhamija RK. (2020). Covid-19: social distancing or social isolation? *BMJ*. 2020 Jun 18; 369:m2399.
- Jay, R.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atter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3), 310-325.
- Jemmott, J. B. & Locke, S. E. (1984). Psychosocial factors, immunologic mediation, and human suscepti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How much do we know? *Psychological Bulletin*, 95(1), 78-108.
- Jun BH·Lee HG. (2000). An investigation of the intake of the health food among the salarymen in Seoul. *Kor J Soc Food Sci* 16(1), 9-16.
- Kang MH. (1994).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people. *Korean J of Nutr*, 24(6), 616~636.
- Langan JC, Lavin R, Wolgast KA, et al. (2017). Education for developing and sustaining a health care workforce for disaster readines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41(2), 118-127.

- Liu C, Huang N, Fu M, Zhang H, Feng XL, Guo J. (2021).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General Chinese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isk Manag Healthc Policy*, 14, 1843-1853
- Park, C. L., Russell, B. S., Fendrich, M., Finkelstein-Fox, L., Hutchison, M. & Becker, J. (2020). Americans' COVID-19 stress, coping, and adherence to CDC guidelin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35, 2296-2303.
- Patrick, S., Henkhaus, L., Zickafoose, J., Lovell, K., Halvoson, A., Loch, S., Latterie, M., & Davis, M. (2020). Well-being of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 S. Cohen &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Stroller, E. P. & Pugliesi, K. L. (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231-S238.
- S. Y. Lee, J. W. Jung, D. K. Hwang, C. K. Son, S. M. Yoon, S. M. Chae, M. R. Cha & H. J. Kim. (2015). The Cau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Uncertainty in Korean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5-22.
- Szkody E, Stearns M, Stanhope L, McKinney C. (2021).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during COVID-19. *Fam Process*, 60(3), 1002-1015. doi: 10.1111/famp.12618. Epub 2020 Nov 21. PMID: 33220082; PMCID: PMC7753728.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 Tindle, R., Hemi, A. & Moustafa, A.A.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flexibility and coping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related stress exposure and psychological distress. *Sci Rep* 12, 8688
- Turner S. B. (2015). Resilience of nurses in the face of disaster.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9(6), 601-604. <https://doi.org/10.1017/dmp.2015.70>

- Xiao H, Zhang Y, Kong D, et al.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leep quality of medical staff treating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in China. *Medical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earch*. 26, e923549-1. <https://doi.org/10.12659/MSM.923549>
- Y. R. Oh.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Parents of Childhood Cancer Patients in Seoul and Gyeongin Area. A master's thesis at Inh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Zhang, M., Zhao, X., Liu, Y. & Yang, J. (2021). Perceived stress and possible stressors in the general public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thics, Medicine and Public Health*, 18, e100695. <https://doi.org/10.1016/j.jemep.2021.100695>



[부록 1]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설계

I. 표본설계

1. 모집단 정의 및 분석

1.1 모집단의 정의

□ 목표 모집단

- 2022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체 국민

□ 조사 모집단

- 2022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집단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 및 비민간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 표본 추출 틀

- 2020년 기준 2021년도 통계청의 SGI 집계구를 표본 추출틀로 이용함

1.2 모집단 분석

□ 2021년 기준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2021년 기준 전체 집계구는 101,804개이며, 동부는 81.1%, 읍면부는 18.9%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2%, 경기도가 25.4%를 차지하고 있음 (〈부표 1-1〉 참조)

□ <부표 1-2>로부터 가구 규모를 파악해보면, 전체 가구는 20,927천 가구이며, 이 중 동부의 가구는 전체는 80.7%를 차지하며, 읍면부는 19.3%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전체 가구의 19%, 경기도가 24.4%를 차지하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가구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전체인구는 49,579천 명이며, 이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2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8.4%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49%로 전체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부표 1-3> 참조)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9,326	9,196	.	.	18,522
부산	2,496	3,810	94	244	6,644
대구	1,701	2,651	121	389	4,862
인천	2,127	3,391	162	11	5,691
광주	846	2,127	.	.	2,973
대전	1,128	1,841	.	.	2,969
울산	576	1,247	179	257	2,259
세종	9	498	120	77	704
경기	6,901	14,646	2,340	1,899	25,786
강원	661	1,203	889	357	3,110
충북	663	1,215	839	523	3,240
충남	631	1,397	1,490	794	4,312
전북	856	1,746	873	179	3,654
전남	504	1,061	1,622	507	3,694
경북	1,078	1,726	1,725	761	5,290
경남	1,441	2,850	1,396	1,034	6,721
제주	643	341	374	15	1,373
계	31,587	50,946	12,224	7,047	101,804

주: 가구가 있는 집계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단위: 천 가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285	1,697	-	-	3,982
부산	592	746	20	47	1,405
대구	388	498	25	74	986
인천	493	618	35	2	1,147
광주	192	407	-	-	599
대전	275	356	-	-	631
울산	129	229	38	49	444
세종	3	90	32	14	139
경기	1,619	2,617	512	351	5,098
강원	156	239	198	69	661
충북	152	236	190	100	679
충남	152	258	328	154	892
전북	191	337	192	35	756
전남	112	208	348	93	762
경북	252	331	402	148	1,132
경남	322	528	311	189	1,350
제주	127	61	72	3	263
계	7,439	9,458	2,703	1,327	20,927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천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573	4,555	-	-	9,128
부산	1,182	1,911	42	124	3,259
대구	794	1,303	55	195	2,347
인천	1,040	1,692	77	5	2,814
광주	381	1,049	-	-	1,430
대전	527	923	-	-	1,450
울산	264	617	80	133	1,095
세종	5	245	59	35	343
경기	3,395	7,295	1,155	947	12,792
강원	298	592	418	168	1,475
충북	302	607	393	255	1,557
충남	289	686	692	390	2,056
전북	385	858	408	86	1,737
전남	233	524	726	241	1,724
경북	500	849	816	370	2,535
경남	660	1,392	646	502	3,200
제주	302	158	169	7	636
계	15,130	25,256	5,736	3,458	49,579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천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144	2,274	2,111	2,316	-	-	-	-
부산	559	579	895	969	20	20	58	62
대구	379	385	610	656	28	25	95	96
인천	512	494	801	844	37	36	2	3
광주	187	178	494	527	-	-	-	-
대전	261	246	437	460	-	-	-	-
울산	134	121	305	298	41	36	65	64
세종	2	2	115	122	31	25	18	17
경기	1,682	1,596	3,446	3,640	588	526	460	464
강원	146	138	279	297	205	194	81	81
충북	149	141	288	303	195	179	126	122
충남	146	131	326	337	339	317	192	188
전북	188	180	407	432	194	194	43	43
전남	116	107	254	257	341	347	117	118
경북	246	234	410	420	389	385	184	182
경남	329	306	670	686	306	307	242	246
제주	147	147	75	79	82	81	3	3
계	7,327	7,259	11,923	12,643	2,796	2,672	1,686	1,689

□ 지역별 성별 분포를 파악해보면 〈부표 1-4〉와 같이 전국 남성의 비율은 49.5%, 여성은 50.5%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남녀 성별 규모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이며, 나머지 지역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 동부지역에서 남녀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음

□ 한편 읍면부에서는 동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부산, 전남, 경남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으로 고령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으로서 과거보다 읍면지역의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 연령분포는 <부표 1-5>와 같이 전체 연령대를 시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은 40대와 50대 연령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은 50대 연령이 부산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였고, 대구는 50대 연령이 17.9%였으며, 상대적으로 20대 미만 연령이 16.9%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인천은 20대 미만 연령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60대가 12.7%로 낮게 나타남. 광주는 20대 미만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전 또한 20대 미만이 18.2%로 높게 나타났음. 울산지역도 20대 미만이 18.6%로 50대 다음으로 높았으며, 50대는 18.9%로 가장 높아 다른 지역과는 연령대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남. 세종은 20대 미만이 25.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60대의 비율은 8.6%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20대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은 50대가 17.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20대 미만이 17.3%로 가장 높았고, 충남 역시 20대 미만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북은 20대 미만이 17.0%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50대가 17.2%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20대가 9.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 경북은 50대가 17.6%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은 20대 미만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20대 미만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천 명)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0대 미만	484	851	-	-	1,335
	20대	837	524	-	-	1,361
	30대	749	651	-	-	1,400
	40대	646	784	-	-	1,430
	50대	711	727	-	-	1,438
	60대	607	575	-	-	1,182
	70대 이상	496	402	-	-	898
부산	20대 미만	102	349	5	31	487
	20대	178	210	5	10	403
	30대	129	249	5	19	402
	40대	143	313	5	25	486
	50대	199	326	7	16	548
	60대	216	275	7	13	511
	70대 이상	202	173	7	9	391
대구	20대 미만	82	259	6	46	393
	20대	124	148	7	20	299
	30대	88	157	6	35	286
	40대	103	227	6	36	372
	50대	145	232	10	29	416
	60대	130	159	10	19	318
	70대 이상	113	110	10	9	242
인천	20대 미만	131	346	8	1	486
	20대	154	201	5	0	360
	30대	145	238	6	1	390
	40대	156	298	8	1	463
	50대	184	296	14	1	495
	60대	145	192	16	1	354
	70대 이상	115	106	18	0	239
광주	20대 미만	42	229	-	-	271
	20대	69	129	-	-	198
	30대	46	137	-	-	183
	40대	50	188	-	-	238
	50대	63	171	-	-	234
	60대	54	110	-	-	164
	70대 이상	53	76	-	-	129
대전	20대 미만	65	196	-	-	261
	20대	107	111	-	-	218
	30대	66	123	-	-	189
	40대	67	163	-	-	230
	50대	83	153	-	-	236
	60대	71	103	-	-	174
	70대 이상	61	65	-	-	126
울산	20대 미만	30	134	8	30	202
	20대	35	70	9	15	129
	30대	32	92	8	17	149
	40대	38	109	10	26	183
	50대	51	114	16	25	206
	60대	46	67	15	13	141
	70대 이상	31	25	13	6	75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단위: 천 명)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세종	20대 미만	1	74	5	7	87
	20대	1	20	13	4	38
	30대	1	48	5	4	58
	40대	1	53	6	6	66
	50대	0	28	9	6	43
	60대	0	15	10	4	29
	70대 이상	0	5	10	3	18
경기	20대 미만	421	1604	136	224	2,385
	20대	540	847	130	102	1,619
	30대	501	1067	123	135	1,826
	40대	513	1348	151	182	2,194
	50대	600	1185	215	145	2,145
	60대	444	725	203	91	1,463
	70대 이상	344	451	186	61	1042
강원	20대 미만	31	124	40	40	235
	20대	47	63	37	18	165
	30대	28	75	29	27	159
	40대	36	105	44	30	215
	50대	51	102	80	24	257
	60대	51	71	92	17	231
	70대 이상	51	47	92	11	201
충북	20대 미만	36	132	34	64	266
	20대	53	75	39	28	195
	30대	34	81	30	44	189
	40대	39	107	40	47	233
	50대	51	105	74	35	265
	60대	46	64	83	21	214
	70대 이상	41	37	89	12	179
충남	20대 미만	36	171	62	100	369
	20대	52	81	62	38	233
	30대	42	108	48	62	260
	40대	38	129	71	77	315
	50대	45	105	120	58	328
	60대	38	55	142	32	267
	70대 이상	35	30	177	20	262
전북	20대 미만	47	187	37	22	293
	20대	62	99	29	8	198
	30대	40	106	25	12	183
	40대	49	152	40	16	257
	50대	61	144	71	13	289
	60대	57	96	84	9	246
	70대 이상	65	66	119	7	257
전남	20대 미만	27	119	72	65	283
	20대	30	58	53	24	165
	30대	22	70	47	36	175
	40대	30	94	73	47	244
	50대	41	92	125	36	294
	60대	39	56	141	19	255
	70대 이상	41	30	207	12	290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단위: 천 명)

구 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북	20대 미만	60	189	64	86	399
	20대	74	87	62	37	260
	30대	54	116	53	58	281
	40대	65	154	80	69	368
	50대	84	150	147	62	443
	60대	82	95	178	36	391
	70대 이상	75	50	223	20	368
경남	20대 미만	75	312	56	126	569
	20대	90	149	47	46	332
	30대	75	190	45	80	390
	40대	93	261	67	97	518
	50대	122	244	120	77	563
	60대	110	148	138	48	444
	70대 이상	87	74	167	24	352
제주	20대 미만	58	39	27	2	126
	20대	38	17	15	1	71
	30대	40	21	18	1	80
	40대	50	29	27	1	107
	50대	49	26	30	1	106
	60대	35	16	24	1	76
	70대 이상	30	9	26	1	66
계		14,979	25,025	5,674	3,433	49,111

주: 인구수 합계의 차이는 집계구 내 가구가 없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를 제외하여 총가구에 대한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음

II. 표본설계

1. 2022년도 사회통합조사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 모집단으로 2021년 기준 2020년 통계청의 SGI 데이터인 집계구를 활용하여 표본설계를 고려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조사 설계와 같이 층화변수를 사용하고, 각 층마다 산출되는 통계 값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배분 방법 및 조정이 가능한 층화추출방법을 적용함

□ 면접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안을 제시함

2. 표본 규모의 결정

□ 층화표본추출의 경우 비례배분과 네이만배분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bullet \text{ 비례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 \bullet \text{ 네이만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2 D + \sum_{h=1}^L N_h S_h^2} \end{aligned}$$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임

○ 모집단 분석에서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P_h)을 변동으로 고려하여 $S_h^2 = P_h Q_h$ 로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

〈부표 1-6〉 표본 규모 산정

(단위: %, 가구, 명)

B	비례배분		네이만배분	
	가구 기준	개인 기준	가구 기준	개인 기준
0.8	11,334	11,435	11,295	11,405
0.9	8,956	9,036	8,926	9,012
1.0	7,254	7,319	7,230	7,300
1.1	5,995	6,049	5,976	6,033
1.2	5,038	5,083	5,022	5,070
1.3	4,292	4,331	4,279	4,320
1.35	3,980	4,016	3,968	4,006
1.36	3,922	3,957	3,910	3,947
1.4	3,701	3,734	3,690	3,725

- 표본규모는 조사대상 연령에 대해 통계값의 추정오차를 1.35%로 관리할 경우 가구 기준으로 비례배분인 경우 약 3,980가구가 필요하며, 개인 기준으로는 4,016명의 표본이 필요함. 만일 추정오차를 1.3%로 관리할 경우 비례배분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4,329가구, 개인 기준으로 4,331명의 표본이 필요함(〈부표 1-6〉 참조)
- 또한 네이만배분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목표오차 1.35%인 경우 3,968가구의 표본이 필요하며, 개인 기준에서는 목표오차 1.35%인 경우 4,006명의 표본이 필요함
- 따라서 목표오차 1.34% ~ 1.35% 이내로 관리할 경우 개인 기준 또는 가구 기준으로 약 4,000가구(명)의 표본이 필요함

3. 표본배분 방법

- 층별 표본배분 방법으로는 모집단의 층별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과 모집단의 층별 변동을 고려한 표본배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 제곱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 네이만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 S_h}{\sum_{k=1}^H N_k S_k}$$

- 방안1: 지역별 가구 수에 대한 비례배분

-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표본 가구 수 4,000가구를 집계구당 8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필요한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의 43%가 배분되어 가구 규모가 큰 지역에 과다 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남(〈표 1-7〉 참조)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비례배분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54	40	0	0	94
부산	14	18	0	1	33
대구	9	12	1	2	24
인천	12	14	1	0	27
광주	5	10	0	0	15
대전	7	9	0	0	16
울산	3	5	1	1	10
세종	0	2	1	0	3
경기	38	61	12	8	119
강원	4	6	5	2	17
충북	4	6	5	2	17
충남	4	6	8	4	22
전북	5	8	5	1	19
전남	3	5	8	2	18
경북	6	8	10	4	28
경남	8	12	7	5	32
제주	3	1	2	0	6
계	179	223	66	32	500

□ 방안2: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배분

- 층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집계구당 8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필요한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방안1)에서 특정 지역에 과대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제곱근 비례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5	22	0	0	47
부산	13	14	2	4	33
대구	10	12	3	4	29
인천	12	13	3	1	29
광주	7	11	0	0	18
대전	9	10	0	0	19
울산	6	8	3	4	21
세종	1	5	3	2	11
경기	22	27	12	10	71
강원	7	8	7	4	26
충북	6	8	7	5	26
충남	6	8	9	6	29
전북	7	10	7	3	27
전남	6	8	10	5	29
경북	8	9	10	6	33
경남	9	12	9	7	37
제주	6	4	4	1	15
계	160	189	89	62	500

□ 방안3: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 변동에 따른 네이만배분

-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층의 규모와 조사대상 연령대의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함으로써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음
- 배분 결과를 보면 〈부표 1-9〉에서와 같이 비례배분보다 더 많은 표본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분되어 규모가 큰 층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최종적으로 표본배분은 층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방안2의 배분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부표 1-9〉 표본 집계구 배분: 네이만배분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9	40			89
부산	13	18	0	1	32
대구	9	12	1	2	24
인천	11	15	1	0	27
광주	4	10			14
대전	6	9			15
울산	3	6	1	1	11
세종	0	2	1	0	3
경기	36	64	12	9	121
강원	4	6	5	2	17
충북	4	6	5	3	18
충남	4	7	8	4	23
전북	5	8	5	1	19
전남	3	5	9	2	19
경북	6	8	10	4	28
경남	7	13	8	5	33
제주	3	2	2	0	7
계	167	231	68	34	500

4. 표본 집계구 대체

□ 조사과정에서 응답 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대체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함

5. 가구 내 응답자의 선정방법

□ 본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70)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생일법(last birthday)”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2022년 6월 현재 만 19~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들 2명 중 조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최근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III. 추정방법

1.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배분인 경우 자체 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 가중치

□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1)$$

□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3)$$

□ 최종 가중치

$$W_{hij} = w_{hij}^p = w_{hij}^r \times \frac{X_h}{\hat{X}_h} \quad (4)$$

여기서 X_h 는 h 층의 추계 가구 또는 인구수, $\hat{X}_h$ 는 가중치의 합을 의미함

2.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bar{Y}} = \frac{\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W_{...}} \quad (5)$$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

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hat{Y}$ 의 분산 추정치

$$\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h..}$,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Y}) = \sqrt{\hat{V}(\hat{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부록 2]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	--	--	--	--

응답자
ID

--	--	--	--	--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관기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문의처

한국리서치 김지혜 팀장
02-3014-0122

집계구 번호 (4자리)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 응답자 선정 후 체크해주세요.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선문1)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선문2-1)	만 _____세	
주소 (세부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조사 종료 후 면접원이 체크해주세요.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2 값)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방문 기록 적어주세요.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조사진행
1차 방문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4차 방문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면접원 성명						분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응답자 선정 문항

-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월일 기준).
- ★ 만19세 이상(2003년 5월 31일 이전 출생)에서 만75세 이하(1946년 6월 1일 이후 출생)가 응답합니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선문2. 귀하는 몇 년 생입니까? (※ 주민등록상 생년)

_____년 _____월 출생 (※ 1946년 6월생 ~ 2003년 5월생 응답가능)

선문2-1. 만 나이 (※ 면접원 입력)

※ 1~5월생 : 2022년 - 출생년도 / 6~12월생 : 2022년 - 출생년도 -1

만 _____세 (※ 만19세 ~ 만75세 응답가능)



I.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 '빠른 생일자'에서 응답)

- ★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문1.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 수	
문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문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7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문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 기준		명
문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자는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단,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함		명
문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4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문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22.5.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문2.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의 _____)

- ① 가구주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문3.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3-1.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3-2. 혼인상태	① 유배우(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문4.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④ 특수고용(택배기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⑤ 고용주
- ⑥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2022.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4-1 응답 후 문6으로
- ⑨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4-1 응답 후 문6으로

문4-1. 코로나19 이전(2020. 2. 1.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④ 특수고용(택배기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⑤ 고용주
- ⑥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2020. 2. 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⑨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문4-2. (문4에서 ①~⑦ 응답자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업어업 수렵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문4-3. (문4에서 '① 상용직' 응답자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문5. (문4에서 ①~⑦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일자리의 지위는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경제적보상 (임금 또는 수입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성 (국가공인자격증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숙련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위상·위세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시 일자리 안정성 (임금이나 수입 급감, 실직 등의 위험도)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는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2) 건강보험(피부양자 포함)	①	②		④
(3) 고용보험	①	②		④
(4) 산재보험	①	②		④



II.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 다음 문7~23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7.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9.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0.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중간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 한 번 이상	한달에 한 두 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 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16.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문18.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19. 지난 10년 동안 귀택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Ⅲ.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문24. 지난 3개월(2022.3.1.~ 5.31.) 동안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전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임금 + 사업소득(자영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	----

※ 면접원 확인 : 한 달 기준 근로소득입니다. 연봉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십시오.

문25.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귀하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험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9로
- ③ 해당 없음 (※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없었음) → 문29로

문26. (감소하였다면) 대략 몇 %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최대 감소 시점 기준)

- ① 10~30%
- ② 40~60%
- ③ 70~90%
- ④ 100%

문27. (감소하였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 소득 감소 기간의 총 개월 수)

- ① 1~2개월
- ② 3~6개월
- ③ 7~12개월
- ④ 13~24개월
- ⑤ 25개월 이상(2년 이상)

문28. (감소하였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하의 소득 감소 이유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소분이 큰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① 폐업 또는 실직
- ② 휴업 또는 휴직
- ③ 사업 매출 감소
- ④ 임금 삭감
- ⑤ 근로시간 감소
- ⑥ 기타()

문31. 귀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중, 전국민(또는 전도민,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특정 대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2020년 5월 전체 가구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 2021년 9월 전국민 88%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카드·상품권),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
※ 코로나19로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게 지급된 지원금, 서비스 바우처(긴급돌봄, 농가지원 바우처 등) 등의 지원 경험 (긴급 대출은 제외)

- ① 예 → 문31-1로
② 아니오 → 문31-3로

문31-1. 귀책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여러 지원을 받은 경우, 금액이 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소상공인 관련 지원 (일반업종,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 노점상 대상 지원)
② 고용취약계층 지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③ 미취업 청년(18~34세) 관련 지원(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등)
④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소득감소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⑤ 아동돌봄 관련 지원(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비 포함)
⑥ 농어가 관련 지원(농가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매출감소 농가 및 농업경영체 등)
⑦ 기타 ()

문31-2. (문31에서 ① 응답자만) 문31-1에서 응답하신 정부지원금에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문32로

문31-3. (문31에서 ② 응답자만) 귀책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약간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피해 여부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IV. 코로나19 이후 정신적·신체적 건강 수준

문33.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문33-1.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훨씬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변화 없다	약간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34. 다음은 귀하의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4-1.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34-2.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34-3.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1) 일상에 지장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문35.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건강생활 실천 정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외식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제외함. 매식은 배달음식, 포장음식 등을 말합니다.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1) 흡연량 혹은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⑨
2) 음주량 혹은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⑨
3) 신체활동	①	②	③	④	⑤	⑨
4) 체중	①	②	③	④	⑤	⑨
5) 외식, 매식	①	②	③	④	⑤	⑨
6) 수면시간	①	②	③	④	⑤	⑨

문36. 귀하는 코로나19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타격을 입은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① 여성 | ② 남성 |
| ③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 ④ 아동·청소년 |
| ⑤ 청년 | ⑥ 노인 |
| ⑦ 장애인 | ⑧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
| ⑨ 농·어업민 | ⑩ 소상공인, 자영업자 |
| ⑪ 취약근로자(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⑫ 주거취약계층(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
| 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 ⑭ 1인 가구 |
| ⑮ 집단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입소자 | ⑯ 가난한 사람(저소득층) |
| ⑰ 기저질환자(만성질환자 등) | ⑱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

문37. 귀하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37-1로

② 아니오 → 문38로

문37-1. 귀하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경험한 피해는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
 ②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증가
 ③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
 ④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학업 공백
 ⑤ 자녀 또는 부모님 돌봄의 어려움
 ⑥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
 ⑦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⑧ 기타 ()

문37-2. 귀하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경험한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였습니까?

매우 심각했다	심각한 편 이었다	심각하지 않은 편 이었다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38. 귀하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때의 피해상황은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③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④ 가능성이 매우 낮다
38-1					
38-2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지금과 비교한 피해 상황	①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②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③ 지금보다 덜 심각할 것이다	④ 지금보다 훨씬 덜 심각할 것이다

문43.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대 약화, 고독 및 고립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
- ②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③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
- ④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 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 ⑥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

문44.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
- ② 아동, 청소년
- ③ 노인
- ④ 장애인
- ⑤ 기타 취약계층

※ 문45~문46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2월 ~ 2022년 3월 기준) 초등학교 이하(만12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분이 응답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구 내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없었던 분은 문45에 '⑨ 비 해당'에 체크하고 이동

문45.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하였을 때, 지원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급도우미 포함)

- ① 있다 → 문45-1로
- ② 없다 → 문46으로
- ③ 비 해당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없었음) → 문47로

문45-1. 있다면 몇 명입니까?

		명
--	--	---

문45-2.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래 해당되는 분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체크
① 배우자	
② 자녀의 (외)조부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①~③을 제외한) 친인척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 친구 등	
⑥ 이웃(마을공동체)	
⑦ 유급도우미(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⑧ 기타 (적어주세요:)	

문4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귀하는 자녀 돌봄 때문에 다음 항목과 같은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일터에서'의 응답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2022.3) 내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⑨비해당으로 체
 ※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한 경우는 모두 응답해야 함

		있다	없다	비해당
일터 에서	1)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압박이 더욱 늘어났다	①	②	⑨
	2)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	①	②	⑨
	3) 자녀 돌봄을 위해 이른 시간에 퇴근함에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동료, 윗·아래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⑨ 비해당 입력)	①	②	⑨
가족 내에서	4)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①	②	
	5)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졌다	①	②	
	6) 자녀 돌봄으로 신체적 건강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①	②	



VI.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방향

문47.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적절 하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진단, 치료, 백신접종, 병상 및 의료인력 배치 등)	①	②	③	④	⑤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백신 접종 등 안전안내문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보)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의 사회적 방역 조치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문48.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대한 문항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전달된 감염자 통계, 진단검사·백신접종·예방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포함함)

문48-1.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알고 싶었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매우 부족했다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다	대체로 충분한 편이었다	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문48-2. 귀하가 접했던 코로나19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쉬웠습니까?

매우 어려웠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①	②	③	④

문49.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인 일상회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스스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회복 못함 ← 보통 → 완전히 회복함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0.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본인 삶의 변화	1) 가구 경제 상황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사회의 변화	5)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①	②	③	④	⑤
	6) 불평등,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7)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문51. 귀하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3개 선택)

--	--	--

- 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
- ②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
- ③ 코로나19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 ④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회복 지원
- 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코로나 후유증 보상 등 건강피해 지원
- ⑥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손실 지원
- ⑦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 ⑧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지원
- ⑨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지원금

문52. 귀하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에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1) 빈곤층 생활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2) 은퇴한 노인의 노후소득 지원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3) 국민연금(또는 직역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가난한 노인의 생활비 지원 (기초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4) 전체 아동의 양육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①	②	③	④	⑤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지원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6) 청년의 생활비, 구직·교육·훈련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①	②	③	④	⑤
8)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①	②	③	④	⑤
9)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 (실업급여 등)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이 있는 취업자의 육아휴직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	①	②	③	④	⑤

문53. 귀하는 정부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서비스)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재 수준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1)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 시설과 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부모 직접 돌봄 휴가·휴직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및 공감대 조성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돌봄 유급 휴가 보장 및 휴가일 수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54. 귀하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1)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①	②	③	④	⑤
4)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우울,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55.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목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6. 귀하는 다음 각 소득계층 및 자산계층별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소득층	1) 고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2) 중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3)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자산층	4) 고자산층	①	②	③	④	⑤
	5) 중자산층	①	②	③	④	⑤
	6) 저자산층	①	②	③	④	⑤

문57. 귀하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지예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Ⅶ. 가구의 경제상태

- ★ 응답자가 가구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해 주세요.
- ★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58. 귀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58-1. 금융재산	2022.5.31. 기준 귀댁의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만원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58-2.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22.5.31. 기준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입니까?							만원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및 그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58-3. 부채 총액	2022.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컷돈(미리 탄 컷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일련 월세, 채납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문59. 지난 3개월(2022.3.1.~2022.5.31.)동안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전 소득 기준)

※ 총 가구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총 가구소득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	----

- ※ 면접원 확인 : ① 한 달 기준 가구소득입니다. 연봉을 기입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십시오.
 ② 가구소득이 0만원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십시오.

문60. 귀 가구 주소득자의 소득이 단절될 경우, 귀하는 공적, 사적 지원 없이 얼마나 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저축한 돈, 기타 재산 등을 감안해 응답해 주세요)

- ①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
- ② 2, 3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③ 4~6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④ 6~12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⑤ 1,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⑥ 주소득자 소득과 무관하게 가계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

문61. 귀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 ④ 기타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62. 귀하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무상, 사택 등)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 입니다.
- 본인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연구 목적] 코로나19의 영향(경제, 건강, 사회적 자본 등)과 정책 선호,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사회통합 인식 등의 변화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③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지원 정책 선호 파악

[조사 대상] 전국 만19세 이상~만7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 4000가구

[조사 기간, 방법] 2022년 6월 ~ 8월, 대면면접조사

[조사답례품] 5,000원 상품권

[문의처] 조사: 한국리서치 02-3014-0122, 연구 참여권익 및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317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건강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부록 3]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분석

〈부표 3-1〉 행복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 하지 않았다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행복 했다	X ² (df)
전체		0.5	0.7	1.2	3.0	2.9	25.0	11.8	19.4	19.4	9.0	7.1	
성별	남성	1.0	0.6	1.2	3.6	3.5	26.3	12.5	17.6	17.8	8.0	7.8	51.243(10)***
	여성	0.1	0.8	1.1	2.4	2.3	23.6	11.1	21.2	21.1	10.1	6.3	
연령	20대 이하	0.2	0.0	0.9	2.4	2.1	18.2	15.0	24.4	18.3	9.0	9.5	169.67 1(40)***
	30대	0.1	0.5	1.3	1.2	1.4	20.8	14.0	18.3	24.3	8.9	9.2	
	40대	1.1	0.2	1.3	2.4	2.6	27.1	11.3	20.2	19.5	8.0	6.3	
	50대	0.0	0.8	0.8	3.3	3.2	27.8	10.9	18.6	19.7	8.6	6.2	
	60대 이상	1.1	1.5	1.5	4.9	4.5	28.7	9.2	16.4	16.5	10.3	5.3	
지역1	수도권	0.4	0.4	0.9	2.6	2.8	22.9	12.9	22.5	18.9	9.6	6.0	49.513 (10)***
	비수도권	0.6	0.9	1.4	3.3	3.0	27.2	10.6	16.1	20.0	8.5	8.3	
지역2	대도시	0.4	0.6	0.7	2.9	2.5	22.6	15.1	20.4	19.5	9.1	6.4	70.912(20)***
	중소도시	0.6	0.8	1.3	3.0	3.4	25.9	9.7	19.2	19.9	8.9	7.2	
	농어촌	0.8	0.2	3.1	3.4	2.3	32.2	7.6	15.0	15.9	9.4	1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	2.6	2.7	7.1	8.7	33.4	7.0	14.2	14.6	4.9	3.4	355.31 7(30)***
	중하층	0.6	0.6	1.5	3.2	2.9	27.8	12.1	19.6	17.8	8.1	5.9	
	중간층	0.2	0.1	0.6	1.7	1.3	21.2	13.9	20.8	21.4	10.8	8.1	
	중상층(상층)	0.1	1.5	0.0	2.5	1.8	14.9	2.2	19.2	27.8	11.7	18.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8	1.1	1.9	3.6	3.7	27.3	10.7	17.9	16.8	9.8	6.4	124.34 9(40)***
	200만 원대	0.1	0.6	0.8	2.7	2.9	26.2	13.0	19.8	20.1	7.5	6.2	
	300만 원대	0.8	0.3	0.6	2.4	2.2	22.4	13.4	19.6	24.3	7.7	6.4	
	400만 원대	0.0	0.0	0.1	2.3	3.0	25.9	11.8	23.0	20.0	7.7	6.2	
	500만 원 이상	0.4	0.1	0.9	2.3	0.9	16.8	11.1	21.4	20.2	12.3	13.8	
학력	중졸 이하	1.5	1.7	2.0	6.7	4.6	31.6	9.8	13.1	14.9	7.9	6.3	126.99 1(20)***
	고졸	0.3	0.9	1.3	3.1	3.5	27.6	11.0	18.6	19.2	8.4	6.2	
	대졸 이상	0.5	0.2	0.8	2.0	1.9	20.8	13.1	21.8	20.8	9.9	8.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0.1	0.7	1.8	2.0	20.8	13.5	21.6	22.8	8.5	7.9	218.65 8(50)***
	임시·일용직	0.0	0.6	2.0	4.5	3.6	30.8	13.6	16.8	16.0	8.5	3.7	
	고용주, 자영자	0.8	1.0	1.1	4.9	3.1	28.5	11.0	17.1	18.4	7.0	7.2	
	무급가족종사자	0.7	0.0	3.4	0.0	5.0	34.2	9.7	8.3	15.6	13.3	9.7	
	실업자	2.3	0.8	4.4	6.7	7.6	35.3	10.6	10.1	9.3	5.6	7.2	
	비경제활동인구	0.5	1.2	0.8	2.2	3.0	23.7	9.5	21.2	18.7	11.9	7.1	
직업	관리자, 전문가	0.7	0.9	0.1	2.4	2.0	23.1	12.9	16.4	23.0	7.7	10.8	103.07 3(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	0.3	0.9	2.6	2.0	22.8	13.4	21.2	21.1	8.6	6.9	
	숙련 및 기술직	1.0	0.3	1.2	3.6	3.4	30.1	11.9	16.7	17.8	7.6	6.5	
	단순노무 종사자	0.0	1.5	3.9	6.1	7.7	32.1	8.5	13.8	15.5	6.9	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0.1	0.7	1.8	1.8	20.0	13.6	20.9	23.5	8.9	8.3	75.530 (10)***
	비정규직	0.0	0.9	1.8	4.8	4.1	31.3	12.3	19.1	14.0	7.2	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0.9	1.3	3.8	2.5	26.2	9.6	18.0	20.9	9.5	6.5	47.678 (20)***
	중도적	0.4	0.5	1.1	2.9	2.7	25.0	10.9	19.9	19.7	9.4	7.6	
	진보적	0.5	0.7	1.2	2.3	4.0	23.4	16.8	20.0	16.9	7.6	6.6	

〈부표 3-2〉 우울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우울 하지 않았다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우울 했다	X ² (df)
전체		15.1	16.6	19.8	13.7	7.2	17.1	4.2	3.2	2.4	0.5	0.2	
성별	남성	16.4	18.4	18.1	12.5	6.7	18.2	4.0	3.4	1.8	0.3	0.3	35.836 (10)***
	여성	13.8	14.7	21.6	15.0	7.7	16.0	4.4	3.1	2.9	0.7	0.1	
연령	20대 이하	18.1	16.5	21.5	11.1	6.9	15.2	5.3	3.6	1.7	0.0	0.1	82.302 (40)***
	30대	18.9	15.7	18.7	13.6	7.2	18.7	3.3	1.7	2.1	0.1	0.1	
	40대	16.8	15.0	17.7	16.3	7.4	17.5	3.3	3.1	2.0	0.4	0.4	
	50대	12.3	15.3	22.2	13.3	6.7	17.4	4.8	4.5	2.6	0.8	0.1	
	60대 이상	11.3	19.7	19.0	13.9	7.7	16.7	4.2	3.1	3.1	1.0	0.3	
지역1	수도권	11.9	13.3	21.2	17.2	8.9	18.0	3.9	3.0	2.2	0.3	0.1	122.28 4(10)***
	비수도권	18.4	20.0	18.4	10.1	5.4	16.1	4.5	3.5	2.5	0.7	0.4	
지역2	대도시	15.2	18.0	19.8	14.2	7.6	14.9	4.4	3.5	1.9	0.3	0.2	35.414 (20)*
	중소도시	14.4	15.1	20.2	13.4	7.3	18.5	4.4	3.0	2.8	0.7	0.3	
	농어촌	18.9	18.1	17.7	13.3	4.4	20.1	1.5	3.3	2.2	0.3	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	11.4	19.6	11.1	7.6	22.5	5.1	5.7	5.7	1.3	0.4	180.77 7(30)***
	중하층	13.3	15.0	18.7	14.4	8.6	19.1	4.3	3.3	2.8	0.3	0.3	
	중간층	17.2	18.3	21.0	14.2	6.4	14.6	4.2	2.6	1.1	0.3	0.1	
	중상층(상층)	26.0	27.5	17.7	11.6	3.1	9.8	0.5	1.5	0.6	1.5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4	15.5	19.5	11.3	7.7	19.0	5.1	4.1	3.3	0.8	0.3	109.96 0(40)***
	200만 원대	15.6	16.2	18.3	16.0	7.8	16.4	3.8	3.3	2.1	0.4	0.1	
	300만 원대	15.6	17.4	23.2	13.8	6.3	15.7	4.6	1.4	1.5	0.1	0.3	
	400만 원대	12.9	17.5	17.9	20.7	6.6	16.2	1.7	3.8	2.1	0.7	0.0	
	500만 원 이상	21.9	19.8	20.2	13.4	5.7	13.7	2.4	1.8	0.6	0.1	0.4	
학력	중졸 이하	12.6	17.3	17.8	13.5	6.4	17.9	5.1	3.7	4.2	1.2	0.1	51.120 (20)***
	고졸	13.9	15.9	19.3	13.0	8.2	17.7	4.8	3.5	3.0	0.6	0.1	
	대졸 이상	16.9	17.0	20.8	14.4	6.4	16.2	3.4	2.9	1.2	0.3	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7.9	17.4	21.6	13.7	6.6	15.5	3.1	2.6	1.2	0.2	0.3	157.29 6(50)***
	임시·일용직	9.8	16.0	17.2	12.0	8.7	23.5	6.3	3.1	3.1	0.1	0.1	
	고용주, 자영자	15.2	16.9	17.0	17.8	6.4	17.3	3.4	2.7	2.7	0.6	0.0	
	무급가족종사자	12.2	19.8	25.2	12.8	5.3	17.4	1.0	4.9	0.0	1.3	0.0	
	실업자	8.5	12.0	16.9	8.8	5.6	24.8	6.8	9.3	6.5	0.7	0.0	
	비경제활동인구	14.6	16.0	20.5	12.5	8.5	15.0	5.1	3.5	2.8	1.0	0.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1	16.3	19.8	10.5	7.9	19.4	2.2	2.7	0.3	0.8	0.1	67.627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2	17.1	21.1	15.6	7.0	15.6	3.4	2.4	2.3	0.3	0.1	
	숙련 및 기술직	15.0	17.5	18.0	14.6	5.4	18.8	5.4	3.1	1.4	0.1	0.6	
	단순노무 종사자	14.6	17.6	10.6	11.5	7.9	26.2	4.6	4.7	2.1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5	16.9	21.8	14.0	6.7	14.9	2.9	2.6	1.3	0.2	0.3	49.417 (10)***
	비정규직	10.3	17.7	18.3	10.4	8.0	23.4	6.9	3.1	1.7	0.1	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8	18.7	19.9	12.5	7.6	16.7	3.6	2.7	3.3	0.8	0.5	38.628 (20)**
	중도적	16.1	16.3	20.0	14.3	7.1	16.9	4.0	3.1	2.0	0.2	0.1	
	진보적	14.6	14.5	19.2	14.1	7.0	18.1	5.3	4.3	1.8	0.7	0.2	

〈부표 3-3〉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만족 한다	X ² (df)
전체		0.3	0.4	1.1	4.6	5.1	27.3	13.4	20.8	16.7	6.7	3.7	
성별	남성	0.5	0.6	1.1	5.2	5.8	30.0	12.8	17.6	16.7	5.2	4.6	68.332 (10)***
	여성	0.1	0.3	1.2	4.0	4.4	24.5	14.0	24.0	16.6	8.3	2.7	
연령	20대 이하	0.1	0.3	0.3	3.7	5.3	21.8	16.7	23.1	16.6	6.1	6.0	131.33 2(40)***
	30대	0.2	0.2	0.8	1.9	2.5	26.2	12.0	23.0	21.0	9.3	3.1	
	40대	0.7	0.3	1.3	5.1	3.7	26.1	13.4	21.2	17.9	7.1	3.2	
	50대	0.2	0.4	2.0	5.4	5.6	28.7	13.5	20.3	14.4	6.7	2.7	
	60대 이상	0.4	0.7	1.1	6.0	7.4	31.7	11.8	17.5	14.6	5.1	3.6	
지역1	수도권	0.1	0.3	0.8	4.8	4.9	24.6	14.3	24.0	16.0	6.8	3.4	47.066 (10)***
	비수도권	0.6	0.5	1.5	4.4	5.3	30.0	12.4	17.4	17.4	6.7	3.9	
지역2	대도시	0.1	0.3	1.0	4.1	5.6	24.6	15.7	23.3	15.5	6.4	3.4	47.385 (20)**
	중소도시	0.5	0.5	1.3	4.8	4.8	29.0	11.7	19.0	17.7	6.9	3.8	
	농어촌	0.9	0.7	0.9	5.8	3.6	30.5	11.5	17.9	16.0	7.7	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	1.5	3.1	11.5	10.4	35.4	11.1	16.2	6.6	2.3	0.5	455.40 7(30)***
	중하층	0.2	0.6	1.4	5.0	5.4	30.4	14.2	20.0	15.6	4.9	2.3	
	중간층	0.2	0.0	0.4	2.3	3.7	23.6	14.1	22.6	20.0	8.7	4.4	
	중상층(상층)	0.0	0.0	0.3	3.4	0.5	14.6	6.5	21.9	21.3	15.2	16.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5	0.4	1.4	6.2	5.5	29.7	12.8	19.3	15.0	5.8	3.4	112.57 3(40)***
	200만 원대	0.0	0.3	1.2	3.5	6.9	27.2	13.7	22.4	15.2	6.5	3.0	
	300만 원대	0.7	0.6	0.3	2.5	3.9	27.3	14.4	21.0	17.9	8.6	2.8	
	400만 원대	0.0	0.2	1.7	4.7	3.9	23.0	16.9	19.3	20.9	5.1	4.2	
	500만 원 이상	0.3	0.5	1.0	3.7	2.1	20.7	10.8	23.7	21.2	8.9	7.1	
학력	중졸 이하	0.1	1.1	2.1	6.5	6.7	32.6	13.9	16.2	12.9	5.3	2.5	114.80 3(20)***
	고졸	0.4	0.4	1.3	5.3	5.9	31.1	13.0	17.9	15.2	6.0	3.4	
	대졸 이상	0.3	0.2	0.7	3.4	3.9	22.2	13.5	24.7	19.0	7.8	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0.3	0.7	2.7	3.5	22.9	13.9	24.9	19.7	7.3	4.0	251.24 5(50)***
	임시·일용직	0.1	1.0	1.2	5.3	9.5	32.6	17.3	16.4	10.8	4.1	1.8	
	고용주, 자영자	0.4	0.4	1.2	6.4	5.6	31.3	13.2	15.4	15.7	7.2	3.2	
	무급가족종사자	1.5	0.6	0.0	1.7	6.4	25.7	19.4	15.5	19.2	8.6	1.4	
	실업자	1.9	0.0	3.3	8.8	13.7	39.2	8.4	11.7	6.2	1.5	5.3	
	비경제활동인구	0.3	0.5	1.3	5.1	3.6	26.3	11.7	22.4	17.2	7.5	4.1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0.5	0.4	3.1	3.2	23.2	12.8	21.6	18.4	10.2	6.5	130.30 4(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0.2	1.0	3.5	4.7	25.2	15.5	22.2	17.7	7.2	2.8	
	숙련 및 기술직	1.0	0.6	0.8	5.7	5.0	31.9	12.9	18.8	14.9	4.5	4.0	
	단순노무 종사자	0.0	2.0	1.8	8.1	12.8	35.6	10.3	10.4	16.0	2.4	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0.3	0.8	2.6	3.4	22.1	13.7	25.0	20.5	7.3	4.1	90.440 (10)***
	비정규직	0.0	1.1	0.4	5.5	9.0	35.2	14.0	15.7	12.1	4.6	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	0.8	1.6	4.8	5.1	27.7	11.5	19.1	18.0	7.2	3.4	31.023 (20)
	중도적	0.1	0.3	0.9	4.1	5.1	27.5	14.0	21.3	16.1	6.8	3.9	
	진보적	0.5	0.2	1.1	5.6	5.0	26.1	14.4	21.6	16.2	5.9	3.5	

〈부표 3-4〉 사회신뢰도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1	2	3	4	중간	6	7	8	9	매우 믿을 수 있다	X ² (df)
전체		0.9	2.0	5.5	11.0	10.1	35.6	12.7	13.7	6.7	0.9	0.8	
성별	남성	1.2	2.1	6.1	11.3	9.7	34.4	12.1	14.2	6.5	1.2	1.2	20.469 (10)*
	여성	0.6	1.9	4.9	10.8	10.5	36.9	13.3	13.1	6.9	0.6	0.5	
연령	20대 이하	0.4	1.4	5.3	8.2	10.4	33.4	16.0	16.6	6.9	0.9	0.6	67.654 (40)**
	30대	1.2	1.9	3.9	11.1	10.1	35.1	12.8	13.0	7.9	1.9	1.1	
	40대	0.9	2.8	6.3	12.0	8.4	36.2	13.4	13.4	5.1	0.6	0.9	
	50대	1.3	1.9	6.7	11.3	9.7	35.3	12.4	13.2	7.5	0.4	0.3	
	60대 이상	0.8	1.9	5.2	12.1	11.5	37.3	9.9	12.6	6.4	0.9	1.3	
지역1	수도권	1.0	2.1	6.0	10.3	9.0	34.0	14.0	15.5	6.6	0.6	0.9	29.835 (10)**
	비수도권	0.9	2.0	5.0	11.8	11.2	37.3	11.3	11.8	6.8	1.2	0.8	
지역2	대도시	1.0	1.6	5.4	9.7	9.5	31.9	15.6	17.8	5.6	1.0	0.9	88.048 (20)***
	중소도시	0.9	2.2	5.5	12.1	10.5	38.6	10.9	10.5	7.2	0.7	0.8	
	농어촌	0.8	2.6	6.2	11.4	10.8	36.3	8.7	11.4	9.5	1.9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	3.4	8.7	11.1	11.9	40.4	9.8	8.4	4.6	0.6	0.0	150.88 5(30)****
	중하층	1.0	2.2	5.6	12.8	11.2	35.1	13.1	11.5	6.1	0.9	0.4	
	중간층	0.8	1.6	4.7	10.0	9.0	35.2	13.1	16.5	7.1	0.9	1.0	
	중상층(상층)	0.3	0.0	3.5	7.1	5.6	29.4	13.7	18.4	14.2	2.5	5.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1.6	5.7	10.9	12.1	37.2	12.1	11.7	6.7	0.6	0.9	96.575 (40)***
	200만 원대	0.8	3.4	5.0	12.8	8.2	37.0	10.7	15.1	6.0	0.8	0.2	
	300만 원대	1.5	1.7	5.1	10.0	9.5	30.7	17.7	15.7	6.7	0.5	1.0	
	400만 원대	1.7	1.3	5.6	9.7	7.7	34.0	12.6	16.7	7.4	2.3	1.0	
	500만 원 이상	1.1	1.8	6.9	10.6	8.5	35.3	11.4	13.1	7.8	1.9	1.7	
학력	중졸 이하	0.9	1.3	4.1	11.8	11.1	38.8	10.3	13.8	6.3	1.1	0.4	40.141 (20)**
	고졸	0.8	2.5	6.0	10.8	10.3	38.3	11.8	12.0	6.1	0.8	0.5	
	대졸 이상	1.0	1.7	5.4	11.1	9.6	32.2	14.2	15.2	7.4	0.9	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	2.4	5.3	9.5	8.9	33.9	13.2	15.6	7.8	1.3	0.8	124.80 6(50)****
	임시·일용직	1.3	2.3	7.3	13.2	8.9	36.3	12.1	12.0	5.8	0.5	0.4	
	고용주, 자영자	1.0	2.2	5.7	15.3	9.3	37.8	12.0	10.8	5.0	0.4	0.7	
	무급가족종사자	0.0	1.4	3.3	3.9	14.1	43.4	9.7	15.5	6.8	1.8	0.0	
	실업자	0.5	0.3	13.0	14.9	11.8	39.3	6.6	8.6	4.1	0.9	0.0	
	비경제활동인구	0.3	1.5	3.8	9.0	12.4	35.1	14.1	14.5	7.1	0.8	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	3.0	6.0	11.9	9.0	30.6	11.5	18.9	5.4	1.5	1.3	50.054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	2.0	5.6	10.5	8.6	35.5	14.1	13.9	7.1	1.0	0.5	
	숙련 및 기술직	1.4	2.9	5.5	13.1	9.6	37.1	9.9	11.2	7.5	0.7	1.1	
	단순노무 종사자	0.9	1.9	6.4	16.6	12.5	41.6	7.4	9.1	2.9	0.5	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	1.9	5.0	9.8	8.8	34.1	13.3	15.8	7.9	1.4	0.6	20.409 (10)*
	비정규직	1.0	4.2	7.4	11.4	8.6	35.5	11.9	11.9	6.9	0.2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	2.9	5.1	11.8	10.5	33.5	11.5	13.0	8.7	0.6	1.2	86.962 (20)***
	중도적	0.5	1.4	5.7	10.1	9.3	39.8	11.3	13.4	6.5	1.2	0.7	
	진보적	1.5	2.3	5.7	12.1	11.3	28.7	17.4	15.1	4.5	0.7	0.6	

〈부표 3-5〉 사회신뢰도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9.7	46.3	28.2	14.6	1.3	
성별	남성	11.0	42.9	29.9	14.9	1.4	21.509(4)***
	여성	8.4	49.8	26.4	14.3	1.1	
연령	20대 이하	6.6	43.8	29.4	17.7	2.5	54.616(16)***
	30대	8.4	46.4	27.1	15.9	2.2	
	40대	12.1	46.1	28.8	12.0	0.9	
	50대	10.0	47.4	26.0	15.9	0.7	
	60대 이상	10.7	47.2	29.3	12.3	0.4	
지역1	수도권	8.3	48.2	25.7	16.9	0.9	39.219(4)***
	비수도권	11.2	44.3	30.7	12.2	1.6	
지역2	대도시	6.9	45.7	28.8	17.0	1.6	61.016(8)***
	중소도시	10.6	47.3	27.7	13.3	1.0	
	농어촌	18.7	43.2	27.7	9.2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	51.4	25.7	8.9	0.3	97.577(12)***
	중하층	8.5	47.4	30.7	12.4	1.0	
	중간층	9.3	45.0	27.0	17.4	1.3	
	중상층(상층)	12.3	34.1	26.4	21.2	6.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7	47.6	28.0	13.5	1.3	55.097(16)***
	200만 원대	8.6	49.6	28.6	11.9	1.3	
	300만 원대	10.0	47.2	28.8	13.0	1.0	
	400만 원대	10.3	38.5	30.8	19.5	0.8	
	500만 원 이상	11.3	38.4	25.0	23.1	2.2	
학력	중졸 이하	11.0	49.1	28.3	11.3	0.3	15.263(8)
	고졸	9.5	45.1	28.9	15.5	0.9	
	대졸 이상	9.6	46.7	27.4	14.5	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2	42.6	30.7	15.8	1.6	45.348(20)**
	임시·일용직	7.2	50.0	26.4	15.5	0.9	
	고용주, 자영자	12.3	50.7	24.4	12.2	0.4	
	무급가족종사자	15.4	52.2	27.7	4.7	0.0	
	실업자	7.4	48.7	27.2	15.8	0.9	
	비경제활동인구	9.7	46.1	28.2	14.4	1.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5	34.2	29.6	20.8	2.9	50.57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3	48.1	28.2	14.4	1.0	
	숙련 및 기술직	13.2	45.9	27.3	12.7	0.9	
	단순노무 종사자	10.6	51.7	28.5	8.8	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	41.6	31.1	16.2	1.8	12.142(4)*
	비정규직	8.1	50.3	26.8	14.1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3	46.4	26.5	13.0	0.8	51.807(8)***
	중도적	7.1	47.6	30.0	14.0	1.3	
	진보적	11.0	43.0	26.2	18.0	1.9	

〈부표 3-6〉 사회신뢰도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8.4	36.3	36.2	17.3	1.8	
성별	남성	8.9	36.4	35.3	17.2	2.2	5.452(4)
	여성	7.8	36.1	37.1	17.5	1.4	
연령	20대 이하	6.8	35.2	34.1	20.8	3.2	67.159(16)***
	30대	6.0	31.3	37.5	22.7	2.5	
	40대	10.6	39.7	31.8	16.6	1.3	
	50대	8.5	36.7	38.7	14.8	1.3	
	60대 이상	9.2	37.3	38.4	13.9	1.2	
지역1	수도권	8.4	34.0	37.0	19.8	0.8	45.479(4)***
	비수도권	8.3	38.7	35.3	14.8	2.9	
지역2	대도시	6.7	34.4	37.0	19.4	2.5	46.098(8)***
	중소도시	8.8	37.2	36.0	16.7	1.3	
	농어촌	14.2	40.2	33.8	10.1	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4	40.7	32.9	14.7	0.4	53.145(12)***
	중하층	7.6	37.7	37.5	16.0	1.3	
	중간층	7.9	34.8	36.3	18.6	2.4	
	중상층(상층)	10.2	25.6	35.0	24.2	4.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0	38.0	34.9	16.6	1.5	35.655(16)**
	200만 원대	7.5	36.4	37.4	17.0	1.7	
	300만 원대	6.2	37.3	36.8	17.3	2.5	
	400만 원대	13.4	27.0	34.9	22.2	2.6	
	500만 원 이상	7.3	34.5	39.1	17.5	1.6	
학력	중졸 이하	9.2	38.7	40.2	11.2	0.8	27.799(8)**
	고졸	8.9	37.4	34.3	18.0	1.4	
	대졸 이상	7.7	34.6	37.0	18.3	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5	32.5	39.0	18.9	2.1	54.498(20)***
	임시·일용직	6.6	38.4	34.1	17.8	3.1	
	고용주, 자영자	10.9	40.9	33.9	13.4	0.9	
	무급가족종사자	14.6	40.7	37.7	5.7	1.3	
	실업자	6.6	41.9	31.8	18.4	1.3	
	비경제활동인구	8.5	36.2	35.5	18.2	1.6	
직업	관리자, 전문가	9.0	33.3	39.2	15.6	3.0	33.49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7	35.0	36.0	19.3	1.9	
	숙련 및 기술직	9.0	40.4	38.1	11.5	1.0	
	단순노무 종사자	12.7	37.1	36.1	11.1	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5	31.7	39.1	19.5	2.3	8.933(4)
	비정규직	6.5	39.1	35.8	16.3	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7	35.0	39.0	13.9	1.4	35.643(8)***
	중도적	7.7	36.9	35.1	18.8	1.5	
	진보적	6.8	36.4	35.1	18.6	3.1	

〈부표 3-7〉 사회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2.3	44.0	33.4	9.7	0.6	
성별	남성	11.8	42.9	33.6	10.9	0.8	9.412(4)
	여성	12.7	45.2	33.1	8.5	0.4	
연령	20대 이하	11.8	40.5	31.9	14.8	1.0	58.743(16)***
	30대	9.2	42.7	36.9	10.3	0.9	
	40대	15.4	42.1	32.0	9.8	0.7	
	50대	13.1	48.1	31.2	7.5	0.1	
	60대 이상	11.5	45.5	35.1	7.5	0.4	
지역1	수도권	11.0	44.4	34.6	9.5	0.4	9.380(4)
	비수도권	13.6	43.6	32.1	10.0	0.8	
지역2	대도시	9.3	46.5	34.3	9.3	0.6	42.155(8)***
	중소도시	13.4	42.2	33.7	10.1	0.5	
	농어촌	20.6	41.9	26.6	9.8	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9	51.7	28.2	6.0	0.2	53.705(12)***
	중하층	12.4	45.2	32.8	8.8	0.8	
	중간층	11.7	41.6	35.5	10.9	0.4	
	중상층(상층)	12.5	35.8	32.2	17.3	2.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3	44.4	31.8	9.9	0.5	34.464(16)**
	200만 원대	12.5	45.3	31.1	10.4	0.8	
	300만 원대	10.1	47.5	32.3	9.5	0.5	
	400만 원대	15.1	35.8	39.9	8.9	0.3	
	500만 원 이상	9.1	40.2	41.3	8.5	0.8	
학력	중졸 이하	9.4	47.3	35.9	7.2	0.2	23.847(8)**
	고졸	12.8	44.4	31.3	11.2	0.4	
	대졸 이상	12.5	42.8	34.8	9.0	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6	42.6	35.5	10.4	0.9	44.653(20)**
	임시·일용직	9.7	44.7	35.1	10.2	0.3	
	고용주, 자영자	16.1	47.2	28.4	7.9	0.3	
	무급가족종사자	20.4	42.7	29.3	7.6	0.0	
	실업자	7.8	47.6	36.8	7.7	0.1	
	비경제활동인구	13.4	42.9	32.8	10.3	0.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4	37.1	41.4	10.6	0.6	22.90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9	44.8	32.5	10.0	0.8	
	숙련 및 기술직	12.7	45.8	31.5	9.6	0.4	
	단순노무 종사자	16.7	47.0	31.6	4.7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5	42.2	35.4	11.0	0.9	5.954(4)
	비정규직	10.1	47.9	33.4	8.0	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9	43.4	33.5	7.9	0.4	44.435(8)***
	중도적	11.2	46.0	33.6	8.5	0.6	
	진보적	11.2	40.3	32.8	14.9	0.7	

〈부표 3-8〉 경제적 양극화 인식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X ² (df)
전체		10.4	37.3	30.5	18.6	3.2	
성별	남성	11.0	36.9	30.0	18.7	3.5	3.053(4)
	여성	9.7	37.6	31.1	18.6	3.0	
연령	20대 이하	8.6	34.7	33.1	20.9	2.7	34.472(16)**
	30대	8.0	37.8	33.0	18.5	2.6	
	40대	13.8	39.1	27.5	16.6	3.0	
	50대	12.0	36.0	29.5	18.4	4.0	
	60대 이상	8.9	38.3	30.2	19.0	3.5	
지역1	수도권	11.1	36.0	27.9	22.6	2.4	58.341(4)***
	비수도권	9.6	38.6	33.3	14.4	4.1	
지역2	대도시	7.4	35.8	32.6	20.4	3.8	50.138(8)***
	중소도시	12.4	39.1	28.8	17.4	2.4	
	농어촌	13.5	33.5	30.0	17.5	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8	37.4	35.2	13.9	3.7	31.056(12)**
	중하층	10.0	37.6	31.0	18.3	3.1	
	중간층	11.1	37.4	29.1	19.4	2.9	
	중상층(상층)	7.1	32.1	26.5	28.5	5.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2	39.0	32.0	17.3	2.6	52.445(16)***
	200만 원대	10.5	38.4	28.4	20.4	2.3	
	300만 원대	12.4	33.7	32.7	16.7	4.4	
	400만 원대	13.9	30.2	30.8	22.2	2.9	
	500만 원 이상	8.8	38.9	25.3	20.6	6.3	
학력	중졸 이하	7.7	42.3	33.1	14.3	2.6	20.369(8)**
	고졸	11.3	37.5	30.2	18.3	2.8	
	대졸 이상	10.2	35.7	30.1	20.1	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8.9	35.9	31.3	20.0	3.9	63.254(20)***
	임시·일용직	12.3	37.6	29.1	18.7	2.3	
	고용주, 자영자	15.7	34.3	29.1	17.7	3.2	
	무급가족종사자	8.4	49.3	24.7	10.8	6.7	
	실업자	8.6	49.8	23.2	15.1	3.4	
	비경제활동인구	8.1	38.3	32.6	18.5	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8.5	41.4	27.8	17.8	4.5	17.43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5	34.5	30.1	20.1	3.7	
	숙련 및 기술직	11.3	36.3	32.6	17.3	2.5	
	단순노무 종사자	14.8	39.4	29.2	13.8	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6	36.8	31.4	20.0	4.2	20.423(4)***
	비정규직	13.9	33.9	30.3	20.1	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	37.1	27.5	21.6	3.3	34.492(8)***
	중도적	10.5	36.2	34.1	16.0	3.3	
	진보적	9.9	39.9	26.2	20.9	3.1	

〈부표 3-9〉 경제적 양극화 인식 (2)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30.3	50.0	16.0	3.6	0.1	
성별	남성	29.9	49.3	16.4	4.2	0.2	6.747(4)
	여성	30.7	50.7	15.5	3.0	0.0	
연령	20대 이하	25.3	50.3	20.3	4.1	0.0	36.886(16)**
	30대	28.3	49.3	17.5	4.8	0.1	
	40대	34.0	48.6	15.0	2.3	0.2	
	50대	31.4	50.4	14.7	3.5	0.0	
	60대 이상	31.2	51.1	13.7	3.7	0.3	
지역1	수도권	29.2	53.1	13.5	4.2	0.1	30.625(4)***
	비수도권	31.4	46.8	18.6	3.1	0.2	
지역2	대도시	25.2	56.3	14.5	4.0	0.0	94.867(8)***
	중소도시	31.7	46.8	17.8	3.6	0.1	
	농어촌	47.9	37.2	12.6	1.8	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8	39.6	10.4	2.0	0.1	118.728(12)***
	중하층	30.4	51.7	14.3	3.4	0.1	
	중간층	25.4	51.8	18.8	4.0	0.0	
	중상층(상층)	25.7	49.5	17.2	6.8	0.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1.3	47.8	18.1	2.6	0.2	35.473(16)**
	200만 원대	31.2	49.3	14.6	4.9	0.0	
	300만 원대	27.7	52.4	15.7	4.2	0.0	
	400만 원대	26.7	53.4	14.5	5.5	0.0	
	500만 원 이상	31.0	54.2	11.9	2.7	0.3	
학력	중졸 이하	33.0	47.6	16.4	2.5	0.6	17.139(8)*
	고졸	30.5	49.7	15.9	3.9	0.0	
	대졸 이상	29.4	50.9	15.9	3.7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8.4	51.9	15.5	4.1	0.1	54.508(20)***
	임시·일용직	29.6	49.9	15.8	4.5	0.2	
	고용주, 자영자	34.7	50.7	11.4	3.0	0.1	
	무급가족종사자	36.2	47.6	10.0	6.2	0.0	
	실업자	37.1	50.0	11.8	1.1	0.0	
	비경제활동인구	28.4	47.0	21.2	3.3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8.1	57.2	11.1	3.5	0.1	19.20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8	51.3	15.1	3.7	0.0	
	숙련 및 기술직	31.6	49.1	13.9	5.0	0.3	
	단순노무 종사자	38.5	43.0	14.2	3.7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7	52.7	15.2	4.3	0.1	7.046(4)
	비정규직	33.4	47.7	15.6	3.1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7	50.2	16.2	3.7	0.2	6.031(8)
	중도적	29.5	50.9	16.0	3.5	0.0	
	진보적	32.7	47.6	15.5	4.0	0.2	

〈부표 3-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1.1	38.3	34.6	14.4	1.6	
성별	남성	10.8	37.3	34.8	15.2	1.9	5.419(4)
	여성	11.3	39.3	34.5	13.6	1.3	
연령	20대 이하	10.6	39.2	35.0	14.3	0.9	18.400(16)
	30대	12.2	35.1	35.9	15.9	0.9	
	40대	11.1	39.7	35.6	12.0	1.6	
	50대	11.6	37.0	33.6	15.4	2.3	
	60대 이상	10.2	39.7	33.6	14.7	1.9	
지역1	수도권	11.9	36.1	35.9	14.9	1.2	14.074(4)**
	비수도권	10.2	40.5	33.3	13.9	2.0	
지역2	대도시	10.3	38.6	35.5	14.8	0.9	39.811(8)***
	중소도시	11.3	38.3	34.6	14.2	1.6	
	농어촌	13.5	36.7	30.2	14.2	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9	46.7	28.7	9.2	0.5	72.107(12)***
	중하층	11.2	39.4	35.1	13.5	0.7	
	중간층	10.3	35.3	35.5	16.5	2.4	
	중상층(상층)	5.6	34.2	40.1	16.7	3.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2.2	40.6	32.4	13.3	1.4	67.822(16)***
	200만 원대	11.2	37.4	36.3	14.1	1.0	
	300만 원대	9.3	37.4	36.6	15.8	0.8	
	400만 원대	4.3	36.9	42.3	13.8	2.8	
	500만 원 이상	14.2	32.8	31.2	17.9	4.0	
학력	중졸 이하	10.2	39.2	34.6	14.3	1.7	4.118(8)
	고졸	11.6	38.4	33.3	15.2	1.5	
	대졸 이상	10.8	37.9	36.0	13.7	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8	36.8	36.4	14.4	1.5	35.977(20)*
	임시·일용직	12.8	38.8	34.0	13.5	1.0	
	고용주, 자영자	9.9	36.9	33.8	17.2	2.2	
	무급가족종사자	13.4	38.7	23.1	22.0	2.7	
	실업자	17.3	43.9	28.8	9.9	0.1	
	비경제활동인구	10.3	40.1	34.7	13.2	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9	38.5	27.7	16.8	2.1	35.61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3	36.0	37.2	16.1	1.4	
	숙련 및 기술직	11.7	40.3	33.8	11.7	2.5	
	단순노무 종사자	17.2	37.4	31.3	13.0	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4	37.1	36.1	14.8	1.6	6.512(4)
	비정규직	13.8	39.0	33.2	13.0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0	37.8	33.8	16.4	2.1	22.173(8)**
	중도적	10.8	37.2	36.5	13.8	1.7	
	진보적	13.1	41.2	31.6	13.4	0.7	

〈부표 3-11〉 경제적 양극화 인식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7.4	36.2	38.5	16.4	1.5	
성별	남성	8.2	35.9	38.4	15.9	1.6	5.928(4)
	여성	6.5	36.5	38.7	17.0	1.3	
연령	20대 이하	9.4	40.3	36.8	13.0	0.4	58.311(16)***
	30대	5.2	31.3	45.0	16.6	1.8	
	40대	9.1	36.7	37.9	15.3	0.9	
	50대	6.8	36.6	35.1	20.1	1.4	
	60대 이상	6.4	35.8	38.7	16.5	2.5	
지역1	수도권	7.3	36.2	40.4	15.7	0.5	33.856(4)***
	비수도권	7.5	36.2	36.6	17.2	2.5	
지역2	대도시	6.8	34.8	43.4	14.1	0.8	54.168(8)***
	중소도시	7.5	37.7	34.8	18.5	1.6	
	농어촌	10.0	34.4	36.0	15.6	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4	36.5	42.2	11.1	0.8	24.244(12)*
	중하층	6.9	35.9	38.3	17.1	1.8	
	중간층	7.3	35.7	38.3	17.3	1.4	
	중상층(상층)	6.3	43.0	31.4	18.0	1.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7.5	39.5	37.4	14.1	1.5	29.462(16)*
	200만 원대	8.5	32.2	39.5	18.2	1.6	
	300만 원대	5.0	35.4	40.7	17.6	1.4	
	400만 원대	8.4	34.3	38.3	18.6	0.5	
	500만 원 이상	7.6	34.3	38.0	18.3	1.8	
학력	중졸 이하	5.4	37.0	39.7	14.4	3.5	21.999(8)**
	고졸	8.1	36.7	37.5	16.3	1.4	
	대졸 이상	7.2	35.5	39.2	17.0	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9	34.7	39.5	17.6	1.3	61.159(20)***
	임시·일용직	9.9	37.8	36.2	14.8	1.3	
	고용주, 자영자	6.2	32.1	38.4	21.0	2.3	
	무급가족종사자	8.5	40.5	33.1	16.4	1.4	
	실업자	13.8	42.9	36.4	6.7	0.1	
	비경제활동인구	6.6	39.3	38.8	13.8	1.4	
직업	관리자, 전문가	7.9	40.9	34.7	14.7	1.7	42.21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6	31.6	39.8	20.7	1.3	
	숙련 및 기술직	8.2	39.2	36.9	13.4	2.3	
	단순노무 종사자	9.8	38.9	38.4	10.6	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8	34.0	39.8	18.1	1.3	12.434(4)*
	비정규직	10.1	38.5	37.4	12.6	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4	35.0	38.1	18.7	1.8	14.858(8)
	중도적	7.4	35.8	39.2	16.2	1.5	
	진보적	8.6	38.7	37.6	14.1	0.9	

〈부표 3-12〉 경제적 양극화 인식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X ² (df)
전체		2.1	17.5	40.4	30.7	9.3	
성별	남성	2.3	17.0	41.1	28.7	10.8	18.174(4)**
	여성	1.8	18.0	39.7	32.7	7.7	
연령	20대 이하	1.7	14.6	40.9	35.6	7.2	41.795(16)***
	30대	1.0	13.7	45.9	29.7	9.7	
	40대	2.6	20.4	39.6	27.6	9.9	
	50대	2.3	19.2	39.0	31.2	8.4	
	60대 이상	2.5	18.6	38.2	29.9	10.8	
지역1	수도권	1.6	16.4	40.9	31.6	9.5	8.662(4)
	비수도권	2.6	18.7	39.9	29.8	9.1	
지역2	대도시	1.4	16.4	44.0	30.7	7.6	46.891(8)***
	중소도시	2.1	18.4	37.9	31.5	10.0	
	농어촌	5.4	18.1	37.6	25.3	1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	15.1	34.6	34.2	14.3	34.067(12)**
	중하층	2.1	18.6	40.7	30.8	7.9	
	중간층	2.2	17.4	42.0	29.1	9.3	
	중상층(상층)	1.4	16.4	40.5	35.7	6.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3	16.0	38.6	33.6	9.5	30.902(16)*
	200만 원대	1.3	19.2	42.7	27.5	9.3	
	300만 원대	2.7	20.1	42.5	26.9	7.7	
	400만 원대	1.5	17.1	43.5	29.8	8.2	
	500만 원 이상	2.3	16.6	37.3	32.5	11.2	
학력	중졸 이하	2.5	19.7	39.9	28.1	9.8	5.657(8)
	고졸	2.2	17.2	39.4	31.8	9.4	
	대졸 이상	1.9	17.3	41.5	30.3	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	16.8	41.7	30.5	9.4	51.736(20)***
	임시·일용직	1.4	20.0	39.6	28.3	10.7	
	고용주, 자영자	3.4	19.9	42.4	27.1	7.3	
	무급가족종사자	3.8	21.2	41.1	21.2	12.7	
	실업자	1.2	13.0	40.5	28.7	16.7	
	비경제활동인구	2.2	16.4	37.4	35.6	8.4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	16.7	36.5	32.4	11.3	16.08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	18.3	43.4	28.2	8.2	
	숙련 및 기술직	2.4	17.7	39.8	30.3	9.8	
	단순노무 종사자	2.0	22.5	37.5	26.5	1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	16.6	42.1	30.1	9.6	3.429(4)
	비정규직	1.5	19.3	37.8	30.8	1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	18.7	42.2	27.1	8.7	44.242(8)***
	중도적	2.0	17.6	41.6	30.6	8.3	
	진보적	0.8	15.8	35.6	35.5	12.3	

〈부표 3-13〉 사회봉사 참여 (1) 자원봉사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한두 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X ² (df)
전체		1.1	2.7	2.3	7.1	86.8	
성별	남성	0.9	2.5	2.7	7.1	86.8	6.739(4)
	여성	1.4	2.9	1.8	7.2	86.7	
연령	20대 이하	2.1	1.4	3.4	11.6	81.4	72.487(16)***
	30대	0.5	2.0	0.3	6.3	91.0	
	40대	0.9	2.6	1.6	7.6	87.3	
	50대	1.1	3.9	3.0	6.2	85.8	
	60대 이상	1.0	3.2	2.7	4.8	88.3	
지역1	수도권	1.0	1.5	1.8	7.1	88.7	30.408(4)***
	비수도권	1.2	4.0	2.8	7.2	84.8	
지역2	대도시	1.0	2.2	2.2	7.2	87.4	11.532(8)
	중소도시	1.1	3.0	2.0	6.8	87.1	
	농어촌	1.8	3.8	3.8	8.9	8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1.5	0.9	4.6	92.3	52.416(12)***
	중하층	0.8	2.7	1.5	6.9	88.1	
	중간층	1.4	2.7	3.3	7.3	85.2	
	중상층(상층)	1.9	6.0	2.3	14.0	75.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4	2.7	2.6	7.6	85.6	61.343(16)***
	200만 원대	0.6	2.4	0.8	6.2	90.0	
	300만 원대	1.3	1.6	1.6	4.5	91.0	
	400만 원대	0.1	2.6	2.8	9.0	85.5	
	500만 원 이상	1.4	5.2	4.5	10.0	79.0	
학력	중졸 이하	0.4	2.4	2.3	2.9	92.0	25.848(8)**
	고졸	1.1	2.6	2.4	6.5	87.5	
	대졸 이상	1.3	2.9	2.1	8.8	84.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8	2.2	1.9	7.2	87.9	50.324(20)***
	임시·일용직	1.3	1.6	1.4	5.9	89.9	
	고용주, 자영자	0.9	5.0	2.3	6.6	85.1	
	무급가족종사자	1.2	8.5	1.1	7.6	81.6	
	실업자	0.4	1.2	5.4	6.9	86.2	
	비경제활동인구	1.8	2.2	2.7	7.8	85.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	7.1	4.1	10.3	77.2	52.06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9	2.4	1.4	7.0	88.2	
	숙련 및 기술직	0.6	2.7	2.6	5.0	89.2	
	단순노무 종사자	0.9	1.7	0.8	4.1	9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2.2	1.9	7.5	87.7	4.945(4)
	비정규직	1.5	1.7	1.7	5.6	8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2.4	2.0	5.4	89.2	10.381(8)
	중도적	1.1	2.9	2.2	7.5	86.3	
	진보적	1.4	2.7	2.7	8.4	84.8	

〈부표 3-14〉 사회봉사 참여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한두 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 번	전혀 안했다	X ² (df)
전체		0.6	6.8	2.3	10.2	80.1	
성별	남성	0.6	6.6	2.4	9.7	80.6	2.170(4)
	여성	0.7	7.0	2.1	10.8	79.5	
연령	20대 이하	0.0	6.1	1.3	10.5	82.1	65.571(16)***
	30대	1.0	6.5	1.4	11.1	80.0	
	40대	1.0	10.0	2.6	10.2	76.3	
	50대	0.7	8.2	3.7	12.0	75.4	
	60대 이상	0.6	3.5	2.1	8.0	85.8	
지역1	수도권	0.8	6.1	1.6	10.2	81.4	12.910(4)*
	비수도권	0.5	7.5	2.9	10.3	78.7	
지역2	대도시	0.4	6.3	3.2	10.1	80.0	21.211(8)**
	중소도시	0.7	7.2	1.4	10.2	80.5	
	농어촌	1.5	6.9	2.3	11.2	7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	2.4	1.1	5.7	89.9	134.637(12)***
	중하층	0.3	4.8	1.9	8.1	84.9	
	중간층	0.7	8.7	2.8	12.6	75.1	
	중상층(상층)	1.6	17.0	3.1	17.7	60.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5.1	1.8	7.7	84.8	126.307(16)***
	200만 원대	0.4	6.4	1.9	10.1	81.2	
	300만 원대	1.0	6.7	1.4	12.2	78.7	
	400만 원대	0.2	9.5	1.5	14.6	74.1	
	500만 원 이상	1.1	12.4	7.0	14.5	65.0	
학력	중졸 이하	0.4	1.9	1.4	4.2	92.0	121.609(8)***
	고졸	0.3	5.4	1.8	8.1	84.4	
	대졸 이상	1.0	9.4	2.9	13.8	7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9.1	2.3	12.2	75.8	81.233(20)***
	임시·일용직	0.5	4.7	1.1	7.6	86.0	
	고용주, 자영자	1.0	6.9	3.8	11.8	76.4	
	무급가족종사자	0.0	7.4	1.6	10.9	80.1	
	실업자	0.0	1.1	0.0	5.0	93.9	
	비경제활동인구	0.7	5.1	2.0	8.2	84.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	16.0	5.5	18.6	58.9	104.00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7.3	1.9	11.5	78.8	
	숙련 및 기술직	0.8	5.0	3.2	8.5	82.5	
	단순노무 종사자	1.1	4.6	1.3	4.0	8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9.0	2.3	12.7	75.5	15.407(4)**
	비정규직	0.4	6.1	1.8	7.4	8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6.2	1.5	10.4	81.1	19.734(8)*
	중도적	0.6	6.0	2.3	10.7	80.5	
	진보적	0.5	9.2	3.3	9.1	77.9	

〈부표 3-15〉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X ² (df)
전체		13.0	73.4	13.2	0.4	
성별	남성	14.1	71.6	14.0	0.3	7.914(3)*
	여성	12.0	75.2	12.3	0.5	
연령	20대 이하	11.4	74.5	13.9	0.2	47.947(12)***
	30대	10.2	76.5	12.8	0.4	
	40대	13.8	71.5	14.4	0.4	
	50대	10.5	72.9	15.9	0.7	
	60대 이상	17.8	72.5	9.5	0.2	
지역1	수도권	11.2	76.4	12.2	0.2	20.678(3)***
	비수도권	14.9	70.3	14.3	0.5	
지역2	대도시	10.9	75.6	13.0	0.4	24.271(6)***
	중소도시	13.8	72.9	12.8	0.4	
	농어촌	19.0	64.7	16.2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	67.0	20.2	0.3	94.725(9)***
	중하층	9.9	73.6	16.1	0.4	
	중간층	14.9	75.4	9.4	0.3	
	중상층(상층)	21.5	70.2	6.9	1.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1	71.5	13.2	0.3	27.137(12)**
	200만 원대	11.3	75.1	13.4	0.2	
	300만 원대	11.2	74.1	14.1	0.6	
	400만 원대	7.8	79.0	12.8	0.3	
	500만 원 이상	15.1	72.4	11.5	1.0	
학력	중졸 이하	20.5	70.3	9.0	0.2	39.236(6)***
	고졸	12.8	72.0	14.9	0.2	
	대졸 이상	11.3	75.5	12.6	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6	76.1	12.7	0.5	41.575(15)***
	임시·일용직	10.8	71.9	17.2	0.1	
	고용주, 자영자	16.3	70.9	12.8	0.1	
	무급가족종사자	15.0	73.6	11.3	0.0	
	실업자	16.0	63.6	20.0	0.4	
	비경제활동인구	14.5	73.7	11.3	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7	73.4	12.7	0.2	5.728(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3	74.2	13.2	0.4	
	숙련 및 기술직	12.6	73.6	13.5	0.3	
	단순노무 종사자	8.6	74.0	17.4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7	76.2	12.6	0.5	2.917(3)
	비정규직	10.1	74.5	15.2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1	73.2	10.6	0.1	25.345(6)***
	중도적	11.2	74.3	14.0	0.5	
	진보적	13.3	71.6	14.7	0.4	

〈부표 3-16〉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잘 이뤄 지고 있다	X ² (df)
전체		2.5	4.1	10.6	16.3	13.2	29.6	13.1	8.3	2.2	0.0	0.1	
성별	남성	3.5	4.8	10.5	17.1	12.5	28.8	12.2	8.2	2.1	0.1	0.2	32.111 (10)***
	여성	1.5	3.2	10.7	15.4	14.0	30.4	14.1	8.4	2.2	0.0	0.1	
연령	20대 이하	1.0	3.2	7.4	14.9	12.9	33.6	14.0	10.0	3.0	0.0	0.1	96.407 (40)***
	30대	3.0	3.1	8.8	12.6	14.6	36.7	12.6	5.8	2.6	0.0	0.3	
	40대	2.7	5.3	13.5	17.2	13.2	26.2	12.4	7.9	1.2	0.2	0.2	
	50대	2.3	4.5	10.2	19.4	13.3	25.1	14.2	8.7	2.3	0.0	0.0	
	60대 이상	3.3	3.9	12.2	16.3	12.5	28.4	12.5	8.8	2.0	0.0	0.1	
지역1	수도권	3.0	4.5	11.1	18.1	13.3	26.4	12.6	8.9	2.1	0.0	0.0	32.925 (10)***
	비수도권	2.0	3.6	10.1	14.3	13.2	32.9	13.6	7.7	2.2	0.0	0.2	
지역2	대도시	2.9	3.8	9.9	13.4	13.9	28.8	15.3	9.4	2.3	0.1	0.1	59.389 (20)***
	중소도시	2.0	3.9	10.9	18.9	13.2	30.3	11.7	7.2	1.7	0.0	0.2	
	농어촌	3.1	6.0	12.6	15.3	9.7	28.9	10.5	9.4	4.5	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	5.4	9.4	15.8	15.7	27.7	12.6	8.0	1.3	0.0	0.0	46.363 (30)*
	중하층	2.6	3.4	11.8	16.4	13.8	29.2	12.8	7.6	2.0	0.1	0.2	
	중간층	2.1	4.2	10.2	16.5	12.2	30.3	13.7	8.6	2.2	0.0	0.0	
	중상층(상층)	0.6	3.6	9.1	14.0	11.7	31.1	11.1	12.1	6.0	0.0	0.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2	4.1	9.7	15.8	13.9	32.9	12.7	6.8	1.9	0.0	0.1	78.628 (40)***
	200만 원대	3.4	3.4	10.1	16.8	12.0	30.4	13.7	7.7	2.5	0.0	0.0	
	300만 원대	2.9	2.9	13.7	17.3	13.3	23.1	14.2	10.5	1.8	0.0	0.3	
	400만 원대	1.4	4.6	11.7	15.0	11.5	27.9	14.8	10.4	2.3	0.3	0.0	
	500만 원 이상	2.0	6.7	9.9	16.3	14.4	26.1	10.8	10.4	2.8	0.2	0.3	
학력	중졸 이하	2.4	2.8	10.1	14.1	16.0	31.3	13.3	8.2	1.8	0.0	0.0	13.067 (20)
	고졸	2.5	3.7	11.1	16.4	12.4	29.6	13.6	8.5	2.2	0.1	0.1	
	대졸 이상	2.6	4.7	10.3	16.7	13.4	29.1	12.6	8.2	2.2	0.0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0	3.9	10.4	14.9	12.4	28.8	13.9	10.1	2.4	0.1	0.2	109.61 (50)***
	임시·일용직	2.8	6.2	10.9	18.8	14.4	25.9	12.5	7.3	1.2	0.0	0.1	
	고용주, 자영자	2.5	4.2	13.8	19.5	11.9	27.4	11.5	6.8	2.2	0.1	0.0	
	무급가족종사자	2.4	4.3	11.4	17.8	16.9	24.6	11.3	10.6	0.7	0.0	0.0	
	실업자	2.9	5.6	18.2	16.6	15.8	29.2	4.5	6.6	0.5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5	3.0	7.0	14.7	14.4	34.2	15.1	7.4	2.5	0.0	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2.6	6.6	12.1	18.6	13.7	24.7	9.9	9.1	2.9	0.0	0.0	27.136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7	3.9	11.5	16.3	12.8	28.5	13.7	8.3	2.1	0.1	0.1	
	숙련 및 기술직	2.7	4.8	10.7	18.6	11.0	26.8	12.8	9.9	2.4	0.0	0.3	
	단순노무 종사자	4.7	3.4	11.7	13.2	13.7	30.5	12.1	9.8	0.7	0.0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4.2	10.0	14.2	12.2	29.1	14.3	10.2	2.4	0.1	0.2	11.885 (10)
	비정규직	2.9	4.4	11.9	19.4	11.6	28.0	12.9	7.2	1.5	0.0	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	3.6	11.1	18.0	13.4	27.2	12.1	9.7	1.7	0.0	0.0	58.092 (20)***
	중도적	1.9	3.8	9.9	16.2	11.9	33.2	12.3	8.0	2.5	0.0	0.1	
	진보적	2.9	5.2	11.5	14.3	16.2	24.5	16.2	7.2	1.8	0.1	0.1	

〈부표 3-17〉 한국 사회 인식 (1) 차별 소외 VS 배려 포용

(단위: %)

구분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1	2	3	4	5	6	7	8	9	배려와 포용의 사회	X ² (df)
전체		0.9	2.3	6.7	15.6	19.4	27.1	16.3	10.0	1.5	0.1	0.2	
성별	남성	1.3	2.5	7.2	16.2	19.1	26.6	15.4	9.6	1.7	0.2	0.2	17.252 (10)
	여성	0.5	2.0	6.2	15.1	19.7	27.6	17.2	10.3	1.2	0.1	0.1	
연령	20대 이하	0.1	1.3	6.6	13.8	19.1	26.5	18.6	11.7	2.3	0.0	0.0	55.366 (40)
	30대	0.5	2.6	5.2	17.0	18.0	29.7	16.1	9.1	1.4	0.4	0.0	
	40대	1.5	2.3	6.9	16.4	21.3	26.6	13.8	10.1	0.8	0.0	0.3	
	50대	1.0	2.6	6.5	16.5	20.4	24.3	16.2	10.0	1.8	0.2	0.3	
	60대 이상	1.0	2.3	7.8	14.8	18.1	28.5	16.7	9.1	1.3	0.1	0.2	
지역1	수도권	1.0	2.5	7.3	17.7	18.5	24.9	16.3	9.9	1.6	0.2	0.1	25.933 (10)**
	비수도권	0.7	2.0	6.0	13.5	20.3	29.4	16.2	10.0	1.4	0.1	0.2	
지역2	대도시	0.9	2.2	6.7	13.6	19.2	27.0	19.5	9.3	1.3	0.1	0.2	48.491 (20)***
	중소도시	0.8	2.0	6.4	17.3	19.6	27.6	14.0	10.6	1.4	0.2	0.2	
	농어촌	1.3	4.0	8.4	16.2	19.1	24.1	13.4	9.8	3.3	0.4	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	2.7	9.4	11.3	22.6	25.8	14.7	9.7	1.1	0.0	0.0	213.32 5(30)***
	중하층	1.0	2.6	6.4	16.9	20.5	27.9	15.1	8.6	0.8	0.1	0.1	
	중간층	0.3	2.1	6.3	15.7	18.2	27.1	17.8	10.6	1.8	0.2	0.0	
	중상층(상층)	0.0	0.2	5.3	18.1	11.9	24.3	15.4	15.7	5.3	0.5	3.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	1.8	7.4	14.8	18.8	29.4	15.6	9.4	1.6	0.0	0.0	61.137 (40)*
	200만 원대	1.1	2.7	5.6	16.5	20.3	27.2	15.9	9.4	0.8	0.1	0.5	
	300만 원대	0.2	1.9	6.1	16.7	20.2	24.2	19.2	9.2	2.0	0.3	0.0	
	400만 원대	0.2	2.6	6.8	15.0	19.6	25.1	15.6	13.7	0.7	0.5	0.3	
	500만 원 이상	0.9	3.5	6.9	16.2	18.4	23.8	15.6	11.7	2.5	0.2	0.3	
학력	중졸 이하	2.0	1.3	5.5	12.3	20.1	30.2	16.4	10.6	1.4	0.0	0.0	37.923 (20)**
	고졸	0.8	2.1	8.2	14.9	19.7	27.3	16.1	8.9	1.5	0.2	0.3	
	대졸 이상	0.6	2.7	5.5	17.2	18.9	26.1	16.3	10.8	1.5	0.1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	3.1	6.1	15.2	19.0	25.4	17.1	11.5	1.3	0.2	0.1	104.61 2(50)***
	임시·일용직	1.2	1.7	9.9	14.0	20.5	25.6	16.7	8.1	1.7	0.2	0.4	
	고용주, 자영자	0.6	2.2	6.9	18.9	19.7	26.4	14.5	8.8	1.2	0.2	0.5	
	무급가족종사자	2.5	5.9	3.2	21.9	17.8	21.5	8.2	16.2	2.8	0.0	0.0	
	실업자	2.3	1.5	9.6	23.0	18.1	26.3	8.8	9.5	0.8	0.0	0.0	
	비경제활동인구	0.4	1.2	5.7	12.9	19.6	31.2	18.0	9.0	2.0	0.0	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	5.0	7.1	18.1	18.4	20.4	14.5	10.6	2.6	1.0	0.9	57.53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	2.3	6.4	16.2	20.0	25.9	16.4	10.8	1.1	0.1	0.1	
	숙련 및 기술직	1.2	3.0	7.3	16.7	19.7	25.3	16.1	9.1	1.3	0.1	0.3	
	단순노무 종사자	1.8	1.3	9.6	10.5	14.6	34.5	16.7	9.0	2.0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	3.1	6.0	15.0	18.5	25.8	17.4	11.6	1.4	0.2	0.1	17.052 (10)
	비정규직	0.9	2.3	9.8	17.3	19.1	24.1	16.9	8.1	1.1	0.0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	2.2	7.0	16.0	19.4	25.3	17.5	9.8	1.4	0.0	0.2	38.396 (20)**
	중도적	0.7	1.7	6.4	15.7	20.1	28.8	14.9	10.0	1.3	0.3	0.0	
	진보적	0.7	3.6	7.0	15.0	17.8	25.5	17.8	10.2	2.0	0.0	0.5	

〈부표 3-18〉 한국 사회 인식 (2) 의심 VS 신뢰

(단위: %)

구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 하는 사회	1	2	3	4	5	6	7	8	9	서로 믿고 살아 가는 사회	χ^2 (df)
전체		0.7	2.1	5.8	12.4	21.5	28.3	17.6	9.1	2.1	0.3	0.1	
성별	남성	1.1	2.3	5.6	12.9	20.8	29.1	16.7	8.9	2.2	0.4	0.1	18.744 (10)*
	여성	0.3	2.0	6.0	11.9	22.1	27.5	18.6	9.2	2.0	0.1	0.2	
연령	20대 이하	0.1	1.8	5.2	14.1	20.8	25.6	18.6	11.7	1.9	0.2	0.0	101.06 1(40)***
	30대	1.2	1.3	3.5	14.6	21.9	29.6	16.7	7.6	3.0	0.6	0.0	
	40대	1.4	1.5	9.0	10.0	22.9	27.2	17.6	7.7	2.3	0.1	0.2	
	50대	0.6	1.6	4.8	13.2	21.9	28.6	18.8	8.4	1.7	0.0	0.5	
	60대 이상	0.5	3.9	6.1	10.9	20.1	30.0	16.5	9.8	1.8	0.4	0.0	
지역1	수도권	0.6	1.9	6.1	13.8	21.8	27.9	17.9	7.5	2.4	0.2	0.0	28.026 (10)**
	비수도권	0.9	2.3	5.5	11.0	21.1	28.7	17.4	10.7	1.8	0.3	0.3	
지역2	대도시	0.7	1.4	6.5	12.2	20.1	28.4	18.5	10.1	1.7	0.3	0.2	37.079 (20)*
	중소도시	0.7	2.4	4.9	12.4	22.9	28.6	17.6	7.8	2.4	0.3	0.1	
	농어촌	1.6	3.8	7.8	13.4	19.8	25.8	13.3	11.5	2.6	0.3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3.6	6.2	12.3	20.2	28.7	16.6	8.2	2.5	0.0	0.0	245.31 8(30)***
	중하층	1.1	2.6	5.8	13.3	23.0	26.6	17.9	7.8	1.7	0.1	0.0	
	중간층	0.2	1.4	5.7	11.3	21.3	30.1	17.2	10.7	1.8	0.2	0.0	
	중상층(상층)	0.0	1.4	4.9	15.7	13.9	23.1	22.3	5.2	7.4	3.0	3.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2.6	6.2	11.6	21.4	29.7	16.8	9.4	1.6	0.1	0.0	78.618 (40)***
	200만 원대	0.9	2.3	5.3	13.8	21.0	28.5	17.8	8.1	1.9	0.0	0.3	
	300만 원대	0.9	0.9	6.5	12.9	23.2	26.6	17.5	9.1	2.0	0.3	0.0	
	400만 원대	0.0	1.9	5.7	8.0	24.5	26.0	19.6	10.2	3.9	0.3	0.0	
	500만 원 이상	0.9	2.0	4.3	15.1	17.6	26.5	19.5	8.7	3.5	1.2	0.7	
학력	중졸 이하	1.0	2.5	5.6	9.8	21.2	29.4	19.6	9.7	1.1	0.0	0.0	33.021 (20)*
	고졸	0.5	2.6	6.7	11.4	22.3	28.8	17.1	7.9	2.3	0.2	0.2	
	대졸 이상	0.9	1.6	5.0	14.0	20.7	27.5	17.6	10.0	2.2	0.4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	2.0	5.3	12.5	20.6	27.2	18.9	9.0	3.0	0.4	0.1	78.158 (50)**
	임시·일용직	0.9	2.0	6.4	15.9	22.5	28.6	12.9	8.8	1.8	0.2	0.0	
	고용주, 자영자	0.6	2.3	6.2	12.4	22.3	28.4	16.6	9.0	1.4	0.2	0.6	
	무급가족종사자	2.2	4.4	8.3	5.4	30.1	17.7	20.3	11.5	0.0	0.0	0.0	
	실업자	0.0	2.5	8.5	18.1	22.6	27.3	13.2	6.1	1.7	0.0	0.0	
	비경제활동인구	0.3	2.0	5.3	10.0	21.1	30.5	19.1	9.7	1.7	0.2	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	2.7	6.8	15.8	16.2	25.7	16.5	8.9	3.1	2.0	1.2	103.94 2(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1.6	5.3	13.1	23.2	26.9	18.0	8.8	2.2	0.1	0.0	
	숙련 및 기술직	1.7	3.4	5.5	11.0	20.6	29.4	14.9	10.4	2.8	0.0	0.3	
	단순노무 종사자	0.3	2.4	9.5	10.1	18.0	32.0	19.8	7.6	0.4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	2.2	4.9	12.7	20.4	27.3	19.0	8.9	3.2	0.4	0.1	16.882 (10)
	비정규직	0.9	2.0	7.9	15.6	21.7	26.6	14.3	9.3	1.8	0.0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	2.3	5.9	14.6	20.7	27.8	16.2	9.6	1.7	0.6	0.0	39.878 (20)**
	중도적	0.7	2.0	5.5	11.3	21.9	29.9	17.4	8.6	2.4	0.2	0.1	
	진보적	0.9	2.2	6.4	12.0	21.4	25.3	20.0	9.4	2.0	0.0	0.5	

〈부표 3-19〉 한국 사회 인식 (3) 침체 VS 활력

(단위: %)

구분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1	2	3	4	5	6	7	8	9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X ² (df)
전체		0.6	1.9	4.1	9.6	18.1	30.4	22.6	10.9	1.4	0.2	0.2	
성별	남성	0.9	2.1	3.9	10.0	18.6	30.9	20.5	11.2	1.4	0.2	0.2	16.505 (10)
	여성	0.4	1.8	4.3	9.2	17.5	30.0	24.7	10.5	1.3	0.1	0.1	
연령	20대 이하	0.1	1.5	3.8	9.1	16.4	32.6	23.1	10.1	2.9	0.0	0.2	51.321 (40)
	30대	1.0	1.6	2.3	10.3	18.8	31.0	22.0	11.6	1.2	0.1	0.0	
	40대	0.8	1.9	5.3	11.2	18.7	30.1	21.2	9.5	1.0	0.2	0.2	
	50대	0.7	1.9	3.7	9.2	19.4	29.0	22.8	11.6	1.1	0.2	0.5	
	60대 이상	0.7	2.6	4.9	8.5	17.1	30.0	23.5	11.4	1.0	0.3	0.0	
지역1	수도권	0.3	1.8	3.8	9.6	17.9	29.7	25.0	10.7	0.9	0.3	0.1	35.417 (10) ^{***}
	비수도권	1.0	2.1	4.4	9.6	18.3	31.2	20.0	11.1	1.9	0.1	0.3	
지역2	대도시	0.4	1.9	3.2	8.6	17.7	30.9	24.3	11.5	1.3	0.1	0.3	61.886 (20) ^{***}
	중소도시	0.6	1.7	4.4	9.9	18.4	30.5	22.4	10.4	1.2	0.3	0.1	
	농어촌	2.2	3.7	7.1	13.0	18.0	27.7	14.5	10.7	3.1	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3.8	6.4	6.9	16.4	28.7	25.0	10.7	1.2	0.0	0.0	151.69 (30) ^{***}
	중하층	1.0	2.5	4.0	11.6	18.4	31.6	20.7	8.8	1.3	0.2	0.0	
	중간층	0.4	1.2	3.5	9.0	18.7	30.6	23.0	12.3	1.2	0.1	0.2	
	중상층(상층)	0.0	0.0	4.0	7.7	14.8	24.7	26.4	13.8	4.4	1.9	2.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7	1.9	4.6	9.0	17.8	30.6	23.0	10.8	1.5	0.0	0.1	101.78 (40) ^{***}
	200만 원대	0.2	2.6	3.3	12.3	19.0	33.5	20.9	7.0	0.6	0.2	0.3	
	300만 원대	0.9	1.4	4.8	10.1	18.7	28.1	21.0	13.0	1.9	0.1	0.0	
	400만 원대	0.2	2.1	2.2	4.9	17.6	28.0	25.1	17.1	2.5	0.3	0.0	
	500만 원 이상	1.1	1.7	4.1	9.5	16.4	28.7	24.9	11.3	0.8	0.9	0.6	
학력	중졸 이하	1.0	2.1	5.0	7.8	18.0	31.0	21.0	13.4	0.7	0.0	0.0	24.419 (20)
	고졸	0.4	2.0	4.8	9.6	18.9	30.1	22.0	10.4	1.4	0.1	0.3	
	대졸 이상	0.7	1.8	3.2	10.1	17.3	30.6	23.6	10.7	1.6	0.2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	2.3	3.4	9.3	18.4	30.1	22.2	12.0	1.3	0.2	0.1	89.583 (50) ^{***}
	임시·일용직	0.9	1.2	5.4	10.1	16.1	30.5	23.1	11.1	1.3	0.4	0.0	
	고용주, 자영자	0.9	2.2	4.1	12.3	18.5	29.0	22.0	9.3	1.0	0.2	0.5	
	무급가족종사자	3.1	0.7	7.4	11.9	15.4	26.3	10.5	20.0	4.7	0.0	0.0	
	실업자	0.0	2.4	6.2	12.8	23.9	29.9	18.8	5.7	0.2	0.0	0.0	
	비경제활동인구	0.2	1.6	4.0	7.2	17.3	32.3	24.7	10.7	1.9	0.0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	2.8	4.9	10.1	14.2	27.6	22.8	13.0	1.8	0.8	0.8	44.250 (30)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	1.7	3.7	9.7	18.6	30.5	22.6	10.6	1.3	0.2	0.1	
	숙련 및 기술직	0.4	3.2	3.6	12.3	18.5	27.6	20.9	12.2	1.0	0.0	0.3	
	단순노무 종사자	0.3	1.2	5.9	11.3	17.0	33.1	18.6	12.1	0.5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2.5	3.2	8.7	17.8	30.6	22.5	12.3	1.3	0.3	0.1	18.349 (10) [*]
	비정규직	0.7	1.1	5.9	12.8	18.7	29.4	19.6	10.2	1.1	0.4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	1.8	4.0	10.5	19.2	29.4	23.2	9.9	0.8	0.3	0.1	32.941 (20) [*]
	중도적	0.6	2.0	4.2	10.1	17.0	30.3	22.9	10.9	1.8	0.2	0.0	
	진보적	0.7	2.1	3.9	7.4	18.9	32.0	21.1	12.0	1.3	0.0	0.6	

〈부표 3-20〉 한국 사회 인식 (4) 불안 VS 희망

(단위: %)

구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1	2	3	4	5	6	7	8	9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χ^2 (df)
전체		1.0	3.0	6.6	12.4	20.1	26.8	19.2	9.2	1.5	0.1	0.2	
성별	남성	1.3	3.0	7.6	12.6	19.7	28.1	16.7	9.0	1.7	0.2	0.1	28.737
	여성	0.7	3.0	5.6	12.2	20.5	25.4	21.7	9.3	1.2	0.1	0.2	(10)**
연령	20대 이하	0.4	4.5	6.4	11.2	19.5	24.1	21.6	10.1	1.9	0.4	0.1	43.688 (40)
	30대	1.6	2.5	6.7	12.2	21.6	26.5	17.9	9.0	1.8	0.2	0.0	
	40대	1.2	2.8	6.8	15.1	18.9	28.1	17.5	8.0	1.4	0.1	0.2	
	50대	0.8	2.4	7.3	12.4	20.2	26.9	19.7	8.6	1.3	0.0	0.3	
	60대 이상	1.3	2.8	5.9	11.2	20.3	27.7	19.3	10.1	1.2	0.0	0.2	
지역1	수도권	1.0	2.3	6.3	13.3	20.0	25.9	19.8	10.0	1.1	0.1	0.1	18.525
	비수도권	1.1	3.7	6.9	11.4	20.2	27.7	18.6	8.3	1.8	0.2	0.2	(10)*
지역2	대도시	1.3	2.0	6.1	12.2	19.9	26.9	20.4	9.7	1.2	0.1	0.3	59.844 (20)***
	중소도시	0.6	3.3	7.2	12.6	20.4	27.0	18.5	9.1	1.2	0.1	0.2	
	농어촌	2.5	6.2	6.0	12.4	19.3	24.9	17.5	6.5	4.3	0.4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	3.8	5.7	9.4	19.7	27.1	21.2	9.0	1.1	0.0	0.0	228.26 9(30)***
	중하층	1.1	3.7	6.9	13.4	23.9	26.2	17.3	5.7	1.6	0.1	0.1	
	중간층	0.5	2.4	6.0	12.3	18.0	27.4	20.5	11.6	1.1	0.2	0.0	
	중상층(상층)	0.0	0.9	12.8	14.4	10.9	23.3	15.4	13.9	5.0	0.0	3.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	2.8	6.1	10.2	20.9	28.2	18.9	10.2	1.4	0.1	0.1	95.718 (40)***
	200만 원대	1.0	3.9	7.4	12.2	22.1	24.7	21.1	6.0	0.8	0.2	0.5	
	300만 원대	0.9	3.2	5.4	17.2	19.1	24.7	18.6	9.1	1.7	0.1	0.0	
	400만 원대	0.4	2.7	6.3	9.1	21.9	25.7	20.1	11.6	1.9	0.3	0.0	
	500만 원 이상	1.6	1.4	9.0	16.5	12.7	29.1	16.6	10.2	2.5	0.0	0.3	
학력	중졸 이하	1.2	2.2	4.8	8.7	21.5	29.7	21.0	10.2	0.6	0.0	0.0	24.546 (20)
	고졸	1.0	2.9	7.1	12.6	20.1	26.8	18.2	9.5	1.4	0.1	0.3	
	대졸 이상	1.1	3.3	6.6	13.2	19.7	26.0	19.7	8.6	1.7	0.1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2	2.9	7.0	12.5	20.6	24.9	19.6	9.6	1.6	0.1	0.1	100.53 0(50)***
	임시·일용직	1.5	2.9	8.7	13.1	19.3	22.6	23.3	7.3	0.8	0.0	0.5	
	고용주, 자영자	0.6	3.3	7.2	15.9	18.0	28.0	17.6	6.9	2.0	0.2	0.4	
	무급가족종사자	2.9	4.2	6.4	8.0	15.8	32.5	22.3	6.3	1.7	0.0	0.0	
	실업자	1.2	3.6	12.0	11.7	24.7	28.1	11.2	7.4	0.0	0.0	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7	2.7	3.8	9.8	20.6	29.8	19.3	11.6	1.5	0.2	0.1	39.267 (30)
	관리자, 전문가	2.1	3.1	9.6	15.1	15.4	26.7	16.3	8.8	2.1	0.1	0.8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9	2.6	6.6	14.3	20.6	24.9	20.2	8.2	1.5	0.2	0.1	
	숙련 및 기술직	1.4	3.7	7.7	10.7	19.9	26.1	19.3	9.1	1.9	0.0	0.3	
	단순노무 종사자	1.0	5.3	8.5	9.9	16.4	28.5	22.6	7.1	0.3	0.0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	3.1	6.6	11.9	20.7	24.8	20.2	9.7	1.5	0.1	0.1	17.453
	비정규직	1.3	2.8	10.7	13.1	20.6	21.5	21.9	6.6	1.1	0.0	0.5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2.9	6.8	13.1	20.9	25.5	18.5	9.6	0.9	0.1	0.2	38.856 (20)**
	중도적	0.8	2.7	6.8	11.7	20.2	29.2	18.6	8.1	1.5	0.2	0.0	
	진보적	0.9	3.8	5.9	13.1	18.7	22.8	21.3	10.9	2.0	0.0	0.5	

〈부표 3-21〉 한국 사회 인식 (5) 갈등 VS 이해

(단위: %)

구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1	2	3	4	5	6	7	8	9	서로의 의견을 경청 하고 이해 하려 노력 하는 사회	X ² (df)
전체		1.5	3.5	7.0	12.8	18.2	29.2	17.9	8.3	1.4	0.1	0.2	
성별	남성	2.0	4.0	7.0	13.8	17.2	28.9	17.2	7.8	1.8	0.1	0.1	26.328 (10)**
	여성	0.9	3.0	7.1	11.7	19.2	29.6	18.6	8.8	0.9	0.0	0.2	
연령	20대 이하	0.9	4.8	5.8	11.3	19.8	24.9	17.7	11.9	2.7	0.0	0.1	83.175 (40)***
	30대	1.6	1.8	6.6	13.0	15.6	34.1	16.0	9.0	2.2	0.2	0.0	
	40대	1.3	3.2	8.0	14.4	18.6	29.0	17.6	7.2	0.4	0.1	0.2	
	50대	1.8	3.2	7.0	13.7	17.9	28.3	20.3	6.5	1.0	0.0	0.3	
	60대 이상	1.8	4.4	7.6	11.4	18.6	30.1	17.4	7.6	0.9	0.1	0.2	
지역1	수도권	1.8	3.2	7.3	14.4	19.0	28.0	17.0	7.5	1.6	0.0	0.1	24.370 (10)**
	비수도권	1.2	3.8	6.8	11.0	17.2	30.5	18.8	9.2	1.1	0.1	0.2	
지역2	대도시	1.5	3.0	7.2	13.2	18.3	28.0	19.6	7.8	1.1	0.1	0.2	44.837 (20)**
	중소도시	1.4	3.2	6.6	12.6	18.6	30.2	17.1	8.6	1.5	0.0	0.2	
	농어촌	1.5	8.5	8.8	11.6	14.6	29.3	13.9	9.4	1.9	0.4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	5.1	7.2	10.4	18.2	28.0	20.7	7.5	0.6	0.0	0.0	188.54 7(30)***
	중하층	1.5	4.1	8.4	13.1	19.1	29.6	16.3	6.7	1.1	0.1	0.1	
	중간층	0.9	2.6	6.2	13.2	18.1	29.8	18.2	9.4	1.5	0.1	0.0	
	중상층(상층)	4.7	3.3	4.0	12.7	10.9	24.6	19.4	12.7	4.4	0.2	3.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	3.0	7.9	11.0	18.6	31.0	17.5	8.1	1.3	0.1	0.1	112.72 2(40)***
	200만 원대	1.0	4.8	4.5	14.5	18.5	31.7	16.1	7.9	0.5	0.0	0.5	
	300만 원대	1.3	4.0	7.5	14.8	16.6	27.6	19.5	6.7	2.0	0.0	0.0	
	400만 원대	0.7	1.8	5.9	12.5	20.1	26.1	17.1	14.1	1.1	0.5	0.0	
	500만 원 이상	3.4	3.3	9.2	13.3	16.7	21.9	21.1	8.1	2.6	0.0	0.3	
학력	중졸 이하	1.5	3.3	6.0	11.1	19.3	30.5	20.3	7.6	0.3	0.0	0.0	29.299 (20)
	고졸	1.3	3.9	8.2	12.3	18.0	29.7	17.1	7.6	1.3	0.2	0.3	
	대졸 이상	1.6	3.2	6.2	13.6	18.0	28.4	18.0	9.1	1.7	0.0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	4.1	6.2	13.4	17.3	27.2	18.9	9.5	1.6	0.0	0.1	101.29 2(50)***
	임시·일용직	2.6	5.0	8.6	13.2	14.7	30.7	19.2	5.4	0.2	0.0	0.4	
	고용주, 자영자	1.5	3.2	7.5	14.5	18.3	29.4	17.1	7.1	0.9	0.3	0.4	
	무급가족종사자	1.5	10.7	1.8	14.9	28.1	21.0	14.7	7.3	0.0	0.0	0.0	
	실업자	0.5	3.1	8.7	17.5	20.4	31.7	8.8	7.9	1.4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0	2.0	7.3	9.3	19.7	31.5	18.2	8.8	1.9	0.1	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3.7	5.6	6.6	13.9	17.4	22.0	15.6	11.1	3.3	0.1	0.8	80.100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	3.0	7.2	14.3	18.9	27.9	18.1	8.2	0.9	0.1	0.1	
	숙련 및 기술직	1.7	6.3	6.4	11.9	13.5	30.8	21.3	7.0	0.9	0.0	0.3	
	단순노무 종사자	2.1	6.7	5.0	12.9	14.2	35.7	18.2	4.9	0.3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	4.4	5.6	12.7	17.4	27.3	19.3	9.8	1.8	0.0	0.1	30.176 (9)***
	비정규직	1.8	5.0	9.7	15.0	16.6	29.5	16.8	5.0	0.1	0.0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	3.9	6.9	14.2	21.4	26.0	17.6	7.8	1.1	0.0	0.2	58.972 (20)***
	중도적	1.8	3.3	6.5	11.4	17.8	32.4	17.7	7.4	1.5	0.2	0.0	
	진보적	1.4	3.5	8.5	14.1	14.9	26.2	18.6	11.0	1.3	0.0	0.5	

〈부표 3-22〉 지난 10년간 가구 생활수준 변화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X ² (df)
전체		0.8	24.8	55.6	16.9	2.0	
성별	남성	0.8	25.2	55.8	16.1	2.2	2.877(4)
	여성	0.7	24.4	55.4	17.8	1.8	
연령	20대 이하	0.9	32.6	58.2	7.6	0.8	240.612(16)***
	30대	0.1	30.5	60.0	9.1	0.2	
	40대	1.3	24.9	55.7	16.4	1.8	
	50대	1.0	23.9	53.8	19.4	1.9	
	60대 이상	0.4	15.7	52.1	27.5	4.3	
지역1	수도권	0.4	24.3	56.8	16.9	1.5	11.049(4)*
	비수도권	1.1	25.3	54.3	16.9	2.4	
지역2	대도시	1.0	25.3	56.0	16.0	1.7	13.867(8)
	중소도시	0.6	23.3	55.9	18.0	2.2	
	농어촌	1.0	31.0	51.2	15.0	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	12.0	48.5	31.0	8.4	463.035(12)***
	중하층	0.2	21.7	57.4	19.0	1.7	
	중간층	0.8	28.9	57.8	12.1	0.5	
	중상층(상층)	7.4	47.8	39.3	5.5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4	20.0	54.5	21.5	3.6	195.065(16)***
	200만 원대	0.9	23.4	57.5	17.4	0.7	
	300만 원대	0.2	26.9	60.8	10.9	1.1	
	400만 원대	0.4	28.5	57.8	12.4	0.9	
	500만 원 이상	2.9	41.1	45.8	10.0	0.3	
학력	중졸 이하	0.2	15.6	53.1	26.0	5.0	112.350(8)***
	고졸	0.6	22.7	55.8	18.8	2.1	
	대졸 이상	1.0	29.2	56.0	12.7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9	30.3	59.2	9.3	0.4	198.871(20)***
	임시·일용직	0.8	19.5	52.0	25.5	2.1	
	고용주, 자영자	1.2	23.0	49.7	22.8	3.3	
	무급가족종사자	0.0	28.2	53.9	16.2	1.8	
	실업자	0.0	9.8	55.3	30.7	4.1	
	비경제활동인구	0.4	22.9	56.3	17.5	2.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7	38.0	48.2	9.2	0.9	102.19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6	26.1	56.3	15.8	1.1	
	숙련 및 기술직	0.6	24.5	56.3	16.9	1.7	
	단순노무 종사자	0.0	14.1	56.3	24.0	5.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	31.1	59.0	8.7	0.3	86.044(4)***
	비정규직	1.1	20.5	53.3	22.9	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21.2	51.3	23.4	3.5	72.066(8)***
	중도적	0.8	26.2	57.3	14.5	1.2	
	진보적	1.0	26.2	57.1	14.0	1.7	

〈부표 3-24〉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7	44.2	38.6	8.7	6.8	
성별	남성	1.9	43.9	39.7	8.9	5.6	10.755(4)*
	여성	1.5	44.5	37.4	8.5	8.0	
연령	20대 이하	4.1	45.5	36.2	5.7	8.6	61.878(16)***
	30대	1.4	43.7	35.5	10.7	8.7	
	40대	1.2	43.9	38.6	9.7	6.6	
	50대	1.2	43.3	40.9	8.1	6.4	
	60대 이상	0.9	44.7	40.6	9.2	4.7	
지역1	수도권	1.5	42.5	37.4	9.4	9.2	42.140(4)***
	비수도권	1.9	45.9	39.8	8.0	4.3	
지역2	대도시	1.3	44.6	39.5	7.6	7.0	13.490(8)
	중소도시	2.2	43.8	37.5	9.6	7.0	
	농어촌	0.7	44.4	40.9	9.1	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	30.0	48.6	14.2	6.7	142.680(12)***
	중하층	0.8	41.0	41.2	9.5	7.5	
	중간층	2.3	50.7	33.8	6.9	6.2	
	중상층(상층)	6.3	46.7	35.7	3.9	7.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0	44.8	38.3	7.9	7.0	56.564(16)***
	200만 원대	1.3	40.8	37.9	13.7	6.2	
	300만 원대	0.7	43.8	41.0	7.2	7.3	
	400만 원대	1.2	46.1	42.3	5.2	5.2	
	500만 원 이상	3.1	48.1	34.8	6.3	7.8	
학력	중졸 이하	0.6	41.4	45.2	8.1	4.8	21.144(8)**
	고졸	2.1	43.8	38.6	9.4	6.1	
	대졸 이상	1.6	45.3	36.9	8.2	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4	44.7	38.6	8.9	6.5	100.080(20)***
	임시·일용직	0.7	39.1	36.4	15.1	8.7	
	고용주, 자영자	1.5	43.9	42.4	8.2	4.0	
	무급가족종사자	0.7	49.4	39.2	7.4	3.3	
	실업자	0.8	30.4	42.0	15.4	11.4	
	비경제활동인구	2.9	48.1	36.2	5.0	7.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4	45.0	35.0	9.6	7.1	34.33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43.4	39.9	9.6	6.3	
	숙련 및 기술직	1.3	47.6	38.8	7.5	4.8	
	단순노무 종사자	1.9	32.7	42.9	16.1	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	45.6	38.2	8.7	6.2	10.854(4)*
	비정규직	1.2	39.3	38.5	12.0	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	43.8	39.6	8.2	6.9	34.138(8)***
	중도적	1.5	46.3	38.3	8.9	5.1	
	진보적	2.3	40.0	38.2	9.0	10.5	

〈부표 3-25〉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 (df)
전체		9.4	64.4	23.0	0.6	2.6	
성별	남성	10.9	64.3	22.8	0.5	1.6	27.444(4)***
	여성	7.8	64.5	23.3	0.7	3.6	
연령	20대 이하	5.3	59.3	30.5	0.5	4.4	72.212(16)***
	30대	9.0	68.7	19.5	0.3	2.5	
	40대	11.1	64.1	21.3	0.5	2.9	
	50대	11.4	66.2	21.1	0.4	0.8	
	60대 이상	9.3	63.8	23.2	1.1	2.6	
지역1	수도권	9.7	62.6	24.2	0.6	3.0	7.280(4)
	비수도권	9.0	66.3	21.9	0.7	2.2	
지역2	대도시	7.9	62.7	27.0	0.5	2.0	33.201(8)***
	중소도시	10.3	65.7	20.2	0.7	3.1	
	농어촌	11.4	65.6	19.8	0.5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	65.4	18.2	0.6	3.0	24.758(12)*
	중하층	8.3	66.8	21.8	0.7	2.4	
	중간층	9.3	62.2	25.2	0.6	2.7	
	중상층(상층)	8.1	64.3	25.8	0.0	1.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2	63.4	22.4	0.8	4.0	39.435(16)**
	200만 원대	8.8	68.1	21.4	0.4	1.3	
	300만 원대	9.8	63.6	23.7	0.5	2.4	
	400만 원대	8.3	62.8	27.4	0.5	1.1	
	500만 원 이상	11.1	63.0	24.7	0.4	0.7	
학력	중졸 이하	8.6	62.0	25.1	1.2	3.1	19.130(8)*
	고졸	8.7	62.7	25.2	0.7	2.7	
	대졸 이상	10.1	66.7	20.5	0.3	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7	64.7	23.3	0.5	1.9	57.922(20)***
	임시·일용직	11.0	62.8	24.1	0.5	1.6	
	고용주, 자영자	9.9	68.0	20.7	0.3	1.1	
	무급가족종사자	5.3	71.5	22.7	0.5	0.0	
	실업자	9.7	63.5	23.8	0.9	2.1	
	비경제활동인구	7.9	61.8	23.9	1.0	5.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2	67.6	18.7	0.1	1.3	10.13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4	65.2	23.3	0.6	1.6	
	숙련 및 기술직	9.4	65.2	23.5	0.4	1.5	
	단순노무 종사자	11.5	64.5	21.9	0.0	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0	63.8	23.7	0.6	2.0	2.800(4)
	비정규직	8.6	68.1	21.0	0.6	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	65.3	22.2	0.9	1.7	16.140(8)*
	중도적	8.7	63.1	24.8	0.5	2.8	
	진보적	10.1	66.2	20.0	0.5	3.2	

〈부표 3-26〉 집단 간 갈등 정도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5.5	53.4	27.9	0.8	2.4	
성별	남성	16.0	52.6	28.2	1.0	2.1	5.966(4)
	여성	15.0	54.3	27.6	0.5	2.6	
연령	20대 이하	9.5	50.5	35.7	1.5	2.8	85.588(16)***
	30대	17.1	52.1	28.1	0.0	2.7	
	40대	13.3	59.9	24.4	0.4	2.0	
	50대	18.7	55.5	22.0	1.2	2.6	
	60대 이상	17.9	49.3	30.1	0.7	2.0	
지역1	수도권	17.9	52.5	26.3	0.6	2.7	22.488(4)***
	비수도권	13.0	54.4	29.6	0.9	2.0	
지역2	대도시	14.8	53.4	30.1	0.9	0.9	37.849(8)***
	중소도시	16.1	53.0	26.5	0.7	3.7	
	농어촌	15.6	56.3	25.1	0.8	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9	55.1	18.0	0.2	2.8	60.188(12)***
	중하층	14.8	53.9	28.4	0.6	2.3	
	중간층	13.8	52.3	30.3	1.2	2.4	
	중상층(상층)	13.7	55.3	29.5	0.4	1.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6.3	51.3	28.6	0.8	2.9	27.419(16)*
	200만 원대	14.7	53.5	28.8	0.5	2.5	
	300만 원대	15.0	55.7	26.2	0.4	2.6	
	400만 원대	15.1	59.0	25.2	0.7	0.0	
	500만 원 이상	15.0	54.0	27.6	1.9	1.5	
학력	중졸 이하	12.1	52.2	31.8	1.3	2.6	14.178(8)
	고졸	16.6	52.6	27.2	0.8	2.8	
	대졸 이상	15.3	54.5	27.6	0.6	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5.6	53.8	27.7	0.5	2.4	28.790(20)
	임시·일용직	17.1	51.6	29.0	0.6	1.7	
	고용주, 자영자	14.7	57.2	25.1	1.0	1.9	
	무급가족종사자	16.6	61.5	20.6	0.0	1.3	
	실업자	17.7	46.9	34.5	0.0	0.9	
	비경제활동인구	14.9	51.5	29.0	1.3	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5	57.9	25.4	0.8	0.4	18.40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6	54.3	27.4	0.6	2.1	
	숙련 및 기술직	15.1	53.4	28.0	1.0	2.5	
	단순노무 종사자	17.4	54.1	23.5	0.0	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5	53.9	28.0	0.4	2.2	3.421(4)
	비정규직	17.7	52.6	26.0	1.0	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4	52.0	26.9	0.8	2.9	13.745(8)
	중도적	14.1	54.0	29.2	0.8	1.8	
	진보적	16.3	53.9	26.3	0.6	3.0	

〈부표 3-27〉 집단 간 갈등 정도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23.6	54.8	18.8	1.1	1.7	
성별	남성	22.7	55.8	19.1	1.6	0.8	32.131(4)***
	여성	24.5	53.8	18.4	0.6	2.7	
연령	20대 이하	20.3	56.1	19.4	2.5	1.8	43.047(16)***
	30대	26.4	54.8	15.7	1.0	2.0	
	40대	25.6	55.9	17.0	0.5	1.0	
	50대	22.2	54.6	20.8	1.2	1.1	
	60대 이상	23.5	53.4	20.0	0.4	2.7	
지역1	수도권	23.9	52.9	19.8	1.0	2.4	15.177(4)**
	비수도권	23.2	56.9	17.6	1.2	1.1	
지역2	대도시	18.5	56.9	22.8	1.2	0.6	85.631(8)***
	중소도시	27.4	53.5	15.4	1.0	2.7	
	농어촌	27.0	52.6	17.7	0.6	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4	52.1	14.4	0.8	3.3	32.429(12)**
	중하층	23.2	55.9	18.3	1.1	1.6	
	중간층	22.4	54.2	20.5	1.3	1.5	
	중상층(상층)	20.7	61.2	17.4	0.0	0.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3.5	54.0	18.0	1.5	2.9	55.965(16)***
	200만 원대	24.7	54.6	19.3	0.3	1.0	
	300만 원대	27.4	51.7	18.4	1.1	1.4	
	400만 원대	19.6	59.6	19.3	1.5	0.0	
	500만 원 이상	18.3	60.3	20.6	0.5	0.3	
학력	중졸 이하	19.8	53.4	21.5	0.8	4.6	42.841(8)***
	고졸	22.3	55.2	19.4	1.5	1.7	
	대졸 이상	25.8	54.9	17.4	0.7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3.8	55.4	18.5	0.9	1.3	72.517(20)***
	임시·일용직	28.3	48.2	22.4	0.0	1.1	
	고용주, 자영자	22.3	59.2	17.3	0.8	0.4	
	무급가족종사자	23.7	57.0	13.8	0.0	5.4	
	실업자	24.4	46.4	25.9	2.0	1.3	
	비경제활동인구	22.0	55.0	17.6	2.0	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8	62.9	16.8	0.4	0.1	31.56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4.8	55.0	18.5	0.8	0.8	
	숙련 및 기술직	24.9	51.3	20.9	0.7	2.2	
	단순노무 종사자	22.9	56.0	17.6	0.0	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7	55.7	18.5	0.7	1.5	4.911(4)
	비정규직	28.0	50.4	19.9	0.7	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8	54.2	19.0	0.8	2.2	11.975(8)
	중도적	23.0	55.2	19.6	1.0	1.2	
	진보적	24.7	55.0	16.5	1.6	2.3	

〈부표 3-28〉 집단 간 갈등 정도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1.4	41.3	39.7	3.8	3.9	
성별	남성	11.3	42.1	39.4	3.7	3.5	2.245(4)
	여성	11.5	40.4	40.0	3.9	4.2	
연령	20대 이하	9.0	40.1	38.4	5.5	7.0	53.058(16)***
	30대	13.8	40.6	39.1	2.6	4.0	
	40대	12.9	43.5	37.8	2.8	3.1	
	50대	10.9	42.7	39.2	4.9	2.4	
	60대 이상	10.7	39.5	43.0	3.4	3.4	
지역1	수도권	12.1	37.9	41.9	3.7	4.4	22.272(4)***
	비수도권	10.6	44.8	37.3	4.0	3.3	
지역2	대도시	11.5	39.4	41.9	4.6	2.5	29.844(8)***
	중소도시	11.4	42.7	37.4	3.3	5.2	
	농어촌	10.5	42.0	42.0	2.7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	38.3	38.5	2.9	4.5	28.127(12)**
	중하층	11.4	43.0	38.4	4.0	3.2	
	중간층	9.9	40.4	41.2	4.1	4.4	
	중상층(상층)	14.0	44.3	38.7	1.4	1.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9	40.0	38.8	4.5	4.8	30.894(16)*
	200만 원대	9.5	43.1	40.6	3.4	3.5	
	300만 원대	12.5	41.9	37.6	3.6	4.4	
	400만 원대	8.6	44.6	43.0	2.6	1.2	
	500만 원 이상	13.7	38.9	42.1	3.1	2.1	
학력	중졸 이하	10.2	39.7	42.7	4.2	3.2	13.738(8)
	고졸	10.6	40.5	40.0	4.4	4.5	
	대졸 이상	12.5	42.4	38.6	3.1	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5	41.6	39.8	3.3	3.9	30.820(20)
	임시·일용직	13.2	42.5	37.6	4.2	2.5	
	고용주, 자영자	10.3	45.0	39.2	3.2	2.4	
	무급가족종사자	8.0	41.6	39.7	4.7	6.0	
	실업자	10.9	34.4	46.6	4.8	3.3	
	비경제활동인구	11.5	38.8	39.5	4.7	5.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7	40.0	39.0	2.5	3.8	28.47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1	43.3	39.2	3.8	2.6	
	숙련 및 기술직	7.9	43.8	39.6	3.3	5.4	
	단순노무 종사자	17.4	37.9	39.4	1.8	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6	42.2	40.4	3.2	3.6	13.530(4)**
	비정규직	16.8	40.1	36.0	3.9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6	38.5	42.1	3.5	3.3	30.170(8)***
	중도적	10.0	41.9	40.4	4.3	3.4	
	진보적	13.0	43.4	34.9	3.0	5.7	

〈부표 3-29〉 집단 간 갈등 정도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27.0	52.0	17.4	1.3	2.4	
성별	남성	27.3	51.4	17.7	1.5	2.1	3.179(4)
	여성	26.7	52.6	17.0	1.1	2.6	
연령	20대 이하	24.2	49.7	20.9	1.5	3.7	41.955(16)***
	30대	29.3	48.6	19.4	1.0	1.8	
	40대	23.9	59.0	14.6	1.3	1.2	
	50대	28.2	51.1	17.0	1.5	2.2	
	60대 이상	29.0	51.0	15.9	1.1	2.9	
지역1	수도권	24.5	52.2	18.6	1.4	3.3	28.933(4)***
	비수도권	29.6	51.8	16.1	1.2	1.3	
지역2	대도시	22.5	58.8	16.1	0.9	1.6	61.754(8)***
	중소도시	30.7	46.8	18.0	1.6	2.9	
	농어촌	27.6	48.5	20.2	1.2	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5	46.3	8.0	0.9	3.3	118.710(12)***
	중하층	26.6	54.1	15.6	1.0	2.7	
	중간층	23.4	52.0	21.5	1.6	1.6	
	중상층(상층)	22.6	51.9	18.3	2.0	5.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8.9	51.6	14.5	1.0	4.0	70.487(16)***
	200만 원대	26.0	52.4	18.1	2.1	1.5	
	300만 원대	26.8	49.7	21.2	1.8	0.5	
	400만 원대	21.0	57.5	19.8	1.1	0.5	
	500만 원 이상	26.1	52.1	19.5	0.3	2.1	
학력	중졸 이하	26.6	53.5	16.6	0.5	2.8	34.272(8)***
	고졸	26.8	51.0	16.8	1.9	3.6	
	대졸 이상	27.3	52.5	18.1	1.0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7.4	51.0	19.2	1.5	0.9	58.513(20)***
	임시·일용직	30.1	51.1	16.0	1.0	1.9	
	고용주, 자영자	23.4	55.0	18.4	1.1	2.2	
	무급가족종사자	33.5	42.5	17.7	3.4	2.9	
	실업자	26.1	52.7	16.3	1.7	3.2	
	비경제활동인구	27.5	52.1	14.7	1.0	4.7	
직업	관리자, 전문가	29.4	49.5	19.8	0.5	0.8	37.75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4	52.5	18.8	1.2	1.2	
	숙련 및 기술직	24.5	54.0	17.0	2.8	1.7	
	단순노무 종사자	33.6	44.7	16.3	0.5	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1	51.2	19.1	1.7	0.9	4.399(4)
	비정규직	28.8	51.0	17.4	1.0	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5	48.5	17.3	1.2	2.6	25.710(8)**
	중도적	25.6	54.3	17.4	1.1	1.7	
	진보적	25.7	51.2	17.4	1.9	3.7	

〈부표 3-30〉 집단 간 갈등 정도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1.2	33.5	43.9	8.8	2.6	
성별	남성	11.5	31.7	45.6	9.2	2.1	12.880(4)*
	여성	10.9	35.3	42.2	8.4	3.2	
연령	20대 이하	16.0	33.1	38.4	9.7	2.8	70.379(16)***
	30대	14.7	33.2	42.9	7.1	2.1	
	40대	8.8	39.4	42.3	6.4	3.2	
	50대	9.4	32.3	46.6	9.2	2.4	
	60대 이상	8.8	30.0	47.6	11.0	2.7	
지역1	수도권	10.9	32.7	43.7	10.3	2.5	11.770(4)*
	비수도권	11.6	34.3	44.1	7.2	2.8	
지역2	대도시	11.8	34.3	44.1	8.0	1.9	13.750(8)
	중소도시	10.9	32.3	44.3	9.4	3.1	
	농어촌	10.2	36.4	40.2	9.2	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8	32.8	41.6	12.3	2.6	22.886(12)*
	중하층	10.9	34.4	44.7	7.6	2.3	
	중간층	11.0	32.9	44.3	9.1	2.7	
	중상층(상층)	16.4	33.9	40.1	4.8	4.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7	33.6	42.6	9.5	2.6	28.268(16)*
	200만 원대	10.2	31.5	46.5	8.0	3.8	
	300만 원대	9.4	36.8	42.7	9.2	2.0	
	400만 원대	9.8	36.0	44.7	6.8	2.7	
	500만 원 이상	15.2	29.9	45.0	8.6	1.4	
학력	중졸 이하	7.3	30.6	44.6	12.9	4.6	33.125(8)***
	고졸	11.0	32.6	44.9	9.2	2.4	
	대졸 이상	12.4	35.1	42.8	7.4	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7	32.9	43.3	8.9	3.2	47.419(20)**
	임시·일용직	16.2	27.1	45.4	9.8	1.5	
	고용주, 자영자	7.7	38.2	45.2	6.9	1.9	
	무급가족종사자	7.6	32.7	50.4	5.4	4.0	
	실업자	16.5	33.0	40.6	8.5	1.4	
	비경제활동인구	10.1	33.7	43.4	9.8	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5	37.8	40.7	7.2	0.7	27.77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7	32.9	43.7	9.1	2.5	
	숙련 및 기술직	7.5	33.9	48.4	6.6	3.5	
	단순노무 종사자	12.4	28.6	45.2	8.9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8	31.9	44.1	8.7	3.4	8.243(4)
	비정규직	14.6	33.0	42.6	8.7	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5	33.5	40.7	11.3	2.1	24.591(8)**
	중도적	10.0	32.7	46.2	8.2	2.9	
	진보적	12.3	35.1	42.7	7.0	2.8	

〈부표 3-31〉 집단 간 갈등 정도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0.5	39.3	40.4	7.3	2.5	
성별	남성	11.2	38.7	40.3	7.6	2.2	3.397(4)
	여성	9.9	39.9	40.4	7.1	2.7	
연령	20대 이하	7.5	39.5	39.2	10.9	2.9	40.009(16)**
	30대	11.7	37.4	40.1	7.9	2.8	
	40대	12.6	40.5	39.7	4.9	2.3	
	50대	10.1	42.2	39.1	6.2	2.3	
	60대 이상	10.6	36.8	43.1	7.3	2.2	
지역1	수도권	11.4	39.5	38.7	8.3	2.1	12.264(4)*
	비수도권	9.7	39.0	42.1	6.4	2.8	
지역2	대도시	11.9	39.8	40.8	5.7	1.8	25.379(8)**
	중소도시	9.5	38.1	40.8	8.8	2.9	
	농어촌	10.3	43.8	35.6	7.1	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	39.4	36.5	10.7	3.8	47.508(12)***
	중하층	12.1	40.6	39.1	6.0	2.3	
	중간층	9.0	38.4	43.4	7.1	2.1	
	중상층(상층)	17.0	36.1	32.3	10.9	3.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4	39.7	40.5	8.0	2.5	46.373(16)***
	200만 원대	8.8	39.2	40.8	7.5	3.8	
	300만 원대	10.3	40.6	41.2	5.2	2.7	
	400만 원대	14.7	38.5	40.0	6.8	0.0	
	500만 원 이상	16.0	36.3	38.1	8.4	1.2	
학력	중졸 이하	8.9	39.9	40.7	8.2	2.4	20.048(8)*
	고졸	8.7	39.7	40.9	7.7	2.9	
	대졸 이상	12.8	38.7	39.8	6.8	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9	39.7	38.1	7.1	3.3	44.648(20)**
	임시·일용직	11.1	39.0	42.9	5.0	2.0	
	고용주, 자영자	9.4	41.9	42.0	5.5	1.2	
	무급가족종사자	11.5	37.3	42.6	4.9	3.8	
	실업자	13.7	39.2	34.9	10.7	1.4	
	비경제활동인구	8.5	37.0	42.3	9.6	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9	41.5	33.9	9.0	0.6	33.56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7	39.3	41.1	6.0	2.9	
	숙련 및 기술직	8.0	43.1	42.0	4.8	2.1	
	단순노무 종사자	16.2	36.7	35.7	7.5	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	39.6	38.4	7.3	3.4	10.946(4)*
	비정규직	13.3	42.3	38.5	3.9	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7	41.0	39.3	7.1	1.8	21.642(8)**
	중도적	9.2	38.0	42.0	8.1	2.8	
	진보적	13.4	40.0	38.1	5.9	2.6	

〈부표 3-32〉 집단 간 갈등 정도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51.7	38.7	7.9	0.5	1.2	
성별	남성	53.4	36.5	8.6	0.6	0.9	12.555(4)*
	여성	49.9	40.9	7.3	0.4	1.5	
연령	20대 이하	42.7	45.0	9.4	0.6	2.3	41.237(16)**
	30대	55.0	35.1	8.4	0.2	1.3	
	40대	52.8	38.2	7.2	0.8	1.0	
	50대	53.2	37.5	8.0	0.7	0.6	
	60대 이상	53.6	37.8	7.2	0.3	1.0	
지역1	수도권	50.2	39.8	8.2	0.4	1.3	4.556(4)
	비수도권	53.2	37.5	7.6	0.6	1.1	
지역2	대도시	49.9	40.6	8.3	0.3	0.9	10.769(8)
	중소도시	52.6	37.6	7.6	0.7	1.5	
	농어촌	55.4	35.3	7.6	0.5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5	38.4	9.0	0.1	1.2	26.186(12)*
	중하층	54.6	37.8	6.1	0.4	1.2	
	중간층	49.7	39.2	9.2	0.8	1.0	
	중상층(상층)	49.0	41.1	6.9	0.4	2.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0.6	39.8	7.6	0.4	1.6	30.163(16)*
	200만 원대	52.7	37.9	7.4	0.5	1.5	
	300만 원대	53.7	37.4	8.0	0.1	0.8	
	400만 원대	47.3	41.9	9.6	1.1	0.0	
	500만 원 이상	53.8	35.2	9.1	1.5	0.4	
학력	중졸 이하	53.3	39.3	5.9	0.6	0.9	20.073(8)*
	고졸	49.0	39.6	9.3	0.3	1.6	
	대졸 이상	53.8	37.6	7.1	0.7	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3.9	36.0	8.3	0.8	1.0	37.561(20)*
	임시·일용직	49.3	42.6	7.0	0.3	0.8	
	고용주, 자영자	52.8	38.7	7.3	0.4	0.7	
	무급가족종사자	70.1	24.0	5.9	0.0	0.0	
	실업자	45.8	41.9	9.4	0.0	3.0	
	비경제활동인구	48.6	41.2	8.1	0.4	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53.8	37.6	5.8	1.9	0.9	24.02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3.5	37.5	8.0	0.3	0.7	
	숙련 및 기술직	50.5	39.6	8.6	0.3	0.9	
	단순노무 종사자	57.6	31.8	6.4	1.6	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3.5	36.0	8.7	0.7	1.1	3.924(4)
	비정규직	51.7	40.2	6.5	0.8	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4.8	35.7	7.5	1.0	0.9	27.640(8)**
	중도적	48.9	40.8	9.0	0.3	1.1	
	진보적	54.1	37.6	6.2	0.5	1.7	

〈부표 3-33〉 집단 간 갈등 정도 (8) 지역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4.3	44.9	26.6	2.3	2.0	
성별	남성	24.2	44.9	26.4	2.6	1.8	2.208(4)
	여성	24.4	44.8	26.8	2.0	2.1	
연령	20대 이하	17.4	40.7	33.2	3.9	4.7	105.484(16) ***
	30대	28.5	41.7	26.4	1.5	2.0	
	40대	27.7	44.1	22.9	3.2	2.1	
	50대	23.8	47.1	26.1	1.9	1.1	
	60대 이상	24.0	48.8	25.3	1.2	0.7	
지역1	수도권	27.3	45.2	24.1	1.3	2.1	42.415(4)***
	비수도권	21.1	44.5	29.3	3.3	1.8	
지역2	대도시	20.9	46.6	28.3	2.5	1.7	46.694(8)***
	중소도시	27.9	43.1	25.1	1.6	2.3	
	농어촌	19.2	46.8	27.0	5.3	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5	47.0	28.5	1.2	0.9	38.364(12)***
	중하층	23.6	45.3	26.4	2.5	2.2	
	중간층	25.7	44.1	26.3	2.2	1.7	
	중상층(상층)	20.5	42.4	25.4	5.5	6.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2.4	45.2	27.4	2.7	2.3	22.037(16)
	200만 원대	26.1	45.4	25.3	1.3	2.0	
	300만 원대	25.5	44.0	27.1	1.8	1.6	
	400만 원대	24.5	48.4	22.0	2.9	2.2	
	500만 원 이상	25.9	40.9	28.9	3.3	1.0	
학력	중졸 이하	22.2	48.4	25.9	2.8	0.7	17.031(8)*
	고졸	23.4	45.9	26.8	1.6	2.4	
	대졸 이상	25.7	43.0	26.6	2.8	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5.5	43.0	27.3	2.3	1.9	36.294(20)*
	임시·일용직	28.4	44.7	23.7	2.2	1.1	
	고용주, 자영자	23.1	48.4	25.9	1.5	1.2	
	무급가족종사자	11.6	52.6	30.1	5.7	0.0	
	실업자	20.1	40.8	32.4	3.0	3.6	
	비경제활동인구	23.1	45.4	26.1	2.6	2.8	
직업	관리자, 전문가	29.6	42.1	22.2	4.2	2.0	22.68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4.8	45.6	26.4	1.9	1.3	
	숙련 및 기술직	23.7	43.4	29.7	1.8	1.4	
	단순노무 종사자	22.1	48.3	24.4	1.8	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8	42.5	27.3	2.3	2.1	4.075(4)
	비정규직	24.6	45.7	25.9	2.7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9	46.1	23.0	1.7	1.3	30.179(8)***
	중도적	22.3	44.1	29.1	2.6	1.9	
	진보적	24.1	45.1	25.6	2.2	2.9	

〈부표 3-34〉 집단 간 갈등 정도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14.8	48.2	30.3	1.9	4.7	
성별	남성	15.4	47.8	30.6	2.0	4.2	4.706(4)
	여성	14.2	48.6	30.1	1.8	5.3	
연령	20대 이하	12.4	44.8	31.7	3.6	7.5	47.730(16)***
	30대	14.7	49.5	30.5	0.9	4.4	
	40대	14.4	49.5	30.1	1.4	4.6	
	50대	14.6	50.3	29.7	2.5	2.9	
	60대 이상	17.4	46.7	30.0	1.3	4.7	
지역1	수도권	14.2	49.9	28.2	1.4	6.3	37.041(4)***
	비수도권	15.5	46.4	32.6	2.4	3.1	
지역2	대도시	15.1	43.0	37.0	1.9	3.0	86.805(8)***
	중소도시	14.3	51.1	26.1	2.0	6.4	
	농어촌	16.8	56.9	21.8	1.2	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0	47.8	29.2	2.8	5.3	21.224(12)*
	중하층	16.8	47.1	29.8	1.5	4.8	
	중간층	13.6	48.5	31.7	1.8	4.4	
	중상층(상층)	11.2	54.7	24.1	3.3	6.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9	46.1	29.4	3.0	5.6	53.514(16)***
	200만 원대	11.9	49.9	31.3	1.1	5.7	
	300만 원대	15.3	45.5	34.6	1.2	3.5	
	400만 원대	14.4	53.0	29.1	1.0	2.5	
	500만 원 이상	16.4	53.2	26.6	0.8	2.9	
학력	중졸 이하	15.2	46.7	31.0	1.0	6.2	24.762(8)**
	고졸	14.0	45.8	32.3	2.7	5.1	
	대졸 이상	15.5	50.8	28.3	1.4	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4.1	49.7	30.4	0.8	4.9	58.715(20)***
	임시·일용직	15.8	48.2	30.7	2.5	2.9	
	고용주, 자영자	15.1	50.8	29.5	1.6	3.0	
	무급가족종사자	24.0	48.5	26.6	0.0	0.9	
	실업자	17.0	42.2	31.5	5.5	3.7	
	비경제활동인구	14.4	45.0	30.7	2.9	7.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2	49.5	28.7	1.6	4.0	7.76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5	50.0	29.5	1.4	3.6	
	숙련 및 기술직	12.7	49.4	32.1	0.8	4.9	
	단순노무 종사자	12.1	48.8	33.4	1.2	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7	50.1	30.5	0.9	4.8	8.312(4)
	비정규직	14.0	47.7	32.0	2.6	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6	44.7	30.5	1.9	5.3	32.436(8)***
	중도적	12.1	50.8	31.3	1.6	4.2	
	진보적	17.5	46.7	28.0	2.5	5.3	

〈부표 3-35〉 집단 간 갈등 정도 (10) 다문화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6.0	39.2	43.2	3.8	7.8	
성별	남성	5.6	39.5	42.6	4.5	7.8	6.805(4)
	여성	6.4	39.0	43.7	3.1	7.8	
연령	20대 이하	6.3	36.4	42.7	6.8	7.7	43.822(16)***
	30대	6.4	41.6	41.4	1.9	8.7	
	40대	6.0	37.3	46.9	3.3	6.5	
	50대	5.5	42.8	42.0	3.7	6.1	
	60대 이상	6.0	38.2	42.7	3.4	9.7	
지역1	수도권	4.9	39.9	41.0	3.7	10.6	55.727(4)***
	비수도권	7.2	38.6	45.5	3.9	4.8	
지역2	대도시	5.4	38.2	47.9	3.7	4.8	55.434(8)***
	중소도시	6.2	39.5	40.5	3.7	10.0	
	농어촌	8.0	43.1	34.8	4.6	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0	36.6	43.0	3.1	10.3	22.272(12)*
	중하층	5.7	40.5	44.0	3.0	6.9	
	중간층	5.7	38.7	43.1	4.7	7.8	
	중상층(상층)	9.4	43.0	37.2	2.6	7.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1	37.0	43.9	4.6	8.5	36.474(16)**
	200만 원대	7.0	39.6	43.4	1.9	8.1	
	300만 원대	5.6	40.7	43.6	4.1	6.1	
	400만 원대	5.9	45.3	39.5	1.4	7.9	
	500만 원 이상	4.2	40.9	41.9	6.0	7.0	
학력	중졸 이하	4.5	35.5	46.8	3.7	9.5	19.217(8)*
	고졸	5.8	37.3	44.3	4.2	8.4	
	대졸 이상	6.6	42.1	41.1	3.5	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3	41.7	40.1	3.4	8.5	42.385(20)**
	임시·일용직	6.9	36.9	48.5	3.1	4.6	
	고용주, 자영자	5.0	41.3	44.5	3.3	5.9	
	무급가족종사자	5.9	34.2	53.5	2.6	3.8	
	실업자	6.4	37.3	39.9	4.3	12.1	
	비경제활동인구	5.9	35.8	44.4	5.0	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6.9	41.6	38.8	5.2	7.5	8.27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1	40.3	43.6	3.1	6.9	
	숙련 및 기술직	5.1	41.0	43.7	3.4	6.9	
	단순노무 종사자	6.1	41.8	42.1	1.5	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1	43.1	39.0	3.5	8.2	18.320(4)**
	비정규직	7.0	35.0	49.5	2.3	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5	37.6	42.7	3.9	9.3	32.360(8)***
	중도적	4.9	40.5	44.9	3.0	6.7	
	진보적	7.8	38.5	39.8	5.6	8.3	

〈부표 3-36〉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해당 없음	X ² (df)
전체		27.1	51.7	21.2	
성별	남성	30.6	55.7	13.7	139.358(2)***
	여성	23.5	47.5	29.0	
연령	20대 이하	10.2	51.2	38.6	479.254(8)***
	30대	21.2	69.9	9.0	
	40대	34.0	52.9	13.1	
	50대	36.7	52.4	10.9	
	60대 이상	29.5	37.7	32.8	
지역1	수도권	27.1	53.3	19.6	7.243(2)*
	비수도권	27.0	50.0	22.9	
지역2	대도시	25.9	54.2	20.0	22.982(4)***
	중소도시	28.4	48.3	23.3	
	농어촌	25.6	59.2	1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0	40.4	27.6	48.160(6)***
	중하층	29.7	50.6	19.7	
	중간층	24.0	55.4	20.7	
	중상층(상층)	22.3	57.8	19.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0.1	32.3	47.6	1,223.241(8)***
	200만 원대	34.6	62.9	2.5	
	300만 원대	31.4	66.9	1.8	
	400만 원대	31.5	66.7	1.8	
	500만 원 이상	29.2	70.6	0.2	
학력	중졸 이하	24.2	38.6	37.2	222.474(4)***
	고졸	30.1	43.9	26.0	
	대졸 이상	25.0	62.5	1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1	85.2	1.7	3,126.257(10)***
	임시·일용직	40.9	53.3	5.8	
	고용주, 자영자	70.5	29.3	0.2	
	무급가족종사자	23.6	73.4	2.9	
	실업자	42.8	27.3	29.9	
	비경제활동인구	7.2	21.4	71.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5	77.5	1.0	55.224(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6.2	61.6	2.3	
	숙련 및 기술직	29.5	70.1	0.4	
	단순노무 종사자	40.4	54.7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4	87.0	1.6	153.649(2)***
	비정규직	33.6	60.3	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5	45.3	25.2	29.724(4)***
	중도적	26.5	53.2	20.3	
	진보적	25.4	56.4	18.2	

〈부표 3-37〉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정도

(단위: %)

구분		10~30%	40~60%	70~90%	100%	X ² (df)
전체		45.9	37.5	8.8	7.7	
성별	남성	48.3	37.3	9.3	5.1	14.739(3)**
	여성	42.8	37.8	8.2	11.2	
연령	20대 이하	46.4	24.5	6.4	22.6	65.405(12)***
	30대	46.8	37.8	6.4	9.1	
	40대	57.4	29.3	9.8	3.5	
	50대	46.0	41.1	5.7	7.2	
	60대 이상	34.4	44.6	13.1	7.8	
지역1	수도권	50.4	34.0	7.8	7.8	10.263(3)*
	비수도권	41.2	41.3	9.9	7.6	
지역2	대도시	44.1	38.6	8.8	8.5	2.966(6)
	중소도시	47.4	36.0	9.2	7.4	
	농어촌	45.7	42.5	5.9	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4	35.0	17.7	10.9	41.850(9)***
	중하층	40.9	43.2	7.8	8.1	
	중간층	54.2	33.0	6.9	5.9	
	중상층(상층)	52.5	35.6	3.0	8.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6.6	37.1	14.8	21.5	184.235(12)***
	200만 원대	51.3	40.7	6.9	1.1	
	300만 원대	56.2	35.9	4.8	3.0	
	400만 원대	57.8	36.6	5.6	0.0	
	500만 원 이상	59.1	34.3	6.6	0.0	
학력	중졸 이하	41.5	43.5	8.9	6.1	4.403(6)
	고졸	45.0	38.6	8.1	8.3	
	대졸 이상	48.2	34.8	9.6	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9.8	23.2	4.4	2.6	411.404(15)***
	임시·일용직	44.7	44.5	8.7	2.1	
	고용주, 자영자	45.3	44.8	8.9	1.0	
	무급가족종사자	43.6	35.4	21.0	0.0	
	실업자	12.5	29.1	9.6	48.7	
	비경제활동인구	27.0	16.5	17.1	39.4	
직업	관리자, 전문가	51.1	34.3	11.3	3.3	18.75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7.0	42.8	8.5	1.7	
	숙련 및 기술직	63.4	33.0	3.2	0.5	
	단순노무 종사자	53.2	35.1	11.1	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9.7	24.9	2.1	3.3	23.607(3)***
	비정규직	47.8	42.0	9.5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9	40.8	11.5	5.8	11.099(6)
	중도적	49.0	35.2	6.9	8.8	
	진보적	44.6	38.2	9.4	7.8	

〈부표 3-38〉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1~2개월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 이상(2년 이상)	X ² (df)
전체		2.7	11.9	24.0	35.8	25.6	
성별	남성	2.4	11.7	21.0	34.9	30.1	18.000(4)**
	여성	3.2	12.1	28.1	37.1	19.5	
연령	20대 이하	5.7	25.3	32.2	18.1	18.6	84.937(16)***
	30대	4.4	17.5	29.6	30.6	17.9	
	40대	3.1	16.2	20.4	43.0	17.2	
	50대	2.5	8.4	20.6	39.3	29.2	
	60대 이상	1.0	5.1	26.3	32.3	35.3	
지역1	수도권	2.7	10.6	24.8	36.1	25.9	1.744(4)
	비수도권	2.8	13.1	23.2	35.5	25.3	
지역2	대도시	2.1	14.1	24.0	34.5	25.3	15.699(8)*
	중소도시	3.5	9.6	22.5	38.3	26.1	
	농어촌	1.1	15.4	34.1	25.8	2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	12.1	21.4	35.6	29.6	15.752(12)
	중하층	4.0	11.3	21.3	36.3	27.1	
	중간층	2.0	12.1	26.3	36.1	23.5	
	중상층(상층)	2.9	15.0	39.3	27.3	15.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	14.1	22.8	35.6	26.1	27.523(16)*
	200만 원대	3.3	9.3	30.2	33.4	23.8	
	300만 원대	3.1	11.3	17.9	39.2	28.6	
	400만 원대	5.5	13.5	21.6	42.9	16.5	
	500만 원 이상	2.3	11.7	24.1	30.8	31.0	
학력	중졸 이하	1.7	8.7	25.4	30.7	33.6	20.088(8)*
	고졸	2.3	9.2	26.5	35.6	26.4	
	대졸 이상	3.5	15.7	20.8	37.3	2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2	18.7	32.1	26.6	15.4	98.671(20)***
	임시·일용직	3.3	12.3	29.9	35.3	19.1	
	고용주, 자영자	0.8	7.8	18.4	40.9	32.1	
	무급가족종사자	0.0	10.1	22.0	33.8	34.0	
	실업자	3.0	21.7	17.8	37.7	19.7	
	비경제활동인구	3.9	11.1	35.3	23.2	26.4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	9.5	33.3	27.0	26.9	12.60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	11.6	23.0	37.9	25.5	
	숙련 및 기술직	3.7	11.2	23.4	31.5	30.2	
	단순노무 종사자	4.7	7.7	20.1	46.1	2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4	18.6	29.5	27.3	17.2	2.944(4)
	비정규직	5.6	13.2	30.5	33.1	1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	6.2	23.6	38.3	30.1	28.364(8)***
	중도적	2.1	14.9	23.5	35.3	24.2	
	진보적	5.7	13.1	25.8	33.3	22.1	

〈부표 3-40〉 경제적 어려움 (1) 코로나 이전 1년_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1.6	98.4	
성별	남성	1.7	98.3	0.067(1)
	여성	1.6	98.4	
연령	20대 이하	1.3	98.7	13.250(4)*
	30대	1.2	98.8	
	40대	3.0	97.0	
	50대	1.6	98.4	
	60대 이상	1.1	98.9	
지역1	수도권	1.3	98.7	2.478(1)
	비수도권	2.0	98.0	
지역2	대도시	1.0	99.0	7.907(2)*
	중소도시	2.0	98.0	
	농어촌	2.9	9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	95.8	30.575(3)***
	중하층	1.9	98.1	
	중간층	0.8	99.2	
	중상층(상층)	0.5	99.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	98.2	4.121(4)
	200만 원대	1.2	98.8	
	300만 원대	1.9	98.1	
	400만 원대	2.5	97.5	
	500만 원 이상	0.8	99.2	
학력	중졸 이하	0.7	99.3	13.652(2)**
	고졸	2.5	97.5	
	대졸 이상	1.1	9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8	99.2	35.615(5)***
	임시·일용직	4.6	95.4	
	고용주, 자영자	2.4	97.6	
	무급가족종사자	2.8	97.2	
	실업자	1.4	98.6	
	비경제활동인구	1.1	9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	98.8	1.01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	98.0	
	숙련 및 기술직	2.0	98.0	
	단순노무 종사자	1.8	9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	99.2	27.675(1)***
	비정규직	4.2	9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98.5	0.307(2)
	중도적	1.6	98.4	
	진보적	1.9	98.1	

〈부표 3-41〉 경제적 어려움 (2) 코로나 이전 1년_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1.3	98.7	
성별	남성	1.1	98.9	0.888(1)
	여성	1.5	98.5	
연령	20대 이하	1.2	98.8	11.202(4)*
	30대	0.7	99.3	
	40대	2.1	97.9	
	50대	1.8	98.2	
	60대 이상	0.6	99.4	
지역1	수도권	1.0	99.0	2.979(1)
	비수도권	1.6	98.4	
지역2	대도시	0.7	99.3	12.352(2)**
	중소도시	1.6	98.4	
	농어촌	2.8	9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	96.0	33.485(3)***
	중하층	1.1	98.9	
	중간층	0.8	99.2	
	중상층(상층)	0.4	99.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	98.2	7.008(4)
	200만 원대	0.8	99.2	
	300만 원대	1.2	98.8	
	400만 원대	0.9	99.1	
	500만 원 이상	0.8	99.2	
학력	중졸 이하	0.7	99.3	12.664(2)**
	고졸	2.0	98.0	
	대졸 이상	0.7	9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99.4	32.862(5)***
	임시·일용직	3.9	96.1	
	고용주, 자영자	1.5	98.5	
	무급가족종사자	2.8	97.2	
	실업자	1.8	98.2	
	비경제활동인구	0.9	99.1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	98.0	12.15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	98.7	
	숙련 및 기술직	0.5	99.5	
	단순노무 종사자	4.1	9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	99.5	29.077(1)***
	비정규직	3.9	9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	98.8	1.447(2)
	중도적	1.5	98.5	
	진보적	1.0	99.0	

〈부표 3-42〉 경제적 어려움 (3) 코로나 이전 1년_집세가 밀린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0.8	32.8	66.4	
성별	남성	0.7	33.8	65.5	2.316(2)
	여성	0.9	31.7	67.4	
연령	20대 이하	0.5	35.4	64.1	51.226(8)***
	30대	1.5	39.7	58.8	
	40대	0.8	32.3	66.9	
	50대	0.9	34.3	64.8	
	60대 이상	0.4	25.1	74.5	
지역1	수도권	0.6	38.6	60.8	64.682(2)***
	비수도권	1.0	26.7	72.4	
지역2	대도시	0.7	40.3	58.9	83.277(4)***
	중소도시	0.9	28.3	70.7	
	농어촌	0.2	20.8	7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45.2	53.1	77.478(6)***
	중하층	0.9	35.3	63.8	
	중간층	0.5	27.4	72.1	
	중상층(상층)	0.4	29.1	70.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9	28.4	70.7	36.642(8)***
	200만 원대	0.9	39.0	60.1	
	300만 원대	0.7	36.4	63.0	
	400만 원대	0.9	33.2	65.9	
	500만 원 이상	0.2	31.1	68.7	
학력	중졸 이하	0.5	28.8	70.7	9.957(4)*
	고졸	1.1	32.4	66.5	
	대졸 이상	0.5	34.2	6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35.5	64.0	77.312(10)***
	임시·일용직	1.3	45.2	53.5	
	고용주, 자영자	1.0	28.3	70.7	
	무급가족종사자	0.0	18.0	82.0	
	실업자	1.3	39.8	58.9	
	비경제활동인구	0.7	26.4	72.9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	32.5	67.0	40.797(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	36.5	62.8	
	숙련 및 기술직	0.1	29.0	70.9	
	단순노무 종사자	3.9	37.3	5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34.7	65.0	22.247(2)***
	비정규직	1.9	42.6	5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29.7	69.5	9.852(4)*
	중도적	0.7	33.2	66.1	
	진보적	0.9	35.9	63.2	

〈부표 3-43〉 경제적 어려움 (4) 코로나 이전 1년_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3.0	86.6	10.4	
성별	남성	3.0	87.1	9.9	1.226(2)
	여성	2.9	86.2	10.9	
연령	20대 이하	1.4	82.6	16.0	57.180(8)***
	30대	2.1	89.8	8.0	
	40대	5.4	87.0	7.6	
	50대	3.1	87.6	9.2	
	60대 이상	2.5	86.2	11.2	
지역1	수도권	3.0	84.3	12.7	23.747(2)***
	비수도권	2.9	89.1	8.0	
지역2	대도시	1.5	88.3	10.2	23.975(4)***
	중소도시	4.1	85.0	11.0	
	농어촌	3.7	88.3	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	79.1	14.8	48.467(6)***
	중하층	3.3	88.3	8.5	
	중간층	2.0	87.3	10.7	
	중상층(상층)	0.7	89.5	9.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1	84.0	12.9	32.935(8)***
	200만 원대	3.0	86.0	11.0	
	300만 원대	3.3	88.6	8.0	
	400만 원대	3.0	90.7	6.3	
	500만 원 이상	1.7	92.3	6.0	
학력	중졸 이하	1.4	88.3	10.3	11.297(4)*
	고졸	3.8	85.2	11.0	
	대졸 이상	2.5	87.6	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8	89.3	8.9	49.401(10)***
	임시·일용직	6.2	82.1	11.7	
	고용주, 자영자	4.0	87.8	8.3	
	무급가족종사자	4.1	88.4	7.5	
	실업자	2.1	87.6	10.3	
	비경제활동인구	2.6	83.5	13.9	
직업	관리자, 전문가	5.4	86.5	8.2	19.376(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	87.5	10.0	
	숙련 및 기술직	2.8	91.1	6.1	
	단순노무 종사자	5.6	83.3	1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	89.4	9.1	23.804(2)***
	비정규직	5.8	84.9	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	85.2	11.3	9.177(4)
	중도적	2.8	88.1	9.1	
	진보적	2.7	85.2	12.1	

〈부표 3-44〉 경제적 어려움 (5) 코로나 이전 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3.3	96.7	
성별	남성	3.1	96.9	0.494(1)
	여성	3.6	96.4	
연령	20대 이하	3.0	97.0	5.444(4)
	30대	2.5	97.5	
	40대	4.1	95.9	
	50대	4.2	95.8	
	60대 이상	2.8	97.2	
지역1	수도권	3.0	97.0	1.369(1)
	비수도권	3.7	96.3	
지역2	대도시	1.9	98.1	18.293(2)***
	중소도시	4.3	95.7	
	농어촌	4.6	9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	95.2	12.959(3)**
	중하층	4.1	95.9	
	중간층	2.6	97.4	
	중상층(상층)	0.7	99.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5	96.5	4.000(4)
	200만 원대	3.8	96.2	
	300만 원대	3.9	96.1	
	400만 원대	2.1	97.9	
	500만 원 이상	2.1	97.9	
학력	중졸 이하	1.3	98.7	11.236(2)**
	고졸	4.3	95.7	
	대졸 이상	3.0	9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0	98.0	40.778(5)***
	임시·일용직	7.0	93.0	
	고용주, 자영자	5.5	94.5	
	무급가족종사자	3.5	96.5	
	실업자	3.6	96.4	
	비경제활동인구	2.1	97.9	
직업	관리자, 전문가	4.7	95.3	6.455(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2	96.8	
	숙련 및 기술직	5.4	94.6	
	단순노무 종사자	3.7	9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	98.4	44.831(1)***
	비정규직	7.9	9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	96.9	0.737(2)
	중도적	3.3	96.7	
	진보적	3.8	96.2	

〈부표 3-45〉 경제적 어려움 (1) 코로나 이후_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3.6	96.4	
성별	남성	3.1	96.9	3.256(1)
	여성	4.1	95.9	
연령	20대 이하	2.9	97.1	25.538(4)***
	30대	3.0	97.0	
	40대	6.2	93.8	
	50대	4.0	96.0	
	60대 이상	1.9	98.1	
지역1	수도권	3.3	96.7	1.137(1)
	비수도권	3.9	96.1	
지역2	대도시	2.4	97.6	13.396(2)**
	중소도시	4.6	95.4	
	농어촌	3.1	9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	95.7	14.372(3)**
	중하층	4.7	95.3	
	중간층	2.8	97.2	
	중상층(상층)	0.5	99.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7	96.3	11.040(4)*
	200만 원대	4.7	95.3	
	300만 원대	3.1	96.9	
	400만 원대	3.7	96.3	
	500만 원 이상	1.1	98.9	
학력	중졸 이하	1.4	98.6	6.713(2)*
	고졸	3.7	96.3	
	대졸 이상	4.0	9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2	98.8	95.527(5)***
	임시·일용직	8.0	92.0	
	고용주, 자영자	7.9	92.1	
	무급가족종사자	2.4	97.6	
	실업자	3.9	96.1	
	비경제활동인구	2.0	9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	96.8	7.166(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8	95.2	
	숙련 및 기술직	2.3	97.7	
	단순노무 종사자	4.7	95.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	98.8	29.539(1)***
	비정규직	5.7	9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	97.1	2.017(2)
	중도적	4.0	96.0	
	진보적	3.5	96.5	

〈부표 3-46〉 경제적 어려움 (2) 코로나 이후_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2.2	97.8	
성별	남성	1.9	98.1	1.509(1)
	여성	2.5	97.5	
연령	20대 이하	1.4	98.6	10.245(4)*
	30대	1.5	98.5	
	40대	2.9	97.1	
	50대	3.2	96.8	
	60대 이상	1.8	98.2	
지역1	수도권	1.2	98.8	19.120(1)***
	비수도권	3.2	96.8	
지역2	대도시	1.3	98.7	11.117(2)**
	중소도시	2.7	97.3	
	농어촌	3.3	9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	93.9	43.918(3)***
	중하층	1.8	98.2	
	중간층	1.5	98.5	
	중상층(상층)	0.4	99.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0	97.0	12.202(4)*
	200만 원대	2.0	98.0	
	300만 원대	1.8	98.2	
	400만 원대	1.1	98.9	
	500만 원 이상	0.7	99.3	
학력	중졸 이하	2.6	97.4	3.419(2)
	고졸	2.5	97.5	
	대졸 이상	1.7	9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	99.3	44.442(5)***
	임시·일용직	5.4	94.6	
	고용주, 자영자	3.7	96.3	
	무급가족종사자	1.8	98.2	
	실업자	2.5	97.5	
	비경제활동인구	1.8	98.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	96.9	13.435(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	97.9	
	숙련 및 기술직	1.1	98.9	
	단순노무 종사자	5.9	9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99.3	30.287(1)***
	비정규직	4.6	9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	97.3	2.739(2)
	중도적	2.1	97.9	
	진보적	1.7	98.3	

〈부표 3-47〉 경제적 어려움 (3) 코로나 이후_집세가 밀린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1.4	30.9	67.7	
성별	남성	1.5	31.8	66.7	2.023(2)
	여성	1.3	30.0	68.7	
연령	20대 이하	0.8	34.7	64.4	55.897(8)***
	30대	1.8	38.1	60.0	
	40대	1.8	29.7	68.5	
	50대	1.7	31.9	66.4	
	60대 이상	0.9	23.2	75.9	
지역1	수도권	0.9	36.2	62.9	58.308(2)***
	비수도권	1.9	25.4	72.7	
지역2	대도시	0.9	38.3	60.9	86.503(4)***
	중소도시	2.0	26.5	71.5	
	농어촌	0.7	19.5	79.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	41.6	54.6	93.333(6)***
	중하층	1.5	33.4	65.1	
	중간층	0.7	25.9	73.4	
	중상층(상층)	0.4	29.0	70.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	26.4	71.8	47.792(8)***
	200만 원대	1.2	38.1	60.7	
	300만 원대	1.2	34.3	64.5	
	400만 원대	1.7	29.2	69.2	
	500만 원 이상	0.1	30.1	69.7	
학력	중졸 이하	1.3	26.1	72.6	12.962(4)*
	고졸	1.9	30.4	67.8	
	대졸 이상	1.0	32.7	6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34.7	64.8	112.503(10)***
	임시·일용직	4.2	40.1	55.7	
	고용주, 자영자	2.3	25.3	72.4	
	무급가족종사자	0.0	12.7	87.3	
	실업자	2.2	38.4	59.4	
	비경제활동인구	0.8	25.3	73.8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	31.4	67.5	83.339(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9	34.6	64.4	
	숙련 및 기술직	1.2	27.3	71.5	
	단순노무 종사자	9.5	28.0	6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33.7	66.0	39.041(2)***
	비정규직	3.7	39.7	5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	28.5	70.2	8.473(4)
	중도적	1.5	30.7	67.8	
	진보적	1.4	34.5	64.1	

〈부표 3-48〉 경제적 어려움 (4) 코로나 이후_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6.1	84.0	9.8	
성별	남성	5.8	84.4	9.8	0.965(2)
	여성	6.5	83.6	9.9	
연령	20대 이하	5.0	80.6	14.4	43.973(8)***
	30대	6.4	87.3	6.3	
	40대	7.9	84.3	7.8	
	50대	7.2	83.5	9.3	
	60대 이상	4.3	84.5	11.2	
지역1	수도권	6.0	82.5	11.5	12.635(2)**
	비수도권	6.2	85.6	8.1	
지역2	대도시	3.7	86.2	10.1	30.696(4)***
	중소도시	7.9	82.1	10.0	
	농어촌	7.7	84.4	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	75.9	15.6	48.171(6)***
	중하층	7.6	84.3	8.1	
	중간층	4.5	85.9	9.5	
	중상층(상층)	2.7	87.2	10.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3	81.2	12.5	37.971(8)***
	200만 원대	7.6	83.8	8.6	
	300만 원대	5.8	85.3	8.9	
	400만 원대	5.6	88.1	6.3	
	500만 원 이상	3.2	90.7	6.1	
학력	중졸 이하	3.6	86.0	10.4	11.730(4)*
	고졸	6.9	82.2	10.9	
	대졸 이상	6.0	85.3	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7	88.6	7.8	110.565(10)***
	임시·일용직	10.2	78.3	11.6	
	고용주, 자영자	10.9	81.1	8.0	
	무급가족종사자	10.0	82.5	7.5	
	실업자	11.2	79.5	9.4	
	비경제활동인구	3.4	82.9	13.8	
직업	관리자, 전문가	7.4	86.0	6.7	12.387(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4	84.6	9.1	
	숙련 및 기술직	6.5	87.0	6.5	
	단순노무 종사자	11.0	78.2	1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88.9	8.0	33.260(2)***
	비정규직	9.6	81.5	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2	83.7	11.2	8.042(4)
	중도적	6.2	84.9	8.9	
	진보적	7.2	82.5	10.3	

〈부표 3-49〉 경제적 어려움 (5) 코로나 이후_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7.0	93.0	
성별	남성	7.4	92.6	0.865(1)
	여성	6.6	93.4	
연령	20대 이하	4.3	95.7	28.898(4)***
	30대	7.6	92.4	
	40대	8.7	91.3	
	50대	9.8	90.2	
	60대 이상	4.8	95.2	
지역1	수도권	7.2	92.8	0.106(1)
	비수도권	6.9	93.1	
지역2	대도시	4.8	95.2	22.721(2)***
	중소도시	8.8	91.2	
	농어촌	7.7	9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	92.0	11.718(3)**
	중하층	8.2	91.8	
	중간층	6.2	93.8	
	중상층(상층)	2.1	97.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8	94.2	16.775(4)**
	200만 원대	9.5	90.5	
	300만 원대	8.4	91.6	
	400만 원대	6.6	93.4	
	500만 원 이상	5.0	95.0	
학력	중졸 이하	3.1	96.9	13.651(2)**
	고졸	8.1	91.9	
	대졸 이상	7.1	9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4	95.6	140.436(5)***
	임시·일용직	11.2	88.8	
	고용주, 자영자	15.6	84.4	
	무급가족종사자	3.3	96.7	
	실업자	8.2	91.8	
	비경제활동인구	2.9	97.1	
직업	관리자, 전문가	9.1	90.9	1.162(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4	91.6	
	숙련 및 기술직	8.0	92.0	
	단순노무 종사자	10.3	8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	96.1	33.922(1)***
	비정규직	11.2	8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	92.4	1.603(2)
	중도적	6.5	93.5	
	진보적	7.5	92.5	

〈부표 3-5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상층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χ^2 (df)
전체		8.0	13.8	17.9	15.1	9.3	15.4	8.9	6.9	3.3	0.8	0.5	
성별	남성	9.0	13.1	17.7	14.9	9.1	14.5	8.9	7.4	3.7	1.0	0.6	16.522 (10)
	여성	6.9	14.6	18.1	15.3	9.6	16.4	9.0	6.4	2.9	0.5	0.4	
연령	20대 이하	4.5	13.8	19.6	15.7	9.6	16.8	7.7	8.0	3.2	1.0	0.2	71.153 (40)**
	30대	9.5	13.4	14.8	17.7	6.8	14.6	10.8	8.2	3.1	0.6	0.5	
	40대	9.8	13.0	19.4	12.5	10.0	15.5	9.6	5.7	2.7	1.0	0.9	
	50대	9.3	16.7	16.6	14.6	10.1	13.8	7.7	6.7	3.7	0.8	0.1	
	60대 이상	6.8	12.4	18.7	15.5	9.7	16.5	9.0	6.4	3.6	0.6	0.8	
지역1	수도권	7.5	14.6	19.6	18.5	11.4	13.4	6.2	5.2	2.2	0.7	0.8	144.27 4(10)** *
	비수도권	8.5	13.1	16.1	11.6	7.2	17.6	11.8	8.7	4.4	0.8	0.2	
지역2	대도시	8.1	14.5	17.5	15.2	9.5	14.9	9.6	6.8	3.8	0.3	0.0	113.05 1(20)***
	중소도시	6.3	13.5	18.4	15.5	9.5	16.6	8.9	7.3	2.2	1.0	0.9	
	농어촌	17.7	12.7	16.8	12.5	7.3	11.6	6.0	5.3	7.2	2.2	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7	13.9	22.9	14.9	10.5	14.8	6.5	5.7	0.9	0.2	1.0	94.939 (30)***
	중하층	8.8	12.7	18.5	17.3	9.4	14.3	7.6	6.6	3.7	0.7	0.5	
	중간층	7.1	14.1	15.9	14.0	9.4	16.6	10.4	7.9	3.5	1.0	0.2	
	중상층(상층)	8.2	20.8	18.4	8.5	4.8	15.7	12.5	4.0	5.0	0.2	2.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7.7	13.1	19.5	14.5	9.0	17.0	8.8	6.0	2.7	1.1	0.7	62.268 (40)*
	200만 원대	7.9	15.1	17.8	14.8	8.7	12.9	10.9	8.0	3.1	0.4	0.3	
	300만 원대	7.6	14.7	16.5	14.3	11.5	15.0	8.1	7.9	3.7	0.5	0.1	
	400만 원대	8.6	12.6	15.5	19.6	8.6	14.2	8.6	7.5	3.0	0.7	1.2	
	500만 원 이상	9.4	13.9	15.6	16.1	9.1	16.2	6.6	6.4	5.7	0.9	0.1	
학력	중졸 이하	9.6	13.8	20.3	14.3	8.0	15.7	7.9	5.3	3.5	0.6	1.0	30.075 (20)
	고졸	7.3	12.9	18.4	14.4	10.2	15.1	9.2	7.4	3.5	1.3	0.4	
	대졸 이상	8.2	14.8	16.8	15.9	8.9	15.7	9.0	6.9	3.1	0.4	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6	13.8	16.1	15.5	8.9	15.5	9.1	8.0	3.0	0.2	0.3	84.196 (50)**
	임시·일용직	6.5	14.4	19.6	14.1	8.7	14.9	7.9	8.0	4.6	0.8	0.6	
	고용주, 자영자	6.4	15.2	19.9	15.8	9.9	14.0	7.0	6.0	3.9	1.4	0.5	
	무급가족종사자	7.9	7.1	24.5	22.2	10.4	7.7	9.2	2.1	3.3	2.9	2.6	
	실업자	10.6	13.9	13.5	18.4	10.5	14.4	9.0	6.0	1.3	1.8	0.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7.0	13.0	18.7	13.5	9.5	17.2	10.5	6.0	3.0	0.9	0.6	51.061 (30)*
	관리자, 전문가	9.9	14.2	17.6	16.1	6.7	15.2	7.5	8.2	2.7	1.2	0.7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6	14.4	17.8	15.9	10.0	14.9	9.0	7.4	3.1	0.6	0.3	
	숙련 및 기술직	10.9	11.9	18.1	14.9	7.9	13.9	6.9	7.4	6.2	0.7	1.1	
	단순노무 종사자	12.7	17.3	18.2	12.0	9.4	16.4	7.3	4.8	1.8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	13.6	16.4	15.7	8.9	15.2	9.3	7.7	3.0	0.2	0.3	13.205 (10)
	비정규직	7.5	15.2	18.4	13.7	7.8	17.3	6.3	8.0	4.7	0.5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8.0	13.7	17.7	16.6	8.7	16.8	7.7	6.1	3.9	0.2	0.6	42.296 (20)**
	중도적	8.7	13.6	18.8	12.7	9.7	15.6	9.2	7.1	3.1	1.1	0.5	
	진보적	6.4	14.4	16.0	18.8	9.2	13.4	9.9	7.6	2.9	0.9	0.5	

〈부표 3-5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중간층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 (df)
전체		0.7	0.9	1.8	4.9	5.9	22.3	20.8	20.9	12.9	6.0	2.8	
성별	남성	0.8	1.2	2.0	4.8	6.2	22.1	20.4	20.0	12.4	6.7	3.4	18.107
	여성	0.5	0.6	1.6	5.0	5.7	22.6	21.2	21.8	13.5	5.3	2.3	(10)
연령	20대 이하	0.6	0.2	1.9	3.7	6.1	22.5	20.3	20.2	15.3	5.9	3.1	78.035 (40) ^{***}
	30대	0.8	0.4	2.1	5.2	4.4	22.9	18.1	21.4	14.5	6.4	3.9	
	40대	1.2	0.6	1.1	5.3	6.6	21.3	22.7	19.8	10.5	7.8	3.1	
	50대	0.5	1.9	3.0	5.0	6.6	21.2	22.8	22.5	10.3	5.0	1.4	
	60대 이상	0.4	1.2	1.1	5.3	5.7	23.7	19.7	20.6	14.4	5.1	2.9	
지역1	수도권	1.1	1.1	1.7	5.1	6.5	23.3	22.5	19.7	12.4	4.2	2.4	51.514 (10) ^{***}
	비수도권	0.3	0.7	1.9	4.7	5.3	21.3	19.1	22.2	13.5	7.9	3.2	
지역2	대도시	1.3	1.0	2.1	5.6	7.9	23.1	21.6	20.7	10.9	3.7	2.2	97.486 (20) ^{***}
	중소도시	0.3	0.9	1.3	4.0	4.3	21.3	20.7	21.6	14.6	7.6	3.3	
	농어촌	0.1	0.4	3.1	7.1	5.4	24.4	17.4	17.4	13.2	8.1	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1.3	3.3	5.6	5.4	23.1	22.5	21.0	11.6	3.7	1.6	98.586 (30) ^{***}
	중하층	0.8	0.5	1.5	5.9	5.6	21.3	21.3	21.2	12.1	7.5	2.3	
	중간층	0.5	0.7	1.7	3.5	6.2	23.4	19.7	20.5	14.5	5.6	3.7	
	중상층(상층)	1.0	4.7	0.0	9.5	7.0	17.6	23.2	22.2	8.6	4.0	2.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0.9	2.0	4.5	6.0	21.4	21.2	22.3	13.1	5.3	2.7	66.141 (40) ^{**}
	200만 원대	0.9	0.6	1.4	6.5	6.5	24.4	17.8	18.5	14.1	6.8	2.5	
	300만 원대	0.8	0.2	2.6	4.3	4.2	22.7	23.2	21.0	12.5	5.5	3.1	
	400만 원대	0.0	0.9	1.2	3.6	6.9	24.9	22.7	17.0	11.2	7.3	4.2	
	500만 원 이상	0.7	2.6	1.1	5.2	6.4	19.2	20.5	23.2	11.8	6.8	2.6	
학력	중졸 이하	0.1	0.7	2.6	5.4	7.4	24.2	18.5	20.6	13.6	4.5	2.6	37.227 (20) [*]
	고졸	0.9	0.9	1.3	4.6	4.9	22.1	21.5	21.2	14.6	5.9	2.1	
	대졸 이상	0.6	0.9	2.1	5.1	6.5	22.1	20.8	20.7	11.2	6.4	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2	1.1	1.9	5.7	5.6	22.5	19.2	21.0	12.5	6.5	2.9	77.989 (50) ^{**}
	임시·일용직	0.4	0.9	0.7	4.0	9.0	19.1	22.5	23.4	11.9	5.6	2.6	
	고용주, 자영자	0.1	0.5	1.6	4.8	6.0	22.3	21.3	19.5	13.9	6.7	3.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3.0	8.7	2.1	29.7	10.6	16.0	18.5	7.4	4.0	
	실업자	0.6	1.2	2.8	8.3	3.3	24.9	15.1	19.4	14.6	8.1	1.7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5	0.9	2.0	3.5	5.8	22.6	23.8	21.3	12.6	4.3	2.7	57.526 (30) ^{**}
	관리자, 전문가	1.4	3.1	1.7	3.6	8.9	20.5	15.6	22.9	11.9	7.0	3.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	0.5	1.5	5.7	6.1	22.0	20.9	21.0	12.8	6.2	3.0	
	숙련 및 기술직	1.6	0.5	2.6	4.7	4.5	22.2	20.3	19.6	14.5	7.1	2.4	
	단순노무 종사자	1.1	1.4	0.9	5.2	5.7	25.2	20.3	18.8	12.2	5.7	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	1.1	1.9	5.9	5.4	22.2	19.3	21.2	13.0	6.1	2.7	16.750 (10)
	비정규직	0.6	0.9	1.3	4.1	8.8	23.4	19.3	23.0	8.6	6.9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0.8	2.3	5.7	5.7	23.4	21.6	18.1	12.5	6.9	2.7	28.863 (20)
	중도적	0.8	1.2	1.7	4.5	5.7	22.5	20.9	21.9	12.9	4.9	3.0	
	진보적	0.7	0.5	1.4	4.9	6.8	20.6	19.6	22.2	13.6	7.2	2.6	

〈부표 3-5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하층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χ^2 (df)
전체		0.0	0.2	1.0	1.5	2.7	7.1	9.4	14.7	25.2	22.0	16.1	
성별	남성	0.1	0.1	1.2	1.5	2.9	7.9	9.5	15.2	24.0	21.4	16.1	12.043 (10)
	여성	0.0	0.4	0.8	1.5	2.4	6.4	9.3	14.2	26.4	22.6	16.1	
연령	20대 이하	0.1	0.0	1.5	2.0	2.1	7.4	10.5	17.0	25.5	20.5	13.3	49.053 (40)
	30대	0.1	0.0	0.5	1.5	2.4	7.6	7.7	14.7	29.5	20.1	15.8	
	40대	0.0	0.6	0.8	1.5	3.1	7.5	9.9	14.1	22.7	23.5	16.4	
	50대	0.0	0.2	1.0	1.4	2.7	6.5	9.6	16.2	24.5	22.0	15.8	
	60대 이상	0.0	0.3	1.3	1.1	2.9	6.9	9.3	12.3	24.6	23.0	18.4	
지역1	수도권	0.0	0.0	0.8	1.0	1.5	3.3	8.3	16.8	30.1	22.6	15.6	183.44 1(10)***
	비수도권	0.1	0.5	1.3	2.0	3.9	11.1	10.6	12.5	20.1	21.3	16.6	
지역2	대도시	0.0	0.0	1.2	1.6	3.7	8.9	11.5	16.4	27.0	17.9	11.9	125.47 6(20)***
	중소도시	0.0	0.5	1.0	1.4	1.7	6.0	8.2	13.7	24.3	25.0	18.1	
	농어촌	0.0	0.0	0.6	1.7	2.9	5.1	5.9	11.8	21.6	24.4	2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0	1.5	1.2	1.0	3.7	6.6	13.9	23.1	25.0	24.0	84.369 (30)***
	중하층	0.0	0.0	1.0	2.2	3.4	8.8	9.5	13.6	25.2	21.5	14.8	
	중간층	0.0	0.5	0.9	0.9	2.4	6.7	10.0	15.5	26.1	21.7	15.2	
	중상층(상층)	0.0	0.2	1.9	2.0	4.0	8.4	11.2	18.1	22.7	19.4	12.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0.2	1.3	1.3	2.9	6.6	9.4	12.9	25.5	22.4	17.4	64.038 (40)**
	200만 원대	0.0	0.6	1.1	1.7	3.0	7.4	9.0	14.9	20.8	23.6	17.8	
	300만 원대	0.0	0.1	1.0	1.6	2.0	7.8	11.2	15.0	27.1	19.4	14.9	
	400만 원대	0.0	0.0	0.5	0.5	1.8	9.2	7.1	17.1	28.7	22.0	13.2	
	500만 원 이상	0.2	0.2	0.2	2.0	2.5	6.2	9.5	19.2	27.8	20.7	11.5	
학력	중졸 이하	0.2	0.0	0.5	0.8	1.5	6.0	9.3	12.9	24.3	26.2	18.3	55.544 (20)***
	고졸	0.0	0.2	1.7	1.8	3.5	7.0	10.1	13.3	23.0	22.4	16.9	
	대졸 이상	0.0	0.3	0.6	1.3	2.2	7.6	8.8	16.5	27.5	20.4	14.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0	0.0	0.8	1.6	2.3	6.9	8.9	16.8	26.4	22.3	14.1	98.789 (50)***
	임시·일용직	0.0	0.1	1.1	0.8	3.5	9.1	8.3	12.9	19.6	23.2	21.2	
	고용주, 자영자	0.0	0.9	0.6	2.2	2.6	7.3	8.5	14.1	24.2	22.2	17.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7	3.2	3.2	9.0	11.8	10.2	19.8	27.9	13.2	
	실업자	0.0	0.1	4.0	0.0	2.4	4.7	7.1	13.1	25.3	24.7	18.6	
	비경제활동인구	0.1	0.2	1.1	1.3	3.0	7.0	11.6	13.4	26.8	19.9	15.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2	0.1	0.1	1.5	1.8	3.7	9.1	15.8	27.9	23.0	16.8	69.400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0	0.3	0.8	1.6	2.4	7.4	8.6	16.2	26.3	21.5	14.9	
	숙련 및 기술직	0.0	0.0	1.6	2.0	3.8	8.1	9.3	14.0	18.8	24.7	17.7	
	단순노무 종사자	0.0	0.8	0.0	1.7	2.0	12.5	7.6	8.5	17.5	26.2	2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0.0	0.8	1.6	2.2	6.7	9.0	16.6	27.8	21.5	13.7	37.524 (10)***
	비정규직	0.0	0.1	0.9	1.0	3.7	9.8	8.2	15.3	15.7	26.8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6	1.1	0.8	2.5	6.3	11.0	14.2	27.6	19.2	16.7	38.474 (20)**
	중도적	0.1	0.1	1.2	2.1	2.7	7.5	9.0	14.4	23.9	23.7	15.5	
	진보적	0.0	0.1	0.7	1.0	2.8	7.5	8.4	16.0	25.2	21.5	16.9	

〈부표 3-5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남성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 (df)
전체		0.5	0.5	0.9	1.9	4.1	24.0	13.7	20.6	17.7	9.9	6.4	
성별	남성	0.4	0.4	1.2	1.8	4.1	22.8	13.5	19.4	17.6	11.0	7.7	24.635
	여성	0.5	0.5	0.6	1.9	4.0	25.2	13.8	21.8	17.8	8.8	5.0	(10)**
연령	20대 이하	1.1	0.3	0.8	2.0	4.5	27.1	13.0	21.1	17.1	7.9	5.2	94.496 (40)***
	30대	0.8	0.6	0.8	1.1	4.3	29.3	12.4	20.2	15.6	8.2	6.8	
	40대	0.3	0.3	0.9	2.9	4.2	24.3	14.1	20.2	15.0	9.9	8.0	
	50대	0.2	0.8	1.9	2.2	3.8	21.0	15.6	20.4	19.7	9.1	5.3	
	60대 이상	0.1	0.3	0.4	1.2	3.8	20.4	12.9	20.9	20.1	13.5	6.5	
지역1	수도권	0.4	0.3	1.1	2.3	4.2	27.0	12.8	18.7	16.5	8.9	7.8	53.844 (10)***
	비수도권	0.6	0.6	0.8	1.4	3.9	20.9	14.6	22.5	18.9	11.0	4.9	
지역2	대도시	0.7	0.6	1.0	2.4	5.2	27.1	15.1	19.8	16.5	6.1	5.5	92.128 (20)***
	중소도시	0.3	0.4	0.9	1.5	3.2	21.4	13.2	21.3	18.3	12.4	6.9	
	농어촌	0.1	0.0	0.7	1.1	3.3	23.7	8.5	20.2	20.5	14.5	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0	1.0	0.9	2.0	19.8	14.2	17.6	21.8	12.6	10.0	117.79 0(30)***
	중하층	0.5	0.4	0.4	1.6	5.0	23.0	13.0	21.2	19.4	10.2	5.3	
	중간층	0.3	0.6	1.3	2.0	4.0	25.8	13.5	21.2	15.7	9.2	6.4	
	중상층(상층)	2.7	0.5	0.9	6.2	3.5	26.6	19.3	18.4	10.9	6.8	4.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2	0.4	0.6	1.2	3.9	21.3	13.8	21.7	19.3	10.7	6.9	130.22 1(40)***
	200만 원대	0.9	0.1	0.7	1.5	4.3	27.7	12.1	18.2	18.5	10.4	5.6	
	300만 원대	0.3	0.2	1.2	1.7	2.9	28.0	17.5	20.7	13.8	8.6	5.0	
	400만 원대	0.0	0.4	0.6	4.2	5.7	23.6	13.1	21.6	15.0	8.5	7.2	
	500만 원 이상	1.2	1.8	2.5	3.9	4.9	20.9	10.7	20.3	17.8	8.9	7.1	
학력	중졸 이하	0.1	0.1	0.6	0.8	3.3	18.0	14.9	20.7	23.7	12.1	5.6	61.583 (20)***
	고졸	0.5	0.3	0.8	1.6	3.8	21.9	13.3	21.3	18.9	10.8	6.9	
	대졸 이상	0.5	0.7	1.2	2.4	4.5	27.6	13.7	19.9	15.0	8.6	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	0.3	1.0	2.5	3.5	29.3	13.5	19.2	15.7	8.1	6.1	112.43 5(50)***
	임시·일용직	0.0	0.3	1.3	1.3	7.4	19.2	14.7	17.3	19.7	10.9	7.8	
	고용주, 자영자	0.3	0.8	1.0	2.1	2.8	19.6	13.6	22.8	19.0	12.2	5.8	
	무급가족종사자	0.0	1.0	0.0	1.4	4.5	15.0	13.9	27.5	20.9	11.8	4.0	
	실업자	0.0	0.3	0.1	1.2	3.6	18.2	12.8	17.9	18.6	16.7	10.5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0.5	0.4	0.8	1.2	4.4	23.0	13.6	22.4	18.5	9.2	5.9	93.139 (30)***
	관리자, 전문가	1.1	0.9	0.8	4.8	4.1	21.6	10.0	21.5	19.9	8.0	7.4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0.5	0.9	1.8	3.4	27.5	13.7	21.4	16.5	8.5	5.4	
	숙련 및 기술직	0.5	0.2	1.9	2.1	4.1	18.5	16.0	16.0	20.6	12.8	7.2	
	단순노무 종사자	0.0	0.6	0.7	1.7	8.2	20.8	14.6	15.8	11.7	16.3	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0.4	1.1	2.5	3.3	29.6	13.4	19.3	15.5	8.0	6.2	39.051 (10)***
	비정규직	0.3	0.3	1.4	1.9	8.0	20.2	12.9	16.7	19.7	11.7	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5	0.4	2.0	2.3	23.4	13.9	19.9	19.9	11.5	6.1	55.532 (20)***
	중도적	0.6	0.5	1.3	1.3	5.0	23.3	13.7	21.9	17.3	8.9	6.2	
	진보적	0.6	0.2	0.8	3.1	4.2	26.3	13.2	18.4	15.8	10.3	7.1	

〈부표 3-5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여성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χ^2 (df)
전체		0.3	0.3	0.7	1.1	3.4	26.8	17.7	22.6	16.0	7.6	3.5	
성별	남성	0.3	0.4	0.8	1.3	3.6	27.0	20.0	22.0	14.2	6.6	3.9	30.359 (10)**
	여성	0.4	0.2	0.5	0.9	3.1	26.5	15.5	23.3	17.8	8.5	3.2	
연령	20대 이하	0.8	0.0	0.7	0.8	1.8	28.1	19.7	22.0	16.7	7.5	1.8	81.300 (40)***
	30대	0.6	0.5	0.6	1.4	2.5	31.4	14.1	23.7	15.7	5.5	4.2	
	40대	0.2	0.4	0.6	1.1	3.3	28.1	15.0	22.2	16.0	8.3	4.7	
	50대	0.0	0.3	1.0	1.7	4.4	25.9	19.1	22.8	14.3	7.6	2.9	
	60대 이상	0.1	0.3	0.5	0.5	4.4	22.1	19.9	22.6	17.2	8.4	3.9	
지역1	수도권	0.1	0.2	0.7	0.9	3.2	29.8	17.0	21.3	14.5	8.0	4.3	43.589 (10)***
	비수도권	0.5	0.4	0.6	1.3	3.6	23.6	18.5	24.0	17.6	7.1	2.7	
지역2	대도시	0.4	0.2	0.6	1.0	3.5	29.7	20.2	23.4	15.1	4.4	1.5	102.52 (20)***
	중소도시	0.3	0.4	0.8	1.2	3.4	24.3	16.4	22.3	16.5	9.5	4.9	
	농어촌	0.1	0.0	0.6	1.0	3.1	26.2	13.0	20.4	17.6	12.2	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0	1.0	0.2	2.9	21.7	18.8	20.9	20.8	7.8	5.9	81.594 (30)***
	중하층	0.5	0.2	0.4	1.1	3.3	25.8	19.3	22.0	16.3	8.4	2.7	
	중간층	0.3	0.5	0.8	1.0	3.4	28.5	16.6	23.9	14.8	6.9	3.3	
	중상층(상층)	0.6	0.0	0.0	4.6	5.4	32.5	14.0	19.8	11.7	6.2	5.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2	0.2	0.6	0.5	3.5	24.3	18.0	22.4	17.8	8.9	3.6	97.087 (40)***
	200만 원대	0.8	0.1	0.5	0.9	3.5	28.1	16.6	22.8	16.5	7.0	3.2	
	300만 원대	0.1	0.1	1.3	1.3	3.4	29.0	18.7	24.3	14.0	5.7	2.2	
	400만 원대	0.0	1.1	0.2	2.4	3.4	33.0	16.1	18.3	16.2	5.9	3.4	
	500만 원 이상	0.3	0.9	0.5	2.6	2.9	25.6	18.9	23.6	10.8	7.8	6.1	
학력	중졸 이하	0.1	0.1	0.4	0.5	3.6	22.1	20.5	19.9	20.0	8.5	4.3	61.790 (20)***
	고졸	0.3	0.1	0.8	0.8	4.0	23.9	17.2	25.0	16.2	8.4	3.3	
	대졸 이상	0.4	0.6	0.6	1.5	2.8	30.7	17.5	21.0	14.7	6.6	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0.4	0.5	1.6	2.4	30.8	18.2	22.0	14.9	5.9	2.9	89.580 (50)***
	임시·일용직	0.0	0.1	1.3	0.9	4.1	21.7	18.4	24.8	16.0	8.6	4.1	
	고용주, 자영자	0.3	0.2	0.7	1.2	5.0	24.6	16.2	22.1	16.6	9.2	4.0	
	무급가족종사자	0.0	1.0	0.0	0.0	2.9	24.5	17.4	17.9	11.9	17.7	6.7	
	실업자	0.0	0.3	0.0	0.1	1.5	26.6	16.9	21.6	16.1	12.2	4.7	
	비경제활동인구	0.4	0.2	0.8	0.6	3.8	24.6	18.2	23.5	17.4	6.9	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0.4	1.2	0.4	3.2	2.0	28.0	16.6	22.2	15.4	6.7	3.9	73.041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0.2	0.4	0.9	3.0	28.5	17.8	23.4	15.1	7.3	3.1	
	숙련 및 기술직	0.2	0.2	1.8	1.3	3.8	24.0	16.7	21.2	18.6	7.5	4.6	
	단순노무 종사자	0.0	0.6	0.7	1.6	8.6	27.7	20.3	15.6	10.1	11.0	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0.5	0.5	1.5	2.3	30.8	18.4	22.1	14.9	5.4	3.1	21.899 (10)*
	비정규직	0.3	0.0	1.4	1.3	4.6	24.9	18.2	21.1	16.5	8.2	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4	0.5	0.9	3.1	27.3	16.9	23.3	15.6	7.7	4.2	21.418 (20)
	중도적	0.5	0.3	0.8	0.9	3.7	26.3	19.0	22.8	15.1	7.4	3.2	
	진보적	0.4	0.1	0.5	1.6	3.1	27.2	16.1	21.4	18.5	7.7	3.4	

〈부표 3-5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청년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df)
전체		0.2	0.6	1.4	2.9	4.1	14.4	17.9	25.9	18.4	9.7	4.5	
성별	남성	0.3	0.9	1.4	2.8	4.0	14.3	17.2	27.7	17.6	9.2	4.8	19.500
	여성	0.1	0.2	1.4	3.0	4.3	14.5	18.7	24.1	19.2	10.2	4.1	(10)*
연령	20대 이하	0.5	1.5	1.3	3.1	5.0	14.9	15.8	22.8	17.9	12.6	4.6	70.761 (40)**
	30대	0.2	0.4	0.7	2.6	3.5	12.6	18.4	30.6	16.4	8.9	5.8	
	40대	0.1	0.5	2.1	3.5	5.2	14.6	18.5	24.4	16.8	10.0	4.4	
	50대	0.2	0.3	1.9	3.2	4.7	16.3	17.9	24.6	20.3	7.0	3.6	
	60대 이상	0.1	0.4	1.0	2.3	2.5	13.5	18.7	27.3	19.7	10.2	4.3	
지역1	수도권	0.0	0.7	1.8	3.6	4.7	15.2	17.1	27.0	16.6	8.9	4.3	37.068 (10)**
	비수도권	0.4	0.4	1.0	2.2	3.6	13.6	18.8	24.8	20.2	10.5	4.6	
지역2	대도시	0.2	0.4	1.8	3.6	5.3	17.0	20.1	24.4	17.3	7.3	2.6	102.86 8(20)**
	중소도시	0.2	0.8	1.1	2.6	3.3	12.4	16.6	27.9	18.5	11.0	5.5	
	농어촌	0.1	0.4	1.0	1.2	2.8	13.5	14.7	21.6	22.7	13.9	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0.0	2.0	1.2	2.7	17.7	20.1	22.8	16.6	10.9	5.8	68.408 (30)**
	중하층	0.2	0.4	1.2	2.4	4.1	13.9	17.7	25.9	19.5	11.5	3.1	
	중간층	0.2	0.9	1.3	3.8	4.5	13.8	17.4	27.4	17.6	8.3	4.8	
	중상층(상층)	0.2	1.4	2.3	3.2	5.1	14.3	18.6	20.8	21.2	5.2	7.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2	0.7	1.1	3.2	4.3	14.8	17.2	25.7	18.7	9.4	4.7	68.094 (40)**
	200만 원대	0.1	0.1	1.0	2.5	3.6	15.2	16.3	26.1	19.6	11.7	3.6	
	300만 원대	0.1	0.6	1.6	3.6	2.8	12.7	20.3	28.8	15.6	9.5	4.4	
	400만 원대	0.3	1.0	1.4	1.6	4.9	17.3	23.2	23.8	13.4	8.8	4.2	
	500만 원 이상	0.3	0.9	3.2	2.5	6.0	12.0	16.5	23.4	22.4	7.3	5.6	
학력	중졸 이하	0.3	0.0	1.0	2.3	2.2	15.5	18.3	24.0	21.7	9.4	5.2	24.067 (20)
	고졸	0.1	0.8	1.9	3.2	4.0	14.4	18.3	25.6	17.4	9.8	4.5	
	대졸 이상	0.2	0.6	1.0	2.8	4.7	14.2	17.5	26.7	18.4	9.7	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0.5	0.9	3.1	4.5	14.2	18.8	26.8	17.5	9.4	4.0	76.758 (50)**
	임시·일용직	0.0	0.2	3.1	3.6	3.6	14.2	16.7	23.7	19.6	10.7	4.4	
	고용주, 자영자	0.1	0.3	1.4	1.7	3.5	15.0	19.0	25.1	19.1	10.1	4.7	
	무급가족종사자	0.0	0.0	4.3	2.2	1.4	9.1	20.2	17.7	23.8	12.9	8.4	
	실업자	0.0	0.1	0.7	1.4	4.4	12.3	9.3	28.2	23.3	14.8	5.3	
	비경제활동인구	0.4	1.3	1.4	3.5	4.4	15.2	17.7	26.2	17.3	8.3	4.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4	0.4	1.2	1.8	7.3	14.7	14.9	21.5	22.5	9.2	6.1	54.575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	0.2	1.4	2.9	3.9	14.9	17.8	27.4	16.9	10.5	3.9	
	숙련 및 기술직	0.0	0.6	1.7	2.8	2.2	11.9	23.3	23.4	21.5	8.4	4.2	
	단순노무 종사자	0.0	1.0	1.7	3.2	3.6	14.3	20.7	23.5	17.3	8.9	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0.3	1.0	2.8	4.3	14.2	19.4	27.3	17.2	9.2	4.1	16.002 (10)
	비정규직	0.0	0.8	2.6	3.9	4.7	16.3	17.2	21.9	19.6	9.2	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0.4	1.0	1.9	4.4	14.4	17.6	26.6	20.6	8.3	4.5	31.320 (20)
	중도적	0.3	0.4	1.8	3.2	4.0	14.1	17.9	26.1	17.0	10.8	4.3	
	진보적	0.0	1.2	0.9	3.4	4.1	15.2	18.3	24.6	18.6	9.0	4.7	

〈부표 3-5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중장년층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² (df)
전체		0.2	0.2	0.5	1.6	3.1	12.4	14.8	21.6	23.1	14.6	8.1	
성별	남성	0.2	0.3	0.5	1.7	3.3	12.9	13.8	21.4	22.2	15.5	8.2	14.594 (10)
	여성	0.1	0.0	0.4	1.6	2.8	11.8	15.8	21.8	24.0	13.8	7.9	
연령	20대 이하	0.2	0.3	0.6	0.6	2.0	15.6	17.8	19.7	22.0	12.0	9.3	80.486 (40)***
	30대	0.2	0.1	0.4	1.3	4.4	11.5	12.7	25.3	20.5	15.0	8.5	
	40대	0.3	0.1	0.6	2.2	3.0	13.2	15.3	19.9	20.7	16.6	8.2	
	50대	0.2	0.1	0.6	2.3	4.0	12.7	14.9	21.9	21.8	14.6	6.9	
	60대 이상	0.0	0.1	0.2	1.6	2.0	9.7	13.5	21.6	28.8	14.6	7.8	
지역1	수도권	0.1	0.1	0.4	2.1	3.3	14.1	14.5	20.8	21.9	13.5	9.2	33.247 (10)***
	비수도권	0.3	0.2	0.5	1.2	2.8	10.6	15.0	22.5	24.3	15.8	6.9	
지역2	대도시	0.1	0.0	0.5	2.6	4.4	16.3	16.5	20.8	22.2	10.0	6.5	142.78 5(20)***
	중소도시	0.2	0.3	0.4	1.0	2.1	9.4	13.7	22.7	23.3	17.9	8.9	
	농어촌	0.1	0.0	0.4	0.4	1.7	9.9	12.4	18.9	26.4	18.6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0	0.6	2.4	2.5	7.9	12.7	21.3	26.4	15.6	10.7	72.850 (30)***
	중하층	0.1	0.1	0.4	1.2	3.6	11.8	14.0	20.9	24.1	16.8	7.0	
	중간층	0.2	0.3	0.5	1.7	2.7	13.8	16.3	21.7	21.5	13.1	8.3	
	중상층(상층)	1.1	0.0	0.1	2.6	3.9	16.9	12.4	27.8	20.3	8.7	6.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1	0.1	0.5	1.0	2.7	11.2	14.6	22.7	24.0	14.5	8.7	79.789 (40)***
	200만 원대	0.2	0.1	0.3	2.3	3.2	13.9	14.0	18.1	24.1	16.1	7.8	
	300만 원대	0.2	0.3	0.7	1.3	2.5	14.2	15.2	25.8	20.2	13.1	6.4	
	400만 원대	0.0	0.3	0.5	2.6	5.8	12.3	17.6	12.4	25.9	13.6	8.9	
	500만 원 이상	0.6	0.2	0.4	2.8	2.8	11.2	14.4	24.9	19.6	15.1	8.0	
학력	중졸 이하	0.1	0.0	0.4	0.7	2.0	10.8	12.1	22.9	31.6	12.6	6.6	51.922 (20)***
	고졸	0.2	0.1	0.4	1.6	3.1	11.8	14.7	20.5	22.8	17.3	7.5	
	대졸 이상	0.1	0.3	0.5	1.9	3.2	13.3	15.6	22.3	21.1	12.6	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0.2	0.6	1.9	3.0	12.5	16.1	21.3	21.4	14.5	8.2	65.659 (50)
	임시·일용직	0.0	0.0	0.3	2.8	4.8	13.7	11.3	20.0	24.4	17.7	5.0	
	고용주, 자영자	0.0	0.1	0.2	1.3	3.0	13.4	12.0	21.4	24.5	15.1	8.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0	1.8	0.0	11.0	10.3	21.4	35.1	12.2	7.2	
	실업자	0.0	0.1	0.8	0.0	1.6	12.7	17.0	18.9	22.3	18.1	8.5	
	비경제활동인구	0.1	0.1	0.5	1.3	2.9	11.0	16.3	23.5	23.3	12.7	8.4	
직업	관리자, 전문가	0.8	0.0	1.1	0.7	3.7	12.2	14.2	20.6	23.1	14.7	8.9	58.849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0.2	0.2	2.0	3.0	14.4	15.1	20.8	22.8	14.1	7.4	
	숙련 및 기술직	0.3	0.1	0.9	2.0	2.5	9.5	10.6	22.7	24.8	17.8	8.9	
	단순노무 종사자	0.0	0.6	0.2	2.3	5.9	8.6	14.0	21.3	20.8	18.6	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0.3	0.6	1.9	3.2	12.5	15.8	21.3	22.0	14.1	8.0	16.736 (10)
	비정규직	0.0	0.0	0.3	2.3	3.8	15.0	11.9	19.7	21.6	19.1	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4	0.2	1.0	1.8	12.1	14.5	24.1	22.8	14.7	8.4	33.831 (20)*
	중도적	0.2	0.1	0.6	2.2	3.5	12.2	14.8	21.0	23.2	14.6	7.6	
	진보적	0.3	0.0	0.5	1.2	3.6	13.1	15.1	19.8	23.1	14.6	8.7	

〈부표 3-57〉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노년층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 (df)
전체		0.3	0.4	2.2	5.6	6.9	18.4	15.3	18.0	16.6	10.4	5.9	
성별	남성	0.4	0.4	2.2	6.4	7.2	18.6	14.9	18.7	15.8	9.7	5.8	11.051
	여성	0.2	0.4	2.2	4.9	6.6	18.3	15.7	17.3	17.4	11.2	5.9	(10)
연령	20대 이하	0.9	0.0	1.8	7.0	6.4	18.5	13.7	22.0	15.5	9.6	4.7	62.428 (40)*
	30대	0.2	0.3	2.0	5.5	5.5	20.2	14.4	19.2	17.1	10.7	5.1	
	40대	0.1	0.8	2.4	5.2	7.2	18.4	14.7	17.9	16.9	10.9	5.5	
	50대	0.1	0.5	2.8	5.8	8.7	17.3	16.7	17.7	16.3	8.1	6.1	
	60대 이상	0.3	0.3	2.0	4.9	6.4	18.2	16.5	14.6	16.9	12.6	7.3	
지역1	수도권	0.1	0.1	1.2	5.4	6.0	14.7	14.1	20.4	18.9	12.5	6.6	124.74
	비수도권	0.5	0.7	3.3	5.8	7.8	22.3	16.6	15.5	14.1	8.2	5.1	5(10)***
지역2	대도시	0.1	0.4	2.3	8.0	7.9	20.9	16.4	19.1	15.1	6.8	2.8	163.00 2(20)***
	중소도시	0.4	0.4	2.1	3.5	5.7	15.5	14.8	17.6	18.1	13.7	8.1	
	농어촌	0.8	0.3	2.7	6.1	8.4	22.8	12.8	14.7	14.4	9.3	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1	2.2	4.8	3.5	16.7	17.9	15.0	15.1	14.8	10.0	81.068 (30)***
	중하층	0.3	0.4	1.9	6.5	8.3	17.3	16.9	18.8	15.8	9.2	4.7	
	중간층	0.4	0.4	2.3	5.1	6.8	20.2	13.2	18.4	17.3	10.3	5.5	
	중상층(상층)	0.2	0.9	3.3	6.1	6.1	14.9	17.0	16.5	20.0	8.3	6.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0.2	2.6	5.9	6.4	18.6	14.9	16.8	16.3	11.3	6.7	81.633 (40)***
	200만 원대	0.3	0.5	1.6	5.0	9.0	21.3	15.8	18.0	12.4	10.9	5.1	
	300만 원대	0.5	0.1	2.0	5.8	6.4	16.7	18.7	18.4	18.4	8.5	4.7	
	400만 원대	0.0	0.3	2.9	6.5	5.0	16.3	16.4	18.4	18.3	10.2	5.6	
	500만 원 이상	0.4	1.3	1.6	4.8	6.4	15.6	10.2	21.9	22.4	9.1	6.2	
학력	중졸 이하	0.2	0.4	1.3	4.7	6.4	17.7	18.8	15.8	17.4	9.4	7.9	35.204 (20)*
	고졸	0.3	0.1	2.6	5.9	7.9	18.4	15.9	16.7	15.9	11.2	5.0	
	대졸 이상	0.3	0.6	2.1	5.6	6.0	18.6	13.9	19.8	16.9	10.0	6.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	0.5	1.9	5.1	7.2	18.3	15.6	18.1	18.7	9.5	4.6	72.648 (50)*
	임시·일용직	0.6	0.2	2.6	5.0	5.1	19.3	14.5	19.0	13.6	14.5	5.7	
	고용주, 자영자	0.1	0.5	1.8	5.4	8.1	20.4	14.2	18.2	14.4	10.7	6.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4.4	8.8	5.1	22.0	18.1	10.3	18.8	2.0	10.6	
	실업자	0.0	0.1	4.3	11.5	7.4	12.7	15.2	16.6	17.0	10.0	5.1	
	비경제활동인구	0.3	0.3	2.3	5.5	6.2	17.6	16.0	18.0	16.0	10.5	7.3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	0.1	2.9	5.3	9.3	17.0	13.0	13.2	23.0	8.9	6.6	71.91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	0.3	1.8	5.4	7.0	18.3	15.1	20.3	16.1	10.7	4.5	
	숙련 및 기술직	0.1	0.3	1.9	4.8	6.3	24.1	15.8	12.8	16.4	9.9	7.6	
	단순노무 종사자	0.5	2.5	2.2	4.5	6.3	16.8	16.9	20.5	11.6	12.4	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0.5	1.9	5.0	7.3	18.5	15.8	18.6	18.9	9.0	4.1	18.303
	비정규직	0.5	0.2	1.9	5.3	5.4	19.8	13.9	17.8	15.0	14.1	6.1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0.2	2.3	3.6	6.9	18.6	15.0	17.4	17.6	10.4	7.8	44.736 (20)**
	중도적	0.3	0.5	2.3	6.4	6.7	19.5	16.3	18.5	15.5	9.6	4.5	
	진보적	0.4	0.3	1.9	6.3	7.2	15.8	13.6	17.7	17.7	12.4	6.6	

〈부표 3-5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상용직 임금근로자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² (df)
전체		4.3	11.5	14.2	14.0	9.8	24.1	10.2	6.6	2.4	1.5	1.4	
성별	남성	4.9	12.0	15.2	14.0	9.8	22.0	10.5	6.5	2.4	1.2	1.5	16.721 (10)
	여성	3.7	10.9	13.2	13.9	9.8	26.3	10.0	6.7	2.4	1.8	1.4	
연령	20대 이하	2.3	12.1	12.4	13.1	12.6	25.7	9.5	6.8	2.5	2.2	0.8	100.45 5(40)***
	30대	3.6	11.7	11.6	13.5	7.8	24.2	11.6	7.7	3.7	2.3	2.3	
	40대	5.4	9.9	14.1	12.9	8.9	25.0	9.9	8.0	1.4	1.9	2.5	
	50대	5.1	13.1	16.5	15.5	8.0	20.9	10.4	7.0	2.1	0.8	0.6	
	60대 이상	4.6	10.7	15.4	14.5	11.4	25.0	9.9	4.2	2.4	0.7	1.0	
지역1	수도권	4.3	13.4	13.5	14.7	10.5	21.1	9.8	7.1	2.7	1.0	1.8	48.721 (10)***
	비수도권	4.3	9.4	14.9	13.3	9.1	27.3	10.7	6.0	2.0	2.0	1.1	
지역2	대도시	5.7	16.4	17.5	14.6	9.3	19.3	8.1	5.3	1.8	1.1	0.9	218.71 4(20)***
	중소도시	2.2	7.5	11.1	13.6	11.1	28.4	12.0	7.7	2.9	1.6	1.8	
	농어촌	9.2	9.5	16.4	12.6	4.5	23.1	10.2	6.8	2.6	2.8	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9	10.9	18.0	18.3	8.1	18.7	9.8	5.5	3.5	0.3	2.1	91.706 (30)***
	중하층	4.4	13.6	13.9	14.8	11.3	22.5	9.6	5.1	1.9	1.3	1.6	
	중간층	3.9	9.7	13.3	12.0	9.5	27.4	10.5	8.2	2.5	1.9	1.1	
	중상층(상층)	5.7	13.1	14.0	14.1	6.1	20.7	14.4	6.2	1.4	3.1	1.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4	10.5	14.1	13.9	10.1	25.4	10.0	5.9	2.8	1.6	1.5	64.778 (40)**
	200만 원대	3.2	11.3	15.3	13.7	8.5	24.6	10.9	6.5	1.7	2.2	2.1	
	300만 원대	4.2	13.4	11.1	12.5	11.4	25.8	11.5	6.7	2.1	0.6	0.6	
	400만 원대	4.8	10.0	14.6	17.5	9.8	19.9	8.2	10.6	2.2	1.2	1.1	
	500만 원 이상	6.0	13.8	16.9	14.5	9.1	18.8	9.2	6.5	2.8	1.1	1.2	
학력	중졸 이하	5.9	11.7	18.4	15.2	9.2	23.3	8.0	3.1	2.8	1.1	1.4	37.664 (20)*
	고졸	4.5	11.6	12.5	14.3	10.3	24.8	11.0	6.1	2.1	1.2	1.5	
	대졸 이상	3.7	11.3	14.7	13.4	9.5	23.7	10.1	8.0	2.5	1.9	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9	12.9	12.5	13.7	9.9	23.2	10.8	6.8	2.3	1.3	1.7	80.781 (50)**
	임시·일용직	4.3	12.2	16.9	12.8	8.6	26.1	11.1	4.0	2.2	1.1	0.7	
	고용주, 자영자	4.2	9.8	17.2	15.0	9.5	22.8	9.5	7.8	1.5	1.4	1.4	
	무급가족종사자	10.4	8.2	19.4	19.1	4.7	17.9	9.3	5.0	3.2	0.8	2.1	
	실업자	4.2	12.2	13.2	11.3	6.9	29.6	5.8	6.5	7.2	2.2	1.0	
	비경제활동인구	3.1	10.4	13.3	14.4	11.3	25.0	10.4	6.6	2.3	2.0	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5.6	11.1	15.2	13.1	10.3	19.4	7.9	9.0	2.4	3.8	2.0	44.407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3	11.8	13.9	14.1	9.8	24.0	11.4	6.3	2.3	0.8	1.2	
	숙련 및 기술직	5.1	12.2	15.9	14.4	8.5	24.4	8.8	6.2	1.6	1.2	1.7	
	단순노무 종사자	6.5	12.1	16.6	13.9	6.7	23.1	10.5	6.2	0.6	1.0	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2	12.8	12.5	13.6	9.1	23.4	10.9	7.1	2.3	1.4	1.5	20.632 (10)*
	비정규직	3.9	11.9	16.8	14.2	12.1	24.4	9.4	3.4	1.7	0.5	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11.6	15.8	14.0	10.2	25.1	9.5	4.5	2.8	1.3	1.5	37.355 (20)*
	중도적	4.7	11.0	13.4	15.7	9.5	23.7	10.2	7.0	2.0	1.5	1.2	
	진보적	4.2	12.4	14.1	10.0	10.0	23.8	11.2	8.2	2.6	1.6	1.7	

〈부표 3-5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 (df)
전체		0.1	0.4	0.7	2.3	4.1	8.0	12.2	19.7	23.6	17.1	11.7	
성별	남성	0.1	0.3	0.9	1.9	4.9	8.6	12.3	20.0	21.7	16.7	12.6	27.102
	여성	0.1	0.6	0.4	2.6	3.3	7.4	12.2	19.4	25.6	17.5	10.8	(10)**
연령	20대 이하	0.2	0.8	1.0	2.6	3.7	11.0	12.4	23.7	19.9	15.4	9.4	77.898 (40)***
	30대	0.0	0.1	0.9	2.7	3.2	7.4	12.0	17.0	26.4	18.6	11.6	
	40대	0.1	0.7	0.2	1.7	4.2	9.0	13.0	20.5	22.1	15.3	13.4	
	50대	0.3	0.1	1.1	2.4	4.3	6.8	12.4	20.2	24.1	18.8	9.4	
	60대 이상	0.1	0.4	0.3	2.1	4.9	6.5	11.6	17.5	25.3	17.2	14.3	
지역1	수도권	0.1	0.5	0.8	2.4	4.6	7.2	10.8	19.9	25.5	17.9	10.2	32.548
	비수도권	0.2	0.4	0.5	2.1	3.6	8.8	13.7	19.4	21.6	16.2	13.4	(10)***
지역2	대도시	0.1	0.3	1.1	3.8	6.7	9.5	13.9	20.0	20.8	14.5	9.2	165.64 3(20)***
	중소도시	0.2	0.6	0.3	1.0	2.3	6.6	11.7	20.2	26.0	18.7	12.5	
	농어촌	0.0	0.0	0.5	1.9	1.8	8.9	7.4	14.6	23.8	20.6	2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0.4	0.9	1.1	2.4	5.6	13.3	17.9	26.7	15.1	16.7	77.828 (30)***
	중하층	0.2	0.2	0.3	2.3	3.9	7.2	14.7	19.7	23.5	16.8	11.0	
	중간층	0.1	0.6	0.9	2.6	5.0	9.0	9.8	20.3	23.2	17.2	11.3	
	중상층(상층)	0.2	1.3	0.2	1.6	2.8	11.5	13.5	18.5	19.1	24.2	7.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0.4	0.4	2.1	3.8	7.8	11.4	18.9	25.0	15.7	14.3	86.543 (40)***
	200만 원대	0.2	0.6	0.4	2.1	4.1	9.2	12.5	18.9	22.5	18.6	10.8	
	300만 원대	0.2	0.6	1.6	2.7	3.2	7.1	13.8	20.3	23.7	18.4	8.4	
	400만 원대	0.0	0.3	0.8	3.3	7.4	5.9	15.1	19.0	25.4	11.3	11.5	
	500만 원 이상	0.5	0.0	0.6	1.7	4.3	9.1	10.6	23.8	18.8	21.5	9.0	
학력	중졸 이하	0.0	0.6	0.4	1.8	4.7	6.8	11.4	17.0	24.6	15.5	17.3	36.283 (20)*
	고졸	0.3	0.3	0.6	2.0	4.1	7.9	10.9	20.7	24.0	17.2	11.9	
	대졸 이상	0.0	0.5	0.8	2.7	4.0	8.4	13.7	19.3	23.1	17.4	1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0.4	0.8	2.5	3.8	7.9	12.2	20.3	22.9	19.3	9.7	81.204 (50)***
	임시·일용직	0.0	0.3	0.5	1.7	4.6	10.7	11.5	15.7	19.9	18.3	16.8	
	고용주, 자영자	0.2	0.6	0.7	2.3	4.7	6.4	13.2	20.6	24.2	15.4	11.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1.6	2.4	6.5	11.4	7.4	30.5	19.2	21.0	
	실업자	0.0	1.2	0.1	2.0	4.9	11.3	14.6	14.5	18.7	16.1	16.7	
	비경제활동인구	0.0	0.4	0.6	2.2	4.0	7.6	11.5	21.4	26.4	14.7	1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0.2	0.4	0.4	2.0	4.5	9.8	11.9	18.5	18.1	20.6	13.7	74.158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	0.6	0.8	2.6	4.2	7.9	12.0	20.4	24.1	17.7	9.6	
	숙련 및 기술직	0.0	0.0	0.9	1.6	3.8	7.9	15.3	19.0	22.5	17.3	11.7	
	단순노무 종사자	0.0	0.0	0.0	2.5	3.8	4.5	8.6	12.6	22.1	18.7	2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0.4	0.9	2.4	3.8	8.0	12.2	20.3	23.5	18.8	9.5	18.686
	비정규직	0.0	0.3	0.5	2.5	3.6	9.9	10.7	18.1	19.2	19.7	15.5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8	0.2	1.5	4.0	8.7	12.5	20.6	23.8	16.6	11.3	39.789 (20)**
	중도적	0.3	0.3	0.7	1.9	4.6	8.0	11.8	20.1	23.1	17.1	12.1	
	진보적	0.0	0.3	1.1	3.9	3.3	7.1	12.8	17.7	24.6	17.8	11.5	

〈부표 3-6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고용주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χ^2 (df)
전체		0.4	0.6	1.2	1.7	4.2	10.8	11.3	18.5	21.7	17.7	12.0	
성별	남성	0.6	0.8	1.3	1.7	3.4	12.7	11.2	17.4	21.8	17.5	11.7	26.802 (10)**
	여성	0.3	0.3	1.1	1.7	5.0	8.9	11.4	19.7	21.5	18.0	12.2	
연령	20대 이하	0.6	0.3	2.0	1.7	5.0	11.2	12.4	20.9	19.8	14.3	11.8	64.518 (40)**
	30대	0.1	0.3	0.5	1.5	2.5	12.1	10.3	19.2	23.2	19.3	11.2	
	40대	0.2	0.6	1.3	1.1	3.7	9.6	11.5	17.7	24.2	17.0	13.1	
	50대	0.9	1.0	1.6	2.1	5.2	11.8	12.6	16.1	20.5	18.0	10.3	
	60대 이상	0.3	0.5	0.6	2.1	4.1	9.9	9.7	19.2	20.9	19.6	13.1	
지역1	수도권	0.3	0.6	1.4	2.3	5.2	11.0	13.2	17.6	19.0	16.8	12.5	55.749 (10)***
	비수도권	0.6	0.5	0.9	1.1	3.1	10.6	9.2	19.5	24.4	18.7	11.4	
지역2	대도시	0.5	0.5	0.8	1.7	5.8	11.6	13.6	20.0	21.8	17.5	6.2	133.48 (20)***
	중소도시	0.4	0.5	1.5	1.8	2.9	9.7	9.8	17.6	21.8	18.3	15.8	
	농어촌	0.4	1.2	0.9	1.2	2.7	14.2	8.1	16.8	20.6	15.4	1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0.4	1.2	2.8	4.7	11.4	6.8	19.4	19.2	19.1	14.7	63.929 (30)***
	중하층	0.5	0.7	1.5	1.1	4.2	9.9	11.1	18.2	22.3	20.6	9.9	
	중간층	0.5	0.5	1.0	1.8	3.8	11.3	12.8	18.5	21.3	15.3	13.2	
	중상층(상층)	0.4	0.4	0.0	2.8	5.6	12.4	10.1	18.5	27.3	14.6	7.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0.5	1.0	2.0	4.6	10.4	10.2	19.4	21.7	17.9	12.0	80.215 (40)***
	200만 원대	0.5	0.4	1.6	1.0	3.7	10.0	12.6	17.6	18.6	19.7	14.2	
	300만 원대	0.1	1.1	1.3	1.6	3.0	10.0	10.8	19.6	25.4	17.8	9.4	
	400만 원대	1.1	0.7	1.2	1.2	7.4	13.7	10.6	12.7	20.1	19.3	12.0	
	500만 원 이상	0.6	0.2	0.6	2.6	2.6	13.1	14.3	19.8	23.3	11.8	11.1	
학력	중졸 이하	0.2	0.4	0.8	2.1	4.0	11.7	9.6	20.6	21.8	16.2	12.6	33.222 (20)*
	고졸	0.6	0.3	1.3	1.8	4.7	10.4	9.6	17.5	22.4	19.9	11.5	
	대졸 이상	0.3	0.8	1.1	1.4	3.6	11.0	13.3	19.1	20.9	16.1	1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0.6	1.4	1.2	3.3	10.4	12.5	19.4	21.5	18.1	10.9	87.148 (50)**
	임시·일용직	0.2	0.6	2.1	2.2	4.1	10.7	8.1	20.2	18.9	18.9	14.0	
	고용주, 자영자	0.2	0.8	0.5	1.2	3.7	11.4	11.7	14.9	22.6	17.8	15.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3.0	6.4	6.7	18.5	32.2	24.4	8.8	
	실업자	1.2	0.0	2.2	4.4	5.0	13.7	11.0	20.2	15.8	20.8	5.8	
	비경제활동인구	0.3	0.4	0.8	2.2	5.7	10.8	10.7	18.9	22.8	15.7	11.6	
직업	관리자, 전문가	0.7	1.4	2.4	2.0	5.4	11.9	10.9	19.3	18.2	17.7	10.1	46.584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0.5	0.9	1.0	3.1	10.2	12.6	18.0	22.2	17.4	13.7	
	숙련 및 기술직	0.2	1.0	1.5	1.2	3.8	11.2	9.4	19.8	21.1	19.9	10.9	
	단순노무 종사자	0.4	0.3	1.2	3.5	3.3	11.3	6.9	15.4	24.8	23.2	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0.4	1.5	1.3	3.3	10.5	12.6	19.7	21.1	18.5	10.4	9.441 (10)
	비정규직	0.2	0.8	1.4	2.2	3.7	10.4	8.9	20.5	21.8	18.5	1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0.2	0.8	1.3	2.9	10.1	10.3	20.5	23.5	16.7	13.6	49.395 (20)***
	중도적	0.4	0.5	1.1	1.3	4.6	11.4	11.5	17.8	21.5	18.5	11.5	
	진보적	0.8	1.1	1.7	3.2	4.9	10.5	12.0	17.7	19.8	17.4	11.0	

〈부표 3-6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4) 1인 자영업자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df)
전체		0.1	0.3	0.4	0.6	1.2	3.8	5.3	10.3	23.5	28.8	25.7	
성별	남성	0.2	0.3	0.5	0.7	1.5	4.2	6.0	10.0	22.7	27.3	26.7	17.423 (10)
	여성	0.1	0.3	0.2	0.4	1.0	3.5	4.6	10.6	24.2	30.4	24.7	
연령	20대 이하	0.3	0.0	0.5	0.1	1.1	4.5	6.3	12.7	24.5	28.1	22.0	59.681 (40)*
	30대	0.1	0.0	0.1	0.3	1.8	3.3	5.4	9.8	23.0	28.2	28.0	
	40대	0.0	0.7	0.8	0.5	0.9	4.9	5.0	10.0	21.9	29.7	25.5	
	50대	0.2	0.4	0.5	0.9	1.3	3.4	6.3	9.6	24.5	28.1	24.8	
	60대 이상	0.1	0.1	0.0	0.9	1.0	3.3	4.0	9.7	23.4	29.6	27.9	
지역1	수도권	0.1	0.1	0.6	0.8	0.9	2.9	5.4	11.9	26.3	27.8	23.3	61.021 (10)***
	비수도권	0.2	0.4	0.2	0.3	1.6	4.8	5.2	8.7	20.4	29.9	28.4	
지역2	대도시	0.1	0.1	0.5	0.9	2.0	4.7	6.3	12.8	25.0	30.1	17.4	163.46 (20)***
	중소도시	0.2	0.4	0.3	0.3	0.7	3.1	4.7	8.5	23.9	27.5	30.6	
	농어촌	0.0	0.1	0.4	0.4	0.4	3.9	3.5	8.3	12.8	30.7	3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	0.6	0.5	0.8	2.0	3.2	3.4	8.6	24.0	27.1	29.6	51.856 (30)**
	중하층	0.1	0.1	0.4	0.3	0.8	4.0	5.1	8.6	24.6	31.4	24.5	
	중간층	0.1	0.3	0.2	0.7	1.3	3.8	6.2	12.1	22.4	27.6	25.2	
	중상층(상층)	0.2	0.0	1.3	0.4	0.8	4.5	3.7	10.5	22.8	24.9	30.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0.1	0.2	0.3	1.1	4.0	5.5	9.6	22.7	30.7	25.7	78.218 (40)***
	200만 원대	0.2	0.8	0.4	0.6	1.3	3.5	4.1	7.7	25.2	28.1	28.1	
	300만 원대	0.2	0.2	0.9	0.4	1.4	3.1	5.9	12.4	22.3	29.3	23.9	
	400만 원대	0.0	0.3	0.4	2.0	1.0	4.3	7.0	12.8	19.3	28.9	24.0	
	500만 원 이상	0.3	0.0	0.2	0.6	1.3	4.7	4.9	13.2	27.7	21.9	25.2	
학력	중졸 이하	0.1	0.0	0.0	0.9	1.1	3.3	4.9	8.7	21.8	30.7	28.4	35.282 (20)*
	고졸	0.2	0.1	0.5	0.5	1.3	4.4	4.4	8.8	24.9	29.7	25.2	
	대졸 이상	0.1	0.4	0.4	0.6	1.1	3.4	6.2	12.2	22.5	27.5	2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0.1	0.5	0.5	0.8	4.1	5.1	10.4	23.2	29.4	25.7	63.486 (50)
	임시·일용직	0.0	0.5	0.2	1.4	1.6	5.2	4.7	8.6	22.2	31.0	24.6	
	고용주, 자영자	0.1	0.6	0.4	0.5	1.7	3.3	5.2	10.8	21.8	26.3	29.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7	0.0	0.0	1.2	3.1	9.2	21.4	40.1	24.4	
	실업자	0.0	0.0	1.2	0.8	2.4	4.2	9.3	8.6	26.2	23.2	24.1	
	비경제활동인구	0.0	0.1	0.0	0.3	1.1	3.4	5.4	10.9	25.3	29.3	24.1	
직업	관리자, 전문가	0.9	0.0	0.3	0.9	0.6	5.8	5.6	12.0	23.9	23.9	26.1	45.024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0.4	0.5	0.6	1.4	3.7	5.2	10.5	22.9	29.6	25.2	
	숙련 및 기술직	0.0	0.4	0.6	0.1	0.7	3.0	4.5	9.4	21.2	30.7	29.6	
	단순노무 종사자	0.0	0.0	0.0	1.5	1.1	6.9	4.0	5.6	21.3	28.5	3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0.2	0.6	0.6	0.8	4.3	5.0	10.4	23.8	29.8	24.3	11.268 (10)
	비정규직	0.2	0.5	0.2	1.3	1.3	5.1	5.3	9.0	19.3	31.2	2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0.5	0.1	0.5	1.0	3.1	4.8	9.3	26.1	28.1	26.5	34.566 (20)*
	중도적	0.2	0.2	0.6	0.5	1.3	4.0	5.5	10.7	24.1	28.6	24.4	
	진보적	0.1	0.1	0.3	0.8	1.3	4.4	5.5	10.8	18.5	30.3	27.8	

〈부표 3-6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5) 무직자

(단위: %)

구분		전혀 없었음	1	2	3	4	5	6	7	8	9	매우 컸음	X ² (df)
전체		1.8	1.0	3.1	4.1	6.2	21.5	14.8	14.8	15.0	9.6	8.0	
성별	남성	2.2	1.3	2.9	4.7	6.4	22.4	14.1	14.2	14.5	9.0	8.2	15.473
	여성	1.5	0.7	3.3	3.5	6.1	20.7	15.5	15.5	15.4	10.2	7.7	(10)
연령	20대 이하	3.5	0.7	4.0	4.2	4.4	21.3	18.0	17.2	13.1	8.5	5.1	78.758 (40)***
	30대	2.2	0.8	3.3	4.3	7.8	20.0	14.7	10.6	16.3	10.9	8.9	
	40대	0.9	1.1	1.8	3.5	7.0	24.2	12.4	13.6	16.8	9.9	8.7	
	50대	1.5	0.8	3.2	4.1	6.8	20.3	15.3	14.6	15.0	9.6	8.7	
	60대 이상	1.4	1.4	3.2	4.4	5.4	21.7	14.0	17.3	13.7	9.3	8.2	
지역1	수도권	1.5	0.8	3.2	3.8	4.4	20.4	16.4	14.8	15.4	10.2	9.1	46.152
	비수도권	2.2	1.2	2.9	4.5	8.2	22.8	13.1	14.9	14.5	9.0	6.8	(10)***
지역2	대도시	1.8	1.2	4.4	4.7	7.3	24.2	18.1	14.5	13.0	6.8	4.1	155.70
	중소도시	1.8	0.7	1.9	4.0	5.6	19.5	12.7	15.4	16.2	11.4	10.9	5(20)**
	농어촌	2.0	2.0	3.2	2.3	4.8	20.0	10.1	13.8	17.9	13.8	10.1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	0.2	1.6	3.1	7.8	23.4	13.6	16.2	11.9	9.6	10.8	68.690 (30)***
	중하층	1.3	1.0	3.3	4.3	6.3	22.6	15.4	13.8	15.7	9.9	6.4	
	중간층	2.3	1.0	3.4	4.1	5.7	19.8	15.1	15.6	15.7	9.5	7.7	
	중상층(상층)	1.7	3.0	2.5	6.8	6.3	24.7	9.7	11.4	10.0	8.6	15.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9	1.3	3.5	4.1	6.8	21.3	13.5	15.8	13.5	10.5	7.8	64.180 (40)**
	200만 원대	1.3	0.7	3.3	3.5	5.1	22.9	16.2	13.3	16.7	10.5	6.5	
	300만 원대	1.8	0.6	1.8	4.0	6.7	22.9	16.7	12.3	16.2	9.6	7.4	
	400만 원대	2.4	0.5	4.1	4.1	5.2	20.7	11.5	17.2	16.0	7.9	10.3	
	500만 원 이상	2.5	1.3	2.4	5.6	6.3	18.1	16.4	16.6	14.4	5.7	10.6	
학력	중졸 이하	2.3	1.0	2.2	3.9	5.9	23.0	11.8	16.4	13.5	11.3	8.7	23.641 (20)
	고졸	2.0	1.0	3.2	4.4	6.4	21.6	15.9	15.7	13.9	9.2	6.7	
	대졸 이상	1.5	1.0	3.2	4.0	6.2	21.2	14.5	13.6	16.3	9.6	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5	0.7	2.9	4.4	6.0	21.2	15.1	14.4	14.9	9.7	9.4	79.879 (50)**
	임시·일용직	2.0	1.7	1.2	2.1	5.4	28.4	13.7	15.5	12.2	11.9	6.0	
	고용주, 자영자	1.9	1.1	3.1	3.9	6.2	22.5	14.9	15.7	16.8	8.0	5.9	
	무급가족종사자	4.2	2.2	0.4	11.4	8.5	14.5	13.1	13.0	20.7	4.3	7.7	
	실업자	2.0	0.3	3.3	1.7	6.1	21.8	14.1	17.6	14.4	7.7	10.9	
	비경제활동인구	2.0	1.1	4.3	4.8	6.9	18.9	14.9	14.2	14.7	10.5	7.7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	0.5	3.0	3.6	5.1	24.0	8.2	17.0	11.3	10.8	14.6	73.065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	0.7	2.6	4.0	5.5	22.6	16.4	15.5	15.6	9.0	6.5	
	숙련 및 기술직	1.6	1.8	3.0	4.9	7.6	20.1	15.1	12.9	15.8	10.1	7.1	
	단순노무 종사자	2.7	2.7	0.9	3.1	8.0	26.1	10.2	11.0	15.6	9.0	1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	0.7	3.0	4.4	6.2	21.2	14.8	14.7	15.3	9.4	8.6	13.779
	비정규직	1.7	1.0	1.4	3.0	5.5	24.3	14.8	15.0	11.6	11.6	10.1	(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	1.4	3.3	3.8	5.6	20.1	14.5	15.3	15.8	8.8	9.9	32.638 (20)*
	중도적	2.0	0.9	3.2	4.3	6.7	20.4	15.6	15.3	14.9	9.7	6.8	
	진보적	1.9	0.7	2.4	4.2	6.0	26.1	13.1	13.1	14.1	10.3	8.1	

〈부표 3-63〉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전 국민 대상 제외)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X ² (df)
전체		19.9	80.1	
성별	남성	20.2	79.8	0.256(1)
	여성	19.5	80.5	
연령	20대 이하	10.3	89.7	78.169(4)***
	30대	15.0	85.0	
	40대	25.9	74.1	
	50대	23.1	76.9	
	60대 이상	22.4	77.6	
지역1	수도권	18.0	82.0	9.465(1)**
	비수도권	21.9	78.1	
지역2	대도시	18.8	81.2	5.339(2)
	중소도시	20.0	80.0	
	농어촌	24.5	7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81.5	7.053(3)
	중하층	22.1	77.9	
	중간층	18.7	81.3	
	중상층(상층)	17.9	82.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4	84.6	36.666(4)***
	200만 원대	23.0	77.0	
	300만 원대	22.9	77.1	
	400만 원대	24.8	75.2	
	500만 원 이상	22.6	77.4	
학력	중졸 이하	17.4	82.6	19.594(2)***
	고졸	23.1	76.9	
	대졸 이상	17.4	8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2	93.8	986.258(5)***
	임시·일용직	19.1	80.9	
	고용주, 자영자	60.0	40.0	
	무급가족종사자	24.2	75.8	
	실업자	19.2	80.8	
	비경제활동인구	10.7	89.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6	85.4	43.77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7.1	72.9	
	숙련 및 기술직	20.2	79.8	
	단순노무 종사자	11.7	8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2	94.8	29.131(1)***
	비정규직	12.8	8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6	80.4	0.058(2)
	중도적	19.9	80.1	
	진보적	20.0	80.0	

3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64〉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1순위

(단위: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 돌봄 관련 지원	농어가 관련 지원	X ² (df)
전체		68.9	12.3	3.1	6.2	6.8	2.7	
성별	남성	71.1	12.2	3.4	5.7	5.0	2.6	5.262(5)
	여성	66.5	12.5	2.9	6.7	8.6	2.9	
연령	20대 이하	54.4	13.7	21.0	7.2	3.6	0.0	201.032(20) ***
	30대	55.2	13.1	2.8	5.7	23.2	0.0	
	40대	67.6	12.2	0.7	4.9	12.7	1.9	
	50대	75.2	17.2	2.2	3.0	0.6	1.9	
	60대 이상	75.7	7.3	0.4	10.1	0.0	6.5	
지역1	수도권	65.4	18.6	2.5	6.8	6.7	0.0	41.801(5)***
	비수도권	71.9	6.9	3.6	5.7	6.8	5.1	
지역2	대도시	66.3	16.3	2.0	8.4	7.0	0.0	103.999(10) ***
	중소도시	72.7	10.3	4.5	4.1	6.7	1.7	
	농어촌	60.2	6.3	0.7	7.7	6.4	1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4	18.5	3.2	20.7	3.8	3.3	56.443(15)***
	중하층	69.3	13.5	2.5	4.6	6.9	3.2	
	중간층	73.6	10.1	3.2	3.3	7.9	2.0	
	중상층(상층)	71.6	5.1	8.5	7.1	3.2	4.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5.6	10.4	8.3	11.2	9.1	5.5	107.282(20) ***
	200만 원대	64.5	20.5	0.4	6.0	5.8	2.8	
	300만 원대	78.3	9.5	1.0	2.0	8.6	0.6	
	400만 원대	83.5	13.7	1.2	0.0	1.7	0.0	
	500만 원 이상	87.7	3.3	0.0	4.5	3.8	0.7	
학력	중졸 이하	61.8	7.8	0.0	15.7	0.0	14.7	79.236(10)***
	고졸	68.7	13.4	3.6	6.5	5.8	2.1	
	대졸 이상	71.0	12.0	3.3	3.4	9.8	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8.2	22.5	0.1	12.1	27.2	0.0	553.740(25) ***
	임시·일용직	26.1	57.7	1.5	12.0	2.0	0.7	
	고용주, 자영자	91.2	3.7	0.4	0.9	0.6	3.2	
	무급가족종사자	75.3	0.0	0.0	0.0	0.0	24.7	
	실업자	38.3	11.2	24.8	17.5	7.0	1.2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44.4	7.1	11.4	15.6	19.4	2.1	140.163(15) ***
	관리자, 전문가	71.0	10.8	0.1	0.5	17.6	0.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8.6	12.7	0.7	4.6	3.5	0.0	
	숙련 및 기술직	64.4	12.8	0.0	0.3	4.4	18.1	
	단순노무 종사자	47.1	36.1	0.0	13.9	0.0	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5	17.5	0.1	11.2	34.7	0.0	23.752(5)***
	비정규직	46.7	25.2	2.2	22.6	2.3	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4	12.7	0.6	6.0	4.7	1.6	21.487(10)*
	중도적	66.4	14.3	4.2	5.1	7.3	2.5	
	진보적	67.4	7.4	3.8	8.7	8.1	4.6	

〈부표 3-65〉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2순위

(단위: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 돌봄 관련 지원	농어가 관련 지원	X ² (df)
전체		17.0	28.4	10.6	22.0	13.7	8.4	
성별	남성	18.9	31.0	2.2	17.5	17.6	12.9	3.757(5)
	여성	15.8	26.8	15.8	24.8	11.3	5.6	
연령	20대 이하	35.2	0.0	0.0	19.1	7.7	38.0	36.544(20)*
	30대	0.0	23.6	35.1	12.8	28.5	0.0	
	40대	24.8	24.0	0.0	29.9	21.4	0.0	
	50대	8.0	44.5	24.1	10.6	0.0	12.7	
	60대 이상	18.2	34.3	0.0	29.0	6.4	12.2	
지역1	수도권	0.0	25.1	19.9	26.6	19.3	9.0	11.824(5)*
	비수도권	26.5	30.2	5.4	19.4	10.5	8.0	
지역2	대도시	24.8	17.8	19.5	26.0	5.4	6.4	21.828(10)*
	중소도시	0.0	45.9	2.3	14.7	29.0	8.1	
	농어촌	34.2	19.8	0.0	26.9	2.7	1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4	20.7	0.0	36.4	17.5	0.0	18.741(15)
	중하층	12.6	25.5	17.9	19.3	12.2	12.5	
	중간층	13.5	39.5	5.6	19.2	15.5	6.8	
	중상층(상층)	78.9	0.0	0.0	21.1	0.0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4	21.7	4.6	28.6	14.2	15.4	32.452(20)*
	200만 원대	25.6	31.6	23.4	6.4	5.9	7.0	
	300만 원대	0.0	61.6	5.7	19.5	13.2	0.0	
	400만 원대	16.8	0.0	0.0	34.1	49.1	0.0	
	500만 원 이상	21.2	3.2	0.0	75.6	0.0	0.0	
학력	중졸 이하	6.2	63.4	0.0	9.3	0.0	21.1	11.956(10)
	고졸	23.7	23.2	9.2	18.7	12.6	12.6	
	대졸 이상	7.9	31.9	14.2	28.8	17.2	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0.3	9.7	25.3	17.9	16.8	0.0	36.570(25)
	임시·일용직	9.3	60.1	22.3	7.6	0.7	0.0	
	고용주, 자영자	13.4	35.9	0.0	19.1	17.5	14.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100.0	0.0	0.0	
	실업자	46.1	34.1	0.0	19.7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2.8	0.0	9.1	39.7	21.7	16.6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72.4	0.0	13.2	14.4	0.0	11.687(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5	31.9	16.8	20.3	8.0	6.5	
	숙련 및 기술직	24.5	22.3	0.0	13.5	27.2	12.5	
	단순노무 종사자	0.0	79.0	0.0	0.0	21.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5	2.2	6.7	25.1	23.5	0.0	11.459(4)*
	비정규직	5.1	47.5	40.0	7.4	0.0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	24.9	15.0	38.0	11.0	3.6	14.693(10)
	중도적	31.1	27.2	5.4	6.6	12.8	16.9	
	진보적	11.8	32.2	11.8	23.1	16.5	4.5	

33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66〉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3순위

(단위: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 돌봄 관련 지원	농어가 관련 지원	χ^2 (df)
전체		11.0	23.9	24.8	21.2	7.1	12.0	
성별	남성	11.7	24.8	9.8	26.0	9.7	18.1	4.874(5)
	여성	10.4	23.0	39.3	16.6	4.6	6.0	
연령	20대 이하	0.0	73.1	26.9	0.0	0.0	0.0	21.224(20)
	30대	0.0	40.4	28.6	5.4	0.0	25.7	
	40대	35.7	0.0	30.5	14.0	8.6	11.2	
	50대	3.6	36.8	22.5	31.8	5.5	0.0	
	60대 이상	0.0	0.0	16.8	29.9	16.9	36.4	
지역1	수도권	18.0	25.2	31.1	16.6	0.0	9.0	2.496(5)
	비수도권	7.4	23.1	21.5	23.6	10.8	13.5	
지역2	대도시	0.0	41.5	34.5	5.3	5.9	12.7	13.332(10)
	중소도시	21.2	4.7	16.0	42.3	1.1	14.6	
	농어촌	17.9	22.9	18.0	9.2	32.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7	0.0	39.4	13.7	0.0	17.3	15.016(15)
	중하층	7.9	28.4	15.6	23.8	8.5	15.8	
	중간층	7.2	4.6	48.7	29.4	10.1	0.0	
	중상층(상층)	0.0	93.6	0.0	0.0	6.4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9	20.1	2.0	24.9	9.3	40.8	24.268(20)
	200만 원대	2.6	31.3	47.2	12.7	6.2	0.0	
	300만 원대	31.9	6.8	21.7	33.2	6.4	0.0	
	400만 원대	0.0	100.0	0.0	0.0	0.0	0.0	
	500만 원 이상	0.0	42.1	47.5	0.0	10.4	0.0	
학력	중졸 이하	0.0	29.1	0.0	38.2	32.7	0.0	8.326(10)
	고졸	15.1	30.8	19.0	17.4	7.8	10.0	
	대졸 이상	6.3	11.3	38.9	24.6	1.4	17.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1	16.7	70.9	5.3	0.0	0.0	24.568(20)
	임시·일용직	2.5	29.6	37.2	22.1	0.0	8.7	
	고용주, 자영자	12.9	17.6	10.2	27.0	22.7	9.7	
	실업자	0.0	0.0	0.0	42.5	0.0	57.5	
	비경제활동인구	47.1	52.9	0.0	0.0	0.0	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64.2	0.0	0.0	0.0	35.8	0.0	7.208(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4	27.2	33.4	12.6	10.1	9.3	
	숙련 및 기술직	0.0	0.0	0.0	100.0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0.0	0.0	35.6	64.4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	23.4	59.2	7.5	0.0	0.0	0.840(4)
	비정규직	0.0	29.4	41.2	20.7	0.0	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4	39.3	36.3	1.6	6.3	0.0	12.528(10)
	중도적	12.3	17.3	17.6	32.8	0.0	20.1	
	진보적	2.8	10.0	16.5	35.9	15.0	19.9	

〈부표 3-67〉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1+2+3순위

(단위: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 돌봄 관련 지원	농어가 관련 지원
전체		70.7	15.5	4.9	8.8	8.2	3.8
성별	남성	72.7	15.0	3.8	7.6	6.4	4.0
	여성	68.5	16.2	6.0	10.0	10.0	3.7
연령	20대 이하	57.1	15.7	21.8	8.7	4.2	2.9
	30대	55.2	16.8	7.2	7.1	26.0	0.8
	40대	71.7	14.9	1.8	8.8	15.5	2.3
	50대	76.0	22.5	5.2	5.5	0.9	2.8
	60대 이상	76.7	9.3	0.8	12.5	0.7	8.0
지역1	수도권	65.9	20.8	4.6	8.9	8.0	0.8
	비수도권	74.9	11.0	5.1	8.6	8.3	6.5
지역2	대도시	68.9	19.9	5.4	11.3	7.8	1.2
	중소도시	73.3	13.3	5.2	6.3	8.5	2.6
	농어촌	64.7	9.5	1.5	11.1	8.1	2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6	20.7	5.2	25.1	5.6	4.2
	중하층	71.0	17.4	5.1	7.7	8.5	5.2
	중간층	74.6	12.6	4.3	4.9	9.0	2.4
	중상층(상층)	76.8	11.3	8.5	8.5	3.6	4.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7.2	13.2	8.8	14.8	10.8	8.3
	200만 원대	67.4	25.4	5.1	7.3	6.7	3.6
	300만 원대	80.0	13.9	2.5	5.0	9.8	0.6
	400만 원대	84.7	14.9	1.2	2.5	5.2	0.0
	500만 원 이상	88.2	4.0	0.6	6.5	3.9	0.7
학력	중졸 이하	62.1	11.0	0.0	16.9	0.7	15.6
	고졸	71.6	16.9	5.3	9.0	7.3	3.7
	대졸 이상	71.8	14.9	5.7	6.4	11.1	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3	24.3	5.7	14.5	29.3	0.0
	임시·일용직	27.8	70.6	9.3	15.8	2.1	1.7
	고용주, 자영자	92.2	5.9	0.6	2.4	1.9	4.2
	무급가족종사자	75.3	0.0	0.0	7.3	0.0	24.7
	실업자	42.7	14.6	24.8	22.8	7.0	5.7
	비경제활동인구	47.3	8.6	12.5	20.2	21.9	4.1
직업	관리자, 전문가	71.5	15.5	0.1	1.4	18.8	0.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0.1	16.1	3.2	6.6	4.5	0.8
	숙련 및 기술직	66.6	14.8	0.0	2.5	6.9	19.2
	단순노무 종사자	47.1	46.4	3.7	20.5	2.7	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7	18.5	2.8	14.3	37.4	0.0
	비정규직	47.8	41.3	18.6	27.9	2.3	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9	16.9	3.8	9.4	6.0	1.9
	중도적	68.4	16.2	4.9	6.2	8.1	3.9
	진보적	69.2	12.4	6.3	13.7	11.2	6.2

3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68〉 지급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X ² (df)
전체		3.3	47.5	40.3	7.5	1.5	
성별	남성	3.4	43.4	43.3	8.1	1.8	6.033(4)
	여성	3.1	51.9	37.1	6.8	1.1	
연령	20대 이하	2.7	58.3	35.4	2.3	1.2	12.844(16)
	30대	3.1	47.3	42.7	5.6	1.2	
	40대	3.2	50.1	38.7	6.1	1.8	
	50대	3.1	42.0	42.1	11.9	0.9	
	60대 이상	3.6	46.5	40.7	7.4	1.7	
지역1	수도권	1.3	49.2	43.2	4.4	1.9	18.975(4)**
	비수도권	4.9	46.1	37.7	10.2	1.1	
지역2	대도시	3.3	49.2	39.7	5.6	2.2	6.622(8)
	중소도시	2.8	47.0	39.9	9.3	1.0	
	농어촌	5.4	43.3	44.9	5.8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	29.7	45.5	17.0	3.2	29.918(12)**
	중하층	2.1	50.2	39.8	6.6	1.3	
	중간층	4.2	48.9	39.7	5.9	1.2	
	중상층(상층)	1.0	61.3	34.7	3.0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1	47.1	39.2	9.0	0.7	12.692(16)
	200만 원대	2.6	43.6	44.0	7.7	2.0	
	300만 원대	2.5	45.8	41.8	7.9	2.0	
	400만 원대	1.0	59.6	35.0	3.2	1.1	
	500만 원 이상	5.4	49.8	37.4	5.8	1.6	
학력	중졸 이하	6.2	46.7	36.1	11.0	0.0	10.346(8)
	고졸	2.2	47.5	40.0	8.3	2.0	
	대졸 이상	3.8	47.8	41.7	5.5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	43.3	47.3	3.0	2.2	23.480(20)
	임시·일용직	3.5	43.3	42.0	5.6	5.5	
	고용주, 자영자	3.1	47.6	39.9	8.5	0.9	
	무급가족종사자	4.4	52.3	27.9	15.4	0.0	
	실업자	0.0	58.6	36.8	4.6	0.0	
	비경제활동인구	3.7	49.6	37.4	8.5	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7.1	43.0	44.3	2.7	3.0	11.82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	48.8	38.4	8.1	1.5	
	숙련 및 기술직	3.3	37.2	49.6	8.0	1.8	
	단순노무 종사자	0.0	49.1	48.9	2.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	40.3	50.1	2.9	2.8	4.936(4)
	비정규직	3.6	48.3	33.9	7.9	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	47.2	39.3	7.6	1.7	8.869(8)
	중도적	3.1	47.8	41.7	6.8	0.6	
	진보적	2.3	47.3	38.3	8.8	3.2	

〈부표 3-69〉 본인의 가구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약간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모르겠다	X ² (df)
전체		2.4	40.4	38.0	9.8	9.4	
성별	남성	3.2	40.8	36.9	11.0	8.0	21.870(4)***
	여성	1.6	40.0	39.0	8.5	10.9	
연령	20대 이하	5.0	43.9	32.6	5.9	12.5	76.468(16)***
	30대	1.8	42.7	42.0	5.9	7.6	
	40대	1.7	39.8	40.2	10.0	8.4	
	50대	2.1	37.0	38.7	12.6	9.7	
	60대 이상	1.6	39.3	37.0	13.4	8.7	
지역1	수도권	2.6	43.1	36.6	5.7	12.1	95.180(4)***
	비수도권	2.3	37.5	39.5	14.3	6.4	
지역2	대도시	2.0	40.9	41.3	8.2	7.5	41.649(8)***
	중소도시	2.6	41.4	35.4	10.0	10.6	
	농어촌	3.4	31.4	35.3	17.3	1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32.4	42.2	15.9	9.5	88.089(12)***
	중하층	0.9	39.6	40.0	10.2	9.2	
	중간층	4.1	43.0	36.3	7.6	9.1	
	중상층(상층)	5.2	44.9	26.5	9.3	14.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4	38.4	35.5	11.0	12.7	55.830(16)***
	200만 원대	2.5	39.5	41.3	9.3	7.3	
	300만 원대	1.4	41.3	41.0	9.0	7.3	
	400만 원대	4.5	46.8	37.6	7.9	3.2	
	500만 원 이상	2.3	45.4	37.2	7.9	7.3	
학력	중졸 이하	0.4	35.6	40.3	13.6	10.1	40.669(8)***
	고졸	2.4	36.8	39.3	10.5	11.0	
	대졸 이상	2.9	44.9	36.2	8.2	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1	45.0	37.4	6.7	7.8	125.882(20)***
	임시·일용직	1.2	32.7	43.5	13.2	9.4	
	고용주, 자영자	1.5	30.1	39.6	21.6	7.1	
	무급가족종사자	0.0	23.5	57.1	11.9	7.5	
	실업자	1.4	34.3	38.5	15.4	10.3	
	비경제활동인구	2.5	41.6	35.1	8.2	12.6	
직업	관리자, 전문가	3.5	44.6	32.6	9.8	9.5	20.49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2	40.7	40.6	8.8	7.7	
	숙련 및 기술직	3.3	37.2	40.4	12.2	6.9	
	단순노무 종사자	0.5	37.9	36.3	14.5	1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45.8	36.9	6.5	7.9	21.745(4)***
	비정규직	2.2	35.2	40.8	11.4	1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44.0	35.9	10.3	8.3	23.540(8)**
	중도적	2.1	38.5	40.0	9.6	9.8	
	진보적	4.4	40.3	35.9	9.4	10.0	

〈부표 3-70〉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피해 여부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X ² (df)
전체		26.6	14.2	26.5	32.7	
성별	남성	26.2	13.7	27.1	33.0	1.861(3)
	여성	26.9	14.9	25.9	32.3	
연령	20대 이하	28.4	12.3	27.0	32.3	39.059(12)***
	30대	26.6	11.6	29.5	32.3	
	40대	27.9	14.1	25.0	32.9	
	50대	30.5	14.6	24.3	30.6	
	60대 이상	20.5	17.4	27.2	34.9	
지역1	수도권	26.8	13.9	26.5	32.8	0.551(3)
	비수도권	26.3	14.7	26.5	32.6	
지역2	대도시	28.3	12.5	26.7	32.5	9.668(6)
	중소도시	25.5	15.4	26.2	32.9	
	농어촌	24.1	16.3	27.4	3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8	21.0	25.0	31.2	56.028(9)***
	중하층	23.9	15.4	25.9	34.8	
	중간층	28.7	11.4	28.1	31.8	
	중상층(상층)	38.4	13.1	19.5	28.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6.8	14.6	25.0	33.6	20.291(12)
	200만 원대	24.0	13.4	31.7	31.0	
	300만 원대	27.7	16.0	25.0	31.4	
	400만 원대	27.3	14.1	24.4	34.2	
	500만 원 이상	28.7	12.0	25.7	33.7	
학력	중졸 이하	22.9	19.8	24.4	32.9	32.325(6)***
	고졸	26.6	16.0	26.2	31.2	
	대졸 이상	27.5	11.1	27.4	3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8.2	11.1	26.1	34.6	75.146(15)***
	임시·일용직	26.3	20.3	21.1	32.3	
	고용주, 자영자	20.0	16.8	32.6	30.6	
	무급가족종사자	23.2	18.8	31.4	26.6	
	실업자	26.2	11.2	19.6	43.0	
	비경제활동인구	29.3	14.8	25.8	3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35.0	8.3	22.8	33.9	50.128(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3.3	14.2	29.8	32.7	
	숙련 및 기술직	24.5	16.7	25.8	33.0	
	단순노무 종사자	32.9	19.1	14.3	3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4	11.2	26.8	33.6	22.679(3)***
	비정규직	27.6	18.2	18.5	3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1	14.5	27.9	33.5	6.520(6)
	중도적	28.0	14.4	25.5	32.1	
	진보적	26.4	13.5	27.0	33.0	

〈부표 3-71〉 전반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X ² (df)
전체		0.8	8.8	30.8	52.2	7.5	
성별	남성	0.8	6.9	28.3	54.1	10.0	62.821(4)***
	여성	0.8	10.7	33.3	50.4	4.9	
연령	20대 이하	0.2	2.5	17.0	62.3	18.1	508.881(16)***
	30대	0.6	3.5	26.6	58.5	10.9	
	40대	0.9	7.0	29.1	55.4	7.5	
	50대	0.4	8.7	36.3	52.2	2.4	
	60대 이상	1.6	18.6	40.3	37.8	1.6	
지역1	수도권	0.3	6.6	29.8	55.8	7.5	46.239(4)***
	비수도권	1.3	11.1	31.7	48.5	7.4	
지역2	대도시	0.5	7.8	29.3	56.2	6.2	42.326(8)***
	중소도시	0.9	8.8	31.0	51.1	8.1	
	농어촌	1.4	13.8	36.3	38.4	1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	21.5	31.5	40.1	3.3	281.735(12)***
	중하층	0.4	8.7	35.3	49.1	6.5	
	중간층	0.2	5.4	27.9	58.1	8.5	
	중상층(상층)	0.7	5.1	20.3	55.7	18.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	14.5	33.9	43.9	6.4	194.932(16)***
	200만 원대	0.4	4.7	31.8	54.8	8.3	
	300만 원대	0.5	4.7	25.0	62.2	7.6	
	400만 원대	0.0	5.1	27.6	61.4	5.9	
	500만 원 이상	0.2	3.4	27.2	58.2	11.1	
학력	중졸 이하	2.6	26.2	37.5	32.2	1.6	320.963(8)***
	고졸	0.7	9.2	31.6	51.0	7.4	
	대졸 이상	0.4	3.9	28.2	58.5	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2.4	27.1	60.3	9.9	247.195(20)***
	임시·일용직	0.1	9.3	38.6	48.1	4.0	
	고용주, 자영자	0.6	10.0	33.7	51.2	4.5	
	무급가족종사자	1.3	25.1	35.6	33.3	4.7	
	실업자	1.1	15.8	32.6	44.7	5.9	
	비경제활동인구	1.8	14.8	30.0	45.5	7.9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5.0	26.1	59.1	9.8	53.04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4.8	29.8	57.7	7.3	
	숙련 및 기술직	0.3	8.9	35.8	47.4	7.5	
	단순노무 종사자	1.0	12.4	37.4	45.6	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2.3	26.4	61.2	9.9	59.392(4)***
	비정규직	0.2	7.8	37.9	47.9	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	11.2	34.6	47.3	5.6	42.417(8)***
	중도적	0.5	7.5	30.0	53.5	8.4	
	진보적	0.5	8.6	27.6	55.7	7.6	

〈부표 3-72〉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상태 변화

(단위: %)

구분		훨씬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변화 없다	약간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X ² (df)
전체		0.7	11.3	83.8	4.0	0.2	
성별	남성	0.5	9.3	85.7	4.4	0.2	23.831(4)***
	여성	1.0	13.5	81.8	3.6	0.2	
연령	20대 이하	0.1	5.7	86.3	7.8	0.0	112.435(16)***
	30대	0.5	7.5	88.7	3.1	0.2	
	40대	0.6	12.5	83.2	3.6	0.2	
	50대	0.8	11.2	83.8	4.0	0.1	
	60대 이상	1.4	17.3	78.9	2.2	0.2	
지역1	수도권	0.8	10.8	83.3	5.0	0.2	11.392(4)*
	비수도권	0.7	11.9	84.2	3.0	0.2	
지역2	대도시	0.7	9.1	86.2	3.8	0.1	22.719(8)**
	중소도시	0.8	12.7	81.8	4.5	0.2	
	농어촌	0.2	14.6	83.0	2.0	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	17.8	77.9	0.9	0.0	110.165(12)***
	중하층	0.5	11.7	83.3	4.2	0.2	
	중간층	0.2	8.9	86.1	4.6	0.2	
	중상층(상층)	0.0	13.1	81.8	5.1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	16.0	79.3	3.5	0.1	80.126(16)***
	200만 원대	0.5	7.5	87.7	4.3	0.1	
	300만 원대	0.6	7.4	88.5	3.4	0.2	
	400만 원대	0.7	7.6	85.1	6.3	0.3	
	500만 원 이상	0.0	9.8	85.0	4.9	0.3	
학력	중졸 이하	1.0	19.1	77.9	1.6	0.4	54.421(8)***
	고졸	0.9	11.9	82.9	4.2	0.1	
	대졸 이상	0.5	8.8	86.1	4.4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6.1	89.1	4.4	0.2	90.315(20)***
	임시·일용직	1.3	10.4	84.0	4.4	0.0	
	고용주, 자영자	1.0	14.6	80.3	3.9	0.1	
	무급가족종사자	0.0	19.7	79.1	1.2	0.0	
	실업자	0.8	17.3	79.4	2.1	0.4	
	비경제활동인구	1.1	15.4	79.4	3.9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	12.8	81.0	5.1	0.1	26.37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8.4	87.0	4.0	0.2	
	숙련 및 기술직	0.1	9.6	85.4	4.9	0.0	
	단순노무 종사자	2.2	12.8	82.7	2.3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5.5	89.6	4.5	0.2	32.932(4)***
	비정규직	1.3	12.0	83.5	3.2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	13.9	82.0	2.6	0.2	31.962(8)***
	중도적	0.6	10.2	85.0	4.0	0.2	
	진보적	0.4	10.7	83.1	5.8	0.0	

〈부표 3-73〉 최근 1년간 우울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9.7	90.3	
성별	남성	8.8	91.2	3.667(1)
	여성	10.7	89.3	
연령	20대 이하	5.8	94.2	22.126(4)***
	30대	8.4	91.6	
	40대	12.6	87.4	
	50대	10.4	89.6	
	60대 이상	10.7	89.3	
지역1	수도권	9.1	90.9	1.711(1)
	비수도권	10.4	89.6	
지역2	대도시	8.6	91.4	4.469(2)
	중소도시	10.5	89.5	
	농어촌	11.0	8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9	82.1	51.175(3)***
	중하층	9.3	90.7	
	중간층	8.3	91.7	
	중상층(상층)	4.0	96.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2.2	87.8	22.159(4)***
	200만 원대	7.6	92.4	
	300만 원대	7.2	92.8	
	400만 원대	8.2	91.8	
	500만 원 이상	9.3	90.7	
학력	중졸 이하	11.6	88.4	2.870(2)
	고졸	10.0	90.0	
	대졸 이상	9.1	9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1	93.9	51.451(5)***
	임시·일용직	14.3	85.7	
	고용주, 자영자	12.9	87.1	
	무급가족종사자	12.1	87.9	
	실업자	16.7	83.3	
	비경제활동인구	9.4	90.6	
직업	관리자, 전문가	9.2	90.8	4.068(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5	90.5	
	숙련 및 기술직	7.8	92.2	
	단순노무 종사자	13.0	8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7	94.3	19.974(1)***
	비정규직	12.0	8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0	89.0	3.442(2)
	중도적	8.9	91.1	
	진보적	9.9	90.1	

〈부표 3-74〉 스트레스 정도

(단위: %)

구분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X ² (df)
전체		2.1	17.4	64.8	15.6	
성별	남성	2.5	17.2	63.9	16.5	4.665(3)
	여성	1.8	17.7	65.8	14.7	
연령	20대 이하	0.8	16.2	64.0	19.0	53.621(12)***
	30대	2.0	17.4	64.9	15.8	
	40대	2.4	19.0	67.5	11.1	
	50대	2.5	18.9	67.1	11.5	
	60대 이상	2.7	15.7	61.3	20.3	
지역1	수도권	1.7	17.9	67.4	13.0	26.431(3)***
	비수도권	2.6	16.9	62.2	18.4	
지역2	대도시	2.0	17.1	66.1	14.7	6.417(6)
	중소도시	2.4	17.5	64.3	15.8	
	농어촌	1.4	18.3	61.3	1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	26.6	55.7	11.8	138.105(9)***
	중하층	2.1	17.7	68.8	11.4	
	중간층	1.2	14.8	65.0	19.0	
	중상층(상층)	0.6	14.0	58.5	26.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5	17.7	59.9	19.9	68.928(12)***
	200만 원대	1.1	17.8	70.3	10.8	
	300만 원대	2.1	18.1	68.8	11.1	
	400만 원대	2.8	16.3	69.6	11.2	
	500만 원 이상	2.4	15.1	63.7	18.8	
학력	중졸 이하	2.1	17.0	58.5	22.4	29.707(6)***
	고졸	2.7	18.6	63.4	15.3	
	대졸 이상	1.6	16.4	67.9	1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	14.0	70.8	14.0	131.688(15)***
	임시·일용직	3.2	20.3	63.9	12.6	
	고용주, 자영자	3.7	23.7	61.8	10.7	
	무급가족종사자	0.7	14.8	67.4	17.1	
	실업자	2.6	28.6	50.8	18.0	
	비경제활동인구	2.0	14.7	61.1	22.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7	16.4	62.9	18.0	23.61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	18.2	69.0	10.7	
	숙련 및 기술직	2.0	16.1	65.3	16.6	
	단순노무 종사자	2.5	19.1	63.3	1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	13.6	71.5	13.8	17.092(3)**
	비정규직	2.4	19.9	63.4	1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	15.9	64.1	16.8	37.944(6)***
	중도적	1.9	16.0	67.7	14.4	
	진보적	1.3	22.6	59.3	16.8	

〈부표 3-75〉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 변화 (1) 일상에 지장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X ² (df)
전체		1.5	19.1	76.3	2.0	1.1	
성별	남성	1.5	18.2	77.3	2.0	0.9	3.756(4)
	여성	1.4	20.1	75.2	2.1	1.3	
연령	20대 이하	0.3	15.1	81.8	2.1	0.6	46.300(16)***
	30대	0.9	17.0	79.6	1.8	0.7	
	40대	2.0	21.0	72.3	2.4	2.2	
	50대	1.5	20.1	76.0	1.9	0.6	
	60대 이상	2.3	21.2	73.3	1.9	1.3	
지역1	수도권	1.3	20.7	75.5	1.5	0.9	12.872(4)*
	비수도권	1.7	17.4	77.0	2.6	1.2	
지역2	대도시	1.9	17.4	78.1	1.7	0.9	18.101(8)*
	중소도시	1.2	20.4	74.6	2.4	1.4	
	농어촌	0.6	20.4	77.0	2.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28.2	64.7	2.4	1.1	76.989(12)***
	중하층	1.7	19.0	76.9	1.5	0.9	
	중간층	0.8	16.9	78.8	2.2	1.3	
	중상층(상층)	0.1	15.7	80.3	3.7	0.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1	21.9	73.5	1.8	0.8	50.059(16)***
	200만 원대	0.7	18.5	78.2	1.3	1.3	
	300만 원대	1.3	17.4	77.2	3.6	0.5	
	400만 원대	1.6	15.2	79.1	2.5	1.5	
	500만 원 이상	0.9	15.0	79.5	1.9	2.6	
학력	중졸 이하	2.9	21.9	71.8	2.4	0.9	20.675(8)**
	고졸	1.2	20.0	76.0	2.2	0.7	
	대졸 이상	1.4	17.6	77.7	1.8	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	12.1	84.5	1.5	1.5	153.160(20)***
	임시·일용직	1.6	27.4	67.5	3.0	0.5	
	고용주, 자영자	2.6	25.9	67.0	3.2	1.3	
	무급가족종사자	0.0	21.2	74.0	3.0	1.7	
	실업자	3.6	28.3	67.1	0.6	0.4	
	비경제활동인구	1.9	19.2	76.5	1.7	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	15.9	79.3	1.1	2.5	22.75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	18.6	76.7	2.4	1.2	
	숙련 및 기술직	1.0	16.8	78.8	2.4	1.0	
	단순노무 종사자	1.8	27.3	67.5	3.3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11.0	85.5	1.5	1.6	74.863(4)***
	비정규직	1.2	25.8	69.7	3.2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	19.6	74.8	2.5	1.3	8.052(8)
	중도적	1.2	18.5	77.2	2.0	1.2	
	진보적	1.8	20.0	76.0	1.7	0.5	

〈부표 3-76〉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신건강 변화 (2)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X ² (df)
전체		3.6	33.4	59.4	2.6	1.1	
성별	남성	3.8	30.7	62.5	1.9	1.1	22.505(4)***
	여성	3.3	36.1	56.3	3.2	1.0	
연령	20대 이하	1.5	30.8	64.5	2.2	1.1	45.752(16)***
	30대	2.6	32.4	62.0	2.4	0.7	
	40대	4.4	35.7	54.6	3.2	2.0	
	50대	5.3	33.2	58.4	2.8	0.3	
	60대 이상	3.5	34.3	58.8	2.2	1.1	
지역1	수도권	3.4	36.2	57.4	2.1	0.9	16.984(4)**
	비수도권	3.7	30.5	61.5	3.0	1.2	
지역2	대도시	3.2	31.6	62.0	2.4	0.9	16.467(8)*
	중소도시	4.0	35.1	56.8	2.8	1.3	
	농어촌	3.2	32.4	62.5	1.8	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	36.5	50.2	3.4	1.0	84.171(12)***
	중하층	3.0	36.5	57.5	2.4	0.6	
	중간층	2.6	30.3	63.5	2.2	1.4	
	중상층(상층)	2.2	30.4	62.1	4.3	1.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9	33.4	59.2	2.8	0.7	38.292(16)**
	200만 원대	3.4	37.8	55.0	2.6	1.2	
	300만 원대	3.2	31.1	62.0	3.3	0.4	
	400만 원대	4.0	32.5	60.7	0.9	1.9	
	500만 원 이상	2.6	28.4	64.6	1.8	2.6	
학력	중졸 이하	3.9	33.2	59.2	3.1	0.6	11.011(8)
	고졸	3.5	32.6	60.9	2.3	0.7	
	대졸 이상	3.4	34.2	58.1	2.7	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5	29.3	65.8	1.8	1.6	124.135(20)***
	임시·일용직	4.7	36.6	54.2	4.0	0.5	
	고용주, 자영자	6.9	41.4	47.3	3.2	1.1	
	무급가족종사자	3.4	38.1	52.6	5.5	0.3	
	실업자	4.3	39.7	53.7	2.3	0.0	
	비경제활동인구	3.5	30.7	62.7	2.4	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3.4	31.3	61.3	1.5	2.5	26.99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	36.2	56.4	2.7	1.2	
	숙련 및 기술직	3.1	28.8	64.8	2.5	0.9	
	단순노무 종사자	6.0	31.7	58.0	4.3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	29.3	65.7	1.9	1.7	21.775(4)***
	비정규직	3.8	30.8	62.0	3.5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	33.2	58.6	3.0	1.3	8.597(8)
	중도적	3.1	32.8	60.5	2.5	1.1	
	진보적	4.2	34.9	58.3	2.1	0.5	

〈부표 3-77〉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1) 흡연량 혹은 빈도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0.6	6.0	30.5	1.8	0.2	61.0	
성별	남성	0.9	10.6	46.4	2.4	0.3	39.3	816.954(5)***
	여성	0.2	1.2	14.0	1.1	0.1	83.4	
연령	20대 이하	0.9	5.5	33.0	2.0	0.1	58.5	61.000(20)***
	30대	0.4	6.6	37.5	1.7	0.3	53.5	
	40대	0.4	6.0	31.1	2.0	0.3	60.2	
	50대	0.9	8.4	27.4	2.0	0.2	61.2	
	60대 이상	0.3	3.9	25.8	1.2	0.1	68.7	
지역1	수도권	0.5	5.8	31.5	1.9	0.1	60.1	3.635(5)
	비수도권	0.6	6.2	29.4	1.6	0.2	62.0	
지역2	대도시	0.3	4.9	30.7	1.5	0.1	62.6	17.314(10)
	중소도시	0.7	7.0	29.7	1.9	0.3	60.3	
	농어촌	0.7	5.3	34.0	2.3	0.4	5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	9.2	38.1	0.9	0.3	50.4	67.377(15)***
	중하층	0.8	6.8	27.4	2.0	0.1	62.9	
	중간층	0.2	5.0	30.2	2.0	0.2	62.5	
	중상층(상층)	0.7	0.2	35.3	0.4	0.4	63.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4	3.7	23.0	1.7	0.0	71.1	216.177(20) ***
	200만 원대	0.8	7.3	27.9	1.2	0.1	62.6	
	300만 원대	0.5	9.5	40.4	2.2	0.3	47.1	
	400만 원대	0.5	4.5	37.7	3.6	0.9	52.8	
	500만 원 이상	0.7	8.2	44.9	0.8	0.1	45.2	
학력	중졸 이하	0.6	4.2	23.1	1.2	0.0	70.9	24.192(10)**
	고졸	0.5	6.4	31.1	2.1	0.2	59.7	
	대졸 이상	0.6	6.1	31.7	1.6	0.2	59.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	5.5	35.7	2.2	0.4	55.6	178.223(25) ***
	임시·일용직	1.1	9.5	32.6	2.0	0.0	54.8	
	고용주, 자영자	0.6	10.1	32.7	1.0	0.1	55.5	
	무급가족종사자	2.1	0.0	25.8	0.5	0.0	71.7	
	실업자	0.3	9.8	26.7	1.2	0.0	62.0	
	비경제활동인구	0.1	2.0	21.2	1.8	0.0	74.9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	8.2	34.8	0.7	0.2	54.4	39.394(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6.4	32.2	1.9	0.3	58.8	
	숙련 및 기술직	0.9	8.4	39.7	2.5	0.5	48.0	
	단순노무 종사자	1.8	10.9	36.6	0.5	0.0	5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5.8	36.3	2.0	0.5	55.1	7.153(5)
	비정규직	1.4	5.6	34.6	2.6	0.0	5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	4.8	27.3	1.6	0.1	65.6	20.926(10)**
	중도적	0.4	6.6	32.6	2.0	0.2	58.2	
	진보적	0.8	6.2	29.6	1.5	0.2	61.6	

34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78〉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2) 음주량 혹은 빈도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0.7	10.0	47.1	11.3	2.0	28.9	
성별	남성	1.1	13.7	55.2	13.4	2.0	14.5	433.144(5)***
	여성	0.3	6.1	38.7	9.0	2.1	43.7	
연령	20대 이하	0.9	11.1	50.8	13.8	2.7	20.8	178.888(20)***
	30대	0.4	9.9	54.8	14.5	1.7	18.8	
	40대	0.6	8.6	48.9	12.7	2.3	26.8	
	50대	1.2	13.2	44.7	9.1	2.0	29.8	
	60대 이상	0.6	7.5	39.6	7.8	1.6	42.9	
지역1	수도권	0.5	10.2	48.8	11.6	1.9	27.0	12.111(5)*
	비수도권	1.0	9.8	45.3	10.9	2.2	30.9	
지역2	대도시	0.4	7.1	50.4	13.0	1.7	27.3	47.517(10)***
	중소도시	0.9	11.9	44.4	10.2	2.3	30.2	
	농어촌	1.1	13.0	46.3	8.5	2.3	2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13.7	50.2	8.9	0.2	25.4	48.888(15)***
	중하층	0.4	9.7	47.2	12.0	1.7	29.1	
	중간층	0.6	9.7	45.9	11.5	2.8	29.5	
	중상층(상층)	1.6	4.1	49.6	10.3	3.6	30.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9	7.0	41.3	8.0	1.6	41.2	257.810(20)***
	200만 원대	0.3	11.5	49.2	14.2	2.1	22.7	
	300만 원대	0.4	13.2	51.8	12.7	2.6	19.3	
	400만 원대	0.5	10.1	52.1	13.2	2.0	22.0	
	500만 원 이상	1.7	13.6	54.8	14.2	3.0	12.7	
학력	중졸 이하	0.6	5.6	37.3	6.3	0.8	49.5	146.460(10)***
	고졸	0.6	11.1	46.3	10.4	1.6	30.0	
	대졸 이상	0.9	10.1	50.4	13.4	2.8	2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8.7	54.4	14.5	2.3	19.5	327.168(25)***
	임시·일용직	1.0	17.0	43.8	9.9	3.8	24.5	
	고용주, 자영자	0.8	16.0	45.4	10.6	1.4	25.8	
	무급가족종사자	1.4	4.8	36.6	12.7	1.1	43.5	
	실업자	2.8	10.5	47.4	11.2	0.9	27.2	
	비경제활동인구	0.5	4.7	39.5	7.4	1.7	46.3	
직업	관리자, 전문가	0.5	11.2	45.2	14.3	4.0	24.8	33.609(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11.7	50.1	13.3	2.2	22.2	
	숙련 및 기술직	1.3	12.9	51.6	12.7	1.7	19.8	
	단순노무 종사자	1.8	12.7	52.6	3.5	0.9	2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9.0	54.5	14.9	2.4	18.7	30.044(5)***
	비정규직	0.4	13.5	49.7	7.9	2.0	2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	7.9	44.6	10.9	2.0	33.7	43.720(10)***
	중도적	0.6	10.2	49.7	10.1	1.7	27.8	
	진보적	0.9	12.2	44.5	14.4	2.8	25.2	

〈부표 3-79〉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3) 신체활동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0.6	7.2	52.8	31.0	7.9	0.5	
성별	남성	0.6	7.5	55.5	29.3	6.6	0.4	20.684(5)**
	여성	0.5	6.8	49.9	32.8	9.3	0.6	
연령	20대 이하	1.2	8.8	54.1	31.1	4.6	0.3	40.806(20)**
	30대	0.4	6.8	52.6	30.6	9.4	0.2	
	40대	0.3	7.7	51.1	30.9	9.0	0.9	
	50대	0.7	7.8	51.8	31.6	7.8	0.3	
	60대 이상	0.4	5.2	54.1	30.7	8.6	1.0	
지역1	수도권	0.4	5.8	48.9	35.2	9.3	0.3	61.810(5)***
	비수도권	0.8	8.6	56.8	26.6	6.5	0.8	
지역2	대도시	0.5	6.3	55.3	32.1	5.3	0.5	58.364(10)***
	중소도시	0.6	8.0	49.4	30.7	10.8	0.5	
	농어촌	0.8	6.5	60.2	27.0	4.3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	6.7	50.5	30.8	11.0	0.4	41.631(15)***
	중하층	0.7	7.8	54.7	28.5	7.8	0.6	
	중간층	0.5	6.2	52.4	33.6	6.6	0.6	
	중상층(상층)	0.4	13.2	47.3	25.6	13.5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7	6.6	52.1	32.0	8.2	0.5	30.140(20)
	200만 원대	0.7	6.5	52.2	30.9	9.0	0.7	
	300만 원대	0.4	7.3	57.2	29.0	4.9	1.1	
	400만 원대	0.2	8.7	53.7	30.8	6.6	0.0	
	500만 원 이상	0.4	9.5	49.1	30.5	10.4	0.1	
학력	중졸 이하	0.2	5.1	59.6	23.9	10.6	0.7	27.704(10)**
	고졸	0.8	6.9	52.0	32.8	6.9	0.6	
	대졸 이상	0.5	7.9	51.8	31.1	8.3	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	7.6	53.9	30.2	7.5	0.5	42.639(25)*
	임시·일용직	0.7	10.6	48.2	30.9	9.0	0.6	
	고용주, 자영자	0.6	6.1	53.8	31.8	7.1	0.6	
	무급가족종사자	0.0	5.3	61.5	21.6	11.6	0.0	
	실업자	2.8	8.5	47.7	34.5	6.5	0.0	
	비경제활동인구	0.4	5.8	52.7	31.6	8.8	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0.9	8.5	52.4	27.2	10.8	0.2	36.645(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8.0	50.7	32.6	7.6	0.6	
	숙련 및 기술직	0.3	6.1	60.8	27.5	5.3	0.0	
	단순노무 종사자	0.4	6.1	57.3	24.6	9.9	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7.9	54.2	29.7	7.4	0.4	5.464(5)
	비정규직	0.6	9.4	50.6	28.7	10.2	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3.6	55.4	31.6	8.3	0.8	37.607(10)***
	중도적	0.5	8.2	52.7	30.3	7.7	0.5	
	진보적	0.9	9.5	49.5	31.8	8.1	0.3	

〈부표 3-80〉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4) 체중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1.5	20.9	68.8	7.8	0.6	0.4	
성별	남성	0.9	19.4	72.3	6.4	0.5	0.5	34.609(5)***
	여성	2.2	22.5	65.2	9.1	0.7	0.2	
연령	20대 이하	1.9	20.3	67.8	8.7	0.8	0.4	74.033(20)***
	30대	3.2	23.3	65.9	7.1	0.4	0.1	
	40대	1.4	23.8	68.3	5.7	0.8	0.0	
	50대	1.2	23.1	66.4	8.9	0.4	0.0	
	60대 이상	0.5	15.4	74.1	8.2	0.7	1.1	
지역1	수도권	1.3	23.9	65.2	8.9	0.3	0.5	41.461(5)***
	비수도권	1.8	17.8	72.6	6.6	1.0	0.3	
지역2	대도시	1.2	21.0	70.1	6.9	0.6	0.2	28.768(10)**
	중소도시	1.8	21.7	66.9	8.8	0.4	0.4	
	농어촌	1.4	16.0	73.5	6.1	1.7	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	19.4	69.2	8.0	1.1	1.1	21.834(15)
	중하층	1.6	21.2	68.8	8.0	0.4	0.1	
	중간층	1.5	21.0	69.2	7.2	0.7	0.4	
	중상층(상층)	2.4	22.2	63.1	10.6	1.2	0.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	19.8	69.2	7.6	1.1	0.6	29.805(20)
	200만 원대	1.6	20.1	68.9	9.0	0.2	0.1	
	300만 원대	0.9	21.5	69.9	6.3	0.7	0.6	
	400만 원대	1.0	21.2	68.5	9.2	0.2	0.0	
	500만 원 이상	1.7	25.8	65.4	7.0	0.1	0.0	
학력	중졸 이하	0.8	12.4	80.1	5.6	0.5	0.6	38.864(10)***
	고졸	1.2	21.1	68.3	8.3	0.7	0.4	
	대졸 이상	2.0	22.9	66.4	7.9	0.6	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	22.4	69.1	6.9	0.4	0.1	48.868(25)**
	임시·일용직	1.1	16.4	71.1	10.2	1.2	0.0	
	고용주, 자영자	1.9	19.2	69.7	8.3	0.5	0.5	
	무급가족종사자	2.0	22.4	66.9	5.6	3.1	0.0	
	실업자	2.9	17.3	73.0	6.7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8	22.5	66.0	8.0	0.7	1.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9	23.0	65.9	7.5	0.6	0.2	37.267(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	22.0	67.2	8.6	0.7	0.2	
	숙련 및 기술직	0.5	14.9	78.6	5.6	0.4	0.0	
	단순노무 종사자	1.0	17.5	74.8	5.6	1.1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	22.9	68.8	6.7	0.4	0.0	12.650(5)*
	비정규직	0.8	17.6	72.0	8.2	1.2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	17.7	69.3	9.0	1.0	1.0	34.422(10)***
	중도적	1.4	21.5	69.1	7.5	0.5	0.1	
	진보적	1.2	23.8	67.5	6.8	0.5	0.3	

〈부표 3-81〉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5) 외식, 매식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2.3	15.9	34.4	32.8	13.6	1.0	
성별	남성	2.0	16.7	35.9	32.8	11.5	1.0	20.461(5)**
	여성	2.7	15.0	32.7	32.7	15.7	1.1	
연령	20대 이하	3.6	21.6	34.6	29.2	10.4	0.6	155.289(20) ***
	30대	3.6	20.4	29.7	33.1	13.0	0.2	
	40대	3.7	17.6	30.5	31.3	16.0	1.0	
	50대	1.5	14.6	32.8	34.1	15.8	1.1	
	60대 이상	0.1	8.3	42.0	35.2	12.4	1.9	
지역1	수도권	1.3	18.2	32.8	31.7	14.9	1.0	43.634(5)***
	비수도권	3.4	13.4	36.0	33.9	12.2	1.0	
지역2	대도시	1.9	19.0	35.1	31.6	11.8	0.5	62.798(10) ***
	중소도시	3.0	14.5	33.0	32.4	15.5	1.5	
	농어촌	0.5	8.0	38.5	41.0	11.2	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11.5	37.3	34.9	12.9	2.5	87.950(15) ***
	중하층	2.0	13.0	35.1	36.5	12.5	0.8	
	중간층	3.1	19.7	32.2	29.0	15.3	0.7	
	중상층(상층)	1.1	14.0	41.5	34.3	7.2	1.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	14.1	35.7	34.9	12.3	1.5	65.570(20) ***
	200만 원대	3.1	15.9	35.9	29.6	13.8	1.7	
	300만 원대	2.6	20.5	29.7	31.5	15.5	0.2	
	400만 원대	2.7	12.9	31.9	33.8	18.7	0.0	
	500만 원 이상	3.5	18.1	34.9	32.0	11.4	0.1	
학력	중졸 이하	0.1	6.9	45.9	32.9	12.2	2.0	100.239(10) ***
	고졸	1.9	14.3	32.8	35.2	14.6	1.3	
	대졸 이상	3.4	19.8	32.9	30.5	12.9	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9	17.9	32.2	32.1	13.8	0.2	149.813(25) ***
	임시·일용직	2.8	13.7	39.1	29.1	14.3	0.9	
	고용주, 자영자	0.9	12.2	34.3	34.8	16.5	1.3	
	무급가족종사자	2.1	9.5	37.4	40.4	10.6	0.0	
	실업자	0.9	19.7	33.1	29.2	9.6	7.6	
	비경제활동인구	1.2	16.3	35.6	34.0	11.7	1.1	
직업	관리자, 전문가	5.3	22.1	34.0	28.5	9.1	0.9	60.300(15)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	15.8	32.4	31.9	16.6	0.4	
	숙련 및 기술직	1.3	10.2	37.4	37.7	12.3	1.0	
	단순노무 종사자	1.5	14.5	39.7	32.0	11.3	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	18.1	32.1	31.8	13.7	0.2	16.837(5)**
	비정규직	2.4	14.6	40.4	30.1	11.5	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	14.3	37.2	30.4	14.6	2.2	46.247(10) ***
	중도적	2.6	15.9	34.5	33.2	13.4	0.5	
	진보적	3.3	17.9	30.4	34.8	12.8	0.8	

〈부표 3-82〉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생활 실천 변화 (6) 수면시간

(단위: %)

구분		훨씬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 없다	조금 줄었다	훨씬 줄었다	안함/ 비해당	X ² (df)
전체		0.5	9.2	79.1	9.8	1.4	0.1	
성별	남성	0.3	9.0	81.1	8.4	1.1	0.1	15.783(5)**
	여성	0.6	9.4	77.0	11.2	1.6	0.2	
연령	20대 이하	1.6	12.9	77.0	7.2	1.0	0.2	59.159(20)***
	30대	0.4	9.1	81.3	7.8	1.3	0.0	
	40대	0.1	7.2	79.8	11.3	1.4	0.2	
	50대	0.3	8.5	79.3	10.5	1.2	0.2	
	60대 이상	0.0	8.6	78.3	11.2	1.7	0.1	
지역1	수도권	0.3	9.2	79.8	9.4	1.2	0.1	5.086(5)
	비수도권	0.6	9.1	78.4	10.2	1.5	0.2	
지역2	대도시	0.2	8.5	82.4	7.4	1.4	0.1	49.826(10)***
	중소도시	0.4	9.4	77.2	11.6	1.3	0.1	
	농어촌	2.3	10.9	73.8	10.9	1.8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	13.4	73.6	10.9	1.3	0.2	20.984(15)
	중하층	0.5	9.7	78.6	9.7	1.4	0.1	
	중간층	0.4	7.7	81.0	9.5	1.3	0.1	
	중상층(상층)	0.0	7.2	80.8	10.2	1.8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7	12.6	74.5	10.6	1.4	0.3	65.877(20)***
	200만 원대	0.3	6.3	81.5	10.5	1.3	0.0	
	300만 원대	0.1	7.1	83.3	8.3	1.2	0.0	
	400만 원대	0.1	6.9	84.4	6.4	2.2	0.0	
	500만 원 이상	0.6	6.6	82.0	9.7	1.1	0.0	
학력	중졸 이하	0.0	9.4	79.5	10.0	1.0	0.1	5.997(10)
	고졸	0.5	9.8	78.0	10.1	1.5	0.1	
	대졸 이상	0.5	8.5	80.1	9.4	1.3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	7.0	83.6	7.8	1.3	0.0	96.730(25)***
	임시·일용직	0.9	10.0	75.9	10.1	2.7	0.3	
	고용주, 자영자	0.1	6.8	79.5	12.1	1.4	0.0	
	무급가족종사자	0.0	11.8	73.6	12.8	1.8	0.0	
	실업자	2.7	16.8	69.3	8.9	1.8	0.5	
	비경제활동인구	0.2	12.2	75.7	10.8	0.8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	7.1	82.0	7.9	2.3	0.0	39.718(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7.1	80.3	10.5	1.6	0.0	
	숙련 및 기술직	0.0	7.5	84.0	8.2	0.3	0.0	
	단순노무 종사자	0.2	12.7	77.7	5.7	2.9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6.9	84.4	7.4	1.0	0.0	21.787(5)**
	비정규직	0.9	10.8	76.1	9.5	2.4	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8.3	77.3	11.7	2.0	0.2	32.924(10)***
	중도적	0.6	8.8	81.6	7.8	1.1	0.1	
	진보적	0.3	11.2	75.7	11.7	1.2	0.0	

〈부표 3-83〉 코로나19로 건강에 가장 타격을 입은 집단(복수응답)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성 소수자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농 어업인	소상 공인 자영 업자	취약 근로자	주거 취약 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1인 가구	집단 요양 시설 입소자	가난한 사람	기저 질환자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
전체		3.5	3.0	0.5	9.2	6.2	17.2	11.0	4.9	2.2	60.5	41.0	25.4	10.5	4.0	37.1	29.5	33.5	0.2
성별	남성	2.2	3.7	0.6	8.3	6.8	17.0	11.6	5.4	2.5	61.0	42.4	25.2	10.2	4.0	36.9	29.0	32.2	0.2
	여성	4.9	2.2	0.3	10.1	5.5	17.4	10.3	4.4	1.8	60.0	39.7	25.7	10.8	4.0	37.4	30.0	34.8	0.2
연령	20대 이하	3.6	3.3	0.4	10.4	13.2	15.0	12.2	4.8	1.7	57.8	43.8	23.9	11.9	4.5	36.4	27.9	28.7	0.1
	30대	3.9	2.8	0.8	10.5	7.7	17.2	11.9	5.9	1.4	58.5	38.1	27.5	11.2	3.8	33.3	31.6	32.7	0.2
	40대	5.0	4.1	0.4	11.9	4.7	13.5	10.1	5.6	3.2	61.7	44.9	23.5	11.8	3.5	34.2	29.2	31.9	0.3
	50대	4.0	2.9	0.3	8.5	4.8	18.9	10.3	4.5	1.5	63.4	43.3	22.9	10.2	3.6	38.2	26.9	34.8	0.0
	60대 이상	1.5	1.9	0.4	5.7	2.4	20.5	10.7	4.1	2.7	60.5	35.9	28.9	8.1	4.6	41.9	31.6	37.6	0.3
지역1	수도권	2.9	1.8	0.5	8.7	4.7	18.9	10.8	5.2	1.9	56.9	40.7	28.5	9.8	3.7	36.0	32.1	36.3	0.1
	비수도권	4.2	4.2	0.5	9.7	7.8	15.5	11.1	4.6	2.5	64.3	41.4	22.3	11.1	4.4	38.4	26.7	30.5	0.3
지역2	대도시	2.7	2.3	0.6	8.4	6.2	17.4	9.1	5.6	1.1	60.2	42.4	26.9	7.1	3.0	42.2	30.0	33.9	0.2
	중소도시	4.3	2.9	0.4	9.5	6.5	17.5	12.8	4.3	2.4	60.0	39.5	24.9	12.6	4.5	33.5	30.3	33.3	0.1
	농어촌	2.8	7.0	0.0	11.7	3.9	14.9	9.4	4.7	6.5	65.3	43.4	21.1	14.9	6.5	33.4	22.0	31.9	0.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5.6	4.9	0.2	7.9	5.1	21.2	10.4	3.7	1.8	52.8	40.3	24.4	9.9	6.1	37.3	32.0	35.2	0.3
	중하층	3.4	3.0	0.6	9.2	5.7	16.7	11.3	4.4	1.7	63.2	41.6	25.1	12.3	4.2	39.2	26.2	32.0	0.2
	중간층	3.0	2.5	0.4	9.2	6.9	15.9	10.6	5.5	2.7	60.5	41.9	26.6	9.2	3.6	35.1	31.8	33.5	0.1
	중상층(상층)	2.7	1.3	1.2	13.4	6.2	22.8	14.5	6.8	2.4	62.9	30.5	19.4	9.3	0.7	40.0	25.2	39.9	0.4
월평균 근로 소득	200만 원 미만	3.8	3.1	0.4	9.3	7.1	19.1	10.5	4.6	2.1	56.0	39.0	24.6	11.7	4.6	38.0	31.4	33.7	0.3
	200만 원대	2.9	1.7	0.6	6.9	6.2	14.2	11.7	4.4	2.2	68.1	45.9	27.3	10.2	3.1	37.2	28.8	28.3	0.0
	300만 원대	4.6	4.0	0.7	9.7	5.5	17.2	10.2	4.6	2.2	63.3	44.2	25.2	8.7	4.6	36.0	25.1	33.2	0.1
	400만 원대	2.4	2.8	0.5	10.7	5.5	13.6	12.6	8.0	0.3	60.8	43.7	22.8	10.5	3.7	32.5	31.4	37.7	0.0
	500만 원 이상	2.7	3.5	0.2	11.7	4.0	18.8	11.5	5.5	3.8	58.0	32.2	27.5	8.7	2.9	38.7	28.3	40.6	0.5
학력	중졸 이하	2.2	2.0	0.4	6.6	2.1	22.9	11.3	4.1	2.4	54.4	34.1	27.4	10.1	5.8	42.4	34.8	36.1	0.5
	고졸	3.7	3.1	0.4	8.1	5.9	15.2	11.4	4.9	2.6	62.1	42.9	24.9	11.3	3.7	37.4	28.6	32.9	0.1
	대졸 이상	3.6	3.1	0.6	10.9	7.5	17.7	10.5	5.1	1.8	60.6	41.1	25.4	9.8	3.9	35.6	29.0	33.3	0.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0	3.0	0.8	9.2	6.8	16.7	10.9	5.3	2.2	60.0	41.9	25.8	9.8	3.8	36.1	31.7	32.3	0.1
	임시·일용직	3.7	3.2	0.5	8.0	7.4	16.6	12.1	4.8	1.2	60.2	48.3	23.0	10.2	3.7	39.9	23.6	32.6	0.2
	고용주, 자영자	4.1	3.5	0.2	10.2	2.7	13.5	9.9	5.7	3.3	73.2	40.3	24.9	9.7	2.7	35.2	26.2	33.8	0.1
	무급가족	5.1	3.6	0.0	10.0	5.6	21.0	8.2	8.0	6.2	63.5	29.5	14.7	12.2	4.9	33.1	29.7	43.5	1.3
	종사자	2.9	4.0	0.6	7.3	12.2	19.1	11.1	3.7	0.0	52.2	41.1	23.3	14.8	4.7	33.7	34.3	34.0	0.0
	실업자	3.9	2.1	0.2	9.3	6.2	20.3	11.6	3.9	1.9	53.4	37.9	27.4	11.2	5.3	39.7	30.4	34.5	0.3
	비경제활동 인구																		
직업	관리자, 전문가	5.1	2.3	0.8	11.2	5.6	14.7	9.7	6.6	4.5	54.4	42.1	22.1	11.8	3.0	30.3	38.7	36.2	0.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7	3.1	0.6	9.4	6.1	15.5	10.8	5.5	1.4	65.5	43.4	25.8	8.9	3.6	35.9	27.4	32.4	0.2
	숙련 및 기술직	1.1	3.9	0.0	8.0	4.0	16.5	13.1	4.8	5.2	66.1	39.2	22.5	11.5	3.4	39.7	26.2	34.2	0.2
	단순노무 종사자	4.2	3.6	1.3	8.6	7.4	20.8	5.2	3.4	0.7	57.5	39.4	27.4	12.1	3.9	44.2	31.2	29.2	0.0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2.7	3.1	0.9	9.1	6.3	16.2	10.6	5.6	2.4	60.2	41.7	25.9	10.5	3.6	36.2	32.0	32.4	0.1
	비정규직	4.4	2.9	0.5	8.7	8.3	19.9	9.5	3.9	1.1	59.1	44.4	24.2	8.1	5.0	41.4	24.9	32.8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	2.7	0.6	9.2	3.9	20.7	10.3	4.7	2.6	57.8	39.9	25.6	9.6	3.5	38.5	30.3	35.8	0.2
	중도적	3.7	3.1	0.5	8.6	6.9	15.1	10.1	4.9	2.0	62.6	41.0	26.3	10.8	4.7	36.7	27.5	34.5	0.1
	진보적	3.1	2.8	0.2	10.5	7.3	17.5	14.0	5.2	2.0	59.3	42.5	23.2	10.8	3.1	36.3	32.9	28.1	0.3

〈부표 3-84〉 가구원 중 코로나19 확진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X ² (df)
전체		43.3	56.7	
성별	남성	41.4	58.6	6.489(1)*
	여성	45.4	54.6	
연령	20대 이하	54.5	45.5	114.163(4)***
	30대	47.2	52.8	
	40대	47.1	52.9	
	50대	42.5	57.5	
	60대 이상	29.9	70.1	
지역1	수도권	43.6	56.4	0.091(1)
	비수도권	43.1	56.9	
지역2	대도시	43.5	56.5	13.369(2)**
	중소도시	44.8	55.2	
	농어촌	33.8	6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8	64.2	22.049(3)***
	중하층	42.7	57.3	
	중간층	45.1	54.9	
	중상층(상층)	53.3	46.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3.1	56.9	6.724(4)
	200만 원대	42.7	57.3	
	300만 원대	40.8	59.2	
	400만 원대	44.3	55.7	
	500만 원 이상	48.7	51.3	
학력	중졸 이하	29.3	70.7	43.046(2)***
	고졸	44.2	55.8	
	대졸 이상	46.1	5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5.5	54.5	18.100(5)**
	임시·일용직	43.6	56.4	
	고용주, 자영자	36.6	63.4	
	무급가족종사자	47.1	52.9	
	실업자	42.7	57.3	
	비경제활동인구	44.9	55.1	
직업	관리자, 전문가	53.5	46.5	28.915(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3.1	56.9	
	숙련 및 기술직	38.5	61.5	
	단순노무 종사자	31.4	6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4	54.6	0.093(1)
	비정규직	44.5	5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7	61.3	27.145(2)***
	중도적	42.9	57.1	
	진보적	50.3	49.7	

〈부표 3-85〉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1순위

(단위: %)

구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증가	자가격리 로 인한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학업 공백	자녀 또는 부모님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X ² (df)
전체		35.0	15.5	8.4	11.3	3.5	1.9	24.3	
성별	남성	31.6	15.9	8.2	12.4	3.1	1.8	27.0	12.603(6)
	여성	38.2	15.2	8.6	10.3	3.9	2.0	21.8	
연령	20대 이하	37.1	12.9	7.7	11.9	1.4	2.4	26.7	92.074(24) ***
	30대	32.6	11.8	6.5	15.3	7.1	1.9	24.8	
	40대	27.7	18.6	12.3	10.5	7.3	2.1	21.4	
	50대	35.9	15.4	8.7	12.0	1.1	1.8	25.1	
	60대 이상	43.1	19.3	6.0	6.5	0.4	1.2	23.5	
지역1	수도권	32.3	16.5	9.2	12.8	2.9	2.5	23.9	14.184(6)*
	비수도권	37.8	14.6	7.6	9.8	4.1	1.3	24.8	
지역2	대도시	35.6	15.3	8.3	13.7	3.1	2.1	21.9	21.643(12)*
	중소도시	34.6	14.7	8.2	9.7	4.1	2.0	26.8	
	농어촌	34.2	24.1	10.7	8.9	1.7	0.1	2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0	17.4	9.1	5.7	0.1	2.0	24.8	59.213(18) ***
	중하층	33.7	17.1	11.4	9.6	2.9	2.0	23.3	
	중간층	36.5	13.6	6.3	13.8	4.4	2.0	23.3	
	중상층(상층)	18.1	17.6	5.1	13.1	6.8	0.4	38.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1.6	14.9	6.1	9.0	2.8	2.2	23.5	60.383(24) ***
	200만 원대	33.6	16.9	10.4	11.9	3.4	1.7	22.1	
	300만 원대	31.5	14.8	8.5	15.1	3.1	1.7	25.2	
	400만 원대	27.0	18.9	12.2	12.2	8.3	1.3	20.1	
	500만 원 이상	23.9	14.1	10.2	13.0	3.5	1.9	33.4	
학력	중졸 이하	44.8	16.9	9.4	6.7	0.2	1.5	20.5	48.328(12) ***
	고졸	34.3	15.4	10.6	11.1	1.3	1.9	25.3	
	대졸 이상	34.0	15.4	6.2	12.3	6.0	2.0	2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1.5	15.4	6.0	12.5	4.8	1.7	28.1	114.820(30) ***
	임시·일용직	39.0	14.6	10.0	16.3	3.7	2.2	14.1	
	고용주, 자영자	29.3	16.4	19.9	10.2	2.1	1.0	21.2	
	무급가족종사자	37.4	17.0	12.5	8.4	1.0	0.0	23.7	
	실업자	48.4	14.1	8.0	1.3	0.0	6.1	22.0	
	비경제활동인구	39.4	15.7	4.3	10.2	3.1	2.0	25.3	
직업	관리자, 전문가	28.6	17.6	12.3	12.4	7.7	1.9	19.5	32.412(18)*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8	14.0	9.5	13.8	3.2	1.8	25.9	
	숙련 및 기술직	35.3	19.7	7.8	9.7	3.3	0.8	23.4	
	단순노무 종사자	42.0	15.9	18.6	4.1	2.6	0.0	1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6	14.8	5.0	13.4	5.0	1.9	28.4	21.144(6)**
	비정규직	38.6	19.0	10.3	11.4	1.3	1.6	1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2	16.3	7.4	9.8	2.0	1.1	23.2	46.708(12) ***
	중도적	34.5	14.7	7.8	11.3	3.8	0.8	27.0	
	진보적	30.7	16.4	10.5	12.9	4.5	4.9	20.2	

〈부표 3-86〉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2순위

(단위: %)

구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증가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학업 공백	자녀 또는 부모님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	X ² (df)
전체		15.4	41.7	13.4	17.1	7.1	5.2	
성별	남성	15.7	39.6	12.7	18.2	7.2	6.6	6.307(5)
	여성	15.2	43.5	14.1	16.2	7.1	3.9	
연령	20대 이하	12.8	40.2	16.6	20.5	4.2	5.6	46.081(20) ***
	30대	14.6	37.6	13.3	14.9	12.3	7.3	
	40대	15.3	40.6	9.7	24.0	8.2	2.2	
	50대	17.8	46.2	14.1	12.7	4.5	4.6	
	60대 이상	16.8	43.6	14.0	11.2	7.1	7.3	
지역1	수도권	13.6	41.3	13.0	17.9	7.7	6.5	7.681(5)
	비수도권	17.4	42.1	13.9	16.3	6.5	3.8	
지역2	대도시	15.6	44.6	12.7	15.8	6.0	5.3	9.268(10)
	중소도시	15.4	38.0	14.0	18.9	8.4	5.4	
	농어촌	14.8	47.3	14.6	13.8	6.5	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8	46.3	15.1	9.4	4.1	6.3	48.237(15) ***
	중하층	19.4	41.1	13.2	16.1	5.5	4.7	
	중간층	9.8	43.2	13.9	19.3	8.7	5.1	
	중상층(상층)	29.9	19.1	5.9	23.7	14.0	7.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2	46.0	14.4	13.3	7.1	6.1	40.653(20) ***
	200만 원대	19.3	39.5	10.7	16.5	7.7	6.3	
	300만 원대	16.7	37.8	17.5	17.0	7.5	3.5	
	400만 원대	16.7	38.9	13.2	20.6	5.1	5.5	
	500만 원 이상	12.9	36.8	9.7	31.8	7.6	1.2	
학력	중졸 이하	21.6	54.5	10.1	1.2	5.9	6.8	32.817(10) ***
	고졸	15.9	42.3	15.1	15.8	5.9	5.0	
	대졸 이상	13.9	38.8	12.5	21.1	8.5	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7.2	41.6	8.9	21.5	6.1	4.6	49.676(25) ***
	임시·일용직	13.9	40.2	22.8	9.9	6.9	6.2	
	고용주, 자영자	18.3	37.6	15.8	18.7	6.3	3.3	
	무급가족종사자	17.7	54.5	10.8	5.3	1.7	9.9	
	실업자	2.8	44.9	21.4	14.0	9.9	6.9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4.0	43.5	12.5	14.7	9.2	6.1	25.308(15)*
	관리자, 전문가	23.6	31.1	9.1	23.3	7.5	5.4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7	42.3	14.6	18.7	6.4	3.3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15.5	45.8	12.2	14.1	4.7	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3	43.4	8.5	20.9	6.1	4.8	20.263(5)**
	비정규직	18.1	37.7	21.4	11.9	5.5	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0	47.2	13.9	15.5	5.6	4.8	13.462(10)
	중도적	16.8	41.5	11.9	17.3	6.5	6.0	
	진보적	15.2	36.7	15.8	18.3	9.8	4.2	

〈부표 3-87〉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주된 피해 1+2순위

(단위: %)

구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증가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중단 등 경제적 피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학업 공백	자녀 또는 부모님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고립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전체		45.1	43.0	17.3	22.6	8.2	5.3	24.3
성별	남성	41.6	41.1	16.3	24.0	7.7	6.0	27.0
	여성	48.5	44.8	18.2	21.3	8.7	4.7	21.8
연령	20대 이하	45.0	37.7	17.9	24.5	4.0	5.8	26.7
	30대	41.9	35.7	15.0	24.8	14.9	6.5	24.8
	40대	38.5	47.4	19.2	27.4	13.2	3.6	21.4
	50대	47.7	45.9	18.1	20.5	4.1	4.9	25.1
	60대 이상	54.5	48.6	15.5	14.1	5.1	6.1	23.5
지역1	수도권	41.3	43.8	17.8	24.6	8.1	6.7	23.9
	비수도권	49.2	42.1	16.7	20.5	8.4	3.8	24.8
지역2	대도시	46.6	46.8	17.3	24.9	7.3	5.9	21.9
	중소도시	44.0	37.9	16.7	21.2	9.2	5.2	26.8
	농어촌	45.1	59.0	21.4	19.1	6.5	2.4	2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4	50.4	19.8	12.5	3.1	6.5	24.8
	중하층	47.0	45.6	20.6	20.8	6.7	5.2	23.3
	중간층	42.8	40.9	15.2	26.0	9.9	5.2	23.3
	중상층(상층)	34.5	28.0	8.3	26.1	14.4	4.5	38.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0.4	45.4	15.7	17.8	7.5	6.2	23.5
	200만 원대	46.9	44.1	17.8	23.3	8.7	6.1	22.1
	300만 원대	42.4	39.3	19.9	26.2	8.0	4.0	25.2
	400만 원대	38.5	45.8	21.4	26.4	11.8	5.1	20.1
	500만 원 이상	31.3	35.1	15.7	31.1	7.9	2.5	33.4
학력	중졸 이하	60.1	55.7	16.6	7.5	4.4	6.3	20.5
	고졸	44.7	42.9	20.4	21.4	5.2	5.1	25.3
	대졸 이상	43.1	41.0	14.5	26.2	11.6	5.4	2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1	41.1	11.5	25.7	8.5	4.6	28.1
	임시·일용직	49.5	45.0	27.3	23.8	9.0	6.9	14.1
	고용주, 자영자	42.2	43.0	31.0	23.4	6.6	3.4	21.2
	무급가족종사자	50.3	56.6	20.4	12.3	2.3	7.2	23.7
	실업자	50.3	44.7	22.6	10.8	6.7	10.9	22.0
	비경제활동인구	48.4	43.8	12.3	19.7	9.1	5.9	25.3
직업	관리자, 전문가	44.6	38.7	18.5	28.2	12.8	5.5	19.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2	41.2	18.9	25.8	7.3	3.9	25.9
	숙련 및 기술직	46.1	51.5	16.3	19.5	6.6	6.2	23.4
	단순노무 종사자	62.6	42.2	28.2	13.3	6.4	7.3	1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6	41.2	10.2	26.1	8.7	4.8	28.4
	비정규직	51.8	46.5	25.9	20.1	5.3	5.4	1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7	47.3	16.6	20.0	5.7	4.2	23.2
	중도적	45.4	41.4	15.5	22.5	7.9	4.6	27.0
	진보적	41.2	41.7	21.4	25.5	11.2	7.8	20.2

〈부표 3-88〉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심각했다	심각한 편이었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다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χ^2 (df)
전체		5.6	26.6	62.7	5.1	
성별	남성	5.3	24.9	63.4	6.3	7.015(3)
	여성	5.8	28.2	62.0	3.9	
연령	20대 이하	2.5	23.6	65.5	8.5	50.007(12)***
	30대	7.4	20.4	68.1	4.1	
	40대	5.8	27.6	62.3	4.3	
	50대	5.1	25.6	64.9	4.4	
	60대 이상	8.1	37.7	50.6	3.6	
지역1	수도권	7.1	27.1	62.3	3.5	17.907(3)***
	비수도권	3.9	26.2	63.1	6.8	
지역2	대도시	4.1	28.1	62.2	5.6	9.398(6)
	중소도시	6.7	25.0	63.9	4.5	
	농어촌	6.3	30.6	56.3	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	33.7	56.3	1.2	46.681(9)***
	중하층	5.8	31.4	59.0	3.8	
	중간층	5.0	22.1	66.6	6.3	
	중상층(상층)	2.5	20.4	65.7	11.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5	28.3	60.5	4.7	10.780(12)
	200만 원대	5.5	25.1	64.4	5.0	
	300만 원대	3.7	26.1	65.4	4.9	
	400만 원대	3.3	30.0	62.4	4.3	
	500만 원 이상	6.5	22.2	63.9	7.4	
학력	중졸 이하	5.3	47.9	44.5	2.3	35.159(6)***
	고졸	5.9	25.7	63.4	5.1	
	대졸 이상	5.4	24.1	65.0	5.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8	22.1	66.3	5.8	30.102(15)*
	임시·일용직	4.6	32.4	58.5	4.5	
	고용주, 자영자	5.7	28.9	60.5	4.9	
	무급가족종사자	10.5	38.8	48.5	2.2	
	실업자	11.2	30.3	48.1	10.4	
	비경제활동인구	4.3	28.2	63.8	3.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2	32.1	52.5	5.3	32.434(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0	21.9	67.9	5.2	
	숙련 및 기술직	3.3	30.4	60.7	5.5	
	단순노무 종사자	9.1	41.2	43.4	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7	22.5	67.4	5.5	6.682(3)
	비정규직	7.6	27.5	58.0	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	32.5	54.8	5.6	16.571(6)*
	중도적	4.8	25.0	64.9	5.2	
	진보적	5.5	24.0	66.1	4.4	

〈부표 3-89〉 향후 신종감염병 재등장 가능성

(단위: %)

구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χ^2 (df)
전체		22.4	70.2	7.2	0.2	
성별	남성	23.6	68.7	7.5	0.2	4.270(3)
	여성	21.2	71.7	6.9	0.2	
연령	20대 이하	21.4	70.9	7.4	0.2	17.150(12)
	30대	22.4	71.9	5.5	0.2	
	40대	24.8	68.5	6.3	0.4	
	50대	21.3	69.2	9.4	0.1	
	60대 이상	22.1	70.6	7.2	0.1	
지역1	수도권	19.2	73.8	7.0	0.0	35.259(3)***
	비수도권	25.8	66.3	7.5	0.4	
지역2	대도시	17.4	74.3	8.2	0.0	51.476(6)***
	중소도시	25.9	67.7	6.1	0.2	
	농어촌	26.8	63.5	9.0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7	72.9	7.4	0.0	16.120(9)
	중하층	20.6	71.2	8.0	0.1	
	중간층	24.0	69.1	6.6	0.3	
	중상층(상층)	29.1	64.1	6.5	0.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3.5	68.4	7.9	0.2	19.557(12)
	200만 원대	20.1	73.5	6.1	0.3	
	300만 원대	20.3	71.6	8.0	0.0	
	400만 원대	20.7	72.0	7.2	0.2	
	500만 원 이상	27.4	66.5	5.9	0.1	
학력	중졸 이하	24.6	68.2	7.2	0.0	6.962(6)
	고졸	21.7	70.1	8.0	0.1	
	대졸 이상	22.5	70.8	6.5	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4.3	68.3	7.3	0.1	21.749(15)
	임시·일용직	15.8	76.2	8.0	0.0	
	고용주, 자영자	21.1	70.9	7.7	0.3	
	무급가족종사자	23.1	73.4	3.5	0.0	
	실업자	19.7	73.1	6.7	0.5	
	비경제활동인구	23.9	69.1	6.8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9	62.7	6.2	0.2	34.758(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1	72.6	8.2	0.2	
	숙련 및 기술직	26.7	66.6	6.6	0.0	
	단순노무 종사자	21.0	74.2	4.8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5	68.3	7.1	0.1	9.904(3)*
	비정규직	17.6	74.3	8.1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8	66.3	8.8	0.2	17.692(6)**
	중도적	21.9	71.9	6.0	0.1	
	진보적	20.5	71.2	8.0	0.3	

〈부표 3-90〉 신종감염병 재등장 시 지금과 비교한 피해 상황

(단위: %)

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지금보다 덜 심각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덜 심각할 것이다	X ² (df)
전체		17.2	54.5	25.9	2.4	
성별	남성	17.8	52.1	28.0	2.1	14.172(3)**
	여성	16.5	57.0	23.8	2.8	
연령	20대 이하	14.7	52.3	30.5	2.6	29.612(12)**
	30대	13.6	59.5	24.4	2.6	
	40대	18.2	55.8	24.0	2.0	
	50대	17.9	52.9	26.1	3.2	
	60대 이상	20.2	53.0	25.0	1.8	
지역1	수도권	12.8	56.5	28.5	2.1	60.709(3)***
	비수도권	21.7	52.4	23.2	2.7	
지역2	대도시	9.6	57.3	31.1	2.0	157.190(6)** *
	중소도시	21.2	53.5	22.3	3.0	
	농어촌	32.1	46.1	21.0	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	61.8	20.1	2.4	41.210(9)***
	중하층	17.5	54.1	25.8	2.7	
	중간층	17.1	53.6	27.6	1.8	
	중상층(상층)	20.2	45.3	27.3	7.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3	53.4	26.0	2.3	15.510(12)
	200만 원대	15.4	54.7	27.6	2.3	
	300만 원대	17.7	57.8	21.9	2.6	
	400만 원대	16.6	50.0	30.6	2.8	
	500만 원 이상	16.2	56.8	24.5	2.4	
학력	중졸 이하	22.2	51.7	24.9	1.3	15.415(6)*
	고졸	17.8	54.2	25.8	2.3	
	대졸 이상	15.4	55.5	26.3	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3	55.0	26.5	2.3	14.849(15)
	임시·일용직	15.1	56.3	26.5	2.0	
	고용주, 자영자	20.4	52.9	23.9	2.7	
	무급가족종사자	18.0	61.3	20.7	0.0	
	실업자	13.4	58.0	25.9	2.6	
	비경제활동인구	17.6	53.1	26.6	2.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8.2	50.8	28.7	2.3	32.420(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9	55.6	27.2	2.3	
	숙련 및 기술직	23.1	55.7	18.9	2.3	
	단순노무 종사자	23.0	51.6	23.1	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1	55.3	26.6	2.1	1.994(3)
	비정규직	17.5	55.8	23.9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4	52.7	24.9	2.0	30.047(6)***
	중도적	16.9	56.4	24.7	2.1	
	진보적	13.8	52.4	30.0	3.7	

〈부표 3-91〉 사회적지지

(단위: %)

구분		전혀 받고 있지 않음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많이 받고 있음	X [*] (df)
전체		0.7	1.8	2.0	5.0	4.8	37.3	13.3	20.4	11.1	2.7	0.8	
성별	남성	0.9	1.7	2.2	5.6	4.9	40.1	12.0	19.0	10.8	2.0	0.8	34.350 (10)***
	여성	0.5	2.0	1.8	4.4	4.7	34.4	14.6	22.0	11.4	3.5	0.8	
연령	20대 이하	1.1	0.9	1.3	2.7	2.7	34.2	12.2	24.9	14.0	4.5	1.4	141.36 0(40)***
	30대	0.2	1.2	1.1	3.8	3.2	36.9	13.9	20.7	15.4	2.5	1.1	
	40대	0.9	2.0	1.1	5.3	4.1	38.6	15.0	19.1	10.8	2.3	0.8	
	50대	1.2	1.9	2.6	5.2	6.7	36.8	12.9	20.3	9.5	2.4	0.5	
	60대 이상	0.3	2.8	3.2	7.3	6.3	39.2	12.5	18.2	7.5	2.2	0.4	
지역1	수도권	0.5	1.0	1.6	4.8	4.4	36.0	13.4	22.5	12.2	3.3	0.2	58.959 (10)***
	비수도권	1.0	2.7	2.4	5.2	5.3	38.7	13.1	18.2	9.9	2.2	1.4	
지역2	대도시	0.4	2.1	1.5	3.5	5.0	36.3	14.5	22.5	10.2	3.4	0.8	57.404 (20)***
	중소도시	1.0	1.8	2.3	6.3	4.7	37.5	12.6	19.3	11.9	2.1	0.6	
	농어촌	1.0	0.9	2.7	5.1	4.4	41.3	10.9	16.8	11.2	3.3	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	2.4	7.7	14.7	11.1	37.0	11.2	10.5	3.4	0.2	0.2	449.78 1(30)***
	중하층	0.8	1.7	1.4	5.1	5.0	41.9	12.6	18.9	10.0	1.8	0.8	
	중간층	0.5	2.0	0.9	2.5	2.8	34.0	14.7	24.2	13.3	4.0	1.0	
	중상층(상층)	0.5	0.0	0.3	0.4	3.6	33.1	10.2	24.9	21.2	4.4	1.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9	2.7	3.3	6.2	5.7	37.8	13.5	17.0	8.1	3.6	1.2	196.37 5(40)** *
	200만 원대	1.0	1.5	0.9	5.3	6.3	40.1	12.0	19.8	10.5	1.9	0.6	
	300만 원대	0.3	0.8	1.1	5.2	3.2	35.1	14.5	22.4	15.2	1.7	0.5	
	400만 원대	0.2	2.4	0.5	3.2	2.4	38.7	14.9	19.3	14.9	2.9	0.4	
	500만 원 이상	0.6	0.3	1.6	0.8	2.2	31.7	12.0	33.4	15.0	2.1	0.4	
학력	중졸 이하	0.7	3.3	6.4	7.3	7.4	38.8	11.3	15.0	5.3	4.0	0.6	149.82 0(20)***
	고졸	0.9	2.1	1.4	5.8	5.9	38.4	13.9	18.7	10.1	1.9	0.9	
	대졸 이상	0.6	1.2	1.4	3.7	3.1	35.9	13.1	23.6	13.5	3.2	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1.0	1.0	2.2	3.0	35.9	13.9	24.4	14.4	2.9	0.7	270.26 2(50)***
	임시·일용직	1.3	3.1	3.3	8.4	8.7	44.5	9.2	15.6	4.2	1.4	0.5	
	고용주, 자영자	0.5	1.2	1.4	6.7	5.2	40.6	12.8	18.5	11.4	1.1	0.5	
	무급가족종사자	1.4	0.0	1.3	8.1	9.5	34.7	7.3	22.2	13.9	1.5	0.0	
	실업자	1.1	6.0	6.0	11.6	5.5	37.1	9.8	10.7	9.4	0.7	2.1	
	비경제활동인구	0.8	2.4	2.6	5.1	5.1	34.0	15.4	19.8	9.1	4.7	1.1	
직업	관리자, 전문가	3.5	1.1	0.9	2.0	2.0	28.7	8.8	27.2	20.0	4.1	1.7	197.51 8(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	1.4	1.1	4.1	4.2	38.4	13.3	22.5	12.3	2.1	0.4	
	숙련 및 기술직	0.3	1.0	1.7	6.5	6.8	41.9	15.2	16.8	8.0	1.3	0.5	
	단순노무 종사자	1.3	2.1	5.5	8.3	7.8	49.5	8.0	11.9	3.7	1.4	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1.0	1.0	2.0	2.9	35.5	14.1	24.8	14.7	3.0	0.7	120.09 3(10)***
	비정규직	1.7	2.3	2.5	8.2	6.9	45.1	9.6	15.9	5.5	1.6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	2.4	2.6	6.0	6.3	38.3	11.9	18.6	8.3	3.7	0.9	59.621 (20)***
	중도적	0.7	1.7	1.6	3.8	4.2	38.1	12.9	21.3	12.1	2.6	0.9	
	진보적	0.4	1.4	2.0	6.6	4.1	34.2	15.7	20.9	12.4	1.8	0.3	

〈부표 3-92〉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구분		매우 적음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많음	χ^2 (df)
전체		0.7	1.2	2.6	5.2	4.8	34.4	18.9	19.4	10.3	1.8	0.8	
성별	남성	0.5	1.5	3.0	5.5	5.1	36.0	17.7	17.4	10.4	1.8	1.1	28.208
	여성	0.9	1.0	2.0	4.8	4.5	32.9	20.1	21.3	10.2	1.8	0.4	(10)**
연령	20대 이하	0.1	0.8	0.5	3.7	2.5	32.0	19.8	22.4	13.9	2.5	1.8	190.31 4(40)***
	30대	0.3	0.4	1.3	3.1	4.0	32.2	21.9	21.2	11.3	3.1	1.1	
	40대	0.3	1.8	2.4	6.6	4.4	31.5	18.3	20.8	11.8	1.6	0.5	
	50대	0.7	0.5	4.0	5.9	5.0	34.2	19.6	18.1	10.2	1.4	0.5	
	60대 이상	1.6	2.3	3.8	5.9	7.2	40.5	15.8	15.9	6.0	0.8	0.2	
지역1	수도권	0.4	0.7	2.4	4.4	4.1	31.3	20.1	22.2	11.9	2.0	0.5	70.713 (10)***
	비수도권	0.9	1.8	2.7	6.0	5.5	37.8	17.6	16.3	8.6	1.6	1.1	
지역2	대도시	0.4	1.2	2.4	5.3	3.4	31.4	22.5	21.9	9.2	1.4	1.0	98.187 (20)***
	중소도시	0.7	1.2	2.4	4.9	6.1	36.8	16.6	18.0	11.0	2.0	0.3	
	농어촌	2.2	1.6	4.2	6.4	4.5	35.8	13.5	14.6	12.0	2.7	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	2.7	5.9	9.6	9.4	46.4	11.8	7.1	4.2	1.3	0.0	306.16 6(30)***
	중하층	0.7	1.3	3.2	5.9	5.0	35.0	20.2	18.0	8.8	1.1	0.7	
	중간층	0.4	0.9	1.2	3.5	3.3	30.8	20.2	23.5	12.8	2.6	0.8	
	중상층(상층)	0.3	0.0	0.3	2.2	4.9	30.5	15.7	25.9	15.9	1.0	3.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	2.0	3.2	6.9	5.7	37.1	16.8	16.5	8.4	1.5	0.9	142.33 8(40)** *
	200만 원대	0.5	1.2	3.2	4.1	4.4	35.7	19.9	19.9	9.2	1.7	0.3	
	300만 원대	0.5	0.3	1.7	4.7	4.4	29.6	20.6	22.4	13.2	2.1	0.5	
	400만 원대	0.4	0.1	1.7	3.9	4.9	35.7	17.5	20.5	12.2	1.9	1.2	
	500만 원 이상	0.0	0.5	0.5	2.3	2.9	27.7	23.2	24.0	14.7	2.8	1.4	
학력	중졸 이하	2.0	2.9	6.0	7.8	7.1	41.2	15.3	11.4	5.5	0.7	0.0	162.30 2(20)***
	고졸	0.7	1.1	2.7	6.0	5.6	35.5	19.1	17.5	9.2	1.7	0.7	
	대졸 이상	0.3	0.9	1.5	3.7	3.5	31.6	19.6	23.2	12.6	2.1	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0.6	1.7	3.2	3.7	30.3	20.9	23.3	12.6	2.5	0.9	188.13 4(50)***
	임시·일용직	0.3	3.0	2.9	8.1	7.5	38.3	17.6	13.9	6.6	0.4	1.3	
	고용주, 자영자	0.5	0.8	3.0	5.5	4.1	41.0	17.2	16.3	9.8	1.3	0.4	
	무급가족종사자	1.2	1.5	7.6	1.5	6.6	37.5	11.8	19.0	12.8	0.0	0.7	
	실업자	1.3	3.8	4.7	9.9	7.2	36.3	12.4	11.4	9.9	2.4	0.7	
	비경제활동인구	1.3	1.2	2.7	5.9	5.4	33.5	19.2	19.6	8.9	1.7	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0.5	1.0	2.6	4.7	3.6	26.6	14.5	23.5	16.5	4.4	2.0	147.14 3(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	0.9	1.9	3.5	3.9	33.5	20.2	21.5	11.8	1.6	0.7	
	숙련 및 기술직	0.4	1.1	3.0	7.1	4.2	41.9	19.2	14.8	6.5	1.1	0.7	
	단순노무 종사자	1.1	2.6	4.6	7.6	12.0	40.9	17.1	9.9	3.6	0.5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0.6	1.7	3.1	3.7	30.0	20.7	23.4	12.8	2.6	0.9	86.861 (10)***
	비정규직	0.2	2.5	2.5	8.0	7.2	40.4	17.4	13.1	7.1	0.6	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	1.4	3.7	5.5	4.0	38.8	16.8	18.3	8.6	1.6	0.7	47.215 (20)**
	중도적	0.7	1.4	2.1	4.6	5.0	34.1	19.5	18.5	11.2	1.8	1.0	
	진보적	0.4	0.7	2.1	6.1	5.4	29.6	19.9	22.7	10.4	2.2	0.5	

〈부표 3-93〉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X ² (df)
전체		32.0	68.0	
성별	남성	36.8	63.2	43.138(1)***
	여성	27.1	72.9	
연령	20대 이하	30.9	69.1	39.747(4)***
	30대	25.8	74.2	
	40대	30.7	69.3	
	50대	30.4	69.6	
	60대 이상	39.7	60.3	
지역1	수도권	27.1	72.9	46.498(1)***
	비수도권	37.2	62.8	
지역2	대도시	28.8	71.2	14.163(2)**
	중소도시	34.3	65.7	
	농어촌	34.9	6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0	54.0	87.577(3)***
	중하층	35.0	65.0	
	중간층	26.2	73.8	
	중상층(상층)	23.5	76.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5.7	64.3	31.002(4)***
	200만 원대	33.4	66.6	
	300만 원대	28.7	71.3	
	400만 원대	25.9	74.1	
	500만 원 이상	24.2	75.8	
학력	중졸 이하	44.2	55.8	59.183(2)***
	고졸	34.3	65.7	
	대졸 이상	26.6	7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7.2	72.8	47.834(5)***
	임시·일용직	42.2	57.8	
	고용주, 자영자	32.6	67.4	
	무급가족종사자	40.1	59.9	
	실업자	42.5	57.5	
	비경제활동인구	31.9	68.1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0	77.0	46.573(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8	70.2	
	숙련 및 기술직	35.8	64.2	
	단순노무 종사자	50.5	4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6	73.4	37.751(1)***
	비정규직	42.1	5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9	68.1	0.019(2)
	중도적	32.0	68.0	
	진보적	32.2	67.8	

〈부표 3-94〉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X ² (df)
전체		52.7	47.3	
성별	남성	54.8	45.2	7.427(1)**
	여성	50.5	49.5	
연령	20대 이하	50.2	49.8	106.307(4)***
	30대	42.9	57.1	
	40대	47.9	52.1	
	50대	51.6	48.4	
	60대 이상	66.3	33.7	
지역1	수도권	43.3	56.7	146.204(1)***
	비수도권	62.6	37.4	
지역2	대도시	47.8	52.2	36.240(2)***
	중소도시	55.1	44.9	
	농어촌	63.5	3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5	25.5	193.595(3)***
	중하층	58.0	42.0	
	중간층	43.2	56.8	
	중상층(상층)	40.0	6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2.4	37.6	132.782(4)***
	200만 원대	51.0	49.0	
	300만 원대	45.0	55.0	
	400만 원대	39.8	60.2	
	500만 원 이상	38.9	61.1	
학력	중졸 이하	77.7	22.3	220.492(2)***
	고졸	57.6	42.4	
	대졸 이상	41.5	5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3.6	56.4	93.048(5)***
	임시·일용직	61.2	38.8	
	고용주, 자영자	53.9	46.1	
	무급가족종사자	60.4	39.6	
	실업자	67.4	32.6	
	비경제활동인구	58.3	4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38.3	61.7	57.088(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7.4	52.6	
	숙련 및 기술직	59.4	40.6	
	단순노무 종사자	65.6	3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5	57.5	58.382(1)***
	비정규직	63.4	3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6.0	44.0	9.465(2)**
	중도적	52.4	47.6	
	진보적	49.1	50.9	

〈부표 3-95〉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X ² (df)
전체		14.6	85.4	
성별	남성	16.6	83.4	13.565(1)***
	여성	12.5	87.5	
연령	20대 이하	9.4	90.6	76.248(4)***
	30대	11.4	88.6	
	40대	12.1	87.9	
	50대	14.4	85.6	
	60대 이상	22.8	77.2	
지역1	수도권	8.7	91.3	113.598(1)***
	비수도권	20.7	79.3	
지역2	대도시	9.2	90.8	75.587(2)***
	중소도시	17.6	82.4	
	농어촌	23.9	7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0	72.0	109.902(3)***
	중하층	15.5	84.5	
	중간층	10.4	89.6	
	중상층(상층)	7.6	92.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9.5	80.5	64.066(4)***
	200만 원대	13.3	86.7	
	300만 원대	10.4	89.6	
	400만 원대	8.9	91.1	
	500만 원 이상	8.4	91.6	
학력	중졸 이하	31.9	68.1	148.729(2)***
	고졸	15.2	84.8	
	대졸 이상	9.5	9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6	90.4	65.256(5)***
	임시·일용직	22.5	77.5	
	고용주, 자영자	15.5	84.5	
	무급가족종사자	24.1	75.9	
	실업자	21.8	78.2	
	비경제활동인구	15.8	8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9.3	90.7	74.133(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4	88.6	
	숙련 및 기술직	17.3	82.7	
	단순노무 종사자	33.2	6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6	90.4	42.329(1)***
	비정규직	21.3	7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8	84.2	12.377(2)**
	중도적	15.5	84.5	
	진보적	10.9	89.1	

〈부표 3-96〉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명)	t/F
전체		31.8	42.9	16.2	5.0	3.2	0.9	2.10	
성별	남성	31.4	43.4	14.9	4.4	4.6	1.4	2.17	2.527*
	여성	32.2	42.5	17.4	5.5	2.0	0.5	2.05	
연령	20대 이하	24.4	39.6	21.1	5.8	7.8	1.4	2.40	10.854****
	30대	34.9	44.1	13.2	4.5	2.1	1.1	2.02	
	40대	27.9	42.2	21.1	6.5	1.9	0.3	2.14	
	50대	34.0	44.1	13.6	4.8	2.2	1.3	2.05	
	60대 이상	36.8	44.2	12.6	3.4	2.6	0.4	1.95	
지역1	수도권	29.5	43.8	16.8	6.5	2.6	0.9	2.14	1.626
	비수도권	34.7	41.9	15.5	3.1	4.0	0.9	2.06	
지역2	대도시	30.7	45.6	17.4	3.2	2.6	0.5	2.05	2.559
	중소도시	32.6	40.8	15.2	6.9	3.4	1.1	2.13	
	농어촌	33.2	40.6	15.6	3.4	5.5	1.8	2.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2	39.9	8.4	6.6	0.8	0.0	1.80	20.096****
	중하층	35.1	45.2	14.3	2.9	2.0	0.5	1.95	
	중간층	27.2	42.8	18.5	5.9	4.3	1.3	2.25	
	중상층(상층)	27.6	34.3	23.6	6.9	5.7	1.9	2.4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2.6	43.3	15.9	3.8	3.5	0.9	2.07	2.073
	200만 원대	33.6	41.9	14.8	5.5	3.3	0.8	2.07	
	300만 원대	32.4	42.0	15.6	7.3	2.5	0.2	2.07	
	400만 원대	27.9	42.9	19.3	6.3	3.5	0.1	2.15	
	500만 원 이상	27.6	44.9	18.3	3.6	2.9	2.6	2.28	
학력	중졸 이하	43.8	39.6	12.6	2.1	1.5	0.5	1.83	7.180**
	고졸	30.4	43.6	15.4	6.8	3.0	0.9	2.13	
	대졸 이상	30.6	43.0	17.6	4.0	3.8	1.0	2.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3.6	42.9	15.2	4.9	2.5	0.9	2.05	2.177
	임시·일용직	35.5	37.6	15.4	5.0	6.3	0.2	2.09	
	고용주, 자영자	29.1	43.6	15.8	7.2	2.6	1.7	2.23	
	무급가족종사자	44.5	34.3	15.2	2.4	3.7	0.0	1.86	
	실업자	36.3	37.3	12.1	1.3	11.0	2.0	2.27	
	비경제활동인구	28.3	45.7	19.0	4.2	2.4	0.4	2.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25.3	40.1	22.3	3.9	7.4	1.0	2.35	4.18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2.1	43.7	15.0	5.9	2.4	1.0	2.07	
	숙련 및 기술직	39.7	41.7	11.6	3.3	2.3	1.4	2.00	
	단순노무 종사자	41.1	29.5	14.4	12.4	2.6	0.0	2.0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2	43.3	15.6	4.2	2.7	1.0	2.05	0.785
	비정규직	37.7	40.9	11.0	5.9	4.3	0.2	1.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3	42.0	14.2	4.2	2.6	0.7	1.99	6.848**
	중도적	29.2	44.3	15.4	6.0	3.8	1.3	2.19	
	진보적	31.9	41.0	20.5	3.7	2.7	0.2	2.05	

〈부표 3-97〉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명)	t/F
전체		43.9	38.3	12.7	1.6	2.5	1.0	1.86	
성별	남성	41.4	36.3	14.7	2.2	3.6	1.8	2.00	5.116***
	여성	46.2	40.1	10.9	1.1	1.5	0.2	1.73	
연령	20대 이하	37.6	39.1	13.8	1.9	4.4	3.3	2.11	6.611***
	30대	43.0	38.9	12.2	2.9	2.3	0.7	1.88	
	40대	42.1	40.8	12.8	0.7	3.2	0.3	1.84	
	50대	47.6	34.5	14.1	2.0	1.2	0.6	1.77	
	60대 이상	49.3	38.1	10.2	0.5	1.6	0.3	1.69	
지역1	수도권	41.2	41.4	13.3	1.6	1.9	0.6	1.84	-0.631
	비수도권	48.1	33.3	11.8	1.7	3.5	1.6	1.88	
지역2	대도시	41.8	38.3	14.9	1.4	2.6	1.0	1.90	3.299*
	중소도시	45.2	39.7	10.4	1.8	2.4	0.5	1.79	
	농어촌	49.4	27.3	14.1	2.0	2.9	4.2	2.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0.8	21.7	5.6	0.0	1.9	0.0	1.40	15.071***
	중하층	49.9	32.7	13.9	0.7	2.1	0.7	1.76	
	중간층	39.0	42.2	12.6	2.3	2.6	1.2	1.94	
	중상층(상층)	21.8	53.5	15.8	2.9	4.5	1.6	2.2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6.8	38.6	9.1	1.4	2.5	1.7	1.82	3.892**
	200만 원대	44.2	37.6	14.3	1.6	1.8	0.5	1.82	
	300만 원대	46.6	35.9	13.8	2.1	1.5	0.1	1.76	
	400만 원대	38.2	42.7	13.3	1.2	3.9	0.7	1.92	
	500만 원 이상	36.6	38.5	17.0	1.9	4.2	1.7	2.10	
학력	중졸 이하	52.6	38.3	6.5	0.0	1.3	1.3	1.66	2.406
	고졸	46.0	36.9	12.4	1.5	1.6	1.5	1.83	
	대졸 이상	41.6	39.2	13.5	1.9	3.3	0.6	1.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1.4	39.2	14.0	2.4	2.7	0.3	1.87	1.192
	임시·일용직	41.1	41.7	10.8	0.5	1.9	4.0	2.00	
	고용주, 자영자	46.1	35.8	13.3	0.8	2.2	1.8	1.88	
	무급가족종사자	39.8	48.9	4.0	3.6	3.7	0.0	1.83	
	실업자	53.2	20.4	17.5	2.3	6.6	0.0	1.89	
	비경제활동인구	46.9	39.0	10.2	1.0	2.0	0.9	1.7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8.7	42.3	20.5	1.9	6.2	0.3	2.16	4.728**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5.0	37.6	12.2	1.9	1.9	1.5	1.86	
	숙련 및 기술직	43.5	43.0	11.1	1.0	1.0	0.4	1.76	
	단순노무 종사자	50.2	31.5	12.2	1.5	4.4	0.2	1.8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8	38.2	14.4	2.5	2.8	0.3	1.88	-1.418
	비정규직	40.5	43.0	9.4	0.5	2.3	4.2	2.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6	38.9	11.3	2.3	1.9	1.0	1.84	2.213
	중도적	42.9	37.8	13.6	1.5	2.8	1.5	1.91	
	진보적	45.2	38.5	12.4	1.2	2.6	0.0	1.78	

〈부표 3-98〉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평균(명)	t/F
전체		16.0	33.3	26.8	8.2	11.4	4.3	2.86	
성별	남성	16.2	32.2	27.9	7.3	11.1	5.2	2.92	2.293*
	여성	15.9	34.3	25.7	9.0	11.7	3.4	2.80	
연령	20대 이하	11.0	21.3	29.2	9.8	19.5	9.3	3.51	43.349****
	30대	13.6	31.3	31.8	8.3	10.7	4.3	2.88	
	40대	14.7	35.0	25.8	10.2	11.3	3.0	2.81	
	50대	17.3	36.3	24.0	8.0	10.9	3.4	2.77	
	60대 이상	22.3	40.6	24.4	5.1	5.5	2.1	2.40	
지역1	수도권	15.0	31.1	27.4	9.5	12.4	4.6	2.93	2.849**
	비수도권	17.3	35.9	26.1	6.7	10.1	3.9	2.77	
지역2	대도시	13.3	33.2	28.0	7.2	13.8	4.5	2.97	6.549**
	중소도시	18.4	33.0	25.4	9.4	9.7	4.2	2.77	
	농어촌	17.1	36.0	29.0	6.5	7.8	3.6	2.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0	40.3	20.7	3.6	6.2	2.3	2.35	25.872****
	중하층	17.0	35.6	27.1	7.4	9.9	2.9	2.72	
	중간층	13.1	29.8	28.0	9.8	13.5	5.8	3.07	
	중상층(상층)	11.7	33.3	26.9	9.2	13.9	4.9	3.0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3	33.4	26.7	7.1	10.0	4.4	2.78	5.257***
	200만 원대	16.9	33.8	27.7	9.0	9.0	3.5	2.76	
	300만 원대	13.4	30.6	29.2	8.9	13.9	4.0	2.99	
	400만 원대	14.2	37.6	22.0	9.8	13.3	3.2	2.85	
	500만 원 이상	11.8	32.4	25.2	8.1	15.7	6.7	3.14	
학력	중졸 이하	24.0	46.6	18.7	4.7	3.9	2.1	2.29	25.302****
	고졸	16.6	33.3	27.8	8.0	10.3	4.0	2.83	
	대졸 이상	14.0	30.7	27.5	9.0	13.8	5.0	2.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4.6	31.5	27.5	8.6	12.9	4.9	2.95	1.947
	임시·일용직	19.8	35.7	26.4	5.1	9.5	3.5	2.71	
	고용주, 자영자	16.6	36.8	25.1	9.0	8.7	3.9	2.77	
	무급가족종사자	14.6	45.5	20.6	3.9	11.3	4.1	2.72	
	실업자	20.9	30.5	26.7	7.4	9.0	5.5	2.75	
	비경제활동인구	15.6	32.4	27.5	8.5	12.2	3.8	2.8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2	25.6	27.7	6.7	19.3	6.5	3.18	6.178***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7	34.1	27.5	9.0	10.6	4.1	2.87	
	숙련 및 기술직	18.5	38.4	25.4	6.2	7.2	4.4	2.69	
	단순노무 종사자	27.4	34.4	14.5	7.5	13.4	2.9	2.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1	31.6	27.6	8.2	13.3	5.1	2.98	3.150**
	비정규직	22.9	34.4	24.5	6.2	8.4	3.6	2.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5	35.5	25.5	7.0	9.5	4.0	2.72	7.668****
	중도적	13.9	33.0	27.8	8.3	11.9	5.0	2.97	
	진보적	17.7	31.2	26.2	9.3	12.5	3.1	2.80	

〈부표 3-99〉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X ² (df)
전체		53.3	2.0	33.1	7.6	0.5	3.5	
성별	남성	54.4	2.4	35.0	4.3	0.6	3.3	41.343(5)***
	여성	52.3	1.5	31.4	10.6	0.5	3.6	
연령	20대 이하	45.6	2.1	47.9	0.6	0.0	3.8	222.299(20)***
	30대	48.9	2.2	41.5	4.1	0.1	3.2	
	40대	55.8	2.5	32.3	7.3	0.2	2.0	
	50대	56.9	2.2	28.2	8.8	0.3	3.5	
	60대 이상	57.7	0.8	19.1	15.7	1.9	4.8	
지역1	수도권	54.5	2.5	29.7	7.5	0.4	5.4	54.111(5)***
	비수도권	51.8	1.3	37.3	7.7	0.6	1.1	
지역2	대도시	59.7	1.8	29.6	6.8	0.6	1.5	74.470(10)***
	중소도시	49.4	2.2	35.1	7.3	0.5	5.6	
	농어촌	41.7	1.3	40.9	14.4	0.5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6	1.3	21.0	13.2	3.2	3.8	92.217(15)***
	중하층	49.1	3.2	36.0	7.3	0.1	4.3	
	중간층	55.1	1.4	33.6	6.6	0.3	3.0	
	중상층(상층)	56.2	0.4	34.5	7.5	0.0	1.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3.7	0.5	29.3	11.0	1.0	4.5	112.643(20)***
	200만 원대	46.7	4.4	36.5	8.4	0.0	3.9	
	300만 원대	53.9	2.3	39.5	2.3	0.7	1.3	
	400만 원대	59.6	1.8	31.9	4.4	0.0	2.4	
	500만 원 이상	58.8	1.9	31.2	4.9	0.0	3.2	
학력	중졸 이하	49.8	0.4	19.5	24.2	2.2	3.9	147.446(10)***
	고졸	53.6	2.0	32.9	7.0	0.5	4.0	
	대졸 이상	53.8	2.2	36.0	4.9	0.2	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3.2	2.8	37.1	3.7	0.1	3.1	142.727(25)***
	임시·일용직	52.8	2.8	34.2	5.7	0.7	3.9	
	고용주, 자영자	51.1	2.1	31.0	13.4	0.3	2.2	
	무급가족종사자	38.6	1.3	21.2	33.7	2.2	3.0	
	실업자	59.2	0.0	36.8	0.0	0.9	3.0	
	비경제활동인구	55.2	0.6	28.0	10.0	1.2	5.0	
직업	관리자, 전문가	56.4	4.0	32.6	4.7	0.5	1.8	65.831(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1.0	2.2	36.6	6.8	0.2	3.2	
	숙련 및 기술직	56.0	3.5	29.2	10.8	0.0	0.6	
	단순노무 종사자	43.7	0.0	36.6	6.3	1.9	1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3.4	2.9	36.6	3.8	0.1	3.1	6.020(5)
	비정규직	50.7	2.8	36.1	5.2	0.7	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9	1.1	24.9	11.1	0.7	4.4	78.962(10)***
	중도적	49.8	1.4	37.3	7.3	0.5	3.7	
	진보적	55.3	4.3	34.2	4.0	0.3	1.8	

〈부표 3-100〉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X ² (df)
전체		51.7	1.9	41.2	1.4	0.1	3.7	
성별	남성	43.6	3.1	48.5	0.7	0.2	3.9	66.689(5)
	여성	59.3	0.7	34.4	2.0	0.0	3.5	***
연령	20대 이하	39.8	2.7	50.7	0.5	0.0	6.2	97.917(20)
	30대	47.6	1.5	45.6	0.5	0.1	4.7	
	40대	54.0	2.5	41.4	0.7	0.0	1.4	
	50대	57.0	1.7	39.0	1.2	0.0	1.1	
	60대 이상	60.1	1.0	28.3	4.4	0.4	5.7	
지역1	수도권	51.6	2.2	40.3	0.5	0.1	5.3	39.596(5)
	비수도권	52.0	1.5	42.7	2.7	0.1	1.1	***
지역2	대도시	54.9	2.0	39.5	0.9	0.0	2.7	57.106(10)
	중소도시	49.7	1.9	42.0	1.1	0.2	5.2	
	농어촌	43.0	0.6	48.9	7.5	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6	0.4	38.1	2.9	0.0	0.0	26.168(15)*
	중하층	50.4	2.4	41.4	1.8	0.1	3.9	
	중간층	52.5	1.6	40.7	0.8	0.1	4.3	
	중상층(상층)	43.1	3.7	49.8	2.6	0.0	0.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7.1	0.0	33.8	2.4	0.1	6.5	83.636(20)
	200만 원대	51.2	3.0	41.8	1.9	0.0	2.0	
	300만 원대	50.3	3.6	43.0	0.3	0.4	2.4	
	400만 원대	49.1	2.1	46.9	0.1	0.0	1.8	
	500만 원 이상	43.2	2.0	51.8	0.3	0.0	2.7	
학력	중졸 이하	62.7	0.0	18.8	10.0	0.0	8.4	90.219(10)
	고졸	52.7	2.2	40.8	1.4	0.0	2.9	
	대졸 이상	50.0	1.9	43.7	0.5	0.2	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9.0	2.7	44.9	0.3	0.0	3.1	96.794(25)
	임시·일용직	43.1	2.7	50.0	1.3	0.0	2.9	
	고용주, 자영자	51.5	2.2	40.8	3.1	0.4	2.0	
	무급가족종사자	65.8	0.0	24.6	6.0	0.0	3.6	
	실업자	42.6	0.0	57.4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61.3	0.1	29.4	2.1	0.1	7.0	
직업	관리자, 전문가	43.7	1.4	50.6	1.4	0.0	2.8	26.235(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9.7	2.5	44.0	0.7	0.2	3.0	
	숙련 및 기술직	52.2	4.9	39.2	2.9	0.0	0.9	
	단순노무 종사자	50.5	0.0	40.9	2.4	0.0	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8.2	2.9	45.5	0.3	0.0	3.2	5.097(4)
	비정규직	50.9	1.4	42.8	1.2	0.0	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59.0	0.8	33.7	1.5	0.3	4.6	29.692(10)
	중도적	49.1	1.8	44.1	1.1	0.0	3.7	
	진보적	49.2	3.2	43.5	1.7	0.0	2.5	

〈부표 3-101〉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X ² (df)
전체		8.7	3.9	80.3	5.7	0.2	1.2	
성별	남성	8.0	5.0	83.1	2.9	0.1	0.8	65.986(5)***
	여성	9.4	2.8	77.5	8.5	0.3	1.6	
연령	20대 이하	3.6	2.8	92.7	0.0	0.0	0.9	285.253(20) ***
	30대	6.4	5.0	86.8	0.7	0.0	1.1	
	40대	9.2	5.2	81.3	3.4	0.0	0.9	
	50대	11.0	4.4	75.2	7.5	0.4	1.5	
	60대 이상	12.2	2.3	68.2	15.4	0.5	1.5	
지역1	수도권	8.7	4.4	80.4	4.5	0.3	1.7	24.470(5)***
	비수도권	8.7	3.3	80.1	7.2	0.1	0.6	
지역2	대도시	8.7	4.5	82.0	4.3	0.1	0.4	65.356(10)***
	중소도시	8.4	3.7	79.9	5.7	0.3	2.0	
	농어촌	10.6	1.6	72.0	15.0	0.0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	2.9	72.9	13.0	1.4	0.8	84.032(15)***
	중하층	8.0	3.4	81.5	5.7	0.0	1.3	
	중간층	8.8	4.6	80.8	4.4	0.1	1.3	
	중상층(상층)	11.2	3.5	82.7	2.2	0.0	0.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9.5	1.2	77.4	9.9	0.4	1.6	140.581(20) ***
	200만 원대	8.7	5.4	80.8	3.9	0.0	1.2	
	300만 원대	6.3	7.1	83.6	2.1	0.2	0.7	
	400만 원대	9.8	6.1	79.7	4.2	0.0	0.3	
	500만 원 이상	8.5	4.1	84.7	1.6	0.0	1.1	
학력	중졸 이하	15.2	1.1	56.1	26.1	0.4	1.1	318.166(10) ***
	고졸	7.5	3.4	82.5	5.4	0.3	0.9	
	대졸 이상	8.4	4.9	83.0	2.1	0.1	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5	7.2	82.5	1.7	0.0	1.1	286.572(25) ***
	임시·일용직	6.3	4.9	82.9	3.9	0.0	2.0	
	고용주, 자영자	9.4	2.4	76.9	9.6	0.2	1.6	
	무급가족종사자	5.6	1.7	53.0	37.8	0.0	1.9	
	실업자	9.7	0.0	85.0	2.2	2.2	1.0	
	비경제활동인구	10.9	0.2	78.9	9.0	0.3	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6	5.6	80.4	1.9	0.0	1.5	53.326(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1	5.1	82.3	4.1	0.1	1.3	
	숙련 및 기술직	8.0	7.6	75.0	9.2	0.0	0.2	
	단순노무 종사자	9.1	3.0	75.9	6.5	0.0	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	7.5	82.4	1.8	0.0	1.2	15.157(4)**
	비정규직	8.6	3.3	82.4	3.9	0.0	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	3.3	75.2	9.9	0.3	1.7	55.119(10)***
	중도적	8.6	3.8	82.0	4.5	0.1	1.1	
	진보적	7.7	4.8	82.7	3.5	0.4	0.9	

〈부표 3-10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1)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구분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X ² (df)
전체		0.8	4.9	53.2	34.6	6.5	
성별	남성	0.7	4.6	54.7	33.8	6.2	3.843(4)
	여성	0.8	5.2	51.7	35.5	6.8	
연령	20대 이하	0.3	3.3	49.7	38.9	7.7	41.729(16)***
	30대	1.7	5.2	53.1	32.6	7.4	
	40대	0.8	6.7	51.3	36.4	4.8	
	50대	0.4	5.5	55.9	32.5	5.6	
	60대 이상	0.7	3.7	55.1	33.2	7.2	
지역1	수도권	0.9	5.5	52.6	34.4	6.6	4.476(4)
	비수도권	0.6	4.3	53.9	34.9	6.4	
지역2	대도시	0.7	5.2	55.2	33.8	5.1	15.825(8)*
	중소도시	0.9	4.8	51.3	35.2	7.8	
	농어촌	0.3	4.0	54.7	35.4	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3.8	49.1	36.3	10.5	37.265(12)***
	중하층	1.0	5.7	52.1	33.9	7.2	
	중간층	0.7	4.5	55.5	34.6	4.6	
	중상층(상층)	0.4	4.7	52.1	35.1	7.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0	5.1	47.1	38.3	8.5	75.811(16)***
	200만 원대	0.9	4.0	55.2	33.3	6.6	
	300만 원대	0.5	3.7	59.5	31.8	4.4	
	400만 원대	0.0	7.0	54.7	34.2	4.1	
	500만 원 이상	0.2	6.1	62.9	27.2	3.7	
학력	중졸 이하	0.2	2.2	57.5	31.1	9.1	29.564(8)***
	고졸	0.5	4.3	53.2	36.1	5.8	
	대졸 이상	1.1	6.1	52.2	34.1	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5.1	57.3	32.5	4.4	94.560(20)***
	임시·일용직	0.4	3.9	52.8	35.2	7.7	
	고용주, 자영자	0.3	3.9	58.6	31.1	6.0	
	무급가족종사자	0.0	1.4	63.4	32.8	2.4	
	실업자	0.6	3.0	41.2	40.5	14.7	
	비경제활동인구	1.5	6.3	45.0	39.0	8.2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	7.3	57.4	25.9	7.7	35.48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4.2	57.9	32.9	4.6	
	숙련 및 기술직	0.1	3.8	54.6	36.4	5.2	
	단순노무 종사자	0.6	4.2	56.1	31.4	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	5.4	57.8	32.3	3.9	21.092(4)***
	비정규직	0.3	2.6	56.1	32.3	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4.5	54.3	33.4	7.2	43.381(8)***
	중도적	0.3	4.9	54.8	34.7	5.2	
	진보적	2.1	5.3	48.2	36.0	8.5	

〈부표 3-103〉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2) 가족, 친척들과의 교류

(단위: %)

구분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X ² (df)
전체		11.9	50.9	32.6	4.5	0.2	
성별	남성	12.1	49.2	34.1	4.5	0.1	6.084(4)
	여성	11.7	52.6	31.0	4.5	0.2	
연령	20대 이하	10.3	44.4	39.8	5.3	0.3	59.721(16)***
	30대	10.5	48.7	35.5	5.0	0.2	
	40대	8.9	57.1	28.6	5.3	0.2	
	50대	13.0	52.8	30.9	3.2	0.1	
	60대 이상	15.4	50.4	29.9	4.2	0.1	
지역1	수도권	11.6	50.4	33.1	4.8	0.0	5.554(4)
	비수도권	12.2	51.3	32.0	4.2	0.3	
지역2	대도시	8.3	48.8	37.7	5.0	0.1	78.511(8)***
	중소도시	15.1	52.5	28.0	4.3	0.1	
	농어촌	10.5	51.9	33.7	3.1	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5	48.5	33.0	2.8	0.2	31.078(12)**
	중하층	11.5	52.5	32.1	3.7	0.1	
	중간층	10.7	50.3	33.6	5.3	0.2	
	중상층(상층)	15.8	50.9	24.5	8.5	0.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4.3	49.1	31.7	4.6	0.2	36.641(16)**
	200만 원대	9.8	51.5	34.5	4.1	0.1	
	300만 원대	7.7	53.3	35.2	3.6	0.1	
	400만 원대	13.6	52.6	26.9	6.9	0.0	
	500만 원 이상	11.6	51.8	31.7	4.8	0.2	
학력	중졸 이하	13.3	53.2	30.1	3.3	0.1	7.606(8)
	고졸	12.1	50.7	33.0	4.1	0.1	
	대졸 이상	11.4	50.5	32.7	5.3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1	51.1	33.4	5.3	0.2	61.303(20)***
	임시·일용직	7.2	55.3	34.3	3.2	0.0	
	고용주, 자영자	13.5	55.2	28.5	2.6	0.1	
	무급가족종사자	8.7	49.8	35.3	4.3	1.8	
	실업자	12.1	45.0	37.7	4.9	0.3	
	비경제활동인구	15.4	46.7	32.5	5.4	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0	50.0	29.5	3.9	0.7	23.18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0	53.0	32.4	4.6	0.1	
	숙련 및 기술직	8.8	54.4	33.9	2.7	0.3	
	단순노무 종사자	11.1	52.3	31.7	4.9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	52.1	33.1	4.9	0.2	1.517(4)
	비정규직	9.7	50.2	35.2	4.9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5	50.2	31.3	4.9	0.1	9.444(8)
	중도적	10.6	50.9	33.8	4.6	0.1	
	진보적	12.7	51.8	31.4	3.9	0.3	

〈부표 3-104〉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교류

(단위: %)

구분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X ² (df)
전체		13.8	56.3	26.4	3.3	0.3	
성별	남성	13.0	55.0	28.1	3.7	0.3	10.107(4)*
	여성	14.7	57.7	24.6	2.8	0.3	
연령	20대 이하	8.8	55.7	29.9	5.0	0.5	55.476(16)***
	30대	13.7	51.9	30.9	3.4	0.1	
	40대	16.0	56.3	23.9	3.6	0.2	
	50대	17.1	57.6	22.7	2.3	0.3	
	60대 이상	12.9	58.7	25.8	2.5	0.2	
지역1	수도권	14.3	57.2	26.0	2.2	0.3	15.517(4)**
	비수도권	13.2	55.4	26.8	4.4	0.2	
지역2	대도시	11.6	58.1	26.4	3.8	0.1	42.985(8)***
	중소도시	16.2	55.3	25.6	2.6	0.2	
	농어촌	10.4	52.8	30.7	4.9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2	51.3	29.1	2.2	0.2	19.801(12)
	중하층	14.4	57.3	24.9	3.2	0.2	
	중간층	12.5	56.4	27.2	3.6	0.3	
	중상층(상층)	12.1	63.0	21.6	3.1	0.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7	56.0	26.6	3.3	0.5	24.607(16)
	200만 원대	15.0	53.5	27.7	3.5	0.3	
	300만 원대	13.8	54.3	28.8	3.1	0.0	
	400만 원대	13.1	64.6	19.3	3.0	0.0	
	500만 원 이상	12.3	60.4	24.4	3.0	0.0	
학력	중졸 이하	12.2	54.8	31.3	1.5	0.2	21.738(8)**
	고졸	13.3	57.4	24.8	4.0	0.5	
	대졸 이상	14.7	55.6	26.6	3.0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3	56.2	27.1	3.1	0.2	58.329(20)***
	임시·일용직	11.7	54.7	27.8	5.8	0.0	
	고용주, 자영자	14.7	60.5	22.5	2.2	0.1	
	무급가족종사자	17.0	49.5	29.1	2.7	1.8	
	실업자	14.4	49.5	30.1	3.9	2.0	
	비경제활동인구	14.5	55.6	26.8	3.1	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6	58.2	23.2	4.9	0.1	14.06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2	57.6	26.1	2.9	0.2	
	숙련 및 기술직	15.0	56.6	24.5	3.6	0.3	
	단순노무 종사자	12.2	50.4	34.2	3.1	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4	56.2	27.0	3.2	0.2	3.802(4)
	비정규직	11.2	55.8	28.0	4.8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1	59.4	24.4	2.7	0.4	13.852(8)
	중도적	13.2	55.5	27.4	3.6	0.3	
	진보적	16.0	54.1	26.5	3.3	0.0	

〈부표 3-105〉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교류

(단위: %)

구분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X ² (df)
전체		8.2	43.5	45.7	2.5	0.1	
성별	남성	7.3	44.4	45.3	2.9	0.1	7.155(4)
	여성	9.0	42.7	46.1	2.0	0.2	
연령	20대 이하	7.9	43.4	46.5	2.1	0.0	44.084(16)***
	30대	11.4	39.0	47.1	2.3	0.2	
	40대	7.8	45.3	43.5	3.3	0.1	
	50대	6.0	49.8	41.2	2.9	0.1	
	60대 이상	8.3	39.9	50.0	1.8	0.1	
지역1	수도권	9.8	44.6	44.1	1.4	0.1	35.072(4)***
	비수도권	6.5	42.4	47.5	3.5	0.1	
지역2	대도시	6.4	44.3	46.3	2.9	0.0	29.469(8)***
	중소도시	10.1	42.9	44.7	2.1	0.1	
	농어촌	5.4	43.0	48.9	2.0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	39.1	51.9	1.2	0.4	25.997(12)*
	중하층	7.4	42.6	47.4	2.6	0.0	
	중간층	9.2	45.0	43.1	2.6	0.1	
	중상층(상층)	6.4	49.7	40.3	3.6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8.9	41.6	46.9	2.3	0.3	27.793(16)*
	200만 원대	8.4	41.1	48.2	2.3	0.0	
	300만 원대	6.4	46.1	44.6	3.0	0.0	
	400만 원대	9.7	49.2	38.8	2.3	0.0	
	500만 원 이상	6.3	48.1	43.0	2.6	0.0	
학력	중졸 이하	6.3	35.4	57.1	1.2	0.0	34.970(8)***
	고졸	7.3	45.1	44.7	2.7	0.1	
	대졸 이상	9.4	44.1	43.7	2.6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8	45.0	45.6	2.5	0.1	50.076(20)***
	임시·일용직	6.9	40.8	49.6	2.8	0.0	
	고용주, 자영자	8.5	46.5	42.4	2.5	0.0	
	무급가족종사자	5.6	45.8	43.4	3.4	1.8	
	실업자	12.5	31.1	54.6	1.1	0.6	
	비경제활동인구	9.7	42.5	45.3	2.4	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0	48.5	38.3	3.1	0.2	24.46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4	44.4	45.9	2.2	0.1	
	숙련 및 기술직	4.5	46.7	45.4	3.3	0.1	
	단순노무 종사자	9.2	35.5	51.9	3.3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6	45.8	44.8	2.7	0.1	6.216(4)
	비정규직	6.8	39.4	51.1	2.8	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1	43.1	46.9	1.7	0.2	22.974(8)**
	중도적	6.8	44.9	45.5	2.6	0.1	
	진보적	11.2	41.0	44.7	3.0	0.0	

〈부표 3-106〉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인관계 변화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

(단위: %)

구분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X ² (df)
전체		1.8	5.8	73.8	16.1	2.5	
성별	남성	2.0	5.7	73.2	16.9	2.2	4.356(4)
	여성	1.7	5.9	74.3	15.3	2.8	
연령	20대 이하	1.1	5.2	63.5	22.8	7.4	297.713(16)** *
	30대	3.1	5.9	64.0	24.1	3.0	
	40대	2.5	7.3	68.3	20.5	1.4	
	50대	1.8	5.5	78.5	12.8	1.4	
	60대 이상	1.0	5.3	88.5	4.8	0.4	
지역1	수도권	2.0	5.8	71.8	18.5	1.9	24.252(4)****
	비수도권	1.7	5.8	75.8	13.6	3.1	
지역2	대도시	1.4	6.6	71.4	18.3	2.3	26.259(8)**
	중소도시	2.2	5.3	74.6	14.9	3.0	
	농어촌	1.7	4.6	80.9	12.1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	5.6	81.8	10.1	1.4	65.739(12)****
	중하층	1.3	6.1	74.7	15.8	2.0	
	중간층	1.9	5.5	71.4	18.0	3.1	
	중상층(상층)	7.5	6.5	65.7	17.0	3.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7	5.2	75.4	15.0	2.8	49.277(16)****
	200만 원대	1.1	4.9	76.0	14.8	3.2	
	300만 원대	1.8	6.8	68.2	21.6	1.8	
	400만 원대	2.2	6.1	73.9	15.6	2.3	
	500만 원 이상	4.0	8.5	71.2	15.2	1.0	
학력	중졸 이하	0.0	4.4	92.2	3.0	0.4	156.991(8)****
	고졸	1.0	5.9	76.2	14.5	2.4	
	대졸 이상	3.1	6.1	66.6	21.0	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4	6.2	69.2	19.4	2.7	55.433(20)****
	임시·일용직	1.7	6.4	79.6	10.9	1.4	
	고용주, 자영자	1.0	5.5	78.5	13.6	1.4	
	무급가족종사자	0.0	4.4	83.6	12.0	0.0	
	실업자	3.4	5.9	70.2	18.6	1.9	
	비경제활동인구	1.5	5.4	74.5	15.0	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5.8	5.8	68.0	16.6	3.7	76.48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	6.1	71.6	18.4	2.3	
	숙련 및 기술직	0.5	5.0	83.4	10.4	0.8	
	단순노무 종사자	2.0	7.4	78.4	11.8	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	6.2	68.6	20.1	2.7	29.074(4)****
	비정규직	2.3	7.1	79.4	9.6	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	4.7	81.8	10.7	0.6	89.624(8)****
	중도적	1.7	5.9	72.0	17.9	2.5	
	진보적	1.5	7.1	67.5	18.9	5.0	

〈부표 3-1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1순위

(단위: %)

구분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	X ² (df)
전체		15.3	28.8	9.1	24.8	15.5	6.5	
성별	남성	15.9	28.8	8.6	24.7	15.4	6.5	2.529(5)
	여성	14.6	28.8	9.6	24.9	15.6	6.5	
연령	20대 이하	15.7	25.1	6.0	30.3	15.4	7.5	60.484(20) ***
	30대	17.7	29.9	6.6	22.5	17.3	6.0	
	40대	11.2	31.8	10.6	26.0	14.9	5.4	
	50대	15.0	30.2	9.4	23.6	15.9	5.9	
	60대 이상	16.7	27.1	11.6	22.5	14.6	7.5	
지역1	수도권	17.0	31.2	8.6	22.3	14.6	6.3	30.510(5) ***
	비수도권	13.4	26.3	9.6	27.4	16.5	6.7	
지역2	대도시	14.5	29.7	8.3	26.7	14.3	6.5	13.000(10)
	중소도시	15.8	28.1	9.6	23.2	16.9	6.5	
	농어촌	15.8	28.3	10.3	25.2	14.1	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1	31.0	10.4	21.3	15.1	5.0	22.569(15)
	중하층	14.4	29.2	9.6	24.8	14.2	7.8	
	중간층	15.4	27.9	8.3	25.4	16.9	6.0	
	중상층(상층)	14.9	28.6	8.8	29.5	13.5	4.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4.9	27.1	9.4	26.0	16.0	6.6	51.779(20) ***
	200만 원대	14.7	31.5	8.5	23.7	14.4	7.2	
	300만 원대	17.7	29.2	6.3	23.9	15.9	7.0	
	400만 원대	12.7	27.1	17.3	22.7	16.9	3.3	
	500만 원 이상	16.1	30.8	7.1	25.3	14.5	6.3	
학력	중졸 이하	14.1	25.5	13.8	25.8	11.8	9.0	51.787(10) ***
	고졸	16.6	27.9	9.9	22.3	16.0	7.3	
	대졸 이상	14.3	30.5	7.1	27.0	16.0	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5.5	30.1	7.7	25.4	14.4	7.0	36.499(25)
	임시·일용직	15.9	31.7	8.3	21.2	15.1	7.7	
	고용주, 자영자	14.8	29.2	11.2	23.4	16.2	5.3	
	무급가족종사자	11.4	37.5	13.2	20.0	10.8	7.1	
	실업자	13.8	26.9	5.6	26.6	21.1	6.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5.4	25.3	10.2	26.6	16.2	6.3	34.839(15) **
	관리자, 전문가	20.5	28.0	3.8	24.5	18.5	4.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1	30.9	9.2	24.0	14.8	7.0	
	숙련 및 기술직	16.6	28.7	10.6	23.6	14.8	5.7	
	단순노무 종사자	13.0	32.5	10.2	25.0	9.6	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2	29.9	7.6	25.3	14.7	7.3	2.197(5)
	비정규직	16.2	32.1	8.1	22.5	13.6	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1	28.6	10.5	26.7	12.4	6.8	24.306(10) **
	중도적	14.6	28.6	9.0	23.5	17.6	6.7	
	진보적	16.9	29.4	7.4	25.5	15.0	5.7	

37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10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2순위

(단위: %)

구분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	X ² (df)
전체		7.5	18.9	11.3	21.8	22.6	17.9	
성별	남성	7.5	18.6	10.3	22.7	22.8	18.0	5.432(5)
	여성	7.5	19.3	12.3	20.8	22.5	17.7	
연령	20대 이하	8.0	19.8	9.0	16.4	25.9	21.0	48.962(20) ***
	30대	7.5	18.0	11.3	21.8	20.9	20.5	
	40대	8.3	17.5	9.4	22.8	23.6	18.4	
	50대	7.3	18.8	13.7	22.5	20.6	17.1	
	60대 이상	6.8	20.2	12.4	24.3	22.4	13.9	
지역1	수도권	7.5	17.8	11.7	23.5	20.8	18.7	17.469(5) **
	비수도권	7.6	20.1	10.8	20.0	24.6	16.9	
지역2	대도시	9.2	16.6	11.8	24.0	20.1	18.3	40.038(10) ***
	중소도시	6.4	20.4	10.4	20.2	25.1	17.6	
	농어촌	5.9	22.0	13.8	20.2	21.0	1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5	21.4	14.0	19.1	20.3	17.8	29.767(15)*
	중하층	7.1	19.5	11.4	23.2	22.0	16.7	
	중간층	7.8	18.1	10.5	21.7	24.1	17.7	
	중상층(상층)	8.6	15.1	9.1	19.1	19.6	28.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5	19.6	11.7	20.9	23.1	18.1	25.601(20)
	200만 원대	7.1	17.7	10.1	23.4	22.5	19.3	
	300만 원대	10.0	20.3	10.9	21.3	20.7	16.7	
	400만 원대	8.4	19.8	12.1	23.9	19.0	17.0	
	500만 원 이상	8.2	16.0	11.8	21.2	26.9	16.0	
학력	중졸 이하	4.5	23.4	13.7	21.5	24.9	12.1	38.980(10) ***
	고졸	7.8	20.1	12.1	21.3	20.8	17.9	
	대졸 이상	8.1	16.7	9.8	22.3	23.8	1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8.1	16.7	10.7	23.6	22.2	18.7	47.510(25) **
	임시·일용직	10.0	15.7	14.7	22.2	20.4	17.0	
	고용주, 자영자	7.4	23.4	10.6	19.5	23.0	16.0	
	무급가족종사자	1.0	16.5	16.6	26.0	17.2	22.7	
	실업자	7.8	16.8	8.6	19.4	29.2	18.2	
	비경제활동인구	6.0	20.8	11.3	20.9	23.0	1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2	16.7	9.6	25.1	19.4	18.9	33.696(15)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8	18.2	11.3	21.3	22.2	19.2	
	숙련 및 기술직	7.7	22.7	13.0	22.0	22.9	11.7	
	단순노무 종사자	8.2	11.0	11.5	27.7	23.2	1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	17.0	10.7	23.6	21.8	18.5	2.779(5)
	비정규직	8.8	13.8	12.0	23.8	22.5	1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	18.7	10.2	22.8	23.7	17.0	14.487(10)
	중도적	7.1	19.4	12.2	21.0	23.2	17.1	
	진보적	8.4	18.2	10.6	22.3	19.9	20.6	

〈부표 3-10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1+2순위

(단위: %)

구분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서비스	복지,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말벗 서비스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활동 공간 지원 및 교류 공간 무료 대여 등의 공간 제공 서비스
전체		22.7	47.6	20.3	46.5	38.1	24.3
성별	남성	23.4	47.4	18.8	47.4	38.2	24.5
	여성	22.0	47.9	21.8	45.6	38.0	24.1
연령	20대 이하	23.7	44.8	14.9	46.6	41.3	28.5
	30대	25.2	47.8	17.8	44.1	38.1	26.4
	40대	19.5	49.2	19.9	48.7	38.4	23.7
	50대	22.3	48.8	22.9	46.0	36.3	22.8
	60대 이상	23.5	47.3	24.0	46.8	36.9	21.3
지역1	수도권	24.4	48.8	20.2	45.7	35.2	25.0
	비수도권	21.0	46.4	20.3	47.4	41.0	23.5
지역2	대도시	23.7	46.3	20.1	50.6	34.3	24.8
	중소도시	22.1	48.3	19.8	43.2	41.8	24.0
	농어촌	21.7	50.2	24.1	45.3	35.0	2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5	52.2	24.2	40.2	35.2	22.6
	중하층	21.5	48.5	20.9	47.9	36.2	24.5
	중간층	23.2	45.9	18.8	47.1	40.9	23.7
	중상층(상층)	23.5	43.6	17.9	48.5	33.1	33.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1.3	46.6	21.0	46.9	39.0	24.6
	200만 원대	21.8	49.1	18.6	47.1	36.8	26.5
	300만 원대	27.7	49.4	17.2	45.2	36.6	23.7
	400만 원대	21.0	46.7	29.3	46.3	35.6	20.1
	500만 원 이상	24.1	46.6	18.7	46.2	41.1	22.1
학력	중졸 이하	18.5	48.8	27.5	47.1	36.6	21.0
	고졸	24.3	47.9	22.0	43.5	36.8	25.1
	대졸 이상	22.3	47.1	16.8	49.2	39.6	2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3.6	46.7	18.3	48.8	36.5	25.5
	임시·일용직	25.9	47.4	23.0	43.4	35.6	24.7
	고용주, 자영자	22.2	52.6	21.9	42.9	39.2	21.2
	무급가족종사자	12.4	53.8	29.6	45.7	27.8	29.5
	실업자	21.4	43.4	14.1	45.6	49.8	23.9
	비경제활동인구	21.4	45.9	21.5	47.3	39.0	2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8	44.7	13.5	49.6	37.8	23.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8	49.0	20.5	45.2	37.0	26.1
	숙련 및 기술직	24.3	51.3	23.6	45.5	37.6	17.3
	단순노무 종사자	21.2	43.5	21.7	52.7	32.8	2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5	46.7	18.2	48.7	36.4	25.7
	비정규직	25.0	46.0	20.1	46.4	36.2	2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7	47.2	20.6	49.5	36.1	23.7
	중도적	21.7	47.9	21.1	44.3	40.6	23.8
	진보적	25.3	47.4	18.0	47.6	34.8	26.1

〈부표 3-110〉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집단

(단위: %)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X ² (df)
전체		11.5	13.3	27.8	19.3	28.1	
성별	남성	10.7	13.5	28.3	17.3	30.1	17.084(4)**
	여성	12.4	13.1	27.2	21.3	26.0	
연령	20대 이하	10.2	15.0	24.3	21.2	29.3	113.909(16)* ***
	30대	16.8	14.7	24.6	18.7	25.2	
	40대	12.2	19.3	23.4	18.4	26.7	
	50대	10.7	10.3	28.2	18.0	32.9	
	60대 이상	8.9	8.9	35.9	20.1	26.2	
지역1	수도권	12.9	10.7	27.9	19.4	29.2	30.483(4)***
	비수도권	10.0	16.1	27.6	19.1	27.0	
지역2	대도시	12.2	14.3	28.1	17.7	27.7	28.917(8)***
	중소도시	11.2	11.5	28.2	19.7	29.3	
	농어촌	10.2	19.2	23.2	24.5	2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3	12.6	33.5	15.1	28.5	23.083(12)*
	중하층	11.4	14.6	27.3	19.1	27.7	
	중간층	12.2	12.8	25.9	20.6	28.6	
	중상층(상층)	9.1	11.2	33.9	20.1	25.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0.7	13.0	28.4	21.2	26.7	34.447(16)**
	200만 원대	11.4	11.5	26.2	19.9	31.0	
	300만 원대	12.4	17.1	29.0	15.7	25.8	
	400만 원대	12.7	12.8	23.1	19.6	31.9	
	500만 원 이상	12.9	13.2	30.3	15.2	28.5	
학력	중졸 이하	6.9	9.2	36.0	22.9	25.0	48.418(8)***
	고졸	11.2	12.5	27.1	20.8	28.3	
	대졸 이상	13.0	15.2	26.3	16.8	2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2.7	13.3	25.6	17.5	30.9	38.542(20)**
	임시·일용직	10.4	13.4	30.7	19.4	26.1	
	고용주, 자영자	11.2	13.6	26.6	21.3	27.3	
	무급가족종사자	9.1	18.5	38.1	21.4	12.8	
	실업자	11.7	10.3	26.7	15.8	35.5	
	비경제활동인구	10.6	13.5	30.1	20.8	25.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5	12.9	26.0	16.9	30.7	14.09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5	12.9	26.4	19.8	28.5	
	숙련 및 기술직	9.0	16.0	27.7	17.9	29.4	
	단순노무 종사자	9.6	13.6	32.9	17.5	2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8	13.6	25.9	17.2	30.6	7.582(4)
	비정규직	9.0	12.1	29.1	20.3	2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	13.7	30.1	18.9	26.9	12.412(8)
	중도적	11.8	12.6	27.0	20.5	28.1	
	진보적	12.2	14.7	26.4	17.0	29.7	

〈부표 3-11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없었음)	X ² (df)
전체		10.0	5.6	84.4	
성별	남성	9.1	4.6	86.3	12.709(2)**
	여성	10.9	6.7	82.4	
연령	20대 이하	2.3	1.2	96.5	806.282(8)***
	30대	22.6	9.0	68.4	
	40대	24.9	15.9	59.2	
	50대	2.2	1.9	95.9	
	60대 이상	1.4	1.3	97.3	
지역1	수도권	8.3	5.7	85.9	12.493(2)**
	비수도권	11.7	5.5	82.8	
지역2	대도시	9.2	4.9	85.9	7.392(4)
	중소도시	10.9	6.1	83.0	
	농어촌	8.8	6.9	8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	4.8	91.5	44.908(6)***
	중하층	9.7	5.0	85.3	
	중간층	12.2	5.9	81.9	
	중상층(상층)	9.1	10.8	80.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7.2	5.5	87.3	75.121(8)***
	200만 원대	8.3	3.7	87.9	
	300만 원대	15.1	4.9	80.0	
	400만 원대	13.2	10.3	76.5	
	500만 원 이상	14.3	8.1	77.6	
학력	중졸 이하	3.0	2.1	94.9	167.736(4)***
	고졸	5.8	4.3	89.9	
	대졸 이상	15.8	7.9	7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2.4	5.8	81.7	38.490(10)***
	임시·일용직	6.1	4.2	89.7	
	고용주, 자영자	9.8	4.7	85.6	
	무급가족종사자	9.7	9.9	80.4	
	실업자	2.0	5.1	92.9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9.7	6.5	83.7	36.425(6)***
	관리자, 전문가	14.3	10.4	75.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3	4.7	84.0	
	숙련 및 기술직	7.9	4.8	87.3	
	단순노무 종사자	4.9	3.3	9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	6.0	80.8	41.619(2)***
	비정규직	3.6	2.8	9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	5.0	88.9	32.941(4)***
	중도적	11.6	5.3	83.1	
	진보적	11.5	7.1	81.4	

〈부표 3-11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t/F
전체		43.8	36.7	19.5	1.89	
성별	남성	46.0	35.1	18.9	1.86	-0.420
	여성	41.9	38.2	19.9	1.91	
연령	20대 이하	37.2	41.7	21.1	1.89	0.336
	30대	41.9	39.7	18.4	1.85	
	40대	48.2	30.3	21.5	1.88	
	50대	27.5	58.7	13.8	2.17	
	60대 이상	30.8	62.0	7.2	1.91	
지역1	수도권	32.0	44.2	23.8	2.02	2.119*
	비수도권	52.6	31.2	16.2	1.78	
지역2	대도시	40.5	37.7	21.7	1.94	0.267
	중소도시	46.7	34.7	18.6	1.85	
	농어촌	39.3	46.9	13.8	1.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1.1	23.8	5.1	1.34	4.484**
	중하층	46.5	43.1	10.3	1.71	
	중간층	39.2	34.6	26.2	2.05	
	중상층(상층)	48.0	26.0	26.0	1.9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3.4	37.9	18.7	1.92	0.445
	200만 원대	40.1	42.6	17.3	1.79	
	300만 원대	46.3	31.5	22.2	1.89	
	400만 원대	53.4	31.0	15.6	1.77	
	500만 원 이상	38.3	39.9	21.8	2.00	
학력	중졸 이하	40.0	45.6	14.5	1.89	0.006
	고졸	39.0	46.5	14.4	1.90	
	대졸 이상	45.7	32.8	21.5	1.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6.3	33.9	19.9	1.81	0.694
	임시·일용직	33.3	42.1	24.6	1.95	
	고용주, 자영자	47.1	36.3	16.6	1.88	
	무급가족종사자	38.4	50.4	11.2	2.06	
	실업자	67.3	32.7	0.0	1.33	
	비경제활동인구	38.9	40.4	20.6	2.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42.3	31.1	26.7	2.07	1.181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5.6	34.7	19.7	1.82	
	숙련 및 기술직	43.9	43.6	12.5	1.81	
	단순노무 종사자	55.8	44.2	0.0	1.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6.7	33.8	19.5	1.81	0.604
	비정규직	42.8	49.1	8.2	1.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0	39.7	17.3	1.82	0.126
	중도적	41.6	39.6	18.8	1.90	
	진보적	49.4	28.2	22.4	1.90	

〈부표 3-1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하게 자녀 돌봄 지원 가능한 사람(복수응답)

(단위: %)

구분		배우자 있음	자녀의 (외)조부모 있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있음	친인척 있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 친구 등 있음	이웃(마을 공동체) 있음	유급도우미(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있음	기타 있음
전체		62.6	63.0	23.8	4.6	7.2	4.1	1.8	0.2
성별	남성	75.6	57.8	20.4	4.8	6.8	1.7	1.4	0.0
	여성	51.5	67.4	26.8	4.4	7.5	6.2	2.2	0.3
연령	20대 이하	42.6	52.2	36.4	2.7	8.4	0.0	2.7	0.0
	30대	64.2	73.4	21.9	2.0	8.7	2.3	2.0	0.0
	40대	66.0	59.8	21.9	4.6	4.8	5.3	1.9	0.2
	50대	64.5	29.2	43.2	14.8	18.4	5.5	0.0	0.0
	60대 이상	16.4	50.1	32.3	20.7	8.1	10.8	0.0	2.5
지역1	수도권	67.5	77.4	21.7	2.9	3.1	5.4	1.4	0.0
	비수도권	59.0	52.2	25.4	5.8	10.3	3.2	2.2	0.3
지역2	대도시	60.3	62.6	21.4	6.7	11.6	3.3	2.5	0.2
	중소도시	63.1	65.4	24.0	3.6	4.8	4.3	1.5	0.2
	농어촌	71.5	46.2	36.5	0.0	1.2	6.8	0.6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9.9	30.6	7.5	9.1	0.0	0.0	0.0	0.0
	중하층	61.0	59.2	19.4	1.6	8.3	5.3	1.3	0.2
	중간층	64.0	67.3	28.0	5.2	7.7	4.0	2.3	0.2
	중상층(상층)	49.3	77.0	26.4	16.6	0.0	0.0	2.1	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5.0	61.3	31.4	6.1	10.7	7.4	0.8	0.6
	200만 원대	65.1	63.4	23.9	1.6	3.2	4.3	2.8	0.0
	300만 원대	69.7	62.9	22.7	3.0	8.2	0.6	1.3	0.0
	400만 원대	78.2	56.7	14.8	2.9	7.7	1.9	0.0	0.0
	500만 원 이상	72.7	70.3	16.6	8.8	3.0	4.7	4.9	0.0
학력	중졸 이하	20.0	45.8	38.8	16.1	4.4	7.0	0.0	0.0
	고졸	59.9	54.0	29.0	5.6	9.6	6.7	0.6	0.3
	대졸 이상	65.7	67.0	21.3	3.6	6.5	3.0	2.3	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4.9	67.1	17.6	4.1	5.9	0.8	2.5	0.0
	임시·일용직	74.1	73.8	33.6	0.0	3.4	0.0	2.0	0.0
	고용주, 자영자	74.4	54.0	21.2	4.2	8.5	7.3	1.5	0.0
	무급가족종사자	30.0	68.3	42.8	0.0	11.2	0.0	0.0	0.0
	실업자	5.3	73.3	26.7	0.0	0.0	0.0	0.0	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50.7	58.2	33.7	7.4	9.8	9.4	1.0	0.7
	관리자, 전문가	72.3	71.5	18.0	4.3	13.5	0.9	5.3	0.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6.7	65.8	21.1	3.1	5.7	1.9	1.9	0.0
	숙련 및 기술직	64.9	57.2	18.8	6.4	1.5	5.9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67.5	27.0	27.7	0.0	5.5	5.5	0.0	0.0
	정규직	65.1	67.3	17.7	4.0	5.6	0.8	1.8	0.0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59.5	57.3	18.2	1.5	10.3	0.0	11.6	0.0
	보수적	64.3	70.6	23.6	2.7	2.8	5.3	1.1	0.0
	중도적	65.5	59.6	26.1	4.3	8.4	4.1	2.0	0.2
	진보적	55.0	65.5	18.9	6.4	7.4	3.3	1.8	0.4

〈부표 3-1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1)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압박이 더욱 늘어났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34.4	43.3	22.3	
성별	남성	30.1	59.0	10.9	59.665(2)***
	여성	37.7	30.7	31.5	
연령	20대 이하	17.2	38.5	44.3	63.778(8)***
	30대	40.5	38.1	21.3	
	40대	34.5	49.3	16.2	
	50대	29.1	39.2	31.8	
	60대 이상	5.6	21.1	73.2	
지역1	수도권	38.7	33.5	27.8	22.121(2)***
	비수도권	30.7	51.7	17.6	
지역2	대도시	30.4	44.8	24.8	15.891(4)**
	중소도시	38.9	38.8	22.3	
	농어촌	22.5	66.4	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9	36.9	39.2	13.427(6)*
	중하층	31.9	45.6	22.6	
	중간층	38.5	41.2	20.3	
	중상층(상층)	25.1	57.0	17.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2.2	27.2	50.6	156.279(8)***
	200만 원대	50.1	45.5	4.4	
	300만 원대	41.9	49.0	9.0	
	400만 원대	33.7	54.8	11.5	
	500만 원 이상	34.0	60.3	5.7	
학력	중졸 이하	17.4	40.0	42.5	16.492(4)**
	고졸	31.9	38.2	29.9	
	대졸 이상	36.3	45.6	1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8.0	54.9	7.1	236.386(10)***
	임시·일용직	58.6	32.8	8.6	
	고용주, 자영자	45.2	52.9	2.0	
	무급가족종사자	31.6	50.4	18.0	
	실업자	15.2	15.3	69.4	
	비경제활동인구	16.6	22.5	6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43.4	49.3	7.4	10.615(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4.9	50.6	4.6	
	숙련 및 기술직	27.1	60.7	12.3	
	단순노무 종사자	34.1	59.0	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5	55.2	7.3	1.242(2)
	비정규직	45.5	44.7	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2	42.1	31.6	11.047(4)*
	중도적	34.9	43.6	21.5	
	진보적	39.5	43.6	17.0	

〈부표 3-11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2) 자녀 돌봄으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업무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21.3	55.8	22.8	
성별	남성	14.9	74.3	10.8	70.345(2)****
	여성	26.4	41.1	32.5	
연령	20대 이하	12.0	43.7	44.3	60.496(8)****
	30대	23.9	54.5	21.6	
	40대	22.5	61.2	16.3	
	50대	13.0	48.7	38.3	
	60대 이상	5.6	21.1	73.2	
지역1	수도권	25.7	46.1	28.2	20.207(2)****
	비수도권	17.6	64.2	18.2	
지역2	대도시	16.4	58.2	25.4	13.268(4)*
	중소도시	25.6	51.7	22.7	
	농어촌	16.0	72.4	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	50.3	36.9	7.220(6)
	중하층	22.2	55.9	21.9	
	중간층	22.2	55.7	22.1	
	중상층(상층)	18.3	64.2	17.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8	29.3	52.0	165.310(8)****
	200만 원대	25.4	70.2	4.4	
	300만 원대	21.2	69.6	9.2	
	400만 원대	22.8	65.9	11.4	
	500만 원 이상	21.5	72.8	5.7	
학력	중졸 이하	13.2	44.3	42.5	16.634(4)**
	고졸	19.5	49.7	30.9	
	대졸 이상	22.5	59.0	1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8.1	74.9	7.0	266.181(10)****
	임시·일용직	47.1	44.5	8.3	
	고용주, 자영자	29.7	68.3	2.0	
	무급가족종사자	24.3	57.7	18.0	
	실업자	15.2	15.3	69.4	
	비경제활동인구	14.5	22.5	6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5	69.2	7.4	7.064(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2	70.3	4.5	
	숙련 및 기술직	19.0	68.7	12.3	
	단순노무 종사자	28.1	64.9	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5	75.3	7.2	4.396(2)
	비정규직	31.7	58.5	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3	47.5	34.1	12.522(4)*
	중도적	21.2	57.4	21.4	
	진보적	23.8	58.9	17.3	

〈부표 3-11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3) 자녀 돌봄을 위해 이른 시간 퇴근함에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X ² (df)
전체		20.1	51.2	28.7	
성별	남성	17.6	67.3	15.1	58.439(2)***
	여성	22.1	38.3	39.5	
연령	20대 이하	12.0	41.0	46.9	59.727(8)***
	30대	23.8	49.9	26.3	
	40대	21.7	55.5	22.8	
	50대	4.0	53.1	42.9	
	60대 이상	0.0	15.0	85.0	
지역1	수도권	24.2	42.6	33.2	16.108(2)***
	비수도권	16.6	58.6	24.8	
지역2	대도시	18.0	51.8	30.2	8.085(4)
	중소도시	22.5	48.2	29.3	
	농어촌	14.0	68.3	1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	44.5	45.3	13.831(6)*
	중하층	16.2	54.7	29.1	
	중간층	24.2	49.0	26.9	
	중상층(상층)	19.5	59.0	21.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2.9	29.2	57.9	149.224(8)***
	200만 원대	31.4	60.6	8.0	
	300만 원대	26.8	58.4	14.8	
	400만 원대	14.7	62.3	23.0	
	500만 원 이상	18.6	71.7	9.7	
학력	중졸 이하	5.5	37.7	56.8	26.112(4)***
	고졸	14.0	47.8	38.2	
	대졸 이상	23.4	53.3	2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4.3	67.5	8.2	225.594(10)***
	임시·일용직	48.7	40.8	10.4	
	고용주, 자영자	18.8	59.5	21.8	
	무급가족종사자	2.5	58.6	39.0	
	실업자	3.8	26.8	69.4	
	비경제활동인구	8.9	23.1	67.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0	57.3	10.7	13.093(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9	63.1	11.0	
	숙련 및 기술직	11.8	66.2	22.1	
	단순노무 종사자	18.9	67.5	1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9	67.7	8.4	3.043(2)
	비정규직	34.1	52.7	1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1	44.2	39.7	9.843(4)*
	중도적	20.4	52.6	27.0	
	진보적	22.6	53.5	23.9	

〈부표 3-1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4)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20.1	79.9	
성별	남성	14.8	85.2	8.683(1)**
	여성	24.4	75.6	
연령	20대 이하	6.9	93.1	12.757(4)*
	30대	22.6	77.4	
	40대	22.4	77.6	
	50대	6.0	94.0	
	60대 이상	3.9	96.1	
지역1	수도권	22.1	77.9	1.330(1)
	비수도권	18.5	81.5	
지역2	대도시	20.3	79.7	2.376(2)
	중소도시	21.3	78.7	
	농어촌	11.7	8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9	79.1	0.447(3)
	중하층	18.6	81.4	
	중간층	21.0	79.0	
	중상층(상층)	20.1	79.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0.1	79.9	6.444(4)
	200만 원대	17.0	83.0	
	300만 원대	26.7	73.3	
	400만 원대	21.2	78.8	
	500만 원 이상	13.8	86.2	
학력	중졸 이하	6.7	93.3	3.270(2)
	고졸	18.1	81.9	
	대졸 이상	21.7	7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8.8	81.2	5.345(5)
	임시·일용직	30.5	69.5	
	고용주, 자영자	22.0	78.0	
	무급가족종사자	9.7	90.3	
	실업자	13.1	86.9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9.7	80.3	0.553(3)
	관리자, 전문가	17.7	82.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6	78.4	
	숙련 및 기술직	19.8	80.2	
	단순노무 종사자	18.9	8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7	81.3	0.640(1)
	비정규직	25.8	7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7	76.3	3.839(2)
	중도적	17.3	82.7	
	진보적	23.4	76.6	

〈부표 3-11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 돌봄 문제 (5)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배우자 등 가족 내 구성원과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심해졌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18.2	81.8	
성별	남성	12.6	87.4	9.828(1)**
	여성	22.6	77.4	
연령	20대 이하	5.3	94.7	8.628(4)
	30대	21.8	78.2	
	40대	18.0	82.0	
	50대	17.2	82.8	
	60대 이상	3.9	96.1	
지역1	수도권	22.2	77.8	5.570(1)*
	비수도권	14.7	85.3	
지역2	대도시	14.8	85.2	3.134(2)
	중소도시	20.6	79.4	
	농어촌	17.5	8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	80.4	1.218(3)
	중하층	19.1	80.9	
	중간층	16.8	83.2	
	중상층(상층)	23.5	76.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9.0	81.0	5.914(4)
	200만 원대	20.9	79.1	
	300만 원대	22.1	77.9	
	400만 원대	14.3	85.7	
	500만 원 이상	10.6	89.4	
학력	중졸 이하	5.6	94.4	5.622(2)
	고졸	22.5	77.5	
	대졸 이상	17.1	8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3	86.7	29.574(5)***
	임시·일용직	44.7	55.3	
	고용주, 자영자	22.3	77.7	
	무급가족종사자	13.2	86.8	
	실업자	3.2	96.8	
	비경제활동인구	17.9	82.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6	83.4	0.823(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9	80.1	
	숙련 및 기술직	15.8	84.2	
	단순노무 종사자	20.6	7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	86.8	1.444(1)
	비정규직	22.3	7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3	82.7	0.383(2)
	중도적	17.8	82.2	
	진보적	19.6	80.4	

〈부표 3-11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녀돌봄 문제 (6) 자녀 돌봄으로 신체적 건강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14.9	85.1	
성별	남성	10.6	89.4	6.878(1)**
	여성	18.2	81.8	
연령	20대 이하	5.3	94.7	5.794(4)
	30대	18.6	81.4	
	40대	14.3	85.7	
	50대	10.3	89.7	
	60대 이상	6.3	93.7	
지역1	수도권	16.6	83.4	1.321(1)
	비수도권	13.3	86.7	
지역2	대도시	11.9	88.1	2.910(2)
	중소도시	17.1	82.9	
	농어촌	14.0	8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2	85.8	0.943(3)
	중하층	13.2	86.8	
	중간층	15.7	84.3	
	중상층(상층)	18.3	81.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6.8	83.2	7.514(4)
	200만 원대	15.8	84.2	
	300만 원대	18.6	81.4	
	400만 원대	8.8	91.2	
	500만 원 이상	9.0	91.0	
학력	중졸 이하	5.9	94.1	6.335(2)*
	고졸	10.4	89.6	
	대졸 이상	17.2	8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7	86.3	3.720(5)
	임시·일용직	16.5	83.5	
	고용주, 자영자	16.6	83.4	
	무급가족종사자	8.9	91.1	
	실업자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16.7	8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5	78.5	6.33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9	86.1	
	숙련 및 기술직	11.6	88.4	
	단순노무 종사자	0.0	1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	86.8	0.476(1)
	비정규직	16.4	8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2	81.8	4.388(2)
	중도적	12.0	88.0	
	진보적	18.2	81.8	

〈부표 3-120〉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단위: %)

구분		매우 부적절 하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X ² (df)
전체		1.5	9.8	25.7	55.3	7.6	
성별	남성	1.7	11.0	26.6	53.0	7.7	12.332(4)*
	여성	1.4	8.5	24.8	57.7	7.6	
연령	20대 이하	2.2	9.9	28.0	53.2	6.7	42.030(16)***
	30대	1.8	11.0	29.6	50.0	7.6	
	40대	0.9	9.3	29.0	53.6	7.1	
	50대	1.5	11.0	22.6	56.0	8.9	
	60대 이상	1.4	8.2	21.3	61.5	7.6	
지역1	수도권	2.2	9.8	25.9	56.7	5.5	36.199(4)***
	비수도권	0.9	9.8	25.5	53.9	9.9	
지역2	대도시	1.5	12.5	26.9	52.3	6.8	43.329(8)***
	중소도시	1.7	7.4	25.0	58.3	7.7	
	농어촌	0.4	10.5	24.0	53.3	1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	13.4	21.2	57.9	6.0	44.092(12)***
	중하층	1.4	10.0	29.3	52.5	6.9	
	중간층	1.8	8.5	25.3	55.9	8.5	
	중상층(상층)	0.5	9.2	14.6	65.9	9.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8	8.2	25.3	58.0	6.8	52.894(16)***
	200만 원대	2.3	10.7	25.7	54.9	6.4	
	300만 원대	0.6	13.9	26.6	50.2	8.7	
	400만 원대	0.8	11.5	27.0	52.6	8.1	
	500만 원 이상	0.8	6.5	25.2	55.8	11.6	
학력	중졸 이하	0.3	8.2	19.3	63.0	9.1	30.212(8)***
	고졸	2.1	9.8	26.0	55.5	6.5	
	대졸 이상	1.3	10.1	27.1	53.1	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7	11.6	23.9	54.6	8.1	49.013(20)***
	임시·일용직	2.1	7.5	24.2	61.8	4.4	
	고용주, 자영자	0.9	10.4	30.2	49.4	9.1	
	무급가족종사자	1.8	3.5	29.1	57.7	7.9	
	실업자	3.1	10.6	23.9	54.3	8.1	
	비경제활동인구	1.2	7.7	25.9	58.1	7.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	13.5	21.3	55.1	8.4	26.18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	10.2	27.3	52.7	8.1	
	숙련 및 기술직	1.1	11.6	25.2	55.3	6.7	
	단순노무 종사자	0.5	4.3	20.6	67.4	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	11.7	23.4	54.8	8.5	19.661(4)**
	비정규직	3.0	8.8	27.1	57.5	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9.1	26.9	57.4	5.0	28.394(8)***
	중도적	1.4	10.1	25.7	55.2	7.6	
	진보적	1.9	9.9	24.3	52.9	11.1	

〈부표 3-121〉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단위: %)

구분		매우 부적절 하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X [*] (df)
전체		1.4	6.9	25.2	53.5	13.0	
성별	남성	1.5	7.6	25.1	52.9	12.9	3.535(4)
	여성	1.3	6.2	25.2	54.2	13.1	
연령	20대 이하	1.7	5.5	25.8	53.0	14.0	23.202(16)
	30대	2.0	7.9	26.8	51.4	11.8	
	40대	1.2	7.3	27.1	52.3	12.1	
	50대	1.8	6.8	24.7	53.2	13.5	
	60대 이상	0.5	7.2	22.3	56.7	13.4	
지역1	수도권	2.1	6.8	26.4	55.1	9.6	58.400(4)***
	비수도권	0.6	7.0	23.8	51.9	16.6	
지역2	대도시	1.9	8.2	25.6	52.5	11.8	16.906(8)*
	중소도시	1.1	5.9	25.0	54.3	13.8	
	농어촌	0.6	6.7	23.7	54.4	1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	8.4	23.2	53.6	13.0	34.450(12)**
	중하층	1.5	7.1	28.9	51.2	11.3	
	중간층	1.3	6.6	23.8	54.2	14.1	
	중상층(상층)	0.5	5.0	14.5	64.7	15.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0	6.2	24.0	55.7	13.2	47.473(16)***
	200만 원대	1.8	6.6	27.7	54.0	9.9	
	300만 원대	1.6	9.3	28.1	48.6	12.4	
	400만 원대	1.3	8.6	25.9	46.2	18.0	
	500만 원 이상	1.8	5.7	19.5	56.9	16.1	
학력	중졸 이하	0.6	4.7	20.3	58.4	15.9	22.147(8)**
	고졸	1.5	7.6	26.7	52.9	11.3	
	대졸 이상	1.5	6.9	24.9	52.8	1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7	7.9	24.7	52.1	13.6	21.359(20)
	임시·일용직	1.2	5.4	26.6	54.9	11.9	
	고용주, 자영자	1.5	7.6	26.7	50.9	13.3	
	무급가족종사자	0.8	1.7	23.1	61.2	13.2	
	실업자	1.9	4.9	21.8	56.2	15.1	
	비경제활동인구	0.9	6.4	24.9	56.0	11.9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	8.3	17.9	54.2	17.5	38.59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	6.9	27.5	51.4	12.6	
	숙련 및 기술직	1.2	9.7	24.0	54.2	10.8	
	단순노무 종사자	0.2	2.5	24.4	53.9	1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	8.2	24.0	52.0	14.1	6.715(4)
	비정규직	1.0	6.0	28.4	52.7	1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7.6	25.2	55.4	11.3	25.388(8)**
	중도적	1.7	6.4	25.9	53.5	12.4	
	진보적	1.8	7.2	23.3	51.0	16.7	

〈부표 3-122〉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3) 정부의 사회적 방역 조치

(단위: %)

구분		매우 부적절 하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X ² (df)
전체		1.7	10.9	28.9	49.6	8.8	
성별	남성	1.8	11.7	28.8	49.1	8.6	2.604(4)
	여성	1.7	10.1	29.0	50.2	9.0	
연령	20대 이하	2.2	12.7	32.0	46.0	7.2	49.467(16)***
	30대	2.5	11.0	29.9	46.9	9.6	
	40대	2.2	10.2	31.3	47.9	8.3	
	50대	1.5	12.6	28.6	49.6	7.8	
	60대 이상	0.7	8.5	24.3	55.7	10.8	
지역1	수도권	1.7	12.3	31.3	48.2	6.5	41.360(4)***
	비수도권	1.8	9.5	26.4	51.1	11.2	
지역2	대도시	2.0	13.5	32.6	44.7	7.3	57.959(8)***
	중소도시	1.5	9.4	26.2	52.9	10.0	
	농어촌	1.9	6.3	26.4	55.7	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	12.9	23.5	50.9	10.5	38.416(12)***
	중하층	1.7	11.9	31.1	48.2	7.1	
	중간층	1.7	9.8	29.8	49.6	9.2	
	중상층(상층)	1.1	7.7	18.5	58.6	14.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7	8.9	27.2	53.1	9.0	57.184(16)***
	200만 원대	2.0	11.7	31.1	47.9	7.2	
	300만 원대	1.7	14.1	32.1	44.5	7.7	
	400만 원대	0.7	14.7	32.5	43.9	8.2	
	500만 원 이상	2.0	9.1	23.3	51.9	13.8	
학력	중졸 이하	0.5	5.6	24.3	56.8	12.8	48.190(8)***
	고졸	1.8	11.1	30.9	49.4	6.8	
	대졸 이상	2.0	12.1	28.1	48.0	9.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0	12.4	29.4	47.1	9.1	30.695(20)
	임시·일용직	2.0	6.8	30.9	53.7	6.7	
	고용주, 자영자	1.6	12.1	27.4	50.1	8.9	
	무급가족종사자	0.0	5.8	31.7	55.0	7.5	
	실업자	3.5	9.4	26.8	52.0	8.3	
	비경제활동인구	1.2	10.1	28.7	50.6	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	16.3	20.6	47.4	12.5	58.62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	11.3	31.9	47.0	8.2	
	숙련 및 기술직	1.7	10.9	27.0	54.0	6.3	
	단순노무 종사자	0.5	3.3	23.5	60.4	1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	13.0	28.8	46.8	9.4	18.943(4)**
	비정규직	2.2	6.6	33.6	50.9	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	10.9	28.6	50.3	9.1	22.667(8)**
	중도적	2.0	10.3	29.6	50.7	7.4	
	진보적	2.0	12.3	27.7	46.3	11.8	

〈부표 3-123〉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대처 평가 (4)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단위: %)

구분		매우 부적절 하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X' (df)
전체		2.6	11.4	39.5	41.4	5.1	
성별	남성	2.9	12.2	40.1	40.0	4.8	7.053(4)
	여성	2.3	10.5	38.9	42.9	5.4	
연령	20대 이하	2.7	9.3	44.6	37.5	5.9	33.313(16)**
	30대	2.9	12.5	38.7	41.5	4.5	
	40대	3.0	12.4	41.5	39.3	3.8	
	50대	2.8	12.9	37.6	42.0	4.8	
	60대 이상	1.9	9.8	36.4	45.6	6.4	
지역1	수도권	2.4	11.9	40.4	42.0	3.3	30.993(4)***
	비수도권	2.8	10.7	38.6	40.8	7.1	
지역2	대도시	1.8	13.4	45.4	35.1	4.3	81.309(8)***
	중소도시	3.4	9.8	34.2	46.8	5.8	
	농어촌	2.1	10.2	41.2	41.4	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	13.4	39.2	39.7	4.3	38.664(12)***
	중하층	3.4	12.3	39.9	40.3	4.1	
	중간층	1.8	10.1	40.2	42.2	5.7	
	중상층(상층)	1.8	10.5	29.8	47.3	10.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4	9.4	40.4	42.1	5.8	44.258(16)***
	200만 원대	3.2	14.3	39.0	40.1	3.4	
	300만 원대	1.7	14.7	39.7	38.8	5.1	
	400만 원대	3.1	11.5	40.5	40.9	4.0	
	500만 원 이상	3.3	7.7	36.2	45.8	6.9	
학력	중졸 이하	1.7	7.3	38.1	45.5	7.4	17.263(8)*
	고졸	2.7	11.7	39.7	41.3	4.7	
	대졸 이상	2.7	12.1	39.7	40.5	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6	13.1	38.9	40.1	5.3	36.156(20)*
	임시·일용직	2.5	8.7	41.6	44.0	3.2	
	고용주, 자영자	2.3	13.3	39.8	40.3	4.2	
	무급가족종사자	3.2	10.8	40.1	42.5	3.4	
	실업자	5.5	12.5	35.4	40.1	6.6	
	비경제활동인구	2.2	8.3	40.1	43.2	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4.6	16.8	32.7	38.6	7.4	41.16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	12.8	41.1	39.7	3.9	
	숙련 및 기술직	1.9	10.1	40.7	42.9	4.3	
	단순노무 종사자	0.6	6.8	34.9	50.7	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	13.0	38.1	40.7	5.5	9.289(4)
	비정규직	2.8	10.5	44.7	38.9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	10.6	39.3	43.1	4.1	29.857(8)***
	중도적	2.3	10.8	42.1	40.2	4.7	
	진보적	3.0	13.5	34.1	42.0	7.4	

〈부표 3-124〉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단위: %)

구분		매우 부족했다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다	대체로 충분한 편이었다	매우 충분했다	X ² (df)
전체		0.7	13.1	73.2	13.0	
성별	남성	1.0	12.6	71.3	15.1	24.289(3)***
	여성	0.3	13.6	75.3	10.9	
연령	20대 이하	0.8	10.4	70.9	17.9	37.419(12)***
	30대	0.1	12.6	72.9	14.5	
	40대	1.2	14.3	72.9	11.6	
	50대	0.8	15.0	72.8	11.3	
	60대 이상	0.3	12.8	75.9	11.0	
지역1	수도권	0.6	13.8	73.0	12.6	2.574(3)
	비수도권	0.7	12.3	73.5	13.5	
지역2	대도시	0.2	13.5	74.8	11.4	45.960(6)***
	중소도시	0.9	11.6	74.1	13.5	
	농어촌	1.4	20.3	59.7	1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15.0	76.2	8.1	68.375(9)***
	중하층	0.9	15.3	73.9	9.9	
	중간층	0.4	11.3	72.3	16.0	
	중상층(상층)	1.2	7.0	68.7	23.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4	12.8	74.8	11.9	39.511(12)***
	200만 원대	0.9	12.2	75.2	11.7	
	300만 원대	0.8	15.0	70.8	13.5	
	400만 원대	0.7	17.1	71.2	11.0	
	500만 원 이상	0.8	10.0	68.1	21.1	
학력	중졸 이하	0.1	10.9	78.4	10.7	30.322(6)***
	고졸	1.1	13.2	74.5	11.1	
	대졸 이상	0.4	13.5	70.7	1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8	12.9	70.3	16.0	37.583(15)**
	임시·일용직	0.6	12.8	78.7	7.9	
	고용주, 자영자	0.8	14.8	74.2	10.1	
	무급가족종사자	1.8	17.8	66.8	13.6	
	실업자	0.8	12.8	74.8	11.7	
	비경제활동인구	0.2	12.0	74.7	13.1	
직업	관리자, 전문가	2.5	11.3	67.1	19.2	33.127(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14.6	72.6	12.3	
	숙련 및 기술직	0.6	10.7	76.0	12.6	
	단순노무 종사자	0.8	14.9	74.0	1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12.8	70.7	16.0	11.987(3)**
	비정규직	1.5	12.8	75.2	1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	15.1	71.5	12.4	29.935(6)***
	중도적	0.4	12.3	75.9	11.4	
	진보적	0.8	12.3	69.5	17.5	

〈부표 3-125〉 코로나19 정보 이해하기 쉬운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어려웠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X ² (df)
전체		0.3	11.4	74.5	13.8	
성별	남성	0.4	10.7	72.4	16.5	25.772(3)***
	여성	0.2	12.0	76.7	11.0	
연령	20대 이하	0.0	8.3	72.0	19.7	73.514(12)***
	30대	0.3	8.1	73.5	18.1	
	40대	0.7	10.8	76.4	12.1	
	50대	0.2	12.8	76.0	11.0	
	60대 이상	0.3	15.2	74.3	10.2	
지역1	수도권	0.4	11.5	76.5	11.5	18.773(3)***
	비수도권	0.2	11.2	72.4	16.2	
지역2	대도시	0.2	9.1	76.3	14.4	65.962(6)***
	중소도시	0.3	11.7	75.9	12.1	
	농어촌	0.8	21.1	57.2	2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	17.7	73.8	8.0	73.316(9)***
	중하층	0.3	13.1	74.2	12.4	
	중간층	0.3	8.3	75.9	15.6	
	중상층(상층)	0.0	9.5	66.3	24.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13.7	73.7	12.4	62.598(12)***
	200만 원대	0.6	10.2	77.3	11.9	
	300만 원대	0.1	9.6	73.5	16.8	
	400만 원대	0.3	12.0	78.9	8.8	
	500만 원 이상	0.4	6.8	70.4	22.4	
학력	중졸 이하	0.3	17.2	71.9	10.6	41.293(6)***
	고졸	0.4	12.7	74.5	12.4	
	대졸 이상	0.2	8.6	75.2	1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9.8	72.9	17.1	54.323(15)***
	임시·일용직	0.3	7.9	83.7	8.2	
	고용주, 자영자	0.4	12.9	74.9	11.8	
	무급가족종사자	0.0	16.7	70.9	12.5	
	실업자	0.0	8.0	79.1	12.9	
	비경제활동인구	0.3	14.4	72.3	13.1	
직업	관리자, 전문가	0.4	8.5	71.8	19.3	13.18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10.3	75.6	13.7	
	숙련 및 기술직	0.1	11.7	74.4	13.8	
	단순노무 종사자	0.8	12.4	77.8	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9.3	72.8	17.6	14.506(3)**
	비정규직	0.4	9.7	79.8	1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13.9	73.9	11.6	19.114(6)**
	중도적	0.3	10.2	75.6	13.9	
	진보적	0.2	10.7	73.0	16.2	

〈부표 3-126〉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회복 못함	①	②	③	④	보통	⑥	⑦	⑧	⑨	완전히 회복함	χ^2 (df)
전체		0.2	0.3	1.4	5.2	5.7	26.0	20.0	23.2	13.0	3.2	1.8	
성별	남성	0.3	0.2	1.4	5.0	5.6	26.8	19.8	22.3	13.1	3.8	1.8	10.479 (10)
	여성	0.1	0.4	1.4	5.4	5.7	25.3	20.3	24.2	13.0	2.7	1.7	
연령	20대 이하	0.1	0.0	0.5	3.8	5.4	21.3	21.2	28.8	12.2	4.8	1.9	98.270 (40)***
	30대	0.0	0.2	1.0	5.8	6.0	26.7	20.0	20.0	15.4	3.5	1.5	
	40대	0.7	0.2	2.4	6.1	4.0	25.6	18.4	23.4	13.6	2.9	2.8	
	50대	0.1	0.8	1.4	5.2	5.3	27.7	21.1	21.7	12.6	3.3	0.9	
	60대 이상	0.0	0.2	1.4	5.0	7.3	28.0	19.6	22.6	12.0	2.2	1.7	
지역1	수도권	0.1	0.3	1.3	5.9	5.7	25.7	22.0	23.3	11.6	2.9	1.2	28.604 (10)**
	비수도권	0.2	0.3	1.4	4.4	5.6	26.4	18.0	23.2	14.6	3.6	2.3	
지역2	대도시	0.1	0.3	1.6	5.8	5.8	22.2	23.3	23.2	10.9	4.5	2.1	73.067 (20)***
	중소도시	0.2	0.3	1.3	4.4	5.6	29.7	17.6	23.1	14.2	2.2	1.5	
	농어촌	0.1	0.4	0.7	7.0	5.3	23.5	17.7	24.1	17.1	3.0	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0.5	2.7	7.0	7.0	28.9	22.3	17.6	9.3	3.2	1.4	91.023 (30)***
	중하층	0.0	0.3	1.7	5.1	6.0	26.0	20.4	22.9	12.0	3.1	2.4	
	중간층	0.3	0.2	0.8	4.7	5.2	25.2	19.8	25.6	13.9	3.2	1.1	
	중상층(상층)	0.1	0.3	0.6	5.7	3.3	26.1	11.9	19.1	23.7	5.0	4.3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0.3	1.3	5.3	6.2	27.8	17.5	23.2	13.5	3.0	1.9	76.050 (40)**
	200만 원대	0.4	0.3	1.0	5.6	5.8	26.5	23.2	20.7	11.2	3.5	1.7	
	300만 원대	0.3	0.3	1.8	4.6	6.1	24.4	23.6	21.9	11.9	3.1	1.8	
	400만 원대	0.1	0.5	1.2	4.0	3.7	26.2	19.8	30.7	11.0	1.5	1.3	
	500만 원 이상	0.0	0.1	1.9	5.6	3.6	20.8	18.0	24.8	18.7	5.2	1.3	
학력	중졸 이하	0.0	0.6	1.6	4.2	7.9	28.7	18.4	23.3	12.2	1.1	2.0	44.178 (20)**
	고졸	0.2	0.1	1.1	5.3	5.8	28.7	20.1	20.9	12.5	3.6	1.7	
	대졸 이상	0.1	0.4	1.5	5.3	5.0	22.8	20.4	25.4	13.8	3.5	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0.3	1.3	4.6	3.9	22.6	21.3	25.0	14.1	4.3	2.2	114.80 7(50)***
	임시·일용직	0.0	0.1	0.3	4.5	7.4	32.3	23.3	18.9	10.3	2.9	0.2	
	고용주, 자영자	0.1	0.4	2.1	6.4	6.3	27.4	20.4	21.4	12.7	1.9	1.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1.5	11.5	22.6	23.1	21.5	15.0	4.8	0.0	
	실업자	0.0	0.0	3.0	7.6	5.3	31.1	9.1	25.8	14.0	3.0	1.1	
	비경제활동인구	0.0	0.4	1.1	5.2	6.8	26.7	18.3	23.5	12.6	2.7	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8	0.2	1.8	6.4	5.0	19.9	19.9	21.5	17.2	5.5	1.9	48.510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0.3	1.6	5.0	5.2	26.0	21.3	22.7	13.4	2.9	1.3	
	숙련 및 기술직	0.0	0.3	0.6	4.5	4.9	24.9	21.8	25.2	11.8	3.7	2.3	
	단순노무 종사자	0.6	0.0	0.6	4.2	7.0	32.7	24.0	21.6	6.0	3.4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0.1	1.3	4.4	3.8	22.2	21.3	25.0	14.7	4.5	2.3	37.499 (10)***
	비정규직	0.1	0.7	0.7	4.3	6.1	30.1	24.3	21.6	9.0	2.8	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0.6	1.5	5.6	6.8	26.6	17.0	24.5	12.5	3.2	1.5	49.890 (20)***
	중도적	0.2	0.1	1.0	4.8	4.9	27.2	22.1	22.7	12.8	2.5	1.7	
	진보적	0.0	0.3	2.0	5.7	5.8	22.7	19.2	22.9	14.3	4.9	2.2	

〈부표 3-12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1) 가구 경제 상황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0.8	15.1	64.2	19.5	0.3	
성별	남성	1.0	15.0	63.8	20.0	0.2	3.648(4)
	여성	0.7	15.3	64.5	19.1	0.5	
연령	20대 이하	0.5	8.6	66.1	24.4	0.4	95.200(16)***
	30대	0.3	13.3	67.9	17.6	1.0	
	40대	1.7	18.2	59.3	20.2	0.5	
	50대	0.6	17.3	59.6	22.6	0.0	
	60대 이상	0.9	16.8	68.2	14.1	0.0	
지역1	수도권	0.7	15.0	65.1	19.0	0.2	6.036(4)
	비수도권	0.9	15.2	63.2	20.1	0.5	
지역2	대도시	0.5	12.8	67.9	18.4	0.4	23.754(8)**
	중소도시	0.9	16.7	61.3	20.8	0.3	
	농어촌	1.6	17.5	62.8	17.8	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	19.1	67.0	11.7	0.0	50.078(12)***
	중하층	0.9	15.4	62.8	20.4	0.4	
	중간층	0.4	14.2	64.3	20.9	0.3	
	중상층(상층)	0.4	10.3	65.6	22.9	0.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2	14.7	67.5	16.3	0.3	42.869(16)***
	200만 원대	0.3	17.2	60.3	21.6	0.6	
	300만 원대	0.8	17.1	61.7	20.2	0.3	
	400만 원대	0.5	11.4	65.4	22.7	0.0	
	500만 원 이상	0.7	12.1	62.0	24.8	0.5	
학력	중졸 이하	0.8	16.9	70.4	11.9	0.0	29.569(8)***
	고졸	1.0	15.8	62.6	20.4	0.2	
	대졸 이상	0.6	14.0	64.1	20.7	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11.8	69.4	18.2	0.4	192.344(20)***
	임시·일용직	1.0	14.2	66.4	17.6	0.7	
	고용주, 자영자	1.4	24.2	45.1	29.2	0.1	
	무급가족종사자	3.6	20.1	57.8	18.5	0.0	
	실업자	2.3	22.3	58.2	16.8	0.3	
	비경제활동인구	0.7	12.2	71.1	15.8	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4	12.4	64.4	22.5	0.2	15.34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16.3	60.2	22.2	0.4	
	숙련 및 기술직	0.9	15.2	66.0	17.7	0.3	
	단순노무 종사자	0.9	17.4	63.4	17.3	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11.2	69.5	18.5	0.5	4.290(4)
	비정규직	1.0	13.1	67.7	17.8	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	15.0	65.4	18.4	0.1	23.547(8)**
	중도적	0.6	13.8	66.1	19.0	0.4	
	진보적	1.0	18.2	58.1	22.1	0.6	

〈부표 3-128〉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2) 가족관계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0.2	3.6	72.1	21.2	2.9	
성별	남성	0.3	4.2	73.0	19.6	2.9	11.160(4)*
	여성	0.1	3.0	71.2	22.9	2.9	
연령	20대 이하	0.1	2.4	74.7	19.5	3.4	57.420(16)***
	30대	0.1	3.5	67.5	24.7	4.2	
	40대	0.6	4.3	69.8	20.3	5.0	
	50대	0.4	4.5	71.4	21.9	1.8	
	60대 이상	0.0	3.0	75.9	20.3	0.9	
지역1	수도권	0.3	2.0	72.3	20.9	4.4	60.376(4)***
	비수도권	0.2	5.2	71.8	21.5	1.3	
지역2	대도시	0.1	2.7	75.7	20.7	0.9	75.608(8)***
	중소도시	0.3	4.2	68.7	21.9	4.9	
	농어촌	0.9	4.1	74.2	19.6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5.4	77.3	15.3	1.2	54.185(12)***
	중하층	0.2	3.6	74.0	20.2	2.1	
	중간층	0.1	2.9	69.3	23.7	4.0	
	중상층(상층)	0.4	4.3	69.1	22.5	3.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1	3.3	74.9	20.0	1.8	77.009(16)***
	200만 원대	0.5	4.3	71.1	20.3	3.8	
	300만 원대	0.2	4.2	73.2	20.7	1.7	
	400만 원대	0.5	2.4	65.6	22.7	8.7	
	500만 원 이상	0.1	2.8	66.3	27.6	3.1	
학력	중졸 이하	0.1	4.3	76.5	18.9	0.3	37.062(8)***
	고졸	0.2	3.3	73.9	20.5	2.1	
	대졸 이상	0.3	3.7	69.2	22.5	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3.3	69.9	22.6	4.0	52.157(20)***
	임시·일용직	1.0	5.4	75.7	17.5	0.5	
	고용주, 자영자	0.2	3.3	72.4	20.5	3.7	
	무급가족종사자	0.0	9.1	72.3	18.6	0.0	
	실업자	0.0	4.1	76.8	19.0	0.1	
	비경제활동인구	0.1	2.9	72.6	21.9	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0.2	3.8	68.5	23.6	3.8	21.34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	3.4	72.2	20.6	3.7	
	숙련 및 기술직	0.8	4.8	70.1	23.2	1.1	
	단순노무 종사자	0.6	4.7	75.0	15.4	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	3.2	69.5	22.8	4.3	19.695(4)**
	비정규직	0.3	4.7	75.9	18.5	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	3.2	72.5	21.9	2.2	5.586(8)
	중도적	0.3	3.7	72.5	20.5	3.0	
	진보적	0.1	3.8	70.7	22.0	3.4	

〈부표 3-129〉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0.1	6.5	63.4	26.5	3.4	
성별	남성	0.2	6.5	64.8	24.9	3.6	5.831(4)
	여성	0.1	6.5	62.1	28.1	3.3	
연령	20대 이하	0.0	3.6	63.6	29.0	3.8	51.264(16)***
	30대	0.0	7.1	60.4	27.1	5.4	
	40대	0.4	6.2	63.2	26.9	3.4	
	50대	0.1	9.0	59.9	28.2	2.8	
	60대 이상	0.1	6.4	68.7	22.3	2.4	
지역1	수도권	0.1	5.4	61.3	29.1	4.1	27.035(4)***
	비수도권	0.1	7.7	65.7	23.7	2.8	
지역2	대도시	0.0	6.4	65.6	25.8	2.2	29.917(8)***
	중소도시	0.1	6.6	61.7	26.8	4.8	
	농어촌	0.7	6.5	62.7	28.2	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9.4	63.6	22.9	3.9	34.626(12)**
	중하층	0.1	6.2	66.5	24.7	2.5	
	중간층	0.1	6.2	60.4	29.3	4.0	
	중상층(상층)	0.4	4.2	68.5	23.3	3.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1	6.3	65.5	25.5	2.7	54.382(16)***
	200만 원대	0.2	7.2	60.5	27.1	5.1	
	300만 원대	0.1	7.1	65.8	25.5	1.4	
	400만 원대	0.5	7.6	53.7	34.3	3.9	
	500만 원 이상	0.1	4.2	65.2	24.8	5.7	
학력	중졸 이하	0.0	4.4	73.5	21.5	0.5	36.123(8)***
	고졸	0.1	6.5	63.4	26.8	3.2	
	대졸 이상	0.2	7.1	60.9	27.5	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1	5.7	63.5	26.3	4.4	43.630(20)**
	임시·일용직	0.3	7.8	67.4	22.3	2.2	
	고용주, 자영자	0.1	8.3	59.5	28.7	3.4	
	무급가족종사자	1.8	9.3	65.4	20.7	2.8	
	실업자	0.0	8.1	68.6	21.6	1.6	
	비경제활동인구	0.0	5.4	63.6	28.1	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0.3	6.6	65.3	23.2	4.6	15.15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0	7.6	62.1	26.6	3.6	
	숙련 및 기술직	0.4	5.0	62.3	28.2	4.0	
	단순노무 종사자	0.6	5.0	69.8	22.4	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5.5	63.3	26.5	4.6	9.082(4)
	비정규직	0.3	7.8	66.1	23.5	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	6.6	66.4	23.8	3.1	23.167(8)**
	중도적	0.2	6.0	64.1	26.7	3.0	
	진보적	0.0	7.7	58.0	29.4	4.9	

〈부표 3-130〉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0.7	15.7	58.5	24.1	1.0	
성별	남성	0.7	16.5	57.6	24.2	1.0	2.241(4)
	여성	0.8	14.9	59.3	24.0	1.0	
연령	20대 이하	0.4	13.3	58.2	27.4	0.7	38.962(16)**
	30대	0.7	16.0	60.1	21.1	2.1	
	40대	1.5	16.1	55.8	24.8	1.7	
	50대	0.5	16.2	57.8	25.3	0.2	
	60대 이상	0.5	16.6	60.2	22.0	0.7	
지역1	수도권	0.7	16.2	56.6	25.4	1.1	5.979(4)
	비수도권	0.7	15.2	60.4	22.8	1.0	
지역2	대도시	0.3	16.8	60.6	21.6	0.7	23.721(8)**
	중소도시	1.0	14.7	56.9	26.1	1.3	
	농어촌	1.2	15.8	57.1	25.2	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	15.2	65.1	18.0	0.5	45.594(12)***
	중하층	0.8	16.4	60.8	21.1	0.9	
	중간층	0.5	15.4	54.9	28.1	1.1	
	중상층(상층)	0.4	14.2	56.1	26.5	2.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15.3	59.2	24.2	0.6	50.631(16)***
	200만 원대	1.2	15.1	59.8	22.8	1.1	
	300만 원대	0.4	18.2	59.8	21.5	0.0	
	400만 원대	1.0	16.7	55.2	25.0	2.1	
	500만 원 이상	0.4	13.9	52.9	29.7	3.1	
학력	중졸 이하	0.6	14.6	62.1	21.7	0.9	20.824(8)**
	고졸	0.7	16.4	58.3	24.3	0.3	
	대졸 이상	0.8	15.3	57.7	24.5	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15.0	59.6	24.0	1.1	49.207(20)***
	임시·일용직	2.6	17.8	57.6	20.9	1.0	
	고용주, 자영자	0.8	17.3	55.4	25.3	1.2	
	무급가족종사자	0.0	15.8	60.2	21.1	2.9	
	실업자	1.3	21.6	55.7	21.2	0.2	
	비경제활동인구	0.4	13.7	59.8	25.4	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	15.6	49.5	32.8	0.9	21.26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	16.3	59.4	22.4	1.2	
	숙련 및 기술직	0.7	14.5	60.6	23.0	1.2	
	단순노무 종사자	1.0	19.1	55.8	23.0	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14.9	59.3	24.3	1.2	4.417(4)
	비정규직	0.7	14.5	62.9	21.0	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	14.8	59.0	24.7	0.8	30.474(8)***
	중도적	0.8	14.6	61.1	22.7	0.8	
	진보적	0.5	19.5	51.8	26.5	1.7	

〈부표 3-131〉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5) 경제적 수준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4.8	41.5	33.9	18.5	1.3	
성별	남성	5.1	40.3	35.1	18.4	1.1	6.325(4)
	여성	4.4	42.7	32.8	18.5	1.6	
연령	20대 이하	3.5	41.0	33.4	21.2	1.0	34.197(16)**
	30대	4.6	38.8	34.8	20.2	1.6	
	40대	6.9	43.8	33.2	14.1	2.0	
	50대	4.1	42.8	35.0	16.9	1.1	
	60대 이상	4.7	40.7	33.4	20.2	0.9	
지역1	수도권	4.6	42.5	34.2	17.2	1.5	5.814(4)
	비수도권	5.0	40.5	33.6	19.8	1.1	
지역2	대도시	2.3	44.4	34.8	18.0	0.5	67.443(8)***
	중소도시	6.5	40.4	32.9	18.1	2.1	
	농어촌	6.9	33.0	36.0	23.2	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9	42.8	38.3	11.4	0.6	37.248(12)***
	중하층	5.0	42.2	33.3	18.2	1.4	
	중간층	4.3	40.2	33.3	20.8	1.5	
	중상층(상층)	1.8	45.4	32.6	18.5	1.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1	40.7	34.3	19.9	1.0	30.113(16)*
	200만 원대	6.1	44.0	32.5	15.1	2.3	
	300만 원대	5.4	42.3	34.2	16.9	1.1	
	400만 원대	4.6	42.4	33.3	18.9	0.9	
	500만 원 이상	4.1	37.9	35.4	21.6	1.0	
학력	중졸 이하	5.5	37.6	35.2	20.9	0.9	6.988(8)
	고졸	4.7	42.2	33.9	18.2	1.1	
	대졸 이상	4.7	41.9	33.7	18.1	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9	43.3	34.8	15.6	1.3	46.327(20)**
	임시·일용직	5.2	39.9	34.4	19.2	1.3	
	고용주, 자영자	5.2	39.9	32.2	20.6	2.1	
	무급가족종사자	11.7	35.2	24.3	28.9	0.0	
	실업자	4.3	50.9	23.6	21.1	0.0	
	비경제활동인구	3.7	39.3	36.3	19.6	1.1	
직업	관리자, 전문가	6.2	39.4	31.5	21.4	1.5	48.82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7	44.0	32.7	17.5	1.1	
	숙련 및 기술직	6.5	36.2	39.7	16.4	1.2	
	단순노무 종사자	4.8	38.7	32.1	18.2	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	42.3	35.2	16.1	1.4	1.475(4)
	비정규직	4.1	41.0	35.4	18.1	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	39.4	35.7	18.9	1.0	12.889(8)
	중도적	4.0	42.3	33.9	18.2	1.6	
	진보적	6.3	42.4	31.9	18.4	1.0	

〈부표 3-132〉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6) 불평등, 양극화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7.0	45.8	34.5	12.2	0.5	
성별	남성	7.1	45.5	34.8	12.3	0.4	1.147(4)
	여성	6.9	46.1	34.3	12.0	0.6	
연령	20대 이하	6.5	43.0	38.2	12.1	0.2	46.392(16)***
	30대	7.9	44.2	34.4	12.2	1.3	
	40대	8.7	47.8	32.6	10.3	0.5	
	50대	7.0	45.6	37.2	9.9	0.2	
	60대 이상	5.2	47.4	31.1	15.7	0.5	
지역1	수도권	7.0	44.0	36.9	11.6	0.5	10.838(4)*
	비수도권	7.0	47.6	32.0	12.7	0.6	
지역2	대도시	5.0	51.8	33.1	9.8	0.3	61.068(8)***
	중소도시	8.1	41.0	36.3	13.9	0.7	
	농어촌	10.3	44.2	31.0	14.1	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	45.9	38.2	7.1	0.0	38.894(12)***
	중하층	7.4	48.2	32.6	11.2	0.6	
	중간층	6.2	44.5	34.3	14.4	0.6	
	중상층(상층)	6.2	38.1	42.0	13.0	0.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1	45.8	34.2	13.5	0.5	35.197(16)**
	200만 원대	9.1	46.0	33.5	10.6	0.8	
	300만 원대	8.2	46.7	34.1	10.9	0.1	
	400만 원대	5.5	45.8	32.4	16.4	0.0	
	500만 원 이상	5.6	44.2	40.2	9.0	1.0	
학력	중졸 이하	6.9	45.8	32.7	14.4	0.2	17.777(8)*
	고졸	5.5	46.5	34.4	13.0	0.5	
	대졸 이상	8.4	45.1	35.1	10.8	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8.1	45.7	35.7	9.8	0.7	50.162(20)***
	임시·일용직	9.1	46.7	31.7	12.4	0.0	
	고용주, 자영자	5.7	47.4	32.1	14.3	0.4	
	무급가족종사자	14.7	46.2	26.8	12.3	0.0	
	실업자	6.2	53.0	25.0	15.2	0.6	
	비경제활동인구	5.1	43.0	38.0	13.4	0.6	
직업	관리자, 전문가	9.9	43.2	34.1	11.7	1.1	19.13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3	48.3	32.9	11.2	0.3	
	숙련 및 기술직	7.8	43.7	36.7	11.3	0.5	
	단순노무 종사자	7.9	40.2	35.8	14.6	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0	45.7	35.2	10.4	0.7	1.751(4)
	비정규직	8.8	44.7	36.2	10.1	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3	42.9	37.7	12.2	0.9	22.283(8)**
	중도적	6.4	47.1	33.9	12.4	0.3	
	진보적	9.2	46.6	31.9	11.7	0.6	

〈부표 3-133〉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7) 시민의식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1.2	16.7	54.1	27.1	1.0	
성별	남성	1.5	15.3	55.4	26.9	0.9	9.284(4)
	여성	0.9	18.1	52.6	27.3	1.1	
연령	20대 이하	1.5	14.2	56.5	26.9	0.9	21.836(16)
	30대	1.4	14.9	55.0	27.8	0.9	
	40대	1.4	19.5	48.9	29.1	1.1	
	50대	1.1	17.9	55.4	24.9	0.7	
	60대 이상	0.7	16.3	54.7	27.0	1.3	
지역1	수도권	0.9	16.2	53.5	29.3	0.2	41.814(4)***
	비수도권	1.5	17.2	54.7	24.7	1.9	
지역2	대도시	0.4	16.9	57.7	24.2	0.8	55.330(8)***
	중소도시	1.4	16.6	51.3	29.7	1.0	
	농어촌	4.0	16.3	51.6	26.0	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	16.8	56.4	23.3	1.7	24.182(12)*
	중하층	1.1	16.8	55.9	24.9	1.3	
	중간층	1.1	16.5	52.3	29.6	0.5	
	중상층(상층)	0.5	16.9	49.4	31.4	1.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2	16.7	53.5	27.5	1.1	25.290(16)
	200만 원대	0.3	17.7	56.0	25.0	1.0	
	300만 원대	2.0	16.0	56.3	25.1	0.7	
	400만 원대	0.9	14.9	52.6	30.6	1.0	
	500만 원 이상	2.1	16.6	49.8	30.3	1.1	
학력	중졸 이하	1.2	16.4	53.6	27.3	1.5	5.945(8)
	고졸	0.9	17.3	52.8	28.1	1.0	
	대졸 이상	1.4	16.2	55.3	26.1	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	16.2	54.0	27.7	1.1	24.428(20)
	임시·일용직	1.6	16.2	56.3	25.2	0.7	
	고용주, 자영자	1.1	14.9	55.7	27.1	1.2	
	무급가족종사자	4.5	22.3	53.2	16.8	3.3	
	실업자	1.2	20.3	54.2	23.9	0.4	
	비경제활동인구	0.9	17.9	52.0	28.2	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	15.8	49.2	31.7	1.2	16.10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	16.6	54.8	26.7	0.8	
	숙련 및 기술직	0.9	13.4	58.5	25.6	1.6	
	단순노무 종사자	1.9	17.7	55.1	23.6	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	16.2	53.1	28.6	1.1	9.790(4)*
	비정규직	1.8	15.2	59.8	22.6	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	14.1	55.4	27.4	0.8	22.143(8)**
	중도적	0.8	17.5	54.2	26.4	1.1	
	진보적	0.8	18.2	51.9	28.1	1.0	

〈부표 3-134〉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 비교 (8)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단위: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X ² (df)
전체		1.6	18.3	56.4	22.7	1.0	
성별	남성	1.5	18.3	57.9	21.4	0.9	5.871(4)
	여성	1.7	18.2	54.8	24.1	1.2	
연령	20대 이하	1.6	14.9	58.9	23.0	1.6	32.158(16)*
	30대	0.9	18.3	56.2	23.8	0.8	
	40대	2.4	20.3	52.8	22.8	1.7	
	50대	1.1	20.5	57.7	20.3	0.4	
	60대 이상	2.0	17.2	56.4	23.8	0.7	
지역1	수도권	1.7	18.4	55.5	23.7	0.7	7.229(4)
	비수도권	1.5	18.2	57.2	21.7	1.4	
지역2	대도시	1.0	17.3	60.9	20.0	0.9	30.150(8)***
	중소도시	1.9	18.9	53.1	25.0	1.1	
	농어촌	2.8	19.8	52.8	23.2	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	19.5	62.7	16.1	0.4	60.252(12)***
	중하층	1.0	19.3	58.4	20.5	0.7	
	중간층	2.2	17.0	52.8	26.6	1.3	
	중상층(상층)	0.4	19.3	56.0	20.8	3.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	17.6	56.2	23.4	1.4	22.301(16)
	200만 원대	1.7	19.1	56.7	22.1	0.4	
	300만 원대	1.6	19.2	59.1	19.8	0.3	
	400만 원대	1.5	16.6	53.8	25.8	2.4	
	500만 원 이상	2.1	19.1	53.9	23.9	0.9	
학력	중졸 이하	1.1	17.0	58.3	22.7	0.8	3.643(8)
	고졸	1.7	17.9	55.7	23.6	1.1	
	대졸 이상	1.6	18.9	56.5	21.9	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	17.8	58.2	22.0	0.9	28.736(20)
	임시·일용직	3.1	18.2	57.1	20.8	0.8	
	고용주, 자영자	1.8	17.8	56.5	22.8	1.1	
	무급가족종사자	1.8	19.8	56.4	22.0	0.0	
	실업자	3.5	24.6	49.4	22.6	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3	18.0	54.5	24.6	1.5	15.577(12)
	관리자, 전문가	2.1	17.7	55.3	23.8	1.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	19.0	56.9	21.4	0.9	
	숙련 및 기술직	0.6	14.3	61.3	23.3	0.5	
	단순노무 종사자	1.3	18.0	57.0	21.6	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	17.8	57.8	22.4	0.9	2.349(4)
	비정규직	1.1	15.7	61.9	20.4	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	16.5	57.2	23.0	0.5	23.326(8)**
	중도적	1.0	19.1	56.6	21.9	1.3	
	진보적	1.4	18.6	54.6	24.2	1.1	

〈부표 3-135〉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점 정책(복수응답)

(단위: %)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인, 아동 등 돌봄 지원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	코로나19로 백신 부작용, 코로나 후유증 보상 등 건강피해 지원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과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손실 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지원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지원금
전체		46.0	51.1	53.1	53.9	25.6	18.1	28.4	11.2	12.0
성별	남성	44.2	51.3	53.6	55.2	24.9	19.3	27.3	10.5	13.0
	여성	47.9	50.8	52.6	52.6	26.3	16.8	29.6	12.0	11.1
연령	20대 이하	40.8	47.0	48.5	52.0	32.5	24.5	26.1	13.5	14.4
	30대	50.4	46.7	51.4	53.1	23.5	19.3	29.0	13.0	13.5
	40대	44.2	52.7	52.3	54.6	22.4	17.7	27.2	15.7	12.2
	50대	43.5	51.4	57.4	51.1	27.3	19.0	29.9	8.7	11.0
	60대 이상	50.4	55.4	54.8	57.9	23.1	11.9	29.3	6.8	10.2
지역1	수도권	46.9	49.9	54.6	53.9	25.5	17.3	30.4	10.3	10.9
	비수도권	45.0	52.3	51.6	54.0	25.7	18.8	26.3	12.2	13.3
지역2	대도시	49.0	50.6	53.5	55.2	25.8	15.5	28.8	12.1	9.0
	중소도시	43.4	50.0	51.6	52.7	25.8	21.0	29.4	11.0	14.7
	농어촌	46.2	60.0	61.0	55.0	23.7	13.7	20.1	8.1	1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6	47.1	60.7	52.2	25.7	13.6	32.4	8.3	11.3
	중하층	46.4	53.4	53.5	54.5	25.4	16.3	27.6	11.8	10.3
	중간층	45.3	50.6	51.2	54.4	26.1	20.0	28.3	11.3	12.4
	중상층(상층)	42.3	48.8	47.5	49.6	21.9	25.5	23.9	15.1	25.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48.4	48.3	51.3	55.1	27.4	16.2	29.8	10.8	12.4
	200만 원대	39.9	57.2	54.8	55.6	21.1	17.7	30.2	12.4	10.7
	300만 원대	45.8	49.8	56.4	50.9	25.0	20.2	23.7	12.9	14.2
	400만 원대	46.2	55.0	51.9	51.8	30.7	21.7	25.4	6.6	9.8
	500만 원 이상	49.5	48.3	52.8	52.2	25.3	20.1	28.4	11.4	11.6
학력	중졸 이하	52.7	49.9	57.9	56.7	19.4	13.3	30.6	7.4	12.0
	고졸	45.1	52.5	54.1	53.6	28.5	17.5	27.0	9.8	11.8
	대졸 이상	45.2	50.0	51.0	53.5	24.4	19.8	29.1	13.5	1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5.8	48.0	53.0	53.5	24.7	21.5	27.7	12.4	12.4
	임시·일용직	47.8	51.8	61.0	54.7	24.0	12.2	29.7	6.5	12.2
	고용주, 자영자	40.5	66.8	53.7	55.7	23.2	15.1	24.3	10.3	10.0
	무급가족종사자	52.6	47.0	48.5	60.3	25.5	11.5	40.4	5.5	8.8
	실업자	36.7	40.4	63.6	50.6	29.7	16.5	36.6	12.2	12.4
	비경제활동인구	50.9	45.8	47.9	53.2	28.7	18.3	29.6	12.3	1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43.4	50.7	52.0	49.0	25.3	17.1	30.5	11.5	20.4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4.2	54.5	53.6	54.0	24.2	19.0	27.1	11.5	11.1
	숙련 및 기술직	48.3	56.1	56.3	57.5	25.0	15.9	24.4	8.5	7.8
	단순노무 종사자	43.8	45.7	60.6	60.6	19.3	17.5	32.2	8.6	1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6.4	47.9	52.7	53.8	24.3	22.3	27.0	12.5	12.4
	비정규직	48.1	49.9	60.3	52.5	26.3	12.5	29.8	7.3	1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2	49.5	52.2	56.5	26.1	18.9	27.0	10.7	12.9
	중도적	45.3	51.1	55.2	53.5	25.9	16.5	28.6	11.0	12.3
	진보적	47.3	53.0	49.6	51.6	24.4	20.5	29.7	12.6	10.3

〈부표 3-136〉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1) 빈곤층 생활비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5	6.3	53.3	37.5	2.5	
성별	남성	0.5	6.7	50.8	39.4	2.7	10.822(4)*
	여성	0.5	5.8	55.9	35.6	2.2	
연령	20대 이하	0.2	6.1	54.8	37.0	1.9	13.058(16)
	30대	0.9	4.9	52.7	39.1	2.4	
	40대	0.5	5.6	52.7	38.8	2.3	
	50대	0.5	6.6	52.4	37.6	2.8	
	60대 이상	0.3	7.6	53.9	35.6	2.7	
지역1	수도권	0.2	5.1	49.6	42.9	2.2	59.434(4)***
	비수도권	0.8	7.5	57.2	31.8	2.7	
지역2	대도시	0.1	5.5	60.6	31.8	2.0	97.278(8)***
	중소도시	0.6	6.5	46.6	43.4	3.0	
	농어촌	1.8	9.2	56.4	31.0	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	4.7	48.8	39.7	6.2	70.847(12)***
	중하층	0.3	6.0	56.0	35.6	2.1	
	중간층	0.4	6.3	52.7	38.9	1.7	
	중상층(상층)	2.0	13.2	50.8	32.5	1.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6	7.1	52.6	36.4	3.4	31.645(16)*
	200만 원대	0.5	4.5	56.3	37.3	1.4	
	300만 원대	0.2	7.1	53.5	38.1	1.1	
	400만 원대	0.8	5.8	48.9	42.2	2.3	
	500만 원 이상	0.3	5.5	52.9	38.0	3.3	
학력	중졸 이하	0.1	5.7	55.7	34.8	3.7	14.993(8)
	고졸	0.6	6.1	54.2	36.3	2.8	
	대졸 이상	0.5	6.5	51.8	39.4	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5.1	52.7	39.8	1.9	53.369(20)***
	임시·일용직	0.6	7.1	49.6	40.5	2.2	
	고용주, 자영자	0.5	6.3	57.9	33.5	1.7	
	무급가족종사자	1.8	7.0	64.8	24.4	2.0	
	실업자	0.0	2.8	50.1	40.3	6.8	
	비경제활동인구	0.4	8.1	52.2	36.1	3.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9	7.3	44.9	44.7	2.1	34.24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5.6	55.9	36.1	2.0	
	숙련 및 기술직	0.3	6.0	57.9	34.4	1.4	
	단순노무 종사자	0.8	4.8	40.4	52.3	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5.3	52.5	40.2	1.7	6.018(4)
	비정규직	0.9	6.2	50.4	39.4	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	7.3	54.9	34.7	2.4	18.386(8)*
	중도적	0.5	6.0	54.1	37.1	2.2	
	진보적	0.2	5.4	49.3	42.0	3.1	

〈부표 3-137〉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2) 은퇴한 노인의 노후소득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8	9.2	61.1	26.6	2.3	
성별	남성	0.7	9.1	60.1	26.9	3.2	15.437(4)**
	여성	1.0	9.3	62.1	26.2	1.4	
연령	20대 이하	0.4	10.2	63.1	24.7	1.7	41.597(16)***
	30대	1.3	9.7	65.1	21.2	2.7	
	40대	1.1	11.8	57.9	27.4	1.8	
	50대	0.8	8.4	59.5	29.1	2.1	
	60대 이상	0.6	6.7	60.7	28.8	3.3	
지역1	수도권	0.9	9.0	57.8	29.5	2.8	25.566(4)***
	비수도권	0.7	9.4	64.5	23.5	1.8	
지역2	대도시	0.6	8.3	68.1	20.8	2.2	79.742(8)***
	중소도시	1.1	9.7	54.7	31.7	2.8	
	농어촌	0.8	10.4	63.3	25.1	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	7.5	59.7	27.4	3.9	48.806(12)***
	중하층	0.5	9.3	63.3	25.3	1.6	
	중간층	0.5	9.6	60.1	27.3	2.5	
	중상층(상층)	4.5	9.4	56.9	26.5	2.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9	8.4	61.3	27.0	2.4	46.873(16)***
	200만 원대	0.4	9.8	62.3	26.3	1.3	
	300만 원대	0.8	10.4	62.8	23.7	2.3	
	400만 원대	0.6	12.8	61.7	23.3	1.6	
	500만 원 이상	1.8	6.7	54.3	32.4	4.9	
학력	중졸 이하	0.7	5.7	62.3	27.9	3.4	13.736(8)
	고졸	0.7	10.1	61.3	25.7	2.2	
	대졸 이상	1.1	9.2	60.5	27.0	2.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	8.4	61.8	26.4	2.3	28.817(20)
	임시·일용직	1.1	10.7	56.1	29.3	2.9	
	고용주, 자영자	0.2	10.2	61.1	27.3	1.2	
	무급가족종사자	1.4	10.9	64.6	16.8	6.3	
	실업자	0.4	11.8	64.8	20.2	2.8	
	비경제활동인구	0.9	8.4	61.2	26.7	2.8	
직업	관리자, 전문가	2.2	9.4	59.0	27.5	2.0	46.67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10.6	61.3	25.2	2.2	
	숙련 및 기술직	0.2	6.9	62.4	29.6	1.0	
	단순노무 종사자	0.8	2.9	54.6	36.1	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	8.4	62.7	25.5	2.4	11.469(4)*
	비정규직	1.1	7.5	55.6	33.7	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	7.9	61.4	26.7	2.9	26.935(8)**
	중도적	0.8	9.5	63.2	24.9	1.6	
	진보적	0.5	10.1	55.9	30.2	3.3	

〈부표 3-138〉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3)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가난한 노인의 생활비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5	8.9	52.3	34.8	3.5	
성별	남성	0.5	9.4	53.0	33.2	4.0	7.772(4)
	여성	0.5	8.4	51.6	36.6	3.0	
연령	20대 이하	0.6	8.4	50.4	36.7	3.8	21.249(16)
	30대	1.0	10.6	52.9	32.8	2.7	
	40대	0.9	8.6	52.9	34.5	3.0	
	50대	0.2	9.0	54.0	33.6	3.1	
	60대 이상	0.1	8.2	51.1	36.1	4.4	
지역1	수도권	0.6	8.5	47.3	39.5	4.1	51.333(4)***
	비수도권	0.5	9.3	57.5	29.9	2.8	
지역2	대도시	0.7	8.6	55.0	33.0	2.8	35.448(8)***
	중소도시	0.3	8.8	48.9	38.0	3.9	
	농어촌	0.8	10.8	58.8	25.0	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8.3	51.1	34.6	5.8	20.531(12)
	중하층	0.5	9.6	51.8	35.0	3.1	
	중간층	0.5	8.2	53.2	34.9	3.2	
	중상층(상층)	1.8	11.9	50.4	33.0	3.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4	8.1	50.7	36.9	3.8	28.458(16)*
	200만 원대	0.6	8.4	55.9	32.8	2.3	
	300만 원대	0.5	10.8	54.0	31.0	3.6	
	400만 원대	0.1	11.5	51.5	34.2	2.7	
	500만 원 이상	1.0	8.4	48.4	37.3	4.9	
학력	중졸 이하	0.1	7.7	52.3	36.1	3.7	4.776(8)
	고졸	0.6	8.6	53.5	34.0	3.4	
	대졸 이상	0.6	9.5	51.0	35.4	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	9.1	51.9	35.6	2.8	26.886(20)
	임시·일용직	0.7	7.8	50.6	37.4	3.5	
	고용주, 자영자	0.2	10.2	56.3	30.4	3.0	
	무급가족종사자	0.0	10.4	56.6	28.7	4.3	
	실업자	0.1	8.0	46.6	41.8	3.4	
	비경제활동인구	0.6	8.3	51.4	35.0	4.8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	9.6	51.5	32.9	4.7	20.98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9.8	53.8	33.3	2.7	
	숙련 및 기술직	0.0	7.9	53.8	35.8	2.5	
	단순노무 종사자	0.8	6.6	45.5	43.2	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8.9	51.6	35.9	3.0	2.169(4)
	비정규직	0.5	7.1	51.3	38.2	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	8.2	52.6	35.1	3.4	16.522(8)*
	중도적	0.6	9.5	53.0	34.2	2.8	
	진보적	0.2	8.5	50.2	36.0	5.2	

〈부표 3-139〉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4) 전체 아동의 양육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5	5.6	49.3	37.8	6.8	
성별	남성	0.5	5.8	49.3	37.2	7.1	1.713(4)
	여성	0.5	5.3	49.3	38.5	6.4	
연령	20대 이하	0.5	4.9	49.1	37.3	8.2	33.967(16)**
	30대	0.7	3.8	46.7	41.6	7.2	
	40대	0.4	7.0	45.3	39.2	8.1	
	50대	0.8	5.5	53.3	34.7	5.6	
	60대 이상	0.2	6.2	51.2	37.1	5.3	
지역1	수도권	0.5	6.0	48.9	40.6	4.0	56.304(4)***
	비수도권	0.5	5.1	49.7	34.9	9.6	
지역2	대도시	0.3	6.2	51.7	35.6	6.2	59.938(8)***
	중소도시	0.6	5.2	49.2	39.2	5.8	
	농어촌	1.1	4.4	38.1	40.8	1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	4.8	55.6	30.5	7.9	42.002(12)***
	중하층	0.5	4.5	52.2	36.4	6.5	
	중간층	0.3	6.6	45.3	41.1	6.7	
	중상층(상층)	0.3	6.2	48.1	38.9	6.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5	5.3	49.7	37.4	7.1	27.924(16)*
	200만 원대	0.7	6.5	50.5	36.8	5.5	
	300만 원대	0.4	4.1	48.9	40.2	6.3	
	400만 원대	0.1	4.7	45.2	44.6	5.3	
	500만 원 이상	0.7	7.8	49.3	32.6	9.7	
학력	중졸 이하	0.5	6.7	51.0	36.0	5.8	15.991(8)*
	고졸	0.6	5.0	52.2	35.7	6.6	
	대졸 이상	0.5	5.9	46.2	40.3	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6.0	47.7	38.8	7.0	27.682(20)
	임시·일용직	1.4	5.7	52.0	35.8	5.1	
	고용주, 자영자	0.6	4.1	49.7	39.7	5.8	
	무급가족종사자	0.0	8.2	46.2	37.2	8.4	
	실업자	0.1	2.7	48.4	40.2	8.6	
	비경제활동인구	0.2	6.4	50.7	35.5	7.3	
직업	관리자, 전문가	0.5	7.2	50.2	34.7	7.4	14.49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5.3	48.3	39.6	6.0	
	숙련 및 기술직	0.2	4.8	49.2	38.8	7.0	
	단순노무 종사자	2.0	6.0	51.3	34.2	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5.8	47.5	39.1	7.2	12.921(4)*
	비정규직	1.6	5.5	52.7	35.1	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5.8	51.5	37.0	5.1	20.724(8)**
	중도적	0.6	6.0	49.4	37.5	6.5	
	진보적	0.3	4.3	46.4	39.6	9.4	

〈부표 3-140〉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5	3.9	36.0	50.8	8.8	
성별	남성	0.5	3.7	35.8	50.4	9.6	3.866(4)
	여성	0.4	4.1	36.3	51.2	8.1	
연령	20대 이하	0.6	4.6	35.3	49.0	10.6	34.395(16)**
	30대	1.1	2.5	33.5	52.1	10.8	
	40대	0.4	4.7	34.0	51.4	9.5	
	50대	0.2	4.2	39.8	49.6	6.1	
	60대 이상	0.2	3.3	36.8	51.7	8.0	
지역1	수도권	0.4	3.6	33.8	52.9	9.4	12.226(4)*
	비수도권	0.5	4.2	38.4	48.6	8.3	
지역2	대도시	0.2	3.7	38.0	50.6	7.5	15.377(8)
	중소도시	0.6	3.8	35.0	51.0	9.6	
	농어촌	0.9	4.9	32.3	50.7	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3.7	34.9	48.7	12.0	24.909(12)*
	중하층	0.5	4.6	39.0	48.1	7.8	
	중간층	0.4	3.3	34.0	53.5	8.8	
	중상층(상층)	0.0	4.0	36.0	52.4	7.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5	4.1	34.3	50.7	10.5	27.766(16)*
	200만 원대	0.6	3.8	35.8	53.3	6.4	
	300만 원대	0.5	4.3	39.1	46.4	9.7	
	400만 원대	0.1	4.3	35.0	53.2	7.4	
	500만 원 이상	0.2	2.2	39.5	51.0	7.1	
학력	중졸 이하	0.0	5.0	34.1	53.9	7.0	13.295(8)
	고졸	0.7	4.1	37.2	48.6	9.5	
	대졸 이상	0.4	3.4	35.5	52.1	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5	3.8	36.4	51.1	8.2	33.127(20)*
	임시·일용직	0.3	3.6	39.3	48.6	8.2	
	고용주, 자영자	0.3	3.8	38.4	51.0	6.5	
	무급가족종사자	1.8	5.8	33.4	51.8	7.2	
	실업자	0.0	1.7	30.3	52.7	15.4	
	비경제활동인구	0.6	4.4	33.6	50.7	10.6	
직업	관리자, 전문가	0.1	3.0	32.7	54.2	10.0	15.23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6	3.8	38.2	50.3	7.2	
	숙련 및 기술직	0.0	3.8	38.9	49.6	7.7	
	단순노무 종사자	0.8	5.9	33.8	50.3	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3.9	36.1	51.4	8.2	1.907(4)
	비정규직	0.5	3.8	39.4	47.8	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	3.0	39.2	49.9	7.4	42.274(8)***
	중도적	0.5	4.1	36.3	51.4	7.6	
	진보적	0.1	4.5	31.4	50.5	13.5	

〈부표 3-141〉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6) 청년의 생활비, 구직·교육·훈련비용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 (df)
전체		2.7	15.7	51.0	26.7	3.9	
성별	남성	2.5	16.1	49.3	26.8	5.2	20.503(4)***
	여성	2.8	15.3	52.8	26.6	2.6	
연령	20대 이하	1.5	11.3	48.3	29.9	9.0	99.066(16)***
	30대	3.0	16.2	52.9	24.3	3.6	
	40대	4.4	16.2	48.5	27.6	3.3	
	50대	1.7	15.8	52.8	26.9	2.9	
	60대 이상	2.9	18.2	52.2	25.0	1.7	
지역1	수도권	2.4	17.1	53.6	24.3	2.7	36.700(4)***
	비수도권	3.0	14.3	48.3	29.2	5.2	
지역2	대도시	1.9	15.6	51.5	27.7	3.3	15.661(8)*
	중소도시	3.1	15.9	50.8	25.7	4.5	
	농어촌	4.6	15.2	49.4	27.3	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	11.0	58.0	26.3	3.5	43.199(12)***
	중하층	3.4	16.3	49.7	27.6	3.1	
	중간층	2.2	16.9	50.7	25.7	4.5	
	중상층(상층)	6.5	13.1	43.4	31.0	6.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8	14.7	51.4	26.9	4.3	29.367(16)*
	200만 원대	2.6	15.7	52.8	26.4	2.5	
	300만 원대	2.5	19.3	48.6	24.8	4.8	
	400만 원대	3.2	17.9	51.2	22.9	4.8	
	500만 원 이상	2.4	12.1	49.5	32.7	3.3	
학력	중졸 이하	3.9	14.4	56.1	25.2	0.4	36.024(8)***
	고졸	1.7	16.7	51.6	25.5	4.4	
	대졸 이상	3.3	15.1	49.1	28.2	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8	15.5	51.8	26.8	3.2	20.093(20)
	임시·일용직	2.1	16.3	50.6	26.9	4.1	
	고용주, 자영자	2.8	16.2	49.0	28.8	3.2	
	무급가족종사자	3.2	15.4	55.6	25.0	0.8	
	실업자	1.2	16.9	47.8	29.1	5.0	
	비경제활동인구	2.9	15.2	51.8	24.6	5.4	
직업	관리자, 전문가	3.5	15.2	57.1	19.7	4.5	46.24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	17.1	49.0	28.6	2.7	
	숙련 및 기술직	3.4	13.5	55.0	23.6	4.4	
	단순노무 종사자	0.0	10.6	46.0	39.8	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	15.1	52.1	26.8	3.2	2.300(4)
	비정규직	1.7	14.9	51.3	29.4	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	16.9	52.5	23.5	3.7	31.614(8)***
	중도적	2.6	16.7	50.3	27.1	3.3	
	진보적	1.9	11.9	50.8	29.8	5.6	

〈부표 3-142〉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7)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4	7.1	53.9	35.1	3.5	
성별	남성	0.4	7.1	52.9	35.7	3.8	3.651(4)
	여성	0.3	7.1	55.0	34.5	3.2	
연령	20대 이하	0.3	8.1	51.9	35.6	4.1	16.528(16)
	30대	0.5	5.5	52.3	37.1	4.6	
	40대	0.4	7.4	52.8	35.7	3.7	
	50대	0.5	6.2	56.2	34.6	2.6	
	60대 이상	0.2	8.1	55.4	33.3	2.9	
지역1	수도권	0.3	7.3	49.8	38.2	4.5	35.937(4)***
	비수도권	0.4	7.0	58.3	31.8	2.5	
지역2	대도시	0.3	7.1	59.1	30.2	3.3	41.951(8)***
	중소도시	0.3	7.2	49.2	39.4	3.9	
	농어촌	0.6	6.8	55.8	34.4	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	5.9	58.0	31.6	4.1	31.064(12)**
	중하층	0.4	7.2	57.6	31.2	3.5	
	중간층	0.4	7.3	50.2	38.7	3.4	
	중상층(상층)	0.1	8.2	48.4	40.8	2.5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6.8	54.6	34.4	3.9	29.015(16)*
	200만 원대	0.4	6.2	56.2	35.4	1.9	
	300만 원대	0.2	7.7	52.7	35.5	3.9	
	400만 원대	0.1	11.2	51.7	31.8	5.2	
	500만 원 이상	0.8	6.5	49.9	39.2	3.7	
학력	중졸 이하	0.1	7.4	56.3	33.5	2.7	5.569(8)
	고졸	0.4	6.9	54.7	34.4	3.7	
	대졸 이상	0.4	7.3	52.6	36.2	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	6.1	54.1	35.8	3.6	17.136(20)
	임시·일용직	0.4	7.7	52.1	36.6	3.2	
	고용주, 자영자	0.4	7.6	54.8	34.6	2.6	
	무급가족종사자	0.0	11.6	59.1	28.7	0.7	
	실업자	0.0	7.7	54.5	31.3	6.5	
	비경제활동인구	0.3	7.7	53.3	34.9	3.8	
직업	관리자, 전문가	0.9	5.4	53.7	36.6	3.5	12.71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	7.5	54.8	34.3	3.2	
	숙련 및 기술직	0.3	6.3	54.2	36.5	2.8	
	단순노무 종사자	0.9	5.8	47.9	41.8	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5.6	55.3	35.3	3.5	2.565(4)
	비정규직	0.3	7.0	51.6	37.5	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8.1	54.4	34.5	2.6	29.335(8)***
	중도적	0.4	6.8	55.2	34.7	2.9	
	진보적	0.1	6.7	50.4	36.7	6.1	

〈부표 3-143〉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8)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X ² (df)
전체		0.4	7.5	49.5	37.9	4.7	
성별	남성	0.5	8.2	48.9	37.3	5.0	4.871(4)
	여성	0.4	6.7	50.0	38.5	4.3	
연령	20대 이하	0.4	6.7	48.9	38.4	5.6	15.478(16)
	30대	1.0	6.1	51.8	36.8	4.2	
	40대	0.5	7.8	50.4	36.5	4.9	
	50대	0.1	8.7	47.4	38.9	4.9	
	60대 이상	0.3	7.8	49.3	38.7	4.0	
지역1	수도권	0.1	6.9	49.0	39.1	4.8	11.425(4)*
	비수도권	0.7	8.1	50.0	36.7	4.5	
지역2	대도시	0.2	8.3	53.2	33.7	4.6	31.999(8)***
	중소도시	0.6	6.6	46.3	41.7	4.7	
	농어촌	0.6	8.4	49.3	37.1	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	7.1	45.5	39.1	8.0	22.641(12)*
	중하층	0.6	7.4	50.5	37.7	3.8	
	중간층	0.4	7.8	49.8	37.4	4.6	
	중상층(상층)	0.0	6.1	49.5	41.6	2.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5	7.0	47.0	40.3	5.1	32.184(16)**
	200만 원대	0.4	6.6	49.5	38.8	4.7	
	300만 원대	0.4	8.0	53.0	34.3	4.2	
	400만 원대	0.1	13.2	50.6	32.4	3.7	
	500만 원 이상	0.4	6.2	52.6	36.5	4.3	
학력	중졸 이하	0.3	7.8	53.3	35.1	3.5	7.583(8)
	고졸	0.5	8.0	49.4	37.5	4.6	
	대졸 이상	0.3	6.9	48.5	39.1	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6.8	50.9	37.3	4.7	38.357(20)**
	임시·일용직	0.5	7.9	44.7	41.1	5.8	
	고용주, 자영자	0.4	10.0	50.9	35.5	3.1	
	무급가족종사자	0.0	10.6	53.4	33.0	3.0	
	실업자	0.0	7.1	40.7	42.4	9.9	
	비경제활동인구	0.6	6.3	49.7	38.8	4.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1	5.4	50.4	38.2	5.8	27.18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5	8.9	50.5	36.4	3.7	
	숙련 및 기술직	0.2	6.9	51.1	35.8	6.1	
	단순노무 종사자	0.1	6.4	40.2	49.0	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	6.1	51.0	37.7	4.8	6.295(4)
	비정규직	0.5	9.4	47.0	38.3	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	9.0	49.1	36.6	4.9	33.239(8)***
	중도적	0.5	7.4	51.1	37.6	3.4	
	진보적	0.3	5.8	46.2	40.4	7.4	

〈부표 3-144〉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9)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

(단위: %)

구분		월신훈 지출	조금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월신훈 더 많이 지출	X² (df)
전체		4.1	17.3	55.7	20.7	2.2	
성별	남성	4.1	16.6	55.5	21.0	2.8	9.136(4)
	여성	4.1	18.0	55.9	20.4	1.5	
연령	20대 이하	2.6	12.9	59.4	22.9	2.2	42.956(16)***
	30대	4.2	17.0	58.5	17.8	2.5	
	40대	5.7	18.4	54.6	19.3	2.0	
	50대	3.8	15.3	56.3	22.7	2.0	
	60대 이상	4.3	21.5	51.3	20.7	2.2	
지역1	수도권	3.7	17.1	57.1	20.4	1.7	7.574(4)
	비수도권	4.6	17.5	54.2	21.1	2.6	
지역2	대도시	2.3	17.8	60.5	17.4	2.0	66.843(8)***
	중소도시	5.7	16.4	51.2	24.3	2.3	
	농어촌	3.9	20.1	57.9	16.0	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	13.6	58.5	20.5	3.8	24.280(12)*
	중하층	4.1	19.3	55.5	19.1	2.0	
	중간층	4.1	17.2	55.1	21.8	1.8	
	중상층(상층)	6.9	13.5	54.2	23.5	1.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8	17.4	54.7	22.1	2.1	25.081(16)
	200만 원대	3.9	15.9	58.9	19.6	1.7	
	300만 원대	4.7	19.1	56.6	17.3	2.3	
	400만 원대	6.0	21.2	49.0	21.1	2.6	
	500만 원 이상	3.8	14.3	56.4	22.7	2.9	
학력	중졸 이하	5.8	21.3	51.9	19.5	1.5	10.519(8)
	고졸	3.9	17.0	56.0	20.9	2.2	
	대졸 이상	4.0	16.5	56.4	20.9	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8	17.2	57.0	19.8	2.2	56.612(20)***
	임시·일용직	5.6	13.0	53.8	24.8	2.8	
	고용주, 자영자	5.8	20.4	53.3	19.1	1.3	
	무급가족종사자	7.4	19.9	59.9	12.9	0.0	
	실업자	0.8	13.4	52.7	27.4	5.8	
	비경제활동인구	3.2	17.5	56.5	20.8	1.9	
직업	관리자, 전문가	6.1	18.3	52.7	20.1	2.9	34.85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3	18.1	57.1	19.3	1.3	
	숙련 및 기술직	4.5	14.5	56.9	20.4	3.7	
	단순노무 종사자	7.1	18.5	42.3	29.6	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	17.0	57.6	19.5	2.0	14.936(4)**
	비정규직	5.2	15.8	49.7	25.5	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4	19.8	53.3	19.5	2.0	30.825(8)***
	중도적	4.1	17.9	55.6	20.5	1.9	
	진보적	2.7	12.8	58.9	22.8	2.9	

〈부표 3-145〉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의견 (10) 아동이 있는 취업자의 육아휴직 지원

(단위: %)

구분		훨씬 덜 지출	조금 덜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더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χ^2 (df)
전체		0.4	4.3	53.3	36.0	6.0	
성별	남성	0.5	3.8	52.0	37.2	6.5	8.059(4)
	여성	0.4	4.9	54.6	34.8	5.4	
연령	20대 이하	0.7	3.3	56.3	33.2	6.5	25.188(16)
	30대	0.6	4.2	51.0	37.2	7.0	
	40대	0.5	4.0	49.2	39.9	6.4	
	50대	0.5	4.7	55.6	33.6	5.5	
	60대 이상	0.0	5.0	54.0	36.1	4.8	
지역1	수도권	0.3	4.7	53.0	37.1	5.0	9.951(4)*
	비수도권	0.6	4.0	53.6	34.9	6.9	
지역2	대도시	0.3	3.1	60.9	31.4	4.3	91.741(8)***
	중소도시	0.6	5.4	49.0	38.4	6.6	
	농어촌	0.6	3.8	39.5	45.2	1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4.2	59.0	28.9	7.3	26.033(12)*
	중하층	0.4	4.2	54.7	35.8	5.0	
	중간층	0.5	4.5	50.4	38.1	6.6	
	중상층(상층)	0.0	4.7	54.1	37.6	3.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5	3.7	52.0	36.9	6.9	34.002(16)**
	200만 원대	0.4	3.1	58.1	33.4	5.0	
	300만 원대	0.2	5.5	54.9	34.0	5.4	
	400만 원대	0.2	7.0	49.9	36.6	6.3	
	500만 원 이상	0.9	5.4	48.3	40.4	4.9	
학력	중졸 이하	0.5	5.7	52.2	37.7	3.8	9.769(8)
	고졸	0.4	4.4	54.1	34.5	6.5	
	대졸 이상	0.5	3.9	52.7	37.0	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6	3.6	52.8	36.6	6.4	39.096(20)***
	임시·일용직	0.9	4.2	56.2	35.0	3.8	
	고용주, 자영자	0.1	4.9	53.6	36.5	4.9	
	무급가족종사자	0.0	12.3	43.8	35.7	8.2	
	실업자	0.5	1.4	52.2	34.1	11.7	
	비경제활동인구	0.3	5.1	53.4	35.5	5.7	
직업	관리자, 전문가	0.9	4.4	48.0	39.8	6.9	32.97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	4.5	55.5	34.5	5.2	
	숙련 및 기술직	0.0	2.4	50.4	41.0	6.2	
	단순노무 종사자	2.2	6.2	50.2	35.0	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	3.4	52.1	37.4	6.6	4.842(4)
	비정규직	0.9	3.9	56.2	34.6	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4.6	57.5	33.0	4.5	34.271(8)***
	중도적	0.6	4.2	52.5	37.4	5.3	
	진보적	0.4	4.2	49.6	36.5	9.3	

4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146〉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1)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공적 돌봄 시설과 서비스 확대

(단위: %)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재 수준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χ^2 (df)
전체		0.2	1.6	33.9	50.9	13.5	
성별	남성	0.0	1.6	34.1	51.5	12.8	7.890(4)
	여성	0.3	1.6	33.7	50.2	14.2	
연령	20대 이하	0.0	1.8	35.1	48.8	14.3	34.718(16)**
	30대	0.3	0.9	28.9	53.2	16.7	
	40대	0.1	2.2	31.7	51.5	14.4	
	50대	0.5	1.4	37.5	49.1	11.6	
	60대 이상	0.0	1.5	35.1	51.8	11.6	
지역1	수도권	0.3	1.7	33.7	51.6	12.8	5.069(4)
	비수도권	0.1	1.5	34.1	50.1	14.3	
지역2	대도시	0.3	1.1	35.8	50.8	12.0	20.418(8)**
	중소도시	0.1	1.9	33.2	50.8	14.0	
	농어촌	0.4	1.9	27.5	52.1	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	2.0	36.8	49.2	11.7	39.531(12)***
	중하층	0.1	0.9	31.9	52.7	14.4	
	중간층	0.1	1.9	34.2	50.3	13.5	
	중상층(상층)	1.4	2.1	37.2	47.1	12.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1	1.7	34.2	48.6	15.3	50.145(16)***
	200만 원대	0.0	1.4	36.6	49.4	12.6	
	300만 원대	0.0	2.6	29.5	55.8	12.2	
	400만 원대	0.0	0.5	35.5	52.5	11.5	
	500만 원 이상	1.0	0.7	32.3	54.2	11.9	
학력	중졸 이하	0.0	1.8	37.0	49.1	12.0	42.253(8)***
	고졸	0.1	2.2	37.5	46.6	13.6	
	대졸 이상	0.2	1.0	29.5	55.4	1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2	1.5	31.7	53.0	13.7	40.529(20)**
	임시·일용직	0.3	2.0	39.5	45.9	12.4	
	고용주, 자영자	0.0	2.2	32.4	54.4	11.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41.3	43.8	14.9	
	실업자	0.0	2.0	26.3	58.6	13.1	
	비경제활동인구	0.3	1.1	36.8	46.3	15.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5	1.7	31.6	51.0	15.2	31.65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0	2.0	31.5	54.1	12.4	
	숙련 및 기술직	0.0	0.5	37.6	49.0	13.0	
	단순노무 종사자	0.8	2.8	42.1	42.2	1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1.4	30.6	53.9	13.9	23.907(4)***
	비정규직	0.4	2.3	42.0	43.1	1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	1.1	35.1	50.6	13.0	14.374(8)
	중도적	0.2	2.1	34.5	49.6	13.7	
	진보적	0.0	1.1	31.0	54.1	13.8	

〈부표 3-147〉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2) 부모 직접 돌봄 휴가·휴직 등 확대

(단위: %)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재 수준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X ² (df)
전체		0.1	2.5	34.3	49.8	13.3	
성별	남성	0.1	3.5	34.0	50.1	12.3	18.194(4)**
	여성	0.1	1.5	34.5	49.5	14.3	
연령	20대 이하	0.0	0.9	33.9	48.9	16.3	54.048(16)***
	30대	0.0	2.9	30.3	49.8	17.1	
	40대	0.1	3.3	30.9	52.5	13.2	
	50대	0.4	2.7	39.8	47.1	10.1	
	60대 이상	0.0	2.6	35.3	50.8	11.3	
지역1	수도권	0.2	2.0	33.8	52.2	11.8	17.442(4)**
	비수도권	0.1	3.0	34.7	47.3	14.9	
지역2	대도시	0.0	2.0	34.6	51.4	12.0	24.623(8)**
	중소도시	0.2	3.0	35.3	47.6	13.9	
	농어촌	0.4	2.0	26.1	55.3	1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	3.5	39.4	45.3	11.2	30.202(12)**
	중하층	0.0	2.2	32.6	52.3	12.8	
	중간층	0.0	2.5	34.5	48.4	14.6	
	중상층(상층)	0.0	2.1	30.0	57.8	10.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1.8	34.7	49.6	13.6	34.627(16)**
	200만 원대	0.0	2.5	36.2	47.6	13.8	
	300만 원대	0.0	3.9	33.5	50.0	12.5	
	400만 원대	0.0	2.4	32.0	47.7	17.9	
	500만 원 이상	0.0	3.1	31.3	56.8	8.8	
학력	중졸 이하	0.0	5.0	35.8	48.6	10.6	36.909(8)***
	고졸	0.3	2.1	37.0	48.3	12.4	
	대졸 이상	0.0	2.2	31.2	51.6	1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0	2.8	32.1	50.9	14.2	50.308(20)***
	임시·일용직	0.3	3.2	37.0	43.8	15.7	
	고용주, 자영자	0.0	2.9	35.3	52.3	9.6	
	무급가족종사자	0.0	3.1	40.4	44.9	11.6	
	실업자	1.0	1.0	25.1	57.5	15.4	
	비경제활동인구	0.1	1.8	36.9	47.8	1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3.4	30.7	48.5	17.5	37.90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0	2.3	34.0	50.1	13.6	
	숙련 및 기술직	0.0	3.7	32.9	54.8	8.6	
	단순노무 종사자	0.8	5.4	42.2	39.4	1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	2.7	31.9	50.6	14.8	14.163(4)**
	비정규직	0.5	2.8	37.1	49.5	1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	2.6	34.7	48.5	14.1	23.956(8)**
	중도적	0.2	2.6	36.6	47.9	12.7	
	진보적	0.0	2.1	28.4	55.9	13.7	

〈부표 3-148〉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3)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및 공감대 조성

(단위: %)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재 수준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χ^2 (df)
전체		0.1	2.8	37.0	47.2	12.9	
성별	남성	0.0	3.2	40.0	46.1	10.7	27.624(4)***
	여성	0.1	2.5	33.9	48.4	15.1	
연령	20대 이하	0.0	2.1	40.0	43.0	14.9	45.855(16)***
	30대	0.0	2.0	34.9	46.8	16.3	
	40대	0.2	4.3	32.7	49.4	13.3	
	50대	0.0	3.7	37.2	48.1	11.0	
	60대 이상	0.1	1.9	39.6	48.0	10.4	
지역1	수도권	0.0	2.5	37.4	48.2	11.9	7.626(4)
	비수도권	0.1	3.1	36.6	46.2	14.0	
지역2	대도시	0.0	2.9	38.5	46.9	11.7	15.672(8)*
	중소도시	0.1	3.0	36.3	47.3	13.3	
	농어촌	0.3	0.9	33.6	48.4	1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2.3	48.6	37.1	11.9	59.123(12)***
	중하층	0.2	2.1	35.1	50.7	12.0	
	중간층	0.0	3.8	35.1	47.3	13.7	
	중상층(상층)	0.0	0.2	36.4	48.3	15.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2.2	35.6	48.4	13.8	24.605(16)
	200만 원대	0.1	3.4	37.8	47.6	11.0	
	300만 원대	0.1	4.5	39.3	44.0	12.1	
	400만 원대	0.0	2.0	39.5	45.4	13.0	
	500만 원 이상	0.1	2.0	35.2	48.3	14.4	
학력	중졸 이하	0.0	2.6	39.9	47.2	10.3	38.972(8)***
	고졸	0.1	3.4	40.3	45.2	11.0	
	대졸 이상	0.0	2.3	33.1	49.2	1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1	2.8	37.0	46.0	14.2	21.381(20)
	임시·일용직	0.0	4.3	34.7	50.0	11.0	
	고용주, 자영자	0.2	3.1	40.0	46.5	10.3	
	무급가족종사자	0.0	3.0	38.7	47.6	10.6	
	실업자	0.0	1.8	31.9	51.2	15.1	
	비경제활동인구	0.0	2.3	36.5	47.7	13.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2.5	36.1	41.7	19.6	25.15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3.3	36.6	47.7	12.2	
	숙련 및 기술직	0.1	2.6	39.7	47.6	9.9	
	단순노무 종사자	0.1	3.2	42.4	45.4	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	3.0	36.7	45.8	14.5	11.242(4)*
	비정규직	0.2	3.0	36.1	51.1	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1.5	40.1	46.3	12.2	28.530(8)***
	중도적	0.1	3.7	36.9	46.9	12.3	
	진보적	0.0	2.5	33.2	49.1	15.3	

〈부표 3-149〉 아동 돌봄 정책 확대 의견 (4) 가족 돌봄 유급 휴가 보장 및 휴가일 수 확대

(단위: %)

구분		대폭 축소	조금 축소	현재 수준 유지	조금 확대	대폭 확대	X ² (df)
전체		0.1	1.7	38.7	47.6	11.8	
성별	남성	0.1	2.0	40.5	46.6	10.8	8.834(4)
	여성	0.1	1.5	36.9	48.7	12.8	
연령	20대 이하	0.0	0.6	39.1	46.0	14.3	70.903(16)***
	30대	0.1	1.3	34.2	47.2	17.2	
	40대	0.1	3.3	37.2	47.1	12.3	
	50대	0.0	2.0	39.0	50.4	8.6	
	60대 이상	0.3	1.4	42.6	47.2	8.4	
지역1	수도권	0.1	1.9	38.2	48.9	10.8	5.399(4)
	비수도권	0.1	1.6	39.3	46.3	12.7	
지역2	대도시	0.0	1.7	39.7	49.0	9.5	21.874(8)**
	중소도시	0.2	1.8	38.6	46.4	13.0	
	농어촌	0.3	1.1	34.3	48.1	1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	3.0	47.9	40.2	8.5	57.934(12)***
	중하층	0.1	0.8	36.9	51.5	10.7	
	중간층	0.0	2.1	37.6	47.0	13.3	
	중상층(상층)	0.0	2.3	37.2	45.7	14.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1	1.5	39.0	47.4	12.1	19.630(16)
	200만 원대	0.3	1.2	37.3	49.3	11.8	
	300만 원대	0.0	2.9	38.0	48.0	11.0	
	400만 원대	0.0	1.0	42.2	45.5	11.3	
	500만 원 이상	0.0	2.6	39.1	46.3	12.0	
학력	중졸 이하	0.5	2.5	44.3	43.3	9.4	47.957(8)***
	고졸	0.1	2.0	41.8	46.0	10.2	
	대졸 이상	0.0	1.3	34.4	50.4	1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0	1.8	36.8	48.3	13.1	92.274(20)***
	임시·일용직	0.0	2.0	39.6	50.0	8.4	
	고용주, 자영자	0.1	2.7	40.8	46.2	10.2	
	무급가족종사자	3.6	2.2	45.0	34.9	14.3	
	실업자	0.0	1.6	34.1	54.1	10.2	
	비경제활동인구	0.0	0.9	40.3	46.3	1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3.7	35.0	46.3	15.0	38.76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1.8	37.6	48.6	11.9	
	숙련 및 기술직	0.0	1.4	43.4	45.7	9.5	
	단순노무 종사자	1.2	3.5	40.6	47.0	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	1.8	36.5	48.5	13.2	8.262(4)
	비정규직	0.1	2.2	39.4	48.8	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1.3	40.5	47.1	10.9	15.072(8)
	중도적	0.1	2.3	38.9	47.4	11.3	
	진보적	0.0	1.1	36.1	48.8	14.0	

〈부표 3-150〉 보건의로 정책 찬반 (1)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0.2	5.9	31.7	51.9	10.3	
성별	남성	0.3	6.3	32.6	50.9	10.0	3.271(4)
	여성	0.2	5.4	30.9	52.9	10.6	
연령	20대 이하	0.3	5.2	33.5	52.8	8.2	32.021(16)**
	30대	0.1	6.2	30.4	50.2	13.1	
	40대	0.1	6.3	33.1	49.1	11.5	
	50대	0.4	3.9	31.0	56.2	8.6	
	60대 이상	0.3	7.6	30.9	50.8	10.5	
지역1	수도권	0.2	6.3	30.3	55.1	8.1	31.756(4)***
	비수도권	0.3	5.5	33.2	48.5	12.6	
지역2	대도시	0.2	4.4	35.2	51.1	9.1	33.694(8)***
	중소도시	0.3	6.6	29.1	53.0	11.0	
	농어촌	0.1	9.4	29.6	48.7	1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	5.5	22.3	50.1	21.6	100.462(12) ***
	중하층	0.2	5.5	32.7	53.1	8.4	
	중간층	0.2	6.1	33.6	51.7	8.4	
	중상층(상층)	0.0	7.8	33.3	48.1	10.8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3	5.8	30.4	52.1	11.5	16.474(16)
	200만 원대	0.2	5.7	33.0	50.6	10.5	
	300만 원대	0.3	5.4	34.9	50.4	9.1	
	400만 원대	0.3	6.0	32.5	54.7	6.6	
	500만 원 이상	0.0	7.3	29.1	53.7	9.9	
학력	중졸 이하	0.2	6.2	35.4	47.9	10.4	9.721(8)
	고졸	0.3	5.2	30.3	53.9	10.2	
	대졸 이상	0.2	6.4	32.2	50.8	10.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1	5.4	32.4	51.2	11.0	42.010(20)**
	임시·일용직	0.3	6.2	28.8	54.7	9.9	
	고용주, 자영자	0.2	7.0	32.8	52.2	7.7	
	무급가족종사자	0.0	9.4	27.9	40.2	22.6	
	실업자	1.4	8.4	31.8	49.0	9.4	
	비경제활동인구	0.3	4.9	31.4	52.6	1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4.8	31.4	52.4	11.3	15.10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6.4	31.7	52.8	9.0	
	숙련 및 기술직	0.1	5.7	33.6	49.0	11.5	
	단순노무 종사자	0.8	6.0	29.4	48.3	1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5.6	32.0	51.3	11.0	1.681(4)
	비정규직	0.3	5.7	31.3	53.1	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	7.5	31.7	49.3	11.0	22.987(8)**
	중도적	0.1	5.4	33.2	52.2	9.0	
	진보적	0.2	4.8	28.4	54.3	12.3	

〈부표 3-151〉 보건의로 정책 찬반 (2)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11.5	35.8	32.3	18.0	2.4	
성별	남성	10.9	34.3	32.5	20.3	2.0	18.678(4)**
	여성	12.2	37.4	32.1	15.6	2.7	
연령	20대 이하	9.4	29.6	37.7	19.4	3.9	49.217(16)***
	30대	10.2	34.3	33.3	19.7	2.4	
	40대	12.7	35.4	31.7	18.2	2.0	
	50대	11.5	36.6	33.2	16.5	2.1	
	60대 이상	13.1	41.1	27.3	16.7	1.8	
지역1	수도권	8.5	36.4	32.4	20.2	2.5	45.807(4)***
	비수도권	14.7	35.2	32.2	15.6	2.2	
지역2	대도시	7.4	39.8	37.0	13.8	2.0	112.800(8)***
	중소도시	14.2	32.7	29.0	21.3	2.9	
	농어촌	17.1	34.1	28.2	19.5	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1	40.9	20.5	14.6	2.8	152.938(12)***
	중하층	11.6	41.2	31.2	14.0	2.0	
	중간층	8.9	30.5	36.1	21.9	2.6	
	중상층(상층)	8.8	30.3	38.8	20.2	1.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3.8	37.7	29.5	16.1	2.9	47.817(16)***
	200만 원대	10.6	35.0	35.3	17.6	1.5	
	300만 원대	10.2	34.1	35.0	17.9	2.8	
	400만 원대	9.8	33.1	33.2	22.9	1.1	
	500만 원 이상	7.8	34.9	32.3	22.7	2.3	
학력	중졸 이하	14.0	40.4	31.1	12.9	1.7	33.795(8)***
	고졸	13.0	36.1	30.2	17.9	2.9	
	대졸 이상	9.5	34.4	34.7	19.4	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2	34.4	32.9	20.3	2.2	52.195(20)***
	임시·일용직	9.3	37.7	31.7	18.6	2.7	
	고용주, 자영자	13.1	35.4	35.3	15.3	1.0	
	무급가족종사자	24.8	42.8	22.6	8.5	1.3	
	실업자	8.5	41.3	30.8	15.7	3.8	
	비경제활동인구	13.1	36.0	30.4	17.2	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9.1	29.3	38.7	19.9	3.1	20.78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5	35.4	33.3	18.1	1.8	
	숙련 및 기술직	11.4	38.2	29.7	19.8	0.9	
	단순노무 종사자	12.1	39.1	30.7	14.6	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5	33.0	33.7	20.5	2.1	11.510(4)*
	비정규직	8.8	41.6	28.8	18.4	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	40.8	26.7	17.3	1.8	76.611(8)***
	중도적	12.5	33.9	34.0	18.0	1.6	
	진보적	7.0	33.7	35.7	18.8	4.8	

〈부표 3-152〉 보건의료 정책 찬반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0.2	5.9	33.9	47.4	12.6	
성별	남성	0.2	6.5	34.0	47.0	12.4	2.554(4)
	여성	0.2	5.3	33.7	47.9	12.9	
연령	20대 이하	0.1	4.9	39.2	42.6	13.2	26.586(16)*
	30대	0.1	6.3	35.5	44.6	13.6	
	40대	0.5	6.7	32.0	47.9	12.9	
	50대	0.2	6.0	31.3	51.0	11.6	
	60대 이상	0.2	5.6	32.6	49.4	12.2	
지역1	수도권	0.2	7.0	33.4	49.1	10.3	31.171(4)***
	비수도권	0.2	4.7	34.3	45.6	15.1	
지역2	대도시	0.1	7.1	35.0	47.3	10.6	23.473(8)**
	중소도시	0.3	5.2	32.2	48.1	14.1	
	농어촌	0.4	3.7	38.0	43.7	1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4.6	25.7	46.9	22.1	69.650(12)***
	중하층	0.2	6.3	35.1	46.9	11.5	
	중간층	0.1	6.0	34.9	48.1	11.0	
	중상층(상층)	0.0	5.8	38.0	46.2	9.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2	4.8	32.2	49.1	13.7	44.012(16)***
	200만 원대	0.2	6.0	33.8	46.9	13.0	
	300만 원대	0.0	7.0	38.7	45.1	9.2	
	400만 원대	0.6	5.4	40.3	43.4	10.2	
	500만 원 이상	0.1	8.7	28.1	48.5	14.7	
학력	중졸 이하	0.1	5.4	32.1	51.1	11.4	10.675(8)
	고졸	0.2	6.6	33.1	46.2	14.0	
	대졸 이상	0.3	5.3	35.1	47.6	1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	6.2	33.0	47.7	12.8	25.182(20)
	임시·일용직	0.3	6.9	31.8	48.9	12.0	
	고용주, 자영자	0.1	6.5	36.8	46.0	10.6	
	무급가족종사자	0.0	5.9	35.3	43.2	15.6	
	실업자	0.0	2.4	32.9	56.4	8.3	
	비경제활동인구	0.1	5.1	33.9	46.0	14.7	
직업	관리자, 전문가	0.2	4.3	32.5	52.6	10.4	14.63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	7.1	33.9	46.5	12.3	
	숙련 및 기술직	0.1	5.3	35.3	48.1	11.2	
	단순노무 종사자	0.8	7.2	32.2	42.6	1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	6.3	33.1	47.0	13.3	6.669(4)
	비정규직	0.3	5.7	30.2	53.6	1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	6.4	32.5	47.5	13.4	16.640(8)*
	중도적	0.2	6.7	34.9	46.0	12.2	
	진보적	0.1	3.5	33.3	50.6	12.6	

〈부표 3-154〉 보건의로 정책 찬반 (5) 우울,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0.1	3.2	28.2	51.3	17.2	
성별	남성	0.2	3.7	28.2	51.1	16.9	5.263(4)
	여성	0.0	2.7	28.2	51.5	17.6	
연령	20대 이하	0.4	1.9	25.8	54.4	17.5	28.446(16)*
	30대	0.1	3.3	28.8	49.1	18.7	
	40대	0.2	4.8	26.6	52.0	16.3	
	50대	0.0	3.0	31.7	48.7	16.6	
	60대 이상	0.0	2.7	27.7	52.3	17.2	
지역1	수도권	0.1	3.2	30.2	51.8	14.7	21.555(4)***
	비수도권	0.1	3.2	26.0	50.8	19.9	
지역2	대도시	0.0	2.9	26.3	53.5	17.3	16.531(8)*
	중소도시	0.1	3.5	29.8	49.4	17.2	
	농어촌	0.6	3.1	28.2	51.2	1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	2.8	27.6	47.1	22.5	23.514(12)*
	중하층	0.2	3.2	26.3	52.9	17.4	
	중간층	0.0	3.4	29.4	51.4	15.8	
	중상층(상층)	0.0	2.1	33.2	49.9	14.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2	2.3	25.9	53.2	18.4	56.604(16)***
	200만 원대	0.1	4.2	27.0	50.1	18.7	
	300만 원대	0.0	2.8	37.5	43.5	16.1	
	400만 원대	0.0	4.7	27.1	54.0	14.2	
	500만 원 이상	0.0	3.8	26.1	56.6	13.4	
학력	중졸 이하	0.0	2.9	28.4	53.3	15.5	7.810(8)
	고졸	0.2	2.9	27.7	50.5	18.7	
	대졸 이상	0.1	3.5	28.5	51.6	1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1	2.6	29.0	52.0	16.4	53.190(20)***
	임시·일용직	0.0	2.5	28.9	51.2	17.3	
	고용주, 자영자	0.0	6.0	28.6	49.4	16.0	
	무급가족종사자	0.0	4.4	20.8	55.4	19.4	
	실업자	1.3	0.8	24.6	53.0	20.4	
	비경제활동인구	0.1	2.6	27.5	51.2	18.6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2.9	31.5	50.2	15.4	17.76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3.8	29.4	51.0	15.7	
	숙련 및 기술직	0.0	2.4	27.6	50.8	19.1	
	단순노무 종사자	0.0	5.8	18.6	56.6	1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2.6	28.8	51.6	16.9	0.905(4)
	비정규직	0.0	2.4	27.0	53.2	1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3.3	30.1	48.0	18.5	14.703(8)
	중도적	0.2	3.2	28.0	52.5	16.0	
	진보적	0.0	2.9	26.0	52.7	18.3	

〈부표 3-155〉 보건의로 정책 찬반 (6)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0.0	2.6	26.4	53.9	17.1	
성별	남성	0.1	2.7	28.2	52.1	16.8	8.958(4)
	여성	0.0	2.4	24.5	55.6	17.4	
연령	20대 이하	0.1	2.4	25.8	56.1	15.6	25.300(16)
	30대	0.0	3.2	27.9	50.2	18.8	
	40대	0.1	3.0	25.8	52.4	18.8	
	50대	0.1	1.3	29.1	54.7	14.8	
	60대 이상	0.0	3.0	24.0	55.2	17.9	
지역1	수도권	0.0	2.8	28.5	53.4	15.2	18.813(4)**
	비수도권	0.1	2.3	24.1	54.3	19.1	
지역2	대도시	0.0	2.5	27.9	53.8	15.8	34.433(8)***
	중소도시	0.0	2.7	26.2	53.1	18.0	
	농어촌	0.6	1.9	20.1	58.6	1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	2.2	20.6	50.6	26.5	56.844(12)***
	중하층	0.1	2.8	24.7	56.6	15.8	
	중간층	0.0	2.7	29.1	52.5	15.7	
	중상층(상층)	0.0	0.2	30.6	55.2	13.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0	2.3	21.4	57.5	18.8	58.673(16)***
	200만 원대	0.1	2.4	26.9	52.9	17.7	
	300만 원대	0.1	3.3	32.9	49.1	14.6	
	400만 원대	0.0	2.6	36.0	48.4	13.0	
	500만 원 이상	0.0	2.7	28.1	52.8	16.3	
학력	중졸 이하	0.0	2.8	22.7	56.9	17.6	16.510(8)*
	고졸	0.1	2.2	24.5	54.9	18.3	
	대졸 이상	0.1	2.8	29.2	52.1	1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1	2.2	28.4	53.5	15.8	33.120(20)*
	임시·일용직	0.0	3.8	26.0	52.6	17.6	
	고용주, 자영자	0.1	2.8	30.1	50.0	17.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1.7	56.6	21.6	
	실업자	0.0	1.3	25.3	53.6	19.9	
	비경제활동인구	0.0	2.7	21.4	57.5	18.3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	2.1	33.5	48.2	16.2	18.86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	2.9	28.6	53.1	15.3	
	숙련 및 기술직	0.0	1.8	23.6	55.2	19.4	
	단순노무 종사자	0.0	2.9	28.9	47.0	2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	2.4	28.2	53.6	15.7	2.580(4)
	비정규직	0.0	1.9	27.1	52.5	1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	2.4	24.5	54.0	19.1	8.924(8)
	중도적	0.1	2.6	27.6	54.0	15.7	
	진보적	0.0	2.6	26.1	53.4	17.9	

〈부표 3-156〉 보건의료 정책 찬반 (7)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X ² (df)
전체		1.6	8.2	39.5	42.2	8.5	
성별	남성	1.4	8.7	39.9	42.1	7.8	5.028(4)
	여성	1.8	7.7	39.0	42.3	9.2	
연령	20대 이하	1.3	7.0	42.1	38.4	11.2	36.149(16)**
	30대	0.9	6.7	35.5	48.3	8.5	
	40대	2.2	8.4	39.5	41.3	8.6	
	50대	1.4	8.1	39.7	43.7	7.1	
	60대 이상	2.1	10.2	40.1	40.0	7.5	
지역1	수도권	0.6	5.6	42.0	44.1	7.6	74.223(4)***
	비수도권	2.7	10.9	36.8	40.1	9.4	
지역2	대도시	1.3	7.9	41.7	41.4	7.7	67.288(8)***
	중소도시	1.3	7.6	37.1	44.4	9.6	
	농어촌	5.5	14.1	42.5	32.3	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	6.8	44.8	37.7	8.7	36.079(12)***
	중하층	1.9	8.1	36.3	46.4	7.2	
	중간층	1.4	9.0	40.3	40.6	8.8	
	중상층(상층)	1.0	5.5	41.4	37.1	14.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9	9.5	38.4	40.8	9.4	24.781(16)
	200만 원대	1.5	8.7	40.9	42.3	6.6	
	300만 원대	1.2	6.7	40.1	44.2	7.8	
	400만 원대	2.6	5.3	41.5	40.7	9.9	
	500만 원 이상	1.0	6.6	38.3	45.3	8.9	
학력	중졸 이하	2.8	11.7	42.4	35.3	7.8	36.867(8)***
	고졸	1.8	9.0	40.7	40.1	8.4	
	대졸 이상	1.1	6.6	37.6	45.9	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	6.6	39.7	45.5	7.2	44.460(20)**
	임시·일용직	2.7	8.4	41.4	39.9	7.5	
	고용주, 자영자	2.4	9.2	38.9	41.5	8.0	
	무급가족종사자	2.6	13.3	41.1	38.8	4.1	
	실업자	2.4	7.7	39.5	40.9	9.5	
	비경제활동인구	1.2	9.7	38.7	39.2	11.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	7.6	40.6	38.0	12.3	35.26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	7.0	38.7	45.9	6.9	
	숙련 및 기술직	2.7	10.2	43.1	36.9	7.2	
	단순노무 종사자	1.4	8.2	39.6	46.9	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	6.9	39.5	45.2	7.3	4.516(4)
	비정규직	2.2	8.3	40.1	41.3	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	7.9	38.9	42.8	8.9	24.564(8)**
	중도적	1.8	9.3	39.5	42.5	6.8	
	진보적	1.4	6.3	40.1	40.6	11.7	

〈부표 3-157〉 복지 관련 의견 (1)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X ² (df)
전체		1.0	16.0	44.6	33.2	5.3	
성별	남성	1.5	17.4	42.6	32.8	5.7	19.077(4)**
	여성	0.5	14.6	46.5	33.5	4.8	
연령	20대 이하	0.5	14.8	52.8	26.9	4.9	40.765(16)**
	30대	1.4	13.6	45.1	34.0	6.0	
	40대	1.6	16.6	41.6	35.2	5.0	
	50대	1.1	16.2	41.9	35.0	5.9	
	60대 이상	0.5	18.0	42.8	33.9	4.7	
지역1	수도권	0.6	14.8	41.7	37.0	5.8	37.096(4)***
	비수도권	1.4	17.3	47.6	29.1	4.7	
지역2	대도시	1.0	14.2	49.1	32.1	3.7	48.572(8)***
	중소도시	0.8	17.1	40.5	34.8	6.9	
	농어촌	2.0	18.9	46.2	29.1	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13.3	45.9	34.3	5.8	28.994(12)**
	중하층	1.0	15.6	46.2	32.6	4.6	
	중간층	1.0	17.6	42.8	33.6	5.0	
	중상층(상층)	1.5	11.6	44.7	30.1	12.2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0.8	15.2	46.4	32.2	5.4	40.407(16)**
	200만 원대	0.7	14.5	47.3	32.5	5.0	
	300만 원대	0.8	17.5	41.8	33.6	6.3	
	400만 원대	0.9	20.8	36.4	38.4	3.5	
	500만 원 이상	2.9	16.5	41.7	34.0	5.0	
학력	중졸 이하	0.6	16.7	48.3	30.9	3.4	22.382(8)**
	고졸	0.7	16.1	46.1	30.9	6.2	
	대졸 이상	1.4	15.7	42.1	35.9	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	14.4	43.8	34.6	5.9	55.095(20)***
	임시·일용직	1.6	17.6	42.3	36.1	2.4	
	고용주, 자영자	0.8	20.3	42.6	31.8	4.4	
	무급가족종사자	0.0	21.7	44.5	28.1	5.6	
	실업자	1.8	12.7	54.2	21.7	9.5	
	비경제활동인구	0.4	14.8	46.3	33.2	5.4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	17.7	38.6	29.3	11.2	65.83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8	15.5	44.1	35.8	3.8	
	숙련 및 기술직	0.9	18.1	46.1	29.7	5.3	
	단순노무 종사자	1.4	23.2	35.6	36.0	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	14.5	44.1	34.4	5.7	5.186(4)
	비정규직	1.3	16.6	42.0	36.7	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	14.6	41.4	36.5	6.7	31.195(8)***
	중도적	0.7	16.1	47.4	31.0	4.8	
	진보적	1.9	17.5	42.1	33.8	4.7	

〈부표 3-158〉 복지 관련 의견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X ² (df)
전체		9.5	33.6	34.2	21.1	1.6	
성별	남성	9.0	33.0	33.7	21.9	2.3	14.213(4)**
	여성	9.9	34.3	34.7	20.3	0.9	
연령	20대 이하	7.7	31.9	38.0	20.2	2.2	40.666(16)**
	30대	8.7	31.9	40.4	17.9	1.2	
	40대	8.9	34.2	30.7	24.4	1.8	
	50대	11.1	32.1	31.7	23.5	1.6	
	60대 이상	10.4	36.9	32.1	19.3	1.4	
지역1	수도권	7.2	31.4	34.5	24.8	2.0	58.326(4)***
	비수도권	11.8	35.9	33.8	17.2	1.2	
지역2	대도시	6.3	39.8	34.5	17.7	1.7	82.068(8)***
	중소도시	11.7	29.5	33.5	23.8	1.6	
	농어촌	12.4	26.5	37.2	22.4	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	34.5	31.9	18.3	2.5	81.289(12)***
	중하층	8.1	39.1	33.3	17.8	1.7	
	중간층	9.4	28.1	35.9	25.3	1.1	
	중상층(상층)	10.8	41.5	31.0	13.9	2.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0.0	34.0	34.2	20.1	1.7	47.903(16)***
	200만 원대	10.0	33.9	35.3	19.0	1.8	
	300만 원대	8.3	32.9	39.0	19.3	0.4	
	400만 원대	6.8	32.2	27.4	31.7	1.9	
	500만 원 이상	9.8	33.7	29.4	24.4	2.7	
학력	중졸 이하	10.8	36.2	32.7	18.8	1.5	8.845(8)
	고졸	10.0	33.5	34.4	20.3	1.8	
	대졸 이상	8.5	33.1	34.4	22.5	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9	31.2	35.8	21.7	1.4	50.238(20)***
	임시·일용직	6.8	34.1	33.8	21.9	3.3	
	고용주, 자영자	9.6	35.2	31.0	23.0	1.2	
	무급가족종사자	27.5	36.9	22.2	13.4	0.0	
	실업자	7.0	38.4	34.7	18.4	1.5	
	비경제활동인구	9.2	34.6	35.0	19.5	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0	30.5	32.0	22.3	3.1	33.88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8	33.0	35.4	21.9	0.9	
	숙련 및 기술직	9.9	33.7	31.1	21.9	3.3	
	단순노무 종사자	14.1	33.9	29.8	21.3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	31.1	35.7	22.2	1.1	15.544(4)**
	비정규직	8.2	34.6	35.3	18.5	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	34.7	33.6	19.6	1.4	30.674(8)***
	중도적	9.9	33.4	35.4	20.0	1.3	
	진보적	6.7	32.8	32.2	25.7	2.7	

〈부표 3-159〉 복지 관련 의견 (3)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df)
전체		7.2	23.1	36.0	29.5	4.2	
성별	남성	7.2	22.9	35.4	29.9	4.6	2.082(4)
	여성	7.2	23.3	36.6	29.2	3.8	
연령	20대 이하	7.2	23.7	36.8	27.7	4.7	21.115(16)
	30대	6.0	22.7	37.5	30.0	3.7	
	40대	7.4	25.4	34.7	26.9	5.6	
	50대	7.8	23.4	35.5	30.7	2.6	
	60대 이상	7.4	20.7	35.8	31.7	4.4	
지역1	수도권	4.6	19.0	38.4	33.6	4.4	97.466(4)***
	비수도권	9.9	27.4	33.5	25.2	4.0	
지역2	대도시	5.5	25.0	36.8	29.0	3.8	59.720(8)***
	중소도시	7.2	21.9	34.8	31.2	4.8	
	농어촌	15.9	20.1	39.1	22.3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	17.7	35.7	35.4	5.2	47.362(12)***
	중하층	7.0	25.3	37.6	26.8	3.3	
	중간층	7.0	22.6	35.5	30.0	4.9	
	중상층(상층)	14.4	26.0	29.3	29.4	0.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8.5	22.4	35.1	29.6	4.4	24.324(16)
	200만 원대	5.8	25.0	37.5	27.1	4.5	
	300만 원대	5.3	23.0	36.1	32.7	2.8	
	400만 원대	6.6	20.3	39.9	29.1	4.2	
	500만 원 이상	8.2	23.7	33.5	29.7	4.8	
학력	중졸 이하	7.8	22.5	34.8	30.6	4.3	2.878(8)
	고졸	7.4	23.2	35.9	29.7	3.8	
	대졸 이상	6.8	23.1	36.4	29.1	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5	23.6	35.5	30.4	3.9	36.399(20)*
	임시·일용직	7.6	20.9	39.9	27.8	3.9	
	고용주, 자영자	8.6	23.2	37.3	27.7	3.2	
	무급가족종사자	15.7	34.1	24.9	25.3	0.0	
	실업자	8.6	19.0	29.9	35.2	7.3	
	비경제활동인구	6.2	23.3	35.9	29.5	5.1	
직업	관리자, 전문가	7.8	25.0	23.8	37.0	6.4	56.95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4	21.8	38.4	30.0	3.3	
	숙련 및 기술직	10.0	25.8	37.2	23.8	3.2	
	단순노무 종사자	9.9	27.5	39.9	20.3	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8	23.5	35.4	30.5	3.7	5.759(4)
	비정규직	7.6	22.4	39.9	25.5	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	22.3	35.8	31.2	4.8	52.623(8)***
	중도적	7.9	24.0	36.5	29.3	2.3	
	진보적	7.1	22.1	35.0	27.9	7.8	

〈부표 3-160〉 복지 관련 의견 (4)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df)
전체		2.6	13.8	42.1	36.7	4.8	
성별	남성	2.5	14.4	41.3	36.6	5.2	4.011(4)
	여성	2.8	13.1	43.0	36.8	4.3	
연령	20대 이하	2.0	11.5	42.9	39.1	4.5	23.630(16)
	30대	2.8	13.9	45.1	34.5	3.8	
	40대	3.8	14.3	41.8	34.3	5.8	
	50대	2.7	13.1	41.7	38.5	4.1	
	60대 이상	2.0	15.7	40.1	36.9	5.4	
지역1	수도권	1.4	13.0	42.5	37.7	5.5	32.205(4)***
	비수도권	3.9	14.7	41.7	35.7	4.0	
지역2	대도시	1.2	13.0	43.7	37.2	4.9	48.385(8)***
	중소도시	3.1	14.4	40.4	37.4	4.7	
	농어촌	7.3	14.1	44.3	30.0	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	12.6	42.9	34.8	8.2	38.762(12)***
	중하층	2.9	14.6	42.6	36.1	3.9	
	중간층	2.5	12.9	41.4	38.8	4.4	
	중상층(상층)	5.0	20.3	42.1	26.9	5.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8	13.3	39.7	38.4	5.7	22.280(16)
	200만 원대	2.2	14.7	44.0	35.7	3.5	
	300만 원대	3.2	14.0	42.9	36.6	3.3	
	400만 원대	2.9	11.9	43.5	36.2	5.5	
	500만 원 이상	2.0	14.8	45.3	32.6	5.3	
학력	중졸 이하	3.5	15.9	43.2	34.6	2.8	14.204(8)
	고졸	2.4	13.5	41.8	36.4	5.9	
	대졸 이상	2.7	13.6	42.1	37.5	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7	13.4	41.7	37.9	4.3	40.363(20)**
	임시·일용직	2.0	15.6	37.6	38.6	6.2	
	고용주, 자영자	2.7	14.1	47.6	32.7	3.0	
	무급가족종사자	6.8	16.2	38.0	34.1	4.9	
	실업자	6.0	14.5	39.5	33.3	6.6	
	비경제활동인구	1.9	13.1	41.3	37.8	5.8	
직업	관리자, 전문가	2.6	15.4	38.5	37.9	5.7	16.39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	13.8	43.9	36.3	3.5	
	숙련 및 기술직	2.9	13.9	41.5	37.6	4.1	
	단순노무 종사자	3.8	13.9	40.5	33.1	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	13.3	41.7	38.2	4.2	3.183(4)
	비정규직	2.7	14.8	38.3	38.5	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	14.4	40.9	35.7	6.1	15.921(8)*
	중도적	2.4	13.9	43.9	36.0	3.8	
	진보적	2.8	12.7	39.6	39.6	5.2	

〈부표 3-161〉 복지 관련 의견 (5)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df)
전체		20.6	25.2	37.7	14.7	1.8	
성별	남성	20.5	25.9	36.1	15.3	2.2	8.804(4)
	여성	20.6	24.5	39.4	14.1	1.4	
연령	20대 이하	16.1	24.8	39.2	15.8	4.1	58.711(16)***
	30대	19.5	27.1	38.5	13.6	1.3	
	40대	20.7	26.7	39.6	12.0	1.0	
	50대	23.4	21.9	35.4	18.0	1.2	
	60대 이상	22.1	25.8	36.4	14.2	1.5	
지역1	수도권	13.3	25.3	41.8	17.6	2.0	149.560(4)***
	비수도권	28.2	25.1	33.4	11.7	1.6	
지역2	대도시	16.1	25.3	41.9	15.6	1.1	80.924(8)***
	중소도시	22.1	26.0	34.5	15.0	2.4	
	농어촌	34.1	20.5	35.5	8.7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1	26.4	35.1	13.0	1.3	42.490(12)***
	중하층	22.1	25.4	37.9	13.8	0.8	
	중간층	19.3	24.4	38.2	15.6	2.4	
	중상층(상층)	10.0	28.9	38.3	18.3	4.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2.4	26.4	34.0	14.6	2.5	39.470(16)**
	200만 원대	20.0	25.5	39.2	13.6	1.6	
	300만 원대	17.5	23.3	44.1	14.3	0.9	
	400만 원대	18.5	22.0	40.0	18.8	0.7	
	500만 원 이상	20.7	25.3	37.6	15.1	1.3	
학력	중졸 이하	26.6	25.3	34.3	12.0	1.8	23.561(8)**
	고졸	20.8	26.1	37.5	13.6	2.1	
	대졸 이상	18.8	24.4	38.8	16.6	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0.2	25.2	38.1	14.9	1.6	70.666(20)***
	임시·일용직	18.1	26.8	40.3	14.2	0.7	
	고용주, 자영자	23.9	21.4	39.7	14.6	0.4	
	무급가족종사자	43.4	18.7	25.9	10.3	1.8	
	실업자	23.2	23.5	39.4	11.9	2.0	
	비경제활동인구	18.0	28.1	34.9	15.6	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6	30.3	33.4	13.5	1.2	29.782(12)**
		19.6	23.0	41.0	15.6	0.9	
	숙련 및 기술직	26.2	25.2	34.1	12.6	1.8	
	단순노무 종사자	25.1	22.9	37.5	12.7	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4	24.2	38.1	15.7	1.6	7.240(4)
	비정규직	19.5	28.2	39.3	12.4	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3	23.1	37.4	15.5	2.7	47.889(8)***
	중도적	19.4	27.9	39.2	12.3	1.2	
	진보적	22.3	21.8	34.7	19.3	1.9	

〈부표 3-162〉 계층별 세금 수준 (1) 고소득층

(단위: %)

구분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X ² (df)
전체		1.8	14.6	25.7	43.7	14.2	
성별	남성	2.3	14.0	25.0	42.4	16.2	21.717(4)***
	여성	1.3	15.3	26.4	44.9	12.0	
연령	20대 이하	1.6	15.4	31.0	41.0	11.0	50.034(16)***
	30대	2.7	13.4	24.8	46.9	12.2	
	40대	1.5	14.2	26.9	41.5	15.9	
	50대	2.7	17.0	19.8	44.7	15.8	
	60대 이상	0.9	13.2	26.7	44.2	15.0	
지역1	수도권	2.2	16.1	26.3	44.1	11.3	34.817(4)***
	비수도권	1.4	13.1	25.0	43.2	17.2	
지역2	대도시	1.4	16.6	30.1	40.6	11.2	96.609(8)***
	중소도시	2.3	14.4	23.0	45.5	14.8	
	농어촌	1.0	5.7	19.0	48.8	2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	12.7	21.5	45.2	19.7	74.370(12)***
	중하층	0.7	13.1	24.8	46.7	14.7	
	중간층	2.5	16.3	27.8	40.9	12.5	
	중상층(상층)	6.4	15.7	24.4	42.8	10.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1	14.9	26.0	43.9	14.1	72.125(16)***
	200만 원대	2.1	12.4	25.6	44.2	15.7	
	300만 원대	1.2	16.6	25.9	44.2	12.1	
	400만 원대	0.4	17.1	25.6	39.2	17.7	
	500만 원 이상	6.2	13.1	24.5	44.3	12.0	
학력	중졸 이하	0.6	14.2	23.7	42.3	19.2	29.629(8)***
	고졸	1.1	14.4	25.6	44.9	13.9	
	대졸 이상	2.8	14.9	26.3	42.8	1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8	13.7	25.4	44.4	13.7	71.693(20)***
	임시·일용직	1.2	19.4	31.3	36.0	12.2	
	고용주, 자영자	1.6	14.0	19.0	47.5	17.8	
	무급가족종사자	1.3	18.8	13.6	51.6	14.7	
	실업자	1.0	12.9	27.4	43.3	15.4	
	비경제활동인구	0.9	14.6	29.2	42.6	12.7	
직업	관리자, 전문가	8.2	14.0	28.7	34.6	14.4	104.51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	15.8	23.8	46.3	12.5	
	숙련 및 기술직	0.2	13.2	22.7	43.2	20.7	
	단순노무 종사자	1.5	10.6	25.7	43.2	1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	13.7	25.1	44.1	14.1	11.532(4)*
	비정규직	1.1	14.8	31.0	41.5	1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	18.7	24.4	40.7	14.1	27.025(8)**
	중도적	1.4	13.4	25.9	44.7	14.6	
	진보적	2.4	12.2	27.0	45.2	13.3	

〈부표 3-163〉 계층별 세금 수준 (2) 중소득층

(단위: %)

구분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X ² (df)
전체		2.7	25.7	53.8	16.6	1.2	
성별	남성	3.0	25.1	52.4	18.0	1.5	11.156(4)*
	여성	2.5	26.3	55.2	15.1	0.9	
연령	20대 이하	1.8	23.9	59.0	14.6	0.6	36.984(16)**
	30대	2.7	29.8	52.7	14.5	0.3	
	40대	2.8	27.9	49.5	18.5	1.3	
	50대	3.7	23.9	53.4	17.2	1.8	
	60대 이상	2.5	23.7	54.6	17.5	1.7	
지역1	수도권	2.6	26.8	56.3	13.9	0.5	46.573(4)***
	비수도권	2.9	24.5	51.1	19.5	2.0	
지역2	대도시	2.4	25.4	58.5	13.1	0.6	83.363(8)***
	중소도시	3.4	27.4	50.0	18.0	1.4	
	농어촌	1.0	16.7	52.2	26.6	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	22.6	43.6	29.5	2.3	131.080(12)***
	중하층	2.0	24.3	55.1	17.2	1.4	
	중간층	3.0	28.2	55.9	12.1	0.8	
	중상층(상층)	8.4	20.9	51.3	18.3	1.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7	25.1	53.2	18.7	1.3	55.519(16)***
	200만 원대	3.9	27.0	52.8	15.1	1.2	
	300만 원대	2.0	24.5	57.0	15.6	0.9	
	400만 원대	1.9	28.0	53.5	13.5	3.0	
	500만 원 이상	6.3	25.2	53.1	15.3	0.0	
학력	중졸 이하	1.0	19.8	53.5	23.8	2.0	63.228(8)***
	고졸	2.3	23.5	55.2	17.3	1.6	
	대졸 이상	3.6	29.2	52.4	14.1	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9	28.0	54.0	14.5	0.6	65.094(20)***
	임시·일용직	5.0	25.0	52.4	16.0	1.6	
	고용주, 자영자	3.2	22.0	54.5	17.8	2.4	
	무급가족종사자	5.7	18.7	44.3	28.9	2.5	
	실업자	0.5	18.8	55.4	24.4	0.9	
	비경제활동인구	1.5	26.9	53.7	16.8	1.1	
직업	관리자, 전문가	6.0	25.1	56.2	11.8	0.8	56.65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5	28.2	52.5	14.9	0.9	
	숙련 및 기술직	1.4	17.9	57.7	20.5	2.4	
	단순노무 종사자	3.0	23.8	48.7	21.9	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	28.2	54.1	14.4	0.6	7.401(4)
	비정규직	2.9	24.0	56.3	15.0	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	26.7	50.2	18.4	1.4	13.393(8)
	중도적	2.5	26.3	54.4	15.8	1.0	
	진보적	2.6	23.0	56.8	16.2	1.4	

〈부표 3-165〉 계층별 세금 수준 (4) 고자산층

(단위: %)

구분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X ² (df)
전체		2.6	13.5	21.5	42.5	19.9	
성별	남성	3.0	12.9	20.4	41.5	22.3	18.974(4)**
	여성	2.2	14.2	22.6	43.6	17.4	
연령	20대 이하	1.5	16.3	25.4	41.4	15.5	57.358(16)***
	30대	3.4	11.3	20.7	48.2	16.4	
	40대	1.8	13.8	21.6	41.8	21.0	
	50대	3.7	15.2	17.7	40.3	23.2	
	60대 이상	2.7	11.4	22.3	42.0	21.7	
지역1	수도권	2.8	14.6	21.9	44.2	16.6	29.173(4)***
	비수도권	2.5	12.5	21.0	40.8	23.3	
지역2	대도시	3.3	15.4	23.9	39.2	18.3	97.294(8)***
	중소도시	2.3	13.2	20.9	45.1	18.5	
	농어촌	1.1	6.1	12.4	44.0	3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	12.8	18.1	40.9	26.8	94.153(12)***
	중하층	1.6	11.2	20.4	44.9	21.9	
	중간층	3.2	15.5	23.6	41.2	16.5	
	중상층(상층)	9.5	14.9	18.2	41.2	16.1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2.4	13.9	22.8	41.2	19.7	62.474(16)***
	200만 원대	2.1	11.5	22.0	44.3	20.1	
	300만 원대	1.8	15.1	18.7	45.0	19.3	
	400만 원대	0.8	16.1	22.1	37.6	23.4	
	500만 원 이상	7.4	11.8	18.5	44.2	18.0	
학력	중졸 이하	2.2	10.0	20.7	39.5	27.5	29.004(8)***
	고졸	1.9	14.2	21.3	43.5	19.1	
	대졸 이상	3.4	13.8	21.8	42.4	18.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4	13.0	20.1	43.6	20.0	67.745(20)***
	임시·일용직	0.5	19.1	25.7	36.0	18.7	
	고용주, 자영자	2.6	11.2	17.8	43.5	25.0	
	무급가족종사자	0.0	14.1	11.0	54.0	20.9	
	실업자	2.3	12.0	25.4	39.4	20.9	
	비경제활동인구	2.6	14.0	24.2	43.0	1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8.6	17.0	19.5	33.7	21.2	85.87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2	13.5	19.9	45.1	19.2	
	숙련 및 기술직	0.8	12.5	19.9	40.4	26.4	
	단순노무 종사자	0.3	9.2	24.4	40.7	2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	13.1	19.7	43.9	19.9	16.942(4)**
	비정규직	1.4	13.7	27.1	37.1	2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	16.3	19.8	40.9	20.1	13.070(8)
	중도적	2.3	12.6	21.8	43.7	19.5	
	진보적	2.9	12.2	22.6	42.0	20.3	

〈부표 3-166〉 계층별 세금 수준 (5) 중자산층

(단위: %)

구분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X ² (df)
전체		2.8	22.4	52.9	19.7	2.2	
성별	남성	2.7	21.6	51.4	21.5	2.7	14.301(4)**
	여성	2.8	23.3	54.4	17.9	1.6	
연령	20대 이하	2.1	23.2	55.7	17.8	1.2	25.612(16)
	30대	3.7	23.4	52.3	19.4	1.2	
	40대	3.3	21.8	51.5	20.3	3.0	
	50대	3.2	22.5	51.9	19.4	3.0	
	60대 이상	1.7	21.6	53.2	21.2	2.2	
지역1	수도권	2.8	23.5	55.9	16.7	1.1	48.396(4)****
	비수도권	2.8	21.3	49.8	22.9	3.3	
지역2	대도시	2.0	22.1	58.7	15.8	1.5	104.996(8)****
	중소도시	3.7	24.0	48.9	21.3	2.1	
	농어촌	1.1	14.6	47.4	30.9	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	20.8	43.3	31.3	3.9	126.578(12)****
	중하층	2.2	20.7	53.4	21.4	2.4	
	중간층	3.3	25.0	55.2	14.9	1.6	
	중상층(상층)	8.4	15.5	55.1	20.0	1.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5	24.1	51.2	20.6	2.6	61.182(16)****
	200만 원대	5.2	20.2	53.9	18.6	2.1	
	300만 원대	1.9	22.5	53.2	20.6	1.7	
	400만 원대	1.3	23.6	55.3	16.5	3.3	
	500만 원 이상	5.2	19.3	55.5	19.4	0.7	
학력	중졸 이하	0.8	15.9	53.2	26.2	3.8	57.679(8)****
	고졸	1.9	22.5	52.9	20.2	2.5	
	대졸 이상	4.1	24.1	52.8	17.6	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1	22.8	53.4	19.0	1.7	52.657(20)****
	임시·일용직	5.7	20.9	52.0	19.7	1.8	
	고용주, 자영자	2.5	19.4	53.0	21.7	3.5	
	무급가족종사자	2.9	16.6	47.7	27.6	5.2	
	실업자	1.3	16.9	54.9	25.0	1.9	
	비경제활동인구	1.5	26.1	52.5	17.9	1.9	
직업	관리자, 전문가	7.3	21.4	53.2	16.3	1.8	61.56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5	23.0	52.7	19.2	1.6	
	숙련 및 기술직	0.9	15.8	54.3	24.5	4.6	
	단순노무 종사자	1.0	22.0	50.7	23.3	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	23.0	53.3	19.1	1.6	1.347(4)
	비정규직	2.3	22.4	55.0	18.3	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	22.6	51.8	20.1	2.8	14.749(8)
	중도적	2.3	23.8	52.7	19.4	1.8	
	진보적	3.8	19.1	54.9	20.1	2.1	

〈부표 3-167〉 계층별 세금 수준 (6) 저자산층

(단위: %)

구분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지나치게 낮다	X ² (df)
전체		4.5	23.9	55.8	12.7	3.1	
성별	남성	3.6	24.2	56.3	12.3	3.7	11.217(4)*
	여성	5.3	23.6	55.3	13.1	2.6	
연령	20대 이하	2.8	21.6	58.3	14.6	2.7	34.802(16)**
	30대	4.8	22.9	56.3	13.2	2.8	
	40대	3.7	24.0	54.1	14.9	3.2	
	50대	6.9	23.7	54.6	11.3	3.5	
	60대 이상	3.9	26.4	56.0	10.3	3.3	
지역1	수도권	6.9	22.4	55.5	12.7	2.6	62.458(4)***
	비수도권	1.9	25.5	56.1	12.7	3.7	
지역2	대도시	3.2	18.8	57.1	16.4	4.5	95.583(8)***
	중소도시	5.7	27.3	54.6	10.1	2.3	
	농어촌	3.7	29.7	56.3	9.4	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	30.3	53.5	9.7	2.3	44.015(12)***
	중하층	5.4	23.6	55.2	12.3	3.6	
	중간층	4.2	21.9	57.2	14.0	2.7	
	중상층(상층)	0.3	27.9	53.3	11.6	7.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9	24.9	55.3	12.8	3.0	50.729(16)***
	200만 원대	5.5	24.8	57.1	11.0	1.6	
	300만 원대	3.2	18.3	60.0	14.8	3.7	
	400만 원대	6.4	26.6	51.7	12.9	2.4	
	500만 원 이상	5.2	24.8	51.3	12.3	6.4	
학력	중졸 이하	2.5	26.8	53.7	14.5	2.6	14.228(8)
	고졸	4.6	24.5	56.2	11.3	3.4	
	대졸 이상	4.9	22.6	56.0	13.6	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5	21.9	56.9	13.8	2.9	33.946(20)*
	임시·일용직	7.5	20.8	57.5	12.2	2.1	
	고용주, 자영자	4.2	26.7	53.6	11.6	4.0	
	무급가족종사자	2.4	35.5	52.0	9.0	1.1	
	실업자	2.2	27.5	54.6	11.5	4.2	
	비경제활동인구	3.8	24.7	55.5	12.6	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7.5	19.0	56.5	9.1	7.8	54.19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9	23.5	56.0	13.6	2.1	
	숙련 및 기술직	2.1	25.9	55.5	13.1	3.4	
	단순노무 종사자	7.6	23.1	55.6	11.6	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	22.4	56.5	13.7	3.0	5.167(4)
	비정규직	4.9	20.8	60.8	11.9	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6	23.5	54.5	13.0	3.5	26.616(8)**
	중도적	4.5	24.8	56.7	10.8	3.2	
	진보적	3.0	22.5	55.5	16.5	2.5	

4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부표 3-168〉 복지예산 관련 인식 (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나는 복지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X [*] (df)
전체		6.8	27.0	35.7	27.9	2.5	
성별	남성	8.0	25.4	34.9	28.0	3.7	34.606(4)***
	여성	5.7	28.7	36.6	27.8	1.3	
연령	20대 이하	5.1	24.9	39.9	27.4	2.8	78.644(16)***
	30대	4.8	28.3	33.6	32.6	0.7	
	40대	6.6	22.0	35.5	31.9	4.1	
	50대	8.5	26.6	34.9	26.7	3.2	
	60대 이상	8.3	32.2	35.2	22.8	1.5	
지역1	수도권	6.2	27.1	33.8	29.9	3.0	16.977(4)**
	비수도권	7.5	26.9	37.8	25.8	2.0	
지역2	대도시	4.4	31.4	39.3	22.8	2.0	97.230(8)***
	중소도시	8.9	24.4	31.8	32.0	3.0	
	농어촌	7.0	20.5	41.6	29.1	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2	31.1	29.8	20.1	3.8	122.271(12)***
	중하층	5.8	28.9	38.3	25.3	1.8	
	중간층	4.9	24.3	36.2	32.0	2.7	
	중상층(상층)	9.7	27.5	28.5	31.7	2.7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8.3	28.5	35.7	24.8	2.7	55.427(16)***
	200만 원대	6.2	28.7	36.6	27.8	0.7	
	300만 원대	5.0	25.6	35.0	32.3	2.2	
	400만 원대	4.5	24.0	36.0	31.9	3.6	
	500만 원 이상	7.0	22.3	35.1	30.7	5.0	
학력	중졸 이하	10.5	34.3	35.9	18.1	1.2	70.258(8)***
	고졸	6.5	29.6	35.0	26.1	2.9	
	대졸 이상	6.2	22.7	36.4	32.2	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0	25.3	35.2	31.1	2.4	42.188(20)**
	임시·일용직	6.5	33.1	32.8	24.3	3.2	
	고용주, 자영자	5.9	25.4	36.6	29.7	2.5	
	무급가족종사자	9.5	29.0	37.1	24.4	0.0	
	실업자	7.9	23.1	44.4	21.2	3.5	
	비경제활동인구	8.5	28.9	35.5	24.8	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9.3	22.2	34.7	29.5	4.3	45.57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1	27.6	35.5	29.6	2.3	
	숙련 및 기술직	6.9	21.4	37.8	31.3	2.6	
	단순노무 종사자	8.2	40.5	26.6	24.0	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6	25.0	35.2	31.8	2.4	18.090(4)**
	비정규직	7.8	32.4	33.2	23.5	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	30.6	34.5	22.9	2.1	102.291(8)***
	중도적	6.8	27.5	36.3	27.8	1.6	
	진보적	3.1	21.4	36.0	34.5	5.0	

〈부표 3-169〉 복지에산 관련 인식 (2) 복지에산을 부담하면 나에게 그만큼의 복지에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X ² (df)
전체		7.6	29.3	35.8	24.8	2.4	
성별	남성	8.3	30.3	32.8	26.1	2.5	17.046(4)**
	여성	7.0	28.2	39.0	23.5	2.4	
연령	20대 이하	7.3	28.2	38.1	22.9	3.5	37.957(16)**
	30대	10.2	29.3	33.6	26.1	0.8	
	40대	7.0	31.4	32.3	26.5	2.7	
	50대	8.9	27.7	36.6	23.9	3.0	
	60대 이상	5.5	29.7	38.0	24.7	2.0	
지역1	수도권	9.8	30.2	34.3	23.7	2.0	34.725(4)***
	비수도권	5.4	28.3	37.5	26.0	2.8	
지역2	대도시	7.0	32.5	38.1	20.7	1.8	48.101(8)***
	중소도시	8.3	27.6	33.9	27.6	2.6	
	농어촌	7.1	23.0	36.0	29.7	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	36.3	34.3	19.6	3.4	41.496(12)***
	중하층	8.0	30.7	35.8	23.5	2.0	
	중간층	7.3	26.1	37.1	27.1	2.4	
	중상층(상층)	12.1	29.1	27.5	28.4	3.0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6.5	29.4	37.9	23.8	2.4	28.405(16)*
	200만 원대	8.3	30.3	36.0	23.2	2.4	
	300만 원대	7.5	26.4	35.2	28.4	2.4	
	400만 원대	7.4	33.3	29.4	26.4	3.5	
	500만 원 이상	11.2	28.3	33.1	25.5	1.8	
학력	중졸 이하	7.1	33.6	34.4	23.2	1.7	21.527(8)**
	고졸	6.8	29.9	38.1	22.8	2.3	
	대졸 이상	8.6	27.6	34.0	27.2	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9.6	27.3	34.6	26.2	2.3	37.630(20)*
	임시·일용직	5.5	32.8	36.5	21.2	4.0	
	고용주, 자영자	6.2	30.7	34.6	26.4	2.1	
	무급가족종사자	4.5	29.4	35.0	29.4	1.7	
	실업자	7.1	29.3	32.0	27.7	3.9	
	비경제활동인구	6.9	29.6	39.0	22.4	1.9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0	26.1	31.9	25.0	2.0	42.86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5	29.1	36.5	24.4	2.4	
	숙련 및 기술직	4.8	28.2	34.4	29.4	3.2	
	단순노무 종사자	7.4	37.7	26.4	26.6	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	27.2	34.3	27.0	2.2	9.014(4)
	비정규직	8.8	32.0	35.9	20.5	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	31.9	35.0	22.1	1.9	32.549(8)***
	중도적	7.5	28.7	37.5	24.1	2.2	
	진보적	6.2	27.2	33.1	30.0	3.6	

〈부표 3-170〉 복지에산 관련 인식 (3)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에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df)
전체		4.4	24.9	41.7	26.4	2.6	
성별	남성	4.7	24.3	39.2	28.5	3.3	22.956(4)***
	여성	4.1	25.6	44.3	24.2	1.8	
연령	20대 이하	5.1	20.2	45.5	26.5	2.7	60.131(16)***
	30대	3.9	24.3	42.8	25.3	3.6	
	40대	4.0	21.4	43.3	27.0	4.3	
	50대	4.3	26.5	38.0	29.8	1.4	
	60대 이상	4.7	30.3	40.1	23.6	1.2	
지역1	수도권	4.4	24.4	40.9	27.8	2.5	4.259(4)
	비수도권	4.5	25.4	42.5	24.9	2.7	
지역2	대도시	3.4	26.6	44.1	23.9	1.9	49.569(8)***
	중소도시	5.0	24.8	38.1	28.8	3.3	
	농어촌	6.0	16.8	51.0	25.0	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	29.4	41.3	19.7	1.7	82.667(12)***
	중하층	4.0	28.9	42.1	22.7	2.3	
	중간층	3.7	20.5	42.1	30.9	2.9	
	중상층(상층)	4.8	23.7	35.7	32.3	3.4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5.5	25.4	42.4	24.6	2.1	63.666(16)***
	200만 원대	3.7	26.8	44.5	23.3	1.6	
	300만 원대	3.4	24.6	41.6	27.5	2.9	
	400만 원대	3.7	22.8	34.8	32.2	6.6	
	500만 원 이상	3.7	21.1	38.1	34.4	2.8	
학력	중졸 이하	6.9	32.0	41.1	18.5	1.4	75.064(8)***
	고졸	4.6	26.6	41.9	25.5	1.4	
	대졸 이상	3.5	21.4	41.7	29.4	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7	22.1	42.3	28.7	3.2	31.205(20)
	임시·일용직	5.2	28.8	38.5	25.1	2.3	
	고용주, 자영자	4.7	27.5	40.2	25.7	1.9	
	무급가족종사자	9.0	16.6	50.4	22.5	1.4	
	실업자	4.7	21.6	45.8	24.6	3.3	
	비경제활동인구	4.6	26.5	42.1	24.6	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4.2	19.1	42.9	29.8	4.0	32.06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	25.4	40.8	27.0	2.7	
	숙련 및 기술직	4.4	20.9	44.5	27.9	2.2	
	단순노무 종사자	7.0	36.5	33.5	22.2	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	21.9	41.8	29.6	3.3	16.626(4)**
	비정규직	6.0	27.5	40.7	23.8	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2	28.8	39.4	23.7	1.9	81.678(8)***
	중도적	3.9	25.2	44.5	24.4	2.0	
	진보적	3.4	19.3	38.2	34.4	4.6	

〈부표 3-171〉 복지예산 관련 인식 (4)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지 예산을 더 부담할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X ² (df)
전체		3.8	22.3	42.4	28.4	3.1	
성별	남성	4.6	22.4	39.6	29.7	3.6	22.155(4)***
	여성	2.9	22.2	45.3	27.1	2.5	
연령	20대 이하	3.4	23.2	41.1	28.1	4.2	55.585(16)***
	30대	4.7	18.9	47.5	25.8	3.2	
	40대	3.2	20.1	39.7	32.5	4.4	
	50대	4.9	20.8	43.1	28.2	3.0	
	60대 이상	2.8	27.2	41.5	27.4	1.1	
지역1	수도권	4.0	20.2	43.2	30.1	2.4	19.337(4)**
	비수도권	3.5	24.6	41.6	26.7	3.7	
지역2	대도시	2.4	23.7	48.3	23.1	2.5	83.999(8)***
	중소도시	4.7	22.2	36.8	32.8	3.6	
	농어촌	5.3	16.4	46.0	29.6	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	26.6	43.9	21.4	2.9	98.724(12)***
	중하층	3.2	27.1	42.3	24.7	2.7	
	중간층	3.6	17.7	43.1	32.6	3.0	
	중상층(상층)	5.9	17.3	30.9	37.9	7.9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3.3	25.2	41.7	27.2	2.6	48.053(16)***
	200만 원대	4.3	21.5	45.4	26.1	2.6	
	300만 원대	4.0	19.9	45.6	27.1	3.4	
	400만 원대	4.0	18.7	42.0	30.8	4.6	
	500만 원 이상	4.1	19.0	34.4	38.5	4.0	
학력	중졸 이하	4.0	31.1	42.1	22.2	0.6	71.331(8)***
	고졸	3.4	24.4	42.5	27.5	2.2	
	대졸 이상	4.0	18.1	42.4	31.0	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4	18.9	42.9	30.4	3.5	41.337(20)**
	임시·일용직	4.1	25.1	45.5	22.4	2.9	
	고용주, 자영자	3.3	24.3	41.4	28.2	2.7	
	무급가족종사자	9.5	17.0	40.6	31.2	1.7	
	실업자	3.4	27.6	35.9	29.0	4.1	
	비경제활동인구	2.7	24.1	42.4	28.1	2.6	
직업	관리자, 전문가	7.9	17.5	38.6	32.3	3.7	29.85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6	21.4	44.3	27.6	3.1	
	숙련 및 기술직	3.3	21.6	40.9	30.2	3.9	
	단순노무 종사자	5.1	26.5	41.5	26.5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	18.2	42.8	31.0	3.7	28.266(4)***
	비정규직	3.8	28.3	42.9	23.6	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	25.7	41.4	26.7	2.5	54.219(8)***
	중도적	4.0	22.4	44.2	27.2	2.2	
	진보적	3.3	17.9	39.5	33.5	5.8	